제 1 부

제 1 장

음산한 가을날이였다. 먹장구름이 찬비에 젖은 지붕을 스칠듯 와르샤와상공을 낮추 떠갔다. 휘몰아치는 바람은 황이 들기 시작한 나무잎사귀들을 떨어뜨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텅빈 정원과 공원의 가로수길로 몰아갔다. 외로운 행인들은 추위에 몸을 웅송그리고 총총히 걸어갔다. 갈매기들은 구슬피 울며 위슬라강상공을 날아갔다. 늦가을의 쓸쓸한 계절이 다가온것이다.

와르샤와폭동이 진압된 후 고통스러운 3일간이 지나갔다. 와르샤와의 오른쪽기슭에 자리잡은 도시는 조용하였다. 지뢰도 터지지 않았고 기관총, 자동보총, 보총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포격소리도 멎어버렸다. 그러나 이따금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 주민지대와 극장, 궁전과 고대사원들 그리고 와르샤와의 왼쪽강기슭에 즐비한 귀중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이것은 도이칠란드공병들이 뽈스까의 수도를 파괴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집행하느라 도시를 한구간한구간 계획적으로 폭파시키는것이였다.

붉은군대와 뽈스까부대들은 전투를 하면서 벨라루씨산림으로부터 서쪽으로 550～600키로메터 진출하여 1944년 여름작전을 끝내고 방어에로 넘어갔으며 1944～1945년의 결정적인 겨울작전을 준비하고있었다. 공병들은 도로를 건설하고 새로운 보루들을 축성하였으며 수송부대들은 전선에 전투기재와 무기, 식료품과 동복을 실어날랐다. 후방에서 도착한 새 보충병들은 개별군부대와 련합부대들에 배속되여 공장콘베아에서 전선으로 곧장 날라온 신형무기사용법을 배우고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있었다.

부르-꼬마롭스끼장령의 지휘하에 일어났던 와르샤와폭동이 진압되자 위슬라강을 도하해온 쏘련빨찌산들은 우선 먹고 목욕을 하

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환자들과 부상병들은 입원시키고 그 나머지는 림시병영생활에 들어갔다. 빨찌산부대들은 자기 활동구역이 해방되면 흔히 해산되고 초모년령의 대원들만 붉은군대 정규군에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여 당 및 행정간부대렬을 보충하는것이 상례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쏘련빨찌산 제1국제부대의 성원들은 다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 부대는 타국령토에서 파시스트놈들과의 전투를 장기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고 지방주민들과의 사업에서 필요한 경험을 체득하고있었다. 이런 귀중한 경험은 앞으로 뽈스까와 체스꼬, 슬로벤스꼬, 마쟈르에서 도이췰란드강점자들을 종국적으로 몰아내는 전투에서 꼭 필요한것이다. 그러므로 쏘련빨찌산운동본부는 뚜르하노브부대를 독립적인 전투단위로 보존하라고 지시했다. 부대의 지휘관, 전투원들은 이 결정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이 부대의 모든 작전을 직접 작성하고 수행해온 빨찌산운동본부대표 바르쑤꼬브장령은 만족하였다. 뚜르하노브부대 대원들(본부에서는 쏘련빨찌산 제1국제부대를 그렇게 불렀다.)에게 특별히 제기되는것은 없었다. 다만 장령을 불안케 한것은 부대지휘관 뚜르하노브가 부대와 함께 위슬라강을 도하하지 않고 원인모르게 실종된것이였다. 상급의 지시를 언제나 엄격히 지키던 규률있는 지휘관으로 그를 알고있는 장령은 뚜르하노브가 불가피한 사정이 없이 자의로 저쪽 강안에 남았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틀림없이 그 사람한테 뭔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것이다.) 하고 장령은 생각하였다.

뚜르하노브가 지체하게 된 진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바르쑤꼬브는 도하에 참가했던 모든 빨찌산들을 다 만나보았다. 의견이 각이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도이췰란드경비정과 교차사격을 할때 죽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부상을 당하고 물속에 뛰여들어 가라앉았다고 했다. 쏘꼴로브중위만은 의견을 달리했다.

《뚜르하노브는 살아있습니다.》 중위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물속에 빠져죽지도 불에 타죽지도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있을겁니다. 장령동지, 저에게 믿음직한 몇동무들과 함께 밤에 저쪽 강안으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를 찾아내여 아침에 여기로 데려다놓겠습니다.》

장령은 허락하지 않았다.
《왼쪽강안은 온통 도이칠란드놈들로 꽉 차있소. 준비없이 그곳에 뛰여드는것은 락하산없이 비행기에서 뛰여내리는것과 같소. 우리에겐 공연히 모험을 할 권리가 없소. 모든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기다릴수도 있습니다. 허지만 지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전투정황에서는 때로 날이나 시간이 아니라 분과 초에 의해 문제가 결정된다는걸 아시지 않습니까.》
쏘꼴로브는 도무지 진정하지 못했다.
《아무튼 서두르진 맙시다. 뚜르하노브를 돕자면 그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하오. 아직은 이것부터 알아봅시다.》
그들은 뚜르하노브의 종적을 한주일이상 수색했다. 저쪽 강안에서 아직도 도하해오는 뽈스까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도청한 도이칠란드무전문들을 면밀히 연구해보기도 했으며 적의 전화도청조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포로들을 심문하고 적의 신문들도 뒤졌다. 그러나 뚜르하노브에 대한 보충자료들은 아무것도 걷어쥐지 못했다.
《아무런 방도가 없군.》 바르쑤꼬브는 한숨을 지었다. 《행방불명자명단에 뚜르하노브를 등록하는수밖에…》
《물론 등록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를 기어이 찾아내고야말겠습니다. 그리고 모든걸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영웅은 행방불명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쏘꼴로브가 말했다.
《찾아낸 다음에는 어찌겠소?》 장령이 중위를 지켜보았다. 《혹 적의 포로로 잡혔을수도 있지 않소?》
《포로에서 빼내겠습니다.》 젊은 중위가 자신있게 말했다. 《장령동지가 이 사업을 도와주리라고 믿습니다.》
바르쑤꼬브는 생각에 잠기였다. 그의 눈앞에는 훌륭한 인간인 뚜르하노브의 곡절많은 생애가 펼쳐졌다. 기병학교에서의 근무, 에스빠냐공민전쟁에서 세운 위훈, 프랑끄감옥에서의 탈주, 동맹국 3거두의 테헤란회의때 근동에서 도이칠란드교란자들을 반대하여 벌린 성공한 작전… 그는 모든 일에서 거듭 성공하였다. 과연 그의 생애가 위슬라강변에서 끝났단말인가?

《동무의 의견에 나도 찬동하오.》 장령이 말하였다. 《뚜르하노브가 정말 불행에 빠졌다면 그를 빼냅시다. 그가 정말 파시스트의 손에 들어간것 같소. 그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만 하면 제일 믿을만하고 우리 사업에 충직한 동무들로 별동대를 무어 떠나보냅시다. 별동대 대장은 동무에게 위임하오. 별동대를 편성하여 훈련을 주어야 하겠소. 면밀히 준비시킨 후에 우리의 귀중한 동지가 감금되여있는 지역에 락하시키도록 해야겠소. 내가 그 동무 있는 곳을 알아내는동안 동무는 적당한 동무들을 물색해보오. 빨찌산대원들속에서 한 열명 선발하시오. 나머지 성원은 포로들속에서 찾아보아야겠소.》

《도이췰란드사람들을 말입니까?》

《그렇소. 이전에 도이췰란드군에 복무한자로서 반드시 도이췰란드인이 아니라도 되오. 체스꼬사람, 슬로벤스꼬사람, 오스트리아사람 그리고 도이췰란드사람들도 필요되지. 반파쑈포로조직 지도자들과 련계를 가져보오. 나치스를 증오할뿐만아니라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울 각오가 된 사람들을 그들은 알선해줄거요.》

《아, 나의 충실한 벗들인 야니체크와 칼텐베르그가 지금 없는게 한스럽군요!》 쏘꼴로브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였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있게 될 전투에서 저에게 꼭 필요한 동무들입니다.》

《실망하지 마오.》 장령은 그를 진정시켰다. 《참된 동무들을 찾게 될거요. 될수록 공산당원이나 파시스트들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로 선발하시오.》

《그런즉 〈나치스천국〉의 모든 락을 맛본 사람들이란말이지요?》

쏘꼴로브가 미소를 지었다.

《인젠 동무의 개인문제를 놓고 이야기해보기요. 동무는 와르샤와에서 장가를 들었다면서?》 장령이 물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녀자는 뽈스까사람이고 어제부터 뽈스까군에서 복무합니다. 군대병원에서 일하게 될겁니다. 그러니 저의 개인문제는 모두 정상인셈이지요.》

《가족들을 찾아가볼 생각은 없소?》 장령은 중위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쏘꼴로브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의 상관을 불행에서 건져내기전에는 사사로운 일에 정신을 팔수 없습니다.》
《그 말이 옳소.》 바르쑤끄브가 그의 결심에 찬동하였다. 《그럼 일에 착수합시다.》

제 2 장

도이췰란드진지들을 향하여 불의에 퍼붓던 집중사격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그러자 새벽안개속에 고요가 깃들었다. 체르냐꼬브로부터 졸리보쥬에 이르는 뽈스까수도의 온 강안에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는듯한 정적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였다. 때아닌 폭풍을 만난 온갖 생물들이 제 구뎅이에 머리를 틀어박았다가 폭풍이 멎으면 기여나오듯이 숨었던 도이췰란드《용사들》이 포탄과 지뢰가 다 터지자 음페호에서 기여나오기 시작하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위생병들이 먼저 기여나왔다. 그들은 가슴에까지 스며드는 정적에 귀를 도사리고 부상병들의 웅글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들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강기슭까지 다가갔다. 축축한 모래밭에 세 사람이 거의 나란히 누워있었다. 도이췰란드군복을 입은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진것 같았고 가죽외투를 입은 또 한사람은 위생병들이 다가가자 저고리깃을 잡아헤치려고 했다. 그러나 손이 말을 듣지 않고 맥없이 모래바닥에 툭 떨어졌다. 이때 부상자는 《물.》하고 몇번 똑똑히 말했다.
《가만, 마르틴.》 한 위생병이 주의를 주듯 손을 쳐들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웅얼대나?》
《로씨야말을 하네. 물을 달라는것 같네.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 흥미있는걸.》 다른 위생병이 놀랐다.
《까민스끼려단사람일거야. 블라쏘브네 군대(제2차세계대전시기 도이췰란드에 투항변절한 이전 붉은군대장령 블라쏘브지휘하의 민족해방군—역자주)도 와르샤와폭동을 진압할 때 우릴 도왔네. 자, 어서 불을 비치게.》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손전지를 켰다. 환한 불빛이 뿌연 안개를 뚫고 시체처럼 얼굴이 창백한 사람을 비치였다. 그 사람은 의식이 없는듯 불빛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원 이런!》 도이췰란드위생병이 놀랐다. 《이 사람은 블라쏘브패가 아니라 진짜 붉은군대네. 훈장을 몇개나 달았는가 보라구. 이건 레닌훈장이라는거야. 이 사람들의 최고훈장이네. 이건 〈금별〉메달이구. 로씨야사람들은 이 메달을 영웅들에게 수여하네.》

마르틴은 부상자의 가죽외투자락을 헤치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었다.

《이보라구, 여기에도 또 훈장이 많네. 이거 호박이 떨어졌는걸! 우리 이걸 똑같이 나누어가지자구. 황금이야, 소용될게 아닌가. 그리고 신소가 제기되지 않도록 이 영웅을 쫘갈기세나.》

그가 자기 생각을 내놓았다.

《쫘갈길수도 있지.》

다른 위생병이 동의했으나 로씨야군인의 견장을 보더니 주저하였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을것 같네. 이 사람은 보통 병사가 아니라 대좌가 아닌가. 이 사람이 우리 지휘부에 필요하겠는지 누가 알겠나. 우리 처치소로 데려가세. 이 사람의 처리는 거기서 결정하라지.》

《좋을대로 하세.》 마르틴이 볼부은 소리를 했다.

그리하여 위생병들은 중상을 입은 뚜르하노브를(이 부상자는 바로 그 뚜르하노브였다.) 담가에 실어 야전병원으로 데려갔다.

도이췰란드야전병원 외과에서는 그날밤 의사 흘레밍그와 간호원 엘리자베스 슈톡크만이 수직을 섰다. 이 사람들이 뚜르하노브의 운명을 결정지을판이였다. 이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1920년대말과 1930년대전반기에 각국 의학잡지들에는 저명한 오스트리아의 외과의사인 윈종합대학교수이며 대영제국궁중학회 명예회원이며 여러 나라 과학원 명예원사이며 의학박사인 에리크 흘레밍그가 심장과 페의 수술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글이 자주 실리군하였다. 그의 수술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는 평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다. 오스트리아사람들은 그를 자랑으로 삼았다. 그러나 오

스트리아가 파시스트도이췰란드에 강제로 병합된 1938년부터는 그의 명성이 급작스레 떨어지기 시작했다.

흘레밍그교수는 정치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정치활동과 과학활동은 량립할수 없다고 확신하고있었다. 그러나 강제병합이후에 그는 본의아니게 정치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어갔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파시스트들은 그의 연구소부속병원의 유태인출신 의사, 간호원들을 모조리 내보내라고 그에게 강요하였다. 그는 자기 조수들을 민족별 출신이 아니라 자질에 의하여 선발했노라고 주장하면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시스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흘레밍그는 자기를 계속 성가시게 굴면 퇴직하고말겠다고 위협하며 그들의 요구를 일축해버렸다. 그러나 짐작할수 있겠지만 이 싸움에서 파시스트들이 승리했다. 교수의 일부 조수들은 곧 수용소에 감금되고 나머지는 외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때부터 이 완고한 교수를 《빨갱이》라고 하며 각종 회의와 과학토론회에도 참가시키지 않았고 외국에도 내보내지 않았으며 외국에서 온 동료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신문, 잡지에서 그에 대한 글이 자취를 감추고 외과학리론과 림상에서 거둔 그의 성과와 업적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침묵을 지키였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학자가 걸음마다 랭대를 받았다. 외과학회도 파시스트들의 강요로 다음기의 부회장선거에서 그를 락선시키였다.

그러나 교수의 일감은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더 늘어갔다. 어느 파시스트두목들이 중요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생기면 그들은 파시즘을 쉽게 받아들여 자기 활동에서 과학이 아니라 인종론에 의거하기 시작한 자기 동료들을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흘레밍그의 병원에 오려고 애를 썼다. 이 사실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였다. 아무리 철저한 히틀러도당이라고 하더라고 죽고싶은 사람은 없는것이다. 만일 의사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비록 대상이 반파쑈분자일지라도 유능한 의사의 치료를 받으려고 할것이다.

1939년 히틀러가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도이췰란드의 많은 의사들은 초모되여 군대병원들에서 일했다. 흘레밍그박사도 거기서 제외될수 없었다. 그도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군의대좌칭호를 받고 어느 한 군대병원의 외과주임의사로 임명되였다. 거기서 그는 거의 4년동안 근무하였다. 그 기간에 그는 흉부외과학분야에서 눈

부신 성과를 이룩했다. 이 비상한 명의의 손으로는 보통 수술칼도 기적을 창조하군하였다. 흘레밍그의 고심어린 활동에 의하여 죽음을 면할길 없었던 수십명의 중환자들이 목숨을 건졌을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대오로 돌아갔다. 흘레밍그교수의 수술대에는 사령부가 중시하는 륙해군의 고급장교들이 오른다는것을 고려할 때 외과의로서의 흘레밍그의 가치는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교수는 나치스사상에 끝내 동조하지 않았고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숨기려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의 지도자들은 마지막시기까지 그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4년에 이르러서는 상부에서도 더는 참을수 없게 되였다. 교수의 반파시즘적인 발언들이 도이췰란드국방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패배주의적선동으로 인정되여 흘레밍그는 동부전선으로 추방되였다.

이 걸출한 인간의 운명에서 간호원 엘리자베스 슈톡크만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해야 할것이다. 얼굴이 새처럼 조그맣고 재빛눈만 표독스레 번뜩이는 빼빼마른 이 녀인은 바바리아태생이였다. 담배가게주인인 그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뮨헨에서 살고있었다. 아버지는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바덴부근에서 전사했다. 엘리자베스의 남편은 에스빠냐에서 공화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폭도들의 편에 서서 싸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카이제르군 소좌의 미망인인 그의 어머니는 딸을 다른 민족에 대한 증오사상으로 교양했다. 《너의 아버지는 프랑스놈들이 죽였고 너의 큰 오빠가 탄 잠수함은 영국놈들이 물속에 가라앉혔어. 그리고 삼촌은 로씨야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했지. 너의 둘째오빠는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태놈들의 비방중상에 못이겨 자살하지 않으면 안되였단다.》 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상기시키였다. 《유럽인들은 어느 민족이건 도이췰란드사람들을 다 증오한다. 그놈들을 바퀴새끼처럼 박멸하지 않는 한 우린 살수 없어. 얘야, 이걸 명심하고 우리 민족의 원쑤들을 복수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엘리자베스는 이 말을 잊지 않았다. 더우기 비행사였던 그의 남편이 에스빠냐의 상공에서 국제려단추격기들에 의하여 격추되였다는 검은 테를 두른 사망통지서를 받은 후 그 녀자는 다른 민족들을 더욱 미워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 녀자는 적들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증오하는것

만으로는 부족하니 직접 그 싸움에 참가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목적으로 엘리자베스는 민족사회당에 입당하였다. 그때 파쑈도이췰란드에서는 유럽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현대적이고 대규모적인 군대를 구도이췰란드국방군에 기초하여 개편하는 사업이 급속히 벌어지고있었다. 군대에 입대하라는 호소에 속속 호응해나섰다. 그때 지방병원 외과에서 상급간호원으로 일하고있던 엘리자베스도 자원하여 군대에 입대하였고 윈주둔군대병원에서 같은 직무로 일하게 되였다.

나치스사상에 대한 그의 신봉과 충성은 곧 새로운 상관들의 눈에 띄웠다. 군인들모두가 그런 충성심을 지닐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내의 군국주의선전에 불만을 품고있었기때문에 파시스트들은 엘리자베스와 같은 열성자를 놓치지 않고 자기들의 추악한 활동에 끌어넣었다. 그리하여 그는 게스타포의 유급밀정으로 되였다. 그는 병원성원들을 감시하며 정치적으로 불건전한 인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통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한달도 채 못되여 동료들속에서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두 의사가 련이어 병원에서 철직되고 《맑스주의전염병》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한 간호원이 게스타포감방에서 이슬로 사라졌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엘리자베스는 첩보활동의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되였다. 활동을 시작한 초기에는 남의 말을 엿듣는 소극적인 활동에 만족하였다면 그후에는 상대자들을 반파쑈적인 대화에 끌어넣어 상관에게 밀고하는 길로 점차 들어섰다. 자신을 가장 인도주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는 의사들속에 히틀러도이췰란드의 현존체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특별히 많다는것을 언급해야 할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불만을 숨겼으나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믿고 터놓고 말하였다. 엘리자베스는 상대자의 위험천만한 언사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의 신임을 얻어 속에 묻어둔 비밀을 뽑아낼줄 알았다.

엘리자베스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여 1941년에는 공식적으로 상급간호원으로서, 비공식적으로는 첩보원, 밀정으로서 흘레밍그교수에게 배속되게 되였다.

파시스트들에게 경험있는 외과의가 그처럼 요구되지 않았던들 자제력이 부족한 교수에게는 큰변이 미칠번하였다. 그러한 사정때문에

교수가 체포나 형벌을 면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교수는 자기의 값을 알고있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자기 수술대에는 중상당한 대좌, 장령들이 밀려들것이니 자기 신상의 위험을 놓고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수는 대상을 파악하지 못한바는 아니였으나 엘리자베스에게 자기의 속생각을 숨기지 않았으며 때로는 자신도 감히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위험한 발언을 함으로써 그 녀자의 지나친 호기심을 비웃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매사에 언제건 끝장이 있는 법이다. 파시스트상관들의 참을성에도 한도가 있었다. 쏘련땅인 벨라루씨와 뽈스까동부에서 가렬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던 1944년에 그는 상부의 지시로 와르샤와에 있던 한 군대병원으로 전근되였다.

흘레밍그는 자기를 전선병원으로 보낸다는 소식을 아주 태연하게 받아들이였다.

(난 게스타포주구의 감시를 받으면서 사는데 싫증이 났다. 전선에 가면 다소 자유로울수 있겠지. 잠시나마 엘리자베스에게서 해방될테니까.)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런데 와르샤와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죽도록 싫증이 난 엘리자베스가 곁에 앉는것을 보게 되였을 때 그 놀람이 얼마나 컸겠는가.

《참 기가 막히군!》 교수는 자기의 실망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나는 불건전한 정치적견해때문에 사지판으로 가지만 당신이야 그런 결함도 없는것 같은데 무슨 잘못으로 그 사지판으로 가게 되였소?》

《교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엘리자베스가 나무라듯 머리를 저었다. 《전선에 보내는게 처벌은 아니지요. 그래 야만들의 침공으로부터 자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총통앞에 지닌 자기 임무를 거기서는 수행하지 못한단말인가요? 전 전선부대에 갈것을 스스로 탄원했어요.》

흘레밍그는 비웃는 눈길로 그 녀자를 쳐다보았다.

《오, 나의 천사여, 당신은 참으로 행복하오. 당신은 자기 총통을 위해 죽게 될테니까. 그런데 제발 좀 말해주오. 난 무엇때문에 나의 불행한 목숨을 바쳐야 하오?》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위대한 총통을 위해 죽어야지요.》 파시스트 신봉자가 엄숙히 선언하였다.

《설명해주어 감사하오.》 교수는 우습강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다행히도 인제야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였군. 엘리자베스부인, 당신도 그렇게 죽겠소?》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허세를 부리기는 하였지만 반항적인 교수의 뒤조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전선에 보내달라고 게스타포에 《자원》한 때부터는 마음이 불안하였고 죽음에 대하여 생각만 하면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교수에게서 고개를 돌려 그렇듯 친근한 《만년대계의 도이췰란드제국》의 농촌과 도시들을 시창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심란한 기분상태를 눈밝은 교수에게 감출수는 없었다. 흘레밍그는 그 녀자의 살눈섭에 맺힌 커다란 눈물방울을 보았다.
(아니, 치마입은 용사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위대한 총통을 위해 죽기는 싫단말이지? 할수 없지. 이를 동정하는수밖에. 죽음의 할미가 아직은 눈앞에 얼씬거릴뿐이지만 이제 진짜로 죽음의 할미가 뼈만 앙상한 손을 내밀 때면 네가 뭐라고 지껄이는가 어디 두고보자.)
반시간쯤 지나갔다. 교수는 떠나올 때 가지고온 외과학회가 발간한 최근 잡지를 탐독하고있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의 분통을 터뜨렸다.
《놀라운데요.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책을 읽을수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투덜거렸다.
《습관이요. 아가씨, 습관이요. 나는 한평생 수난자들을 구제할 일념으로 부지런히 지식을 쌓아왔소. 총통을 위해 죽으라고 나를 보냈다는 리유만으로는 나의 이 습관을 버릴수 없소.》
간호원은 증오에 차서 교수를 흘겨보았다.
《교수님이 저를 증오한다는건 알고있어요. 근무시에는 정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수 있을거예요. 허지만 지금이야 근무중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이나마 저를 녀자로서 친절히 대해주었으면 해요. 전선에 가면 정말 피할길 없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을가요?》
엘리자베스가 변한 목소리로 물었다.
《죽음은 어디서나 도이췰란드사람들을 뒤따르고있소. 깊은

후방에서도 마음을 놓을순 없소. 련합군비행기들이 거의 매일 밤 도이췰란드상공에 나타나고있소. 고사포 쏘는 소리와 폭탄터지는 소리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까지 잃고있소. 그렇지만 불행을 원망해서는 안되지.》
《교수님은 한평생 지식을 쌓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식가운데는 전선에서 죽음을 피할수 있게 하는 그런 지식도 있겠지요. 전 이제 겨우 서른한살이예요. 전 더 살고싶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세요.》
 흘레밍그는 엘리자베스에게 기회가 생기면 포로로 되라고 권고하고싶었다. 전쟁에서 생명을 건질수 있는 길은 포로로 되는 경우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게스타포밀정에게 이런 충고를 하면 자기자신에게 큰 화가 미칠수 있었으므로 그는 입을 다물고있었다.
《말씀해주세요. 로씨야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몹시 증오할가요?》 엘리자베스는 도무지 진정할수가 없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녀자들도 용서하지 않을가요?》
《무엇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곱게 보고 어여삐 여겨 용서해주겠소?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의 집에 그렇듯 크나큰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준건 사실이 아니요. 그래 우리 병사들이 3년째나 그들의 밭과 남새밭을 파헤치고 도시와 마을을 불태우지 않았단말이요? 우리는 바람을 몰고갔다가 폭풍을 들쓰고 오는 꼴이 되였소. 이건 공정한 법칙이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우리 의료일군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전쟁에서 의사나 의료일군들은 전쟁의 법과 관례에 대한 제네바협정의 보호를 받게 되여있어요. 쏘련군대도 이 협정조항을 지켜야 해요.》
《기대를 가져봅시다.》 교수가 중얼거렸다.
《교수님, 빨찌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는가요? 그 사람들은 포로를 없애치운다고 하더군요. 그게 정말인가요?》
《모르겠소. 듣지 못했소. 허지만 그 사람들은 포로를 끌고다닐 여유가 없을것 같군.》
《의료인들은 어떻게 할가요?》
《그 사람들은 군복을 입은 도이췰란드사람들을 다 파시스트로 보오. 빨찌산들은 파시스트들을 지독히 증오하오.》

엘리자베스는 공포로 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리였다.

《아이구 무서워라!》 그 녀자는 몸을 떨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뽈스까에도 빨찌산이 있을가요. 아니면 빨찌산은 로씨야에서만 싸우는가요?》

《내 생각엔 뽈스까에도 빨찌산의 수효가 도이췰란드가 점령한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을것 같소. 최근에 나는 뽈스까에서 실어온 열두명의 중상자들을 수술한적이 있었소. 그중 여덟명은 빨찌산의 잠복에 걸렸고 두사람은 빨찌산의 지뢰에 다쳤고 두사람만이 쏘련추격기의 폭탄에 부상을 입었댔소.》

엘리자베스는 모든 수술에 참가하였기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수술환자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부상을 입었는가 하는것은 관심밖이였다.

빨찌산의 탄알을 피하기가 극히 어려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에야 그는 전선에 나갈것을 자원한것을 처음으로 후회하였다.…

쏘련군대대좌 뚜르하노브의 운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손에 쥐여지게 되였다.

당직간호원은 외과에 날라온 환자가 쏘련대좌라는것을 알자 위생병들에게 화가 나서 덤벼들었다.

《정신나갔소!》 간호원이 째지는 목청으로 소리질렀다. 《우리 병원에선 도이췰란드장교들만이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로씨야사람을 끌어왔군요. 그 사람을 당장 밖에 내다던져요!》

흘레밍그는 이때 자기 책상에 앉아 당직근무중의 외과사업보고서를 쓰고있었다.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사무실에서 나와 수술실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요?》

그는 환자를 도로 내가려는 위생병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우리가 로씨야대좌를 끌어왔는데 간호원이 밖에 내다던지라고 합니다. 우리도 저 사람을 발견한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에 훈장과 메달이 많은것을 보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찰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기때문에 우린 여기서 로씨야대좌의 의식을 회복시켜 필요한 곳에 넘겨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급인듯한 위생병이 애써 변명을 했다.

《옳게 행동했소!》 교수가 찬동했다. 《부상자의 문건들을 이리 주시오.》

위생병이 교수에게 한뭉치의 문건을 넘겨주었다. 교수는 문건들을 읽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쑤셔넣은 다음 곧 환자에게 달라붙었다. 맥박을 짚어보고 눈을 뒤집어보았으며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당장 수술해야겠소. 엘리자베스부인, 필요한 준비를 갖추시오!》 그는 간호원에게 엄하게 명령했다.

《그러나 교수님, 이 사람은 우리의 적인데 우리가 구원해주어야 합니까?》 간호원이 반대해나섰다.

《이러쿵저러쿵 시비하지 마시오!》 의사는 항의를 허락치 않는 강경한 어조로 간호원의 말을 밀막아버렸다. 《명령을 집행하시오!》

엘리자베스에게 아직 이런 본새로 이야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어리뻥뻥해지고 볼이 부어올랐으나 감히 거역할 엄두는 내지 못하였다. 게다가 게스타포에서는 비밀정보원들이 상급에게 불복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며 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을 상기한 그는 자기 상관의 지시를 수행하려고 덤벼쳤다.

뚜르하노브의 상태는 험악하였다. 탄알이 페를 관통하였으므로 흘레밍그가 아니라 다른 외과의라면 공연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물러날만큼 상처는 심하였다. 다행히도 흘레밍그교수는 난관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아니였다. 이런 복잡한 수술이 제기되면 그는 겁을 먹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새 힘을 냈으며 더 끈덕지게 일에 달라붙군하였다.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되여 그는 수술을 아주 성과적으로 끝냈다.

《엘리자베스부인, 수고했소. 조수일을 썩 잘해주었소.》

그는 수술을 끝내고나서 간호원을 칭찬해주었다. 《우리는 자기가 할 일을 했으니 그다음은 시간과 하느님이 결정하겠지. 저 사람에게 이젠 안정이 제일 필요하오. 그러니 저 사람을 독방에 눕히고 간호원 한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게 하시오.》

《무엇때문에 그런 특별대우를 해주시는지 모르겠군요?》

엘리자베스는 불쾌하여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후에 알고 지금은 내가 말한대로 하시오.》
엘리자베스는 복종하였다. 과학일군과 게스타포정보원간의 싸움에서는 언제나 전자가 이기였다. 그러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흘레밍그가 예측한대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일교대가 끝나자 곧 게스타포전권대표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다. 야간근무후에 교수는 휴식도 못하고 곧장 병원원장에게 불리워갔다. 원장실에 원장이외에 에쓰디장교가 또 한명 앉아있는것을 보고서야 교수는 자기가 어떤 주목대상으로 되였는가를 제꺽 알아차렸다. 아니나다를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자마자 대화는 곧 밤에 있은 비상사건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다.
《교수선생, 당신이 오늘 쏘련장교를 수술했다고 하던데 그게 옳습니까?》
원장은 게슴츠레한 눈으로 그를 응시하였다.
《수술만 해준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 장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다면서요?》
에쓰디장교가 덧붙였다.
《그렇지요. 중좌님, 교수는 도이췰란드병원에 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그 로씨야장교놈에게 특별대우조건까지 보장해주려고 마음을 쓰면서 그에게 독방까지 제공해주었단말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나는 정말 당신을 리해할수 없군요. 어쩌면 당신은 금지된 법을 무시하고 포로에게 특별대우를 해줄수 있소?》
원장은 점점 더 격해지면서 물었다.
이런 심문이 있을것을 예견한 흘레밍그는 필요한 대답을 미리 준비해두었다. 그러므로 그의 상관이 흥분해서 말했지만 그는 아주 태연하였다. 그의 상대자들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군대병원접수규정을 나는 잘 압니다. 또 그걸 잊어본적도 없습니다.》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허지만 례외가 없는 규정이란 없지 않습니까. 로씨야장교의 경우는 례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원장과 에쓰디장교는 서로 쳐다본 다음 교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디 설명해보시오.》

교수는 과학술어들을 란발하면 에쓰디장교가 문제의 본질을 리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뚜르하노브의 상처를 설명하는것부터 시작하였다. 결과는 바로 그렇게 되였다.

《더 간단히 할수는 없겠소?》 에쓰디장교가 부탁했다.

《보시는바와 같이 상처는 보통상처가 아니고 따라서 수술도 보통수술이 아니였습니다.》 교수는 에쓰디장교에게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대체로 페에 이와 같은 총상이 생겼을 때 사람은 소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도 유능한 외과의가 시설이 갖추어진 조건에서 수술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야전병원에서 이와 같은 총상은 무조건 치명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소. 야전병원조건에서 우리는 부상자에게 도움을 줄수 없는 때가 있었소.》 병원원장이 인정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상처를 입고 림종에 이른 환자를 야전병원조건에서 살려내는것이 오래전부터의 나의 숙망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총알이 페를 관통한 이런 경우에 맞게 리론과 림상학을 깊이 연구하여 이 수술진행방법을 일부 변경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제안한 수술방법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총통의 많은 군인들을 구원하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바와 같이 새로운 방법의 창안은 실천으로 확증되여야 합니다. 나는 자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던차에 적장교가 나의 새 방법실험에 요구되는 환자로 나타난것입니다.》

《그런즉 당신은 적을 실험용동물로 써먹겠단말인가요?》

원장이 흐뭇해서 웃었다.

《그렇게 된셈이지요.》 교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실험에 의해 적장교가 살아날수도 있지 않습니까?》

에쓰디장교가 주의를 주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자가 자기 대오에 다시 설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신이 나가지 않았소?》 에쓰디장교는 자제력을 잃고말았다.

《아, 오해하시는군.》 교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는 실험이 성공하는 경우에만 새 방법을 도입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나

를 좀 도와주시오.》 그는 병원원장을 보고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과학과 림상에서 새 길을 열어놓게 될것이고 죽을 운명에 놓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것입니다.》
원장은 많은 파시스트의 학자들이 그러하듯이 포로된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한두번만 승인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자신도 포로들을 실험용동물로 리용했었다. 그러므로 원장은 교수의 발기에 주저없이 동의하였다. 그러나 에쓰디장교는 인차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자체에는 조금도 우려할것이 없었지만 다른 점이 의심스러웠던것이다.
《뜨르하노브가 완쾌되면 당신은 그자를 어떻게 할 작정이요?》에쓰디장교가 물었다.
《포로수용소로 보내야지요.》 원장이 대답했다.
흘레밍그의 의견은 달랐다. 사실 교수는 뜨르하노브를 대상으로 아무런 실험도 하지 않았다. 그를 병원에 입원시킨것은 첫째로 인도주의에서 출발한것이고 둘째로는 파시스트들을 골려주자는것이였다. 자기의 대담한 행동이 긍정적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명백해진 지금에 와서 교수는 그 어느 창조자이든 다 그러하듯이 자기의 창조물인 로씨야인의 장래운명에 전혀 무관심할수 없었다. 뜨르하노브의 생명을 그는 자기 창조물로 간주하고있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마지막까지 보호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수가 말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의 덕택으로 목숨을 구원받게 됩니다. 례절있는 인간이라면 응당 우리를 고맙게 생각할겁니다.》
《안그럴거요.》 에쓰디장교가 의아해했다. 《로씨야사람들은 우리를 증오하오.》
《다 그런건 아니지요. 블라쏘브장군만 해도 그렇지요. 그래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란말이요? 모조리 한몽둥이로 칠수는 없을것 같소. 총통의 사상은 기적을 창조하고있지요. 뜨르하노브에게 총통의 사상을 알려주면 어떨가요?》
교수는 새로운 착상을 귀띔했다.
《누가 그 일을 맡아하겠소?》
《상급간호원이 할수 있지요.》
《엘리자베스부인말이요?》 원장은 믿을수 없다는듯 물었다. 《난

그 녀자에게서 선동원의 자질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소.》
《공연히 원장선생은 그 녀자의 재능을 과소평가하시는군요. 그는 나를 평화주의자로부터 도이췰란드제국의 애국자로 개조시켰습니다. 나는 그가 쏘련대좌를 개조시키는 과업을 능히 감당해낼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병원원장은 교수의 말투에 담긴 조소를 감촉하지 못한채 자기 생각에 골몰해있었고 에쓰디장교는 이런 섬세한 감정을 분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두사람은 교수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았다.
《중요한건 대좌의 대갈통에 우리 사상을 끊임없이 박아넣어주는 거요.》에쓰디장교가 훈시조로 씨벌였다. 《그자는 동맹국들의 힘을 믿지 않고 도이췰란드의 위력을 확신하게 될거란말이요. 그렇게 되면 그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틀림없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거요.》
교수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장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있던터라 엘리자베스가 간호원의 직무에서 떨어져 뚜르하노브와의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돌릴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제 3 장

뚜르하노브는 밤에야 의식을 회복했다. 그가 눈을 뜨고 처음으로 본것은 맞은쪽벽에 걸려있는 히틀러의 초상화였고 다음에는 자기에게 등을 돌려대고 돌아앉아 무슨 책인지 골똘히 읽고있는 흰 위생복차림의 녀인이였다.
그는 코를 찌르는 약냄새에 자기가 도이췰란드병원에 있다는것을 마침내 알게 되였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입안이 자꾸 말라들고 물을 몹시 마시고싶었다. 곁에 놓인 상에 물병이 있었다. 대좌는 물병을 잡으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신음소리를 들은 녀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로 달려왔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계세요.》녀인이 한손을 들어 주의를 주며 소곤거렸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자기 말을 리해했는지 알아보려고 대좌를 지켜보았다.

《물을 좀 주시오.》뚜르하노브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부탁했다.

그 녀인, 즉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도이췰란드말로 말하자 몹시 기뻐했다.

《잠간 기다리세요.》 녀인은 차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며 말했다.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먹여드리겠어요. 당신은 어린애이고 저는 당신의 유모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한 녀인은 차숟가락으로 환자에게 물을 떠먹이기 시작했다.

뚜르하노브는 자기 가슴에서 불이 이는듯싶었고 물을 마시면 그 불이 꺼질것만 같았다. 그는 차숟가락을 게걸스럽게 받아물며 끝없이 물을 마시려 하였다.

그러나 간호원은 그 정량을 알고있었다.

《이번엔 그만 마셔야 해요.》 간호원이 주의를 주었다.

《감사합니다.》 뚜르하노브가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곤난하지 않으시다면 내가 어떻게 되여 여기 오게 되였는지 말씀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자베스는 알고있는 모든것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상급의 의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뚜르하노브는 빨찌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지에 자기가 떨어졌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포로가 된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립무원한 상태에서는 탈주란 상상조차 할수 없다.

(내가 처한 상태보다 더 어려운 경우는 없을것이다. 놈들은 나를 병원에 끌어다가 수술을 해서 치료해주고있다. 무슨 목적으로? 그건 뻔하다. 살려내여 자기들이 알고저하는 자료를 뽑아내거나 조국을 반역하라고 요구할것이다. 자기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는것이 확실해지면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댈것이다.)

쏘련사람이라면 거의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뚜르하노브도 투쟁없는 삶, 자기 인민에게 복무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상상할수조차 없었다. 투쟁형태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것은 구체적인 환경

에 따라 다를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웠다. 이것은 적극적인 투쟁이다.

그때는 그 자신이 투쟁대상을 정하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투쟁조건을 접수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포로가 되면 문제가 다르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적극적인 투쟁을 할수 없으며 많은 경우 소극적인 저항에 만족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시키는 작업을 천천히 제대로 하지 않거나 될수록 수용소의 규률을 지키지 않으며 죽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 존엄을 가지고 진정한 볼쉐위크답게 머리를 떳떳이 쳐들고 죽어야 할것이다. 물론 소극적인 저항도 파시스트들에게 많은 불편과 손해를 주기는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쟁을 이길수 없다. 전쟁의 결말은 전쟁마당에서 결정된다. (그러니 나의 모든 사색과 행동은 될수록 빨리 적극적인 투쟁을 할수 있는 전투대오로 돌아가는데로 집중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포로에서 탈주해야 한다.) 뚜르하노브는 이렇게 결심했다.…

한주일이 지나갔다. 그의 건강은 좋아지기 시작했다. 생명을 판가리하는 싸움에서 유기체가 이긴것이다. 얼마 안가서 그는 별로 피로를 느끼지 않고도 말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게 되였다.

이때까지 환자의 침대곁에서 갑갑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수 없었던 엘리자베스는 활기를 띠였다. 상부의 신임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는 자기 환자의 머리속에 미치광이 총통의 빈곤한 사상을 박아넣으려고 열성을 다했다. 이것은 문자그대로 몇시간안팎에 대좌를 참을수 없이 싫증나게 했다. 엘리자베스는 대체로 아침일과를 도이췰란드륙군최고사령부의 아침보도를 알려주는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대화의 그 부분만은 뚜르하노브가 흥미있게 들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보도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느라면 무더기 거짓말속에서도 진짜 전선형편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간파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쏘련군대가 위슬라강 좌측강안에 몇개의 교두보를 설치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완강히 버티여내고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했다.

(괜찮아, 때가 오면 그 교두보에서 우리 군대들이 놈들에게 위력한 타격을 안겨 위슬라강의 적방어가 물먹은 흙담처럼 무너질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엘리자베스는 계속 웅얼댔다.
《남부전선에서는 련합군이 제자리에서 뭉개고있다. 그리스에 상륙하려던 영국의 기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서부전선에서는 우리의 영용한 군대가 영미군의 공격을 다 물리쳤다. 반항공방어력량은 베를린에 폭탄공격을 들씌우려던 〈공중요새〉에 섬멸적타격을 안겼다. 폭격당시 베를린에서 일어난 화재는 아침에야 꺼졌다.》
(련합군이 공격을 계속하고있는 모양이군.) 뚜르하노브는 이렇게 생각했다. (도이췰란드제국의 수도가 폭격을 당하고있다. 그건 전선에서나 깊은 후방에서나 파시스트놈들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니 좋은 일이지.)
《보다싶이 우리의 군대는 모든 전선에서 자기 진지를 견지하고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읽은 보도에 대한 결론을 지었다.《도이췰란드는 총통이 지적한 시간에 공격에로 넘어가기 위해 자기 힘을 동원하고있어요. 그때 우리는 도이췰란드제국의 모든 원쑤들과 최종적인 결판을 지을것입니다.》
뚜르하노브는 대체로 그 녀자의 말을 잠자코 듣기만 하고 반대의견을 내놓거나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 녀자가 무엇을 목적하는지 알고있었다.
(쏘련장교를 자기편에 끌어들이려는 기대에 실컷 만족하라지.)
그는 엘리자베스가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녀자가 특별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건 없어. 도리여 그의 말속에서 요긴한 소식들을 빼낼수 있거던.)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해설한 다음에 엘리자베스는 국가사회주의의 원리를 해설하는데 착수했다.
그 녀자는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을 펼치고 한페지한페지 읽어나갔다. 정치활동가의 학설이라기보다는 미치광이의 잠꼬대에 가까운 그 갑갑증나는 책을 읽는다는것은 힘이 들었으나 착실한 나치스분자인 그 녀자는 종교광신자들이 성서나 코란을 읽을 때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열중하여 읽었다. 도이췰란드민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을 남의 령토를 침략하여 탈취하는것으로 충족시킬것을 호소하는 광란적인 총통의 지껄임이 공정한 독자들에게서는 분노와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마음속으로는 뚜르하노브도 분통이 터졌으나 태연한체했다. 엘리

자베스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대목들을 반복하여 읽을 때면 그는 자신을 발로시키지 않기 위해 눈을 감고 잠든체했다. 그런 경우에 엘리자베스는 그가 깨여날 때를 참을성있게 기다렸고 뚜르하노브는 참을성있게 계속 자는척했다.

이따금 엘리자베스는 그 저서의 장별내용을 뚜르하노브에게 질문하군했다. 대좌는 히틀러의 사상을 설명하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읽어준 대목을 애써 상기하려 하는척하면서 이마를 찡그리고 뭐라고 중얼거리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자기에게는 총통의《심오한 사상》을 설명할 능력이 없노라고 고백하군했다.

엘리자베스는 익살을 감수할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녀자였다. 그는 로골적인 조소도 야비하게 드러내놓았을 때에야 알아차리는 형편이였다. 그러므로 뚜르하노브의 말뜻을 그는 알아듣지 못했을뿐더러 도리여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기까지 했다.

《좋아요.》 그는 동의했다.《이 장을 한번 더 읽겠어요. 주의해서 들으세요. 피로하면 제가 헛수고를 하지 않게 귀띔해주세요. 모를것이 있으면 사양하지 말고 읽는걸 중지시키고 얼마든지 물으세요.》

파시스트《성서》의 독보는 다시 시작되였으나 이 나치스의 《박식한 지식의 샘》은 정신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줄수 없었다. 그래서 뚜르하노브는 연방 하품을 했다.

한편 뚜르하노브와 흘레밍그교수와의 관계는 전혀 다르게 맺어졌다. 유명한 외과의는 일생 처음으로 쏘련사람과 상대하기때문에 그의 호기심은 치료하는 의사가 자기 환자에게 가지는 그런 직업적인 호기심에 그치지 않았다. 교수는 히틀러군대를 저지시키는데만 그치지 않고 처음으로 무질서하게 도망치게까지 한 그 사람들을 잘 알고싶었다.

(놀라운 나라에 놀라운 인민이야!) 그는 생각했다. (그들은 아시아유목민의 침습으로부터 유럽인민들을 구출했고 나뽈레옹군대를 괴멸시켰으며 지금은 도이췰란드파시스트를 짓부시고있다. 유럽의 미래, 아니, 전세계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쥐여질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 사람들을 더 세심히 관찰하고 그 나라와 인민을 더 잘 알아야 한다. 뚜르하노브는 그렇게 하는데 나를 도울것이다.)

처음에 그들의 대화는 순전히 실무적인 성격을 띠였다. 교수는

기분이 어떤가, 걱정되는 점은 없는가, 식사와 치료에서 의견이 없는가 하고 묻군했다. 점차 그들의 담화내용은 확대되여갔다. 교수가 뚜르하노브의 병력서공백란들에 기록을 하려고 마음먹은 날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였다. 다 아는 일이지만 이 문건에는 환자의 몸상태의 변화뿐아니라 경력과 이전에 앓은 병에 대해서도 기록하게 된다.

뚜르하노브는 자기의 진짜 경력을 말할수는 없었다. 꾸며서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실지 출생년도인 1914년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출생하였다고 꾸몄다.

그렇지만 의사는 이 점에 별로 의심을 품지 않았다. 뚜르하노브가 강점된 와르샤와에서 최근 몇달동안 숱한 고생을 겪었고 또 복잡한 수술을 받은 후여서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보였기때문이다.

《1922년에 나는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동으로 갔습니다. 때는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장작림군벌로 된 중국국민당군대들이 상시적으로 우리 국경에서 군사도발을 일으켰지요. 한 전투에서 나의 소대가 모범을 보여 나는 첫 훈장을 탔습니다. 1931년에 푸룬제군사대학에 공부하러 가서 4년과정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였지요. 또다시 원동에 배치되였습니다. 처음에는 중대를 지휘하다가 다음에는 련대를 지휘하게 되였습니다. 하싼호전투에서 사령부의 명령을 훌륭히 수행하여 두번째 훈장을 받았습니다. 한해가 지나서 할힌골전투에서 쏘련영웅칭호와 세번째훈장 그리고〈금별〉메달을 받았습니다. 그해에 실속있는 전투경험을 쌓은 상급군관인 나를 모스크바로 소환했습니다. 나는 몇해전에 내가 졸업한 그 군사대학에서 군사전술사교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직무에서 나는 근 다섯해나 일했습니다. 력사강좌는 나에게 뽈스까와 도이췰란드의 전쟁에 관한 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로씨야도 이러나저러나 그 전쟁에 참가했으니까요. 우리 군대가 우측강안의 뽈스까를 해방시켰을 때 대학은 나에게 부족되는 자료들을 사변들이 일어났던 현지에 가서 수집해오라고 출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쁘라하로 련락가는 비행기를 얻어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사의 잘못으로 전선을 넘게 되고 우리 비행기는 와르샤와상공에서 도이췰란드고사포에 맞아 격추되였습니다. 나는 락하산을 타고 뛰

여내려 어딘지 파괴된 집들사이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밝기전에 위슬라강변까지 당도하여 어둠을 타서 강을 도하해야 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강쪽으로 향했지요. 그러나 미처 물속에는 뛰여들지 못했습니다. 당신네 순찰대가 나를 사격했으니까요.》

뚜르하노브는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끝맺었다.

의사는 꾸민 이야기를 착실히 받아써서 대좌의 병력서에 붙인 후 다음과 같은 자기 견해를 첨부했다.

《뚜르하노브대좌는 도이췰란드군대를 반대하는 전투행동에 참가한 일이 없으며 표창은 중국인과 일본인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받았다.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도 준 일이 없다. 적당한 방법으로 사상을 개조시키면 제국에 유익하게 써먹을수 있을것 같다.》

흘레밍그박사가 그런 가능성을 믿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만일 그가 자기 환자의 진짜 경력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가장 위험한 력사적시기에는 어느 민족에게서나 이름멸친 영웅들도 나올수 있고 라왈, 찌쏘쌀라쓔, 블라쏘브따위의 반역자, 교형리무리들도 나올수 있다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그렇다고 박사가 이 문제를 놓고 각별히 생각해본것은 아니였다. 박사가 뚜르하노브의 병력서에 그의 인물평가를 내린것은 그가 자신을 보호할수 있을 때까지 파시스트들이 그를 처단하지 못하게 하자는 목적에서였다.

흘레밍그는 정신적으로 민족사회주의의 지지자는 결코 아니였다.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리론을 그는 고대노예소유자사회의 불행한 시대로부터 우리 시대에까지 물려온 유해로운 편견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는 뽈스까와 체스꼬, 슬로벤스꼬, 쏘련인민들은 도이췰란드보다 발전이 훨씬 뒤떨어졌기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자신의 리익을 위해서 도이췰란드인의 《문명보급자》의 사명을 인정하게 될것이라는 견해를 지니고있었다. 그는 뚜르하노브와 기구하게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사실상 대좌와의 첫번째 담화는 그에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았으나 다시한번 그와 만나보고싶은 욕망이 생겼다. 그때 이 전선지역에서 전투가 잠잠해져서 의사들의 일감이 많지 않았다. 흘레밍그는 현명한 로씨야사람과 이야기를 하고싶었다.

환자 역시 그것이 진심으로 반가왔다. 뜨르하노브는 포로에서 탈주하는데 의사인 그의 지위를 리용할수 없겠는가를 알아볼 목적으로 대화에서 조심히 그것을 타진하군했다. 그는 의사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려고 애썼다. 다행히 그렇게 되였다.

의사는 뜨르하노브의 병실에 몇시간씩이고 앉아서 연방 질문을 들이대군했다. 그가 들은 대답은 문헌들에서도 동료나 친지들과의 대화에서도 도저히 얻을수 없는것들이였다. 질문에 대하여 뜨르하노브는 언제나 신중하고 확신성있는 대답을 했다.

언젠가 한번은 지식인문제, 현대로씨야에 대한 지식인의 평가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다.

《우리의 표상에는 당신네 나라는 인적이 없는 태고의 밀림과 끝없는 초원으로 된 광대한 땅으로서 사람사는 지역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드물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 거주하는 민족들가운데서 현대문명을 소유했다고 볼수 있는 민족은 로씨야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씨인, 그루지야인들이지요. 그 나라에는 현대적인 공업과 농업이 없으니 영원히 뒤떨어질 운명을 지니고있습니다. 우리의 견해가 옳은지 터놓고 말씀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교수가 물었다.

《물론 정확치 못합니다.》 뜨르하노브가 조용히 대답했다. 《만일 쏘련에 현대적인 공업이 없었다면 어떻게 쏘련군대를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비행기와 땅크, 포 그리고 당신네 병사들이 〈쓰딸린기관〉이라고 부르는 방사포로 무장시킬수 있었겠습니까.》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기 환자들로부터 그 《방사포》에 대하여, 도이췰란드제국병사들에게 무서운 손실을 가져다주어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죽음의 비행기》라고 부르는 습격기 《ИЛ》 (일)에 대하여 한두번만 들어오지 않았다.

자기의 례증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감흥을 주었는가를 간파한 뜨르하노브는 자기 나라에 대한 그릇된 표상을 깨뜨림으로써 《락후한 로씨야》에 대한 문명보급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헛된 욕망을 서유럽 지식인대표에게서 완전히 없애버릴 다른 례증들을 더 들기로 마음먹었다.

《쏘련인민의 정신도덕적단결에 대해서는 너무도 명백하기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통일이 없었다면 다민족국가인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첫 타격을 받았을 때 벌써 무너져버렸을겁니다.

그러나 쏘련은 무너지지 않고 소위 선진적인 도이췰란드의 〈동방진격〉에서 발휘한 미증유의 위력있는 타격을 견디여냈을뿐만아니라 상대방을 련이어 타격하여 〈동방진격〉사상이 파멸을 면치 못하게 했습니다. 문명의 문어구에 금방 들어선 인민들이 그런 〈기적〉을 이룩할수 없으리라는거야 당신도 아시겠지요.》

《요컨대 〈동방진격〉이란 말대신에 그의 변화된 형태인 〈서방진격〉이란 말이 위력을 보이고있지요. 안그렇습니까?》교수가 웃었다.

《또다시 오해하셨구만요. 교수님.》대좌도 웃었다.《우리 계획에는 남의 땅에 대한 침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쏘련군대는 유럽인민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해방시킬 목적으로 서쪽으로 전진하고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한 다음 우리 군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오스트리아도 해방시키게 됩니까?》교수가 물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뚜르하노브의 눈이 번쩍이였다. 《문명한 인민도 침략자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네 마음이 내키는대로 살고 싶을테니까요.》

뚜르하노브의 론거는 단순하고도 명백하였다. 외래침략자의 억압밑에서 고통당하던 여러 민족들이 해방될 전망은 강점제도의《훌륭한 시책》을 여섯해이상이나 체험한 교수를 기쁘게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당시로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이 빨리 해방되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좀 일렀지만 그런 희망을 포기할수는 없었다. 항상 일에 몰두하고있는 교수에게 이전에는 민족해방문제를 두고 사색할 시간적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발칸제국에로의 쏘베트군대의 급격한 진격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무관심할수 없게 했다. 사실 교수는 소위 《동부의 성새》를 쏘련군대가 돌파할수 있다고는 아직 믿지 않고있었다. 그것이 나치스의 표현대로 하면 오스트리아와 보호국들인 체스꼬와 모라위야(체스꼬와 슬로벤스꼬의 한 지방)를 포함한 제3제국이 동남국경을 믿음직하게 엄호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뚜르하노브의 이야기는 그로 하여금 사태의 발전과정을 전혀 다르게 보게 하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자기 환자에게 더 큰 관심과 배려를 돌리게 되였다.

어느날 아침 환자회진때 교수는 동행한 성원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뚜르하노브의 병실에 머물렀다.

《병세가 예상외로 빨리 나아갑니다.》교수는 환자의 진찰을 끝내고 말했다. 《예상밖의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한 열흘후엔 나는 당신과 헤여지게 될겁니다.》

뚜르하노브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건강이 거의 회복되였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그는 의례히 료양소치료까지 받아야 하겠지만 포로로서는 그런건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였다.

《당신 생각엔 퇴원후 나를 어디로 보낼것 같습니까?》그는 교수에게 물었다.

《엘리자베스부인이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던가요?》교수는 놀랐다.

《〈볼가－우랄〉재향군에 지원병으로 들어가라고 권하더군요.》

《그래 거절했습니까?》

《나야 따따르인도 아니고 이슬람교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도이췰란드사람이 아니지만 도이췰란드군에 복무하고있지 않소. 당신은 따따르말을 알지 않소. 그게 중요한거요.》교수가 떠보려는듯 그를 응시했다.

《언어는 단결시키기도 하지만 분렬시키기도 하지요. 같은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주 싸운답니다.》

《례를 들면?》교수가 능청맞게 눈을 쪼프렸다.

《영국인들이 〈장미전쟁〉때 그랬고 미국인들은 〈남북전쟁〉때 그랬지요.》

《당신이 따따르의 재향군이나 그와 류사한 군인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포로수용소에 보낼겁니다. 달리는 될수 없지요.》교수가 한숨을 지었다.

《만일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다른 길을 택하겠습니다.》

흘레밍그교수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환자가 도주하려고 한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이 사람에겐 이미 구체적인 도주계획이 서있을수 있다.) 교수는 생각했다. (내가 협조하면 그 계획이 필경 성공할것이다. 그러나 포로병의 도주를 도운데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있다. 나는 의료일군이다. 내가 할바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지 정치에 관여하는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는 도와달라는 뚜르하노브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의 탈주계획이 파탄되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자신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을것이다. 교수는 시간을 끌기 위하여 화제를 돌리려고 했다. 마침 교수는 뚜르하노브의 문건가운데서 발견한 그의 개인문건들을 상기하고 대좌에게 말했다.
《이건 무슨 보고문이 아니면 전투보고초안같군요. 이걸 당신의 병력서에 첨부해야 했지만 난 우선 당신과 의논하려했습니다.》 교수는 자기의 안주머니에서 차곡차곡 접은 종이장들을 끄집어내며 말했다.
뚜르하노브는 빨찌산과 와르샤와주민 공동집회에서 최근에 한 자기의 토론문을 인차 알아보았다. 거기에는 쏘련빨찌산 제1국제부대의 전투성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었다. 그 문건이 엘리자베스나 다른 파시스트의 손에 들어갔더라면 뚜르하노브는 무덤속에 들어간지가 오랬을것이다.
《여기서 당신 이외에 이 문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더 없습니까?》 대좌가 불안스레 물었다.
《아니요. 난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소.》 교수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뚜르하노브는 교수의 손에서 자기의 문건을 받아쥔 다음 사기세면기앞으로 다가가서 종이를 불태우고 재는 물로 씻어버렸다. 《이렇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제 4 장

탈주할 생각이 한시도 뚜르하노브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를 퇴원시킬수 있다는것을 교수가 상기시킨 이후에는 도무지 안정할수가 없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너무나 좁았다. 뚜르하노브는 교수와 엘리자베스 이외 당직근무를 설 때 그의 병실에 들리군하는 한명의 의사와 두명의 간호원을 알고있을뿐이였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별로 기대를 걸수 없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하는 기미를 아직은 보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엘리자베스 또한 의식적으로는 결코 그의 탈주를 돕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 녀자는 어리석음과 자기과신으로 하여 자기의 탈주에 써먹을수 있는 실수쯤 얼마든지 할수 있었다.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로 될수 있는것은 흘레밍그교수였다. 그러나 뚜르하노브는 교수를 이 일에 끌어들이고싶지 않았다. 탈주에서 그의 역할이 밝혀지는 경우에 파시스트들은 의심할바없이 그를 가혹하게 처벌할것이기때문이다.

(있을수 있는 탈주의 후과를 교수가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야 한다.) 대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일에 착수했다.

(《공격목표는 적군총사령관의 뇌수이다.》라고 어느 한 위대한 장군이 말한바 있다.) 뚜르하노브는 생각했다. (만일 적들에게 전쟁에서 이길수 없다는것을 확신시키면 그들은 공연히 피를 흘리려하지 않을것이다. 나도 흘레밍그에게 도이칠란드가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확신시키자. 그러면 우리 편으로 넘어오는 외에 다른 길이 없을것이다.)

정황은 뚜르하노브의 계획에 유리하게 조성되였다. 그는 흘레밍그교수의 호의와 관심을 끌게 되였다. 이전에 교수는 그와 정치문제를 론하기 꺼려했지만 이제는 현행사변들의 각이한 측면들을 그와 론의할 기회를 교수자신이 찾군했다. 이것은 력사에 대한 여담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어느날 그들은 비스마르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비스마르크는 로씨야와의 전쟁이 도이칠란드에는 극히 위험하며 두 전선에서의 전쟁은 파멸적이라고 생각했지요.》 뚜르하노브가 말했다. 《도이칠란드인들은 이 현명한 충고를 홀시하였고 지금은 그 거만성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지요.》

《일련의 유럽나라들을 점령하고 프랑스를 피멸시킨 후 나치스들은 자기 군대를 백전백승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솔하게도 동방에 군대를 투입하였지요.》 흘레밍그는 대좌의 의견에 동의했다.

《쏘련군대는 도이췰란드국방군의 불패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짓부셔버렸습니다. 인제는 도이췰란드에서도 자기들이 일으킨 류혈적인 전쟁의 결말이 무사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겝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에 휩싸여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래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교수가 옳게 말했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기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은 도이췰란드국방군 병사, 장교들에게 머지 않아 있을 파국의 무서운 경고로 되였다. 그들은 1941년 모스크바부근에서의 패망을 잊지 않고있었기때문이다. 오늘에 와서 전도가 암담한 전쟁의 종말은 모든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명백해졌다. 쏘련군대는 억제할수 없는 눈사태처럼 서쪽으로 전진했다. 전쟁의 불길은 도이췰란드땅 바로 곁에서 타올랐다. 이제 최후의 노력을 다하면 반나치스련합군이 도이췰란드경내로 뚫고 들어가게 될것이다. 히틀러상층부와 장령들은 혈안이 되여 조성된 사태의 출로를 모색했다. 비관주의자는 패배주의자로 몰리였고 신념이 약한자는 비겁쟁이로 몰리였다. 이것도 저것도 다 재판을 하거나 재판없이 징벌부대로 보내거나 감옥에 가두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앞에서 총살했다. 그러나 테로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신념이 부족한 사람들의 수효는 점점 늘어나고 자살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교수도 붕괴의 온갖 징조가 눈에 띄였으므로 이 사실을 알고있었다.
교수가 일하는 병원성원들은 오스트리아사람들로 구성되여있었다. 그들은 전쟁초기부터 윈에 고착되여있었으나 벨라루씨에서 파국적사태가 벌어진 1944년 여름에는 그들을 동부전선에 투입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떠돌이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민스크와 브레스트에 있다가 와르샤와로 옮겨왔다. 평화로운 생활에 습관된 오스트리아사람들은 행군생활에 익숙되기 어려웠다. 특히 그들은 사랑하는 조국땅과의 리별을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아침마다 윈방송국의 호출신호를 듣기 무섭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객지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자기들을 애무해주던 모짜르트나 슈트라우스의 섬세한 멜로디대신 싸이렌소리, 무섭게 퉁탕거리는 포사격소리, 귀청을 째는 폭탄터지는 소리 그리고 이 무서운 소리들사이마다 들려오는 절망에 찬 환자

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러한 생활은 그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수 있었다. 단지 멀지 않아 귀국할수 있다는 희망에 의해 그들은 정신을 지탱해갔다. 그럴 때 병원이 마쟈르로 옮겨간다는 풍문이 돌았다. 마쟈르는 뽈스까와는 다르다.

부다뻬슈뜨에서 조국 윈까지는 엎드리면 코닿을 곳이였다. 모두 활기를 띠고 개인소지품들을 꾸리기 시작했다. 가장 믿음직한 소식통을 통해 입수했다는 병원철수에 대한 《최근의》, 《가장 믿음직한》정보가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전해졌다.

병원철수계획은 사실 있었다. 책임자의 개인문고에 보관되여있었을따름이다. 계획에 의하면 병원이 처음에는 뽀즈난으로 갔다가 계속 서쪽으로 나가 베를린까지 가게 되여있다는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렇게 되면 오스트리아사람들은 아무것도 좋은것을 기대할수 없다. 그들은 조국과 완전히 단절되고말것이다. 전쟁이 바야흐로 끝나갈무렵 도이췰란드수도에 있게 된다는것은 침몰하는 선박 갑판우에 해적과 함께 남는것과 다름이 없을것이다. 게다가 파시스트제국의 수도는 폭격기의 섬멸적인 공습을 받고있었다. 남의 리익을 위해서 그것도 남의 땅에서 죽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때문에 마쟈르로 옮겨간다는 소문은 병원의 모든 성원을 기쁘게 했다. 이런 소문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하는 회의론자들도 없지 않았다. 여느때라면 그들이 의혹을 가질수 있다고도 하겠지만 그때는 1944년말, 즉 쏘련군대는 발칸제국에서 전투를 벌리고있었고 히틀러사령부는 국부적의의밖에 없는 전투를 진행하고있는 동부전선지역에서조차 군대를 마쟈르와 유고슬라비아로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던 시기였다. 그때 와르샤와전선지역은 부차적인것으로 인정되여 거기서 일부 부대와 후방기관들을 떼여내여 동남방향을 더 보강하는데 투입할수 있었다. 흘레밍그교수가 근무하는 2445호군대병원도 그 속에 끼우게 되였다.

이 소식을 교수는 야간당직을 서는 기회에 뚜르하노브에게 알려주었다. 그를 전쟁전술사교원으로 알고있는 흘레밍그교수는 그를 만날 때마다 대체로 력사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벌리군했다. 이번에도 그들은 력사이야기로부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제3제국을 때때로 로마제국과 비교하군하지요.》 뚜르

하노브가 상기시켰다. 《물론 동일시할수는 없지만 몇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수는 있습니다.》

《례를 들면?》 교수가 물었다.

《례를 들면 량자가 다 남의 령토침략과 다른 민족에 대한 한 민족의 통치를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삼고있다는 점이지요. 고대로마는 존속한 천년동안에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민족들을 예속시킬수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자기 국가와 로마제국의 류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3제국을 천년대계의 제국이라고 부르기는 했습니다만 고대로마는 멸망했지요. 왜 그렇게 되였는지 아십니까?》

《야만인들의 침습을 감당해내지 못했다고 치부해야지요.》 교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물론 야만인들도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 아닙니다. 노예소유자국가인 로마가 멸망한 기본원인은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의 불일치에 있었습니다. 노예소유자의 생산관계보다 선진적인 새로운 봉건적생산관계가 발생한 통치령주민들의 지원을 받아 노예들과 식민지민족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고용병이였던 군사들은 전제군주를 반대하여 무기를 들었습니다. 고용군지휘관의 한 사람인 보도아크르가 기원전 476년에 로마국가의 마지막군주를 꺼꾸러뜨렸습니다. 이렇게 되여 노예소유자제도가 봉건제도로 교체된것입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는 그때의 로마와 오늘의 도이췰란드사이에는 련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교수가 의견을 달리했다.

《남의 령토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들을 노예화하는 원칙에서 공통성이 없단말인가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통치하는 원칙에서 말입니다. 고대로마에서는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노예로 된 식민지민족들이 자기 노예주들을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인민들의 반항과 빨찌산전쟁 그리고 쏘련군대와 련합군의 위력한 타격은 제3제국을 꺼꾸러뜨릴것입니다.》

뚜르하노브는 문을 약간 열고 복도를 내다본 다음 아무도 자기네 말을 엿듣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고서야 자기의 생각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었다.

《모든 량심있는 사람들은 파시즘의 멸망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이

것은 우리모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량심있는 사람들은 투쟁에 참가해야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의료일군들은 너무도 무맥합니다. 상대편은 군대와 경찰, 헌병, 절대적권력을 가진 게스타포까지 가지고있지만 우리한텐 무엇이 있습니까? 붕대와 약병, 수술칼밖에 없습니다. 안그런가요?》교수가 서글프게 웃었다.
《수술칼도 위력한 무기지요. 그것으로 어떤 종양이라도 잘라버릴수 있으니까요. 나치즘은 도이췰란드인민의 깨끗한 몸뚱이에 돋아난 악성종양입니다. 그것을 공동의 힘으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수술칼로, 우리는 손에 든 장검으로말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교수가 관심을 가지였다.
《쏘련군대 아니면 빨찌산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교수는 인차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도이췰란드인들속에서 남아서 일하면 자기네 오스트리아인민을 포함한 유럽인민을 노예화하도록 도이췰란드를 돕는것으로 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전선에 있으면 인간의 복리를 위해 바치려던 자기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수 있었다. 물론 포로가 되여 전쟁의 종말을 기다렸다가 성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것이 제일 안전할것이다. 그러나 그는 군인선서를 어길수 없다는 명예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있었다.
《나란 존재는 투사재목은 못되고 포로로 투항하자니 량심이 허락치 않는군요.》그는 한참 모대기다가 고백하였다.《그러나 나의 마음만은 당신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기편으로 탈주하도록 돕겠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사업을 계속하십시오. 자신과 우리들을 위해 파시스트들을 복수하십시오.》
《말하자면 에스빠냐의 국제려단투사들이 말하던것처럼 당신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라는거지요.》뚜르하노브는 미소를 지었다.《나는 당신의 충고를 실천할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내가 포로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합니까?》
《우리 병원을 크라꼬브로 옮겨가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바라신다면 이동하는 도중에 당신은 렬차에서 탈주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야지요.》 뚜르하노브는 기뻐했다. 《켈쯔주에는 나의 벗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도울것입니다. 철도순찰대만 방해를 하지 않으면 되겠는데.》
《철도순찰대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명서와 군복을 구해주면 됩니다. 나는 따따르재향군 장교로 행세할수 있습니다.》
뚜르하노브가 귀띔했다.
《어제 우리의 외과에서 중상당한 〈볼가－우랄〉재향군 소좌가 죽었습니다. 그의 증명서와 군복을 당신이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뚜르하노브는 긴장해졌다.
《엘리자베스입니다. 그에게 당신을 엄밀히 감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원의 경각성을 다소라도 약화시켜야겠습니다.》
《조언을 주십시오. 난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녀자란 자기를 칭찬해주는걸 좋아하지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하며 귀맛좋은 말로 그 녀자를 얼리십시오. 그 녀자자신도 당신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녀자가 누굴 사랑할수 있겠는지 의심스럽지만 아시는바와 같이 어느 녀자나 자기가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에는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뚜르하노브는 게스타포밀정에게 반한자의 역을 놀기가 역스러웠으나 자기의 새로운 벗의 조언을 감사히 받아들이였다.

제 5 장

뚜르하노브는 자신이 따따르재향군으로 행세하기 위해 재향군의 실태를 대체적으로나마 알아보려고 마음먹었다. 병원에 갇혀있는 그로서는 그들이 발간하는 신문을 통해서만이 변절자부대에 대하여 료해할수 있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와 만났을 때 최근 몇달동안의 따따르신문철을 좀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왜 그러세요?》 간호원이 놀랐다. 《당신이 따따르글을 읽을수 있

단말이예요?》

《읽을수 있구말구요. 난 따따르사람들과 함께 살며 자랐습니다. 이젠 재향군에서 복무하려고 그럽니다.》

《정말이세요?》엘리자베스는 기뻐했다. 뚜르하노브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하느님 맙시사! 전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무슨 충동을 받아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였는가요?》

《충동은 무슨 충동이요. 내가 그런 결심을 내리도록 당신이 영향을 주었지요. 당신의 선동재능이 기적을 낳은셈이지요. 난 당신의 말을 절대로 잊지 않을겁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벗!》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혔다. 《저도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따따르재향군에 들어가세요. 거기엔 당신같은 지휘관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뚜르하노브가 관심을 보였다.

《우리 병원에 그 부대의 소좌 한분이 입원했댔어요. 그의 말이 그 부대에는 질서와 제도가 없다고 하더군요. 도박과 로략질, 음주 지어는 강간행위때문에 일부 재향군부대들은 양무리나 다름없게 되였대요. 소좌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도 자기 졸병들의 총알에 쓰러졌다는걸 고백하였어요.》

《원 저런!》뚜르하노브는 쓰거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나를 쏠 탄알도 재워놓고있겠구만.》

《아이 겁내지 마세요. 당신이 거기 가시는 동안에 거기에는 질서가 완전히 잡힐거예요. 소좌는 재향군을 와해시킨자들의 이름을 대더군요. 당신이 거기에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 못할거예요. 우린 롱담하기를 좋아안한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가 그 재향군에 들어가기를 권고한다는거겠지요?》

《충심으로 바라요. 직접 소개신까지도 써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친절하십니다.》

다음날 간호원은 딴 사람이 된듯싶었다. 얼굴은 기쁨으로 환히 빛났고 눈은 정열에 불타올랐다. 걸음걸이까지 달라졌다. 이전에는 걸을 때 눈에 띄게 오른다리를 끌었지만 지금은 두다리를 다 사열행진할 때의 병사처럼 힘있게 내디디였다.

《기뻐하세요!》엘리자베스는 뚜르하노브에게 두손을 내밀며 소리질

렀다.《당신의 일은 잘되여가요. 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과 담화하겠다고 동의했어요. 합의만 되면 〈볼가－우랄〉재향군에서는 당신에게 훌륭한 직무를 맡길겁니다.》
대좌는 얼굴에 기쁨을 나타냈지만 속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파시스트라고 다 이 바보년처럼 쉽게 믿지는 않을테니까. 허지만 꾸물거릴수도 없다.) 하고 생각하였다.
《우린 인차 헤여지게 되겠군요?》대좌는 자기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빨리 가고싶으세요?》 엘리자베스가 뾰로통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뚜르하노브는 부정하는척했다.《만일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난 날마다 당신을 볼수 있게 병원에 아주 남겠습니다.》
《그 이상은 더 기대하지 않는가요?》엘리자베스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 이상은 엄두를 못내지요. 도이췰란드인들에게는 타민족과의 결혼이 금지되여있으니까요.》
《군무에서 공로를 세우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승인해줄거예요.》 간호원은 고무해주었다.
그후 이틀동안 뚜르하노브는 배신자들의 신문을 료해했다. 출판검열기관이 손댄 흔적이 어디서나 느껴졌다. 감추어보려 애썼으나 공정한 독자들은 배신자들의 소굴에서 일어난 혼란과 권태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그러나 대좌의 관심을 끈것은 그것이 아니였다. 이와 같은 인간쓰레기들의 기분상태는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그는 재향군의 일부 지휘관의 이름을 알고있어야 했다. 병원에서 탈주한 후 일시 재향군 군인으로 가장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그자들의 이름을 써먹어야 하기때문이다.
《오늘부터 짐을 싣습니다.》 세번째 되는 날 교수가 알려주었다.
《나는 준비가 다 되였습니다. 당신만 포로에서 탈주할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을 켈쯔에서 멀지 않은 역에 내리워주겠습니다.》
뚜르하노브는 포로에서 탈주할 자기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재확인하고 교수가 도와주겠다는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

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면밀히 작성된 이번 계획이 실현될수 없게 되였다. 이것을 뚜르하노브는 엘리자베스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느끼였다.

《공군사령부에서 우릴 긴급히 불러요.》 엘리자베스가 할딱거리며 병실로 들어와서 단숨에 내리엮었다.

뚜르하노브는 가슴이 덜컹했다. 그는 교수도 부른다는것을 짐작하였지만 따져보았다.

《누구를 부릅니까. 간호원만 부릅니까, 의사도 부릅니까?》 그가 물었다. 《외과의 전부와 간호원중에서는 저만 불러요.》 엘리자베스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흘레밍그교수는 오래전에 벌써 거기 가계세요. 우린 이제 당장 떠나고요.》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요?》

《붉은군대가 우리의 유명한 비행사 하나를 심히 부상입혔대요. 우리를 믿고 그의 생명을 맡겼어요. 힘든 수술을 하게 될거예요. 다른 외과의들은 책임이 두려워 수술하기를 거절했지만 우리 원장선생은 흘레밍그교수만은 훌륭한 비행사의 생명을 구원할거라고 믿고있어요.》

《그럼 병원이동계획도 미루겠군요?》

《당신들은 밤에 크라꼬브에 가닿을거예요. 우린 래일 비행기로 거기 가게 돼요. 교수는 당신에게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앞으로의 치료에서도 제멋대로 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약속한대로 그이가 직접 치료하시겠대요.》

이것은 교수가 새로운 이동지에 도착한 후 그의 탈주를 도울것을 약속한다는 뜻이였다. 아무 소식도 없느니보다 훨씬 나았으나 잘 준비했던 탈주를 포기하기도 용의치 않았다. 속이 타서 미칠것 같았다. 엘리자베스는 흥분한 그를 보고 제나름으로 해석했다.

(불쌍하게도 정말 상심했군!) 그 녀자는 만족해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저이는 정말 나에게 정이 들었나봐. 저이가 순아리아족이라면 내가 먼저 저이 품에 안길터인데…)

《너무 속을 썩이지 마세요.》 엘리자베스는 슬프게 중얼거렸다.

《저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당신과 함께 있겠어요. 혹 방조가 필요하면 사양마시고 저에게 편지하세요. 힘자라는껏 도와드

리겠어요.》

《감사합니다.!》 뚜르하노브는 이 감상적인 《식인종》(교수는 격분했을 때 그 녀자를 흔히 이렇게 불렀다.)에 대한 혐오감을 감추려고 애쓰며 중얼거렸다.

제 6 장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이 괴이한 상봉을 끝맺게 했다. 엘리자베스는 빨리 가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슬픔에 잠긴 눈매로 대좌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줄곧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 녀자는 잠간이라도 더 그와 함께 있고싶었다. 그러나 그럴 경황이 못되였다.

말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서 사람들이 뛰여다녔다. 그 사람들이 임의의 순간에 여기에도 나타날수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그 녀자는 자그마한 거울을 꺼내서 머리모양을 다듬고 새의 부리같은 코잔등에 분을 발랐다. 입술에 연지를 바른 다음 마지막으로 슬픔에 잠긴 눈길로 뚜르하노브를 쳐다보며 말했다.

《렬차가 도착했으니 인차 상차가 시작될거예요. 저녁전에 당신들은 와르샤와를 떠나야 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대좌는 묵묵히 그 녀자를 문가까지 배웅한 다음 창문에 다가가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전차선로에 위생차량들이 서있었다. 차량지붕과 차체에는 적십자표식이 그려져있었다. 벌써 본격적인 상차가 진행되고있었다. 중상자와 혼자 걸을수 없는 환자들은 위생병들이 담가에 실어서 차량있는데까지 날라갔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쌍지팽이를 짚거나 힘겹게 절룩거리며 걸어가서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리를 잡았다.

복도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오더니 곧 문이 열리고 문턱에 당직간호원이 나타났다.

《사품을 꾸려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뚜르하노브는 흘레밍그교수와 같은 비범한 인간과 사귀면서 한달이상을 살아온 병실에 서글픈 작별의 눈길을 던진 다음 미지의 운명

을 맞받아 간호원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널다란 계단을 따라 1층까지 내려가 현관에 몰켜선 환자들의 곁을 지나 당직의사에게 다가갔다. 그에게 간호원이 뭐라고 속삭이였다.

《뚜르하노브요?》 그가 반문했다. 《호송원들을 붙여서 마지막 차량까지 데려가시오. 거기에 저 사람의 차칸이 특별히 준비되여 있소.》

간호원은 그를 맨 꼬리에 붙은 차량으로 데리고가서 경비대장에게 직접 인계했다. 그 차량은 감방차였다. 창문에는 철창이 어마어마해보였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있었다. 호위책임자가 손에 든 열쇠로 문을 열었다. 뚜르하노브를 맨 끝칸에 넣었다.

《여기서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단추를 누르시오.》 호송책임자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문결의 단추를 가리켰다. 《동행하는 위생병의 허락이 없이는 방을 나올수 없소.》

그리고는 문이 닫기고 자물쇠가 절그럭거렸다. 대좌는 병원환자의 지위에서 보통 포로의 지위로 전락되였다. 예견한대로 오후 2시에 기차는 떠났다.

와르샤와에서 크라꼬브까지 위생차는 8시간 내지 10시간이나 걸려 갔다. 기차는 거부기의 속도로 움직인셈이다. 도이췰란드놈들은 그때 벨라루씨와 우크라이나에서 략탈한 모든것을 뽈스까에서 끌어가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였다. 그러므로 철도역들은 사람들로 꽉 차서 위생렬차조차 매 신호장치앞에서 멈춰섰고 매 역에서 몇시간씩 서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게다가 쏘련비행기들이 철도분기역들에 날아들어 전선철도수송에 혼란을 조성했다. 그래서 철수하는 군대병원수송렬차는 3일만에 크라꼬브에 도착했다.

혼란상태는 여기도 다를바 없었다. 병원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와르샤와에서 날아와 크라꼬브에서 렬차를 만나가지고 환자들의 하차조직을 직접 하기로 예견되여있었다. 그러나 기진맥진한 병원성원들은 원장이 오기를 기다리고있을수 없었다. 더욱 딱한것은 지방기관책임자들이 누구 하나 군대병원이 그곳으로 철수해온다는 통보를 제때에 받지 못해 자리잡을 건물을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않고있는것이였다. 이 처참한 정형을 해명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6시간이상 허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동안에 시내에서는 세차례나 공습경보가 있었다. 위생병들과 하급의료성원들은 중상자들을 역근방의

방공호까지 끌어갔다 왔다 하느라고 지칠대로 지쳤다. 한밤중에야 병원수송렬차를 체스께-부도이위쩨시로 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호송원의 승인을 받고 뜨르하노브는 복도로 나왔다. 열려진 첫번째 차칸문에서 유연한 전등불빛이 호젓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뜨르하노브는 조심조심 그쪽으로 다가갔다. 조그만 책상에 당직간호원이 앉아있었다. 그의 손에는 책이 들려있었으나 눈길은 어딘가 멀리를 향하고있었다.

《밤새 안녕하시오. 간호원! 당신한테 한가지 물어도 될가요?》뜨르하노브가 물었다.

《왜 그러세요?》 좀 무뚝뚝하게 간호원이 대답했다.

《우리 상급간호원인 엘리자베스부인이 와르샤와에서 배웅할 때 우리 병원이 크라꼬브로 철수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우릴 그곳에 부리우지 않았는가요. 우린 지금 어디로 갑니까?》 뜨르하노브가 물었다.

《체스꼬와 모라위야의 보호통치구역으로 간답니다. 어떤 도시로 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엘리자베스부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가요?》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그걸 묻는가요?》당직간호원이 의심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우리보다 먼저 크라꼬브에 가서 역에서 우리 기차를 마중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그럽니다. 거기엔 그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가 당신에게 그 이상은 약속한게 없어요?》

《아니, 또 있지요. 그는 나를 따따르재향군에 추천해주겠다고 약속했댔지요.》

《그 녀자도 약속도 잊으세요. 엘리자베스가 탔던 비행기는 크라꼬브에 오지 않고 행방불명되였어요.》

《행방불명되다니?》 뜨르하노브는 영문을 모르는체했다.

《쏘련추격기들이 그 비행기를 추락시켰다고 추측하고있어요.》

《엘리자베스가 가엾구만. 의학계가 참으로 가슴아픈 손실을 당했군요!》대좌는 알릴듯말듯한 야유를 담아 혼자말하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의학계가 정말 가슴아픈 손실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건 엘리자베

스때문이 아니예요. 그 비행기에는 흘레밍그교수도 타고있었지요.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나 그야말로 애도해야 할분이지요.》 간호원은 눈물을 닦았다.

뚜르하노브는 자기 차칸으로 돌아왔다. 그는 탈주가 실패했음을 이제야 똑똑히 깨달았다. 모든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새로운 벗들을 찾아내고 자유의 몸이 될수 있는 새로운 방도와 수단들을 탐색해야 했다.

제 7 장

뚜르하노브대좌가 책임진 쏘련빨찌산 제1국제부대의 기본력량이 뾜스까의 류드워이군부대와 협동작전을 하기 위하여 와르샤와로 떠나간 후에 켈쯔주에 떨어진 그의 동료들은 이전 부대참모장 싸완제예브를 중심으로 새로운 빨찌산부대를 조직했다. 처음에는 새 부대에 전투원, 지휘관이 백명도 되나마나했다. 그러나 8월상순에 그 수효는 도이췰란드수용소에서 탈주한 포로병들로 보충되여 배로 불어났다. 무기가 부족하고 전투장비도 미흡하였으나 승리를 거듭하는 쏘련군대의 전투성과에 고무된 대원들은 용약 전투에 진입했다. 붉은군대가 싼도미르구역에서 위슬라강을 도하했다는 소식을 듣자 부대지휘부는 붉은군대 선두부대와 합류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자기 사람들에게 빨리 가고싶었고 쏘베트정규군대오에 하루속히 돌아가고싶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싸완제예브는 부대를 동쪽으로 인솔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대장과 그의 가까운 보좌관들이 정세판단에서 심각한 오유를 범했다. 그들은 위슬라강을 도하한 쏘련군대가 서쪽을 향해 승리적인 진군을 계속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빨찌산들은 스웬톡슈산림부근에서 쏘련정규군 선두부대와 만나게 될것이였다. 그러나 정규군이 받은 과업은 보다 제한된것이였다. 그들은 왼쪽강안에 고착되여 앞으로의 공격전투를 위한 교두보를 축성해야 했다. 도이췰란드사령부는 이 교두보를 소멸할 목적으로 싼도미

르지방에 방대한 병력을 끌어들였다. 가렬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였다. 정규군부대와 련합하기 위하여 싸완제예브부대는 도이췰란드군의 몇개의 전투서렬을 뚫고나가야 했다. 얼마 안되는 용맹한 빨찌산들이 제시된 전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였지만 끝내 뚫고나가지 못했다. 게다가 작전에서 붉은군대지휘부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여 정규군은 빨찌산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없었다. 싸완제예브부대는 아군에게로 뚫고 들어가려는 세차례의 시도가 실패한끝에 커다란 손실을 입고 켈쯔주의 수림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빨찌산들은 3주야동안 토벌대의 련속적인 추격도 받았다.

실패한 이 작전에 의하여 입은 상처를 부대는 오래동안 회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부대의 절반인원과 모든 중무기, 예비식량과 전투기재를 전투마당에 두고왔다. 살아남은 사람들가운데는 경상자와 전투에 참가못했던 환자들이 태반이였다. 그래서 싸완제예브는 부대를 깊은 수림속으로 이끌고가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온갖 전투행동을 일시 중지했다.

뾜스까동지들은 불행에 빠진 쏘련빨찌산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 류드워이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켈쯔땅》려단에서 무기와 전투기재를 가져왔으며 그 지방 농민들은 빨찌산들에게 식량을 공급했다. 대렬도 보충되였다. 10월말과 11월초에 싸완제예브부대는 다시 전투행동에 진입했다. 처음에는 운수기재파괴공작을 몇차례 수행했다. 빨찌산이 설치한 지뢰에 걸려 전투기재를 실은 3대의 화물자동차와 휘발유를 실은 유조차 한대가 폭파되였고 다음에는 빨찌산대원들이 군수렬차를 전복시키고 다리를 폭파했다.

어느날 정찰병이 싸완제예브에게 가까운 철도역에 화물렬차들이 많이 지체되고있다는 통보를 했다. 부대장은 두개 소대를 이끌고 행군을 개시했다. 목적지에는 한밤중에야 당도했다. 철도역은 그리 크지 않아서 보병 한개소대가 지키고있었다. 도이췰란드보초들이 빨찌산정찰병들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정찰병들은 위장을 잘하고 위수사령부건물에 가까이 접근하여 수류탄과 인화병을 던졌다. 또 한조의 성원들은 그 시각에 기차를 경비하던 보초들을 해제꼈다. 기관차는 없이 보조선로에 서있는 렬차들가운데는 유조차로만 편성된 렬차도 있었다. 빨찌산들은 이 유조차들을 불사르고 로획한 무기들을 둘러멘 다음 불길에 휩싸인 철도역을 재빨리 빠져나왔다. 유조차

와 전투기재를 만재한 차량들, 무기와 전쟁물자들이 꽉 들어찬 철도수화물창고가 불길에 휩싸여 폭발하고있는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싼도미르부근에서 중상을 입은 우리 부대의 회복을 축하하는 멋있는 장식물이군!》 싸완제예브대위가 대원들이 숨을 돌리느라 멈춰섰을 때 치달아오르는 붉은 화광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문요. 잊을수 없는 광경이지요.》 대장의 말에 정치부대장이 맞장구를 쳤다.

《난 저 아까운 재산이 눈앞에서 연기로 사라지는게 가슴아프군요.》 로동자출신의 수염쟁이빨찌산이 한숨을 쉬였다. 《수천명의 로동자, 농민이 일한 대가로 이루어진 재부가 헛되이 없어지는군요.》

《왜 헛된 일이란말이요?》 젊은 대원이 그에게 접어들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재부를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래일은 그것이 수천명의 로동자, 농민을 죽일거란말이요.》

그들은 언쟁을 했다. 대원들의 의견은 서로 달랐다. 한패는 나이지긋한 대원의 의견을 지지했고 또 한패는 젊은 대원의 의견을 지지했다.

《난 차량들에서 통졸임이 든 상자들과 사탕가루포대, 낟알포대, 밀가루포대들을 보았네. 이 모든건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량식으로 마련된거야. 그런걸 우린 연기와 재로 날려보내지 않았나.》 수염쟁이대원은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바로 어떤 사람들의 량식으로 된다는말이요?》 젊은이가 수염쟁이에게 물었다. 《그게 바로 우리와 수천수만의 우리 동료들을 사정없이 죽이는 전선의 도이췰란드병정놈들의 량식이 아니란말이요?》

《난 우리가 좀 더 분별있게 행동했으면 하네. 적의 무기와 전투기재는 소멸하고 식료품과 의복들은 가져다가 지방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더군.》 다른 대원이 자기 생각을 말했다.

《밀가루 둬포대와 고기통졸임 몇상자만 제 몫으로 가져와도 괜찮을텐데…》 부대료리사가 아쉬워했다.

정치부대장이 론쟁자들의 시비를 가려주었다.

《재부자체는 중립의 성격을 띠지.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손에 쥐여져있는가 하는데 있는거요. 만일 적의 손에 쥐여졌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 되지만 우리 손에 쥐여졌을 때에는 적에게 손해를 입히지. 전쟁이 끝나지 않고 파시스트들이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있는한 우리들은 파시스트놈들과 그 재부를 소멸해야 하며 앞으로도 소멸해야 할것이요.》

《전리품은 전쟁이 끝난 후에 결산합시다.》 부대장이 덧붙였다.

모두 유쾌하게 웃어댔다.…

아침에 빨찌산들은 애어린 숲기슭에 가닿았다. 그 숲은 바닥에 시내물이 졸졸 흐르는 깊은 골짜기에 의해 밋밋한 두 부분으로 갈라져있었다. 앞으로 약 10키로메터의 개활지대를 통과해야 했다. 대낮에 그 지대로 행군을 계속한다는것은 위험했다.

싸완제예브는 대원들을 휴식시키기로 결심했다.

《휴식!》 그가 선포했다. 《온종일 휴식합시다. 모닥불을 피우지 말고 숲에서 나서지도 말며 떠들지도 말것! 외인들은 저녁까지 억류할것! 소대장들은 보초를 세울것, 나머지는 아침식사를 하고 휴식할것!》

대원들은 이 명령을 정확히 집행했다. 그들은 작은 인원으로 갈라져서 아침식사를 시작했다. 그다음 골짜기에 내려가서 샘물을 퍼다가 마시고 잠자리에 누웠다. 대다수의 대원들은 두주야동안 눈을 붙여보지 못했다. 그들은 풀밭에서 네활개를 펴고 누워서 머리밑에 배낭을 베고 아무거나 쥐여 뒤집어쓴 다음 의좋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보초들만이 잠을 자지 않고있었다. 방해하는 사람만 없었더라면 피로한 대원들은 저녁까지 내처 잤을것이다. 그러나 낮 3시쯤되여 갑자기 발동기의 동음이 들려왔다.

《좀 보게, 무슨 비행기가 저런가? 나무우듬지에 닿을만큼 낮추 떴네구려.》 보초가 놀라와했다.

《우리를 향해 곧장 날아오네!》 다른 보초가 또 소리쳤다. 《우리의 전체 보총으로 뒤방 일제히 갈겨대면 어떨가. 그러면 더는 저놈들이 우리를 시찰하려고 낮추 뜨지 않을거네.》

《경보를 울려 동무들을 깨우자구.》 첫번째 보초가 제기했다. 즉시에 두 보초는 공중에 대고 총을 쏘았다. 제일먼저 싸완제예브가 뛰쳐일어나고 모두가 일어났다. 몇초후에 그들은 도이췰란드비행기를 일제사격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였으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였다. 적비행기가 푸른 침엽수림의 상공을 지나서 벌판으로 나갔을 때 돌연

히 시커먼 구름속에서 붉은별이 새겨진 추격기 《야크－3》이 나타나 번개처럼 아래로 내리꽂혔다. 요란한 발동기소리와 함께 자동포의 사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야크비행기는 다시 우로 치솟았다. 도이췰란드비행기는 연기를 뿜기 시작하더니 곧 땅으로 내려앉았다. 울퉁불퉁한 땅우에서 껑충거리며 한동안 벌판을 따라 달려가다가 빨찌산들이 숨어있는 바로 숲언저리에서 멈추어섰다. 비행기에 붙은 불길이 휘발유탕크가까이까지 번져나갔다. 대원들은 비행기가 어차피 폭발되리라는것을 알았다. 비행기안의 질겁한 도이췰란드놈들이 땅에 내려서려고 덤벼쳤다. 누구인가 모두 비행기를 멀리 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열명이였는데 흰 위생복을 입은 녀자도 하나 있었다. 그들이 안전한 거리만큼 달려갔을 때 귀청을 찢는 폭음이 대기를 뒤흔들었다.

《히틀러의 종말이다!》 젊은 대원이 불붙는 비행기를 눈으로 가리키며 롱을 했다.

《저 사람들을 붙잡아야 하오!》 싸완제예브가 소리질렀다. 《1소대! 포위하여 무장해제시키고 이리로 끌어오시오.》

낯선 말소리를 들은 도이췰란드인들은 뿔뿔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벌판으로 뛰여나간 1소대장은 공포를 놓으며 소리질렀다.

《손들엇! 항복하라!》

달아나던 아홉사람은 자기 운명에 순종했다. 두손을 쳐들고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런데 공군소좌의 군복을 입은 한놈만은 권총을 쏘면서 달아나려 했다.

소대장은 련발사격으로 그놈을 쓸어눕혔다. 나머지는 포위하여 싸완제예브에게 끌어갔다.

《로어를 아오?》 부대장이 물었다.

《내가 로어를 조금 압니다.》 의료근무대좌의 표식을 단 중년의 도이췰란드인이 대답했다.

《당신이 통역을 하시오. 저 사람들에게 무기와 증명서를 바치라고 전하시오. 두손을 뒤로 가져가고 호송원의 승인이 없이는 서로 말을 주고받지 말것. 대오에서 떨어지지 말것. 통역하시오!》 싸완제예브가 명령했다. 비행승무원들은 셋이 남았는데 증명서와 권총을 바치고 의료근무성원들은 증명서만 내놓았다.

《이 사람들은 왜 총을 내놓지 않습니까?》부대장이 의사들을 손짓하며 물었다.

《제네바협정은 의료근무원들의 무기휴대를 허락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무기가 없습니다.》 통역원이 대답했다.

싸완제예브는 포로들의 행동을 주시했다. 남자들은 이러나저러나 가만히 있었는데 위생복을 입은 녀인만은 비행사들이 무기를 바칠 때 몹시 흥분해있었다.

그 녀자는 자기의 손가방을 몇차례나 열었다닫았다 했다. 그때 그의 손가락은 가늘게 떨렸다.

이 모든 행동이 부대장에게는 의심스러워보였다. 그는 소대장에게 녀자를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소대장은 그 녀자의 손에서 손가방을 빼앗아 그속에서 조그만 권총을 꺼냈다.

《이건 뭐요?》 부대장이 엄하게 물었다.

통역원과 녀자사이에는 론쟁이 벌어졌다. 녀자는 줄곧 눈물을 흘렸다.

《저 녀자는 보신을 위해 무기를 건사했다고 합니다. 저 녀자는 로씨야빨찌산이 무섭답니다.》 대좌가 통역했다.

《여기서는 보신용무기가 필요없습니다. 당신들은 쏘베트빨찌산의 수중에 들어왔다는것을 모두에게 전해주시오. 필요하다면 빨찌산이 당신들을 보호해줄겁니다. 이제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얼마간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행군도중에 뒤떨어지지 말며 규률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통역이 이 말을 번지는동안 싸완제예브는 소대장들을 한옆으로 데리고가서 앞으로의 과업을 설명했다.

《시시각각으로 도이칠란드놈들이 여기로 쳐들어올수 있소. 적비행기가 떨어진 구역은 우리에게 위험한 법이요. 그러나 개활지대로 행군한다는것은 모험이요. 그러므로 에돌아서 산속으로 행군합시다. 정찰병들을 앞으로 내보내시오. 뒤에는 한개 분대가량의 경비병을 남기시오. 질문이 없으면 5분후에 출발합시다.》

과업은 명백했다. 5분후에 빨찌산들은 휴식터에서 길을 떠났다.

제 8 장

겝벨쓰와 그의 악선전소굴은 전쟁전기간에 쏘련인민과 전선과 후방의 군인들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지어내고 전파했다. 그들은 쏘련빨찌산에 대하여 각별한 증오심을 품고있었다. 그러므로 량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들이 저지른 상상하기 어려운 만행들을 전부 빨찌산에 넘겨씌웠다.

도이췰란드사람이라고 하여 그 거짓을 다 믿는것은 아니였다. 히틀러도배들이 포로들에게 감행한 비인간적만행을 목격한 많은 도이췰란드군인들은 《문명한 사회》의 인간이라 일컫는 자기들이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한데 대한 보복을 받을가봐 진심으로 두려워하고있었다.

싸완제예브빨찌산들에게 포로된 의료일군들은 도이췰란드인들이 전쟁법을 위반하고있는 사실을 알고있을뿐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범죄를 한두번만 저지르지 않았다. 특히 코수염을 정성스레 다듬은 키가 꺽두룩한 중좌는 병원원장직책을 수행하면서 자기 환자들에게 수혈할 피가 부족할 때에는 가까이 있는 수용소행정당국과 협의하고 수감자들의 피를 강제로 뽑군했다. 그후에는 그자의 명령으로 작용력이 강한 독을 주사하여 그 수감자를 죽이였다. 그자의 이런 범죄에는 지금 빨찌산의 호위를 받으며 머리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두 의사가 가담했었다. 포로된 그자들이 좋은것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뻔하였다. 더구나 그들에 의하여 강제로 피를 뽑히운《수혈용혈액공급자》들은 대부분 이전 빨찌산 아니면 포로병들인 쏘련사람들이였다.

(심문할 때 실토하지 말라고 동료들에게 미리 귀띔해주어야겠는데. 허나 빨찌산의 눈에 띄지 않게 그 일을 어떻게 한다?)하고 이전 원장은 괴롭게 생각했다. 녀자포로의 요청으로 종대가 잠간 멈춰섰을 때 적당한 기회를 타서 이전 원장은 자기 동료들에게 몇마디 귀속말을 하려 했으나 경각성높은 젊은 빨찌산이 총탁으로 그의 잔등을 무자비하게 쥐여박아 그의 시도를 첫 시작에 꺾어버렸다. 운명에 순종하는수밖에 없었다. (나의 조수들이 경고없이도 입을 다물고있으리라

고 기대하는수밖에, 입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걸 그들도 알겠지.) 중좌는 자신을 위안했다. 그러나 인차 다른 의혹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 사람들은 입을 다문다고 하자. 그 나머지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할가?)

빨찌산들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한 밤중에야 자기 기지로 돌아왔다. 관찰력이 예민한 부대장은 이미 행군할 때 포로된 도이췰란드의료일군집단에서 책임자는 림시통역으로 되여준 늙수그레한 대좌가 아니라 키가 껑두룩한 코수염쟁이 중좌라는것을 간파했다.

《저 코수염쟁이를 다른 사람들과 갈라놓아야겠소.》 그는 원장을 가리키며 직일병에게 일렀다. 《저자를 독립토굴에 가두시오. 보초들에게 그 토굴까지 지키라고 주의를 주시오. 구분대지휘관들과 근무책임자들을 나에게 오라고 하시오!》

직일병은 명령을 집행하느라고 달려가고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병사들은 저녁을 먹으려고 앉았다. 부대장 싸완제예브도 저녁식사를 했다. 그후 지휘관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는 제정된 관습대로 방금 끝낸 전투작전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 가해졌다.

밤은 특별한 사고없이 지나갔다. 아침에 부대장은 직일병의 보고를 청취하고 먼저 후방책임자를 참모부에 불렀다. 뚜르하노브가 부대장을 할 때부터 그 임무를 수행해온 질베르만은 부르기를 기다리기나 한듯 토굴문뒤에서 제꺽 나타났다. 언제나 단정하고 깨끗한 그는 산림속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처럼 어느새 벌써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으며 주름살하나 없이 반반한 옷을 입고있었다.

《질베르만동무, 이 증명서들을 좀 분류해주시오.》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 싸완제예브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문건과 증명서무지를 가리키며 질베르만에게 말했다. 《저건 모두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서 회수한것이니 도이췰란드말로 씌여있소.》

질베르만은 그 소지자의 이름별로 재빨리 증명서들을 갈라놓았다.

《이건 신분증명서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전부 열개입니다. 이건 민족사회당 당증입니다. 당증은 아홉개입니다. 그러니 포로중에 한 사람은 나치스당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굴가?》 싸완제예브가 관심을 가지였다. 《녀자가 아니요?》

《아닙니다. 녀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 녀자의 당증입니다.》질베르만이 밤색표지를 씌운 조그마한 수첩을 내보였다. 《에리크 흘레밍그대좌가 그 당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학박사이고 윈종합대학교수이며 병원의 외과주임의사입니다.》 그가 첨부했다.

《이제부터 한사람한사람 만나봅시다.》 싸완제예브가 포로들의 증명서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동무생각엔 누구부터 시작하는것이 좋겠소?》

《녀자부터 시작합시다. 그 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그녀자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이고 성은 슈룩크만입니다. 1938년부터 민족사회당 당원입니다. 병원에서는 외과 상급간호원으로 일하였습니다. 어떻게 일했는지는 제 입으로 말하겠지요.》

호송원이 간호원을 데리고 왔다. 그 녀자의 모습은 그리 좋지 못했다. 퍼렇게 된 눈가장자리와 백지장같은 얼굴색 그리고 활기없는 몸가짐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음을 말해주었다.

싸완제예브가 들고있는 자기의 당증을 본 그 녀자는 무서운 타격이 가해질 순간을 기다릴 때처럼 이상하게 몸을 옹송그렸다. (나에게 종말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그 녀자의 머리에 떠올랐다.

(이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게다.)

《질베르만동무, 자기의 략력을 말하라고 하시오.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라고 경고하시오.》 싸완제예브가 오금을 박았다.

엘리자베스는 말을 시작했다. 그는 빨찌산의 동정을 받으려고 했는지 자신을 불쌍한 고아인체하면서 잔악한 프랑스사람들이 웨르덴부근에서 자기 아버지를 무참히 죽였기때문에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슬픔을 맛보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했다. 오빠들의 죽음도 전혀 다르게 설명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오빠 하나는 조난을 당하여 바다에 빠져죽었고 다른 오빠는 망나니들이 죽였으며 남편은 비행기사고로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무슨 목적으로 당신은 파시스트당에 들었소?》부대장이 그의 말을 중동무이했다.

《그런 시대였지요.》 엘리자베스는 변명하기 시작했다. 《중학교를 졸업한후 로동소개소에 등록한지 두해가 되였지만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원이 되면 직업을 얻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당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래 당신은 직업을 얻지 못하여 히틀러군대에 들어왔소?》질베르만이 꾸짖었다.
《아니요. 나는 간호원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일군들처럼 저를 군대에 초모했습니다. 전 병사가 아닙니다. 누구와도 싸운 일이 없습니다. 전 환자나 부상병들을 치료할뿐이예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대오에 돌아가 우리의 피를 계속 흘리게 하자는거지요.》
《아니, 어째서요? 부상병들을 구원하는건 의료일군의 의무지요.》
《파시스트들을 구원하는게 말이요?》 질베르만이 련속 들이댔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요. 우리는 도이췰란드인들만이 아니라 로씨야인들도 치료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로씨야대좌도 한사람 치료받고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상기해냈다.
《블라쏘브도당이겠지?》 싸완제예브가 물었다.
《아니요. 당신네 사람이예요. 그는 모스크바에서 살았고 푸룬제군사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대요.》
전쟁전에 싸완제예브는 그 군사대학에서 공부하였으므로 교원들을 잘 알고있었다. 어느 교원이 놈들의 손에 잡혔는가를 알고저 그는 그 대좌란 교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물으리라 마음먹었다.
《그의 이름이 뭐요?》 싸완제예브가 물었다.
《뚜르하노브예요.》
싸완제예브와 질베르만은 마주쳐다보았다. (정말 그가 우리 대좌동지인가?) 그들의 눈이 이렇게 말하는듯 했다.
《이름과 부칭은?》 질베르만이 물었다.
《울라지미르 알렉싼드로위치예요.》 간호원이 대답했다.
(우리 대좌동지가 틀림없다.) 싸완제예브는 생각하였다. (대좌동지는 폭동군에서 싸우다가 도이췰란드놈들에 의해 부상을 입을수 있고 놈들의 병원에 가있을수 있다. 확인해야겠다.)
뚜르하노브가 와르샤와로 떠나기전에 쏘련, 뽈스까동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적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꺼내여 도이췰란드간호원에게 내밀었다.

《이 사람들중에 뚜르하노브가 없는지 잘 보시오.》
《이 사람이예요.》 간호원이 짚었다. 《전 몇천명중에서도 찾아낼수 있어요.》
《여기 와있는 의사들중에서 당신이 말한 사실을 확증할 사람이 있소?》
《흘레밍그교수가 그 사람을 수술했습니다. 교수가 담당의사였으니까 그분에게 물으면 증명할수 있을거예요.》
이 순간부터 싸완제예브는 엘리자베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간호원을 호송병에게 넘기고 교수를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흘레밍그교수는 빨찌산을 두려워할 근거가 없었기때문에 뜻하지 않게 포로된 다른 의사들처럼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잤다. 사실 그 년령의 사람으로서는 길도 없는 산속을 헤치며 15키로메터를 행군한다는것은 힘겨운 일이였다. 관절들이 쑤시고 발에 물집이 생겼으며 뼈의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교수는 아픈티를 내지 않았다.
호출을 당하자 침착하게 출두했다. 그를 맞이한 사람들도 태연했으며 례절도 지켰다. 이야기도중에 한마디 말도 꺾지 않고 들었다. 그는 자기의 략력을 불필요한 설명이 없이 그러나 빈틈없이 충분히 이야기했다. 도이췰란드군의들이 쏘련군대나 빨찌산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는 파시스트의 잔인성을 감추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다. 그는 자기 병사들에게 피를 수혈하기 위해 로씨야병사들에게서 피를 뽑아내는 현상들을 자기가 아는껏 다 자백했다.
파시스트놈들의 죄행이 빨찌산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이 아니였다는것을 지적해야겠다. 더구나 빨찌산들은 많은 경우에 포로수용소에 감금되여있으면서 놈들의 범죄적만행을 한두번만 목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놈들의 야만성에 대한 이야기에 놀라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흘레밍그교수가 폭로한 사실들은 싸완제예브나 질베르만같은 신중한 사람들조차 대번에 격하게 했다.
《이 악당들은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야 합니다!》 질베르만이 소리를 질렀다. 《이자들을 빨찌산대원들에게 넘겨주어 처단해버리도록 합시다.》

싸완제예브도 이런 의견에 쾌히 응하고싶었지만 그는 쏘련군대의 명예와 존엄때문에 아래사람들의 비법행위를 허용할수는 없었다.

《질베르만, 그래선 안되오.》 그는 반박했다. 《우리의 임무는 손에 무장을 들고 우리를 반대하여나서는 적들과 싸우는것이요. 형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재판이 내릴것이요. 그러므로 이 흡혈귀들을 사법기관에 넘기는것이 옳은 처사일것 같소.》

《어떻게요?》 질베르만이 반문했다. 《여긴 재판소도 검사도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자들을 끌고다닐수도 없을게고.》

《뽈스까동무들에게 부탁합시다. 그들은 포로들이 전선을 넘어가게 해줄거요. 파쑈도이췰란드군의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빨찌산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이 다 알아야 하오. 재판소가 흡혈귀인 의사들의 문제를 심의할 때 쏘련출판물과 라지오와 영화가 관심을 돌릴거요.》

흘레밍그교수는 포로된 의사들의 개인별 범죄내용을 서면으로 써달라는 제의에 동의했다. 조건은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런 다음 간호원 엘리자베스에 대해 물었다.

《그 녀자는 이제 내가 말한 의사들보다 나은것이 없습니다. 도리여 더 나쁠수 있습니다.》 교수는 쏘련군대포로에게서 피를 뽑은 문제뿐아니라 간호원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받는 버릇이 있는 소에게는 하느님이 아예 뿔을 주지 않는다고 요행 이 녀자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녀자의 우매성을 리용하여 우리는 파시스트들에게 여러가지 불쾌한 일을 들씌워줄수 있었습니다. 례를 들면 병원에서는 부상당한 적 병사, 장교들의 입원은 엄격히 금지되여있었지만 나는 한 로씨야대좌를 치료해주었습니다.》

《뚜르하노브말이요?》 싸완제예브가 물었다. 《그의 건강상태가 어떤가 말해주시오.》

《사실상 그의 건강은 이미 회복되였습니다. 내가 와르샤와에서 지체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벌써 자유로운 몸이 되였을겁니다.》

《다시말해서 당신이 그를 퇴원시켜 포로수용소로 보냈다 그 말이요?》 싸완제예브가 불안해서 다그쳐물었다.

《아니요.》 교수는 미소를 짓더니 뚜르하노브가 계획했던 탈주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 9 장

와르샤와에서 철수한 군대병원은 나흘만에 부르노에 도착하여 이전 학교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행방불명된 의사들의 자리는 이전에 에쓰에쓰부대에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전투부대에서 제외된 새 의사들이 차지했다. 이전 병원일군들을 그들은 후방의 벼슬아치라고 불렀다. 새로 임명된 병원지도부는 종전에 제정했던 질서를 뒤집어엎기 시작했다. 나치스식인사로 오른손을 쳐들지 않는 고용자들은 다 내쫓고 젊은 간병원, 준의들과 한번도 부상이나 타박상을 입은적이 없는 군의들은 전선으로 보냈다. 고정인원들을 정리한 다음에 환자들과 부상자들에게 달라붙었다. 첫번째 심의에서 그들은 《꾀병쟁이》들을 오십명이상 적발해냈다. 그들이 제정한 평가에 의하면 이 《꾀병쟁이》들은 더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시 전선에 동원되고싶지 않아 병원에 계속 남아있다는것이였다. 그들 전부를 퇴원시켜 새로 조직되는 첫 보충중대에 포함시켜 전투부대에 보냈다.

거칠고 교양이 없는 이런자들가운데서도 특히 새로 부임한 원장이 더 날뛰였다. 그는 군의대좌이며 많은 훈장의 수훈자이며 전선에서 오른팔과 왼눈을 잃은자였다. 그자는 오래전에 퇴역할 권한이 차례졌지만 충실한 히틀러분자로서 군사복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총통에게 충성으로 청백하게 복무하겠노라고 맹세다지군했다. 계속 군사복무를 하게 된 그는 몸을 지탱할수 있을 정도의 남자라면 환자건 건강한 사람이건 가림없이 모조리 전선으로 쫓아버릴 작정이였다.

원장은 문건을 검열하던 도중에 우연히 뚜르하노브의 병력서에 눈길이 멎었다.

《이건 또 뭐야?》 그는 소리지르기 시작했다. 《이런 볼쉐위크가 어떻게 되여 특전을 가지는 우리 의료기관에 들어오게 됐어?》

《알수 없습니다.》 사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전 원장의 명령으로 그를 입원시켰습니다.》

《당장 퇴원시켜 위수사령부에 넘기시오.》 원장이 지시했다.

지시는 어김없이 집행되였다. 뚜르하노브를 퇴원시켜 위수사령부에 넘기였다. 거기서는 그를 그날로 죄수차량에 실어 아이젠도르프 포로수용소에 보냈다. 거기서도 희한한 일이 있었다. 도이췰란드인은 보통 질서의 노예라고들 한다. 그들은 사실 상급의 지시를 무조건 수행한다. 원장이 자기의 선임자도 더구나 뚜르하노브의 사상개조의 가능성도 믿지 않는다고 명백히 일깨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원은 문건을 작성하면서 뚜르하노브의 포로병인물카드(이것은 그 포로의 인물특징을 증명하는 기본문건으로서 수용소 서무과에 보관된다.)에 흘레밍그교수의 결론을 한마디도 빼여놓지 않고 그대로 적어넣었다. 수용소 소장은 뚜르하노브와 함께 온 그의 인물카드에 관심을 가졌다.

《음, 그렇군…》 수용소 소장은 그 카드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도이췰란드군대를 반대하는 전투행동에 참가한 일은 없다. 표창은 일본인과 중국인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받았다… 음, 그거야 나쁘게 없지.… 해당한 방법으로 사상을 개조시키면 제국에 유익하게 써먹을수 있을것 같다.… 이건 아주 좋구만. 기대를 걸수 있는 인물이라면 우리가 어째서 그 사람을 써먹지 않겠나. 귀신이 조화만 부리지 않으면 아이젠도르프에서 제2의 블라쏘브를 길러낼수 있겠는데…》

수용소 소장은 이 문건을 게스타포전권대표에게 보였다.

《흥미있는 문건인데…》 게스타포전권대표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만일 이자가 병원에서 교양개조될 가능성을 보였다면 어째서 그 사람들이 훈장을 탈 기회를 써먹지 않았을가?》

《병원에는 개조해낼만한 적임자가 없었던 모양이군.》 수용소 소장이 자기 짐작을 말했다.

《여기에 문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기가 자기 상관에게 푸른 종이장을 내밀었다. 《거기에 소장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을겁니다.》

소장은 문건을 받아쥐고 소리내여 읽었다.

《울라지미르 뚜르하노브의 사상개조는 1938년부터 민족사회당 당

원인 간호원 엘리자베스가 맡아수행하였다. 이 녀자가 자기 교양자에게서 따따르—바슈끼르인으로 구성된 〈볼가—우랄〉재향군에 자원입대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내였다. 엘리자베스는 와르샤와에서 크라꼬브로 가는 려객기를 타고 비행하던중 행방불명되였다.》 수표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상한 문건인데, 안그렇소, 상위?》 소좌가 게스타포전권대표에게 물었다.

《아직 나에게는 뚜르하노브의 교양과정이 제정된 질서대로 되지 않았다는것 한가지만이 명백합니다. 그래 적군대좌의 교양개조문제를 한날 간호원에게 맡겼다는게 심각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직접 해봅시다. 언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오는가요?》 게스타포전권대표가 물었다.

수용소 소장은 묻듯이 서기를 쳐다보았다. 서기는 대장을 들추면서 확인했다.

《일주일전에 왔습니다.》 서기는 간단히 대답했다. 《포로된 장교들만 수용하는 제3호동에 넣었습니다.》

《제길할!》 소장이 성을 냈다. 《귀중한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였담!》

《흥분하지 마십시오.》 게스타포전권대표가 그를 안심시켰다. 《아무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합시다. 휘여들면 마저 휘여뜨리고 휘여들지 않으면 아예 꺾어버립시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고있을 때 뚜르하노브는 놈들이 제3호동이라고 부르는 세번째 가건물에 누워있었다.

그는 어지러운 천정을 올려다보면서 자기 일을 생각하고있었다. (처지로 보면 이보다 더 못한 경우는 상상할수도 없을거다. 평범한 병사들에게도 포로생활은 어렵지만 군관들에게는 몇곱이나 더 힘들다. 병사들을 나치스들은 때리고 굶기고 힘에 겨운 로동으로 고통을 줄수 있다. 그보다는 조국을 배반하라고 강요하며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장터의 재로 될 때까지 고문하여 병신을 만들것이다. 이런 운명을 어떻게 피할것인가?

반항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 탈주해야 한다.) 뚜르하노브는 결심을 내렸다.

제3호동에는 자기의 량심을 팔고 놈들의 공모자로 되겠다고 동의한 포로들이 살고있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은 그자들을 하급지휘관이라고 부르고 포로병들은 《까뽀》라고 불렀다. 이런자들은

워낙 책임감을 느낄줄 모르는 인간이거나 포로되여 아주 위축되여 버린 천성적인 비겁분자 아니면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자들이였다. 그자들은 모든 포로들에게 주는 일반규정량을 초과하는 한쪼각의 빵부스레기나 목전의 사소한 리익을 위해 그 어떤 비렬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자기 동지들을 팔았고 자기 부하포로들을 죽도록 때렸으며 약자들을 못살게 굴어 제손으로 목숨을 끊게까지 했다. 이자들은 소위 무의식적인 파시즘의 사환군들이였다. 이전에 쏘베트정권을 마음속으로 증오하면서도 적의 편으로 넘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규률과 질서를 어기는 형태로 소소하게 더러운짓을 감행하던자들이 포로로 붙들려와서는 모든 면에서 파시스트들을 도우려고 열성적으로 나섰다. 그자들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의 승리에 이바지하겠다는것이다. 이런자들은 수용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신임을 얻은 후에는 도이췰란드놈들이 그자들을 블라쏘브부대나 기타 반쏘적인 배신자들의 부대에 보내였다. 그런 《까뽀》들의 수중에 들어가는것을 대다수의 포로들은 죽기보다 더 고통스럽게 여기였다.

수용소당국에 알려진 정도로 뚜르하노브를 료해한 《까뽀》들은 그를 선동해서 다 터놓게 하여 그의 기분상태와 의도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을 자기 상전에게 일러바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말았다. 뚜르하노브는 그자들의 이야기와 지방장관들에 대한 비방중상을 참을성있게 들으면서도 자기 의견은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다. 《두고보세나》혹은 《양이 승냥이를 아무리 욕해야 소용있나.…》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두세마디 말을 할뿐이였다. 그렇게 되자 배신자들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었다. 그가 그 방에 온 첫날부터 각별한 인연을 맺은 화부총각에게는 이것이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전에 경리소대 병사였던 배운것이 적은 촌뜨기청년은 포로수용소에 끌려와서야 생활의 복잡성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였다. 총각은 도이췰란드사환군들의 조롱을 참을성있게 견디여냈다.

(내가 살아만 나면 저놈들과 톡톡히 계산을 할테야. 쥐구멍에도 해들 날이 있겠지.)

아무 까닭도 없이《까뽀》한놈이 다짜고짜로 그의 뒤통수를 갈겼을 때 총각은 자신을 이렇게 위안했다. 총각은 자기의 특유한 감수성으로 뚜르하노브에게서 자기처럼 억눌린 사람을 전적으로 동정하

는 비범한 인품을 찾아보았다.
《어째서 그자들에게 톡톡히 면박을 주지 않았나요?》 총각은 뚜르하노브와 단둘이 있게 되자 물었다.
《사람에게는 귀가 둘인데 입은 하나 있지. 이건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거야. 총각, 이걸 명심하라구.》 대좌는 그의 등을 철썩 쳤다.
화부총각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더니 손가락끝으로 자기 귀와 입을 다쳐보고 씩 웃었다.
《정말 그렇군요.》
수용소 소장이 뚜르하노브를 불렀을 때 총각은 그를 바래주려고 따라나왔다.
《우리 사람들이 수용소 소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흉악한 짐승보다 더 못한놈이라고 해요. 여우보다 더 교활하고 사자보다 더 무서워요. 말은 귀맛좋게 하지만 주먹으로는 이발을 부러뜨리지요. 여기서 그놈은 재판관이고 신부이며 교형리이기도 하지요. 제놈이 사형언도를 내리고는 직접 사형집행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기도 한답니다. 그놈에게 굽어든자는 〈까뽀〉로 전락되고 반항한자는 땅속에 묻히게 돼요. 그놈을 조심하십시오.》 화부총각이 충고를 했다.
사전약속이 있어서 서기가 보고도 없이 뚜르하노브를 수용소 소장에게 들여보냈을 때 그자는 불길이 활활 이는 난로앞에 앉아 향기로운 담배연기를 흡족해서 내뿜고있었다.
《아, 대좌님!》 수용소 소장이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쳐 반기였다. 《당신을 알게 되여 반갑습니다. 불가까이 앉아 몸을 쪼이십시오. 밖은 추울테지요. 난 당신을 심문하자는게 아니라 이렇게 유쾌한 담화를 하자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통역원의 수고가 없어도 되겠지요?》
병원에 있을 때 뚜르하노브는 의사, 간호원들과 모두 도이췰란드어로 말했었다.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가 진짜 포로의 처지에 놓이게 된 지금에는 통역원의 수고를 비는것이 편리할뿐아니라 유익하기도 했다. 매개 질문을 최소한 두번은 듣게 되겠으니 대답을 잘 준비할수 있게 될것이다. 또한 놈들은 그가 도이췰란드말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가 있는데서 비밀에 속하는 이야기를 떠벌일수 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도이췰란드어를 전혀 모르는체 했다. 수용소 소장이 앉으라고 권했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도이췰란드어지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서있었다.
《유감인데요.》놈은 한숨을 짓고 서기를 시켜 통역원을 불렀다. 통역원이 곧 나타났다. 《통역하시오.》 도이췰란드놈이 명령을 내리고 뚜르하노브에게 한 말을 되풀이했다.
《터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뚜르하노브가 대답했다. 《우리가 다른 때에 다른 환경에서 만났더라면 나도 기뻤을겁니다.》
《례를 들면?》 도이췰란드인이 심각해져서 물었다.
《평화시절에 공식적인 연회석상같은데서지요.》
《오, 그런가요?》 도이췰란드인은 웃음을 지었다. 《의사만 소통되면야 귀신의 조화가 없는한 전쟁시기에도 공식적인 연회석상에 함께 참가하게 되겠는데요. 아직은 앉으라는 청으로 그치겠습니다. 보다 실무적인 사업토의를 좀 합시다. 당신은 요 며칠동안 우리 수용소생활을 해보셨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모든게 당신마음에 들던가요?》
뚜르하노브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앉은 다음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내가 설사 모든게 마음에 든다고 해도 당신은 믿지 않으실텐데요.》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군요.》 파시스트놈은 헤벌쭉이 웃었다. 《나도 겁쟁이들을 좋아하지 않소. 무엇이 제일 마음에 거슬리던가요?》
《포로들에 대한 제네바협정의 위반입니다.》
수용소 소장은 상대자에게 노기에 찬 눈길을 던졌으나 인차 억제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요.》 그자가 말했다. 《하급지휘성원들이 저지르는짓이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주장에 따라 비법적행동을 저지르지요. 도이췰란드는 자기 정부가 수표한 협정과 조약들을 존중하고 신성하게 준수하오. 그러나 여기서는 〈까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엄격히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욕질과 손찌검까지 하군하지요. 왜 그런지 아시오?》

뚜르하노브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가능하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그가 청했다.
《군대에 초모되기전에 〈까뽀〉중의 많은자들은 당신들이 말하는 〈류형지〉에 갇혀있었소. 이전 형사범들에게서 무슨 좋은걸 바라겠소.》 수용소 소장은 두팔을 벌려보였다.
《내 생각엔 바랄것이 아니라 그자들을 보다 적당한 다른 사람들로 바꿔치워야 할것 같습니다.》
《바꾼다고? 말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누구와 바꾸겠소. 적당한 인물들은 〈까뽀〉로 되기를 원치 않소. 그렇다고 그자들없이는 보다 싶이 질서가 잡히지 않지요. 그래서 이전 전과자들의 도움을 바라게 된것이지요. 나는 여기서 일한지 몇달밖에 안되지만 이 부문에서 내가 이미 해놓은게 있소. 지휘성원들을 교체한 후에 〈까뽀〉들속에서도 질서를 잡으려고 하오. 그래서 바로 새 사람들을 선출하는 사업에 착수했지요. 바로 이 문제때문에 당신과도 의논하자는거요.》 소장은 교활한 웃음을 지었다.
《나에게 〈까뽀〉의 직책을 맡기자고 하시는가요?》 대좌가 쓴웃음을 지었다.
《어째서 〈까뽀〉겠소? 그건 중사, 상사들의 일거리요. 우리는 직위와 관등급을 존중하오. 대좌의 직급에 보다 어울리는 직무를 찾아내야지요. 수용소에는 도이췰란드인소장외에 포로중에서 선발한 또 한사람의 소장이 있게 되오. 여기서는 그를 로씨야소장이라 부르지요. 이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지난달에 갑자기 죽었소. 우리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이 직무를 당신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였소.》
(그러니 쏘련대좌를 교형리의 끄나불로 전락시키기로 결정했단말이지.) 뚜르하노브는 생각했다. (헛수고네. 총통의 통치자나리, 자네는 이발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딴딴한 호두알을 고른셈이야.)
뚜르하노브가 가까운 시일안에 탈주할 계획을 하지 않았더라면 단번에 소장의 제의를 일축해버렸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끌면서 그것을 자기 목적에 리용하기 위해 결정적인 대답은 피했다.
《신임해주어 감사합니다. 그 로씨야소장의 권한과 임무가 어떤것

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례의상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뚜르하노브가 물었다.《로씨야인소장의 기본임무는 수용소에 해당한 질서를 세우도록 돕는것이요. 우린 당신이 따따르재향군에 복무하려 한다는걸 알고있지만 나는 당신이 여기 있는게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오. 다른건 제쳐놓고라도 여기선 탄알도 날아다니지 않고 포탄도 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난 그런걸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결정하기전에 얼마간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서 생각해보시오.》 소장이 동의했다. 《생각하는데 사흘이면 족하겠지요. 사람들과 사귀면서 새 직무를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떻게 시작하는게 좋겠는지, 〈까뽀〉에서 누구를 떼겠는지 연구해보시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목요일에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겠소.》

뚜르하노브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소장이 그를 멈춰세웠다.

《참 잊을번했군.》 그가 말을 꺼냈다.《래일 포로들의 회의가 열리오. 보다싶이 우리 수용소에서는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군하오. 당신도 거기서 연설할수 있소.》

《무슨 연설을요?》 뚜르하노브는 긴장했다.

《일일이 깨우쳐주지는 않겠소. 교양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의에는 선의로 대답한다는 관례가 있지 않소. 중상당한 당신을 우리 의사들이 죽음에서 구원하지 않았는가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서게 해주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당신에게 아주 존경할만한 직무를 권고하고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위해 필요한 말을 해주었으면 하오.》

제 10 장

다 아는바와 같이 식물은 태양을 따르고 동물은 자유를 갈망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보다 더 귀중한것은 이 세상에 없다.

포로들은 오직 자유를 바라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몸뚱이에 실오리만큼 붙어있는 생명을 유지하고저 힘을 키우는것이다. 자유가 바

로 그들을 잔악하고 무자비한 원쑤와의 필사적인 싸움에로 추동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무권리한 처지와 타협하지 않는 한 조만간에 자유를 찾을수 있게 되는것이다. 뚜르하노브는 이것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있었다. 에스빠냐에서 파시스트들이 승리하였을 때 그는 국제려단 전투원, 지휘성원들과 함께 프랑꼬도당의 손에 붙잡히게 되였다. 재판도 심문도 없이 그들을 바다의 파도만 철썩이는 외진섬에 자리잡은 중세기적인 감옥에 감금했다.

그곳에서 도주한다는것은 불가능하게 생각되였다. 그러나 그는 장기간의 준비끝에 다른 공산당원들과 함께 탈주하여 무사히 조국으로 돌아왔다. 아이젠도르프수용소는 섬이 아니라 륙지에 있었다.

그러니 거기서 탈주하기는 프랑꼬감옥에서보다 쉬울것이다. 그는 벌써 탈주준비를 다소 해놓았다.

포로들은 파시스트두목들의 시외관저건설에 쓰일 대리석을 채취가공하는 작업을 하고있었다. 생산한 석판을 날라가기 위하여 1주일에 한번씩 빈 차량들을 채석장으로 끌고왔다. 기관사는 반파쑈지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개별적인 포로들을 수용소에서 빼내여 대기하고있는 동지들에게 날라다주군했다. 뚜르하노브는 그 지하위원회의 한 성원과 련계를 맺고 그로부터 탈주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기관사와 합의를 보기 위해 다음번화차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문제는 시간에 달렸다. 이렇게 잘 시작된 일을 성과적으로 끝낼만한 시간을 파시스트들이 주겠는지…

무엇보다도 수용소 소장이 그더러 연설하라고 한 그 회의가 대좌를 매우 불안케 했다. 그 연설이 그의 탈주를 성공케 할수도 있고 그 계획을 파탄시킬수도 있었다. 모든것이 앞으로 할 그의 연설내용에 달렸다.

(정말 나를 사경에서 구출한 병원성원들에 대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라고 도이췰란드인들이 요구한다면 나는 흘레밍그교수에 대한 몇마디 따뜻한 말을 하자.)

뚜르하노브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연설내용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회의가 소집된 리유는 이러했다.

한때는 전세계를 통채로 먹어치우려던 파쑈도이췰란드가 1944

년말에는 이미 치명상을 입고 최후의 힘을 다하여 적수에게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맹수같았다. 도이췰란드의 찬양받던 무력은 전전선에 걸쳐 패배를 거듭했다. 그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은 하나, 둘 떨어져나갔다. 이미 이딸리아와 로므니아, 벌가리아, 필란드가 떨어져나갔으며 마쟈르와 슬로벤스꼬가 당장 흰기를 들게 되였다. 사실상 도이췰란드인들이 단독으로 사방에서 밀려드는 적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완전패망의 시각을 늦추기 위해 히틀러의 장령들은 손에 총을 쥘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군대에 초모했다. 로인과 미성년으로 조직된 민병들이 거리를 행진해다니였다. 벨라루씨와 우크라이나전투들에서 도이췰란드군이 입은 커다란 손실을 충당할 인원의 부족은 도이췰란드당국의 방어계획을 파탄시켰다. 남의 팔매에 밤 주을 꿈을 오래전부터 꾸어오던 파시스트들은 블라쏘브군대, 따따르－바슈끼르재향군, 뚜르께스딴재향군, 이슬람교와 기타 종교단체들과 같은 배신자들의 각종 어중이떠중이들을 전투에 투입시켰다. 그런데 거기서도 손실을 충당할 인원이 부족했다. 포로수용소들에 긴급히 징병관들을 파견했다. 그들중의 하나가 수용소행정당국에서 그자에게 전적으로 협력하라는 권위있는 상급의 지시문을 들고 아이젠도르프수용소를 찾아왔다.

수용소건물앞에는 꽤 넓은 광장이 있었다. 도이췰란드인들은 거기를 아펠프라쩨라고 불렀다. 대체로 거기서 아침과 저녁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소지품을 검열했으며 명령서를 전달하고 죄를 지은 포로들을 재판하고 군중적인 처벌을 주기도 했다. 회의나 기타 군중행사들은 로동시간외에 진행했다.

이번에도 로동시간이 끝난 다음에 포로들을 끌어다가 연단앞에 정렬시켰다. 날씨는 아침부터 흐렸다. 센 바람이 불어왔다. 몇시간을 두고 보슬비가 내리였다. 300명이상의 포로들이 몸을 옹송그리고 선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있었다. 반시간이 지나갔다. 수용소지도부는 회의를 빨리 열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피로하고 꽁꽁 언 포로들이 쓰러질 지경이 되였을 때에야 드디여 연단으로 소장, 게스타포전권대표, 통역, 보초병들을 거느린 직일관 그리고 도이췰란드군소좌의 군복을 입고 팔에는《로씨야해방군》의 완장을 두른 낯선 사람이 나왔다. 그 완장은 배신자 블라쏘브의 군대소속을 가리키

는 표식이였다.
개회를 선언한 수용소 소장은 통역의 입을 통해 이제 블라쏘브대장의 개인대표인 까르마노브소좌가 출연하여 자기 동포들에게 전선형편을 알려주고 해방위원회의 호소문을 읽겠다고 언명했다.
《그의 말을 정중히 들은 후 해당한 결심을 내리기를 바라오.》소장이 미리 주의를 주었다.
모인 포로들은 묵묵히 연단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어제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은 블라쏘브의 졸개는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래동안 리해하지 못했다. 소장은 통역원에게 뭐라고 소곤거렸다. 그러자 통역원이 블라쏘브의 졸개에게 또 소곤거렸다. 그제서야 연설자는 란간결에 자리를 잡고 모여선 사람들을 멍청한 눈으로 한바퀴 둘러본 다음 석쉼하고 잠에 취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동포여러분! 친애하는 나의 동향인여러분! 블라쏘브장군은 당신들에게 해방위원회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읽어주라고 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나는 이 위임을 기꺼이 수행합니다. 모두 들어주십시오.》
연설자는 끊임없이 떠듬거리고 단어를 뭉텅 빼여먹는가 하면 때로는 구절 하나를 뛰여넘으면서 배신자의 유명한 호소문을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것이였다.
《알아들었습니까?》 다 읽고난 까르마노브가 물었다. 《우리 위원회는 당신들이 로씨야해방군에 자원입대할것을 호소하는바입니다.》
《당신의 군대는 누구를 어디서 해방한다는건가요?》군중속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 군대는 인류의 적들로부터 로씨야땅을 해방합니다.》까르마노브가 대답했다.
《여보, 늦었소. 로씨야땅은 벌써 해방되였고 인류의 적들은 당신네 블라쏘브패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령토에서 쫓겨났소.》아까 그 목소리가 놈의 발언을 《정정》했다.
《당신네 군대는 누구를 반대하여 싸웁니까?》젊은 포로가 들이댔다.
《조국의 적들을 반대해 싸우지요.》놈들은 직선적인 대답을 피

했다.
《더 정확히 말해줄수 없소?》질문했던 포로가 끈덕지게 달라붙었다.
《그럼 좋소. 꼭 집어서 대답하겠소. 우리는 붉은군대를 반대하여 싸웠으며 앞으로도 싸울것이요.》블라쏘브군대의 소좌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난 당신네한테 못가겠소.》
《어째서?》 까르마노브가 엄하게 따지고 들었다.
《붉은군대대오에서 우리 아버지가 복무하고계시오. 나한테 뭘 명령하오. 그래, 친아버지와 싸우란말이요? 아니요. 못가겠소. 례절바른 자식은 아버지와 싸우지 않소.》 포로가 대답하였다.
까르마노브는 연단에서 뛰여내려 그《햇내기》(그는 그 젊은이를 혼자 그렇게 불렀다.)를 때려주고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자기편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변절자의 후보자들을 블라쏘브네한테서 리탈시킬수 있었기때문이다.
《선동은 그만하시오.》 중년의 포로가 대화에 끼여들었다. 《그러지 말고 전선형편이나 이야기해주지 않겠소?》
《난 기꺼이 전선형편을 알려주겠습니다.》 까르마노브가 다짐을 했다.《전전선에 걸쳐 전투는 진행되고있으나 붉은군대측도 영미군측도 최근에는 아무런 전과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도이췰란드군은 적당한 기회에 또다시 된타격을 주어 적군을 격퇴하려고 힘을 축적하고있습니다. 두고보십시오. 승리는 우리의것입니다. 블라쏘브장군의 부대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전쟁이 끝난 후 매 병사에게 50헥타르의 토지를 분여할것이고 군관들에게는 두배를 줄것입니다. 벗들, 등록하십시오. 등록할분은 즉시에 물자공급을 받고 로씨야해방군과 꼭같은 식사를 보장받을것입니다. 자, 결심을 하십시오!》
이 말을 끝낸 까르마노브가 돌아서서 손짓을 하자 4명의 도이췰란드병사들이 연단뒤쪽으로부터 다채로운 음식이 차려진 커다란 식탁을 날라왔다. 거기에는 폭신폭신한 흰빵과 여러 종류의 고기순대, 물고기, 통졸임들 그리고 당과류까지도 놓여있었다. 놈들은 이 식탁을 맨 앞쪽에 끌어다가 사방에서 잘 보이게 했다. 허기진 포로들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키기 시작했다.

《에이, 저 산해진미를 실컷 먹어봤으면…》
어느 한 포로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로씨야해방군에 등록만 하십시오. 그러면 즉시에 1일분의 식료품에 한병의 맥주까지 덧붙여받게 됩니다.》까르마노브가 마음을 후하게 썼다.
《누가 먼저 하겠소? 어서 나오시오.》까르마노브가 못쓸 상품을 팔아먹으려는 장마당 장사군처럼 소리쳤다.
펼쳐놓은 산해진미에 유혹된 사람들도 있었다. 집안에는 병신도 있기마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포로들의 무리속에서 건장한 젊은이 하나가 앞으로 나가더니 식탁있는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 막씸, 기억해두라구.》 누구인가 소리쳤다. 《그래 우리가 빵쪼각에 홀리우는 개란말인가?》
《난 먹고싶네.》 막씸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거칠게 내쏘았다.
《바보! 넌 누구를 따라가려는거냐? 너와 같은자들을 벌써 백만이나 삼켜버린 식인종들을 따라가려는거냐? 자식들이라도 불쌍히 여기게. 자기 아버지가 변절자라는 생각에 자식들이 일생을 고통당하지 않게 하라구.》
막씸은 돌아서서 부리나케 군중속에 숨어버렸다.
수용소 소장의 질문에 응하여 통역원이 벌어진 사태를 설명해주었다.
《좋아.》 그는 악에 받쳐 눈을 번뜩이며 지껄였다. 《너희들이 블라쏘브장군 특사의 말을 못믿겠으면 중상을 입고 포로되였던 쏘련군대좌의 말을 들어보라.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속이지 않을거다. 대좌님, 당신에게 언권을 줍니다.》 그가 뚜르하노브에게 말했다.
이런 정황에서 쏘련영웅의 입을 통해 도이췰란드교수에 대한 치하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면 블라쏘브군대에 집단적으로 입대하라는 호소로 들릴수 있었다. 때문에 뚜르하노브는 사전에 준비한 연설을 그만두고 즉흥적인 연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통역원의 곁을 지나칠 때 그자는 뚜르하노브에게 이렇게 속삭이였다.
《소장님은 당신이 까르마노브소좌의 견해에 동의해주길 바랍

니다.》
대좌는 성가신 파리를 쫓듯이 그자에게 손을 휘저어보이고 란간결으로 다가갔다. (이번에도 탈주가 파탄되겠구나.) 그는 생각했다. (체포를 모면할 길이 없다는것을 알고있지만 달리할 도리가 없다.)
《포로병동무들!》 그는 군중을 향해 웨쳤다.《방금 이와노브족속의 인간이지만 자기 민족도 모르는자가 우리 앞에서 연설하였습니다. 그자는 당신들에게 배신자 블라쏘브의 군대에 지원병으로 등록하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자를 믿지 마십시오. 그는 속임수로써 당신들을 배신자들의 무리에 끌어넣으려 하고있습니다. 도이췰란드군이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는것을 명심하십시오. 1941년도에는 그들이 자기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이췰란드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어제날의 동맹국들인 로므니아, 벌가리아, 핀란드는 쏘련과 손을 마주잡고 도이췰란드를 반대하여 싸우고있습니다. 그리고 영미군은 여러 개소에서 도이췰란드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쏘베트군대는 노도와 같이 동쪽에서 밀려오고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베를린에 입성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까르마노브란자는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약속을 미끼로 당신들에게 조국을 변절하라고 호소하고있습니다. 미끼로 짐승은 유혹할수 있지만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배는 곯지만 우린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마음한뜻이 되여 비렬한 배신자의 호소를 물리치고 끝까지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충직한 아들로 남아있읍시다!》 군중은 설레였다.《우리는 블라쏘브군대에 가지 않겠다!》, 《우리는 조국과 함께 있다!》, 《배신자는 물러가라!》 라는 웨침이 들려왔다.
이상한 기미를 차린 수용소 소장이 통역원에게 뚜르하노브가 무슨 말을 하는가고 물었다. 그자는 뚜르하노브의 연설내용을 간단히 전달했다. 소장은 격분했다. 처음에 그는 미칠듯이 권총집을 열기 시작했으나 자기가 무기를 사용하면 흥분한 군중이 그에 대한 반응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곧 깨달았다. 군중의 폭행을 눌러놓기 위해서는 자신이 참을성을 발휘하여 평온한체 해야 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
《조용하시오!》 소장이 손짓을 해가며 소리쳤다.
《방금 당신들앞에서 두 연설자가 출연했소. 한 사람은 당신들에게 로씨야해방군에 들어가라고 호소했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말라

고 했소. 당신들은 어린애가 아니고 어른들인것만큼 누구와 같이 가겠는가를 자신들이 결정해야 하오. 조급해하지 맙시다. 〈찬성〉인가 〈반대〉인가 곰곰히 생각해보고 래일아침에 확답을 주시오. 이것으로 폐회를 선언하오. 자기 호동으로 헤쳐들 가시오!》

《까뽀》는 수용소 소장의 지시를 리행하노라 서둘러댔다. 광장은 인차 텅 비였다.

《뚜르하노브는 어떻게 할가요?》 게스타포전권대표가 물었다.

《밤에 체포하시오. 아침까지 까르마노브를 로골적으로 반대해나선자와 뚜르하노브를 지지하여 구호를 웨친자들을 모조리 밝혀내시오. 그자들을 모두 아침에 징벌부대로 옮기게 합시다.》수용소 소장이 명령했다.

제 11 장

지원병을 모집하여 돈도 벌고 상전의 신임도 받자던 배신자 까르마노브의 꿈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설복도 위협도 도움이 안되였다. 포로병들은 블라쏘브군대에 등록하기를 단호히 거절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성할 때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다간 뼈다귀도 추리지 못해. 허지만 어쨌든 네놈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블라쏘브와 한교수대에 매달리게 되리라는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직통으로 말했다.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빈 손으로 돌아가는수밖에 없었다.

수용소 소장도 벌어진 사태를 놓고 깊이 생각해보았다. (우리가 뚜르하노브와의 사업을 지내 서둘렀어.) 그자는 후회했다. (그자를 밀고 동포들앞에 내세우기전에 더러운 사건에 끌어넣어 망신시켜야 하는걸 그랬어. 그러면 꼼짝 못하고 우리 손에 걸려드는건데. 이젠 불쾌한 경우를 면하기 힘들게 되였지. 우리가 포로된 대좌를, 그것도 보통군관이 아니라 쏘련영웅으로서 따따르재향군에 스스로 들어가기를 바랐다는자를 우리편으로 끌어들일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상급에서 알게 되면 나를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이 어려운 사태

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것인가?)
상부의 불만을 살가봐 두려워난 소장은 뜨르하노브의 체포를 연기하게 하였다.
(우리와 협력하는 외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는것을 그자에게 깨닫게 해야 한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 그자에게 다시한번 이 진리를 깨우쳐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소장은 체포하기에 앞서 뜨르하노브를 사무실로 부르라고 명령했다.
《대좌, 앉소.》통역원이 대좌를 데리고왔을 때 소장이 자리를 권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시다. 당신은 무분별한 행동이 어떤 불쾌한 결과를 빚어내는가를 깨달았으면 하오. 우리에게 엇설 필요가 없소. 나는 앙심을 품는 사람이 아니여서 복수할 생각은 없소. 당신이 제때에 마음을 고쳐먹는 한에서말이요.》
그는 한참 동안을 두었다가 이렇게 덧붙인 다음 상대편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내가 뭘 뉘우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뜨르하노브는 어깨를 으쓱했다.
소장은 성이 나서 푸들거렸다. 《그래 당신이 회의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지 않았단말이요?》
《회의에서 나는 전쟁과 류혈을 반대하여 연설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고있으며 도시와 마을이 불타고있습니다. 만일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까르마노브와 같은 무책임한자들은 마지막 한사람까지 전쟁을 계속하려 할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벌써 다섯해째 사람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있습니다. 살인자의 손을 얽어매고 총대신에 로동도구를 바꾸어쥘 때가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이 일을 하지 않으면 래일은 벌써 늦을것입니다. 그러면 온 민족이 파멸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도이췰란드가 이기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날수 없소.》소장은 성이 나서 주먹으로 책상을 탕 치고 왜가리소리를 질렀다.
《자신과 남을 속이려들지 마시오. 련합국 군인들은 지금 사방에서 도이췰란드로 조여들어 오늘 아니면 래일 그들은 당신들의 집에 달려들어 1941년도에 당신들이 우리 집들을 불사른것처럼 불사를것이요. 당신들이 구원될 길은 무모한 전쟁의 계속이 아니라 그의 조

속한 종식에 있소.》

수용소 소장은 고집불통인 대좌와의 론쟁이 쏘련영웅을 조국반역자대렬에 쓸어넣으려는 자기의 숨은 목적에 접근시키기는 커녕 도리여 더 리탈케 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사업에 착수하기로 결심했다.

《좋소. 더는 론쟁하지 맙시다.》 그는 손을 저었다. 《난 로씨야소장이 된 당신을 보자고 했는데 회의에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고싶지는 않은만큼 림시 징벌부대의 〈까뽀〉직무를 맡아주기 바라오. 다짐하오만 거기서 좋게 나오게 되면 종전의 나의 결심을 반드시 재검토하게 될것이요. 동의해주기 바라오.》

《절대로 안하겠소.》 뚜르하노브가 잘라말했다.

수용소 소장은 불에 덴것처럼 후닥닥 뛰쳐일어났다. 그는 문자그대로 악에 받쳐 씩씩거렸으나 인차 진정하고 옆방에서 대기하고있는 게스타포전권대표를 불렀다.

《내 일은 끝났소. 저자를 당신들의 손에 넘기겠소.》

게스타포전권대표는 이러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자가 손을 흔들자 세명의 에쓰에쓰대원들이 눈깜빡할사이에 뚜르하노브에게 수갑을 채워 방에서 끌어내갔다.

제 12 장

급행렬차에 감방차량을 련결했다. 먼지와 그을음이 낀 퇴창은 빛을 통과시키지 않아 그속은 아무리 맑게 개인 날씨에도 어둑컴컴하였다. 자기들을 어디로 끌어가는가 알기 위해 뚜르하노브는 역의 이름을 내다보고싶었으나 그럴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간수들은 창문에 빛이 새여들지 않는 두꺼운 휘장을 치고 전기불을 켰다. 기차는 앞으로 앞으로 더 멀리 달리였다. 렬차의 삐걱거리고 덜컹거리는 소리와 몸의 단조로운 진동은 사람들에게 갑갑증과 졸음만을 몰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고 또 일부는 앉아서 졸고있었다. 뚜르하노브도 몸을

기대고 잠을 청해볼가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밝은 불빛속에 상급간수의 둔한 자태가 나타났다.

《주의!》 그는 투박한 저음으로 소리질렀다. 《내가 부르는 죄수들은 승강대에 모일것.》

그는 열명의 이름을 불렀다. 뚜르하노브의 이름은 명단의 맨 마지막에 있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자기 짐을 꾸려가지고 서둘러 출구로 나갔다.

그러는동안에 기차는 속도를 더 내여 달리고있었다. 인차 제동기가 삐걱거리더니 아주 멎어버렸다. 상급간수는 수감자들의 번호표식을 대조하더니 다시 이름을 부르고 명단을 확인한 다음 작별인사로 주먹을 한대 먹이고 벌써 4명의 호송병이 대기하고있는 승강대로 내몰았다.

《검은 까마귀》라고 불리우는 감옥뻐스는 직접 역홈에까지 들어와 수감자들을 기다리고있었다. 기차가 멎자 뻐스는 뒤걸음질을 쳐서 감방차량에 바싹 다가오더니 열려진 문을 그 화차입구에 잇대여놓았다. 그것을 본 한 수감자는 참지 못하고 우스개소리를 했다.

《이전에 내가 종합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택시가 역전광장에서 나를 기다렸는데 이젠 직접 역홈에까지 들이대여주는구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의 말에는 프랑스어억양이 진했다.

《입을 닥쳐, 원숭이새끼같으니.》 상급호송병이 말한 수감자의 뒤덜미를 주먹으로 쥐여박고 소리쳤다. 《뻐스에 뛰여올라!》 프랑스사람이 뛰여오르고 그 뒤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올랐다.

그중에 빼빼마른 로인 하나는 문앞에서 머뭇거렸다. 한때 축구선수로 이름을 날린 젊은 호송병이 로인을 발로 찼다. 로인은 꼴문으로 축구공이 날아들듯이 뻐스안으로 날아들었다.

인차 문이 닫기고 《검은 까마귀》는 시내로 달렸다.

수인들과 호송병들사이는 말이 잘 통하지 않게 차단되여있었다.

이 조건을 리용하여 수감자들은 가만가만 말을 주고받았다. 게스타포의 감옥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자취도 없이 사라지군한다. 그런 운명을 념려하는 수인들은 기회가 생기면 그중 살아남는 사람들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식을 알려줄수 있도록 주소를 교환하려 한다. 지금도 그들은 그런 일을 하고있었다.

《난 프랑스에서 온 미쉘 베르줴라크입니다.》 뻐스에 오를 때 뒤덜

미에 주먹찜질을 당한 사람이 자기 소개를 했다. 《나의 소식을 빠리종합대학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본을 땄다. 뻐스에는 3명의 프랑스인, 2명의 유고슬라비아인, 2명의 그리스인, 1명의 노르웨이인, 1명의 단마르크인 그리고 뚜르하노브가 있었는데 그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어째서 당신은 우리에게 〈좌표〉를 대주지 않는가요?》 프랑스교수가 그에게 물었다.

《아직 나는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주소는 누구에게도 필요없지요.》 대좌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락천가이시구려.》 프랑스사람이 웃었다.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신장과 간이 못쓰게 됐지요. 형리와 다시한번 맞다들면 내 운명이 결정될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야수들은 인체해부학을 잘 연구했더군요. 어디에 간이 있고 어디에 신장이 있는지 알고있습니다. 빗맞히는 법이 없으니까요.》 단마르크사람이 수긍했다.

《나는 피를 토합니다. 놈들이 나의 폐를 쳐서 출혈케한것 같군요.》 노르웨이사람이 하소연했다.

그러는동안에 《검은 까마귀》는 귀청을 째는 싸이렌을 울려 길을 열며 제일 번잡한 거리의 한복판을 지나 중세기 기사의 성새 비슷한 고대건물에 이르렀다. 뻐스가 다가오자 급히 열린 무거운 철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들어간 《검은 까마귀》는 철창을 창문에 대고 벽체는 두터운 철근콩크리트블로크로 쌓은 3층짜리 신축건물앞에 멈춰섰다. 이것은 게스타포의 국내감옥이였다.

여기서 또다시 수감자들을 면밀히 검사하고 개인소지품을 모조리 빼앗았으며 지문과 필체를 받고서야 감옥의사에게 데리고갔다.

《모두 옷을 벗어!》 돼지처럼 살찐 위생병이 꽥 소리를 질렀다. 《의사가 귀신이 아닌이상 옷을 입은 너희들의 〈병〉을 알아낼수 없단말이야. 빨리빨리!》

보통 의사들은 진찰할 때 우선 환자자신에게 관심을 돌린다. 청진기로 듣고 검사하며 혈압과 열을 재고 맥박을 세며 환자의 호소를 귀담아 듣는다. 감옥의사는 그런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수인들이 겨드랑이밑이나 입안, 허벅다리짬에 감출수 있는 귀중품 혹은 날이 선

물건과 뾰족한 물건이 없는가를 찾을뿐이였다. 이러한 물건을 찾아내지 못한 의사는 위생병에게 죄수들을 《위생처리》하고 그들의 의복을 소독하라고 명령했다. 위생병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을 몰고 마당을 지나 욕실로 가서 인상이 침울한자에게 인계했다.
《우리 목욕실에 어서 오게. 정직한자는 여기서 곧장 천당으로 가고 죄지은자는 지옥으로 보내게 되네.》 침울한 욕실관리원이 롱담을 했다. 《이 문으로 들어가!》
수인들은 아무런 좋은 일도 기대하지 않았다. 관리원의 입에서 튀여나온 교형리다운 우스개는 식은땀이 솟게 했다.
수인들이 들어간 욕탕은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인상을 자아냈다.
천정과 벽들에는 작은 구멍들이 숭숭 뚫린 철관들로 된 4각형의 물건이 고정되여있었다. 세멘트바닥은 차고 미끈거리였다. 사람들의 배설물냄새와 또 다른 무슨 썩은 냄새가 풍기였다.
욕탕으로 마지막 수인이 들어가자 문이 꽝하고 닫기였다. 욕탕관리원은 밖에 남았다. 잠시후에 철관의 모든 구멍에서 증기가 휘파람소리를 내며 타래쳐나오다가 점차 가느다란 뜨거운 물줄기로 변했다.
물줄기는 어찌나 센지 맞은쪽 벽에 가닿을만했는데 그쪽벽에서도 그렇게 센 물줄기가 마주 날아왔다. 물줄기는 불쌍한 사람들의 벌거벗은 몸뚱이를 때리고 치고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뒤틀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화상을 입히겠소.》 뚜르하노브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찬물을 주시오!》
《주고말고.》 욕탕관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대한 도이췰란드는 너희들에게 끓는물도 찬물도 얼마든지 줄수 있다. 실컷 목욕을 해라!》
끓는 물줄기는 얼음같이 찬 물줄기로 바뀌였다. 수인들은 이제는 추위에 시달렸다. 모두 몸을 가드라뜨리고 덜덜 떨었다. 뚜르하노브는 다시 문으로 다가가 소리질렀다.
《그만하시오! 물을 막으시오! 우린 목욕을 다했소.》
《서두르지 않아도 되네.》 욕탕관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동장치는 십분이 지나야만 작용할거네. 그동안 더 락을 누리라구.》
어쩌는수 없이 《락을 누리는》수밖에 없었다. 얼어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달리고 뛰고 서로 밀치기 시작했고 움직일 기운이 점점 진해가는 사람들을 잡아일으켜주군 했다. 그러나 수압이 더 높아지고 얼음물줄기가 더 세게 그들을 내려치자 기진맥진한 사람들은 인차 대항할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 둘 바닥에 쓰러졌다. 미쉘 베르쉐라크도 쓰러졌다.

《힘을 내시오. 동지!》 뚜르하노브가 그에게 소리쳤다. 《문제는 서서 버티는거요. 나를 붙잡으시오. 함께 뜁시다.》

뚜르하노브는 프랑스교수를 일으켜세워 자기한테 끌어당겼다.

처음에 교수는 마다하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나 이윽고 몸이 얼마간 녹아 뚜르하노브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곧 그 둘만이 서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까딱않고 누워있거나 맥없이 움직여보려고 할뿐이였다. 이렇게 또 몇분간 계속되였다. 자동장치가 동작했는지 아니면 욕탕관리원이 선의를 베풀었는지 드디여 물줄기가 차차 약해지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아주 끊어졌다. 그제서야 문이 열리고 관리원이 보기 흉한 낯짝을 욕실에 들이밀었다.

《모두 살았나?》 그자가 수인들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난 너희들중에 정직한 사람이 없을줄 알았다. 한사람도 천당으로 가지 않았구만. 불쌍한 죄수들이군. 할수 없지. 그럼 지옥으로 가보게.》

제 13 장

그리하여 뚜르하노브는 지옥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천진한 종교광신자들이 꾸며낸 원시적인 지옥이 아니라 세계제패에 관한 총통의 잠꼬대같은 사상을 실지로 구현하기 위하여 게르만족이 모든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히틀러의 학설로 무장한 진짜 학자, 건축가, 기사들이 창조한 현대지옥으로 떠나갔다. 파시스트들이 《위생처리》라고 일컫는 끓는물과 얼음물에 의한 무서운 고문을 받은 후에 뚜르하노브는 줄무늬가 간 막베천으로 지은 수인옷을 받아서 입고 한쪼각의 하늘만이 내다보이는 퇴창 하나밖에 없는 반지하실감방에 갇히

였다.
감방에는 세멘트바닥에 있는 특수한 구멍에 볼트로 꽉 죄여 고정시킨 쇠침대 두개가 있었다. 매 침대에는 거치른 귀밀짚을 넣은 마다라스와 베개가 놓여있었고 마대천으로 만든 깔개와 낡은 모포가 펴있었다. 기진맥진한 뚜르하노브는 그중 한 침대에 쓰러져 모포를 덮고 몸을 좀 녹인 다음 죽은듯이 잠들어버렸다.
감옥출입구앞의 탑시계치는 소리에 수감자들이 잠을 깼다. 복도에 설치된 전기종이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빨리 기상하여 자기 감방을 청소하라고 명령하는 간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연히 봉변을 당하고싶어하는 수감자들은 없는지라 모두 간수들의 요구를 군말없이 수행하였다.
같은 시간에 도시도 깨여났다.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들려오고 어딘가 아주 가까운곳에서 지축을 흔들며 증기함마가 쿵쿵거리고있었다. 멀리서 도이췰란드사령부의 작전보도를 읽고있는 남녀 두 방송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7시에 아침식사를 들여왔다. 그것은 세 숟가락의 감자채와 백그람의 굳은 빵, 닦은 도토리가루에 사카린을 쳐서 만든 대용커피 한잔이 다였다. 자선단체들의 활동도 게스타포비밀감옥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 주로는 로인들이 수감자들에게 보내는 차입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충식사에 대해서는 생각할 념도 못했다. 감옥식사정량에 포함되여있는 보잘것없는 분량이라도 유기체가 최대로 흡수할수 있도록 수인들은 언제나 천천히 입안의 음식을 꼼꼼히 씹고 즙을 빨면서 식사를 했다. 뚜르하노브는 프랑꼬의 감옥시절부터 이 방법을 터득하고있었다. 그러나 도이췰란드 파시스트들은 피레네산줄기로 이어진 에스빠냐동료들보다 훨씬 더 린색했다. 뚜르하노브는 식사를 하였지만 식사전이나 다름없이 배가 고팠다.
날이 밝았다. 살창을 낀 좁다란 창문에서 감방안으로 아침해살이 비쳐들어 맞은쪽 벽의 한부분을 비치였다. 벽은 수감자들이 남긴 글로 꽉 차있었다. 어떤 수감자들은 연필이나 석탄덩이로 썼고 어떤 수감자들은 못이나 기타 뾰족한 물건으로 회벽에 새겨놓았다. 수인들은 각이한 언어로 썼다. 로어로 쓴 글이 우선 뚜르하노브의 눈길을 끌었다. 《친애하는 동지들!》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오늘 나는 총살당합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동지들을 팔지 않았고 용서를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쏘베트공민의 높은 칭호를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동지들! 중위 알렉쎄예브. 1944년 7월 3일.》
《쏘베트 군관 두명을 밤에 총살하려고 끌어내갔습니다. 복도에서 한 군관이 〈쏘련 만세! 공산주의 만세!〉하고 웨쳤습니다. 나도 죽어야 한다면 그 사람들처럼 죽겠습니다. 중사 야란다이낀. 1944년 8월 5일.》 다른 수감자는 이런 글을 남기였다.
《놈들은 매일 고문을 들이댄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리다가 찬물을 끼얹고 다시 때린다. 더 견디여낼 힘이 없다. 오늘 내절로 목을 매달겠다. 친애하는 벗들! 동지들! 불행하게 죽은 내 생명을 위해 파시스트들을 복수하라! 스쩨빠노브 이완. 1943년 9월 12일.》 세번째 수인은 이렇게 썼다.
《나는 로씨야사람이며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한사람도 불지 않았다. 모든 죄를 자신이 받아안았다. 사형을 언도받았다. 오늘 사형을 집행할것이다. 공산당원답게 죽으련다. 나의 죽음을 싸라또브시 군사위원회에 알려주기 바란다. 소좌 싸월리예브. 1943년 5월 1일.》
《어머니! 아들이 포로된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전 여기서도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저를 총살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전사 빠쁘까 브이꼬브. 공청원. 1944년 3월 24일.》 쏘련의 애국자는 어머니와 이렇게 작별했다.
《나의 아버지는 알라띄리시에서 살고계십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 집행했습니다. 나의 비행기가 무사했을 때까지 여섯달동안 파시스트놈들을 까부셨습니다. 의무를 수행한 자부심을 지니고 죽습니다. 이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여주십시오. 뾰드르 스미로노브. 1942년 2월.》
《여기에 스무날째 있습니다. 매일 고문을 들이댑니다. 전신에 피멍이 들고 종처투성이입니다. 허지만 나는 동지들을 불지 않았습니다. 이젠 나의 고통도 끝났습니다. 재판은 나에게 총살을 언도했습니다. 밤에 사형할것입니다. 몹시 살고싶지만 구원될 길은 없습니다. 적앞에서 용서를 빌지 않았으며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는것이 하나의 위안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친애하는 동지들! 투쟁

을 계속하십시오. 무서워마십시오. 라리오노브.》

남긴 글은 이밖에도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덤비지 않고 인쇄체로 큼직큼직하게 명백히 썼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었는지 이름도 날자도 쓰지 않고 덤비며 급히 써갈겼다. 그런 글중에는 보통연필을 가지고 도이췰란드어로 쓴것도 있었다. 뚜르하노브는 그 글을 몇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었다.

《로씨야에서의 10월혁명은 전세계 프로레타리아에게 광명한 미래에로 가는 길을 가리켜주었다. 나는 동지들과 함께 오스트리아공산당에 입당하였다. 4분의 1세기동안 우리는 위대한 레닌의 기치아래 깨끗한 량심으로 싸워왔다.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국가를 옹호하는것은 그가 어디에서 살건 매 공산당원의 신성한 의무라는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히틀러가 쏘련을 침공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잘 깨닫게 되였다. 만일 파시스트들이 붉은군대를 타승하여 쏘련의 사회주의를 소멸한다면 로동계급을 자본주의기반에서 해방하는 문제가 한세기는 지연될수 있다는것이다. 다행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계의 첫 사회주의국가는 견디여냈으며 그 군대는 한나라 한나라를 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하면서 질풍같이 서쪽으로 진군하고있다. 우리 유럽공산주의자들은 붉은군대가 지구상에서 파시스트오물을 하루빨리 쓸어버리게 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해방된 조국, 오스트리아를 보지 못할것이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친척들과 친지들! 슬퍼하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 우리의 죽음에 대해 파시스트를 걸음마다 복수하라! 모든 민족들의 해방자인 쏘련 만세!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모든 승리의 고무자인 공산당 만세! 교형리들이 오고있다. 문을 열고있다. 저자들은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갈것이다. 안녕히…》

오스트리아의 공산당원은 후대들에게 남기는 자기의 글을 채 끝맺지 못했다. 자기의 이름마저 적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밝혀지지 못한채 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헛되지 않았다. 그 글은 수인들의 심장속에 투쟁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뚜르하노브는 이 혁명가의 유언을 읽자마자 그것을 느끼였다.

《이 글을 쓴 사람들이 파시스트들에 의해 죽었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틀림없이 그와 같은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있을것이다. 하

지만 투쟁이 없이 그저 굴복하지는 않을테다. 감옥에 갇힌 투사의 손은 묶여있다. 투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의 몸이 될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뚜르하노브는 수인들의 글이 가득 씌여있는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였다.

이때 복도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누구인가 열쇠로 자물쇠를 벗기고 문을 열었다.

《예심원이 당신을 부르오.》 간수가 알리였다. 《나오시오.》

뚜르하노브는 자기가 도이칠란드어를 안다는것을 숨기기 위해 못알아들은체 했다. 간수는 모든 경우에 익숙했다. 그는 도이칠란드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도 익숙했다. 그들과 손시늉으로 설명했다. 이번에도 간수는 만능의 그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뚜르하노브는 그가 손시늉을 하자마자 알아듣고 호송병 두명이 대기하고있는 복도로 나갔다. 호송병들은 대좌를 처음에는 긴 복도로 이끌고가다가 계단을 내려 지하실로 데리고갔다. 새로 온 수감자에게 공포감을 안겨주려고 고의적으로 꾸민듯 두명의 호송병이 고문을 당하여 의식을 잃은 피투성이수감자를 질질 끌고왔다. 호송병들은 이런 광경에 오래전부터 익숙해진듯 했다. 그들은 숨이 끊어진듯한 수인의 몸뚱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없이 지나쳐 게스타포요원이 기다리고있는 예심원실로 그를 데리고 갔다.

게스타포요원은 다른자들과 다름없이 검은 제복을 입고있었다.

그의 커다란 독수리코는 탐욕스러운 인상을 주었고 꼭 다문 얇은 입술과 흐리멍텅한 쪼프린 눈은 그의 잔인성을 말해주었다. 실은 작은 키와 병적으로 쇠약한 몸집은 별로 공포감도 존경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뚜르하노브는 게스타포의 감옥들에는 잔인성을 발휘하기 위한 형리들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자들은 바로 이런 인간쓰레기가 신호만 하면 불행한 수인들에게 비인간적고통을 줄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것이다.

호송병들이 뚜르하노브를 예심원실에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대위 클랴인 미켈이 전화받습니다.》 게스타포요원은 송수화기를 들고 높은 상관앞에 서있기나 한듯 차렷자세를 취하고 비굴하게 지

껄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대편 대답을 듣고는 자리에 앉았다.
《아, 자네, 옷토인가? 잘 있었나? 응, 시간이 없네. 숨돌릴 틈도 없어… 물론 그자들이지. 사람이 아니라 추물들이야.… 그래, 내 마음대로만 할수 있다면 그놈들을 모조리 꼼짝달싹못하게 해놓은지가 오랬겠는데… 그래그래, 다음번에 하자구. 그럼 종종 들리게.…》

이 에쓰디대위에게는 오래동안 운이 트지 않았었다. 유년시절에는 어른들과 동무들이 그를 모욕했다. 중학교에서 그는 가장 뒤떨어진 학생이였다. 부유한 애비의 덕분으로 들어간 종합대학에서도 그는 재능이 뛰여나지 못했다. 친구들은 자기네 패에 그가 끼여드는것만은 이럭저럭 참았지만 그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명예와 존경을 몹시 바랐다. 친구들이 자기를 좋게 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무슨짓인들 하지 않았겠는가. 애비의 돈을 써가며 친구들을 료정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끌고다니였다. 일요일마다 교외산보나 들놀이에 그들을 초청했고 자기 집에서 술판을 벌리고 녀자들까지 끌어들이였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친구들은 그의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겼으나 그를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을뿐더러 도리여 더 랭대하고 모욕했다. 그의 돈지갑을 실컷 써먹은자들중에는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도리여 비렬한짓을 하는자들도 있었다. 남의 돈으로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자들때문에 그는 경찰에서 불쾌한 일을 당하는 일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드디여 그것이 클랴인 미켈을 격분케하여 그는 배은망덕한 친구들을 복수할 불같은 욕망을 품게 되였다. 자기는 막뒤에 숨어서 이전의 자기 친구들이 큰 불상사를 당하도록 계책을 꾸며야 하였다. 그는 자기의 교활한 계책을 실현할 믿음직한 방도를 오래동안 모색했다. 그런데 한가지 사건이 그를 도왔다. 극장식당에서 그의 술친구들이 폭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련행되였을 때 비밀리에 게스타포사업을 협조하고있던 경찰이 감행된 폭행에 대하여 자세히 심문하고나서 그 관계자 매 개인의 정치적동향을 알아보려고 했다. 경찰은 그가 자기 친구들의 지향과 장래계획에 대하여 아는대로 솔직히 말해주면 거액의 벌금을 면제해주겠다고 시사했다. 클랴인 미켈은 동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대학생과 교수들의 신상자료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게스타포요원에게 그를 소개했다. 햇내기의 참회를 듣고난 뚱뚱보 게스타포요원은 훈시하기 시작

했다.
《자네가 왜 이제까지 명예와 존경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했다. 《시작을 제대로 떼지 못했기때문이야. 돈이나 애무, 사람들에 대한 선량한 태도로써는 사회에서 결코 성과를 거두지 못해.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만 존경을 표시하거던. 우리 게스타포요원들은 누구나 무서워하지. 우리는 어느 집, 어느 기관에서나 귀빈대우를 받는다. 우리를 성실히 협조하면 친구들의 간책도 적의 증오심도 대학교수들의 트집도 무서울게 없어.》
클랴인 미켈은 이것을 명심한 결과 지금까지 자기를 멸시만 해오던 친구들에게서 존경은 못받아도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대학에서 공부하는동안 그는 게스타포의 유급밀정으로 복무하다가 법학부를 졸업한 후에는 게스타포에 예심원으로 채용되였다.
그러나 이 활무대에서도 그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심원으로 5년간 일하는동안에 그는 독자적으로 단 한건의 위험한 범죄사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상부에서는 그에게 재판언도를 내릴 대상은 못되고 징벌기관을 무서워하게만 하면 되는 대상의 소소한 사건심의만을 맡기였다. 이런 목적에는 클랴인 미켈이 비길데없는 적임자였다. 불행한 수인들을 고문하고 조롱하는데서는 그자와 비길 대상이 없었다. 이 부문의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그는 수감자들을 감정이나 도리나 지위에 의하여 괴롭힌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락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그가 예심한 수인들로서 병신이 되지 않고 출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출옥했다가도 다시 체포될 위험이 생기면 이 악한의 발톱에 또다시 걸리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의 길을 택했다.
클랴인 미켈이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뚜르하노브를 쳐다보았다.
《이름과 부칭이 뭐야?》 그는 흐리멍텅하고 표독하게 생긴 눈으로 피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늘 하는 첫 질문을 들이댔다.
뚜르하노브는 그자의 말을 못알아들은체했다.
그러자 그자는 더 큰 목소리로 질문을 되풀이했으나 대답을 받지 못했다.
《우리 말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호송병이 자기 짐작을 말했다.
《저 사람은 로씨야인이라고 하던데 통역원을 부를가요?》

《그만둬!》 클랴인 미켈이 손을 내저었다.《위대한 총통이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가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름과 부칭이 뭐냐?》

몇초동안 기다린 예심원은 쇠자를 들고 위협하더니 그것을 흔들어대며 수감자에게 바투 다가섰다.

《왜 가만있어? 구린내나는 돼지새끼야! 혀바닥이 없느냐? 입을 벌려! 내가 검열할테다!》

이렇게 지껄이면서 게스타포요원은 쇠자끝으로 뚜르하노브의 입을 힘껏 찔렀다.

뚜르하노브는 에스빠냐에서 얻은 경험을 통하여 심문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고있었다. 예심원앞에서 공포심을 드러내면 그것이 흔히 검사에게 비법행위를 하도록 추동하지만 피검자의 도전적인 행동은 대체로 그에게 아무런 리득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제일 좋기는 자기의 리해관계에 철저히 서서 될수록 침착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뚜르하노브는 그렇게 처신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머저리의 무모한 잔인성이 그를 어찌나 격분시켰던지 그는 그만 자제력을 잃고 전투장에서라면 직업적인 권투선수도 부러워할만큼 센 타격을 그자의 입에 안기였다. 그러자 예심원은 맞은쪽 벽에 날아가 바닥에 주저앉은채 뻐드러진 상태에서 1분이상 있었다. 질겁한 호송병들은 뚜르하노브의 두팔을 거머쥐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긴장해서 서있었다. 한동안 예심원실에서는 네 사나이의 이을락말락하는 무거운 숨소리만이 들리였다. 그제서야 예심원은 정신을 차리고 손가락으로 턱을 문지르며 눈을 떴다. 그리고는 턱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듯 아래턱을 놀려보았다. 적이 호송병들의 손에 든든히 붙들려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자는 인차 권총을 집어들고 겨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좌는 당황해하지 않고 예심원을 엄하게 쳐다보며 자기 말을 알아듣건말건 상관없이 위엄있는 목소리로 로씨야말을 했다.

《걷어치우시오! 당장 무기를 집어넣으시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클랴인 미켈이 자기 얼굴에 갑자기 찬물이라도 들쓴듯 이상한 흐느낌소리를 내더니 도끼로 정수리를 맞은 황소처럼 머리를 이쪽저쪽으로 흔들었다.

그자는 공손히 권총을 총집에 집어넣으며 천천히 일어서서 자기 자

리에 가앉았다. 그자는 자기가 이 중요한 적수를 심문도 못하고 죽인다면 상부가 절대로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좋다!) 놈은 대좌를 증오스럽게 노려보며 속다짐했다. (우린 앞으로 계산을 하자. 넌 내 턱을 때린것으로 하여 한두번만 후회하지 않을것이다. 아직은 네가 어떤 작자인가 하는것부터 밝혀보기로 하자.)

《통역원!》 그는 갈린 소리로 웨쳤다.

마치 부를 때를 기다리고나 있은듯 대머리의 통역원이 손에 도-로사전을 들고 제꺽 방안에 들어섰다.

《이름은 뭐고 뭘하던자인가 물으시오.》 눈으로 뚜르하노브를 가리키며 예심원이 말했다.

대머리통역원은 그의 부탁을 리행했다. 그는 《친절한 충고》까지 덧붙여 말했다.

《진실만을 말하시오. 저 사람들은 아무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야마니까요. 내 말을 곡해하지는 말아주오. 나는 당신에게 좋게도 나쁘게도 해주는게 아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건 고문장면을 참아내기 어렵기때문이요.》

《누구의 충고도 나에겐 필요없소!》 뚜르하노브가 위엄있게 대답했다. 《나는 법의 초보적인 요구조차 위반하는 예심원에게 항소를 선언하오. 예심원은 앞으로 나에게서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할것이요.》

뚜르하노브의 선언이 예심원에게는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불손한 행위로 느껴졌다. 첫 순간 그는 형리를 불러 이 거만한자가 겪는 비인간적인 고통을 실컷 구경할 생각도 났으나 뚜르하노브의 눈을 보고는 그가 정말로 무엇이든 맞받아나가며 자기의 맹세를 지켜내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문건철에서 종이장을 꺼내여 거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뚜르하노브의 감방에 물을 주지 말것. 이 죄수에겐 짜게 절인 물고기만을 급식할것. 물은 나의 승인없이 한방울도 주지 말것.》

이 명령서에 수표를 한 클랴인 미켈은 다시한번 뚜르하노브를 쳐다보고 깨고소한 웃음을 짓고나서 상급호송원에게 종이장을 내밀었다.

《이걸 상급간수에게 직접 전달하시오!》 그가 명령했다. 《죄수를 감방으로 끌어가시오!》

제 14 장

뚜르하노브가 예심원에게 불리워가있는동안 간수들이 교체되였다. 어제 그를 감방으로 데려가고 오늘 호송원들에게 그를 넘겨준자는 말이 없고 눈이 보기 싫게 툭 불거진 젊은 간수였다. 그런데 지금은 주황색수염을 소담하게 기른 쉰살가량의 듬직한 사람에게 그를 넘겨주었다. 수염색갈때문에 한때 그는 바르바로쓰라는 별명이 붙었다.

《구텐 따그! 안녕하십니까?》 그는 도이췰란드어와 로어로 인사를 했다.

《당신은 로어를 아는가요?》 뚜르하노브가 놀라서 물었다.

《압니다. 나와는 로어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저고리를 벗으십시오. 이 번호표식을 꿰매야 하겠습니다. 이건 당신 개인의 번호입니다. 이 수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수감자들을 여기서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이 번호로 부릅니다.》

바르바로쓰는 바늘을 재치있게 놀려가며 저고리잔등에 벗겨지지 않는 안료로 《78901》이라고 쓴 천쪼각을 꿰매였다. 그다음 왼쪽팔꿈치웃쪽에 빨간색 삼각형표식을 달았다.

《그건 무슨 표식인가?》 대좌가 물었다.

《삼각표식의 색갈에 의해서 그 수감자가 왜 투옥되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붉은색갈은 공산당원이나 빨찌산이고 갈색은 보통 잡범이지요.》

《그 색갈이 수감자들 자신의 처지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만일 빨간표식의 수감자가 질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초가 예고없이 무기를 사용할수 있으나 갈색표식을 단 수감자들에게는 특수한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색갈에 따라 우리는 누구는 어떤 식사를 시키고 어떤 작업을 시키며 몇시간 산보를 시키는가 하는 따위를 규정합니다.》

《가르쳐주어 감사합니다.》 약간의 야유를 담아서 뚜르하노브가 인사했다.

《당신에게 봉사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수 역시 야유조

로 대답했다.

정각 12시에 수인들을 산보하라고 내보낸다. 푸른표식과 붉은표식의 수인들은 삼십분간이고 갈색표식의 수인들은 한시간이다. 수인들을 산보시킬 때에는 쌍을 지어 두줄로 세운 다음 상급간수의 엄격한 감시밑에 원을 지으며 빙빙 돌게 한다. 이때 말을 주고받거나 여러가지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는것은 엄금되여있다. 이 원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고무몽둥이로 열대씩 얻어맞고 3일간 산보할 권리가 박탈된다.

호송병들이 수인들을 정렬시키는 동안에 뚜르하노브는 옆의 수인과 인사를 나눌수 있었다. 그는 찌레르라는 성을 가진 오스트리아사람이였다. 도이췰란드수용소에서 탈주한 쏘련병사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한 탓으로 게스타포에 끌려온 사람이였다.

《당신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재주를 배우지 못하셨는가요?》 찌레르가 물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한단말입니까? 한때는 익혔댔습니다.》 뚜르하노브가 솔직히 말했다.

《그럼 산보하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오스트리아사람이 제의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가요?》 수인들이 원을 짓고 돌 때 뚜르하노브가 물었다.

《당신은 쏘련군대 대좌인데 포로수용소에서 반파쑈적인 연설을 하고 체포되였다고 하더군요.》 찌레르가 대답했다.

《누가 전달하던가요?》

《바깥동지들이지요.》

《그들과 련계는 있는가요?》

《나와 직접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어떻게요?》

《어느날 감방으로 점심을 날라왔을 때 식기밑바닥에서 나는 우연히 종이쪽지를 얻어내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전선형편에 대한 런던라지오방송국의 보도가 적혀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식기밑바닥에 편지를 붙여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쪽지가 수신인한테까지 가는가요?》 뚜르하노브가 의아해했다.

《아직은 가지 않은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지요. 간수에게서 쪽지가 붙은 식기를 받은 날에만 이쪽 쪽지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산보에서 돌아올 때 누구인가 수인 한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져 혼란이 조성되였다. 그 혼잡을 리용하여 누구인가 뚜르하노브에게 슬쩍 가치담배 한대를 들려주었다. 대좌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 괴이한 선물을 자기 감방까지 가져왔다. 담배물주리에서 그는 돌돌 만 깨끗한 종이쪼각과 연필심을 발견했다.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뚜르하노브는 바깥동지들에게 자기의 소재지를 쏘련에 통보해달라는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를 돌돌 말아서 감방바닥과 벽사이에 생긴 틈사리에 집어넣었다.

점심은 낮 2시에 진행된다. 음식은 직일간수들의 감시하에 취사원들이 밀차에 실어서 끌어온다. 복도에서 밀차가 멎자 감방문이 열리고 바르바로쓰의 얼굴이 나타났다.

《78901번은 예심원의 지시에 의해서 3일동안 커피와 차, 나물채급식을 중지당했습니다. 빵과 마른반찬 한가지만 들여보내시오.》 간수가 지시했다.

한 취사원이 뚜르하노브에게 빵 한쪼각과 삶은 물고기가 담긴 그릇을 넣어주었다. 문이 닫기자 뚜르하노브는 식기를 들어올리고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종이쪼각이 붙어있었다. 그 글쪽지에서 붉은군대가 마쟈르령토로 성과리에 진공하고있으며 발라톤호수구역에서 도이췰란드방어선을 돌파하였다는 소식을 읽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러나 그가 점심을 먹자 그의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말았다. 물고기는 굶주려 죽게 된 사람조차 감히 먹을념도 못할만큼 짜거웠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에게 음료수공급을 중지한다는 바르바로쓰의 말이 생각났다. 그는 세면대우의 수도꼭지를 돌리고 물이 한방울도 나오지 않는것을 보고서야 놈들이 자기를 갈증으로 고문하려든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밖에다 나치스의 이런 악착한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야겠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편지에 몇자 더 적어넣은 다음 식기밑에 그것을 붙이고 취사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들대신에 감방에는 간수가 나타났다.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는가요?》 그가 물었다.

《예심원자신이나 그걸 처먹으라지요. 나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난 단식을 선포하겠소.》 뚜르하노브가 엄포를 놓았다.

《내가 상급간수에게 보고하리다.》 바르바로쓰는 이렇게 말하며 물고기그릇을 들고 급히 감방에서 나갔다.

제 15 장

게스타포 책임예심원인 중좌 슈와이쩨르는 저녁에 호출도 하지 않았는데 책임자의 방에 나타났다. 게스타포책임자인 임메르만대좌는 부하들이 긴급한 사정이 없이 질서를 어기고 자기 방에 찾아오는것을 질색하였다. 그러므로 부하를 아주 쌀쌀하게 맞이했다.
《무슨 일이 또 생겼소?》그는 적당치 않은 때에 나타난것을 사죄하는 책임예심원의 말을 무례하게 잘라버렸다.
《우리 새장에 어지간히 큰 새가 갇힌것 같습니다. 나는 그 새가 당신의 관심사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전의 얼굴은 활기를 띠였다. 왜 그런지 최근에는 흥미있는 사건을 취급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최근에 게스타포에 걸려든자들이란 대부분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였기때문이다.
《좋소. 보고하오!》 임메르만은 부하에게 손짓으로 앉으라고 권했다.
《아이젠도르프포로수용소에서 쏘련군대대좌 뚜르하노브란자가 체포되여 밤에 우리 감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단말이요? 무슨 죄를 지은자요?》
《공식연단에서 로씨야포로들이 블라쏘브군대에 초모되는것을 반대하여 연설했습니다. 흥미있는 인물입니다.》
《나는 거기에 아무런 특이한점도 없다고 보는데… 그런 군대에 들라는거야 그자뿐아니라 보통병사들이라도 반대하겠는걸.》 게스타포대좌는 못마땅한듯 얼굴을 찌프렸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좌는 첫 심문에서 우리 예심원의 얼굴을 세게 쳐서 넘어뜨리고 그의 심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음 지독한 놈이군!》 책임자가 놀라서 소리질렀다. 《그래서 예심원은 어떻게 했소?》
《짠 음식을 공급하되 3일동안 물을 주지 말라고 지시하였답니다. 전 이 죄수의 문건철을 면밀히 검사했습니다. 현존문건에 의하면 뚜

르하노브는 쏘련영웅이고 많은 훈장과 메달의 수훈자입니다. 쏘련에서 그런 높은 칭호나 훈장을 수여한다는 정령은 언제나 〈쏘련최고쏘베트통보서〉라는 특별문건집에 다 수록됩니다. 그 출판물이 우리 도서실에 전부 있기에 저는 뚜르하노브라는 이름을 세밀히 찾아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표창을 어디서 받았을가요?》 슈와이쩨르중좌는 뚜르하노브의 훈장, 메달과 그에 해당한 훈장증들을 함에서 꺼내면서 의아해했다.

임메르만은 훈장들을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보고 쏘련영웅증서와 훈장증명서들을 펼쳐보았다.

《위조품들이 아니요?》 증서들을 가리키며 임메르만이 물었다.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수정한 흔적은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기랄!》 게스타포책임자가 소리질렀다.《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겼는데… 어느 예심원이 그자를 담당했소?》

《클랴인 미켈대위입니다.》

《그러니까 로씨야대좌가 그 사람의 심문을 거절했단말이지? 》게스타포책임자가 웃었다. 《할 말이 없군. 당신은 새끼산양이 덩치 큰 곰의 길잡이가 될수 있다고 믿었구만.》

《클랴인 미켈은 뚜르하노브를 우리 감옥에 압송해온 그날 밤에 근무를 서다가 심문을 자진하여 맡아나섰습니다.》 책임예심원은 변명을 했다.

《대위를 그 사건심문에서 떼시오. 그의 지시도 일체 무효화하고 뚜르하노브의 심문은 당신이 담당하시오.》

《알았습니다. 대좌님!》 슈와이쩨르는 대답했다.

《전 벌써 뭘 좀 해놓았습니다. 문건들을 통하여 중상당한 뚜르하노브를 도이췰란드병원으로 후송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직외과의사인 흘레밍그교수가 그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복잡한 수술을 하여 살려냈습니다. 더구나 병력서에 교수는 자필로 〈제국의 고급장교들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것〉이라고 썼더군요.》

《그게 정말이요?》 게스타포책임자의 얼굴에는 노기가 서리였다.《그러니 그자들은 병원에 들고앉아 부상당한 적을 서둘러 완치시켰단말이요? 하루빨리 대오로 돌아가 또다시 총통의 병사들을 죽이라고 말이지?》

《그렇게 되였습니다. 대좌님. 그러나 아직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낮에 흘레밍그교수가 근무하는 병원 게스타포에 전보를 쳐서 교수한테 왜 그렇게 했는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두시간후에 회답이 왔습니다. 그 외과의사가 사라졌다는것이 판명되였습니다.》
《사라지다니?》 게스타포책임자는 알아듣지 못했다.
《행방불명되였습니다.》
《그거 문제로구만!》 게스타포책임자가 머리를 저었다. 《처음에는 적을 치료해주더니 그 다음에는 자신이 행방불명되다니? 그가 로씨야사람들한테 간게 아니요?》
《최선을 다해 밝혀보겠습니다.》 슈와이쩨르가 약속했다.
《옳게 해명해야겠소. 겁쟁이들과 의심스러운자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누만. 일부 조심스러운 개자식들은 승리하는 경우에 그자들과 협동할 밑천을 마련하려 하고있소. 우리 의료기관들에 그런 투항주의자들이 숨어들었던게 아니요?》
《밝혀내겠습니다.》
《착수하시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일일이 나에게 보고하시오!》

제 16 장

수감자들의 식사는 대체로 취사원들이 날라다준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수 바르바로쓰가 뚜르하노브의 식사를 가지고왔다. 그의 얼굴은 환해보였고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대번에 로어로 인사했다. 《종치는 소리가 들리지요? 오늘은 우리 린츠시의 명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도이췰란드에 있지 않는가요?》 뚜르하노브가 물었다.
《린츠는 이전에 군소재지였습니다. 이 상부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통합한 후 도이췰란드제국의 한 지역으로 되였지요.》

《아, 그렇지. 내가 그만 잊었댔군요. 당신들이 1938년도부터 오스트리아사람이 아니라 도이췰란드사람으로 되였지요.》 뚜르하노브는 그의 약을 올려주었다.

《겉보기에만 그렇지요. 겉보기에만 그래요. 마음속으론 변함없이 자신을 오스트리아사람으로 여긴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오지 않는건데 당신한테 기쁜 소식을 전달할게 있어서 왔지요. 물이 콸콸 나오는걸 보십시오.》 간수는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수도꼭지를 튼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거요?》 대좌는 의아쩍게 간수를 바라보았다.

《이건 당신의 사건심리가 다른 예심원에게 넘어가 이전 예심원이 취한 제재조치가 취소되였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젠 단식이 의의를 가지지 않게 된것 같습니다. 힘을 아끼십시오. 아직은 당신에게 그게 필요할테니까요.》 바르바로쓰가 말했다. 그러더니 앉아있는 수인쪽으로 몸을 깊이 숙이고 가만히 속삭이였다. 《당신들과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말입니다.》

뚜르하노브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그런 말을 어떻게 알고있습니까?》

《당신들이 있는 그곳에서이지요. 우리는 마드리드를 함께 사수했습니다.》 간수는 더 작은 소리로 알려주었다. 《그러니 견디여내십시오. 우린 더 싸워야 하니까요.》

뚜르하노브는 하루종일 그 대화에서 받은 인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고본즉 난 외롭지 않구나!) 그는 생각했다. (게스타포의 감옥조차 서로 생각이 같은 벗들을 완전히 갈라놓을수는 없구나. 처음에는 찌레르. 그다음에는 바르바로쓰. 혼자서는 어렵지만 동지들과 함께라면 파시스트지옥이라도 두렵지 않다.…)

밤이 왔다. 피로하고 지친 수인들은 잠에 곯아떨어졌다. 그러나 뚜르하노브는 딱딱한 자기 잠자리속에서 아직 뒤치락거리고있었다. 괴로운 생각들이 잠을 쫓아버린것이다. 눈을 감자마자 지나간 일들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자주 배를 곯고 추위에 떨던 고생스럽던 유년시절을 상기했다. 중학교시절에 삐오네르야영소에서 밤우등불을 피우던 일, 공청단체에서의 사업 그리고 땅크학교와 번거롭던 군관생활이 기억에 되살아났다. 그는 당증을 수여받던 날을 특히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것은 에스빠냐공민전쟁이 한창 고조되던 때

있은 일이였다. 자유를 위해 일떠선 전세계 투사들로 무어진 국제려단은 땅크병들을 요구했다. 뚜르하노브는 파시스트반란자들과 싸울 의사를 표명했다. 에스빠냐에 가겠다는 탄원서와 함께 공청조직의 추천으로 입당청원서도 제출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공산당원으로 살며 싸우고싶습니다. 만일 죽어야 한다면 공산당원으로 죽고싶습니다.》

그를 당에 받아들였다. 총회와 당위원회의 결정이 비준된 다음에 그는 당위원회 회의에서 정치부장앞에 나섰다.

《오늘 우리는 동무에게 전세계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해 투쟁하는 투사들의 대오에 들어왔음을 증명하는 가장 귀중한 문건인 당증을 수여합니다. 이 순간부터 동무는 위대한 레닌이 세워준 공산당이라고 부르는 이 대오의 투사로 됩니다. 우리 당의 우수한 당원으로 되시오. 나라와 인민은 동무가 에스빠냐인민의 자유를 위해 싸우리라 믿으면서 높은 경의를 표하고있소. 혁명의 용맹한 투사로 됨으로써 높은 신임에 보답하도록 노력하시오!》 정치부장이 말했다.

《높은 신임에 보답하고저 노력하겠습니다.》 당증을 받으며 뚜르하노브가 말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한 저는 언제나 이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만일 당의 위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서슴없이 바치겠습니다.》

(아직 나는 적에게 조금도 숙어들지 않았다. 앞으로도 자기 맹세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뚜르하노브는 속삭였다.

복도에서 갑자기 소음이 들려오더니 그 소리가 가까와졌다. 문이 열리고 4명의 간수가 얼굴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을 방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빈 침대를 차지해!》 직급이 높아보이는 간수가 왜가리소리를 질렀다. 문이 쾅 하고 닫겼다.

뚜르하노브는 이때를 기다리고있었다. (2인용 감방인이상 수인 두명을 수용할테지.) 하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두번째수인이 나타난것이다.

때가 올 때까지 상대방에 대한 자기 태도를 로출시키지 않기 위해 뚜르하노브는 들어온 수인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닫겨진 감방문을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나간 간수들의 등뒤에 대고 침을 뱉았다. 그리고는 빈 침대에 다가가 모포를 들추었지만 눕

지는 않고 옷을 벗은 다음 말없이 오래동안 앉아있었다.
뚜르하노브는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키가 굉장히 크고 얼굴도 컸으며 들창코에 눈은 사팔뜨기였다. 좁다란 이마에는 털이 드문드문 나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물거나 금방 생긴 상처자국으로 한벌 덮였는데 입에는 고양이같은 이발이 성글게 나있었다. 그 사람은 흐리멍텅한 눈으로 뚜르하노브를 몇번 훔쳐보더니 상대자가 자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지만 어째서인지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도이칠란드말을 아오?》 그 사람이 로어로 물었다.
《난 로어밖에 모르오.》 뚜르하노브가 대답했다.
《다행이군!》 상대가 안도의 숨을 쉬였다.《나에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지요. 나는 이 비밀을 묘지까지 가지고 가게 되지 않을가 걱정했습니다. 이젠 당신에게 그 비밀을 넘겨줄수 있게 되였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을 엿들을수 있을가요?》
《감옥에는 벽에도 귀가 있다고들 하지요. 당신이 뭔가 비밀에 붙여두고싶으면 입을 다물고있으시오.》
《유감이지만 난 그럴수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있어서는 안됩니다. 래일 나를 총살할겁니다.》
뚜르하노브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저 사람은 로씨야인이든 아니든 내 마음엔 들지 않는다. 시끄럽게 치근거리지 않는가. 저런 지꿎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 자는척하면 나를 내버려두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돌아누워 일부러 코를 고는척하였지만 어차피 그 인간에게서 빠져나올수는 없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간청했다.《자지 마십시오. 나는 비밀을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커다란 위험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째서 당신은 자기의 비밀을 나에게 강제로 넘겨주려 합니까?》 뚜르하노브는 언짢은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나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놈들은 아직 그걸 몰라서 당신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래일이면 놈들은 자기 실수를 깨닫고 무서운 고문을 들이댄 다음 나를 처형할것입니다. 놈들이 내가 말을 못하게 만들기전에 난 당신에게 무서운 사실을 하나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무섭기야 게스타포감옥에 갇히는것보다 더 무서운건 없을것 같은데요.》

《오해하고계십니다.》 상대방이 격해서 반박했다. 《나는 생각만해도 혈관의 피가 얼어드는 참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죽을 지경으로 졸음이 오지만 노력해보겠소.》 뚜르하노브는 선하품을 했다.

《나의 이름은 아니씨모브 엘피모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쎄미빨라찐스크육류공장에서 일하였습니다. 나는 한평생 수천마리의 뿔가진 짐승들과 양, 돼지의 멱을 땄지요. 1941년도에 군대에 초모되였습니다. 나는 곧 전선에 파견되였습니다. 그때 도이췰란드놈들은 전진하고 우리는 한분대친구인 그리쯔꼬 쎄메넨꼬가 말하듯이 도망을 쳤지요. 얼마 안가서 우리는 포위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전투에서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꼴호즈원들속에 섞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빨찌산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번째 사람들은 총을 놓고 항복하여 포로되였지요. 난 네번째 사람들속에 속했댔습니다.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은 늦가을 파리처럼 숨이 졌지요. 나는 이럭저럭 봄까지 견디다가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기회를 타서 포로수용소에서 도망쳐 빨찌산에 들어갔습니다. 허지만 난 그 사람들속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크지 않은 우리 빨찌산부대가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악당들의 잠복에 걸렸습니다. 대부분은 전투에서 희생되고 나는 아까 말한 그 그리쯔꼬와 함께 투항하였지요. 악당들은 우리를 도이췰란드놈들에게 넘겨주고 도이췰란드놈들은 우리를 류블린고로 끌고갔습니다. 마이다네크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우리를 없애버리자는거였지요. 그런데 뽈스까사람들이 도이췰란드수비대를 공격하여 까부시고 우리 포로들을 석방시켰습니다. 나와 그리쯔꼬는 어떻게 하든 우크라이나땅에까지 당도하여 로브노시주변에서 사는 그의 친척집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시기에 편안히 살겠다는 우리의 공상은 실현될수 없었습니다. 봄이 우리를 방해하였지요.》

《봄이라니?》

《네, 봄이지요.》 엘피모브가 수긍했다. 《봄에는 아시다싶이 만물이 생기를 띠지요. 새들은 둥지를 틀고 수컷은 암컷을 찾으며 또 암

컷은 수컷을 찾지 않는가요. 사람들도 그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사람들 역시 사랑의 정열에 불타오르지요. 나와 그리쯔꼬도 례외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서둘러 갈대신에 빠르첍스크산림의 외진곳에 자리잡은 뽈스까농촌마을에 늘어붙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밤 류숙하려고 그 마을에 머물렀는데 아침이 되니 상냥한 뽈스까녀인들을 두고 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천국같은 우리 생활이 두달동안 계속되였습니다. 나를 돌봐준 클랴나는 자기 남편이 1938년도에 전사했다고 하더군요. 그 녀자가 나를 속였는지 아니면 그 녀자가 속히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중에 부농의 악당무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안해는 악당들이 찢어죽이고 나는 도이췰란드헌병에 넘겼습니다. 난 포로수용소에 감금되였지요. 1년 남짓한 기간을 정말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내가 도살장에서 일했다는것을 안 도이췰란드놈들은 나를 옛직업으로 써먹으려 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육류가공공장에 가게 되였습니다. 거기선 괜찮게 먹여주더군요. 사실은 넙적다리고기를 가지고는 롱간질을 못했지만 다른 부산물은 실컷 먹었지요. 이 머저리는 그것에 만족해야 했지만 마음은 또다시 자유로운 생활에로 끌리더군요. 어느날 아침 수용소에서 도살장으로 가는 도중 호송병을 해제끼고 또 우크라이나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불행하게 가닿지 못했지요. 우린 위슬라강을 건느기 위해 매생이를 훔쳤습니다. 그걸 안 매생이주인이 도이췰란드놈들에게 우릴 일러바쳤습니다. 우리가 강복판에 이르렀을때 도이췰란드소형발동선이 우리를 따라잡았습니다. 우릴 체포하여 재판하고 주모자들은 총살했습니다. 나와 그리쯔꼬는 마우트하우젠포로수용소로 보내더군요. 그런 수용소이름을 들은적이 있는가요?》

《못들었소.》 뚜르하노브가 단마디로 대꾸했다.

《그건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다시금 끌려온 우리를 채석장에서 일시키더군요. 당신은 깊이가 칠십메터나 되는 갱안에서 삼십키로그람까지 나가는 돌을 등에 진다는것이 어떠한것인지 상상도 못할겁니다. 계단은 가파롭고 폭이 좁았으며 란간도 없었습니다. 한발 잘못 디디면 짐을 진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말지요. 우리 형제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었다구요. 어떤 날엔 돌보다 시체를 더 많이 끌어냈습니다. 입심사나운 사람들은 계단에서 갱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락하산수〉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정말 〈락하산수〉

가 되고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멸되였지요.…
마우트하우젠의 수인들은 채석장뿐아니라 수용소가까이에 있는 여러 공장, 제조소들에서 일하였습니다. 련합회사 〈화르벤웨케〉의 화학공장에서 특히 많이 일하였습니다. 공장의 관리들은 제일 힘이 세고 건강한 수인들을 골라서 유개자동차에 싣고는 호송원을 많이 붙여서 공장으로 끌어가군하였습니다. 화학공장에 가는 수인들을 통으로 〈화학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에게 그리로 가라고 하자 나는 〈락하산수〉의 부대에서 〈화학쟁이〉의 부대로 넘어갈것을 쾌히 승낙했습니다. 우리를 유개자동차에 싣고 한시간 남짓하게 달리더니 목적지에 가닿았습니다. 우리가 탄 화물적재함을 덮고있던 방수포 풍이 제껴졌을 때 나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방이 솔밭으로 둘러싸인 네모진 마당에는 유리와 철재로 만든 둥근 궁륭식지붕을 씌운 아담한 건물이 서있었습니다. 후에 알게 되였지만 이 건물은 4층집이였습니다. 그러나 밑의 두층은 지하에 있었으므로 그때 우리에겐 2층으로 보였습니다. 보초조직이 특수한게 우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 유리집과 승용차차고가 서있는 마당은 가시철조망과 3메터높이의 철근콩크리트담벽으로 된 삼중의 울타리로 둘러막혀있었습니다. 담벽우에는 전류가 흐르고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연체우에 드리운 전선줄을 보고 알수 있었습니다. 구석구석에 감시탑들이 솟아있었는데 거기에는 기관총이 한문씩 눈에 띄였습니다. 출입문 맞은쪽에 포 한문이 있었습니다.
명단을 보고 세밀히 확인한 다음 우리를 모두 건물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특별승강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낮이지만 빛이 새여들수 없어 전등을 켠 꽤 넓은 홀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일터로 내몰릴 시각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대신 같은 층에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라더군요. 목욕시킨 후에는 줄무늬가 있는 바지와 저고리를 줄대신에 병종표식과 견장이 없는 군복을 주기에 우린 놀랐습니다. 목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점심과 저녁식사때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도 역시 같은 층에 있었습니다. 병사와 같은 정량의 식사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달게 먹었습니다.

밤은 별일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식사가 끝난 뒤 흰 위생복을 입고 무테안경을 쓴 낮모를 사나이가 들어와 나를 불렀는데 수용소 관례대로 개인번호가 아니라 이름과 성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을 교수가 직접 부르오.〉로어를 도이췰란드식으로 발음하며 그가 알려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우리는 복도로 나와서 승강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무테안경을 쓴 남자는 사치하게 꾸린 넓다란 사무실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방에는 책상과 안락의자와 책장이외에 기계도 아니고 실험기구도 아닌 알지 못할것들이 놓여있었습니다. 벽에는 히틀러의 초상화가 걸려있었습니다.

사무실 주인이 곧 나타나더군요. 그 사람은 나이가 쉰쯤 되고 키도 나만하며 뚱뚱한것이 목은 황소목 같았습니다. 나는 타르처럼 시커먼 숱진 눈섭밑에서 뚫어지게 쏘아보는 청회색눈을 보자 몸이 으시시 떨렸습니다.

〈로씨야사람인가?〉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씨비리태생인가?〉

〈쎄미빨라찐스크에서 출생하여 거기서 살았습니다.〉내가 대답하였지요.

〈쎄미빨라찐스크!〉그가 되뇌였습니다. 〈그게 까자흐스딴에 있던가?〉

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음, 내가 알지. 힘이 센가?〉

〈꽤 세지요.〉나는 겸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디 해보자. 앉게!〉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팔굽을 책상에 대고 마주앉아 팔씨름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래동안 승부가 나지 않더군요. 이윽고 나는 그자가 성을 내기 시작하는 눈치를 차리고 그쪽에서 불쾌해할가봐 져주었습니다.

〈괜찮아!〉그가 찬성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살고싶지?〉

그의 차거운 눈길은 또다시 나를 전률케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어딘가 아주 가까운곳에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죽고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힘장사들이 나에겐 필요해.〉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걸 다하면 넌 천당에서처럼 살게 된다. 그러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루설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는걸 알아둬.〉
나는 혀바닥을 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자는 나에게 일감을 주었는데 글쎄 그게 어떤 일감이였겠습니까!…》
엘피모브는 무겁게 한숨을 쉬였다. 그는 조용히 한본새로 말하였는데 이따금 말을 끊고 문밖의 바스락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다가 귀속말로 말하군했다.
《난 도이췰란드놈들이 나를 힘이 요구되는 중로동을 시키려니 하고 생각했댔습니다. 그러나 난 토공도 채벌공도 짐군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도살장의 앞잡이—염소라고 불리우는 가증스러운 짐승에 대하여 들은적이 없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놈은 뿔도 있고 수염도 돋은것이 자기네 족속과 다를것이 하나도 없지만 감행하는 행동은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추악한것입니다. 염소와 양들이 우두머리만 앞서면 어디든 따라가는 습성을 리용하여 사람들은 그 가증스러운 짐승이 저의 무리들을 련이어 도살장안으로 끌어들이도록 길들인것입니다. 결국 도이췰란드놈들이 나를 와그네르교수의 실험실에서 사람들을 도살할 때 앞잡이—염소로 써먹으려 하였습니다.》
《황소목을 한 그자가 와그네르요?》 뚜르하노브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엘피모브가 수긍했다. 《내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던 첫날에 교수가 다시 나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더러 생활조건이 만족한가 묻더군요. 음식은 배불리 먹고 잠은 따뜻한 방에서 푹신한 이불을 덮고 자며 하루에 두차례 바깥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불편할 근거가 없었지요.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였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인간의 힘이란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량과 질에 직접 관계된다고 생각해왔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걸 증명하게 될것이다. 나는 아주 평범한 인간을 식사체계를 변동시키지 않고 진짜 장수로 만드는 강장약을 찾아냈다. 허지만 나는 아직 얼마만한 분량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것은 정확히 연구해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새 약의 실험을 하였는데 이

젠 사람을 가지고 실험해보아야 하겠다.〉
(저 사람들이 나를 실험용토끼로 쓰려는게 아닌가?) 하고 나는 겁을 먹었습니다. (아니 순종하는 종이기는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 신비로운 작용을 한다는 약이 내 힘을 열배로 크게 해준다고 해도 그걸 안마시겠다.)

〈저는 워드까나 희석하지 않은 알콜 이외에 다른 약은 한번도 써본적이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약의 효과를 우리는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하려 한다. 너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내가 연구해낸 약을 마신 사람들은 자기 힘을 어디에 쓸지 몰라 불량한짓을 하고 서로 싸움질을 하며 대체로 질서를 어기려고 할게다. 너는 질서의 감시자역할을 해야 한다. 로씨야에서는 내무원들이 질서를 감시하지. 그렇기때문에 로씨야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하기로 했다. 그러니 너도 내무원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교수의 조수는 나에게 내무원복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셋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의 세방중에 제일 큰 방을 극장무대 비슷하게 만들어놓았더군요. 무대미술가들이 솜씨있게 색칠하여 만들어놓은 집모형들은 로씨야농촌을 방불케하였습니다. 이 농촌집들의 한복판에는 내무서간판을 앞에 내건 진짜 통나무집이 한채 서있었습니다. 쇠울타리와 키높은 대문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직한 방패물로 되고있었습니다.

〈너의 관저다.〉 교수가 그 집을 가리켰습니다. 〈질서위반자들이 공격해올 때에는 고무몽둥이나 총탁, 총창으로 찌를수 있다. 유감이지만 우리에겐 로씨야보총탄알이 없어. 그래서 정당방위를 위해서도 사격은 못하게 되여있다.〉

내가 질서위반자들, 간단히 말해서 망나니들한테서 보위해야 할 집을 찬찬히 살펴보는동안 교수의 조수가 이 가짜농촌에 열명의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중에는 내가 마우트하우젠수용소의 채석장에서 여러번 만난적이 있는 수인도 있었습니다. 〈내무서〉맞은쪽에 있는 식탁에 다들 앉히더군요.

〈이제 영화를 찍겠습니다. 사건은 로씨야농촌에서 벌어집니다. 나는 조연출이고 당신들은 배우들이요. 처음에 우리는 명절장면을

찍어야 합니다. 마을주민들은 명절을 축하하여 술을 마십니다. 자, 이건 마실것이고 이건 안주요.〉 조수는 식탁우에 3리터가량의 투명한 액체와 생파묶음, 절인 오이가 가득 담긴 그릇과 세공한 고뿌 열개를 내놓았습니다. 〈마시고 먹으면서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대체로 명절기분으로 놀면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굶주린 사람들은 한고뿌씩 마시고 안주에도 달라붙더군요. 조수는 와그네르교수와 낯모를 젊은이가 영화촬영기를 준비해놓고있는 간막이너머로 들어갑디다.

명절식사는 겨우 몇분동안 계속되였습니다. 〈배우들〉은 한고뿌도 채 마시기전에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중 한사람은 실험이 시작되기전에는 서있기도 힘들어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떠서서 내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한사람은 번개같이 소방대망루에 올라갔습니다.

〈난 비행기다!〉그는 비행기날개처럼 두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날아가는가를 보라구!〉

이렇게 말하며 그는 망루에서 떨어졌는데 날은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털썩 떨어지더군요.

세번째사람은 새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재이다! 불이 났다! 물을 달라!〉

네번째사람은 왜 그런지 옷을 홀랑 벗고 정신없이 자기 가슴과 배, 허벅다리를 할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와그네르교수가 나에게 신호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각을 불라! 저 사람들의 질서를 세우라!〉그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호각을 불었습니다. 아직 식탁에 앉아있던 다섯명이 호각소리를 듣자 나있는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내무원이다!〉 그중 한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저 내무원은 우리에게 벌금을 물릴게다.〉

〈저놈의 개를 때려라!〉 두번째사람이 웨쳤습니다.

그러자 모두 떨쳐일어나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쇠울타리를 흔들어대고 또 어떤 사람은 내게 쌍욕을 퍼부었으며 또

한사람은 교예단배우만큼이나 재빠르게 대문을 넘어들어와 무쇠관토막을 들고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힘의 약을 마시지 않고 나에게 달려들었다면 그를 맨 주먹으로도 쉽게 해제낄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총탁으로 그를 까눕히고야 난 겨우 죽음을 면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도 울바자를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꾸물거릴 사이가 없었습니다. 총탁판으로 때려 나에게 달려든자의 손에서 철관토막을 떨구게 한 다음 그를 총창으로 찔렀습니다. 이때 뒤로부터 그의 동무가 또 달려들어 나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문자그대로 숨이 막혀 꺽꺽거리며 다리와 팔굽으로 그자를 때렸습니다. 허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의 손아귀에서 목을 빼낼수 없었습니다. 요행 이때 약의 효력이 끝나서 실험대상자들이 땅에 쓰러지더군요. 림종의 모지름이 시작되였는데 그건 5분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과 코, 눈에서 피가 흘러나오더니 경련을 일으키다가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약의 효력은 정미 2시간 33분 지속되였군.〉교수가 자기 시계를 들여다보며 확정하였습니다. 〈성과는 있지만 불충분하오.〉

〈약효가 얼마동안 지속되여야 합니까?〉조수가 물었습니다.

〈연구계획에 의하면 3주야이상이여야 하오. 일감은 많은데 기간은 짧게 주지. 실험회수를 늘여야겠소.〉

그래서 실험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사람들을 독살시키더니 두달째부터는 나흘에 한번씩 실험했습니다. 그렇게 근 넉달동안 계속하더군요. 게다가 매번 〈배우〉와 〈내무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달에 있은 이 비극의 마지막공연에는 백명의 〈배우들〉과 열명의 〈내무원〉들 그리고 〈민간소방대〉도 참가하였습니다.

이 연구계획을 완수한 와그네르교수는 피곤도 모르고 새로운 실험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가짜 〈내무원〉들, 실은 교형리의 보조자들은 일감을 잃게 되였습니다. 그게 나를 몹시 불안케 하더군요. 그건 물론 사람을 죽이고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서였습니다. 나는 파시스트놈들이 자기들의 만행의 산 증인들을 남겨두지 않으며 조만간에 우리를 없애치우리라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입니다. 이 문제에서 그들에게는 실증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증견자가 자국사람이건 외국사람이건 즉 도이췰란드사람이건

로씨야사람이건 관계없이 죽이는것입니다. 더구나 보통 파시스트들은 불필요해진 인물들을 그저 총살해치울수 있었지만 와그네르교수와 같은 악한들은 그 사람들을 〈과학〉의 목적에 써먹을수 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관찰은 그러한 과정을 확증해주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하루분 식료품은 눈에 뜨이게 달라졌습니다. 그건 약화되는게 아니라 좋게 달라졌지만 아무튼 이것은 의혹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말이지 무엇때문에 힘의 약시험이후에 우리처럼 놀고먹는 무직업자들에게 그런 선심을 쓰겠습니까. 잘 먹여서 힘꼴이나 쓰는 삼십명의 인원을 보충해왔을 때 나는 더는 참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종말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것을 감촉했으니까요. 나는 와그네르교수나 다른 식인종학자의 새 약재실험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이 〈천당〉에서 탈주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탈주할 기회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반년간 와그네르교수의 연구소안에서 사는동안 나는 수비대의 직무체계를 자기 손금처럼 알게 되였습니다. 경각성높은 보초들의 눈앞에서 높은 철근콩크리트담장을 넘어 달아난다는것은 부질없는 행동이였습니다. 망루와 대문결에 있는 보초들외에도 사람뿐아니라 쥐새끼 한마리도 통과시키지 않을 파수군견들이 밖에서 지키고있었습니다. 나는 탈주계획을 두고 오래동안 머리를 썩였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방안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중한 방법을 걷어치우고 모험적인 행동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시내에 주택이 있는 실험실일군들이 자기 승용차로 출근한다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교수의 조수는 하늘빛 〈메르쎄데스〉승용차를 타고다녔습니다. 점심식사후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고 우리들을 밖으로 내보냈을 때 나는 조심조심 그 승용차에 몰래 다가가서 뒤문을 열고 의자등받이에 씌운 화려한 탄자밑에 기여들어갔었습니다. 나는 교수의 조수가 여기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으리라 기대하였으며 대문결에 선 보초들도 연구소주인의 1대리인인 큰 인물을 공연히 지체시키면서까지 차안을 검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리라 타산하였습니다. 일은 바로 예견한대로 되였습니다. 퇴근을 알리는 신호종이 울린 다음 차주인들은 차에 발동을 걸어 하나둘 차고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탄 승용차도 떠났습니다. 문결에서 그 차를 멈춰세우기는 하였으나 통행증을 검사한후 통과시켰습니다. 나는 약 십분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엎드려있다가 조심조심 일어나서 앞뒤를 제꺽

돌아보고 다른 자동차들이 없다는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하는놈의 대갈통을 두번 쳤습니다. 그자는 곧 의자에서 미끄러져내리고 차는 길가의 기둥에 처박히였습니다. 차에서 뛰쳐나와 휘발유저장통뚜껑을 열고 거기에 불붙는 성냥을 집어넣는 일은 순식간이면 할수 있는 일이였지요. 불길에 휩싸인 자동차가 멀리 뒤에 있고 검은 연기기둥이 숲속을 달리고있었습니다.

나에게 지도는 없고 지대는 생소한데다가 사람들은 귀신만큼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총에 맞은 짐승처럼 산판을 헤매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나는 큰 강기슭에 가닿을수 있었습니다. 이건 두나이강이였습니다. (이젠 산판을 헤매이지 말고 곧추 북쪽을 향해 가면 되겠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쪽에는 체스꼬사람들이니까 그들이야 우리와 같은 슬라브족이 아닌가. 불행에 빠진 형제를 도와주겠지.)

나는 밤에만 북극성을 향하여 걷고 아침에는 무슨 짚이나 벼낟가리 속에 들어가 실컷 잤습니다. 사실 나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였으나 오스트리아경내에 있는 동안은 극히 조심해야 했으며 계속 사람을 피해다녔습니다. 그때문에 나는 한동안 육식동물로부터 (사람은 사실상 육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로 변하여 식물만 뜯어먹었습니다. 요행 숲속에는 들장미와 월귤나무열매 그리고 기타 딸기들이 많았지요.

탈주한지 이레째 되는 날에 사람들의 목소리에 나는 잠을 깼습니다. 체스꼬말을 하더군요. 남녀 두사람이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마련한 마초의 절반을 군대에 필요하다고 빼앗아간 도이췰란드놈들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밀고하지 않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짚낟가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밀고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목욕물을 특별히 데워서 목욕시키고 옷과 먹을것을 주었으며 다락방에 숨겨주고 밤에 필요한 사람들과 련계를 가지고 빨찌산에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빨찌산에 가닿지 못했습니다. 밤에 마을에서 누군가가 도이췰란드경찰을 살해했더군요. 도이췰란드병사들이 쓸어들었습니다. 나는 미처 피하지 못했지요. 수색할 때 발각되여 나는 살인자의 혐의를 받고 체포되였습니다. 진짜 살인자가 나타나자 마우트하우젠수용소 탈주자인 나는 게스타포의 손에 넘어와 이리로 끌려오게 되였습니다.》 엘피모브는 이야기를 끝마쳤다.

엘피모브는 자기의 모험담이 상대자의 흥미를 끌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상대자는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가 자기와는 상관없다는듯이 계속 침묵을 지켰다. 이것이 그를 섭섭하게 했고 성까지 나게 했다.
《왜 말이 없소?》그가 물었다.《자기 목숨이 아까와 두려워하는게 아니요? 물론 게스타포가 당신이 와그네르교수의 실험내용을 알고 있다는것을 눈치채게 되면 당신을 당장 죽일겁니다.》
뚜르하노브는 파시스트들이 막다른 경우에 화학무기와 세균무기의 사용도 서슴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또한 도이췰란드학자들이 화학, 세균무기의 최종실험을 완성하고 오래전에 새형의 무기연구에 착수했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엘피모브의 이야기에 나온 화학실험실이나 와그네르교수도 실재할수 있다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고백한자의 인간됨됨이 어찌나 혐오스러웠던지 그와의 일체 교제를 당장 끊어버리려고 마음먹었다.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군.》그는 아무렇지도 않은체 하느라 애를 쓰며 조용히 대꾸했다.《요술을 피우는 화학약에 대한 이야기나 가지고는 게스타포감옥안의 수인을 놀래우지 못하오. 그따위 이야기야 중학교시절에 낡은 옛말책에서 다 읽은게 아니요.》
《그러니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거요?》엘피모브가 실망하여 물었다.
《그렇소. 믿지 않소!》 뚜르하노브가 잘라 말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곳에는 환상가나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든지 있소.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는다면 살고싶은 생각이 없어질 지경이요. 차라리 잠이나 잡시다.》
《마음대로 하구려.》엘피모브는 불만족한 어조로 대답하고 침대에 벌렁 눕더니 등을 돌려대고 돌아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다.

제 17 장

극도의 절망상태에 빠지면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정신을 잃고 날뛴다. 사람에게서 분별있게 처신할 능력을 잃게 하는 그런 극단적경우는 흔히 그의 그 어떤 무모한 행동으로 끝

나군한다. 엘피모브도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끝마쳤다.
다음날 아침에 간수는 그를 다른 수인들보다 일찍 깨웠다.
《무슨 일이 생겼소?》 그는 놀라서 도이칠란드어로 물었다.
《빨리 차비하라!》 간수가 독촉했다. 《직일관이 부른다.》
(아뿔사, 저주로운 개자식들이 알아냈구나!) 엘피모브는 마음속으로 욕지거리를 했다. (구원될 길은 없다. 내 자신이 무리로 혹은 하나씩 지옥으로 보낸 그 사람들의 뒤를 이어 나자신도 떠나갈 차례가 드디여 왔구나. 무슨 대책을 취해야 하나? 그래 정말 아무 출로도 없단말인가?)
간수들이 나타나면 수인들은 재빨리 뛰여일어나서 《차렷》자세를 취하고 《쉬엿》구령이 떨어질 때까지 서있어야 했다. 그러나 뚜르하노브는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고 자는체하고 눈을 감은채 그냥 누워있었다. 사실 그는 엘피모브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한잠도 자지 못했다. 다른 간수라면 이것을 두고 그를 추궁하였겠지만 바르바로쓰는 그러지 않았다. 엘피모브가 침구를 정리하고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의 무거운 걸음걸이로 무장한 에쓰에쓰대원들이 대기하고있는 복도를 향해 걸어나가는동안 가만히 기다리고있었다.
《위험인물입니다.》 간수는 뚜르하노브의 침대곁을 지나면서 속삭였다. 《그들이 물으면 잠이 들어서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하시오. 내가 보증할테니…》
바르바로쓰는 말을 채 끝맺지 못했다. 복도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고 누구인가 감방문에 딱 부딪치더니 바닥에 쾅 하고 쓰러졌다. 짧은 비명소리에 이어 총소리가 울리고 곧 자동총이 련발사격을 했다. 몇분이 지났을가 말가 했는데 싸이렌이 울리고 온 감옥에 경보를 선포했다.
《소요다!》
《폭동이다!》
《파시스트놈들을 족치라!》
《자유만세!》 각이한 나라말로 웨쳐댔다.
누구인가는 《인터나쇼날》을 노래불렀다. 층마다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뚜르하노브는 바르바로쓰가 나가는것도 보지 못했다. 그는 수인옷을 재빨리 걸치고 문께로 뛰여가 감시창으로 내다보려 했다. 그러나 밖에서 무엇인지 가리고있어 복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수 없

었다.…

자연발생적인 폭동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십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총소리는 멎었다. 혁명가요들을 부르고 반파쑈구호들을 웨치는 소리가 20분가량 계속되고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웨침과 간수나 보초들의 쌍욕이 얼마동안 들려왔다.

그러는 사이에 경보를 통해 호출된 게스타포책임자 루돌프 임메르만도 와있었다.

《하일 히틀러!》 그는 만나는 성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당직자를 불러오시오!》

그가 책상에 채 앉기도전에 당직자가 보고하러 왔다.

《소요는 진압되였습니다.》 당직자가 보고했다. 《주모자는 죽고 공개적으로 반항한 열명의 수인은 총살했으며 이십명의 소요참가자는 특수감방에 감금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소?》 게스타포책임자가 물었다.

《에쓰에쓰대원 셋과 간수 한명이 죽었습니다. 에쓰에쓰대원 두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당직자에 이어 나타난 책임예심원 슈와이쩨르가 이날 아침에 있은 사건에 대해 더 상세히 보고했다.

《누가 소요를 발기했소?》 임메르만이 물었다.

《수인 78950번입니다. 보호통치령의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여 여기로 끌려온자입니다. 체포되였을 때에는 자기를 예폐메예브라고 하였는데 이젠 그의 본명을 알아냈습니다. 이자는 마우트하우젠수용소의 수인 옐피모브였습니다.》

《옐피모브?》 게스타포책임자는 몹시 흥분했다. 《수용소에서 일터로 보냈던자가 아니요?》

《바로 그자입니다. 반년전에 그자를 화학공장으로 보냈답니다. 그자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으며 보호통치령에는 어떻게 가게 되였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자와 함께 수용소에서 형을 받고 있던 수인 하나가 방금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건 그자다!) 임메르만은 기쁜 나머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끝내 영원히 잠들었군. 허지만 그자는 일주일이 남짓한 기간을 자유로운 몸으로 살았으니 그 기간에 우리의 비밀을 루설하지 않았을가?)

《난 그자를 아오.》그는 소리내여 말했다. 《이번 기회에 위험한 범죄자 한놈이 제거되였소. 허지만 그자가 도주한 기간에 우리 일에 대한 비밀을 지껄일수 있었단말이요. 그 기간에 그자와 관계했던 자들을 모조리 들추어내여 우리에게 끌어와야 하겠소. 직접 심문하겠소.》

《대좌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수 있습니다. 그자가 접촉한 인물은 셋뿐인데 그자들은 모두 구금되여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요?》

《엘피모브를 숨겨두었다가 발각된 집주인인 마하츠부부와 한 감방에서 하루밤을 같이 지낸 수인 78901번입니다.》책임예심원이 보고했다.

《뚜르하노브와 함께 있었소?》게스타포책임자가 신경을 도사렸다. 《누가 그자들을 한감방에 넣었소?》

《엘피모브를 밤중에 여기로 끌어왔습니다. 당직자는 그자를 보통 탈주자인줄만 알고 뚜르하노브와 한감방에 넣었습니다. 거기엔 빈 침대가 하나 있었거던요.》

임메르만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또 그 뚜르하노브이구만.) 하고 생각하자 그는 흥분했다. (그자들이 우연히 한감방에 있게 되였는지 고의적으로 누가 그렇게 조직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군.)

《이것보오, 슈와이쩨르!》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엘피모브에 대하여 알고있는 자료를 나에게 즉시 보고하시오. 그리고 마하츠부부는 오늘중으로 우리에게 데려오라고 지시하시오. 뚜르하노브는 내가 담당하겠소. 그자의 사건심리는 어느정도 진척되였소?》

《우리가 한 질문에 대답할것을 기다리는중입니다. 그자는 아직 조용히 처신하고있습니다. 저 역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전에는 그자를 놀래우지 않고 사건자료나 계속 연구할 작정입니다. 대좌님, 그자의 경력에는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바로 찍어 말한다면?》

《나의 의견을 따로 묶었습니다. 이겁니다.》 책임예심원이 타자기로 친 몇장의 종이를 책상우에 놓으며 말했다.

《여기 두고 가오. 시간이 있을 때 읽겠소. 지금은 뚜르하노브의 감방에 엘피모브를 끌어간 간수와 아침에 거기서 끌어낸 간수들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그 일은 바르바로쓰 혼자 했습니다.》

게스타포책임자나 그의 측근자들이 결코 남을 쉽게 믿는자들은 아니였지만 바르바로쓰는 그들의 완전한 신임을 받고있었다. (아무리 충실한 사람도 실수할수 있지 않는가. 바르바로쓰도 악한 마음에서는 아니라해도 무경각하거나 생각이 짧아서 엘피모브에게서 들은 소리를 다른데 옮길수 있다. 제때에 오금을 박으면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으리라. 허지만 뚜르하노브는 어떻게 한다? 그자에게는 경고도 할수 없지 않는가. 만일 그자가 우리 비밀을 알았다면 그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도는 한가지밖에 없다. 영원한 침묵이 지배하는곳으로 그자를 될수록 빨리 보내야 한다.) 임메르만은 쓴웃음을 지었다.

《수인 78950번에 대하여 아는껏 다 말하시오.…》그는 바르바로쓰를 데려왔을 때 이렇게 첫 질문을 했다.

《밤에 저를 직일실로 불렀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더니 4명의 에쓰에쓰대원이 건강한 한 남자의 팔다리를 붙들고있었고 다섯번째대원은 고무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있었습니다.》

《무슨 리유로?》

《모르겠습니다. 그런걸 묻는건 저의 권한에 속하지 않습니다. 에쓰에쓰대원들 역시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던 그 사람은 어떠했소?》

《그자는 도살장으로 들어간 황소처럼 울부짖고있었습니다. 그자가 의식을 잃자 당직자는 저와 에쓰에쓰대원들에게 75호감방으로 끌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열쇠로 그 감방문을 열었고 에쓰에쓰대원들은 그를 감방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제가 문을 잠근 후에 우린 다 제자리로 헤여져갔습니다.》

《75호감방에 다른 사람은 없었소?》게스타포책임자가 수를 쓰려고 했다.

그러나 바르바로쓰를 속여넘기기는 어려웠다.

《그 감방엔 수인 78901번이 있습니다.》

《그 수인이 깨여났소?》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있을 때에는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잠근 다음 혹시나 해서 감시창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때 78950번은 천천히 일어나서 빈 침대로 다가가더니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마음을 놓고 간수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까지 그 감방에 더는 들어가지 않았댔소?》
《들어가진 않았지만 순회할 때 두번 감시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고있던가?》
《두사람 다 이전 그 자세로 잠자고있었습니다.》
바르바로쓰는 계속하여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가 이야기한것은 직일관의 보고와 전부 맞아떨어졌다. 그러므로 임메르만은 그들의 진술의 진실성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젠 뚜르하노브를 심문해야 했다. 임메르만은 이번에 자기가 대상하는 적이야말로 진실과 거짓을 로련하게 배합할줄 아는 상대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런데다가 상대가 도이췰란드어를 모른다고 완강히 주장하는통에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그자가 도이췰란드말을 안다면 단 둘이 말할수 있겠는데 이젠 통역원의 힘을 빌지 않을수 없으니 그렇게 되면 우리의 비밀이 더 퍼져나갈수 있지 않는가. 우리 통역원들은 다 검열되였다. 그들은 모두 그 어떤 직무상의 비밀도 고수한다고 믿을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통역원이건 와그네르교수의 실험실과 관련한 비밀만은 알아서는 안되게 되여있다. 어떻게 할것인가?) 게스타포책임자는 궁지에 빠졌다.
그는 난감한 처지에서 헤여나올 길을 오래동안 모색했다. 물론 온갖 불필요한 불안을 단번에 털어버리자면 뚜르하노브를 죽여버리면 그만이였다. 그렇게만 되면 엘피모브가 알려준 와그네르의 비밀은 영원히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제국의 립장에서 볼 때 이 쏘련대좌는 엘피모브에게서 들은것보다 더 귀중하고 위험한 다른 비밀들을 알고있을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그 중요한 비밀들은 그와 함께 묘지로 가게 될것이다. 이런 경우에 리득을 보는것은 자기나 자기가 그렇듯 사랑하는 제국이 아닐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손댈 의의도 없는것이다. 제국의 리해관계도 참작하면서 이 일에서는 내가 리득을 보아야겠다. …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걸 달성할것인가?
(뚜르하노브가 아니라 통역원을 없애치우면?)
새로운 묘안이 게스타포책임자의 머리에 번개처럼 떠올랐다. (세계의 강자들은 불필요한 증인들을 제거해야 할 때 그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있다. 만일 통역원이 쏘련군대좌의 심문에 참가함으로써 알아서는 안될 비밀을 알게 되였을 때 자동차사고로 그가 죽었다고 처리하

면 어떨가? 이 일을 감당할만한 사람은 나의 휘하에 얼마든지 있다. 암시만 주면 그 누구든 명예를 위해 나의 희망을 실현할것이다. 우리 사령부에는 로어를 아는 통역원이 열명 있다. 그중 일곱명은 도이췰란드인이고 세명은 로씨야인이다. 도이췰란드민족의 리익을 위해 세 로씨야인통역가운데 한사람을 희생시킬수 있다. 그러나 나의 위임을 받은 살인자가 후날 기회만 있으면 그것으로 나를 협박하려 들지 않을가? 그러니 이 방법은 타당치 않다.) 게스타포책임자는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기척도 없이 문이 열리더니 에쓰디장교복을 입은 날씬한 처녀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처녀는 명랑하게 웃으며 군대식으로 모자채양에 손을 올려붙이고는 롱조로 보고를 했다.

《대좌님! 당신의 명령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밤 음악회를 관람하게 해준 보상으로 당신을 포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처녀는 책임자에게 다가가서 여전히 웃으며 입맞춰달라고 볼을 내밀었다.

(젠장!) 임메르만은 시끄럽게 생각했으나 재빨리 일어나서 처녀의 볼에 자기 입술을 살짝 가져다댔다.

그 순간 그의 머리속에 멋진 착상이 떠올랐다. (환니는 와그네르교수의 딸이다. 그리고 우리 번역원으로 일하고있다. 그러니 이 녀자가 심문에 통역으로 참가하여 화학실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감히 입밖에 낼 엄두를 못낼것이다. 발설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결과를 빚어낼테니까.) 임메르만은 이렇게 생각하고 처녀더러 뚜르하노브를 심문할 때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안돼요.》처녀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 《제가 당신네 기관에서 일하기로 할 때 꼭 서면자료번역만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산 사람들을 심문하는데는 참석하지 못하겠어요.》

《어째서?》

《예심원들이 피검자들앞에서 퍼붓는 상스러운 욕지거리가 듣기 싫으니까요.》

《이번에는 예심원이 아니라 내가 심문하오. 피검자를 욕하거나 모욕하지 않겠다는걸 약속하오. 다른 통역들은 짬이 없는데 수인하나는 당장 심문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그러오. 제발 좀 맡아주오. 환니!》

《그럼 좋아요. 당신 요구대로 하지요. 그런데 누구를 심문하려는지 그거라도 이야기하세요.》

《대좌요. 빨갱이이기는 하지만 무서워마오. 아직 물어뜯지는 않는다고 하더군.》

이렇게 말하며 게스타포책임자는 어떤 양식종이에 몇자 적어서 수표한 다음에 부관에게 주었다.

《이젠 귀여운 환니, 저기 저 작은 책상에 앉아 통역원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나 하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이 사전을 가져가오.》 책임자는 도로사전을 내밀었다.

《사전없이도 돼요.》 처녀는 내민 사전을 거절했다. 《로어는 저의 제2모국어로 된지가 오랜걸요.》

《용서하오. 당신이 모스크바에서 공부한걸 잊었댔소. 당신이 빨갱이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은건 까닭이 없지 않았군.》 임메르만은 처녀의 홍보석반지에 눈길을 돌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부관이 들어왔다. 그는 호송병을 붙여 수인 78901번을 데려왔다고 보고했다. 책임자는 수인을 사무실에 데려다가 특별히 방 한복판에 세워놓은 등받이없는 수인용걸상에 앉히라고 명령했다.

인차 뚜르하노브가 나타났다. 그는 수갑을 차고있었다. 잠못이룬 밤과 오늘아침의 사건은 그의 안색에 반영되지 않을수 없었다. 입고있는 줄무늬죄수복도 인상을 흐리게 했다. 그렇지만 쏘련군대좌 뚜르하노브는 평시의 위엄과 존엄을 그대로 보존하고있었다.

무언극이 벌어졌다. 세사람은 말없이 서로 눈길만 주고받고있었다.

(아니, 이자는 싸움도 하지 않고 무기를 놓을 그런 숙맥은 아니야.) 게스타포책임자는 생각했다. (얼마나 침착하고 위엄있는 눈길인가! 자신심이 얼마나 넘쳐흐르는가. 퍼그나 우리에게 애를 먹이리라는 예감이 든다. 아무튼 우린 목적한바를 달성해야지.)

(저 사람은 참 괴이하구나.) 처녀는 확실히 호기심을 가지고 수인을 쳐다보았다. (저 사람의 눈은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있는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알고싶은데? 몸뚱이는 여기 서있지만 마음은 먼 로씨야땅, 고향땅에 가있을거야.)

뚜르하노브 역시 주위사람들을 세심히 살피였다. 그는 임메르만에게 눈길을 멈추었다. (내앞에 나타난 적수들가운데서 저놈이 제일 위

험할테지. 치렬한 싸움이 있을게다. 더구나 저놈은 나보다 유리한 조건하에 있지 않는가. 그쪽에는 힘과 권력이 있는데 나는 혼자서 공격을 견디여내야 한다. 허나 전쟁에서 승패는 수효뿐아니라 지혜에도 달려있는것이다. 지혜를 최대로 짜내도록 해보자.) 뚜르하노브는 자기 적수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속다짐했다.

그는 통역원의 모습에서는 다른것을 느끼였다. (죽은 짐승의 고기만 뜯어먹고 사는 이 짐승의 무리속에 저 아름다운 비둘기가 어떻게 날아들었을가?) 그는 생각에 잠겼다. (아마 인간증오를 설교하는 나치스의 선전이 그렇게 만들었을게다. 파시즘만이 저런 천사들을 악마로 변화시킬수 있지.)

《앉소!》임메르만은 손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수인에게 권했다.

《예심원 클랴인 미켈이 첫 심문당시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보고해왔으므로 우린 부득이 당신의 손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방에서 데려오지 않을수 없었소.》

임메르만의 주저하는 눈길은 뚜르하노브로 하여금 처음의 결심을 고쳐먹게 했다. 통역이 말을 다 옮길 때까지 참을성있게 기다리고난 그는 씩 웃고나서 말했다.

《당신은 나의 천진함을 놓고 비웃을수 있겠지만 나는 적수공권의 수인 하나가 발톱까지 무장한 당신네 간수들에게 그렇게 큰 공포를 안겼으리라고는 생각해본 일이 없소.》

이 대답은 통역원을 통쾌하게 해주었다. 통역원은 자기의 의무도 잊고 수인에게 명랑한 웃음을 보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오?》임메르만은 조급해서 통역원에게 물었다.

환니가 통역해주었다. 뚜르하노브의 답변은 게스타포책임자를 격분케 했다. 그는 즉석에서 수인을 반죽음시킬수 있었으나 사랑하는 처녀앞에서 《고등인종》대표자의 야수화된 얼굴을 나타낼수는 차마 없었다. (파렴치한 놈!) 그는 마음속으로 욕질했다. (이제 너는 나를 그렇게 모욕한 값을 톡톡히 치를줄 알라.)

《예심원을 그렇게 놀라게 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못했소.》그는 천연스레 보이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무도 더는 의혹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갑을 벗겨주라고 명령하겠소.》

《고맙소!》수인은 이렇게 인사했으나 이때 그의 눈은 게스타포책임

자가 아니라 그의 통역을 쳐다보았다.
《내가 당신을 부른것은 심문보다도 다만 낯을 익히자는거요.》임메르만은 자기딴에 꾀를 부리기 시작했다. 《알고 지냅시다. 이 처녀는 우리 번역원 환니이고 나는 그의 상관인 임메르만대좌요. 클랴인미켈예심원과의 당신의 언쟁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되였소. 앞으로는 당신의 사건을 책임예심원 슈와이쩨르가 담당하게 되오.》
통역의 말을 들은 뚜르하노브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젠 당신에게 어느 한 사람에 대해 뭘 좀 물으려 하오. 엘피모브아니씨모브란 사람을 아오?》 게스타포책임자가 물었다.
《그가 누구요?》 뚜르하노브는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했다.
《누구라니?》 임메르만은 대번에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다. 《그래 당신은 그자와 한감방에서 밤을 함께 지내지 않았단말이요?》
《아, 생각나오. 밤에 깨여났을 때 옆침대에서 사람이 자는걸 보았소.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오. 다음날 통성을 하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소. 내가 아직 잠에서 깨여나기도전에 그 사람을 감방에서 데려내갔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아무말도 안했소?》
《아니, 절대로 안했소.》
《그럼 와그네르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게 없소?》
《와그네르에 대해선 좀 들은게 있소.》뚜르하노브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임메르만은 끓는물에 덴것처럼 후닥닥 뛰쳐일어났다.
《와그네르에 대한걸 누구한테서 무슨 이야길 들었소?》
《중학교에 다닐 때 교원들이 그는 도이췰란드의 위대한 작곡가로서 천재적인 가극들인 〈로엔그린〉, 〈탕게이제르〉, 〈날아다니는 네데를란드인〉 기타 많은 작품을 창작했다고 가르쳤지요. 그후에 극장에서 가극 〈로엔그린〉을 보았소.》
《작곡가가 아니라 학자에 대해 묻고있소.》임메르만은 실망하여 손을 내저었다.
《그런 이름을 가진 학자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들은게 없소.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이름을 널리 내지 못한 모양이지요.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과학자를 모르는데요.》

환니는 뚜르하노브의 대답을 도이췰란드어로 통역해야 할 대신 론쟁을 걸기 시작했다.

《오해하고있어요!》 처녀가 소리를 질렀다. 《나의 아버님의 이름은 어디서나 알아요. 세계의 가장 이름있는 학자들도 아버님의 이름을 존중하고있어요. 당신네 나라에서도 아버님을 알아요. 전 아버님이 모스크바종합대학에서 그 유명한 유기화학강의를 할 때 대학생들이 문자그대로 질문을 막 퍼붓던걸 기억하고있어요.》

《그럴수 있지요.》 뚜르하노브도 수긍했다. 《화학은 나의 관심을 끌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멘델레예브밖에 나는 화학자라고는 전혀 모릅니다.》

론쟁은 더 계속될수 있었다. 그래서 임메르만이 중단시켰다.

《환니, 당신은 자기 임무를 잊었나보오.》 그가 책망했다. 《당신들이 주고받은걸 즉시 통역하시오.》

처녀가 통역했다. 그제서야 임메르만은 안도의 숨을 쉬였다. (정말 다행이군! 엘피모브는 종내 우리 비밀을 탄로시키지 못했구나. 그렇지 않다면야 뚜르하노브가 작곡가에 대해 떠벌이지는 않았을테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환니는 임메르만의 속생각을 읽을수 있었다.

《보시는바와 같이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 정말 들은게 없어요. 그러니 저의 개입이 우리 사업에 유익했군요.》 그 녀자가 말했다.

《아무튼 질문은 나의 승인을 받고서만 하시오. 우리가 여기 손님으로 온것이 아니니까 당신은 여러가지 시시한 일에 끌려들 권리가 없소. 이젠 저 사람에게 자기 경력을 이야기하라고 전하시오. 진실을 말하라고 경고하시오. 꼭 진심이여야 하오. 거짓말을 하면 그의 죄가 더 커지오. 하기야 궁극에는 다 밝혀지기 마련이니까.》

임메르만의 목소리에서는 위협하는 어조가 진하게 풍겼다. 그의 말을 옮길 때 환니는 그 위협조의 말표현들을 얼마간 부드럽게 하려고 했다.

뚜르하노브는 한때 병원에서 흘레밍그교수에게 엮어대였던 그 거짓경력을 그대로 반복했다. 뚜르하노브의 경력은 젊은 처녀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진짜 모험소설같은 이야기구나!) 그

녀자는 생각했다. (저 대좌를 바깥세상이 아니라 감옥안에서 만나게 된게 얼마나 유감인가. …)

게스타포책임자 역시 뚜르하노브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으나 의심도 없지 않았다. 자기 통역이 수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것을 본 게스타포책임자는 로골적인 조소를 머금고 그 녀자를 지켜보았다.

《당신은 저 사람의 진술을 믿소?》 그가 물었다.

《어떻게 안믿겠어요? 저 사람이야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소. 그는 아이가 아니요. 그럼 환니, 당신은 어린애요? 저 사람은 우리를 속이고있소. 노엽게 생각하지는 마오만 저 사람의 미끼에 큼직한 고기들이 물렸댔소. 얼마전에 저 사람은 옹근 한달동안이나 우리 정보원을 골려주었소. 그와 함께 한무리의 멍청이들도 걸려들었었는데 그들가운데는 교수도 있고 상급장교도 몇명 있었소.》

《그럴수 없어요!》 처녀가 분개했다.

임메르만은 자기 궁리가 따로 있어서 이런 론쟁을 벌린것이다.

그는 뚜르하노브가 정말 도이췰란드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체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려 한것이다. 그래서 그는 쏘련군대좌의 얼굴에 나타나는 사소한 변화까지도 세세히 관찰했지만 상대방은 일체 무관심했다. 그들의 론쟁에 약간의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어떤 감정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무관심과 권태감뿐이였다.

《저 리면을 확인하고싶소?》 악의에 찬 비웃음을 띠고 임메르만이 처녀에게 물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렇다면 저자에게서 감동의 눈길을 거두시오. 어미소를 바라보는 송아지의 눈이 아니라 산토끼를 바라보는 왕구렝이의 눈으로 뜯어보란말이요. 나의 질문을 통역하오. 당신은 와르샤와에 10월 2일에 갔었다고 하였는데 그때까지 와르샤와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었소?》

《아니 없습니다.》 뚜르하노브가 조용히 대답했다.

《거짓말 말앗! 구린내나는 돼지새끼!》 임메르만은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고 소리질렀다.

통역원은 어리둥절하였다.

《당신도 들었지?》 임메르만이 처녀에게 말했다.

《통역하시오.》

《못하겠어요!》 처녀는 단호하게 선언하고 일어섰다. 《당신은 제가 있는데서는 욕지거리를 안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전 가겠어요.》

대좌는 처녀의 손을 붙들었다.

《제발 용서하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걸 다짐하오. 명예를 걸고 맹세하오.》그는 처녀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그 순간에도 그는 계속 뚜르하노브를 주시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주 침착하고 랭담했다. 그러다가 임메르만이 처녀의 손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을 때에야 비로소 눈길을 돌렸다.

이것은 그에게 뚜르하노브가 정말 도이췰란드어를 한마디도 모른다는것을 확신케 했다.

(그밖의 문제에선 저자가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하고있다. 허지만 내가 저자를 발가놓을테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통역원에게 다음의 대화를 통역하라고 명령했다.

《부드럽게 표현해서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있소.》 그는 시작했다. 《와르샤와에 당신은 가을이 아니라 이른 봄에 갔으며 방금 당신이 진술한바와 같이 앞으로 쓸 저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빨찌산전쟁을 조직할 목적으로 갔소. 4월하순에 류블린주에서 당신들은 빨찌산부대를 편성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들이 쏘련빨찌산 제1국제부대라고 부르는거요. 이 부대를 골간으로 하여 당신들은 처음에는 류블린주에서 다음에는 켈쯔주에서 우리를 반대하여 싸웠소. 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관되여있는 문건들이 말해주고있소.》

임메르만은 문건철에서 두건의 아브웨르통보서사본을 꺼내여 통역원에게 주었다. 통역원은 처음에는 도이췰란드어로 읽고 그다음 로어로 번역하여 읽었다. 뚜르하노브가 예견한대로 아브웨르의 첩자들은 오래동안 그의 흔적을 추적하였던것이다. 그는 명백한 사실을 무작정 부정하는것이 언제나 유익하지 않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래서 일부 자료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리면서 즉석에서 인정했다.

《이젠 플랑크대좌에 대하여 아는걸 모두 말하시오. 대좌가 켈쯔주에서 무슨 일에 종사하였는지 알고있소?》 임메르만이 물었다.

《플랑크대좌말이요?》 뚜르하노브는 반문했다. 《그런 성을 들은것 같군요. 야전자동차수리소 책임자라 하던것 같은데.》

《누구한테 그 말을 들었소?》
《우리 참모장한테서지요. 참모장은 플랑크의 처를 몇번이나 심문했으니까요.》
《플랑크대좌의 처를 말이요?》 임메르만이 놀라서 물었다.
《그렇소.》 뚜르하노브가 수긍했다. 《그 녀자 이름이 베르타라고 했던것 같은데… 그렇지, 베르티 폰 플랑크였지. 나는 직접 그 녀자를 보지는 못했는데 본 사람들은 그 녀자가 대단한 미인이라고들 합니다.》
이것은 비단 천진한 환니뿐아니라 임메르만처럼 덩지가 큰 게스타포 승냥이의 흥미도 끌었다.
《그 녀자가 어떻게 당신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였소?》 안절부절하며 임메르만이 물었다.
《그때 난 타박상을 입고 입원중이여서 구체적인것은 모르겠소. 위슬라강을 도하할 때 우리 무전수처녀가 포로되였는데 무슨 원인에서였던지 무전수를 야전자동차수리소 책임자의 손에 넘겨주었다는것과 그것을 알게 된 무전수의 전우들이 수리소책임자의 처를 랍치해다가 우리 무전수와 교환했다는것은 알고있소.》
침묵이 흘렀다. 모두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환니는 이미 그에게서 자기의 정말 아름다운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저이는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처녀는 생각했다. (저이의 운명은 정말 기구하구나! 자기의 생애에서 얼마나 많은것을 목격했을가. 아아 외인이 없이 저이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눌수는 없단말인가.)
뚜르하노브 역시 자기 운명에 대해 무관심할수 없었다.
(플랑크대좌의 수수께끼같은 활동과 그에 못지 않게 수수께끼같은 그의 실종사건에 대해 게스타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리가 없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의 수중에 있는 모든 산 증인들중에서 나만이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킬수 있을것이다. 저자들이 플랑크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때까지 나를 죽이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니 나는 놈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한부분씩 그것도 상당한 동안을 두면서 알려주어야 한다. 나는 와그네르교수와 그와 동류의 파시스트학자들로 하여 우리가 당하게 될 위험을 사람들에게 예고하기 위해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임메르만은 게스타포의 경쟁자이며 교활한 적수인 아브웨르가 정체를 가리울 목적으로 자기들의 작전조들을 각종 수리소나 야전빵제조소같은 후방기관 혹은 소군부대로 가장하고 활동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포로된 빨찌산무전수가 자동차수리소에 잡혀있었다는것과 무전수를 이 수리소책임자의 안해와 교환했다는것을 듣자마자 그것이 얼마전에 체포된 까나리스해군대장의 특수임무를 피강점국들에서 수행하고있던 아브웨르작전조들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는것을 곧 알아차렸다.

까나리스의 사건심의는 현재 제국에쓰디안전국장인 칼텐브룬너가 담당하고있었다는것도 그는 알고있었다. 임메르만은 까나리스와 그 악당들의 얽혀진 사건을 명백히 밝혀내도록 도와준 일군들에게는 칼텐브룬너자신이 손수 푸짐한 표창을 내리게 되여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이 붉은군대대좌한테서 칼텐브룬너가 관심을 가질수 있는 자료들을 짜낼수는 없을가?)

뚜르하노브의 피로하면서도 여전히 침착한 얼굴을 쳐다보며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나는 직급이 한계단 높아질것이고 은행에 저금한 나의 재산은 더 불어날것이다.)

휘황한 전망에 고무된 게스타포책임자는 점심식사마저 뒤로 미루고 새 힘을 내여 심문을 계속했다.

《당신네 무전수가 풀려나온 뒤 플랑크에 대해 뭐라고 말했소?》그가 물었다.

《좋은 소리는 거의 없었소.》뚜르하노브가 대답했다.《무전수는 말하기를 자기를 적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더라는것이고 빨찌산에 대한 비밀자료들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더라는거요.》

《당신은 자동차수리소 책임자에게 어째서 그런 자료가 요구되였다고 생각하오?》

《도이췰란드장교들이 적에 대한 자료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있다는걸 우리는 알고있었기때문에 플랑크대좌의 행동에서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댔소.》

《그렇다는걸 나도 당신에게 담보하는바요.》임메르만이 말했다.

《그때 우리는 플랑크의 기관을 진짜 자동차수리소로 알았댔소.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게 위장물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임메르만이 대좌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우리는 플랑크대좌가 〈 505 〉라고 불리우는 아브웨르의 작전조를 지도했다는걸 알았소.》
《당신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소?》
《아스따호브라는 사람에게서지요. 그는 자기 부대와 함께 플랑크대좌의 작전조를 포위섬멸하자고 우리에게 제기했댔소.》
《당신들은 그의 제의를 수락했댔소?》
《아니요.》
《어째서?》
《빨찌산들속에서 그는 평판이 나빴댔소. 일부는 그를 적의 밀정이라고 인정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블라쏘브네 패거리라고 단정하고있었소.》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였소?》
《말하기 어렵소. 후에 들은 말에 의하면 그가 플랑크대좌를 직접 쏘았다고 하는데 난 진실을 끝까지 캐보지 못했소.》
《캐보지 못한건 긴급히 와르샤와로 가야 했기때문이요?》
《아니요. 어느날 빨찌산잠복이 의심스러운 한 무리의 사람들과 조우했댔소. 밤에 있은 일이였소. 맞불질이 시작되였소. 그 사람들은 전멸되였소. 우리 빨찌산대원들은 죽은 사람들가운데서 아스따호브와 그의 보좌관인 유마노브를 알아보았소. 나도 그 사건이 있기전에 그와 두번 만난 일이 있었으므로 다음날 아침 사건현장으로 갔을 때 그를 제꺽 알아보았소. 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문건이나 기타 자료들은 그에게 없었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가 누구에게 복무하였는지 당신네에겐지 우리에겐지 딱히 말할수가 없소.》
(우리가 그걸 해명해야지.) 임메르만이 생각했다. (그자가 만일 우리에게 복무했다면 뚜르하노브에게 그들이 자기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해줄테다. 볼쉐위크들이 강의하다지만 얼마간이라도 속을 썩이게 말이다.)
《이젠 당신이 어떻게 되여 와르샤와에 나타나게 되였는지 말해보오. 우리 위생병들이 당신을 발견한건 원래 당신이 싸우던 켈쯔주가 아니지 않소?》
《우리 무전수처녀는 뽈스까사람인데 전쟁전에 부모들과 함께 와

르샤와에서 살았소. 그의 아버지는 개인건축작업장까지 가지고있는 유명한 건축가였고 그의 어머니는 이름있는 화가였소. 무전수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돈놓이도 했다오. 그의 아버지는 전쟁이 곧 일어날것을 느끼고 자기 돈을 금과 외화로 바꾸었으나 그걸 외국으로 내가지 못했다오. 도이췰란드땅크들이 와르샤와를 포위하기 시작하자 마르샬꼬브거리에 있는 독립가옥벽체에 그걸 서둘러 숨기고 가족들과 함께 도시를 빠져나왔다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그 돈을 찾아내고 전선을 넘겨서 보위기금으로 쓰려 했소. 빨찌산은 그 작전을 나에게 위임했소. 바로 그렇게 되여 난 8월초순에 와르샤와에 나타났던거요.》뚜르하노브대좌는 실지 사건과 허구를 솜씨있게 섞어가며 이야기를 엮어나갔다.

《당신들은 그 돈을 차지했는가요?》임메르만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렇지 못했소. 우리가 와르샤와에 도착한 그날에 폭동이 일어났소. 당신네 군대는 신속히 폭동자들을 도시의 중심구역으로 내몰았소. 화력환을 뚫고 나갈수가 없었소. 나는 동료들과 함께 류도브의 군대로 갔소. 당신은 2개월후에 폭동자들이 항복했다는걸 알고있겠지요. 우리 쏘련사람들은 붉은군대에 합류하기 위하여 위슬라강을 넘기로 결심했댔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였는지 그건 모르오. 난 중상을 당하고 포로되였으니까. 그밖의것은 당신들이 알지요.》뚜르하노브는 이야기를 끝맺었다.

이것으로 심문은 끝났다. 임메르만은 모든 문건들을 금고안에 차곡차곡 넣은 다음 금고에 자물쇠를 잠그었다. 그리고 수표를 하여 금고를 봉인했다. 수인을 호송원에게 넘기고 서둘러 점심식사하러 가야 했으나 그때 환니가 임메르만에게 말을 걸었다.

《친애하는 임메르만씨, 사업상이 아니라 우정의 표시로 저에게 약간의 친절을 베풀어주시지 않겠어요?》처녀가 부탁했다.

《뭔데?》임메르만이 긴장해졌다.

《녀성이란 호기심이 많지요. 그 사람의 경력을 듣고 전 몇가지 질문을 하고싶은데 할수 있을가요?》

《좋소, 내가 문건을 기입하는동안 물으시오. 당신에게 3분동안의 시간을 주겠소.》그는 시계를 보고 너그럽게 승낙했다.

처녀는 수인쪽으로 돌아서서 그를 자세히 뜯어보며 물었다.

《당신이 피끗 상기시킨 그 무전수처녀는 지금 어디 있을것 같애요?》
《그 녀자는 영웅적으로 희생되였습니다.》뚜르하노브가 대답했다.
《어떻게 하다가요?》
《자기 지휘관을 권총으로 겨누는걸 보자 몸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그 지휘관이 당신이지요?》
《그렇소.》
《그 녀자는 이쁘게 생겼는가요?》이렇게 물은 처녀는 얼굴을 확 붉혔다.
뚜르하노브는 환니를 보고 서글프게 미소했다.
《네, 그 녀자는 당신처럼 아름다왔습니다.》
환니의 눈이 기쁘게 빛났다. 임메르만은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환니의 얼굴에 나타나는 급속한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당신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소?》임메르만은 수인을 호송원에게 넘겨준 후에 물었다.
《그의 무전수에 대해 물었어요. 그 녀자는 자기 상관을 몸으로 막고 죽었대요. 당신생각은 어때요. 도이췰란드녀자들도 그런 위훈을 세울수 있을것 같애요?》
《왜 그렇게 못하겠소? 만일 적들이 나에게 달려든다면 당신은 나를 막으려고 달려오지 않겠소?》 임메르만은 헤벌쭉이 웃었다.
처녀는 당황하여 눈을 내리깔고 잠시 생각했으나 대답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임메르만은 노여워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맞받아나간다는것을 대체로 믿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위훈에 대하여 듣거나 신문에서 읽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거야 누거리작가들이 지어낸 거짓말이지. 도이췰란드사람은 그 누구나 자기가 자신을 지킬줄 알아야 한다. 그 어떤 머저리가 자기를 구원해주려니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임메르만, 당신 생각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한것 같애요? 아니면 또 허위진술을 한것 같애요?》
《적의 입에서는 거짓과 진실이 언제나 뒤범벅이 되여 흘러나오는

법이요. 허지만 우린 자기 목적을 달성해내오.》
《당신은 그 사람을 또 심문에 불러내겠어요?》
《그럼. 이제 시작에 불과하오.》
《허락하신다면 제가 통역을 하겠어요.》 처녀가 부탁했다.
《반대는 않지만 두렵소.》
《두렵다고요? 무엇이요?》 처녀가 놀랐다.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 두렵소. 그 빨갱이가 나한테서 당신을 랍치해갈가봐 두렵단말이요.》 임메르만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쩌면 저더러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처녀가 성이 나서 입술을 비죽이 내밀었다. 《그 사람은 철창속에 갇힌 몸인데 어떻게 저를 랍치해간단말이예요?》
《유감이지만 철창은 담보가 못되오. 그건 톱으로 켤수 있으니까.》

제 18 장

임메르만의 형제들인 형 아돌프와 동생 루돌프는 1930년대초에 도이췰란드에서 상부오스트리아로 왔다. 그들은 뮨헨맥주공장 경영주의 가정에서 태여나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둘 다 종합대학을 졸업했다.

그들이 종합대학졸업증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 부모들과 자기 앞날을 의논하려 하던 그해에 1929—1932년 경제공황이 절정에 이르러 완전히 파산몰락한 그들의 아버지는 이마에 총알을 박고 자살했다. 임메르만일가의 맥주공장은 경쟁하던 회사의 손에 넘어가고 옛 맥주업자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경매되였다. 그리하여 아돌프와 루돌프는 채 갚지 못한 아버지의 빚만을 유산으로 넘겨받았다. 쫓아다니는 빚군들의 성화를 피하기 위하여 맏아들 아돌프는 미국으로 달아났다. 그는 거기서 다섯해동안을 현대기술로 장비된 어느 한 화학공장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기능공으로, 다음은 교대기사로, 끝내는 직장장으로 되였다. 현대

화학공업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오스트리아에서 온 모쉐 골드만과 그는 알게 되였다. 이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은 린츠교외에 아닐린염료가공공장을 가지고있었다. 젊은 기사의 실무적인 자질이 지혜롭고 나이도 지긋한 유태인의 밝은 눈에 띄였다. 아돌프는 골드만에게 자기의 청년시절을 상기시켰다. 주머니에 단돈 한푼없는 이름없는 자기가 조그마한 염색소에 들어가 일하면서 10년동안에 염색기술을 완전히 익혀 평범한 청소부로부터 직장장으로 자랐고 주인의 딸에게 장가까지 들었으며 주인이 죽은 후에는 자기가 염색소주인으로 되였다. 사실 그는 자기 안해에게 만족할수 없었다. 그 녀자는 그때 혼기를 넘긴 로처녀인데다가 한눈이 멀었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불룩한 돈주머니는 그 녀자의 모든 흠집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젊고 실무가 있는 남편은 돈을 활용할줄 알았다. 자그마한 염색소가 개건된 이후에는 아닐린염료를 생산하는 어엿한 공장으로 되였다. 안해가 아들과 딸 두자식을 낳게 되니 자식을 몹시 사랑하는 남편은 무등 기뻐했다. 아들은 불행하게도 장티브스로 죽고 딸만이 자랐다. 딸은 자라서 아름다운 처녀로 되였다.

아돌프 임메르만이 미국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때로는 몹시 귀국하고싶어한다는것을 알게 된 골드만은 그에게 오스트리아에 돌아가서 자기 공장의 개건사업을 주관해주면 상당한 봉급은 물론 리익금도 한몫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내 공장 개건사업을 끝낸 다음에는 불룩한 돈주머니를 가지고 도이췰란드로 돌아가도 좋소. 그때가서도 고향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말이요. 아직 나는 당신에게 도이췰란드에 돌아가라고 권고하고싶지는 않소. 거기선 한해이상이나 진짜 살륙전이 벌어지고있소. 공산주의자들뿐이 아니라 재산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새 나치스제도의 일부 지도자들까지 죽이고있소.》

아돌프는 그것을 알고있었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때로부터 도이췰란드에서의 류혈참극에 대한 기사로 신문이 꽉 차있었다. 그외에도 그 진상에 대해서는 파시즘의 류혈적인 대소동의 직접적인 참가자인 친동생 루돌프도 정기적으로 알려주었다. 돈 한푼없이 뮌헨에 남게 된 루돌프는 습격대원부대에 들어가 파시스트정변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그 공로로 장교로 승급되였고 총통으로

부터 직접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아돌프는 골드만이 있는데서는 동생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다. 번성하는 기업가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시시콜콜이 알아본 그는 모든 리득과 손실을 타산해본 후에 골드만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오스트리아로 옮겨갔다. 주인의 호의적인 태도가 안받침되자 그의 비범한 재능이 활짝 피여났다. 처음에 2년을 예견하였던 개건사업은 그의 주관하에서 한해에 끝마쳤다. 다음해에 공장의 순리득금은 배로 늘어났다. 그때에 가서는 아돌프가 벌써 로동자와 사무원, 기술일군들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되였다. 새 기사장을 모두가 좋아했다.

금전욕이 강한 주인은 빈약한 공장을 높은 리윤을 내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변시키는 기사장의 솜씨를 실지로 믿었고 기뻐한 나머지 사무실에는 물론 명절이나 집안대사가 있을 때 자택에까지 초청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면 주인은 그에게 존경하는 태도를 이모저모로 강조하군했다. 그러면 귀중한 손님은 겸손하게 처신하면서도 자기의 존엄 또한 잊지 않고 지켰다. 그것은 집주인은 물론 갓 스물한살에 잡힌 아름다운 그의 딸 이다의 마음에도 들었다. 처녀의 어머니는 자기 체험을 통하여 로처녀로 있기가 얼마나 불쾌한가 하는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의 귀여운 딸이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 주변의 젊은이들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았으나 적당한 사위감을 구하지 못했다. 아돌프 임메르만의 출현은 사정을 다르게 했다. (바로 저 사람이다!) 녀인의 마음속에서 환성이 터졌다. (저 사람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 이다처럼 돈많은 색시감에게 장가들 기회를 놓치지 않을게다. 문제는 이다자신에게 달렸다. 그 애가 지금 도이췰란드에서 유태인들을 가혹하게 박해하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도이췰란드인인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려 하겠는지?)

그러나 어머니의 걱정은 공연한것이였다. 이다는 어머니보다 먼저 젊은 기사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를 사모했으며 정식으로 청혼해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기다리던 날이 드디여 왔다. 법일군들은 혼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거기에 수표했으며 도시에서 제일 큰 사원에서 신랑신부의 성례를 치르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첫번째 실패에 부딪쳤다. 골드만부부는 재산있는 사람들의 오랜 풍습대로 신랑신부를 신혼려행 보내려 했다. 신부 역시 그걸 갈망하고있었다. 그런데 신랑이 반대했다.

《려행은 다음에 합시다.》그는 딱 잘라 말했다. 《유럽에서는 화약내가 풍기고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래일에는 일제포사격으로 세계에 새로운 전쟁의 발발을 알릴겁니다. 그러면 화학공업에는 황금시절이 옵니다. 물론 아닐린염료공장이 아니라 화약, 기타 폭발물제조업자들이 돈을 걷어모으게 될테지요. 전 화약과 트리니트로 톨루올을 생산하기 위한 직장건물 두채를 보충적으로 더 지으려고 합니다. 정부는 우리 요청에 따라 집을 지을 맞춤한 지대를 제공해주고 은행은 우리에게 부족되는 자금을 대부해줄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의 리득금이 지금에 비하여 몇십배로 늘어날겁니다. 사랑문제를 두고 말한다면 모두가 보는데서 이다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다가 나의 생각에 동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다는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가 여전히 자기 공장의 주인이고 사위는 새 대상물건설과 낡은 직장의 작업조직만을 맡아보게 된다는것을 알자 아돌프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렇게 되자 딸은 운명에 순종하는수밖에 없었다. 신부는 인차 마음을 진정하고 남편의 일손을 도와나섰다.

전쟁이 곧 일어난다고 한 아돌프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1935년에 파쑈이딸리아는 무방비상태인 에티오피아에 쳐들어가 길지는 않지만 류혈적인 전쟁끝에 그 나라를 강점했다. 다음해에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는 에스빠냐에 대한 무장간섭을 조직했다. 1937년에 일본은 전 중국을 강점할 목적으로 원동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1938년 3월 히틀러군대는 오스트리아에 쳐들어와 2일동안에 민주단체들을 괴멸시키고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도이췰란드에 병합시켰다.

이전 오스트리아공화국의 유태인주민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나날이 닥쳐왔다. 망나니화된 파시스트청년들은 유태인소부르죠아지들의 가게방과 상점들을 략탈하고 그들의 제조소들을 불살라버렸다. 유태인종교단체들을 모독하고 대대적인 략탈을 련이어 감행하였다. 부녀자들과 로인들을 구타하고 로력자들은 잡아서 중로동부문에 써먹기 위해 수용소에 보내였다. 재산이 더 많은 유태인들은 자기 공장들을 팔고 국경을 넘을 권한을 받은 다음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스위스로 넘어갔다.

도이췰란드군대와 함께 루돌프 임메르만도 왔다. 두 형제는 오래전

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루돌프는 그때 벌써 에쓰디의 대좌직에까지 올라섰으며 지방게스타포의 책임자임무를 맡아보고있었다. 바로 그의 도움으로 골드만가정의 비극의 종장이 완성되였다. 처음에는 늙은 공장주인 골드만에게 옛 지기가 있는 스위스에 보내주겠다는 약속밑에 딸과 사위에게 공장을 넘기고 물러나라고 강요했다. 골드만은 죽음이 두려워 모든 문건에 수표했으나 끝내 재난을 모면하지는 못했다. 게스타포책임자 루돌프는 그에게 위조문건을 해줌으로써 국경을 넘을 때 단속되여 안해와 함께 총살되였다. 사람을 잘못 믿은 탓으로 아름다운 이다도 값을 치를 차례가 왔다. 이다는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소유권을 남편에게 이관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필요한 이관수속문건이 다 구비되였을 때 이다는 세금을 물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투옥되였으며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잊혀진채 여섯달만에 옥사했다.

골드만로인의 생애와 활동을 총화지으면서 또 한가지 사실을 언급해야겠다. 그가 죽은 뒤 꼭 한해가 지나서 아돌프 임메르만은 《화르벤웨케》공장의 공인된 주인이 되여 고인이 된 장인의 이전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게 되였다. 그런데 자식을 무척 사랑하던 골드만은 독자들이 앞에서 소개된것으로 알고있는 그런 얼뜨기는 아니였다. 자기 생애의 우여곡절을 옳게 판단한 그는 미국화페로 2백만딸라의 자기 자금을 미리 스위스에 빼내여 옛친구인 바루흐의 은행에 예금하였다. 쮸리히공증인에게서 발견한 재산상속유언장에 의하면 이 재산소유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의 상속자들인 안해와 딸은 상속수속을 하기 위해 바루흐의 은행에 직접 나타나야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돌프는 죽은 안해의 그 재산마저 차지하고싶은 욕망에 불탔으나 은행가 바루흐는 자기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실현하고저 아돌프의 소유권주장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는 재판소송을 하지 말고 그 자금을 련합회사 《화르벤웨케》의 국외영업공동자금으로 리용할데 대한 유익한 계약을 맺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률가들과 상담한 아돌프 임메르만은 이 제의를 수락하고 존경받는 고객으로 바루흐의 쮸리히은행에 나타났다.

그 이후에 임메르만형제의 사업은 상승일로를 걸었다. 루돌프는 자기의 직권을 리용하여 게스타포감옥과 주변 포로수용소의 수감자들을 형의 공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로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해주었고 형

아돌프는 수감자들의 피땀을 짜내여 엄청난 리윤을 얻었다. 그리하여 련합회사《화르벤웨케》는 새 직장을 증설할뿐아니라 보다 약한 경쟁자들을 흡수함으로써 생산을 확대할수 있었다. 그러나 수지제품을 생산하는 이웃공장 하나만이 탐욕스러운 왕구렝이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 공장의 재능있는 설계기사들의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이 공장 주인인 젊은 미망인 마리아 테레자는 의연히 괜찮은 수입을 유지하고있었다. 이렇게 되자 합법적인 형태의 싸움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없었던 임메르만형제는 비렬한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루돌프의 비밀지령을 받은 충실한 졸개들이 수지공장의 발명가이고 온 공장을 유지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책임설계가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회장에서 싸움을 도발했다. 이 싸움에서 요술쟁이같던 그 책임설계가는 살해되였다. 기둥을 잃게 된 마리아 테레자는 위력한 이웃공장의 협박에 무릎을 꿇고 그의 안해가 될것을 공손히 동의했다. 이번에는 아돌프가 전통적인 신혼려행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결혼식을 하자마자 미인인 안해와 함께 이딸리아로 떠났다.

임메르만형제사이의 사업상 협조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우에서 이야기된 사건들이 있은 후에 그들의 협조는 날이 갈수록 더 공고화되고 더 확대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공장《화르벤웨케》에는 도이췰란드인이 소유한 다른 공장들도 그러하듯이 소위 《외국로동력》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들가운데는 전쟁포로들이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뽈스까인, 다음에는 벨지끄인과 프랑스인, 그 다음에 그리스인과 유고슬라비아인, 마감에는 쏘련사람들이 들어왔다. 일체 험한 일은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부과되였다. 잘 먹이지도 않고 로임도 지불하지 않았다. 리윤추구에만 몰두한 주인들은 안전기술대책같은데는 관심조차 돌리지 않아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이 불상사의 책임은 외국로동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루돌프 임메르만휘하의 게스타포원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자주 체포하고 고문하여 허위적인 사건들을 날조해냈다. 물론 불만을 품은 로동자들속에서 거짓이 아닌 진짜 태업을 한 결과에 일어나는 사고도 없지 않았다. 더우기 보다 큰 파괴행위는 포로와 지방로동자들의 반파쑈지하조직들에 의해 꾸며지군했다. 전쟁은 전쟁인것만큼 싸움은 전선에서뿐아니라 후방에서도 그칠새가 없었다.

전쟁은 벌써 다섯해째 계속되고있었다. 만일 전쟁초기에 도이췰란

드인들이 멀지 않은 앞날의 승리를 믿었다면 모스크바근교에서의 패배는 그들에게 의혹을 자아냈고 쓰딸린그라드에서의 참패는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완전히 잃게 했다. 어느 도이췰란드평론가는 위대한 도이췰란드의 승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무기〉가 가져다줄것이다.》라고 언명했다. 그러자 겝벨쓰와 그의 선동자들은 이 무의미한 사상을 찬미해나섰다. 출판물과 라지오에서는 앞으로 출현할 《기적의 무기》에 대해 터무니없이 떠들어댔다. 로케트무기 《V－1》과 《V－2》의 출현은 평범한 국민들은 물론 일부 군사전문가들까지 《기적의 무기》를 믿게 했으며 《기적의 무기》발명가들이 속출되기 시작했다.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대부분이 사기군이거나 정신병자에 불과했지만 그중에는 물질적조건만 안받침해주면 실지 《기적의 무기》는 못되더라도 위력한 무기들을 창조해낼수 있는 진짜배기 발명가들도 없지 않았다. 1941년에 려단장이였던 헬무트 크라메르가 루돌프에게 그러한《기적의 무기》발명가의 한 사람을 소개한적이 있었다. 그 학자는 와그네르교수였다. 크라메르의 말에 의하면 교수는 화학물질의 합성연구를 하고있었다. 그때 그 학자는 임메르만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볼가강에서 도이췰란드군이 무서운 참패를 당한 오늘에 와서 게스타포책임자는 그 학자를 찾아서 자기 형에게 소개했다.

교수는 그들에게 독물학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발견들을 소개했다.

《나는 미생물들과 일부 동물들에 의해 형성되는 독성물질연구사업에 10년이상을 바쳤습니다. 연구사업에서 나는 독성물질을 군사적 목적에 적용할수 있다는데 대해 특별한 주의를 돌렸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고 당신들에게 장담할수 있습니다. 내가 합성하여 동물을 가지고 실험한 일부 물질은 그것을 전쟁에 적용할수 있다는 환상적인 전망을 우리앞에 펼쳐보이고있습니다.》와그네르교수가 보고했다.

《실지로 그걸 보여줄순 없는가요?》실무적인 아돌프가 물었다.

교수는 동의하고 자택인 3층독립가옥의 지하실에 있는 실험실로 손님들을 안내했다.

《내 조건에서, 다시말하여 원시적인 실험실조건에서 이런 실험을 하기는 헐치 않았지만 틀림없이 당신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특이

한 점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교수는 넓다란 방안의 방음장치가 된 2중창문을 열어제끼면서 장담했다.

방복판에 동물들의 칸이 있었다. 조수의 직책을 맡아보는 교수의 아들 리하르드가 튼튼한 《씨비리종》수고양이를 거기로 들여보냈다.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며 낯선 방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이어서 살찐 승냥이같은 도이췰란드종 개를 끌어왔다. 개의 눈은 이글거렸고 고양이는 씩씩거리며 등을 바싹 꼬부리고 당장 방어태세를 취했다. 개도 이에 대응하여 사납게 으르렁대며 무섭게 이발을 사려물었다. 우리안의 간막이문이 열리자 개는 쏜살같이 고양이에게 달려들었다. 복판에 세메터짜리 기둥이 서있지 않았다면 《씨비리종》고양이는 아주 불리했을것이다. 고양이는 눈깜박할사이에 그 기둥우로 올라가 죽음을 모면했다.

《도이췰란드종이 로씨야종을 이겼군!》게스타포책임자는 웃으며 부르짖었다.

《력량상 차이가 지내 심하구만. 고양이와의 싸움에서는 개가 이기기마련이지.》 아돌프가 반박했다.

《대체로는 그렇지요. 허지만 고양이에게 독성음료가 극소량 섞인 스메따나 한숟가락을 먹이기만 하면 장면이 인차 달라질것입니다.》와그네르가 미리 가져다놓았던 스메따나접시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지가 손짓을 하자 리하르드는 개를 방에서 내보내고 기둥에서 고양이를 끌어내린 다음 털이 푸시시한 잔등을 쓸어주어 진정시키고 스메따나를 먹이였다. 《씨비리종》은 흰 액체를 훌쩍거리며 게걸스레 먹더니 자기 몸을 핥다가 만족해서 바닥에 드러누워 흡족한듯 몸을 옹송그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고양이는 곧 일어서더니 이상하게 야옹거리면서 기둥둘레를 부리나케 뛰여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리하르드가 개를 다시 들여보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제편에서 개에게 달려들었다.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낑낑거리는 소리와 아츠러운 소리가 났으며 피가 튀고 털뭉치가 빠졌다. 비실비실 꽁무니를 사렸던 고양이가 완전히 변모한것이다. 임메르만형제는 숨을 죽이고 고양이와 개의 거동을 살피였다. 처음에 그들은 와그네르가 연구해낸 약이 고양이에게 광적인 대담성을 부여할뿐 육체적인 힘까지는 주지 못하

리라고 생각했었다. 사건진행이 예상을 뒤집어놓기 시작하자 그들은 얼마나 놀랐던가. 개의 힘은 문자그대로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동작이 느리여지면서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개는 인차 공격을 포기하고 맹렬한 적의 공격에 대처하여 방어에만 급급했다. 이때 전혀 예상치 않던 일이 벌어졌다. 고양이는 개의 두눈을 차례로 허비였다. 그러자 위엄있던 개가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다. 눈이 먼 개는 물지도 못하고 공연히 이발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기만 했다. 적수의 처참한 모습이 사나와진 고양이를 조금도 진정시켜주지 않았다. 물어뜯고 할퀴고 하던 고양이는 돌연히 개의 목에 달라붙더니 끝내 물고 늘어졌다. 아픔과 공포로 하여 정신이 나간 개는 고양이와 함께 머리를 이쪽저쪽으로 흔들며 몸을 빼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곧 개는 헐떡거리며 바닥에 쓰러지더니 앞발을 들어 적수를 물리치려는 최후의 시도를 하고는 잠잠해졌다. 승리자는 그제서야 적수의 목을 놓아주고 야웅거리였다. 고양이는 이상하게 동그래진 눈으로 상처입은 적수를 노려보며 잠간 기다리고 서있더니 더는 위구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고 위풍있게 꼬리를 내저었다. 고양이는 낮은 소리로 야웅거리다가 새로운 적수를 찾아 떠나갔다.

《놀랄만한데!》보통때는 랭담하던 아돌프가 참지 못하고 경탄의 고함소리를 질렀다.

《공격을 앞두고 우리 병사들에게 저 약을 먹이면 좋겠는걸.》루돌프가 감동하여 두손을 비비면서 지껄였다. 《막 횡포해져서 적에게 달려들겠구만.》

와그네르는 무겁게 한숨을 쉬였다.

《사람에게 주는 약효는 아직 실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째서요?》루돌프가 물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허지만 기본은 실험대상이 되려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원자들〉을 얼마든지 주겠소.》루돌프가 약속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감이지만 이런 비좁고 원시적인 실험실조건에서는 설사 지원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험이 불가능합니다.》와그네르가 대답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나와 동생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신을 협조할수 있습니다.》 잠간 생각에 잠겼다가 아돌프가 제의했다.

《그렇습니다.》루돌프도 확언했다. 《형은 일체 재정을 부담할것이고 나는 당신이 새로운 조건에서 실험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모든것들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루돌프가 설명했다.
《필요한 모든것》이란 말에는 와그네르의 약을 실험할 때 실험용동물을 대신해야 할 사람들도 념두에 두고있었다. 교수는 그 뜻을 제꺽 알아차리고 찬성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당신들의 조건이란 무엇인가요?》그가 물었다.
《가장 중요한건 때가 될 때까지 일체 계획과 그것을 실현시키는 사업을 엄격한 비밀에 붙이는것입니다. 새로 꾸려질 실험실에는 동생이 믿음직한 호위를 보장해줄겁니다. 계획이 실현되여 얻게 되는 리윤은 꼭 절반으로 나눕시다. 세부적인 문제들은 후에 토론하기로 합시다.》
《당신의 제의에 나는 완전히 만족합니다.》교수가 기뻐했다. 《수입에 대해서는 그리 생각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중요한것은 볼쉐위크들을 괴멸하는 사업에 힘껏 기여하자는겁니다.》
아돌프는 리해안된다는 조소의 눈길을 그에게 피끗 던졌다. (우리는 아이가 아닌이상 학자들과 발명가들이 개인의 리윤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잘 안다. 그 리윤이 은행계산서의 액수에 정비례하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대체로 와그네르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신념화된 파시스트로 보고있는 동생은 미래의 동료로서 사상을 같이하는 사람을 만난것이 못내 기뻤다.
곧 아돌프 임메르만과 와그네르교수는 계약서에 수표했다. 계약서에 의하면 아돌프는 몇가지 식물과 미생물의 약효능연구사업에 충당할 재정을 담당하게 되고 와그네르교수는 련합회사 《화르벤웨케》의 방조하에 일떠서게 될 새로운 과학쎈터를 조직할 임무를 지게 되였다. 집안사람들끼리 있을 때 그 일을 가리켜《지옥의 료리장》이라고 불렀다.
임메르만형제는 와그네르교수의 연구사업에 군부의 한 유력자의 관심을 끌게 함으로써 련합회사《화르벤웨케》가 지불해야 할 새 실험실건설비용의 큰 몫을 무력성에 떼여넘길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실험실건물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였다. 건설설계안에 예견된 필요한 설비 하나가 미국에서만 생산되는것이였다. 미국정부가 현재 자기네와 교전상태에 있는 도이췰란드에 자기네만이 가지고있는 설비를 반출하겠다는 제의에 응하지 않으리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엑스》(이 사업의 발기자들은 사람을 리용하는 본시험을 그렇게 불렀다.) 계획이 파탄될 현실적위험이 조성되였다. 이것을 알게 된 와그네르는 수심에 잠기였고 임메르만형제들도 불쾌했다. 형제는 건설에 투자한 자본뿐아니라 자기 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신용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이 일을 벌려놓았다. 옛 동료인 스위스의 은행가 바루흐에게 구원의 손길을 비는수밖에 없었다. 은행가는 회담하자고 아돌프를 쮜리히로 불렀다.

《정말 가겠소?》동생이 물었다. 《제발 유태인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말아요.》

《난 유태인에게 가는게 아니라 은행가에게 가는거다.》아돌프가 반박했다. 《돈이란건 국경도 민족적차이도 인정안하는거란다.》

회담은 순조롭지 못했다. 바루흐는 아돌프가 와그네르교수의 실험의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주는 경우에만 중계자로 되는데 동의하겠다고 했다. 아돌프는 은행가를 슬슬 구슬려 틀어쥐려 하면서 심장맥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사성물질을 찾아낼 목적으로 그 어떤 전망적인 연구를 한다고 했다. 순전히 인도주의적목적에서 출발하여 자기가 여기에 재정을 대는데 동의하였다고 설득시키려 했다. 그러나 로회한 바루흐를 속여넘기기는 어려웠다. 자기 고객의 인도주의정신에 대해서는 골드만가정의 비극적인 래력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것이다.

《난 자선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동업자들간에 완전한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사업에 개입합니다.》그는 랭정하게 말하고 대화가 끝났다는것을 알리며 일어섰다.

아돌프는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 다음에야 바루흐는 자기 사위인 미국화학련합회사대표 찰스 톰슨을 소개했다. 그 후의 일은 저절로 풀려나갔다. 그들은 셋이서 협조할 조목들을 작성하고 해당한 문건들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아돌프 임메르만은 계약당사자인 그들에게 와그네르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빠짐없이 통보할 임무를 졌다. 톰슨은 실험실에 필요한 설비를 중립국인 스위스를 거쳐서 납입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바루흐의 은행은 새로 결성된 련합의 국외업무에 자금을 조달할 임무를 지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한해반이 지나갔다. 좀 늦기는 했지만 와그네르의 실험실은 조업을 개시했다. 외국의 동업자들은 자기 임무를 정확히 기간

내에 수행했으며 아돌프는 전쟁시기라는 애로를 핑게하면서 와그네르의 연구결과의 일부만을 통보하였다. 이것은 동업자들에게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이 아돌프를 쮸리히로 불렀을 때 그는 동생과 의논하고 회담을 좀 후날로 미루자고 제의했다. 회담날자를 연기하자는 전보를 띄운 다음날 밤 미국의 《공중요새》라는 비행기가 《화르벤웨케》공장구내에 첫 폭탄을 던졌다. 폭격에 의한 파괴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아돌프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이건 나에 대한 경고이다.) 그는 알아맞히였다. (양보하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임메르만형이 동업자들의 엄한 경고를 받고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모색하고있을 때 동생은 뚜르하노브를 심문할 준비를 세밀히 하고있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다 받았다. 그들은 붉은군대대좌의 수수께끼같은 사건에서 많은것을 밝혀냈으나 아직 명백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그가 뚜르하노브를 자기 사무실로 끌어오라고 지시하려는참인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루돌프!》송수화기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이 몹시 바쁜가?》

《늘 그렇지요. 왜 그래요?》

《일이 있어 그런다. 점심에 집에 들리렴.》형은 사정하는게 아니라 명령하다싶이 했다.

동생은 볼이 부어서 뭐라고 반박하려고 했으나 형은 벌써 수화기를 놓았다.

(형은 언제나 저렇다니까.) 루돌프는 분개했다. (형한테는 내가 언제나 어린애로 보이는 모양이지. 기분이 동하면 친절하다가도 내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는데서 나를 멸시하거던. 그만하면 됐어. 형의 그런 행실을 더는 못참겠어.)

분이 치밀대로 치민 동생은 송수화기를 들고 형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무슨 일이니?》 형이 초조하여 물었다.

《점심때 난 가지 않겠소.》루돌프가 통고했다. 《알릴게 있으면 전화로 말하우.》

《전화로는 안돼. 한시간후에 너를 기다리겠다.》동생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송수화기를 또다시 놓아버렸다.

(돼지같은게!) 분격을 이기지 못하여 루돌프는 혼자 욕을 했다. (자기가 자본가면 뭣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흥, 나는 임의의 시각에 그를 총통반역죄에 걸어 체포하고 총살까지 할수 있다는건 모르는 모양이야.)

이 생각이 그의 분을 가라앉혔다. 모욕감이 깡그리 사라졌다고는 할수 없지만 하여간 약속한 시간에 형에게 갔다. 대개 그들형제는 그런 경우에 서로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인사말을 했었다. 이번에 루돌프는 파시스트인사법대로 오른팔을 쳐들고 꽥 소리를 질렀다.

《하일 히틀러!》

형은 동생의 습관을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동생은 무엇인지 화가 나거나 노여울 때에는 집안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사했다.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야유의 눈초리를 돌렸다.

《왜 그리 시무룩했냐?》 형이 물었다.

동생은 앞뒤로 몇차례 왔다갔다하다가 형에게 마주서서 나뽈레옹의 자세를 취하고 날카롭고 불쾌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보오. 형, 형은 하찮은 일이 생겨도 나를 불러댄단말이요. 우리에겐 전화가 있소. 그리고 급한 용무가 생기면 내 사무실로 찾아올수도 있소.》

《전화야 있지. 허지만 난 남들이 엿듣는게 싫다.》

《게스타포책임자의 통화는 도청하지 않소.》동생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니 그 반대다. 다른것보다 너희들의것은 더 엿들어. 너희들이야 서로 눈을 밝히며 감시할 정도로 의심이 많지 않니. 난 밀정들이 없는데서 너와 말하고싶다. 넌 이번주에 나를 쮸리히로 오라고 한걸 알지? 난 만나는 날자를 미루려고 했는데 그자들은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는걸 곧 알려왔구나.》

《어떻게요?》동생은 흥미가 동했다.

《밤에 폭탄터지는 소리를 못들었니? 폭탄이 완제품창고와 아닐린염료 2직장창고에 떨어졌다. 이게 톰슨씨의 작간이 아니고 뭐냐?》

《별것두 아닌걸 가지구.》루돌프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 협잡군이 우리 도시에 어떻게 폭탄을 던질수 있단말이요? 그

자는 폭격기도 아니고 비행사도 아니요. 기껏해야 쓸쓸한 실업가에 불과하오.》
《이 사람아.》아돌프가 나무라듯 머리를 저었다. 《넌 미국에 가보지 않았으니 거기 질서를 전혀 모른다. 거기서 실업가란 아무것이나 다할수 있는 사람이야. 어디 가나 그 사람은 우두머리야. 거기서는 국방상조차 자신이 실업가가 아니면 실업가의 충실한 종이란다. 좀 상상해보아라. 그래서 나쁠게 없을테니.》
《그래 형은 뭣을 하려고 그래요?》
《운명에 순종하는수밖에. 래일 쮜리히로 떠나겠다. 비행기표도 신청했어.》
《필림은 가져오지 않겠지요?》루돌프는 확실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필림을 가져오지 않고는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라는거야.》
루돌프는 어리둥절해졌다. 그의 눈은 놀란 고양이눈처럼 둥그래졌다.
《자신과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그가 소리질렀다. 《군사비밀, 그것도 총통조차 모르는 그런 군사비밀을 루설하면 형과 나를 재판도 안하고 총살할거예요.》
《만일 우리가 자기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공중요새〉가 우리 공장을 반반하게 쓸어버릴게다. 그리고 톰슨씨와 우리의 련계를 너의 동료들이 냄새맡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목은 달아날게다. 이랬든저랬든 공장은 잃게 될테지.》
《그렇게 될것 같소.》동생도 형의 의견에 동의했다. 《우리가 뭘해야 하겠소?》
《별게 아니다. 난 쮜리히로 떠나야 하고 넌 세관원들이 나의 트렁크를 세밀히 뒤지지 못하게 해다오. 스위스에 내가 체류하는동안 안전을 보장해줄수 있는 사람을 몇명 붙여주면 좋겠다.》
(제길할것!) 점심을 먹고 돌아오자 루돌프는 속으로 욕했다. (여러해동안 총통에게 충실히 복무한것이 허사로 되였군. 그런데 인젠 또 유태인, 미국인들과의 더러운 사건에 끌려들어가게 되였으니 출로가 아예 막힌셈이군. 우리 사람들한테건 그들한테건 당장 총살당할것 같군.)

게스타포책임자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누구건 자기 부하를 찾아가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이는 버릇이 있었다. 이번에는 슈와이쩨르에게로 갔다. 책임자를 보자 그는 후닥닥 일어나 발뒤꿈치를 붙이고 팔을 뻗쳐 파시스트인사를 했다.

《이건 무슨 전보요?》루돌프 임메르만이 책상우에 놓여있는 전보를 가리키며 물었다.

《뚜르하노브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조회에 대한 회답입니다. 플랑크대좌의 가족은 스위스로 망명하여 자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들이 조국을 버렸는지 흥미있습니다.》

《그렇소. 까닭이 있을거요. 확인해보아야 하겠소. 물론 우리가 호출해도 그들은 여기로 오지 않을테지. 그러니 우리자신이 거기로 가야 한다는걸 의미하오.》

《오늘이라도 떠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슈와이쩨르도 동의했다. 《제가 행사할수 있는 권한은 어떤겁니까? 스위스정권으로부터 탈주자들을 양도받도록 하랍니까, 아니면 그저 그들을 랍치해오랍니까?》

《서둘지는 맙시다. 505아브웨르소조와 소조책임자의 운명에 대하여 그들이 아는껏 알아냅시다. 그들이 어디서 산다오?》

《어딘가 쮸리히교외에서 산답니다.》

《아주 잘됐소!》 책임자는 기뻐했다. 《그곳의 도이췰란드령사는 우리 사람이요. 내가 그에게 편지를 쓰겠소. 그는 당신이 플랑크의 가족들을 찾도록 도울거요. 래일 떠나시오. 나보다 못지않게 당신이 잘 아는 어느 한 중요인물의 개인호위원으로 당신을 위장시키겠소. 아무것도 묻지 마오. 그 인물자신이 당신이 무엇을 할것인가를 말해줄거요.》

《알았습니다.》 책임예심원이 겸손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호위병으로는 위병대에서 3명을 데리고가고 당신은 플랑크가족에 대한 임무수행만 하시오. 복장은 사복으로 하시오. 왜냐하면 문건에 당신을 스위스에 화학방사성물질을 납입하는 도이췰란드회사의 상업고문으로 기입할것이기때문이요.》

제 19 장

쮸리히비행장에서는 바루흐의 대리인이 아돌프 임메르만과 그의 《고문들》을 맞이했다. 이 손님들의 짐검사는 하지 않도록 세관원들에게 미리 통고되여있은것 같았다. 그리고 호텔의 방 역시 주문되여있어서 몇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중나온 은행직원은 그냥 서둘렀다.

《남작이 당신을 오찬에 초대합니다. 그분과 톰슨씨가 시외저택에서 기다리고있습니다. 다른 볼 일이 없으시다면 거기로 가십시다.》은행직원이 제의했다.

아돌프는 동의하고 두개의 트렁크중에서 하나를 집어들고 《메르쎄데스》의 널다란 차안에서 두 호위원사이에 앉아 쮸리히거리를 달리였다.

(어째서 바루흐는 겨울에 여름저택에 가있을가?) 아돌프는 놀랐다. (하지만 짐작할만하다. 우리의 회견이 기자의 주의를 끌지 않을수 없고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하다. 그래서 바루흐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자는거다.)

은행가의 별장은 스위스의 가장 경치좋은곳에 자리잡고있었다. 집앞의 호수는 아직 채 얼지 않았다. 흰서리가 앉은 정원의 나무들은 동화의 세계처럼 아름다왔다.

육중한 철문앞에서 건장한 사나이 둘이 손님들을 맞아들이였다. 그들은 눈에 띄게 무기를 휴대하지는 않았으나 잠바의 호주머니가 불룩한것을 보고 임메르만은 이 호위원들이 경찰못지 않게 무장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은행직원이 승용차안에서 신호를 하자 호위원들이 대문을 열어주었다. 《메르쎄데스》는 별장의 현관문앞으로 소리없이 다가갔다. 침묵을 지키던 은행직원이 도이칠란드인들을 집안으로 안내하여 은행가의 개인서기에게 인계했다. 서기는 손님들이 겉옷을 벗도록 도운 다음 넓다란 화강석계단을 올라가 영사실처럼 넓은 주인의 집무실이 있는 2층으로 손님들을 안내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섰을 때 불이 활활 이는 벽난로앞에 바루흐와 그의 사위가 앉아있었다.

톰슨씨는 폭신한 안락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볍게 머리숙여 아돌프에게 인사를 했고 바루흐는 손을 내밀뿐이였다.

《용서하시오, 임메르만씨.》바루흐가 입을 열었다. 《저주스러운 풍증이 나를 의자에 붙들어매놓는구려. 일어나서 당신을 포옹하지 못하는게 서운하오. 불가까이에 앉으시오. 제집처럼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아돌프는 고개를 숙이고앉았다. 《나의 보조자들을 보내도 될가요?》

《그렇게 하십시오.》주인이 허락했다. 《저분들이 피로하지 않다면 오찬때까지 젊은이들과 어울려 얼마간 산보라도 할수 있겠지요.》

《아니요. 우린 피로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십시다. 나의 친구들에게 소개해드리지요.》은행가의 서기가 청했다.

변장한 에쓰에쓰대원들은 아돌프와 재빨리 눈길을 주고받다가 허락한다는 신호를 받고서야 침울한 집무실을 떠나갔다. 침묵이 닥쳐왔다. 대체로 실무적인 담화가 진행되기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사치레말이 오가기마련이였다. 아돌프 임메르만은 톰슨씨의 용모가 좀 젊어졌다고 감탄하는 몇마디 말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만일 우리의 상봉이 여기 친절한 바루흐씨의 집무실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더라면 난 당신을 체조선수로 알번했군요.》아돌프가 말했다.

《그게 정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은행가의 사위가 유쾌하게 웃었다. 《해군에 복무할적에 나는 여러차례 체육경기에 참가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경기에 참가해야 되겠군요?》도이췰란드인은 미소를 지었다.

1분이라도 귀중히 여기는데 습관된 은행가는 겉치레의 인사말을 나누는데 시간을 허비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곧 사업에 착수하자고 제의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

《무엇부터 착수할가요?》톰슨이 물었다.

《임메르만씨는 우리에게 영화필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댔지요.》주인이 말했다. 《처음에 그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회담을 합시다. 그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였으니까요.》

《난 회담부터 하였으면 합니다.》아돌프가 반대의견을 제기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인이 무례하게 그의 말을 꺾었다.
《절대로 안됩니다!》 그가 어성을 높였다. 《처음에 기분전환을 하고 다음에 사업을 합시다.》
《할수 없군요.》 도이췰란드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관객이 관람을 요구하는데야 나도 별수 없이…》
《영화화면들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지요.》 미국인이 도이췰란드인을 대신하여 말을 맺었다.
주인은 창가림들을 꼼꼼히 여미고 전기불을 켰으며 재빨리 영사막을 펼치고 특수한 벽홈에서 영사기를 끌어낸 다음 아돌프에게 묻는 시선을 던졌다.
《영사기술원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다.
《감사합니다!》 아돌프가 손가방에서 영화필림통을 꺼내면서 대답했다. 《내가 돌리지요. 어차피 해설을 맡아해야 하니까요.》
《가까이에 외인들이 없도록 살피시오!》 바루흐가 서기에게 지시했다.
주인은 하인을 내보냈다. 곧 2층에는 완전한 정적이 깃들었다.
영화를 시작하기전에 아돌프가 서론을 말했다.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자기 적수와의 싸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독성물질들을 사용해왔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고대의 화학무기발전단계를 보면 동물의 썩은 시체를 우물에 넣어 사람들을 중독시키기도 했고 활촉끝에 각종 식물성독을 바르기도 했으며 뚫고들어갈수 없는 요새안의 적들을 마취시키기도 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는데 따라 화학은 사람을 죽이는 보다 급진적인 수단들을 군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질식, 피부화농 그리고 심리에 작용하는 유독성물질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1차대전의 전투장에서 화학무기가 널리 사용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대전이후에 사회여론의 압력으로 대다수의 정부가 전쟁에서 화학무기사용을 금지할데 대한 제네바협정에 조인하였습니다. 공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들까지도 화학무기는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만 생산하고있습니다. 허지만 선진적인 군사사상은 화학무기를 배제하지 않고있습니다. 그 사상은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현대적으로 능란하게 적용하면 대체로 전쟁비용을 낮추고 공업기업소, 운수분기점, 과학문화의 중심지를 비롯한 물질적재부들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화학무기가 실지로 인류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그

러므로 비밀리에 총참모부가 작성한 전략계획에서 화학전은 제일 중요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대로 중요한 부문의 하나로는 되고있습니다. 나는 권위있는 인물들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전쟁에서 화학무기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문제는 론의할바가 못되며 문제는 화학무기와 그 적용방법을 완성시키는데 있다고 나에게 장담했습니다. 그분들은 전쟁을 정식으로 시작하기전에 먼저 화학전쟁을 준비한 나라에 유리하게 전쟁을 결속할만한 화학무기와 그 사용방법이 발견될 때에야 화학무기는 사용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에서 말한 그 유력한 인물들의 권고에 따라 우리 련합회사는 당신들의 적극적인 방조하에 전문실험실을 지었습니다. 거기서는 와그네르교수의 지도하에 〈엑스-1〉, 〈엑스-2〉요강에 따르는 맹렬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였습니다. 첫번째 요강에 따르는 연구사업은 성과적으로 완수되였고 두번째 요강에 따르는 연구사업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전략가들의 지령에는 지금까지 제시되여있지 않는 문제를 발견할수 있었다고 확신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나 다른 그 누구에게도 〈엑스-1〉요강에 따르는 연구결과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들자신이 영화를 보신 다음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야 할것은 영화는 와그네르교수의 아들이 찍었으며 해설문도 그자신이 읽는다는겁니다. 이 영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영화제작자들외에는 나와 나의 동생이 알고있으며 이제는 당신들이 알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 여섯사람입니다. 〈엑스-1〉요강에 의한 연구결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일을 알고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늘이지 않는것입니다.》

《현명한 말씀입니다.》은행가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 《당신의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톰슨이 이렇게 덧붙였다.

영사기가 돌아가자 화면에는 《아나르힌》 또는 《알칼로이드-15》, 《엑스-1》요강에 따르는 최종실험이라는 제명이 나타났다.

이 제명을 보여준 아돌프는 잠시 영사기를 껐다.

《와그네르교수는 특수한 종의 백각과 임의의 계절에 특수하게 조절한 온도조건에서 다량 재배할수 있는 몇가지 종류의 독버섯에서 채취한 약재를 합성하였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구가

십만정도 되는 행정 및 공업중심지 또는 철도분기점을 완전히 소멸하는데는 그 약재 십키로그람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쏘련과 같은 현대적인 큰 국가에는 그런 중심지가 천여개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쏘련과 같은 나라의 생활과 활동을 완전히 마비시키는데는 〈아나르힌〉 열톤미만이면 된다는걸 의미합니다.
당신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최종실험에서는 극비밀리에 2백명을 실험대상으로 리용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로씨야인이였으므로 로어로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자면 통역원이 필요되지 않습니까?》 아돌프가 물었다.
《나의 조상들은 로씨야에서 살았으므로 난 로어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행가가 대답했다.
《난 미국군사사절단으로 모스크바에서 한해남짓이 일하였습니다. 통역이 없이도 리해할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임메르만씨, 실험대상을 사람대신에 집토끼나 모르모트같은걸 리용할수 없었는가요?》 바루흐가 질문했다.
《물론 그렇게 할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나르힌〉의 소유자들이 집토끼나 모르모트와 싸우는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게 된다는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되는 약재의 분량까지 곧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는 질문이 없었다. 그는 다시 영사기를 돌렸다. 영사막에는 다음과 같이 글발이 나타났다. 《첫날, 전날밤에 뽐프장의 고장으로 12시간동안 물공급이 중단되였다. 뽐프장은 아침 5시에야 복구되였다. 도시의 음료수공급계통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첩자들은 물에 충분한 량의 아나르힌을 혼합하였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도시의 시민들은 잠에서 깨여난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체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서둘러 일터로 나간다. 젊은 녀인들은 아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데리고간다. 중년의 녀인들은 구럭을 들고 농민시장이나 상점으로 발걸음을 다그친다. 소학교학생들은 멜가방이나 들가방을 들고 스적스적 걸어간다. 갑자기 중년의 녀인 하나가 멈춰서더니 들었던 구럭을 땅에 메치고 팔을 휘저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불이야! 하늘에 불이 붙소! 물을 주시오! 물을!》
사람들은 자기 할일을 잊고 멈춰서서 녀인이 가리키는쪽을 바라

본다. 그때 가까운집 베란다에는 소학교나이의 소년이 나타나 소리를 지른다.
《난 추격기다. 내가 얼마나 멋있게 날으는가를 봐라! 윙—윙—윙!》소년은 두팔을 쫙 벌리고 베란다의 란간을 넘어뛰여 땅으로 떨어졌다. 그 뒤를 이어 또 한 소년과 소녀가 뛰여내렸다.
《태양이 무너져내린다! 태양이!》수염이 텁수룩한 사나이가 고함쳤다. 《세상의 종말이 박두했다!》
군중은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를 긋기 시작했고 공포증에 사로잡힌 다른 사람들은 마구 내달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머리칼을 잡아뜯기도 하고 울타리에 다가가 말뚝을 뽑아들고 누구인가 위협하며 마구 휘둘러대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미 아무도 제자리에 서있지 않고 앞뒤로 뛰여다녔다. 녀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울어댔다. 누구인가 괴상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 그 목소리에 몇명의 중년이 합세하여 같이 불렀다. 그러자 젊은축들도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저건 집단적인 백각중독증같소.》바루흐가 이마에 솟아난 식은 땀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말했다.
《물론 백각중독증과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아돌프도 수긍했다.《그러나 다 아시는바와 같이 백각중독증은 백각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한 후 2~3일 지나서 나타났다가 문자그대로 몇시간 지나서 없어집니다. 이 아나르힌의 작용은 정미 3일동안 계속되다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화면에는 소요의 첫번째 증상이 나타났다. 병사들이 달려와서 군중을 헤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헤쳐가지 않고 병사들에게 달려들어 싸움이 벌어졌다. 곤봉들이 얼른거리고 단도와 도끼들이 번쩍거렸다. 칼에 찔리운 목에서 피가 솟구쳐올랐다. 어떤 병사는 튀여나온 눈알을 제자리에 넣으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달려든 녀인이 도끼등으로 병사의 머리를 깠다.
싸움은 병사들이 전멸될 때까지 계속되였다. 그러자 소방대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야수화된 사람들을 향해 찬물을 뿜어대기 시작했다. 세찬 물줄기가 사람들을 쓸어눕혔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새로운 힘으로 이번에는 소방대원들에게 달려들었다.
《사람들이 내는 육체적힘에 주의를 돌려주십시오.》아돌프가 귀뜀

했다.

화면에는 사실 리해안되는 광경이 펼쳐졌다. 가냘프고 아주 허약해 보이는 어린 처녀가 몸집이 좋은 소방대원의 넙적한 허리띠를 붙들고 그를 높이 추켜올리더니 나무토막 던지듯이 휘뿌렸다.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소방용호스를 파괴하고 뽐프를 빼앗아 그것으로 소방대원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얼마 안가서 살아남은 소방대원이 하나도 없게 되였다. 그러자 열이 오른 군중은 마구 창문을 까부시고 문짝을 뜯어내며 가로등전주를 넘어뜨리고 파괴할수 있는것은 모조리 깨고 부시였다.

아돌프 임메르만이 영사기를 껐다.

《보시는바와 같이 와그네르약재의 극소량을 음료수와 함께 마신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 자기를 진짜 장수처럼 느끼며 넘쳐나는 힘을 어떻게 소모할지 몰라 사회적으로 제정된 질서유지를 위해 동원된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단해버리며 무정부상태를 조성하는것입니다. 이 독성물질의 작용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나와져서 란폭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대체로 한주야를 넘기지 못합니다. 다음 단계에는 그들에게 공포심이 생깁니다. 이제 그 진상을 보기로 합시다.》아돌프가 설명하고 다시 영사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영사막에는 《두번째 날》이란 글자가 나타났다. 거리의 사람들은 역시 이전의 그 사람들이지만 옷이 다 찢어지고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매를 맞아 상처를 입고있다. 모두 달리면서 부산을 피우고 몹시 겁을 먹고있다. 대부분이 쿨쩍거리며 울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다. 녀인들과 아이들은 남자들에게 자기들을 으슥한곳에 숨겨달라고 애원하고 남자들 역시 공포심에 몸을 옹송그리고 머리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걷거나 서있다. 마치 불의에 잔등에 떨어질 매를 기다리는듯 무섭게 몸을 옹송그리고있다. 그들의 기운이 점차 빠져나가고있다는것이 느껴진다.

《날이 저물녘에는 많은 사람들이 땅에 쓰러져 그자리에서 잠이 듭니다.》 아돌프가 해설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그들이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며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나르힌을 섭취하기전에 자기들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상상능력을 잃게 되지요. 이 사람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짐승처럼 죽습니다.》

은행가와 실업가는 그것을 화면을 통해 보았다.
《놀라운걸!》화면이 꺼지고 은행가의 집무실에 다시 불이 켜졌을 때 톰슨이 환성을 질렀다. 《저런 무서운 무기를 가지면 해당한 준비가 갖추어진 조건에서 그 어떤 적수도 요정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적인 적이 이 약재를 손에 넣지 못하였을 경우겠지.》은행가가 경계하는 눈길을 아돌프에게 돌리였다. 《그런 방면에서 어떤 예방책을 세울수 있습니까?》
《아나르힌생산에 대한 기술문건은 일체 와그네르의 특수금고에 보관되여있습니다. 그 금고가 있는 방은 에쓰에쓰부대가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있습니다. 그 방에는 나, 나의 동생 루돌프 그리고 와그네르교수 세사람만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금고를 여는 비밀수자는 와그네르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나르힌을 믿음직하게 보관하기에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돌프가 대답했다.
《교수자신은?》톰슨이 물었다.《경우에 따라 교수가 돈주머니를 불리워주겠다는 꾀임에 빠져 제 삼자에게 자기 약재를 팔지는 않을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도이칠란드인은 장담했다. 《와그네르는 철저한 나치스분자입니다. 지상에도 하늘에도 그에겐 총통이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전세계에서의 파시즘의 승리를 그는 자기 존재의 기본목적으로 삼고있으며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아까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한편 우리를 걱정스럽게도 하는군요.》톰슨이 흥분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비밀을 우리와 나누는데 동의하겠는지요?》
《일체 호위는 내 동생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와그네르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린 그걸 강요할수 있습니다.》아돌프 임메르만이 약속을 했다.
《〈엑스－2〉요강에 따르는 연구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요?》바루흐가 물었다. 《해당한 영화필림을 가져오셨는가요?》
《연구사업은 종결단계에 있습니다. 이달말이면 끝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필림도 제작될겁니다. 한가지만은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아나르힌이 전쟁초기에 적용하기로 타산된 약

재라면 〈마귀의 찌아니드〉. (우린 두번째 약재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전쟁의 임의의 단계에서 적의 유생력량을 소멸하기 위해 직접 전선에서 사용할수 있다는겁니다. 와그네르교수는 도이췰란드제국에 유리하게 전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만한 다량의 약재를 준비하려 하고있습니다.》

《그건 현실적가능성이 있는가요?》톰슨이 긴장해서 물었다.

《꼭 찍어서 말할수는 없습니다. 한가지 단언할수 있는것은 와그네르교수가 함부로 말을 한적이 결코 없었다는겁니다.》

아돌프의 말에서는 숨은 위협이 느껴졌다. 톰슨은 그런것을 느끼지 못했으나 은행가의 예민한 청각은 도이췰란드인의 목소리에서 불쾌한 억양을 발견했다. (미리 자기값을 높이는구나.)은행가가 생각했다. (저자는 틀림없이 우리의 공동리익금의 많은 부분을 제 주머니에 넣으려 할게다.)

바로 이 순간에 시계종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점심시간이요.》주인이 말했다. 《중간휴식을 합시다. 일정의 두번째 조항은 점심후에 토의합시다. 식탁에 초대합니다!》

제 20 장

점심식사후에 세 사람은 다시 바루흐의 집무실에 모였다. 톰슨은 여기서 자기 집처럼 행세했다. 폭신한 안락의자에 잔뜩 젖히고 앉아서 두다리를 소탁자에 올려놓고 값비싼 아바나려송연을 피워물었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의 본을 따랐다. 아돌프 임메르만은 곰방대에 향기로운 뛰르끼예잎담배를 다져넣었다. 주인은 뚜껑에 자기 초상을 조각해넣은 황금담배함에서 굵은 권연을 꺼내여 불을 붙여물었다.

《당신네 미국에서 말하다싶이 시간은 황금인데 우린 시간을 랑비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가요. 이야기를 계속합시다.》임메르만이 톰슨에게 제의했다.

《난 이의가 없습니다.》 톰슨이 동의했다.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나는 우리 매 사람이 공동의 사업

에 참가한 대가로 얼마만한 금액을 받게 되겠는지 궁금하군요.》은행가가 주의를 환기시켰다.

《동업자들사이에 리익금배당은 언제나 투자한 자본에 따르지요. 나의 몫은 60프로입니다. 나머지는 당신들의것이지요.》 아돌프가 서둘러 설명했다.

《그건 우리도 압니다. 우리는 아나르힌을 공업적으로 생산할 권리를 실현시킴으로써 얻는 리익금이 얼마인가를 알고저 하였습니다.》바루흐가 자기 생각을 설명했다.

《우린 도이췰란드국방성으로부터 백만마르크를 받을것을 타산하고있습니다. 미국인들도 그만한 액수를 낼것이라고 기대하고있습니다.》 도이췰란드인이 아첨기어린 웃음을 지었다.

《미국의 군부실력자들의 의도를 우린 아직 모르지만 우리 제의가 수락만 되면 미합중국이 당신들을 섭섭하게는 하지 않을겁니다.》톰슨이 희망을 불어넣었다. 《이젠 두번째 안건에로 넘어갑시다!》

동업자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톰슨씨부터 시작하시오.》바루흐가 제의했다.

《최근 국제정세는 급격히 복잡해졌습니다. 반히틀러련합의 력량은 날마다 강해지고 그 적수들의 력량은 쇠퇴해가는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도이췰란드는 자기 동맹국들을 잃었습니다. 히틀러의 제국은 종이범격이 되였습니다. 전쟁의 마지막포성이 울릴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종이범이 서있던 자리에는 가련한 잔해들만이 남게 될것입니다. 미국인들을 포함한 세계의 제민족은 이날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제3제국의 멸망을 애도해주지 않을겁니다. 내 말뜻이 리해됩니까?》 톰슨은 갑자기 아돌프를 바라보며 물었다. 톰슨의 장광설을 듣고있던 아돌프 임메르만은 대화를 어디로 이끌어가려는지 알아차리려 애썼으나 그의 말에 숨은 뜻을 포착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답할 말을 인차 찾아내지 못했다. 그의 난처한 처지를 은행가의 끈덕진 눈길이 놓칠리가 없었다. 은행가는 그에게 생각을 수습할 틈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실무가들은 보통 로동자나 농민, 지식인과는 다른 눈으로 사물을 보지요.》 그가 상기시켰다.

《물론 그렇지요.》아돌프가 그의 말에 기꺼이 동의했다.

《나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히틀러와 그의 제국을 아예 매장하기는 아

직 이른것 같습니다. 도이췰란드는 새로운 예비를 동원하고있습니다. 제국의 사령부는 〈기적의 무기〉에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도이췰란드설계가들은 히틀러에게 〈V－1〉과 〈V－2〉를 바쳤습니다. 통보에 의하면 가까운 시일내에 제국의 무장에는 뭔가 더 무서운것이 첨가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전변이 일어날것입니다.》

《전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톰슨이 성이 나서 선언했다. 《도이췰란드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였습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동맹국사령부는 히틀러의 관할하에 있는 군사공업잠재력을 계획적으로 파괴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전쟁에 봉사하는 가장 큰 공업기업소들부터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맹국공군은 미국이나 영국정부가 그 보존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폭격은 기업체자체가 당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거주지인 도시와 농촌이 당하게 될것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우리는 당신의 련합회사에 관심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르벤웨케〉에 대한 동맹국공군의 폭격을 미연에 저지시켜줄 계획입니다. 허지만 그렇게 되자면 실무적인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합의조건이 뭐인가요?》 도이췰란드인이 신경을 도사렸다.

《〈화르벤웨케〉의 주권을 통채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당신네 공장들을 담보할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련합회사가 주권을 빼앗기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돌프가 성이 나서 눈을 희번득거리며 물었다.

《그때는 모든게 하느님의 뜻에 달리게 되겠지요.》

위협은 반작용을 일으켰다. 평시에 침착하고 분별이 있던 아돌프가 갑자기 벌컥 성을 냈다. (순아리아족이며 고대로마를 정복한 게르만족의 후예인 나는 이 가증스러운 유다놈과 황금이면 머리를 숙이는 미국의 추물앞에서 비굴하게 놀수는 없다. 자기 민족이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공장들을 잃는게 나으리라.)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신은 나를 불행속에 내버려두지 않을겁니다.》 아돌프는 조용하나 단호하게 내쏘았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그러니 나는 하느님이 평시의 일을 다 버리고 도이췰란드병사로 둔갑하여 공장을 폭격하지 못하도록 해주기를 충심으로 바라는바요.》 톰슨이 빈정거렸다.

바루흐는 대화가 바라지 않던 방향으로 전환하였음을 알아차렸다.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자면 쌍방의 열을 식혀 분을 가라앉힐 기회를 주어야 했다.

《여러분!》 은행가가 그들에게 말했다.《임메르만씨는 려행으로 피로하실테지요. 나자신도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래일까지 중간휴식을 선포하는게 어떻습니까?》

(로인의 말이 옳아.) 아돌프는 생각했다. (미국의 《공중요새》의 위력을 우리는 알고있다. 그 비행기는 루르의 탄전도시를 번번한 폐허로 만들었지. 하지만 우리 공장이야 오스트리아령토에 있지 않는가. 동맹국들은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다. 공장들을 다 파괴하고서야 무슨 독립이겠는가. 아니, 이 문제에서는 곰곰히 생각해봐야 하겠다. 그러니 중간휴식은 우리에게 공기처럼 필요한거다.)

《동의합니다.》 그는 은행가의 의견에 서둘러 동의했다.

톰슨은 자기 사업수첩을 신경질적으로 뒤적이며 얼마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창문가로 다가가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는 구름 한쪼각없이 맑게 개인 하늘을 쳐다보며 자기 생각에 웃음을 지었다.

(됐어!) 그는 중얼거렸다.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군. 날씨마저 맑게 개여 동맹국공군이 저 오만무례한 인종주의자의 코대를 꺾어버리도록 돕는단말이야.)

《원칙적으로 중간휴식을 하자는데 반대없습니다.》 그는 아돌프가 아니라 장인을 보고 말했다.《허지만 나는 우리의 다음번 상봉이 있을 때까지 원거리공군사령부의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평사한테 급히 가야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돌프를 보고 덧붙여 말하고 훌쩍 방을 나갔다.

미국인의 마지막말은 로골적인 위협이였다.

쥐죽은듯 고요한 밤이였다! 려관관리원이 손님에게 아무런 불편도 없게 모든 편의를 봐주었건만 아돌프는 수면제를 먹을 때까지 한잠도 이룰수 없었다. 잠이 들어서도 진정되지 않았다. 어지러운 꿈이 밤새 그를 괴롭혔다. 불속에서 시달리는가 하면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로동자들이 공격을 피해다녔고 어째선지 묘지의 무덤들을 파헤치기도 했다. 잠에서 완전히 깨여난 후에도 악취가 풍기는 시체들

과 해골, 시누런 이발을 무섭게 사려문 두개골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머리속이 윙윙거리고 심장은 가슴에서 당장 튀여나올듯 두근거렸다. 무서운 갈증에 시달리던 그는 탄산수가 든 병을 잡아채다싶이 가져다가 고뿌에 따라 그 가장자리에 이발을 떡떡 마주치며 몇모금 들이켰다. 그러자 얼마간 진정되였다. 그는 번쩍거리는 시계의 문자판을 보았다. 5분전 6시였다. 5분 있으면 《비비씨》방송국이 도이췰란드어로 방송을 시작할것이다. 아돌프는 정기적으로 이 방송을 들었다. 도이췰란드방송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믿지 않게 되였다. 실은 런던방송도 언제나 사실보도와 거짓보도를 섞어내보내였다. 도이췰란드와 영국의 수도방송을 대비해보고서야 어느것이 진실이고 어느것이 거짓인지 깨달을수 있었다. 영국방송국 방송원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보도를 했다. 《벨지끄와 프랑스의 동부에서는 로씨야인들이 두나이강과 발라톤호수사이의 자기측 전선에서 공격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유럽남부에서는 국부적인 의의를 가지는 전투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이러한 보도가 도이췰란드파시스트를 흥분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방송원의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려왔을때 아돌프는 특별히 더 놀랐다. 《〈공중요새〉가 상부오스트리아의 군사대상물에 위력한 공중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습에 참가한 비행사들의 말에 의하면 화재의 불길이 150내지 200키로메터거리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

《상부오스트리아…》하고 아돌프는 중얼거리며 성급히 일어나 털이 푸시시한 가벼운 실내옷을 몸에 걸치였다.《바로 우리 공장이 위치한 지대로구나. 과연 톰슨씨가 자기의 위협을 실행했단말인가?》

송수화기를 든 그는 시외전화번호를 돌려 린츠와 련결시켜달라고 부탁했다.

루돌프가 전화를 받았다.

《잘 있었나? 동생, 달콤한 잠을 깨워서 안됐군. 뭐 새 소식이 없나?》

《달콤한 잠이 다 뭐요?》루돌프가 볼부은 소리를 했다. 《밤새 눈도 붙이지 못했소. 불청객들이 날치는바람에… 그자들이 지른 불이 아직도 붙고있소.》

《그 불청객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더냐?》겁에 질려 아돌프가 물었다.

《집엔 들리지 않았지만 번견들을 모조리 해치웠소.》
《아홉놈을 다?》
《그래요.》
이것은 련합군의 공군이 온밤 안정할수 없게 했고 공장은 직접 폭격을 당하지 않았지만 공장을 호위하던 고사포중대가 다 소멸되였다는것을 의미했다.
(결국 우리 련합회사가 미국의 화학회사앞에서는 정말 무맥하구나.) 아돌프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할것인가? 정말 정복된단말인가?)
그는 신경질적으로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이때 어느 한 려행가가 상어에 대하여 한 말이 생각났다. 《이 무서운 맹수는 사람을 통채로 쉽게 삼킬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 먹이의 팔이나 다리만을 잘라내는데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뭐니뭐니해도 팔다리는 없어도 머리만 성하면 살수 있다.) 아돌프는 스스로 위로했다. (우리 공장들을 고스란히 보존하자면 공장의 주권을 제공하는수밖에 없지.)

제 21 장

바루흐와 톰슨은 아침식사를 하려고 마주앉았다. 바루흐는 임메르만을 초청하려고 했으나 사위가 동의하지 않았다.
《놀랍군요!》 그가 부르짖었다. 《뭣때문에 우리가 그 파시스트의 비위를 맞춰야 합니까?》
《아돌프 임메르만은 파시스트가 아니야. 도이췰란드사람일뿐이지. 내 말을 믿게.》
《제 생각엔 그자들은 다 꼭같은 놈들이예요. 그 악당들이 유태인을 몇백이나 몇천이 아니라 몇백만을 학살한것만이라도 생각해보세요. 저는 로씨야사람과 미국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았던들 이 세상에는 유태인이 한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자네들에게 감사를 드리네. 히틀러는 사실 유태인들을 멸종시키려 했으니까. 그러나 도이췰란드인들이 유태인들

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고 우리가 자립하도록 도우며 우리의 벗으로 될날이 올게다. 우리가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조차 임메르만과 함께 있게 된것은 그러한 친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산 증거로 되는 거다.》은행가는 로인으로서 보기드문 열정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매듭지었다.

젊은 미국인의 얼굴에는 그늘이 비꼈다.

(우린 은행가들을 알고있다. 저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고 둘도 없는 자기 친구조차 불행에 빠뜨릴것이다. 그래 모쉐골드만과 그 가족의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임메르만의 치부가 그걸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침묵이 흘렀다. 둘은 화제가 잘못 선택되였다는것을 깨닫고 화제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오늘 방송을 들었는가요?》 톰슨이 물었다.

《들었네.》장인이 받았다. 《동맹국의 비행사들이 상부오스트리아의 군사대상물을 폭격하였다고 보도하더군. 자네 생각엔 어떤가? 〈공중요새〉의 공습으로 〈화르벤웨케〉공장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지 않았겠나?》

《념려마십시오.》 사위가 웃었다. 《우리 비행사들은 폭격할곳과 폭격하지 않을곳을 압니다.》

《허지만 사람에겐 실수도 있기마련이라고들 하지 않나. 자네네 비행사들이라고 실수를 안할수야 없지. 자네가 불장난을 하는것 같구만.》

《모험을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다르게는 임메르만과 같은 인간을 꺾기 힘드니까요.》

《응, 그 사람과는 일하기가 수월치 않아.》은행가도 동의했다. 《하긴 그 사람의 심정도 리해해야 되지. 누구인들 자기 기업소의 관리권을 수표 하나로 포기하려 하겠는가.》

《리해야 되지만 양보못하겠습니다.》 톰슨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주권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을 내밀도록 하자구. 그러나 두번째 문제에서는 그 사람을 노엽히지 않을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말이지 뭣때문에 우리가 그리도 극성스레 로씨야인들을 비호해야 하나?》바루흐가 못마땅한듯 얼굴을 찡그렸다.

《로씨야인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지요.》사위가 정정했다. 《로

씨야대좌는 미국정탐에 못지 않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던요.》
《우리에게라구?》 바루흐가 놀라서 사위를 쳐다봤다. 《설명 좀 해주게.》
《예,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임메르만형제가 〈아나르힌〉과 〈마귀의 찌아니드〉의 비밀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는 자기의 의무를 언제나 다 리행하리라고 확신하는가요?》
《아돌프는 우리를 속이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바루흐가 자신없이 말했다.
《그렇다고 합시다.》 톰슨이 동의했다. 《그럼 그의 동생은요? 전 그 철저한 나치스분자를 믿지 않아요. 그자는 민족의 리익을 운운하면서 어느때나 그 약속을 어길수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그자를 항시적인 공포속에 몰아넣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말인가?》
《아주 간단하지요. 우리의 강요로 로씨야대좌를 출옥시키면 그자신이 미국정탐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지요. 아시겠지만 그자들의 상부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거예요. 루돌프 임메르만은 그걸 잘 알고있지요. 어느때건 그가 우리를 거역하려든다면 그에게 외국정탐과 련계를 가진 사실을 상기시키고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읍시다. 념려마십시오. 그때 가선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게 될것입니다.》
《그래, 자네 말이 옳으이.》 은행가가 침울하게 말했다. 《만만치 않은 적수에겐 언제나 굴레를 씌워놓아야 해. 제발 그 아돌프가 우리 일을 망쳐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심말라는데두요. 오늘은 그자가 우쭐대지 못할겝니다.》 톰슨이 내놓고 비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아돌프는 딴 사람이 된듯싶었다. 상대측에서 아무런 압력도 가하지 않았건만 종전에 내놓은 조건에 대한 합의서에 수표했다.
《좋습니다!》 미국인은 좋아서 소리쳤다. 《이제부터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맹자들입니다. 적대국들의 다른 실업가들도 우리의 본을 따서 이 어려운 전쟁시기에 도이췰란드의 공업잠재력이 보존될수 있게 하기를 기대합시다.》
《외교적인 말로는 친선과 호상협조에 관한 〈조약〉이라고 할수 있을 우리의 협약이 체결된데 대하여 충심으로부터 당신들을 축하합

니다. 두 공업련합체의 제휴가 앞으로의 귀국동맹의 본보기로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은행가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동업자들은 일어나서 정답게 서로 바라보다가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동업자들사이에 평화가 깃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존경할만한 쌍방》은 표정이 전혀 같지 않았다. 바루흐와 톰슨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들은 진짜 승리자로 행세했다. 그런데 아돌프는 그 몰골이 기진맥진한 말같았다. 힘겹게 숨을 쉬였고 알콜중독자처럼 손이 후들후들 떨렸다.
《이젠 다음 안건에로 넘어가는게 어떻습니까?》은행가가 발언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문제에서 달성한 긍정적인 결과가 보여주는것은 경제적제휴의 체결이 중요한 정치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리로운 영향을 줄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그가 경고했다.
톰슨은 가방에서 스위스로동당기관지 《브아 우브리예르》를 꺼내여 그것을 펼치고 아돌프앞에 내놓으며 물었다.
《읽으셨는가요?》
《공산주의선전에는 흥미를 안가집니다.》 도이췰란드인이 얼굴을 찌프렸다.
《나도 그렇지만 신문은 봅니다. 때로 나의 적수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쓰고있는지 아는것이 유익할 때가 있으니까요. 자 이걸 좀 읽어보십시오.》 톰슨은 빨간 연필로 표식한 짤막한 기사를 가리키며 권했다.
《〈상부오스트리아에서 온 보도〉》 톰슨이 소리내여 읽기 시작했다. 《파시스트도이췰란드는 전쟁포로들에 대한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고있다. 얼마전에 아이젠도르프포로수용소에서는 군인선서를 위반하라는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포로된 대좌 뚜르하노브 울라지미르 알렉싼드로위치를 체포하여 게스타포의 내부감옥에 감금하였다. 우리는 그 감옥의 수감자들이 겪어야 하는 가혹한 조건들을 잘 알고있다. 반파쑈투사들은 내부감옥행정부와 더우기는 게스타포대좌인 루돌프 임메르만에게 쏘련군대좌 뚜르하노브를 비롯한 수감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데 대하여 경고한다. 린츠시 민주단체 및 반파쑈조직련맹.》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톰슨이 물었다.

《〈양새끼의 욕설이 승냥이에겐 방해될게 없다.〉는 동방의 속담으로 대답하는수밖에 없군요.》아돌프가 빙그레 웃었다.
《동방에는〈승냥이가 양의 우리에 뛰여들지 않았다면 양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을것이다.〉라는 다른 속담도 있지요.》톰슨이 웃었다.
아돌프는 생각에 잠기였다가 실토했다.
《당신의 그 격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브아 우브리예르〉의 통신은 얼마전에 우리 정보기관의 시야에서 사라진 한 인간의 흔적을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 뚜르하노브를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아돌프가 신문을 가리켰다.
《그렇습니다.》 톰슨이 수긍했다. 《군사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출옥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당신과 토의해보라는 임무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유감이지만 게스타포에는 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아돌프는 어깨를 으쓱했다.
《동생한테두말인가요?》미국인이 비웃으며 물었다.
《당신들은 게스타포일군들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반파쑈분자들을 산채로는 자기 손에서 내놓지 않습니다.》
《참 유감인데요.》톰슨이 한숨을 지었다.《난 당신의 협력을 기대했더랬는데…그러고보니 나도 이제는 우리 비행기가 련합회사 〈화르벤웨케〉를 폭격하는걸 미리 막을 길이 없게 되였군요. 공군사령부는 호상 양보만을 인정합니다.》
아돌프는 막다른 골목에 빠졌다는것을 알아차렸다.
(큰것을 양보하고 작은것을 가지고 린색하게 구는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는 생각했다.(별다른 도리가 없지 않는가. 동생을 다시한번 모험에 끌어들이는수밖에.)
《내 동생과 교섭해보지요. 그 사람이 동생의 권한에 속한 인물이라면 동생은 그자를 놓아주자는데 동의할겝니다. 허지만 공짜로 위험한 모험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당신들이 내 동생을 기쁘게 할 무슨 담보라도 주시겠지요?》
《만일 동생이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면 나는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도이췰란드의 미국점령지역에 그의 피신처를 구해주겠다는것을 약속합니다.》
처음에 아돌프는 미국인이 자기를 우롱한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

각해보자 자기 동생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피신처가 황금보다 더 귀중한 시기가 얼마 멀지 않았다는것을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 그는 미국인에게 인사했다.《당신은 뚜르하노브가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동생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고있는 로씨야사람들은 자유를 우리와는 다르게 리해하고 있더군요.》

《어떻게 말입니까.》톰슨이 호기심을 가졌다.

《그들은 자유를 우리와의 결사전을 계속할 가능성으로 리해하고있으며 그래서 또다시 게스타포에 체포되지요. 그런면에서 뚜르하노브라고 례외로는 되지 않겠지요. 다시 체포된 후에는 그자가 나도 동생도 감옥에 끌어넣자고 할겝니다.》

《로씨야인들이 그렇듯 감옥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지 그건 모르겠군요. 그러나 뚜르하노브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린 그자를 순수 인도주의적견지에서 대하는것은 아니지요. 그자는 전후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에요?》아돌프는 깨닫지 못했다.

《볼쉐위크들이 이 전쟁에서 도이췰란드를 반대하여나섰지만 파시즘이 괴멸된 후에는 누구를 반대하여나설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만큼 일을 제대로 해나가자면 전후에 쏘련군대 고위급인물 또는 상층인물들속에 자기 사람들을 가지고있는것이 극히 필요합니다.》

《뚜르하노브가 그렇게 되리라고 당신은 확신하는가요?》

《당신이 우리의 요청을 정확히 리행한다면 그자는 우리와 손을 잡지 않을수 없게 될겝니다.》톰슨이 자신있게 언명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뚜르하노브에게 게스타포에 협력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하고 출옥할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더구나 당신의 동생은 이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었기때문에 마치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듯이 처신해야 합니다.》톰슨은 아돌프에게 신문을 넘겨주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출옥시키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을 상부에 변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것처럼 꾸미십시오. 동생더러 그 약속은 필요성이 없어지는 즉시로 철회한다고 그자에게 맹세해도 된다고 하십시오. 허지만 그를 미국정탐기관에 인계하도록 나의 장인에게 지체없이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뚜르하노브는

의혹을 품을수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쏘련대좌를 혼자 출옥시키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그가 선정한 몇명의 수인들이 집단탈주를 조직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집단전부를 스위스국경으로 넘겨야 합니다. 여기서 뚜르하노브와 그의 동료들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하였다가 쏘련대표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난 당신에게 대략적인 테두리만 알려드렸습니다.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계획에 일정한 수정을 가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되 기본목적만은 변경시켜서는 안됩니다. 다시말하여 뚜르하노브를 스위스에 무사히 도착시켜 조금도 상하지 않은채로 국경경비당국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제 22 장

외국정탐기관의 첩자들이 붉은군대대좌 뚜르하노브를 쟁취할 공작을 활발히 벌리고있을 때 그의 벗들은 팔짱을 끼고 앉아있지 않았다.

바르쑈꼬브장령은 빨찌산운동사령부로 돌아온 즉시에 도이췰란드군이 점령한 동유럽지역에서 활동하는 빨찌산부대들과 개개의 정찰조들과 련계를 가지고 뚜르하노브의 행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유감스럽게도 회답은 반가운것이 못되였다. 뚜르하노브는 땅속으로 잦아든듯 종적을 감추었다는것이다. 이때로부터 두달이 지나 그의 행처를 알려는 기대를 거의나 포기하였을 때 오래동안 고대하던 소식이 빨찌산련합부대에 날아들었다.

《장령동지!》 그날 아침에 장령의 부관이 그에게 말했다. 《쏘련빨찌산국제부대 파견원들이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부대라고?》 장령이 놀랐다. 《그래 이전에 뚜르하노브가 지휘하던 부대가 아니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싸완제예브대위가 지휘하고있습니다.》

《손님들을 나에게 안내하시오!》 장령이 지시했다. 부관은 문을 열고 손짓을 했다. 그러자 세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중에 키가 훤칠하게 큰 스물댓살가량의 검은 수염쟁이가 챙챙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장령동지! 우리 지휘관 싸완제예브의 특별보고를 전달할만합니까?》

이렇게 말하며 그는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여 바르쏘꼬브에게 주었다.

《앉으시오!》장령이 이렇게 권하고 성급히 봉투를 뜯더니 곧 여념없이 읽기 시작했다. 《드디여 찾아냈군! 뚜르하노브는 살았어!》장령이 다 읽고나서 환성을 질렀다.《사실말이지 우린 이렇게 될걸 믿었댔소. 차근차근 다 이야기해보오.》

담화는 거의 두시간동안 계속되였다. 사실은 더 오래 끌었지만 참모장이 장령을 참모부로 청함으로써 이야기가 중단되였다.

《동무들, 감사하오!》장령이 빨찌산파견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덧붙였다. 《동무들을 숙소로 안내할거요. 한 이틀 휴식하시오. 될수록이면 동무네 부대까지 비행기로 태워다주도록 하겠소.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뚜르하노브가 중상을 당하였다가 지금은 거의 완쾌되였다는 소식은 그의 동지들을 기쁘게 했다. 그들은 파시스트에게 포로된 뚜르하노브를 구출할 준비작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했다. 바르쏘꼬브는 뽈스까와 체스꼬의 지하공작원들과 련계를 맺고 뚜르하노브가 치료받고있는 도이췰란드병원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줄것을 부탁했다. 부르노시에서는 그 병원이 뽈스까에서 이동하여 자기네 고장으로 옮겨오기는 했으나 뚜르하노브란 사람은 현재 거기에 없노라고 알려왔다. 병원에 고용되였던 지방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얼마전에 그를 퇴원시켜 바바리아의 군대포로수용소가 아니면 상부오스트리아로 보냈다고 통보해왔다.

《참 분하군!》바르쏘꼬브장령은 이 소식을 듣고 소리질렀다. 《뚜르하노브를 포로에서 탈출시킬 작전을 진행할 대신에 우리는 벌써 두달째나 그를 찾는데만 매달려있었군. 그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와 어떻게 련계를 가진다? 그하고 접근할수 있는 사람들과 련계를 가질수 없을가?》

빨찌산운동사령부가 바바리아나 상부오스트리아와 직접 련계를 가지고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문제는 더욱 복잡했다. 그래서 련계를 취하자면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될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련대성이 이 애로를 풀어주었다. 어느날 바르쏘꼬브에게 스위스

에서 방금 가져온 신문 《브아 우브리예르》를 가져왔다.

장령은 《파시스트도이췰란드는 군대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고있다.》라는 제목을 읽고는 참지 못하고 책상을 탕 쳤다.

《그러면 그렇겠지.》 장령이 말했다. 《파시스트놈들은 참된 쏘련의 애국자를 포로수용소에 오래 붙들어두지는 않고 감옥에다 격리시키려고 애쓸게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소식을 알려주어 고맙군. 우리 동지를 파쑈감옥에서 빼내오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젠 알게 되였다. 허지만 서둘러야겠군. 게스타포놈들이 우리가 자기 사람들을 거기에 보낼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테니까. 뚜르하노브를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면 놈들이 그를 고문하거나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겠지.》

바르쑤꼬브장령의 지시에 의하여 그날로 자료조사원들이 상부오스트리아와 그와 린접한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지역 지하조직들의 반파쑈투쟁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편 제도원들은 지목되는 지역들에 대한 지형도를 확대하여 로어와 도이췰란드어, 체스꼬말로 표기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군사배치상태에 대한 자료를 보고했다. 경리일군들은 떠나보낼 별동대원들에게 필요한 장구들을 준비했다.

별동대인원선발문제만이 락착을 짓지 못하고있었다. 그 사업은 쏘꼴로브중위가 직접 주관하고있었는데 그때 그가 출장중이여서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드디여 그가 포로수용소들을 돌아보고 돌아왔다. 눈치빠른 쏘꼴로브가 바르쑤꼬브장령주위에 떠도는 앙양된 기분을 알아차리고 무슨 기쁜 일이 있었다는것을 알았으나 캐여묻지는 않았다. (필요하면 어련히 상부에서 알려줄것이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건 필요가 없는거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장령은 기쁜 마음을 감출수 없었고 그 기사를 번역하여 첨부한 스위스공산주의자들의 신문을 중위에게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다.

중위의 눈이 번쩍이였다.

《그러니 우리는 가까운 시일내에 〈푸른 두나이〉에 착륙하게 된단 말입니까?》 그가 흐뭇이 웃으며 물었다.

《바로 그 강은 아니고 린츠시와 체스꼬와 부데이오위째사이의 중간지역이면서 강과 가까이한곳에 착륙하게 될게요. 동무네 지원병들가운데는 그 고장출신이 없소?》

륙전대성원으로서 히틀러도당과의 싸움을 계속할 의향을 표시한

외국인지원병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보자면 중위는 얼마동안 생각을 해야 하였다.

《한둘이 아닙니다.》그가 기쁨에 넘쳐 대답했다. 《두명의 오스트리아인과 한명의 도이췰란드인 또 한명의 체스꼬인이 있습니다. 바로 린츠시출신도 한사람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제가 륙전대명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장령이 호기심을 나타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소?》

《그 사람은 동의하였다는데 파시스트범죄수사비상위원회 성원들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우리 도이췰란드군인포로수용소에서 평범한 병사로 가장하고 숨어있던 한 에쓰에쓰장령의 몸서리치는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가 그 사람이였습니다. 그 장령은 그 오스트리아인의 진술에 의하여 진상이 드러나 체포되였답니다. 저는 지방반탐기관의 소개로 그와 알게 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름은 알프레드이고 성은 룽게입니다. 린츠시에서 나서자랐습니다. 그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병합직전까지 알프스보병려단에서 복무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가 파시스트도이췰란드에 병합된 이후에 려단은 특수보병련대로, 그 다음은 사단으로 개편되였었습니다. 이 부대는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를 반대하는 전투에서 공로를 세워 에쓰에쓰사단칭호를 받게 되였습니다. 룽게는 그때 사단장의 부관으로서 에쓰에쓰중좌의 군사칭호를 가지고있었고 사단장인 헬무트 크라메르는 대좌로부터 에쓰에쓰소장으로 승급되였습니다.》

《동무는 이전 에쓰에쓰장교가 도이췰란드파시스트를 반대하여 싸우겠다고 동의해나선것이 의심스럽지 않소?》장령이 물었다.

쏘꼴로브중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그는 추호의 동요도 없이 대답했다. 《그 사람의 립장에 서면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였을것입니다.》

《참 흥미있는데…》장령이 중위의 결단성있는 대답을 듣고 웃음을 지었다. 《그럼, 그 사람의 립장이라는걸 한번 설명해보오.》

《그 이야기를 다하자면 깁니다.》중위가 미리 오금을 박았다.

《난, 서두르지 않소.》장령은 이전 에쓰에쓰장교의 진심에 대해 아

직도 계속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전에 제겐 모든 파시스트들이 다 인간쓰레기로 보였으나 알프레드 룽게와 알게 된 이후에 저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전 그런 자들가운데도 자기 신념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되여 파시스트악당속에 발을 들여놓게 된 정상적인 인간도 간혹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룽게는 결코 신념화된 나치스분자가 아니였습니다. 그는 교원의 가정에서 나서자랐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르죠아국가들에서는 교원들이 일부 로동자, 농민들보다 더 못살지 않습니까. 례를 들어 룽게교원처럼 많지 않은 봉급으로 세 자식이외에 늙은 부모들까지 모셔야 하는 경우에는 유족한 생활에 대해서는 꿈도 꿀수 없는것입니다. 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이 젊은 알프레드를 피착취자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투쟁의 길로 추동한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직업을 피하는데 그치게 했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사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마치자 하급장교칭호를 받게 되였습니다. 그때 그는 알프스보병려단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거기서 소대장을 거쳐 중대장이 되였습니다. 그후 려단장인 헬무트 크라메르대좌는 젊은 장교의 비범한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 부관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의 새 상관은 알프레드와는 달리 세습적인 군인가정출신이였습니다.》 쏘꼴로브중위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의 선조중의 한사람인 크라메르기병대위는 나뽈레옹시대의 력사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정치적신념으로 보아 헬무트 크라메르는 군주제도 옹호자였지만 오스트리아황제의 군주제도하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기에는 오스트리아에 이미 군주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자는 공화국시대에 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군주제도, 그의 말대로 하면 공고한 정권이 복귀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가 파시스트도이췰란드에 병합되여 총통의 〈공고한 정권〉이 섰다는 소식은 그를 무등 기쁘게 했으며 그래서 그는 군사지휘관들중에서 선참으로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선서하였습니다. 새로 군림한 오스트리아의 주인들도 자기의 충실한 개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헬무트 크라메르는 처음에 대좌로 승급하였다가 다음에는 소장으로 승급하였습니다. 그자는 이러한 〈영예〉를 받아안은것으로 하여 그 어떤 추악한

짓도 감행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자는 오스트리아사람들뿐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피도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자가 지휘하는 산악렵병부대는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우크라이나와 꾸반에서 류혈적인 참극을 빚어냈습니다. 1942년에 감행한 크라쓰노다르변강의 평화적주민에 대한 야수적인 만행에 의하여 파시스트범죄수사비상위원회는 크라메르를 파시스트전범자로 선포하였습니다. 허지만 크라메르는 숙어들지 않았습니다. 쏘련군대가 형제적인 체스꼬와 슬로벤스꼬를 해방하는 길에 들어섰을 때 그자는 까라빠뜨에서 최후의 류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크라메르사단은 그때 까라빠뜨의 산중의 고개를 점령하고있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사전에 진지를 굴설하여 이 고개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놓고 쏘련군대가 체스꼬와 슬로벤스꼬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나섰습니다. 가렬처절한 싸움은 2주일간 계속되였습니다. 끝내 영웅적인 쏘련군부대가 산비탈을 톺아올라 파시스트의 요새를 에돌아서 크라메르의 사단을 포위하였습니다. 파시스트요새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을 단행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놈들의 방어중심지였던 그 소도시에는 평화적주민이 5천명이상 살고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쏘베트사령부는 도이췰란드놈들이 항복하거나 아니면 평화적주민들을 화력권밖으로 내보내라고 제의하였습니다. 사단장 헬무트 크라메르는 항복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우리의 군사사절들을 총살하였습니다. 전쟁법을 위반하는 이런 격분할 사건이 있은 후에 쏘련군대는 3개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적들이 항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단장도 손을 들고 참호에서 기여나와 쏘련군에게 포로로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질적인 사단장놈은 이번에도 자기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놈의 강요로 지휘관의 참호를 경비하던 에쓰에쓰병사가 그놈과 군복을 바꾸어입었습니다. 옷을 다 바꾸어입었을 때 사단장놈은 장령복을 바꾸어입은 군사를 불의에 쏘아죽이고 자기 신분증을 죽은자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참호에서 나와 평범한 병사로서 포로되려고 하던 참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에도 새로운 장애가 생겼습니다. 장령의 부관인 알프레드 룽게가 총소리를 듣고 참호로 뛰여들어왔

던것입니다. 크라메르는 산 증인이 한놈이라도 있으면 자기의 〈자살〉기도가 파탄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그놈은 마주오는 자기 부관의 이마를 겨누고 면바로 총을 쏘았습니다. 부관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까딱 않고 누워있었습니다. 크라메르는 두손을 들고 참호에서 기여나와 포로로 잡혔습니다. 다른 파시스트놈들과 함께 그자도 우리 도이췰란드군포로수용소로 보냈습니다.

많은 범죄를 감행한 크라메르로서는 자기 사단이 괴멸된 후 자살하는것이 유일한 출로였을것입니다. 대다수의 전쟁전범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쏘련사령부에서도 그자가 꾸민 자살연극을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크라메르의 죽음에 대해서는 출판물에도 보도되였습니다. 그 소식은 히틀러한테도 들어갔습니다. 히틀러는 이 범죄자가 죽은 후 민족영웅으로 추대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도이췰란드신문들에는 〈크라메르사단의 영웅들은 죽으면 죽었지 항복하지 않는다.〉, 〈크라메르소장은 마지막탄환을 자기 몫으로 건사했다.〉, 〈크라메르의 공적은 승리의 마지막순간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것을 도이췰란드인민들에게 호소하고있다.〉, 〈민족영웅의 가족에게 총통은 손수 큰 배려를 돌리였다.〉, 〈크라메르소장의 미망인은 총통으로부터 자기 남편의 최후공적에 대한 높은 표창을 받을것이다.〉라는 표제의 실화와 보도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파시스트전범자는 이번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수 없었습니다. 룽게는 크라메르가 바란대로 죽지 않고 머리에 중상을 입었을뿐이였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치된 그는 이전 자기 상관에 대한 진상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크라메르는 알프레드 룽게에 의해서 폭로되여 체포되였습니다. 룽게는 지금 〈자유도이췰란드〉동맹의 열성맹원으로 되였습니다. 전 그와 몇차례 만났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크라메르와 같은자들에 의거하고있는 정치체제는 붕괴되고야맙니다. 저는 파시스트체제가 하루속히 멸망하도록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크라메르를 복수하려고 하는것은 단지 자기 생명을 해치려 했기때문만이 아니라고 실토하였습니다. 자기 개인에 한한 다른 원인도 있는것 같습니다.》

《무슨 원인인지 그가 말하지 않았소?》 바르쑤꼬브가 물었다.

《〈7년전에 그자는 나의 약혼녀를 가로챘습니다.〉라고 룽게가 말했습니다. 〈그 녀자와 나는 서로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이 장령부인으로 되는것을 더 바라 딸에게 크라메르의 청혼을 받아들이라고 강박했지요. 그리하여 패덕한인 크라메르와 폭군인 아버지에 의하여 훌륭한 처녀는 불행하게 되였지요. 나는 그때 벌써 그자를 복수할것을 맹세하였지만 그자의 부하라는 종속관계에서 벗어난 후에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사이에 종속관계가 없어졌으니 자유로이 자기 맹세를 실천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바르쑈꼬브장령은 웃었다.

《하는수 없지. 우리가 그의 희망이 실현되도록 돕는수밖에…》

이틀후에 빨찌산운동사령부에는 이전 에쓰에쓰사단장과 그의 부관을 데려왔다. 몇달전만하더라도 커다란 매부리코에 고양이눈을 한이 키가 꺽두룩하고 빼빼마른 에쓰에쓰소장은 자기와 대등한 등급의 에쓰에쓰장군들뿐아니라 직급이 훨씬 높은 장군들까지도 자기앞에서는 머리를 수그리게 하였건만 지금은 비굴한 웃음을 띄우고 바르쑈꼬브장령뿐아니라 지금 상관의 집무실에 앉아있는 쏘꼴로브중위에게까지 허리굽혀 절을 했다. 실은 그의 생각에는 자기가 머리를 더 높이 추켜들고 자기의 본명과 자기의 군사칭호와 직위를 대면 쏘련사람의 눈에 자기가 더 돋보일것 같았다.

바르쑈꼬브장령은 그자가 등받이없는 의자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자기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오. 당신은 우리가 경고하지 않아도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하며 진술에서 무엇이든 본질적인것을 숨기려 할 때에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좋은 결과가 차례지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거요.》

《예 예, 전 그걸 잘 알고있기때문에 꼭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이전 에쓰에쓰장령이 약속했다.

놈은 1941년까지의 자기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의 사단이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에서 전투활동을 할 당시 그가 전쟁법을 위반한 사실들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한 대목에 들어서서는 왜 그런지 그의 기억력이 점점 더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자는 혼동해서 범죄행동을

가장 많이 발로시킨 사건들을 빼놓군했다. 룽게를 청해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제서야 크라메르는 자신을 변명할수 없음을 깨닫고 그가 쏘련령토에서 감행한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

《포로로 되여서야 나는 눈을 뜨게 되였습니다. 나는 도이췰란드놈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한것이 잘못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록 도이췰란드군복을 걸치기는 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오스트리아인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살려만 준다면 일생을 충성과 진심으로 당신들에게 봉사하겠다는것을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 바입니다.》 크라메르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끝냈다.

《당신의 운명은 나의 손에 달린것이 아니라 쏘베트법기관의 손에 달렸소. 재판은 임의의 시각에 열릴수 있소. 당신이 만일 우리의 일을 한가지 돕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당신에 대한 재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루게 할수 있소.》 바르쑤꼬브장령이 제의했다.

《그때 가면 나에게 대사령을 내릴수 있지 않을가요?》 크라메르가 활기를 띠였다.

《꼭 그렇게 된다고 장담할수는 없지만 죄를 경감하는 기회로는 될거요.》 장령이 설명했다.

크라메르의 눈에는 희망의 불꽃이 번뜩이였다.

(전쟁이 끝나면 적에 대한 태도가 관대해지는 법이지. 전승자들은 기뻐서도 대사령을 내릴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게만 되면 서방사회계도 우리 군대포로들을 변호하여나설게다. 그러면 우린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게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전 동의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전 당신들을 위해 모든걸 다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약속만 해주십시오.》

《그건 념려안해도 되오.》 장령이 확답을 했다. 《파쑈도이췰란드에서는 당신을 총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민족적영웅으로 간주하고 있소. 우린 그자들에게 사실을 밝혀주려고는 하지 않소. 반대로 그것을 더 확고히 믿도록 하려고 하오. 당신은 자살극을 꾸밀 때 자살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듯이 편지형태의 유언을 남기지 못했소. 그러한 실수가 어떤 사람에겐 의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걸 자신이 알거요. 우린 당신에게 이 오유를 시정할수 있는 기회를 주겠소.》

《어떻게요?》크라메르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안해에게 편지를 쓰시오. 우린 그 편지를 수신자에게 전해주겠소.》 장령은 크라메르에게 종이와 만년필을 주면서 권했다.
크라메르는 어쩔바를 몰라했다.
《저에게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적여유를 주십시오.》그가 부탁했다. 《무슨 말을 써야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밤에 곰곰히 생각하여 편지를 쓰겠습니다.》
《당신은 편지를 쓰노라고 골을 썩일 필요가 없소. 편지내용은 다 준비되였소. 읽어보고 베껴쓰시오.》
이렇게 말하며 장령은 크라메르에게 이미 준비한 편지초안을 내밀었다. 그는 편지를 읽어보고 얼굴을 붉혔다.
《이 편지를 누가 저의 처에게 가져다주게 됩니까?》그자는 룽게를 흘끔 쳐다보고 걱정스레 물었다.
《자살자의 〈마지막편지〉를 자기 부관이 아니고 파연 누구에게 맡기겠소?》장령이 웃었다.《얼마 있다가 저 사람은 사업상 용무로 린츠시를 다녀오게 되오. 그때 당신의 편지를 크라메르부인에게 가져다줄수도 있소.》
그 말을 듣자 그만 파시스트놈의 손이 맥없이 내려졌다. (룽게에 대해 마그다는 언제나 무관심하지 않았었지.) 크라메르는 가슴아프게 상기했다. (마그다가 나를 죽은줄 알고있는 오늘 그 사람들이 만난 후에 벌어질 일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내가 그때 두센치메터 더 아래를 묘준하지 못한것이 정말 원통하구나. 그렇게 했더라면 나도 포로들속에 몸을 감출수 있었을것이고 나의 안해도 시련을 겪지 않을수 있었을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 편지를 베껴쓰지 않으면 틀림없이 나를 총살할것이다. 그렇다고 베껴쓰면 영원히 가족을 잃게 될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머리만 성해있으면 안해는 언제든지 얻기마련이다. 전쟁이 끝나면 녀자는 얼마든지 있을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만년필을 들고 그에게 제시한 《마지막편지》를 자자구구 그대로 베껴쓴 다음 아래에 자기 수표를 했다.
이것으로 륙전대가 도이췰란드후방깊이 착륙할 준비사업은 끝났다.

작전계획에 따라 륙전대들을 두개조로 나누었다. 도이췰란드인과 오스트리아인, 체스꼬인 지원병들로 구성된 제1조는 쏘꼴로브중위가 인솔하게 되였다. 비행기에 타기 직전에 그에게는 대위군사칭호와 적기훈장을 수여할데 대한 명령이 하달되였다. 륙전대제2조는 이틀이 지나서 부대정치위원이 인솔하게 되여있었다.

륙전대원들이 비행기에 타기전에 바르쑤꼬브장령이 연설을 했다. 《친애하는 동지들!》 장령은 흥분한 목소리로 륙전대원들에게 호소했다.《사령부는 동무들에게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과업을 맡기였습니다. 이 과업을 해내기는 수월치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무들이 빨찌산운동사령부의 특별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벗들,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장령은 쏘꼴로브를 포옹하고 세번이나 입을 맞추었다. 다른 륙전대원들과도 뜨겁게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쌍발비행기는 곧 리륙하여 비행장상공을 한바퀴 선회한 다음 서쪽으로 항로를 잡더니 짙어가는 밤의 장막속으로 사라졌다.

제 2 부

제 1 장

루돌프는 비행기에서 내린 형의 모습이 초췌하고 의기소침한데 놀랐다. (미국의 상어가 우리 련합회사를 통채로 삼켜버린게 틀림없어. 하기야 그 저주할 양키놈한테서 도대체 무슨 신통한걸 바랄수 있겠는가. 놈들은 우리 형세가 기울어진다는걸 냄새맡고 도와주는척하면서 우리 주머니를 털어내는거지. 에이 그 강도놈들이 정말 증오스럽구나. 내가 형에게 놈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타일렀는데두 종래 말을 안듣더니…)

아돌프 임메르만에 이어 슈와이쩨르와 그의 보조원들도 내렸다.

슈와이쩨르의 얼굴에 나타난 기쁜 표정은 틀림없이 성공을 말해주고있었다.

《하일 히틀러!》 슈와이쩨르는 자기 상관에게 경례를 했다. 《대좌님! 당신의 명령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플랑크대좌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의 처와 어머니는 대좌가 살아있으며 지금 모스크바에 있다는것을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까나리스장군의 부하인 그는 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인 서신거래를 하고있답니다.》

게스타포책임자의 눈은 쥐를 본 고양이의 눈처럼 빛을 뿜었다. (훈장은 문제없게 되였구나!) 그는 기뻐했다. (이 정보를 베를린에 통보하면 내 가슴엔 훈장들이 번쩍이게 되겠지. 그렇지만 덤벼서는 안된다. 뚜르하노브의 덕분으로 나는 플랑크대좌를 찾았다. 틀림없이 그자는 지금까지 말한것보다 더 많은것을 알고있을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오. 뚜르하노브도 이걸 알고있을가?》 책임자가 물었다.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지만 직접 그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나 그자가 말을 할가?》

《하게 해야지요.》 슈와이쩨르는 말을 했다기보다 웨쳐댔다. 《오늘 아침부터 내 손이 근질거리는데 공연한게 아니군요.》

《그럼 한바탕 해보자구!》 책임자는 씩 웃어보이고 《메르쎄데스》승용차곁에서 자기를 기다리고있는 형님에게로 급히 갔다.
《오늘 어디서 점심을 할가?》 형이 물었다.
《〈푸른 두나이〉로 갑시다.》동생이 대답했다.
《그 식당엔 새 료리사가 왔는데 한달반짜리 새끼돼지를 가지고 백가지 료리를 만든다고 합디다.》
《전 기름진 음식이라면 영 질색이예요.》임메르만부인이 얼굴을 찡그렸다. 《차라리 집으로 갑시다.》
《하긴 식당에서 즐길 때가 아니지.》 남편이 안해를 두둔했다.
《갑시다!》
화려한 승용차는 팽팽한 활줄처럼 곧게 뻗은 신작로를 달려갔다. 이야기할 흥취가 나지 않는듯 모두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생각은 유쾌한것이 못되였다. 더우기 아돌프의 생각은 서글펐다.
만사를 잊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싶었다. 그러나 집요한 기억력은 싫증나게도 과거사중에서 오직 불쾌한 사건들만을 상기시켰다.
그는 전처의 영상과 그 이름과 관련이 있는 모든것을 기억에서 영영 지워버리려 했으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슬픈 영상을 기억에서 씻어버릴수는 없었다. 그는 전처 이다가 유태인이였고 파시스트도이췰란드의 정책이 일체 유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선포한것으로 자기 위로를 하려고 했다.(고등인종의 대표자인 내가 렬등인종의 대표자인 유태인과 동거생활을 계속할수야 없지 않는가.) 하고 그는 한두번만 자신에게 타이르지 않았었다. 하긴 사랑하지 않는 녀인과 일생을 같이 살라고 강박할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안해의 재산을 빼앗고 그 녀자를 육체적으로 파멸시켜도 된다는것은 아니다.
요즈음에는 사사로운 걱정거리가 있는데다 외부의 불쾌한 사건까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전쟁초기에 도이췰란드대국주의자들은 얼마나 좋았던가! 그때는 총통이 도이췰란드인종을 지배적인 인종으로 만들고 도이췰란드사람들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리행하는데 아무것도 방해될것이 없을것 같았다. 도이췰란드주민은 그때 총통을 믿었었다. 왜냐면 그때는 총통의 뜻대로 국가들이 련이어 붕괴되였고 독립국들도 파시스트독재자에게 굴복하여 도이췰란드인들이 침략전쟁을 계속할수 있도록 그 수중에 물적, 인적자원을 섬

겨바치고있었기때문이다. 정말 그때는 도이췰란드부르죠아지들에겐 호경기였다. 7천만도이췰란드인들이 3억이상의 유럽인들의 피를 강물처럼 흘리게 했기때문이다. 영국과 쏘련만이 항복하지 않았다. 영국은 자기섬안에 숨어버렸지만 쏘련인민은 1941년에 파시스트들을 족치기 시작하여 3년후에는 도이췰란드에서의 파시스트제도의 존재여부에 현실적인 위협을 조성했다. 즉 도이췰란드 부르죠아지들이 히틀러에게서 받은 우선권과 특전이 위협을 받게 될것이다. 이 한가지 생각만으로도 아돌프 임메르만은 가슴이 아프도록 조여들었다. 머리가 어찔어찔했다. 그는 동쪽에 다가오는 포소리가 모쉐 골드만과 그의 딸의 그림자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난 가서 옷을 갈아입을터이니 그동안 이것이나 보렴.》 아돌프는 스위스에서 가져온 신문을 동생에게 내밀었다.

《뭣때문에 이 너절한것을 읽느라고 골을 썩이겠소.》루돌프는 멸시하듯 손을 저었다.《제 나라 신문도 읽을 짬이 없는데 남의 나라 신문을 권하다니.》

《남의 신문도 읽을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물은 두개의 측면을 가지고있는 법이야. 표면과 리면말이야. 그 사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자면 두 측면을 다 보아야 해.》

동생은 소탁자앞의 안락의자에 몸을 제끼고 앉아 신문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프랑스나 영국의 신문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모국어외에 다른 나라 말을 알지 못했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노이예 쮸리히 짜이퉁》신문을 집어들었다. 1면에 《에스빠냐와 아르헨띠나는 도이췰란드에서 도주한 파시스트두목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있다.》라는 표제의 기사가 있었다. 기사에는 이 나라들이 해방되여 도주하지 않을수 없게 된 실업계의 도이췰란드나치스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구체적인 실례들을 실었다. 기사가 게스타포대장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찢어서 불붙는 난로에 집어던졌다. 바로 이때 문안에 형이 나타났다.

《반파쑈선전을 읽고 부아가 났나?》 아돌프가 쓴 웃음을 지었다. 《거기서 무엇이 네 마음에 안드는지 어디 진심을 말해보렴?》

《우리를 비방하는 글을 읽기가 역겹소.》

루돌프는 신문이 다 불타버린 난로에 대고 침을 뱉었다.《비겁하게 도주하여 자기 목숨이나 부지하려는자들이나 읽으라지.》

《공연히 성을 내는구나. 우린 도이췰란드의 망명객들을 친절히 받아주는 에스빠냐의 프랑꼬장군과 아르헨띠나의 화렐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
《형님도 슬쩍 달아나려고 하는게 아니요?》 루돌프가 적의를 가지고 물었다.
《아직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때가 오면 우리도 달아나야지. 이봐 성내지 말아. 여기엔 창피할게 아무것도 없다. 로씨야사람들한테서는 우리같은 인물들뿐아니라 칼 12세나 나뽈레옹과 같은 거물들도 달아났다.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부동산을 국외로 넘기는 일을 다그쳐야겠다.》
《은행가 바루흐같은 악마들이나 먹게 하자는거요?》
《아니 볼쉐위크들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하자고 그런다.》
《로씨야사람들은 아직 먼곳에 있소. 걱정하기는 일러요.》
《유감이지만 볼쉐위크들은 로씨야에만 사는게 아니다. 여기도 그어느 나라에도 볼쉐위크들은 충분히 있다. 그자들은 유럽에서 우리를 가셔내려 하고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겠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이 있니?》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지요.》
《돈이 없이?》
《근심마세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의 도이췰란드인이 살아있어도 전쟁할 돈은 있을거요.》 루돌프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형은 미심쩍다는듯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유감이지만 도이췰란드인들은 모두가 너나 나처럼 천진하질 않아. 어떤 사람들은 파울류스원수처럼 로씨야인들에게 항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씨야인들이 여기까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그자들이 올 때에 실업가나 은행가 그리고 에쓰에쓰나 에쓰디의 악당들외에 한명의 도이췰란드인도 총통의 기치아래 뭉치지 않을가봐 겁이 난다. 백성이란 대체로 머저리가 아니니라. 지상천국을 약속하는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너도 알겠지만 전쟁이 없이, 감옥과 수용소가 없이 살며 실업이 없이 배부르게 살게 할것을 약속하지 않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도이췰란드인들은 빠지지 않소. 도이췰란드백성은 공산주의자들의 빈 약속을 믿지 않을거요.》

《제 1 차세계대전이후에 우린 로씨야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루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따라가지 않았니. 그러니 제 2 차대전이후라고 다른 민족들이 그뒤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이췰란드민족을 어떻게 구원하겠는지 미리 생각해두어야 한다.》
《생각안해도 돼요. 그에 대해서는 총통이 오래전에 생각해두었으니까요.》
동생의 고집은 아돌프를 격분케 했다.
《그래도 난 너를 인간으로 대하고 말하는데 넌 낡은 축음기처럼 오래전에 싫증난 노래가락만 련속 불러대는구나. 너는 한가지 진리를 알아야 한다. 제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그에 대한 믿음으로 도이췰란드가 구원될수는 없다. 수세기를 두고 도이췰란드실업가, 은행가들이 창조한 풍부한 부원에 의해서도 구원될수 없다. 유감이지만 우리가 자기 힘으로는 우리 자본을 구원할 힘이 없게 되였다.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받아야 한다.》
《어디서 말이요?》 동생이 수심에 잠겨 물었다.
《지난 세기에 어느 한 도이췰란드인은 각 인민들을 생존을 위한 투쟁에로 부르면서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는 구호를 들고나와 괜찮은 결과를 이룩했지. 우리도 〈전세계 부르죠아지는 단결하라!〉는 자기 구호를 제기할 때가 되였다. 그럴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앵글로색손족의 실업계인사들이 깨달았지. 그런데 우리는 민족적제한성을 설교하면서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지향했지. 결과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거야.》
《그럼 형님은 도이췰란드인의 원쑤들과도 련합하자는건가요?》
루돌프가 눈을 부릅떴다.
《나는 벌써 내 회사를 련합했다. 그러나 도이췰란드인의 적이 아니라 미국의 자본가들과 련합했다. 자본가에게는 리윤을 보장해주는게 도이췰란드인이건 미국인이건 상관없다. 나는 도이췰란드인의 다른 자본가들도 이걸 될수록 빨리 알았으면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야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침습하지 못하게 할수 없다는걸말이야.》
《형님은 공연히 미국인들을 두둔하는군요. 그놈들은 모두가 우리

의 적이요. 그자들이 진실로 도이췰란드의 패망을 바라지 않았더라면 무엇때문에 우리가 모스크바를 거의나 포위한 시기에 로씨야사람들을 도와나섰겠소?》

《미국사람들은 우선 리득부터 생각한다. 리득이 있었기때문에 로씨야사람들을 도운게고 리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도울게다. 우리와 협정을 체결한 톰슨씨는 로골적으로 말했다. 〈실무적인 아메리카는 정해놓은 벗이나 정해놓은 원쑤가 따로 없다. 투자한 매 딸라당 얻게 될 최대리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이 있을뿐이다.〉라고말이야. 이러한 무분별한 원칙을 그들은 자기 나라 정책의 확고부동한 원칙에로까지 승화시켰다. 우리도 목숨을 부지하자면 그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아돌프는 자기 말을 끝마쳤다.

《그 무분별한 원칙에 의거하겠다구요?》 동생이 쓴 웃음을 지었다.

《마음대로 생각하렴. 나는 미국화학회사대표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자기 자본을 보존할 생각을 무엇보다먼저 했고 개개의 술어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보다 적게 생각했다.》

《그래서 형님은 얼마만한 자본을 보존하게 되였소?》

《대략 현재 가지고있는만큼이지.》

대다수의 게스타포의 요원들이 그러하듯이 루돌프도 지기의 분야만 알고있었지 재정문제는 잘 몰랐다. 그래서 형의 설명이 잘 리해되지 않았다.

《더 명백히 말해줄순 없소?》 그는 성이 나서 물었다.

《우리 주권의 51퍼센트가 〈케미 코퍼레이숀〉화학회사의 소유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 주권에 의한 리익금은 모두 우리 기업소생산이 오늘 수준보다 두배로 오를 때까지 우리 회사에 투자하게 된다. 그러고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잃는것이 없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있는 모든것을 보존하도록 한다는 철저한 담보를 받게 된다.》

《그런 봉사의 대가로 우린 무슨 보상을 받게 되나요?》 루돌프는 형을 의심스럽게 흘겨보았다.

《아직 많은것은 아니다. 동맹국 항공대가 우리 공장을 폭격하지 않게 된다. 톰슨씨가 제기하는 수인 한사람을 네가 출옥시키는 조건에서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루돌프가 따졌다.

아돌프는 뚜르하노브의 출옥절차에 대한 톰슨씨의 요구를 전달했다.
(나는 장령의 군사칭호와 참나무잎사귀가 그려진 철십자훈장을 받으려 했는데…) 게스타포장교는 슬픔에 잠겨 얼마전에 자기가 품었던 꿈을 상기했다.
그는 시계를 보자 비행장에서 슈와이쩨르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지금 그 사람을 내 보좌관 한 사람이 심문하고있을거요.》
《그 사람을 점잖게 대해라. 난 너희네 사람들을 안다. 사람을 심문하기만 하면 즉시에 목숨을 끊어놓거던. 뚜르하노브와는 그렇게 하면 안돼. 톰슨씨는 그 사람을 아무데도 다친데 없이 성한채로 넘겨달라고 경고했다.》
《걱정말아요. 아무도 형님네 그 뚜르하노브를 집어삼키지 않을테니. 형님은 아직 볼쉐위크들을 몰라요. 우리가 그자들을 편안한 안식처에 하느님을 찾아가도록 설복한다기보다 오히려 그자들이 우리의 신경을 깡그리 피로케 하고있어요. 그러나 아직 나를 불안케 하는건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거요.》
《그게 뭐냐?》 아돌프는 동생을 랭정하게 지켜보았다.
《뭐긴 뭐겠소. 형님이 그자들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 순아리아족들이 형님이 그 렬등인종의 동업자인 유태인 바루흐와 튀기인 톰슨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겠는가 하는걸 생각이나 했소.》
《넌 내 친혈육이지. 내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가지 일러두겠다.
아리아혈통의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는 똑똑치 못한자들이 머저리들이나 믿으라고 꾸며낸 말이다. 돈많은 사람의 피가 제일 순수하다는것을 똑똑히 기억해두어라.》
《형님은 왜 자꾸 돈, 돈하는거요?》 루돌프가 불끈했다. 《그래, 인간의 위대성이 돈에 귀결된단말이요?》
《넌 그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아돌프가 비웃었다. 《너의 형이 린츠에서 제일가는 부호가 아니였던들 넌 지금 뭘 해먹겠는지 생각을 좀 해봐라.》
《난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요.》 게스타포장교는 성이 나서 숨을 씨근거렸다. 《난 총통을 두고 하는 말이요.》
《어서 말해봐라! 위대한 총통이란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지?》

《도이췰란드국가지 누구긴 누구겠소?》
《도이췰란드국가는 누구에 의해 유지되지?》형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국민이지요.》 동생이 도고하게 대꾸했다. 《도이췰란드국민이지요.》
《이봐, 넌 너무나 천진하구나. 〈돈낸 사람이 노래를 청탁한다.〉는 속담을 잊었느냐. 나라를 공장주와 은행가들이 아니라 국민이 다스린다면 국민자신이 자기들을 전선에 내보내고 감옥과 수용소에도 감금하게 된다는거겠지?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아. 총통도 부총통도 기타 민족사회당과 국가의 지도자들도 크루프나 티쎈, 시멘스같은 기업가나 은행가들에 의해 (물론 우리 련합《화르벤웨케》도 포함되지만)유지되는거다. 그들이 도이췰란드의 진짜주인들이란말이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만 누가 국가를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알아들었냐?》아돌프는 학생에게 과학의 초보를 가르치는 교원의 말투로 물었다.
루돌프는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이 초보적인 진리를 그는 이미 전에 알고있어야 했지만 왜 그런지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을 무시했다. 왜냐하면 국민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것이 유익하고 편리하였기때문이다. 즉 자신이나 동료들이 제국우두머리들의 공식언어로 민족의 원쑤들과의 싸움이라고 불리우는 그 악을 다름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감행했기때문이다. 형의 말을 귀담아들은 지금에 와서 루돌프는 국가의 중대사를 심의하는데서 결정권은 은행가와 기업가들에게 있으며 총통이나 대신들은 그저 크루프나 티쎈족속들에 의하여 옮겨지는 장기쪽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는 형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면 위대한 도이췰란드란 한갖 공상에 불과하다는거요? 그래, 그 저주로운 양키들이 도이췰란드의 자본을 구원한 대가로 도이췰란드인들의 세기적인 숙망을 포기하도록 하려든단말이요? 참말로 도이췰란드민족이 앵글로색손족에 용해되여 지구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버리게 된단말이요?》
아돌프는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그러나 교활하고 복수심에 찬 그의 미소는 숨어있는 용수철이 어느때고 도이췰란드민족을 재생하기 위

해 튕겨오를 순간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에 차있었다.

《국비에 속하는걸 국비밀리에 이야기하마. 도이칠란드사람은 어디까지나 도이칠란드사람으로 남아있을것이다. 문제는 우리 자본을 구원하는데 있다. 우리 지도자들의 근시안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처한 위험한 구렁텅이에서 양키들이 우릴 건져주기만 하면 우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자본을 2배, 3배, 4배, 나아가서는 10배로 불굴것이다. 그때면 우리는 자국의 볼쉐위크나 밖에서 들어온 볼쉐위크들이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한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때 로씨야와의 싸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인 미국이 하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우지 않고 구원자의 구실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을것이기때문이다.》

《언제 가면 도이칠란드사람들이 큰소리를 치게 될가요?》 동생은 조바심에 몸을 떨면서 속삭이였다.

《미래의 전쟁에서 로씨야인들과 미국인들이 피를 흘리고 기진맥진해졌을 때이다. 이 말은 그 누구에게도 옮기지 말아라. 현대의 적수나 미래의 적수나 가까운 시일내에 도이칠란드를 대강국의 명단에서 영원히 지워버릴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흡족해있게말이다. 때가 되면 도이칠란드는 또다시 민족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될것이다. 아직은 우리가 죽은체하고 대양건너의 적들의 요구를 고분고분 수행해야만 구원자들을 때려엎을수 있다.》

《뚜르하노브에 대해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래 우리가 그자들의 요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린 곤난해질게다. 나는 재산을 잃게 되고 너는 에스빠냐나 아르헨띠나에 피신처를 얻을 권리를 잃게 될것이다.》 아돌프 임메르만은 다시한번 동생에게 경고했다.

제 2 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자인 와그네르교수는 로씨야와 로씨야인민에 대한 자기의 변함없는 관심을 숨기지 않았으나 이 먼 나라와 인민에게 끌리는 애착심에 대해서는 결코 터놓고 말하지 않았다.

괴이한 그의 성격이 운운될 때면 가장 가까운 그의 벗이나 혈육들도 몹시 난처해하군했다.

(교수의 안해가 로씨야녀자니까 안해의 동향인들에게 마음이 끌리겠지.)

와그네르교수가 1920년대중엽부터 가입한 사회민주당의 동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사실 이러한 애착이 로씨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었지만 교수자신은 대화에서나 행동으로 그것을 널리 퍼뜨렸다. 례를 들어 1930년대에 그는 어느 한 오스트리아잡지에 쏘련에 대한 일련의 론문들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어지간히 공정하고 론조는 우의적인것이였다. 론문들은 대체로 《쏘련에서의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과학문제》, 《꼴호즈의 실험실은 쏘련농촌의 과학원천》, 《쏘련채종학자들의 새로운 성과》 기타 론문들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이룩하는데서 값높은 기여를 한것으로 평가되였다. 교수는 두차례나 초청을 받고 쏘련을 시찰려행하였으며 윈에서 《방어동맹》(1923～1934년 오스트리아로동자들의 조직—역주)원들의 폭동이 무자비하게 진압되였을 때에는 아들과 막내딸을 데리고 쏘련으로 망명해서 거의 3년간이나 찌미랴제브농업과학원에서 연구사업을 했다. 그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교수가 몇가지 독성식물연구사업을 자기가 가지고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쏘련학자들에게 성심성의로 가르쳐준다고 생각했다. 교수는 강의도 했고 대학생과학연구소조사업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했으며 과학토론회들에도 출연했다. 그는 세계5대륙에서 모아들인 약초와 독버섯수집품을 더 풍부히 하고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씨에 두번이나 다녀왔고 씨비리의 원동에도 갔었다. 거기서 지방학자들과 상봉하고 그들의 론문을 읽었으며 자기가 가지고있는 자료와 지식을 넘겨주겠다는 약속밑에 그들과 사업상련계를 가지려고 애를 썼다.

아버지가 쏘련학자들과 학술상의 접촉을 넓히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있을 때 그의 자식들은 학업에 열중했다. 아들 리하르드는 모스크바종합대학에서, 딸 환니는 중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들은 쏘련공청회의에 참가하여 토론하면서 《쏘련은 제2의 조국》이라고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파시스트도이췰란드에 병합시켰을 때 와그네르의 가족은 갑자기 《제2의 조국》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그러자 교수는 쏘련의 적극적인 옹

호자로부터 악독한 원쑤로 변해버렸다. 이러한 변화가 정보에 밝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일이였으나 이런것을 알고있어야 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런 변화가 있을것을 앞질러 보고있었다.

와그네르교수는 쏘련인민에 대하여 동물적인 증오심외에 다른 감정을 가져본적이 없었다. 그가 1920년대부터 제국주의반동들의 앞잡이였고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자 쏘련에 대한 파쑈정탐기관의 과업을 수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물론 쏘련에 체류하면서 교수나 그의 자식들이 받은 인상은 각이했으나 그것이 흔적을 남기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인정해야 할것이다. 와그네르자신은 이제까지 과학적사회주의에 대하여 책을 통해서만 알고있었지만 적극적인 사회주의건설자들속에서 세해나 살아본 지금에 와서는 사회주의가 로씨야에서뿐만아니라 자본주의선진국들에서도 자국내에서의 혁명의 폭발을 예방할 긴급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쓰겁게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닥쳐오는 위험에서 세계를 구원할수 있을가? 오직 도이췰란드 사람들만이 현대의 야만인들의 유럽에로의 침습을 막아낼수 있다. 나는 서방에서 부르죠아제도를 고수할뿐아니라 로씨야에서 사회주의를 소멸할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나치스를 돕겠다.) 와그네르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충고로, 더 정확히 말하면 교수의 요구로 리하르드는 쏘련에 체류하는 기간 쏘련대학생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그대로 지키였다. 그는 기념행사들에 참가하여 시위대렬에 서서 붉은 기발을 들고 레닌묘결을 행진했으며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의 처참한 생활처지를 성토하는 청년집회들에 출연했으며 토요로동에도 참가했다. 정치망명객의 아들로서 신임을 받아 그는 국제혁명투사원호단체 대학생조직 책임자로 되였다. 겉보기에 그는 사회사업을 조용히 깐지게 수행했다. 즐겨 말아하는것 같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대학생조직이 벌리는 모든 행사들에 랭담했다.

《큰산이 우르릉하는데 쥐 한마리가 튀여나오는 격이예요.》 리하르드는 언제나 대학생토요로동에서 돌아와 말했다. 《우리의 지하철도건설장에서는 3천명이상의 대학생들이 일을 하였는데 3백명의 전문로공에게 무상으로 우리에게 공급했던 3천개의 프랑스흰빵과 같은 수의 고기순대값만한 보수를 주었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해제겠을거예요.》
《문제는 돈에 있지 않고 대학생들이 무상으로 일하겠다고 자원하여 나서도록 하는데 있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오늘 대학생들이 무상으로 땅을 팠다면 래일은 무상으로 프로레타리아의 원쑤들과 싸우러 나갈것이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것이란다.》
《그래요. 대학생들은 싸울거예요.》 리하르드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어린 환니는 쏘련의 현실을 이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다. 모스크바의 모든것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 환니는 공청원이 아니였지만 중학교학생들의 과외생활에 즐겨 참가했다. 8학년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으며 9학년에서도 전과목 최우등의 지위를 양보하지 않았다. 그 다음해에 중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동창들은 그의 정직성과 솔직성을 특별히 평가했고 교원들은 향학열과 락천성, 사교성과 특히 높은 교양을 평가했다.
조국을 멀리 떠나있으면 사람들은 대체로 가정에 더 애착을 가지기 마련이지만 환니는 아무리 쏘련에 오래 체류해도 아버지나 오빠에게 조금도 애착이 가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의 관계에서는 심각한 첫 균렬이 생겼다.
어느날 한 동급생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많은 애들이 너를 오스트리아사람이 아니고 진짜 로씨야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거울을 좀 들여다보렴. 그래 네 얼굴이 슬라브사람의 얼굴이 아니란말이냐? 그런데다 넌 로씨야사람처럼 로어를 잘하지. 너의 아버지나 오빠도 로어를 잘 알지. 하지만 로씨야말을 하자마자 그 사람들은 로씨야사람이 아니고 도이췰란드사람이라는것이 알려. 어째서 그럴가? 넌 그걸 생각해보지 않았니?》
동무의 이야기는 환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동무가 돌아간 후에 환니는 오래동안 거울앞에 앉아 자기 얼굴의 선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큰언니와 오빠, 아버지의 얼굴과 대비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 아무런 공통성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비록 그 사람들이 자기를 혈육의 정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구실을 준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살뜰한 정을 느껴보지 못한것도 사실이였다.
(내가 정말 저 사람들과 상관없는 남일가?) 처녀는 몸서리를 쳤다. (만일 남이라면 누구의 딸인가?)

이 물음에는 그때 린츠에서 사는 큰딸한테 가있던 어머니만이 대답을 줄수 있었다. 그래서 환니는 고등교육을 다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쏘련에 머물러있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돌연히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자고 할 때 자기 결심을 고집하지 않았다. 환니는 어머니를 될수록 빨리 만나서 자기의 출신에 대한 진상을 알고싶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환니는 어머니를 만날수 없었다. 가족이 쏘련에서 돌아온 후 환니의 어머니는 정말 뜻하지 않게 횡사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환니의 마음을 심히 뒤흔들어놓았다. 만일 모스크바에 있었더라면 학교동무들이 자기를 불행속에 내버려두지 않았을것이다. 여기에는 환니에게 동무도 벗도 없었다. 언니의 집에는 재산있는 가문의 파시스트신봉자들인 청년남녀가 모여들군했지만 환니는 그들속에서 자신을 더 고독하게, 더 의지가지없는 존재로 느끼는것이였다. 그는 그 사람들속에서 어떻게 처신할지 몰랐으며 말을 주고 받을줄도 몰랐다. 그들과는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문자그대로 전쟁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도이췰란드무기의 위력을 빛내이기 위해 전쟁이 곧 일어나야 한다는것이였다. 사실 전쟁은 곧 터졌다. 히틀러도이췰란드의 군대는 뽈스까의 지주정권을 시급히 결판냈다. 불행한 뽈스까의 독립을 보증한 국가들인 영국과 프랑스는 침략의 희생자에게 도움을 줄대신에 괴이한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두 참전국은 편안한 땅굴엄페호에 가만히 들이박혀 이따금 전혀 위험성이 없는 대응사격이나 할뿐이였다. 마치 그 사격은 적을 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기네 군대는 아직 방어진지를 버리지 않았다는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것 같았다.

파쑈화되여가는 젊은이들을 군대에 초모했다. 젊은이들은 전쟁이 아니라 유쾌한 산보나 떠나듯이 친척친우들과 눈물없이 기쁜 마음으로 작별했다. 게다가 처음에 파시스트들은 그 산보를 아주 멋지게 했다. 두해동안에 히틀러군대는 유럽대륙의 거의 모든 적수들을 격멸했다. 파시스트도이췰란드는 배신적으로 쏘련을 침공했다. 그때서야 도이췰란드놈들은 진짜전쟁이란 어떤것인가를 맛보았다.…

어려운 나날이 닥쳐왔다. 쓰딸린그라드격전이후에 도이췰란드는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였으며 꾸르쓰크전투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제국군대가 승리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뒤숭숭한 시기에 임메르만과 와그네르의 가정이 서로 알게 되였으며 그것이 곧 공고한 결합을 이루게 되였다. 와그네르교수는 련합회사 《화르벤웨케》의 화학실험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들 리하르드도 거기서 일자리를 잡았다.

환니도 례외로 되지 않았다. 동생 임메르만이 환니에게 홀딱 반해버린것이다. 폭군인 아버지는 한때 맏딸의 장래를 망쳐먹었지만 이번에도 또 막내딸에게 의향을 묻지도 않고 루돌프 임메르만에게 딸을 주기로 수락해버렸다. 환니는 약혼자를 거절할 용기를 내지는 못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젊은 미망인이 되고싶지는 않아요. 그러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시집을 가겠어요.》

루돌프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대로 조건을 내놓았다. 《나는 약혼녀를 잃어버리고싶지 않기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는 나한테서 일해야 하오. 나의 가상적인 적수들이 약혼녀를 채려고 게스타포에 나타날 엄두는 내지 못할테니까.》 루돌프는 롱담반 진담반으로 말했다. 조건이 수락되여 환니는 게스타포의 번역원이 되였다.

물론 환니는 정치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데 대한 개념은 가지고있었다. 게스타포가 잔인하다는 소문은 이전에도 들은바 있지만 그는 모든 소문이 전적으로 맞는것은 아니라고 남몰래 자기 위안을 했다. 이러저러한 출판물이나 책들에서 자기 적수들에 대한 온갖 비방중상을 고의적으로 류포시킨 실례들은 얼마든지 있는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 구렁텅이에 직접 발을 잠근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더는 의심할 여지없는것으로 되였다. 그는 일생을 두고 처음으로 게스타포요원들의 비인간적잔인성은 물론 파시즘의 비렬성, 비도덕성도 확신하게 되였다.

처녀는 자기의 운명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았다. 게스타포에서 비록 문건자료들을 번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저도모르게 거기서 빚어지는 죄악의 공모자로 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되자 환니는 파시스트들을 도울대신 그자들이 죄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방해해보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유감스럽게도 처녀는 무엇부터 시작할지 알지 못했다. 물론 그는 번역할 때 원문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외곡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파시스트의 《원쑤》들에게 도움이 되겠는지 의심스러웠다.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사심없는 원조를 주었을 때 그것을 선량한 소행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평화시기에는 물질, 정신적지원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는것이고 전쟁시기에는 군인포로들에게 주는것이다. 파시스트들은 포로에게 그런 선심을 쓸수 없다. 그러나 선량한 환니는 이 길을 택하여 파시스트범죄에 가담한 자기 죄과를 감소해보려고 했다. 이런 대담한 결심을 내린이상 자기가 노력을 기울일수 있는 합당한 대상을 선택해야 했다. 바로 그럴 때 루돌프가 환니를 뚜르하노브를 심문하는데 통역으로 초청했다.

모스크바에 체류했던 3년간의 생활은 환니의 기억속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보니 쏘련사람들에 대한 아무리 선명한 형상도 차차 흐려져 잊혀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뚜르하노브와 만나고보니 쏘련인민에 대하여 이미 알고있던 모든 좋은점들이 처녀에게 다시 상기되였다. 오늘날 처녀의 눈앞에 얼씬거리는 젊은이들과 대비해볼 때 뚜르하노브는 난쟁이속에 있는 진짜 갈리버처럼 환니에게 느껴졌다.

첫번째 심문은 3시간이상 계속되였으나 그동안 환니는 쏘련대좌의 얼굴에서 공포의 징후는커녕 흥분하여 심각해진 표정도 찾아볼수 없었다.

(쏘련사람들이란 바로 저런 사람들이다!) 환니는 한량없는 기쁨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꺾어도 꺾이지 않고 마사도 마사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는 바로 저런 사람들의 앞길에 드리운 위험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열중한 환니는 한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지도 못했다. 환니는 뚜르하노브를 다시, 또다시 보고싶었으나 루돌프는 어째서인지 처녀를 그의 심문에 통역으로 청하지 않았다. 두차례나 환니는 자기 약혼자에게 이것을 상기시켰으나 루돌프는 매번 그의 표현대로 하면 소소한 범죄자를 심문할 여가가 없다고 회피하군했다. 하지만 뚜르하노브의 사건은 참으로 중대시되고있었다. 환니는 슈와이쩨르가 스위스에서 돌아온지 이틀이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였다. 밤 2시에 환니를 잠자리에서 일으켜 옷을 입을 틈도 주지 않고 시급히 게스타포로 데리고갔다.

수인들을 개다루듯한다는것을 환니는 알고있었으나 이전까지는 직

접 눈으로 본 일이 없었다. 이 불우한 밤에 처녀는 일생 처음으로 교형리들이 하는짓을 목격할수 있었다. 자동차가 감옥문앞에 서자 루돌프는 거의 강제적으로 환니를 차에서 끌어내려 손을 잡은 다음 통행증검사의 격식도 무시하고 차렷자세를 하고 서있는 보초의 곁을 지나 곧장 지하실로 이끌어갔다.

《용서하오, 환니!》 루돌프는 걸어가면서 속삭이였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 무엇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오. 우린 뚜르하노브에게 그 어떤 악질범죄자라도 입을 열게 하는 마취제를 주입했소. 그자는 말하기 시작했으나 통역원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오. 10～12분 지나면 마취제의 효력이 끝나 잠이 들거요. 그자가 잠들기전에 말을 시켜야겠소.》

이렇게 말하면서 루돌프는 환니를 심문실로 특별히 지은 철근콩크리트의 창고로 데리고갔다. 여기에는 창문이 없었다. 그래서 게스타포요원들은 언제나 전등불을 켜고 《일》을 했다.

담배연기가 자욱한 창고안에는 숨막힐듯한 담배연기냄새외에 또 어떤 들척지근한 냄새가 더해져서 처녀는 구역질이 났다. 루돌프는 처녀에게 찬물 한고뿌를 주었다. 물 한모금을 들이킨 환니는 한결 정신이 맑아져서 지정된 책상앞에 앉았다. 거기에는 또 두 사람, 상급예심원 슈와이쩨르와 대위제복을 입은 낯선 에쓰에쓰장교가 앉아있었다. 그러나 그가 로도사전을 뒤지고있는것으로 보아 번역원인듯싶었다. 원탁너머에는 흰 위생복을 입은 뚱뚱한 사나이가 앉아 그의 앞에 놓여있는 빈 주사기를 들여다보며 무엇인지 궁리하고있었다. 십중팔구 그 사람은 감옥의사일것이다.

뚜르하노브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고문할 때 쓰는 특별의자에 묶이여있었다. 죽은듯 창백한 얼굴에는 금방 흘러내린 피자국과 크지 않은 상처가 뚜렷이 드러나보였다. 왼손가락들의 손톱밑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눈은 부어올랐으며 입술은 맞아서 터져있었다.

《정신을 차리오, 환니!》 루돌프가 몇차례나 처녀의 팔소매를 잡아흔들었다. 《어서 저 사람에게 로어로 번역해주오. 까나리스해군대장이 감옥에 감금되여있으며 이미 자기의 배신행위를 인정하고있다고말이요. 그의 충실한 방조자인 플랑크대좌는 당신들을 거쳐 모스크바에 비밀정보를 제공했다고말이요. 그러니 언제 어떻게 당신들이 까나리스나 플랑크와 련계를 가졌는가 말하라고 하시오.》

환니는 책임자의 말을 로어로 정확히 옮겨주었다.
고층건물의 지붕 한끝에 서있는 몽유병자처럼 뚜르하노브는 처녀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후에 눈을 뜨고 환니가 알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자가 뭐라고 중얼거리오?》 루돌프가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저 사람은 생소한 언어로 말을 하고있어요.》
처녀가 대답했다.
《저 사람에게 우리의 질문에 로어로 대답하라고 하오.》
환니가 그렇게 전달했으나 뚜르하노브는 여전히 그 언어로 말을 했다.
뚜르하노브가 까나리스와 프랑끄, 보겐스끼백작과 그 무슨 마뜨꼽쓰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것으로 보아 지금 그가 자기들의 질문에 대답하고있음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알아듣지 못할 언어였다.
《무슨 언어로 그 사람이 대답하는가 물어보오.》 책임자가 명령했다.
《나의 모국어인 츄와슈어로 말하오.》 통역원의 말을 듣고 뚜르하노브가 츄와슈어로 대답했다.
비록 환니가 츄와슈어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수 없었지만 모스크바에서 공부할 때 지리시간에 그 소수민족의 이름을 여러번 들은 일이 있으며 지금 뚜르하노브가 츄와슈어로 말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환니가 자기의 짐작을 책임자에게 말해주는동안에 갑자기 뚜르하노브의 머리가 아래로 푹 기울어졌다. 감옥의사는 곧 그에게 달려가 눈을 뒤집어보고 맥박을 짚어본 다음 무겁게 한숨을 지었다.
《잠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게스타포책임자의 말없는 질문에 대답했다.
《깨울수는 없소?》 루돌프가 물었다.
《불가능합니다. 교수의 말에 의하면 마취제는 5～6시간이상 작용할수 있답니다.》
《괜찮구만!》 슈와이쩨르가 환성을 질렀다.《서둘러 츄와슈어를 아는 사람을 찾읍시다. 그리고 다시한번 심문해봅시다.》
《저 사람이 당신들에게 더는 필요없으면 다시 써보시지요. 교수는

마취제를 반복사용했을 때는 실험대상자를 죽인다고 엄격히 경고했습니다.》 의사가 알려주었다.

루돌프 임메르만은 생각에 잠겼다. 해군대장 까나리스의 련루관계를 들추어내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몇백명의 죄수라도 죽도록 고문할수 있었다. 그러나 뚜르하노브만은 톰슨씨의 손에 상하지 않은채로 고스란히 넘겨주기로 형에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는 마취제고문을 반복하는 모험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저자는 우리에게 아직 필요한 인물이요.》그는 주변사람들에게 말했다. 《저자의 사건은 내가 직접 맡겠소. 전옥에게 내 승인이 없이는 간수 바르바로쓰외에 다른 사람은 누구도 그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하라고 전하시오. 이젠 집으로들 돌아가시오. 당신은 내가 태워다주겠소.》

그는 약혼녀를 쳐다보며 덧붙여 말했다.

제 3 장

옛 오스트리아—체스꼬와 슬로벤스꼬 국경으로부터 볼따와강우안에서는 벌써 1944년 봄부터 공산주의자들이 얀쥐슈끼빨찌산부대를 조직했다.

부대지휘관은 이전 체스꼬군 장교였던 쓰똘리체크소위였다. 부대는 크지 않았다. 부대의 상시적인 인원은 겨우 열여섯명이였다. 그리고 개별적인 작전들을 진행할 때 참가하는 가까운 림산사업소의 공산당지하조직성원 열명이 더 있었다. 열명의 보충병력은 자기 과업을 끝낸 다음 림산사업소로 돌아가 새 작전이 있을 때까지 거기서 일했다.

가을에 부대는 쏘련빨찌산운동사령부와 무전으로 련락을 맺게 되였다. 부대장 쓰똘리체크는 도이췰란드군과의 충돌, 슬로벤스꼬빨찌산에 넘어온 쏘련군포로의 수효,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도이췰란드침략자들의 토벌기관에 협력한 지방주민—배신자들을 처단한 경위를 보고했다.

바르쑤꼬브장령은 얀쥐슈끼빨찌산부대참모부에 쏘련락하산륙전대가 슈바흐산줄기에 착륙하는 지점을 알려주고 륙전대원들을 맞아서 그들이 도이췰란드주둔지역과 멀리 떨어지거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수림속에 상설기지를 설치하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체스꼬빨찌산들은 자기의 국제주의적의무를 수행하여 높은 산경사지에 몇개의 토굴과 참호를 굴설했다. 산 맨 꼭대기에는 통신소와 감시소를 설치했다. 여기에는 깊은 수림속으로 자취를 감춘 오솔길로 해서야 들어갈수 있었다. 기지를 꾸리는데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것이다.

미래의 기지로부터 10키로메터 떨어진 초원에 착륙한 첫 대오의 륙전대를 쓰똘리체크부대장자신이 몇사람의 빨찌산과 함께 맞이하였다. 전투기재가 담긴 상자들과 중무기, 예비식료품들을 말에 실었다. 기지로부터 1키로메터구간의 비밀오솔길은 높이가 10메터이상되는 돌벼랑에로 나있었다. 말에서 짐을 부리워야 했다. 부대장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즉시에 꼭대기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후에 사람과 짐을 들어올리는 교묘한 장치가 내려왔다.

《우리가 만든겁니다.》 쓰똘리체크가 말했다. 《우리 기중기의 적재능력은 약 2백키로그람입니다. 두 사람이 관리합니다. 그들이 기계설비와 숙영지로 들어가는 길을 지킵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이 길을 알고있는가요?》쏘꼴로브가 물었다.

《눈치는 채고있습니다. 그러나 그자들은 한번도 여기에 와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냥군들과 기마순찰원들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수상한자들이 나타나면 언제나 우리에게 제때에 알려줍니다.》

벼랑의 펀펀한 꼭대기로는 맨먼저 쏘꼴로브와 빨찌산부대장이 실려올라갔다. 쓰똘리체크는 쏘꼴로브에게 륙전대원들의 기지로 될 지역의 독특한 입구를 지키고있는 두 대원을 소개했다. 그다음에 가파롭고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따라 참호로 인도해갔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벌써 겨울해가 산꼭대기를 비치고있었다. 쏘꼴로브는 참호와 토굴, 감시소, 통신결속소를 돌아보았다.

이 모든것은 자기 사업에 정통한 사람들이 여기에 오래 묵게 될 상당히 많은 인원에게 최대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어놓았다는것이 알리였다.

《동무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그는 빨찌산부대장의 손을 잡았다. 《동무들이 우리를 위해 갖추어놓은것은 우리의 기

대를 훨씬 릉가합니다. 오늘 바르쑤끄브장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체스꼬사람들은 모두 해방자인 쏘련군대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소박한 봉사가 동지들의 마음에 드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또 도울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쓰똘리체크는 륙전대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쓰똘리체크는 일반적인 정황을 통보한 다음 자기 부대 주둔지로 가는 길을 가리켜주고 빨찌산대원들과의 련락군호를 알려주었다.

그는 끝으로 안내자를 보내주마하고 약속하고 숙영지를 떠났다.

륙전대원들은 투하된 물건들을 기지로 끌어가는데 2시간이상 걸렸다. 나머지시간은 숙영지를 정비하는데 썼다. 저녁녘에야 빨찌산운동사령부와 무전결속을 했다. 바르쑤끄브는 수자암호로 륙전대 두번째 대오가 일기관계로 늦어 리륙하게 된다는것을 알리고 제1조가 무사히 기지에 도착한것을 축하했다. 그리고 쏘꼴로브에게 작전계획의 제1단계에 착수하여 정찰을 진행하고 지방지하공작원들과 련계도 맺으라고 지시했다. 예견한대로 첫날은 이렇게 지나갔다.

지휘관은 보초를 임명하고 그 교대순서를 정한 다음 기타 인원들에게 휴식명령을 내렸다.

적후에 착륙시킨 선발된 인원은 대체로 면밀히 검토하였지만 그렇다고 집단에 변질한 인간들이 새여들지 않았다고 완전히 담보할수는 없는것이다. 쏘꼴로브의 별동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에 감시소근처에서 울린 커다란 욕지거리와 고함소리가 륙전대원들의 단잠을 깨웠다. 토굴에서 뛰여나온 륙전대원들은 눈에 거슬리는 광경을 보게 되였다. 륙전대원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고있었다. 그중 한사람은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조의 조장인 륙군중위 얀 쁠라호뜨까였고 다른 한사람은 오스트리아조의 조장인 알프레드 룽게였다.

《싸움을 그치시오!》 쏘꼴로브가 두 사람에게 달려가서 소리쳤다. 《정신이 나가지 않았소? 당장 그만두시오!》

지휘관의 목소리를 들은 룽게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차렷자세로 굳어졌다. 그러나 악에 받친 쁠라호뜨까는 그 순간 그의 머리에 된타격을 안겨 그는 비칠거렸다. 달려온 오스트리아사람들이 붙들지 않았던들 틀림없이 그는 땅에 쓰러졌을것이다.

《이 저주로운 파시스트놈아! 이번엔 상통을 갈길테다!》뽈라호뜨까가 악의에 차서 눈을 번뜩이며 소리질렀다. 《이건 너희네 그 에쓰에쓰병정놈들이 아니라 붉은륙전대원이란말이다. 여기선 손찌검이 허용안된단말이다.》

《그럼 어떤놈이냐?》룽게가 체스꼬사람을 증오에 차서 노려보며 물었다. 《그래 넌 남의 식탁의 찌꺼기나 주어먹으면서도 늘쌍 배고파하는 더러운 개가 아니란말이냐? 너절한 밀정같으니!》

뽈라호뜨까는 단도를 틀어쥐였다. 그러자 룽게는 총집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동지들이 곧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각각 딴 방향으로 끌어갔다.

륙전대원들은 두 패로 갈라졌다. 한패는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인들이였고 다른 패는 오스트리아와 도이췰란드인들이였다. 두 패는 서로 자기 조장에게 사건경위를 묻기 시작했다.

쏘꼴로브는 달아오른 열을 제때에 끄지 않으면 임의의 순간에 민족적적대감의 불길이 터져오를수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직일병!》그가 불렀다. 《두 사람을 체포하시오! 나머지 인원은 참모부에 모이도록 하시오!》

직일병은 두 사람을 구금하여 뽈라호뜨까는 도이췰란드사람에게 보초를 서게 하고 룽게의 보초는 슬로벤스꼬사람에게 맡겼다.

(이것이 무얼 의미하는것일가?) 쏘꼴로브는 참모부 참호로 들어가며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둘중의 하나다. 저 사람들이 그 어떤 개인복수를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최근년간에 나치스도당이 극력 조장해놓은 체스꼬인과 오스트리아인사이의 오랜 민족적적대감의 결과로 이 싸움이 벌어진것이다. 과거의 이 더러운 잔재가 우리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방해로 되지 않게 하자면 온갖 민족주의의 발현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명령만으로는 많은것을 달성할수 없다. 우리 동무들의 민족적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민족주의적오물이 터무니없는것일뿐더러 해독적이고 따라서 우리 집단에서는 허용될수 없다는것을 빨리 확신시킬 묘안을 생각해내야 한다.)

휴식하고있던 대원들이 곧 참호로 들어왔다. 피검자들의 말을 각각 들어보기로 했다. 직일병이 우선 뽈라호뜨까를 데리고왔다.

《뽈라호뜨까동무, 어째서 룽게동무와 다투게 되였는지 이야기해

보오.》 그에게 물었다.

《룽게는 나의 동무가 아니요. 동무들에게도 그럴거요.》 뿔라호뜨까가 말을 시작했다.《나는 나의 마지막숨이 끊어질 때까지 체스꼬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도이췰란드놈과 싸우려고 여기에 왔소. 그런데 룽게는 나에게 파시스트놈을 찾아가 그자들을 비밀리에 여기로 안내해오자고 하였소. 이런 말을 듣자 나는 그만 격분하여 싸움을 하게 되였소.》

《원, 이전 에쓰에쓰의 악당을 다 믿다니. 그놈은 피냄새를 맡자마자 자기 임무도 잊고 파시스트에게 달아나려고 했군.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체스꼬병사 한사람이 성나서 침을 뱉었다.

《난 그 짐승같은놈들을 알고있어.》 다른 체스꼬인병사가 끼여들었다. 《내 생각같아선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을것 같애. 대오앞에 끌어내다가 쏴갈기자구.》

《서두르지 맙시다.》 꾸르트 리베르만이 말했다. 그는 쏘꼴로브가 지방지하조직원들과의 련계를 맺는데 특별한 기대를 걸고있는 린츠 시태생의 오스트리아사람이였다.《한 인간의 생사를 판가리할 때에는 관계자들의 말을 다 들어야 하오.》

《옳소!》 나머지 병사들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알프레드 룽게를 데려왔다. 그에게 싸운 원인을 물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 서슴없이 자기 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변절을 시도해서가 아니라 밀정에 대한 태도에서 자기가 확고하지 못한탓이라는것을 터놓았다.

《나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불을 지내 땐 토굴안이 무더워서 바람을 쏘이려고 밖으로 나갔지요. 이웃토굴에서 뿔라호뜨까가 나왔습니다. 우린 서로 인사를 하고 함께 산보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전쟁전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난 또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 지방태생이며 이 근방에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것을 알게 되자 길잡이없이도 내가 린츠-체스께-부도이위쩨신작로를 찾아갈수 있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난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지요. 〈가까이에 도이췰란드수비대가 없을가 ?〉하고 그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난 〈자넨 어디에 도이췰란드수비대가 없는가고 묻는게 좋을거네. 그자들은 매 도시, 매 철도역, 매 로동자지구에 남아돌아갈 정도로 많아.〉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감시소에 다가갔을 때 그 사

람은 〈여기에 앉았다 가지 않겠나? 나에겐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네.〉 하고 제의하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진대나무에 걸터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투 다가앉아 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떠오르는 해빛에 반사된 그의 눈은 사납게 번쩍이였습니다. 나는 그때 꼭 찍어말할수는 없지만 뭔지 그의 거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물러나 앉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넨 우리의 이 모험적인 시도가 성공하리라고 믿나?〉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자넨?〉 하고 내가 질문으로 대답했지요. 〈믿지 않네.〉 하고 그 사람이 고백하더군요. 〈이렇게 인원수도 작고 오합지졸인 부대를 가지고는 빨찌산운동사령부의 과업을 절대로 수행해내지 못하네. 여기서 우린 전멸하게 될거네. 아무런 값도 없이 죽게 된단말이야. 로씨야인들이 우릴 죽음터로 내몰거네.〉 그 사람은 코방귀를 뀌였습니다. 〈자네 그 말이 진심인가?〉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 물론이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풍족하게 살아가던 내 조국 체스꼬나 자네네 오스트리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알지도 못할 그 무슨 쏘련대좌를 위해 죽게 될것이 원통하네. 한사람때문에 20여명의 사내대장부가 죽다니. 그래 이게 공정한가?〉 나는 그 사람이 자기 주장으로든 남의 지시를 받고 하든 우리가 다진 선서에 대한 나의 충실성여부를 시험해보려고 한다는것을 깨닫고 그의 기도를 끝까지 캐여보려고 일부러 동감하는체하기로 했습니다. 〈어찌겠나, 우리 팔자가 그런걸.〉 하고 나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도 역증이 났어. 하는 일없이 시들어죽어가기보다 싸움에서 죽는게 더 낫지.〉, 〈친구, 잘못 생각했네.〉 그 사람은 열이 올라 속삭이였습니다. 〈출로가 있네. 출로는 우리자신에게 달렸어. 이 전쟁은 우리 체스꼬인이나 자네네 오스트리아인들에게는 매한가지로 필요없는거야. 도이췰란드인과 로씨야인들이 어서 싸우라지. 우린 그들에게서 달아나야 하네.〉 〈어떤 방법으로?〉 하고 내가 그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는체했습니다. 〈자넨 이 저주할놈의 숲속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알지 않나. 저자들이 코를 골고있는사이에 우린 기지를 떠나 도이췰란드사람들을 찾아보세.〉 하고 그 사람이 제의하였습니다. 〈우리 둘을 게스타포에 잡아가게 하라고?〉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근심

말게. 우리가 붉은륙전대에 대해서와 여기로 오는 길을 알려주면 처벌할대신 큰 상을 줄거네.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서 떠나세.〉그자는 일어서면서 제의했습니다. 나도 일어서면서 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세. 그러나 파시스트가 아니라 우리 지휘관에게 가서 동지를 팔기 위해 숙영지를 한때 리탈한데 대한 처벌을 달라고 하세.〉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자는 빠져나가려고 안깐힘을 쓰고 나는 참모부참호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지요. 그다음것은 동무들이 본것입니다.》 룽게는 자기 진술을 끝냈다.

뽈라호뜨까는 몇차례나 진술자의 말허리를 끊으려 하였으나 동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룽게가 진술을 끝내자 그는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엉터리없는 비방중상이라고 락인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참가자들의 의견은 같지 않았다. 체스꼬인들과 슬로벤스꼬인들은 자기 동향인을 더 믿었고 도이췰란드인들과 오스트리아인들은 론쟁에서 룽게편을 들었다.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론쟁이 어느쪽에 유리하게 기울어지든지 그것은 의견상이를 일으킬수 있었고 륙전대원들속에서 반목을 일으켜 후과를 낳을수 있었다. 쏘꼴로브는 민족적감정의 저촉으로 일어난 충돌을 가라앉히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있었다. 이러한 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최대한 객관적인 립장을 취하고 오직 론박할수 없는 증거에 의거하여 결론을 지어야 했다. 충돌경위를 지켜본 증인이 없고 충돌한 쌍방의 진술이 서로 대치되는데야 어떻게 증거를 찾을수 있겠는가.

《지휘관동지!》 슬로벤스꼬인인 야누쉐크가 쏘꼴로브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중에 한사람이 우리를 배반하려 한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중에 누가 배신자인지 결코 알아낼수 없다는것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속에 배신자를 남겨둔다는것은 자기가 자기 목에 올가미를 씌우는것과 같은거지요. 공동위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배신자를 제거하자면 두 머저리들을 총살해야 합니다.》

《다른 동무들의 생각은 어떻소?》 쏘꼴로브가 참가자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난 반대요.》 리베르만이 단호히 언명했다.

《아무리 공동의 리익을 위해서라 해도 죄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오.》
《그럼 동무는 어쩌자는거요?》 야누쉐크가 물었다.
《뿔라호뜨까와 룽게는 아이가 아니요. 다시한번 물읍시다. 죄없는 사람을 함께 묘지로 이끌고가는것이 량심에 걸리지 않는가고 말이요.》
리베르만이 대답했다.
《내 생각엔 리베르만동무의 생각이 옳은것 같소.》쏘꼴로브가 자기 속생각에 소리없이 미소하며 말했다. 《뿔라호뜨까동무, 진실을 말하시오!》
《난 진실을 말합니다. 룽게가 죄인입니다. 저자는 이전 에쓰에쓰대원입니다. 저자의 손은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저자가 나를 죽이는것은 식은죽먹기일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저자가 〈토벌대〉를 여기로 끌어오겠다는걸 방해했거든요.》
뿔라호뜨까가 대답했다.
《룽게동무는 할 말이 없소?》 지휘관이 룽게에게 물었다.
룽게는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에쓰에쓰대원들은 자기 지휘관들의 비렬성과 잔인성으로 하여 일반 사람들의 믿음을 쉽사리 얻을수 없었다. 룽게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있었다. 지금 그는 륙전대원들에게 자기의 무죄를 인정시키기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진심으로 존경했고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 부하들의 성격상 우단점까지 똑똑히 가려볼줄 아는 통찰력있는 지휘관으로 숭배했던 쏘꼴로브조차 지금은 자기를 의심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못미더워하는것이 안타까왔다.
《나는 동무들이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렵고 또 그럴수도 없게 되였다는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역자를 살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살려두면 조만간에 륙전대가 전멸될테니까요. 공동의 위업을 위해서는 동무들이 야누쉐크동무의 제의를 받아들이는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총살하십시오. 죄없는 사람이 하나 희생은 되겠지만 그 대신 륙전대는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것이 아닙니까.》
룽게는 철학적으로 자기 말을 끝맺었다.
모두 쏘꼴로브가 유일하게 정당한 결론을 내리기를 바라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지휘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사실 이제는 그가

룽게를 더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뽈라호뜨까의 유죄를 선포할 론박할 수 없는 증거도 없었다. 그렇다고 의심 하나로 사람을 총살하는것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는것을 의미한다. 쏘꼴로브는 지휘관으로서 뿐만아니라 쏘베트사람으로서도 그렇게 할수 없었다.
《야누쉐크동무의 제의가 현명키는 하지만 우린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시다. 뽈라호뜨까와 룽게는 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이 어느 한 사람도 자기자신을 위하여 동지를 죽일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 동무들에게 다시한번 자기 처지를 생각해볼 기회를 줍시다. 다른 동무들은 새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시오. 빨찌산동무들이 보다 안전한 장소를 알선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낮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빨찌산동무들에게 갔다오겠습니다.》 지휘관이 자기의 결심을 말했다.

제 4 장

쏘꼴로브는 약속한 시간에 기지로 돌아왔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얀쥐슈끼빨찌산부대 부대장을 위시한 다섯명의 빨찌산과 함께 왔다. 두 빨찌산대원은 산림감시원의 옷차림을 하였고 나머지는 지방주민들의 옷을 입고있었다.
쓰똘리체크는 뽈라호뜨까와 단둘이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뽈라호뜨까가 아침에 있은 충돌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설복하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계속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다. 쓰똘리체크는 룽게와도 이야기해보았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도 역시 자기의 주장을 계속 했다.
그리하여 쏘꼴로브는 다른 륙전대원들과 토의를 하고 최종결심을 내린 다음 대렬앞에서 발표했다.
《륙전대원동무들!》 그는 륙전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앞에는 우리의 신임을 잃은 두 사람이 서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인을 정확히 짚을수 없기때문에 대오에서 두 사람을 다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 동무들에게 증명서와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부대를 떠나서 가고싶은데로 가라고 합시다. 린츠－체스께－부도이위쩨신작

로까지는 빨찌산동무들이 데려다줄것입니다. 거기서 가고싶은 곳으로 가라고 놓아줄것입니다. 떠나가는 동무들은 어제날의 전우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쏘꼴로브가 뽈라호뜨까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믿지 못하겠으면 내쫓으시오. 그렇다고 눈물은 흘리지 않겠소.》 뽈라호뜨까가 중얼거렸다.
쏘꼴로브는 룽게에게도 꼭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뚜르하노브대좌를 석방하도록 진심으로 동무들을 돕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군요. 어찌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쏘꼴로브는 뽈라호뜨까와 룽게에게 증명서와 돈을 내준 다음 빨찌산대원들에게 인계했다. 빨찌산대장은 신작로에 나갈 때까지는 두 사람의 손을 림시 묶으라고 명령했다. 벼랑에서 두 사람을 내려놓은 다음 산림감시원의 복장으로 갈아입은 빨찌산대원 두 사람이 곧게 뻗은 숲속공지를 따라 다져진 오솔길로 데리고갔다. 나머지 빨찌산대원들은 우측으로 돌아서더니 인차 숲속에 사라지고말았다.
룽게는 잠자코 걸었다. 그러나 뽈라호뜨까는 줄곧 호송병들에게 자기 손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 허나 상대방은 들은체도 하지 않았다. 앞에 자그마한 공지가 나타날 때까지 40분은 실히 걸었다.
빨찌산들은 숲언저리로 나설 때는 대게 아주 조심스럽게 처신하였으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두 사람을 공지로 끌고나갔다.
《누구얏! 손들엇!》 공지 맞은편의 소나무 숲속에서 도이췰란드어의 거치른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앞에서 걷던 빨찌산대원은 자동보총을 쳐들고 긴 련발사격을 했으나 곧 단발사격에 쓰러졌다. 뒤에서 걷던 두번째 빨찌산은 도이췰란드말의 웨침소리를 듣자 순간에 숲속으로 뛰여들어갔다. 룽게도 그 대원의 뒤를 따라가려 했으나 두손을 묶이운지라 숲속을 헤매다가 그만 잡히고말았다. 도이췰란드야전헌병대 복장을 한자들이 달려와서 그를 다시 오솔길로 끌어냈다. 뽈라호뜨까는 다르게 행동했다.
《쏘지 마시오!》 그는 도이췰란드어로 소리쳤다.
《나는 손을 등뒤로 묶이웠기때문에 당신들의 명령대로 손을 들수 없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는 헌병들에게 등을 돌려대고 묶이운 손을 보여주었다.

헌병들은 욕지거리를 하고 잔등을 막 떠밀어서 운수사나운 룩전대원들을 산림간수의 집으로 끌고들어갔다. 거기에는 헌병장교복을 입은 수염쟁이가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웬 사람들이요?》 장교가 물었다. 《다 붙들었소?》

《아닙니다.》 상급호송원이 대답했다. 《한놈은 숲속으로 도망치고 다른 한놈은 죽어서 공지 한끝에 쓰러져있습니다. 모든 점으로 보아 그자들은 빨찌산들같습니다. 죽은자에게는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이자들한테는 우리 군대 제대증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헌병은 포로들에게서 빼앗은 돈과 증명서를 자기 상관에게 바쳤다. 그자는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알프레드 룽게, 에쓰에쓰중좌》 장교는 읽어내려갔다. 《부상당한 후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시킨다. 당신은 에쓰에쓰장교인데 어떻게 빨찌산에 가게 되였소?》

《난 당신들을 모르며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겠소.》

룽게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좋소. 다음에 이야기하오. 당신은.》 헌병장교는 쁠라호뜨까에게 물었다. 《할 말이 없소?》

《난 다 말하겠습니다.》 쁠라호뜨까가 서둘러 동의했다. 《로씨야사람들은 락하산룩전대원들을 투하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이걸 예고해주려고 했댔는데 룽게가 나를 억제했습니다.》

《룩전대원들은 많소? 그리고 어디에 착륙하였소?》 장교는 어째선지 쁠라호뜨까가 아니라 로골적으로 그와 등지고 서있는 룽게에게 물었다.

《첫 조로 열명이 내렸는데 지금은 여덟명이 남았습니다. 지휘관은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겠지만 만일 서두르기만하면 그자들을 따라잡을수 있습니다. 내가 길을 대주겠습니다.》

《당신은 길을 안내주겠소?》 헌병대장이 또다시 룽게에게 물었다.

《아니, 난 비렬한이 아니요.》 룽게가 짧게 대답했다.

《저자를 숲속으로 끌어내다가 총살하시오!》 헌병장교가 룽게를 가리키며 한 헌병에게 명령했다. 《그런 다음 재빨리 마을로 가시오. 거기에는 〈토텐코프〉사단의 에쓰에쓰중대가 있을거요. 중대장에

게 한개 소대만 여기로 파견해주도록 부탁하시오. 붉은룩전대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추격해봅시다.》

《알았습니다!》 헌병은 구두뒤꿈치로 딱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룽게를 자동보총으로 거칠게 떠밀며 숲속으로 이끌고갔다.

뿔라호뜨까는 온몸을 떨었다. 장교가 잘 헤아려보지 못하고 자기도 룽게처럼 처리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험이 인차 지나가버렸다.

《이자는 손을 풀어주고 종이와 만년필을 주시오. 자서전을 쓰라고 하오. 쏘련룩전대에 어떻게 들어갔으며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를 특히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오.》 장교가 지시했다. 《만일 쓰지 않겠다고 하면 물어볼것없이 총살하시오.》

장교는 뿔라호뜨까가 대화에 끼여들려고 급히 일어서려는것을 보고 이렇게 덧붙였다.

《전 죄다 쓰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하는걸 죄다 하겠습니다. 장교님!》 뿔라호뜨까가 비굴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전 충성과 진실로써 당신들에게 복무하겠습니다.》

돌연히 숲에서 룽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유 오스트리아 만세! 도이췰란드파시스트에게 죽음을!》

그러자 뒤이어 두차례의 짧은 자동총련발사격소리가 울렸다. 헌병장교는 그 무슨 웨침소리가 또 들려오지 않는가 하고 기다리는듯 한참 잠자코 있었으나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끝장이 났군.》 장교가 말하고 이마를 문질렀다.

제 5 장

얀 뿔라호뜨까는 중학교 습자시간에조차 헌병제복을 입은 사람의 감시하에 자서전을 쓰고있는 지금처럼 한자한자 정력을 들여 쓰지는 않았었다.

그해에 그는 말로나 서면으로 자서전을 내야 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빨찌산운동사령부에서 룩전대의 리력문건을 작성할 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서전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때도 그 이전에도 그의 아버지가 20년이상을 쁘라하감옥에서 간수로 일하였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폭동을 일으킨 수감자들의 손에 맞아죽기전까지 감행한 반인민적악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썼다. 계속하여 뿔라호뜨까는 이렇게 썼다. 《우리 사단에는 예비병모집절차에 따라 도이췰란드국방군에 들어간 체스꼬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중의 대다수는 도이췰란드사령부의 신임을 얻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감시가 일상적으로 있었습니다. 나도 게스타포의 비밀요원으로서 이 사업에 인입되였습니다. 어느날 여덟명의 체스꼬병사들이 밤에 붉은군대편으로 도주하자고 모의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 사실을 지휘관에게 알리면서 나도 그자들과 함께 체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을 협조한걸 아무도 모르게 하자는것이였습니다. 우리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침이면 게스타포에 넘기게 되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로씨야놈들이 갑자기 공격해왔습니다. 우리 중대는 대번에 포위되여 붉은군대에게 항복했습니다.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와 쏘련인민사이의 친선군중대회에서 우리의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체스꼬포로들이 그때 그 군중대회에서 스워보다장군의 려단에 들어갈것을 자원하였습니다. …》

계속하여 그자는 언제, 어떻게 되여 륙전대에 들어가게 되였는가를 썼다. 《나는 아버지를 죽인 공산주의자들을 가혹하게 복수할것을 언제나 갈망했습니다. 도이췰란드후방에서 어떤 작전을 벌리기 위해 륙전대를 조직한다는것을 안 나는 륙전대가 락하산을 타고 내리자마자 도이췰란드사람들이 륙전대를 일망타진하도록 도울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당신들이 총살한 그 룽게가 나의 기도를 실현시킬수 없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이전 에쓰에쓰장교인 그를 나는 믿었으며 나의 비밀을 털어놓고 함께 기지에서 달아나 도이췰란드부대를 찾아가서 륙전대가 어디에 숨어있는가를 알려주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자는 함께 달아나자는 나의 희망을 시인할대신 나의 손을 꽉 틀어잡고 지휘관에게 끌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륙전대원들은 잠을 깨고 우리를 체포하였습니다. …》

뿔라호뜨까는 자서전을 쓰는데 옹근 1시간이나 끙끙거렸다. 드디여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다음 오자와 부정확한 곳을 고치면서 쓴것

을 다시 읽어내려갔다.

(이젠 도이췰란드에 대한 나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겠지.) 그는 흥에 겨워 생각했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충실한 방조자를 평가할줄 알거든. 붉은륙전대를 넘겨준 공로로 나에게 상을 내릴게다. 령리한 사람에겐 전쟁도 나쁠게 없다고 한 아버지의 말이 옳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자는 문가에 서있는 헌병에게 다가가서 자서전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책임자에게 보여주시오.》 그가 말했다. 《고칠데나 보충할데가 있다면 책임자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헌병은 종이장들을 받아쥐더니 《기다리시오!》 하고는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어디론지 가버렸다.

한시간가량 기다렸다. (왜 그 사람들이 꾸물거릴가?) 뽈라호뜨까는 놀랐다. (륙전대원들을 추격해야 할텐데. 길안내자로 내가 필요할텐데. 어째서 나를 부르지 않을가?)

드디여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의 자서전을 들고갔던 그 헌병이 문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헌병의 복장이 아니라 보통농민의 옷을 입고있었다.

《뽈라호뜨까씨!》 그가 불렀다. 《갑시다. 당신을 기다리고있소.》

《당신은 체스꼬말을 아는가요?》 배신자가 깜짝 놀랐다.

《필요하면 아무 말이나 배우게 되지요. 요구되면 로어로도 뽈스까어로도 말할수 있지요.》 젊은이가 쾌히 대답했다.

뽈라호뜨까가 또다시 질문을 하려 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급작스레 총을 겨누며 방에서 나오라고 호통쳤다. (뭔지 여긴 께름직한데…) 뽈라호뜨까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충성을 보이려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보려 하지 않는군. 나의 자서전을 읽지 않은게 아닌가?)

옆방의 문이 열렸다.

《들어오시오!》 헌병장교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워마오, 뽈라호뜨까씨, 여기엔 파시스트가 아니라 당신의 고향사람들이 있소.》

뽈라호뜨까는 어리둥절했다. 뜻밖에도 방안에는 헌병이 단 한명도 없었다. 책상앞에는 빨찌산 부대장 쓰똘리체크와 륙전대 대장 쏘꼴로브 그리고 륙전대원 알프레드 룽게가 앉아있었다. 거기에는 뽈라

호뜨까와 룽게를 신작로까지 호송할 임무를 지니였던 산림감시원복장의 두 젊은이도 있었다.

(제길할것!) 뻘라호뜨까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난처한 처지에 빠졌군. 구원될 길이 더는 없다. 쏘꼴로브가 나를 속여넘겼군. 반항해야 무의미하다. 저자의 발치에 엎드려 빌면 용서하겠는지.)

《용서해주시오. 동지들!》 그는 무릎을 꿇고앉으며 웨치기 시작했다. 《내가 자백한 내용을 믿지 마시오. 그건 내가 너무 놀라서 꾸며낸 말이요. 목숨만 살려주면 당신들에게 충성과 진심으로 복무하겠다는걸 명예를 걸고 맹세하오.》

그는 대답을 기다리며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엄격한 심판관들은 동정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배신자는 겁쟁이들이 즐겨쓰는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당신들이 날 동정하지 않는다는것을 난 압니다. 내가 아니라 앓는 처와 두 철부지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우.》

《뭣이 어째?》 쓰뚤리체크가 내쏘았다. 《네놈이 여기로 토벌대를 끌어왔더라면 그래 우리 아이들을 고아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을텐가? 배신자에게는 용서가 없다!》

뻘라호뜨까는 자기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그 누구의 눈에도 가엾게 생각하거나 동정하는 기색이 없이 모두가 멸시와 증오의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다.

《대위동지!》 놈은 쏘꼴로브를 보고 말했다. 《체스꼬와 슬로벤스꼬, 쏘련인민들간의 영원한 친선을 생각하여 당신만이라도 제편을 들어주십시오. 당신만이라도 나를 동정해주십시오!》

《나는 배신자의 동무로 된적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될수 없을거요.》 쏘꼴로브가 잘라 말했다. 《체스꼬와 쏘련인민사이의 친선이 이 친선의 비렬한 위반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한 구실로는 될수 없소. 당신의 운명은 지휘관인 내가 결정해야 하겠지만 체스꼬인민의 대표자인 빨찌산의 손에 넘겨주겠소.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것은 그들자신이 결정할거요.》

《목을 매답시다!》

《배신자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비겁한 원쑤에게 죽음을 주라!》 체스꼬빨찌산들이 웨쳤다.

제 6 장

배신자 쁠라호뜨까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문제는 작전계획에 예견되여있지 않은탓으로 별동대원들은 빨찌산운동사령부의 과업을 옹근 하루 늦어 착수하게 되였다. 밤에 쏘꼴로브는 정치부대장 꼬미싸로브가 인솔하는 륙전대 제2조를 맞이했다.

이 조는 기본적으로 쏘련공민들로 구성되였다. 그들은 대부분 한때 뚜르하노브빨찌산부대에서 싸운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모두 우수한 전투원이고 지휘관이였을뿐아니라 조국의 충직한 아들들이였다. 그들과 함께라면 반석에 올라앉은듯 마음이 든든했다.

착륙한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지만 꼬미싸로브정치부대장은 쁠라호뜨까사건에 대하여 벌써 알고있었다.

《결국 우린 아직도 경각성이 부족했단말이지요.》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였다. 《백주에 우리에게 적의 앞잡이가 잠입했는데도 우린 그걸 눈치채지 못했군요. 원쑤가 그다지 령리하지 못했기에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린 지금 여기가 아니라 게스타포감옥안에 갇혀있겠지요.》

《그럴수도 있었소.》 쏘꼴로브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 내 생각엔 원쑤의 실패는 그자의 우매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자보다 우월했다는것으로 설명되여야 할것 같소. 그자가 얼마나 요리조리 몸빼기를 했는지 보았더라면! 허지만 우린 끝내 그자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했소. 더구나 우린 특별히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제스스로 자기 죄과를 인정하게 했을뿐아니라 제 손으로 진술서까지 쓰게 하였단말이요.》

《어떤 방법으로?》 꼬미싸로브가 귀를 강구었다.

쏘꼴로브가 이야기했다.

《보다싶이 우린 원쑤놈들을 쉽게 업어넘겼소.》 쏘꼴로브가 웃었다.

《서운하겠지만 대장동지의 기지는 독창적인것이 못되지요. 벌써

공민전쟁시기 이름있는 붉은군대의 한 지휘관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 부하들의 배신행위를 검열하였으니까요.》
《그게 누구요?》 쏘꼴로브가 알고싶어했다.
《쎄묜 아브솨끄위치 까모지요.》 정치부책임자가 미소를 지었다.
《까모는 지원자들을 모집할 때 꾀를 써서 성과도 거두었지만 칭찬을 받지 못했지요. 지휘관은 꾀가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대원들을 감화시켜야지요. 더구나 범죄자를 적발하는 사업은 반탐기관, 군대검찰소, 야전재판소와 같은 전문기관들이 해야지요.》
《가르쳐주어 감사하오!》 쏘꼴로브가 웃었다. 《유감스럽게 우리에게 어디 그런 기관이 있소? 당신이 그런 기관을 데리고오지 않은건 우연일가.》
《비웃지 마시오!》 끄미싸로브가 반박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법률문제에서는 리해부족으로 본의아니게 돌이킬수 없는 오유를 범할수 있지요.》
《규약에 의하면 부대의 지휘관은 심문기관으로도 되는거요.》
《됐소.》 정치부대장이 손을 내저었다. 《대장동무가 이겼소. 승리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소. 차라리 다른 외국인 륙전대원들의 이야기나 하시오. 요즘 그들이 어떻게 지냅니까? 룽게동무부터 시작합시다.》
《진실을 밝히자고 그에게 어지간히 엄한 시험을 들이대기는 했지만 나는 그 동무를 한시도 의심한적은 없었소. 후에 나는 그 동무에게 용서를 빌었소. 그는 나를 조금도 노엽게 생각지 않더군. 다른 동무들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 의견도 없소. 모두 함께 일할수 있다고 생각하오.》
일군들은 시간을 가리켜 황금이라고 한다. 전쟁에서 시간은 황금보다 더 귀중하다. 전쟁에서는 시간을 해나 달로, 주일이나 날로도 재지 않는다. 흔히 시간이나 분으로, 아니면 초로도 재게 되는 것이다. 륙전대원들은 시간의 가치를 잘 알고있었다. 그러므로 소위 《뾜라호뜨까사건》이 결속되자 원방정찰에 선발된 사람들은 날이 밝기 훨씬전에 임무를 수행하려고 떠나갔다.
야누쉐크와 두 체스꼬인으로 구성된 제1조는 체스꼐－부도이위쩨시로 떠나갔고 쿠르트 리베르만을 중심으로 한 제2조는 상부 오스트리아의 린츠시까지 가야 했다. 그들은 부상을 오래 치료

하는 과정에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된 이전 도이췰란드국방군 병사, 지휘관의 증명서를 휴대하고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지방의 반파쑈지하조직들과 련계를 맺는것이였다. 그뿐만아니라 오스트리아인들은 룽게의 부모들을 찾아가서 아들이 곧 집에 돌아온다는것을 미리 알려줘야 했다.

정찰나갔던 사람들은 모두 맡은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했다. 체스께—부도이위쩨시의 지하조직원들은 이전 오스트리아와 체스꼬, 슬로벤스꼬국경의 자그마한 체스꼬인 마을에 있는 《숫병아리》식당을 접선장소로 정했다. 그 식당에는 이전 체스꼬군 퇴역대좌인 식당주인의 주위에 굳게 단합된 강력한 지하조직원 집단이 있었다. 그 지방사람들은 식당주인을 《케자르》라는 별호로 불렀다.

쿠르트 리베르만의 정찰조도 자기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했다. 이들은 린츠시의 지하조직과 련계를 맺었다. 공산당원들은 《푸른 두나이》식당을 접선장소로 지목했다. 거기서 쿠르트의 아버지는 10년이상 책임료리사로 일하고있었다. 그러나 이 정찰조는 기쁜 소식과 함께 슬픈 소식도 가지고왔다. 도시가 폭격당할 때 미국폭격기 《공중요새》가 던진 중폭탄 하나가 교원 룽게네 가족이 살고있던 집을 송두리채 파헤쳐놓았다. 이 집에서 살고있던 세식구중에서 한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알프레드는 이 사실을 몹시 가슴아파했다. 동지들의 애도의 말을 듣자 그는 토굴속에 틀어박혀 한주야이상 음식을 들지 않았으며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뚜르하노브가 감금되여있는 게스타포비밀감옥과 련계를 취할 가능성을 탐문하기 위해 두번째 정찰조를 린츠에 파견할 문제를 가지고 쏘꼴로브와 꼬미싸로브가 토의하고있을 때 그가 드디여 참모부에 나타났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저주로운 파시스트들이 일으킨 이 전쟁때문에 빚어진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모두가 멸망할것입니다. 반대가 없으시다면 전 일에 착수하기 위해 당장 린츠로 떠나가겠습니다.》 그가 제기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쏘꼴로브가 조용히 반박했다. 《동무가 몹시 고통스러우리라는걸 우린 모르지 않지요. 며칠 더 휴식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오. 그 다음에 일에 착수합시다.》

《전 이미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목표물에 빨리 접근하지 못할것입니다. 저를 붙들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제 7 장

룽게와 얀쥐슈끼빨찌산부대의 안내원은 아침 9시에 신작로에 당도하여 젓나무가지뒤에 몸을 숨기고 행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들은 마치 직기에 북이 나들듯이 앞뒤로 오락가락했다. 중량화물차도 뻐스도 각종 승용차들도 있었다.

《일에 착수합시다.》 길안내자가 속삭이였다. 《린츠시내쪽으로 2백보쯤 가다가 길로 나가십시오. 그러는동안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정기뻐스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거사〉할수 있을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길안내를 떠난 빨찌산대원들은 미리 준비해온 못판대기를 뻐스바퀴가 지나갈 자리에 던졌다. 곧 뻐스가 걸려들어 다이야 내피가 터졌다. 뻐스가 멈춰섰다. 려객들은 운전사가 다이야를 바꾸어넣는동안 밖에 산보하려고 나갔다. 그때 룽게도 도로에 나서서 아스팔트길로 걸어갔다. 곧 발동기의 동음이 들려왔다. 룽게는 뒤를 돌아보았다. 단봉락타같은 《베엠웨》승용차가 달려왔다. 차안에는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이 앉아있었다.

(두 사람이 타고있으니 한사람 더 탈수 있겠군.)

룽게는 손을 쳐들었다. 자동차는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룽게의 서너발자국앞에서 급정거했다.

《하일 히틀러!》 룽게가 웨쳤다. 《나를 린츠시까지 태워다주지 않겠습니까?》

《야전통신차에는 외인들을 태우지 못하게 되여있습니다.》 운전사 옆에 앉은 허약하게 생긴 중위가 머뭇거렸다. 《허지만 중좌님은 우리 사람이니 타십시오. 태워다드리겠습니다.》

룽게는 손님이 아니라 진짜주인처럼 뒤자리에 털썩 앉았다.

《중좌님은 저 뻐스를 타셨던 모양이군요.》 중위가 뒤를 턱질하며

물었다.
《그렇소.》 룽게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다와서 고장났소. 마음이 조급할 때에는 단 몇분간이라도 기다리고싶지 않단말이요.》
《중좌님은 먼데서 우리 도시로 오는 길인가요?》 중위가 물었다.
《지옥에서 왔다고 말할수 있소. 세해동안을 동부전선에서 싸웠소. 그 다음에는 중상을 당하고 병원생활을 했고. 인젠 쭉정이가 되였소. 군대에서 제대시켜 집으로 돌려보냈단말이요.》 룽게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었다.
《그러니 당신은 린츠태생인가요?》 중위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거기에 친척이라도 있는가보지요?》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소.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동안 미국폭탄이 우리 집에 떨어졌소. 한사람도 살아남지 않았다고 하오. 난 그걸 확인해보고싶소. 그리고 아버지의 묘에 꽃묶음이라도 가져다놓고 실컷 울어서 가실길 없는 슬픔이나 풀고저 하오. 그래서 고향 린츠로 급히 가는 길이요.》
운전사와 중위가 거의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중좌님, 당신은 알프레드 룽게가 아닌가요?》 중위가 물었다.
《바로 그렇소. 어떻게 알아맞혔소?》 룽게는 놀란 표정을 지어보였다.
《한달반전에 온 도시가 당신의 가정이 당한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였답니다. 그때 당신의 이야기도 하더군요. 이웃들은 〈아들은 로씨야사람들이 죽이고 그의 가족들은 미국인들이 죽였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당신은 부상만 당했었군요?》
《그렇소. 난 옹근 한달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맸댔소. 그러다가 조금씩 회복되여 겨우 살아났소. 그러나 이젠 더는 행복을 느낄것 같지 못하오.》
《어째서요?》
《나의 행복은 총통의 충직한 친위대인 에쓰에쓰부대에 있었소. 그런데 이젠 이렇게 년금을 받고 퇴역했으니 누구에게 내가 필요하겠소?》
《아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중위가 반박했다. 《당신은 민족영웅 헬무트 크라메르의 부관이였다는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당신들은 그것도 알고있는가요?》 룽게가 놀라와했다.
《당신네 가족들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헬무트 크라메르와 같은 탁월한 군사지휘관의 전우였다는걸 큰 행복으로 아십시오. 당신은 사단장이 자결할 때 그분과 함께 있었는가요?》
《같은 참호에 있었소. 그분은 내가 있는데서 안해에게 보내는 유서를 써서 나에게 넘겨주고 자총하였소.》
《당신은 지금 그 편지를 그의 부인에게 가져가는 길인가요?》
《그렇소. 편지는 여기 있소.》 룽게는 웃주머니를 툭툭 두드렸다. 《존경하는 지휘관이 최후에 남긴 말은 나에게 생명보다 더 귀중하오.》 룽게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소장이 최후에 남긴 말을 기억하시는가요?》
《그렇다뿐이겠소! 그런 말은 영원히 기억에 새겨지는 법이요.》
《그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호위소대중의 이십여명과 참모장교중의 지원자들을 데리고 아군에게로 뚫고들어가도록 해보오. 선량하고 충직한 나의 전우 룽게, 잘 있소! 하일 히틀러!〉 이게 그의 마지막말이였소.》
《아아! 그런 영웅적인 행동에 참가할수만 있다면 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을거요. 총통이 수표한 추도문에 〈영웅으로 살다가 영웅으로 전사했다. 잊을수 없는 나의 전우 크라메르! 민족은 그대를 자랑한다!〉라고 한것은 우연치 않지요.》
두나이강의 다리를 건너서자 자동차 《베엠웨》는 넓은 신작로를 따라 달리였다.
《당신을 어디로 태워다드릴가요?》 운전사가 물었다.
《윈네르슈트라쎄 44번지》 룽게가 대답했다. 《거길 아오?》
《그러잖구요!》 젊은 중위가 환성을 질렀다. 《민족영웅이 살던 집은 도시의 가장 이름있는 명승지로 되였는걸요. 우리 젊은 장교들은 그 집결을 지날 때는 언제나 민족의 성지를 참배하듯 거수경례를 합니다.》
고풍의 귀족적인 저택들이 서있는 넓은 거리를 질주하던 승용차가 한 철문앞에서 섰다. 그 철문뒤에 크라메르일가의 이층집이 보였다.

룽게는 중위와 그의 운전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차에서 내려 모자를 벗은 다음 정중한 자세로 한동안 서있었다. 그의 거동을 살펴보던 중위는 룽게가 전사한 영웅에게 경의를 표시하는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는 이 순간 크라메르사단장이 아니라 언제인가 자기가 열렬히 사랑하던 크라메르부인에 대해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화려한 담장너머 넓지 않은 정원에서는 사내아이와 계집애가 놀고있었다. 룽게는 그 아이들을 곧 알아보았다. 계집애는 에리카였고 사내아이는 계집애의 동생인 막스였다. 젊은 녀인이 아이들의 유희를 지도하고있었다. 자동차소리를 들은 그들은 유희를 그만두고 보도에서 머리를 숙이고 서있는 에쓰에쓰장교를 쳐다보았다. 녀인은 그러한 모습에 이미 익숙되여있었으므로 찾아온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았으나 계집애는 손님을 곧 알아보고《룽게아저씨! 룽게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하고 소리지르며 달려와 목을 끌어안았다.

털이 푸시시한 외투를 입어서 새끼곰 비슷한 막스는 의아쩍게 누나를 쳐다보다가 계집애가 이름을 부르자 역시 장교에게 달려가 우습강스럽게 얼굴을 찡그리고 파시스트인사로 팔을 내밀었다.

《막스는 아저씨를 못알아봤지만 전 잊지 않았어요.》 기쁨에 넘쳐 계집애가 종알거렸다. 《가정교사도 아저씨를 모를거예요. 제가 곧 선생님과 동생에게 소개해드릴게요. 막스, 이분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부관일을 보시던 룽게아저씨다. 엄마가 아저씨를 자주 회상하던 일이 생각나지. 이분은 우리의 선생이신 카뮤부인이세요.》

《카뮤예요.》 가정교사가 자기 소개를 했다. 《크라메르부인은 옷을 갈아입고계세요. 낮례배에 갈 차비를 하는중이예요. 아, 저기 오시는군요.》

화려한 물개털외투에 털장화를 신고 모자는 쓰지 않은 날씬한 젊은 녀인이 집에서 나왔다. 뒤로 빗어넘긴 숱많은 금발머리는 녀인의 아름다운 얼굴에 특별히 유쾌한 인상을 더해주었다.

녀인은 와그네르교수의 딸인 마그다 크라메르였다. 룽게를 알아본 녀인은 돌연히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놀라서 뒤걸음질을 쳤다.

《어머니!》 에리카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어머니는 룽게아저

씨를 못알아보셨어요? 아저씨에게 가서 악수를 하세요!》
 녀인을 쳐다보는 장교의 눈은 웃고있었으나 그의 얼굴은 심각한 표정을 하고 까딱하지 않았다.
 마그다는 자기앞에 서있는 사람이 환영이 아니라 산 사람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그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였다. 마그다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그의 목을 부둥켜안고 울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알프레드, 이게 정말 당신이예요? 어디서 나타났어요?》마그다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쳐다보면서 거듭 묻기 시작했다.
 룽게는 어려서부터 진실만을 이야기하는데 버릇되여있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것이 버릇으로 돼버렸다. 지금도 그는 사랑하는 녀인에게 그의 남편과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터놓고 이야기하고싶었으나 사정은 일정한 시기까지 많은것을 숨길것을 요구했다. 그는 쏘꼴로브와 바르쑤꼬브와 함께 꾸며낸 거짓경력을 주어섬기면서 당황한 자기 기색을 숨기려고 롱지거리까지 했다.
《나는 저승에서 곧장 이리로 오는 길이요. 요행 지옥이 아니라 죽은 혼맥이 락을 누리는 천당엘 갔댔지요. 그러나 죄많은 나는 계률을 엄수하는 성자역을 놀기가 싫증이 나서 그만 산 사람들의 속세로 돌아왔소. 그런데 이젠 서둘러 온게 후회되는군.》
《어째서요?》 마그다가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물었다.
《당신이 교회당에 가려는걸 내가 와서 낮례배를 망쳐먹게 했으니까요. 지체말고 가십시오. 언제건 다음번에 다시 들리지요.》
《아니예요. 교회당에는 가지 않겠어요.》 마그다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이들은 가정교사가 데리고 갈거예요. 전 당신과 많은것을 이야기할게 있어요.》
《저도 룽게아저씨에게 우리 아버지 이야길 묻겠어요.》에리카도 끼여들었다.
《나두…》 막스도 나섰다.
《낮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어라. 룽게아저씨는 아무데도 안가신다. 너희들을 기다릴게다. 카뮤, 가요! 기도에 늦겠어요.》

가정교사는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리 웃쪽을 향해 걸어갔다.

제 8 장

점심을 마친 다음 온 가족은 크라메르부인의 아늑한 응접실에 모여 앉았다. 어린 막스는 다짜고짜로 룽게아저씨의 무릎에 기여올랐다. 그리고 에리카는 어머니곁의 안락의자에 앉았다. 크라메르부인이 먼저 정적을 깨뜨렸다.

《전쟁전과 다름이 없군요.》 녀인이 말했다.

《다른게 있다면 그땐 내 무릎에 에리카가 앉았더랬지요.》 룽게가 대답했다.

《지금은 내가 앉아있어요!》 막스가 호통을 쳤다.

《룽게아저씨, 전선에 계실 때 우리 생각을 하셨나요?》 에리카가 물었다.

《자주 했지.》 룽게가 대답했다. 《그 회상은 나에게 전쟁의 모든 고초를 꿋꿋이 이겨낼수 있는 힘을 주었단다. 그건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을 가지게 했거든.》

《우리들도 아저씨를 회상했어요. 어머니는 〈룽게아저씨는 우리를 불행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실게다. 제발 몸성히 돌아와주었으면〉 하고 말하시군 했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계집애가 어머니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기억난다. 기억나구말구.》 마그다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매일 아버지와 룽게아저씨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지.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룽게아저씨가 이렇게 여기 앉아계시지 않니.》

《어째서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도는 듣지 못했을가요?》 막스가 물었다.

《하느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마그다가 손가락으로 위협했다. 《아버지는 총통을 위해 전사하셨단다.》

《아저씨, 아버지는 로씨야사람들을 많이 죽였는가요?》 막스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많이 죽였지.》
《내가 자라면 로씨야사람들을 아버지보다 더 많이 죽일래.》에쓰에쓰장군의 아들이 다짐을 했다.
《막스!》 어머니가 엄포를 놓았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된다. 룽게아저씨의 말을 들어보자꾸나. 아저씨가 이제 너의 아버지의 공로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실게다. 그이가 로씨야군사사절들을 총살했다고들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는 사절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룽게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군사사절이란 어떤 사람들이예요?》 에리카가 물었다.
《그건 로씨야군사령부의 대표들이다. 빨갱이들이 어느 한 도시에서 우리 사단을 포위했다. 그 도시안에는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이 살고있었단다. 평화적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자고 로씨야사람들은 공격개시전에 자기네 사절들을 보내여 우리가 항복을 하든가 아니면 도시에서 평화적주민들을 내보내여 헛된 류혈을 피하자고 제기하여왔었다.》
《크라메르는 동의하지 않았는가요?》 마그다가 물었다.
《네. 동의하지 않았지요. 도리여 다른 사람들이 붉은군대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을가봐 걱정했었다오. 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장님은 사절들을 로씨야병사들의 면전에서 총살하였소. 이런 경우에 적은 용서를 하지 않지요. 정말 로씨야사람들이 우리 진지를 공격해왔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진 겁을 내지 않겠나요?》
에리카가 온몸을 떨면서 물었다.
룽게는 에리카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자기 말을 계속했다.
《로씨야병사들은 시내로 돌입하여 우리의 지휘소가 있는 도시중심지를 공격하였지요. 사단장님은 더 반항해야 쓸데없음을 깨달으시고 마지막유서를 쓰려고 의자에 앉으셨지요.》
《누구한테 쓰나요. 총통한테요?》 막스가 물었다.
《아니, 너의 어머니에게 쓰는거다. 사단장님은 편지를 다 쓰시더니 봉하여 나에게 주시면서 〈당신이 믿음직한 사람들과 함께 이 수라장을 뚫고나가게 되거든 직접 이 편지를 나의 안해에게 전해주시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나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자총하셨다오.》

《그 편지를 간수하고계시는가요?》 마그다가 다우쳐 물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룽게는 웃주머니에서 봉인한 편지를 꺼내여 녀주인에게 주었다. 녀인은 남편의 필체를 잘 알고있었다. 이것은 의심할바없이 크라메르가 쓴것이였다. 녀인은 십자를 긋더니 편지를 개봉하여 혼자 읽어내려가다가 소리내여 읽었다.
《나의 사랑하는 마그다!》 크라메르는 이렇게 썼다. 《나의 편지가 당신에게 가닿겠는지 어떻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마지막편지로 될것이요. 편지가 무사히 가닿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나의 최후의 인사를 적으려고 결심했소.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나는 도이췰란드군이 오스트리아에 들어왔을 때 맨 선참으로 총통에게 충성을 선서했소. 나는 그 선서를 어기지 않았소. 지금은 나의 충성심을 시험할 결정적인 순간이 왔소. 나의 사단은 우세한 적군과의 싸움에서 괴멸되였소. 나는 포로의 운명을 피하기 위하여 자총하기로 결심했소. 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당신과 나의 자식들에게 동등한 몫으로 분배할것을 유언하는바요. 아이들이 제 구실을 할 때까지 재산관리는 당신이 하시오. 재가는 하지 말고 여생을 아이들에게 바치시오. 당신과 나의 꼬마들을 마지막으로 포옹하지 못하는것만이 안타까울뿐이요. 다른 면에서 나는 여한이 없소. 에쓰에쓰장교에게 있어서 총통을 위하여 죽는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소. 나는 사랑하는 총통과 그이가 건립한 만년대계의 제국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겠소. 이 편지를 나의 부관 룽게에게 맡기오. 편지는 전쟁이 끝난 후에 갈수도 있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의 포위환을 뚫으라고 그에게 명령했소. 부관은 가장 절망적인 정황에서 자신이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해준게 한두번이 아니요. 이번에도 그에게 행운이 차례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바요. 그더러 내 아들의 교양에 관심해달라고 하오. 막스는 내가 다하지 못한것을 마저 하도록 군인으로 키워야 하오. 사랑하는 마그다, 잘 있소! 에리카와 막스, 잘 있으라! 하일 히틀러! 당신의 남편 에쓰에쓰소장 헬무트 크라메르.》
마그다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도 어머니를 따라 목놓아울었다. 룽게는 그들을 달래려고 애썼다.
《울지 마오, 마그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룽게가 조용히

말했다. 《눈물을 흘린다고 슬픔이 가셔지지는 않소. 이겨내야 하오. 당신이 이런 슬픔을 당하는 첫사람도 아니요. 그렇다고 마지막사람도 아니요. 세월이 그런걸 어찌겠소. 슬픔을 당하지 않는 집이 거의 없지 않소. 당신에겐 어린것들이 달려있소. 저 애들의 장래는 당신의 손에 달리지 않았소. 저 애들을 위해 살아야 하오.》

《그래요.》 녀인이 동의했다. 《전 그 애들을 위해 살아가겠어요. 허지만 당신은 우리들을 버리지 마세요. 전 남정없는 집이 어떤거라는것을 알고있어요. 될수록 오래 저희 집에 계시기를 바라요.》

《마음같아서는 몇시간 더 머물러있고싶지만 잘쯔부르그의 친척집으로 가야 하겠소.》 룽게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실려고 그러세요?》 마그다가 놀랐다.

《당신은 우리 집 불상사를 알고계시잖나요?》 룽게가 변명하기 시작했다.

《네, 알고있어요. 허지만 우리 집엔 자리가 넉넉하니 여기서 류하세요.》

《선의를 베풀어주어 고맙소. 그러나 당신의 이웃들과 친지들이 뭐라고 하겠나요? 아니요. 그건 안되오.》 룽게가 동요했다.

《그런 생각은 마세요!》 마그다가 반박했다. 《남이야 아무러면 무슨 상관이예요. 제 집처럼 알고 류하세요. 에리카, 막스, 아저씨더러 우리 집에서 살자고 해라!》 녀인은 룽게에게로 아이들을 떠밀면서 덧붙였다.

《룽게아저씨,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세요!》 에리카가 부탁했다.

《우리 집에 계세요.》 막스가 졸랐다. 《함께 놀자요.》

룽게는 사내아이의 볼을 사랑스럽게 도닥여주었다.

《함께 놀이를 하자면 내가 남아야겠구나.》 그는 웃었다. 《그럼 난 위수사령부에 가봐야겠다.》

《천천히 가세요. 거기선 불구자들까지 재사정을 하는걸요. 불구자라도 무기만 다룰수 있으면 또다시 전선으로 내몰아요. 당신은 아주 건강해보이기때문에 또다시 제일선에 보낼수 있어요.》 마그다가 경고했다.

《아무튼 위수사령부에 등록은 해야 하지요.》 룽게가 말했다. 《전시여서 법이 엄격하니까.》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집에서 나가지 마세요. 우선 제 동생과 의논해보겠어요. 그 앤 게스타포에서 일해요. 책임자가 그 애한테 홀딱 반했거든요. 그들이 우릴 도와줄거예요.》 마그다가 위안삼아 말했다.

《책임자이름이 뭔가요? 난 모르는 사람인가요?》 룽게가 유심히 물었다.

《루돌프 임메르만이라고 불러요. 그는 억만장자 아돌프 임메르만의 동생이예요. 저의 아버님과 남동생은 그의 실험실에서 일한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봐줄데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우리 애들과 놀이를 하세요. 제가 곧 동생에게 갔다오겠어요.》 마그다가 성급히 일어서며 말했다.

제 9 장

모든 정상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룽게도 게스타포에서 희소식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게스타포에는 보통 교형리들과 함께 자기 사업에 경험이 많은 만만치 않은 전문가들도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그리 걱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문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었고 꾸며낸 경력에 맞게 나무랄데 없는 진짜수표와 공인이 구비되여있기때문이다. 그 경력에 의하면 그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한달이상 도이췰란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은것으로 된다. 더구나 한명의 교수와 두명의 의학박사, 2명의 전문의사로 구성된 권위있는 의사협의회의 결론에는 상처는 아물었으나 두개골이 상하고 뇌수에 창상을 당했으므로 룽게는 심한 전간으로 고통을 당하고있으며 앞으로의 군사복무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인정한다고 씌여있었다.

이 문건들은 물론 륙전대의 작전을 준비한 일군들이 요구하여 만든것이지만 그것은 륙전대가 착륙하기 직전에 까르빠뜨에서 붉은군대가 점령한 도이췰란드군병원의 정식용지에 적은것으로서 그 병원 직인이 엄연히 찍혀있었다. 이 문건에 수표한 인물

들도 포로로 잡혀있어서 해당한 검열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만일 누구든 내 건강상태에 의심을 품을 때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간병을 일으키는 약을 먹을수 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동지들이 충분히 보내준 알약을 한알 입에 넣으면 그만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의기양양해진 룽게는 아이들이 눈을 가지고 놀고 있는 정원으로 나갔다.

상부오스트리아의 포근한 기후는 12월에도 한데서 놀수 있게 했다. 아침에는 눈보라가 쳤는데 점심녘에는 바람이 자고 해가 빠끔히 얼굴을 내밀었으며 지붕에서는 눈석이물이 떨어졌다.

《우리 눈사람을 만들자요.》 에리카가 제의했다.

《그러자꾸나.》 룽게가 쾌히 승낙했다. 《그옆에 백설공주도 세우자. 만들수 있을가?》

《만들수 있잖구요!》 아이들이 동의하고 부석부석한 눈으로 둥그런 눈덩이를 굴려가기 시작했다.

물론 룽게가 만든 눈덩이가 제일 컸다. 그우에 에리카가 만든 작은 눈덩이를 올려놓고 맨 꼭대기에는 다섯살짜리 막스가 애써서 만든 제일 작은 덩어리가 놓여졌다. 그런 방법으로 그옆에 또 세개의 눈덩이를 세워놓았다.

《하지만 저것들은 사람같지 않아요.》 에리카가 걱정했다.

《좀 기다려라. 이제 저것들이 우리 비슷해질게다.》 룽게가 에리카를 안심시켰다.

그는 나무쪼각으로 칼을 만들고 숯덩이를 쥐고 세공작업에 달라붙었다.

오스트리아사람들은 언제나 예술을 즐기였다. 이 나라 사람들은 천재적인 작곡가나 가장 재능있는 음악가, 훌륭한 미술가들은 푸른 두나이강연안에서만 태여날수 있고 또 작품도 여기서만 창작할수 있다고 확신하고있었다. 룽게 역시 청년시절에 회화에 열중하였으며 진흙으로 훌륭한 조각품들을 빚어내군했다. 학교시절에 그의 창작품의 일부가 학교박물관에 전시되였고 그가 수채화구로 그린 중학교 교장의 초상화는 지금까지도 교원실을 장식하고있었다. 룽게는 이것을 상기하고 개성이 없는 평범한 눈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인 인간들의

특색을 부여하리라 마음먹었다.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조각가》의 작업을 세심히 눈여겨보던 가정교사나 일곱살짜리 에리카가 아니라 꼬맹이 막스였다.

《저것 봐요, 저것 봐요!》 사내아이가 소리쳤다. 《저건 눈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예요!》

《정말 판에 박은 크라메르부인이시네!》 가정교사가 놀라와했다.

룽게는 색선택을 능란하게 하여 눈사람으로 에쓰에쓰장군의 모양도 만들어냈다. 웃입술우에는 좁다란 검은 수염을 붙였다.

《이건 우리 아버지예요.》 에리카가 기뻐서 손벽을 쳤다.

《정말 그이로구나!》 가정교사도 인정했다.

《아버지 얼굴은 어째서 저리도 악하게 생겼을가?》 막스가 의혹을 품고 눈사람을 이모저모 뜯어보며 물었다.

《무슨 소릴 하는거냐? 못된 애구나!》 가정교사가 성을 냈다. 《크라메르씨는 전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훌륭한분이시다. 그렇듯 용맹하고 선량하고 동정심이 많은분은 불속을 헤쳐도 찾아내지 못할게다.》

《당신은 그분을 알고계셨는가요?》 룽게가 물었다.

《그이가 1942년에 휴가를 받고 집에 오셨을 때 한달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경적소리가 울리고 철문이 열리더니 화려한 《메르쎄데스》승용차가 소리없이 마당안으로 굴러들어왔다.

《왔어요! 왔어요!》 막스가 콩콩 뛰였다.

《환니이모! 어머니!》 에리카가 소리쳤다. 《이리로 가까이 와요! 이 눈사람들이 누구 비슷한가 좀 봐요!》

마그다는 우선 룽게에게 자기 녀동생을 소개한 다음 셋이서 함께 눈사람앞에 다가가서 자세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신통한데!》 마그다가 환성을 질렀다. 《나와 쌍둥이처럼 비슷하구나!》

《그렇게 보일뿐이예요. 언니의 마음은 사실 저 쌍둥이 눈사람보다 더 차거워요.》 환니가 웃었다.

《저 눈사람은 아버지와 비슷하지요?》 막스가 장군의 모습을 한 눈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다.
《비슷하다. 막스야. 아주 비슷해! 허지만 실지로 그이는 저 눈사람보다 더 엄하시다.》 마그다가 눈사람을 쳐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카뮤선생은 아버지가 선량했다고 했는데…》 막스가 반박했다. 《어머니, 선생님은 왜 그렇게 말하셨나요?》
아들의 말은 마그다에게 지나간 시절의 불쾌한 사건을 상기시켜 그는 얼굴을 붉혔다. 다행히도 거기 있던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감촉하지 못했다.
《막스야. 돌아가신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이란다. 카뮤선생은 그것을 알아서 그러신다. 너희들은 환니이모와 카뮤선생과 함께 여기 있거라. 어머니와 룽게아저씨는 군대위수사령부에 갔다오마.》 마그다는 모두가 듣도록 말했다.

제 10 장

뜻밖에도 마그다는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녀인으로 되였다. 언제인가는 친척이나 동무들만이 그를 알고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에게 인사를 했다. 《정말 우린 별난 세상에서 살고있어.》 마그다는 반롱담, 반진담으로 동생에게 말하군했다. 《유명한 녀자가 되자면 공로는 조금도 세울 필요없이 자살자의 미망인이 되기만 하면 충분해.》
《하지만 평범한 자살자가 아니라 민족적영웅의 미망인이라야만 하지.》 환니가 언니의 말을 시정해주었다.
《그래. 그 사람이 영웅인가 뭐? 영웅다운데라군 없었어.》 마그다가 의아해했다.
《그만둬!》 동생이 마그다의 말을 밀막았다. 《그런걸 가지고는 롱하는게 아니야.》
《알고있다.》 언니가 변명했다. 《허지만 난 이 모든게 싫증난다. 내가 사람들속에 나타나기만 하면 나를 신기한 물건처럼 뜯어보며 십

리밖에서도 들리리만큼 수군덕거린단다. 〈저 녀인의 얼굴에 얼마나 수심이 어렸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불쌍도 하지. 녀인이 아니라 신선같구나. 천사야!〉 하고말이다.》

그러나 위수사령부의 젊은 당직장교가 어서 오라고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마그다는 자기가 유명해진걸 처음으로 기뻐했다. 룽게가 증명서를 제시하려 했으나 당직장교는 마다했다.

《필요없습니다. 임메르만대좌께서 전화가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자기 사무실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한시간전에 루돌프 임메르만은 군대위수사령관에게 중좌 룽게가 휴가증명서들을 등록하기 위해 곧 출두할것이라고 통지했다.

《어느 룽게말이요?》 위수사령관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고인이 된 크라메르장군의 부관이 아니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건 그들 두 사람이 영용하게 전사했다고 하던데?》

《사단장은 전사했지만 그의 부관은 부상만 당했댔소.》

《곤난하군. 크라메르자신이 문건등록을 하러 내앞에 나타나야 하는건데.》 위수사령관이 전화통에 대고 껄껄거렸다.

《모독적인 소릴말게!》 게스타포책임자가 그의 말을 잘랐다. 《크라메르가 전사한 정황을 우리는 면밀히 조사했네. 그의 부관 문건들도 검열하구.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어.》

시군대위수사령관인 뚱뚱보 피쉐르는 루돌프 임메르만을 도이췰란드에서 같은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고있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의 길은 서로 갈라졌다. 피쉐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사학교에 갔으므로 루돌프가 어디 가있는지 몰랐다. 여덟해가 지나서 그들은 다시 만났는데 이미 도이췰란드가 아니라 파시스트도이췰란드에 합병된 이후의 오스트리아에서였다. 피쉐르는 그때 제국군의 대대를 지휘했고 루돌프는 지방파시스트깡패들을 긁어모아 돌격대를 뭇고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옛 친우로서 서로 반갑게 만났으나 그들의 길은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피쉐르는 뽈스까침략에 파견되였다가 중상을 당했고 루돌프는 린츠에 남아서 벼락출세를 했다. 중상당한 피쉐르가 파울류스원수의 파멸에 직면한 군대를 떠나 마지막 위생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그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린츠에 다시 나타났을 때 루돌프는 벌써 게스타포의 책임자로서 에쓰에쓰대좌의 칭호를 달고있었다.

(언제나 머저리들에게 운수가 트이는 법이라니까.) 자기 동창생이 벼락출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쉐르는 악의에 차서 생각했다. (학급에서는 맨 꼬리였는데 지금은 큰 인물이 되다니! 그건 모두 백만장자인 형의 덕분이야.)
그때부터 피쉐르는 특별한 리유없이 행운아인 동창생에 대해 적의를 품게 되였다. 시기심이 많은 피쉐르는 이 한없이 거만한 루돌프를 얼마나 골려주고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대비할바도 못되였다. 게스타포책임자앞에서는 이 세상의 유력자들조차 떨었지만 간부의 심한 부족과 동정심에 의해서만 후방근무에 남게 된 불구의 군대장교앞에서는 자유외출한 탓으로 단속한 직급이 낮은 술망나니들조차 굽어들려 하지 않았다.
룽게의 전화종소리에 피쉐르는 활기를 띠였다. (그자가 아무런 근거없이 이 룽게를 두둔할리는 없다.) 위수사령관은 생각에 잠기였다. (루돌프는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뭔가 그자의 관심을 끄는것이 있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가? 룽게가 크라메르부인과 동행하여 여기로 온다고 했지. 가령 크라메르부인이 자기 남편의 이전 부관을 위해 수고를 한다고 해도 여기엔 이상할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루돌프는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름다운 미망인의 심장을 틀어잡아보자고 하는거나 아닌가? 그렇지, 임메르만 형제들로서야 그럴수 있는 일이지. 하나는 자기 처인 유태인의 재산을 략탈하여 부자가 되였고 다른 놈은 민족적영웅의 미망인과 가까와져서 명예를 떨치고싶어하는 모양이지. 이게 무슨 수치람! 나라는 위험에 처했는데 임메르만네것들은 높은 사회적직위를 리용하여 더러운짓을 하고있으니… 아니, 안되지. 그렇게는 안될걸! 우리는 그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진정한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지녀야 할 애국주의적인 의무를 상기시켜주어야 한다.)
당직장교는 크라메르부인과 에쓰에쓰중좌 알프레드 룽게가 면회를 요청한다고 보고하여왔다.
《중좌만 들어오라고 하시오!》 위수사령관은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큰소리로 말했다.
마그다는 여느때 같으면 그것을 장교 일반에 대해 생각하고있는 교양부족이라고 인정하고 그 소행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서 자기를 멸시하는것만은 참

을수 없어서 위수사령관의 사무실에 그저 들어갔다기보다는 후닥닥 뛰여들었다.

《나는 나와 저 장교가 사업상 토의를 진행하는동안 부인은 대기실에 앉아계시라고 했는데요.》피쉐르는 녀인을 쳐다보며 성이 나서 투덜거렸다.

《용서하세요. 위수사령관님, 허지만 저 장교님은 몸이 불편해요. 의사들은 저더러 저이를 직접 돌봐드리라고 했어요.》마그다는 흥분을 가까스로 누르며 말했다.

《그럼 소망대로 하시지요.》피쉐르가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는 룽게를 보고 물었다. 《누구신가요?》

《용서하십시오, 사령관님.》 룽게는 손을 모자채양에 가져다대고 군대식으로 사죄했다.《내가 수비대 대장인 크라메르소장의 부관으로 일할 때 그와 면회시켜 달라고 한두번만 간청하지 않았기때문에 당신이 나를 잊지 않으리라고 믿었는데요. 잊으셨다면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요.》룽게는 규약에 제시된대로 소개했다.《이게 저의 문건들입니다.》

피쉐르는 손님들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그다는 보란듯이 의자에 앉았다. 룽게는 식자가 많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두꺼운 입술을 우물우물 움직이며 문건들을 읽어내려가는 위수사령관을 물끄러미 보며 서있었다.

《그렇다?》위수사령관이 문건들을 다 읽고나서 씨벌였다.《군대복무에서 제명되였다!… 당신은 이렇게 된게 몹시 기쁘겠구려. 어찌겠소.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만하오. 깊은 후방에서 아가씨들속에 앉아 그들에게 지난날의 진짜 혹은 가짜공훈담을 늘어놓는것이 전선에서 그런 공훈을 세우기보다 훨씬 유쾌하고 안전할테지. 허지만 다행히도 진짜애국자들은 다르게 행동한단말이요. 그들은 설사 불구가 되였더라도 군대에 남아 비전투근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한단말이요. 당신도 그들의 모범을 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복무하면 좋겠는데 의사들이 군사복무는 생각도 못하게 합니다.》 룽게가 반박했다.

《의사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마오.》

《좋은 충고를 해주어 감사합니다.》룽게가 조소를 담아 허리를 굽히기까지 했다.《완치되면 꼭 그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겠습니다. 지

금은 군사복무규정에 따라 나의 문건들을 등록해주시오.》
《물론 등록합시다. 그러기에 앞서 당신에게 몇가지 질문을 해야겠소. 출판물에서 당신의 이전 상관의 최후에 대한 기사를 읽었겠지요?》
《읽지 않구요.》
《그게 현실과 맞던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피쉐르는 입을 앙다물고 말했다. 《그러면 이런걸 설명해주시오. 자기 사단장은 사태가 절망적이라고 인정하고 자살했는데 그의 부관은 그후에 조용히 적의 포위를 뚫고 병원에 나타났지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는가요?》
《첫째로, 크라메르소장은 사태가 절망적이라고 인정했기때문에 자총한게 아닙니다. 자기 병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었기때문에 자총했지요. 자기 명예를 귀중히 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은 언제나 그렇게 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나자신이 적의 포위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자총하기전에 나더러 일부 병사와 장교를 데리고 포위를 뚫고나감으로써 몇가지 극비문건들을 보존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투에서 나는 머리에 중상을 입어서 나를 끌어다가 아군병원에 넘겼습니다. 군의들의 희생적인 노력에 의해 난 다시 소생되였습니다. 비밀문건에 대해 말한다면 그건 우리 병사들이 포위를 뚫고나온 후 폭격을 당할 때 화재로 소각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신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습니다.》
적비행기들이 폭격할 때 불타버린 문건들에 대해서는 포위를 뚫고나온 몇몇 에쓰에쓰대원들이 신문보도에 상기시킨바 있었으나 피쉐르는 세세히 기억하지 못했다. 지금 위수사령관은 그 신문을 다시한번 보려고 《펠드키쉐르 베오박테르》신문철을 가져오라고 당직장교에게 부탁했다. 룽게는 포위를 뚫으려고 시도한 많은 참모장교들이 전사자명단에 지적되였지만 자기 이름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 사실은 이상하게 느껴질수 있었다. 그래서 룽게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작정했다. 준비해둔 알약을 몰래 삼키고는 성이 머리끝까지 오른체하면서 속임수를 쓰기 위해 곁사람들이 보는데서 두번째 알약을 입에 가져가야

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약의 작용을 기다려야 했다. 이것은 완전히 성공적이였다.

《당신은 고향에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위수사령관이 룽게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내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룽게가 물음에 물음으로 대답했다.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은 이러한 때 흔히 사랑놀음을 하지요. 당신도 젊은 과부의 지붕밑에서 일거리를 찾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 같군요.》위수사령관은 마그다쪽을 힐끔 쳐다보고 야비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비렬한이요!》룽게는 소리치며 한손은 위수사령관을 향하여 휘두르고 다른 한손으로 알약을 입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갑자기 바닥에 쾅 쓰러지더니 이발을 사려물고 전간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위수사령관은 별의별것을 다 목격하군했다. 때로는 그의 사무실에 히스테리환자들과 전간환자들이 오군했는데 진짜도 있었지만 꾀병쟁이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를 속여넘기기란 헐치 않았다. 그자는 바닥에 넘어지기에 앞서 룽게가 입으로 무슨 알약인지 가져가는것을 보았다. 지금 그는 경련을 일으키며 까드러든 룽게의 손에서 포장된 5개의 알약과 룽게가 피가 섞인 침과 함께 입안에서 혀로 밀어낸 여섯번째의 알약을 얻었다. 피쉐르는 문가에 서있는 당직장교에게 귀속말을 했다.

벌어진 사태가 마그다에게는 다르게 작용했다. 룽게의 발작을 보고 녀인은 너무도 놀라서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있었으나 룽게의 입에서 피거품이 보였을 때에는 괴상한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의사를! 의사를 불러요!》

《걱정마십시오. 벌써 불렀습니다.》위수사령관이 전화수화기를 놓으면서 말했다. 《이제 의사가 와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밝힐겁니다.》조금 동안을 두었다가 깨고소한듯 코웃음을 치면서 덧붙였다.

정말 얼마 안있어 문가에 흰 위생복에 금테코안경을 걸친 늙은이가 나타났다. 로인이 방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그 나이에는 놀라우리만큼 민첩하게 무릎을 꿇고앉아 룽게의 머리를 두손으로 바닥

에 눌러놓더니 머리의 경련이 멎을 때까지 붙들고있었다. 룽게가 얼마간 진정되자 로인은 그의 입술을 씻어내고 맥박을 재고 환자의 눈까풀을 벌리더니 그의 눈에 센 빛을 쏘았다.

《당신은 어째서 이 사람이 꾀병쟁이라고 생각했소?》위생복을 입은 로인이 위수사령관에게 물었다.

《교수님, 난 저 사람한테서 이 약을 얻어냈습니다.》피쉐르가 알약을 전부 주면서 말했다.

의사는 약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포장지에 박힌 라틴어해설문도 읽었으며 냄새까지 맡아보았다. 그러나 위수사령관은 그의 눈에서 범인을 현장체포하였을 때 흔히 나타나는 그런 분노의 섬광을 보지 못했다.

《의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진정제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때문인지 흥분하여 약을 먹으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한 모양입니다. 저 사람이 이러는지 오랬는가요?》

《뭐요?》피쉐르는 알아듣지 못했다.

《전간병말입니다.》

《이전에 저이는 그런 병을 앓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중상을 입은 후과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 책상우에 놓여있는 전문가들의 감정서에도 씌여있습니다. 룽게는 감정서를 위수사령관에게 보여주었는데 저 사람은 거기엔 주의도 돌리지 않고 불구자를 두고 조롱하기 시작했지요.》마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룽게의 머리상처를 쓰다듬어보고 일어나서 단호히 결론했다.

《틀림없는 전간병입니다. 이런 중병에 걸린 사람은 군사복무에서 제외됩니다.》

《저분도 전문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대되였습니다. 그런데 위수사령관이 그의 문건들을 등록해주지 않으려 하는군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해주십시오.》마그다는 룽게를 눈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지금은 잠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2～3일간 푹 안정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깨우지 마십시오. 열시간쯤 지나면 스스로 깨여날겁니다. 약처방은 써드리겠습니다. 허약함과 머리아픔이 멎을 때까지 하루에 세번씩 약을 먹게 하시오.》

교수는 개인명함이 찍힌 처방전을 꺼내여 써넣은 다음 마그다에게

주었다.
《저이를 집에 데려가도 됩니까?》마그다가 위수사령관을 보고 물었다.
《물론이지요.》 피쉐르가 대답하는데 그의 얼굴은 이그러져있었다. 《당직장교가 사병들과 함께 저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다줄겁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의〉에 대해서는 오늘 베를린에 써보내겠습니다. 남편에게 훈장을 수여할 때 총통께서는 저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통이 민족영웅의 미망인을 보호해주리라는걸 저는 믿고있습니다. 룽게의 문건들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마그다가 손을 내밀었다.
《제발 베를린에는 편지를 쓰지 마십시오!》피쉐르가 갑자기 빌붙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앞에 잘못을 사죄합니다. 내가 악의를 품고 당신이나 룽게씨에게 무례하게 대한게 아니라는걸 리해해주십시오. 세월이 그런걸요. 누구나 요리조리 군사복무를 회피하려고 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탕개를 늦추어서는 안되지요. 문건은 내가 다 등록하고 오늘중으로 댁으로 반환해드리겠습니다.》

제 11 장

룽게가 특별한 약을 먹고 인위적으로 일으킨 가짜전간병은 진짜병과 겉보기에만 같을뿐이였다. 이 약은 전간환자가 발작을 일으킨후에 당하게 되는 후유증도 일으키지 않는것이였다. 룽게는 발작후에 머리아픔과 기타 다른 아픔도 느끼지 않았으며 기억력 감퇴현상도 없었고 본래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였다. 한잠 푹 자고나니 하나도 아픈데가 없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룽게는 자기 가슴에 누구인가의 부드러운 손이 닿는 기분좋은 감촉으로 한밤중에 깨여났다. 따뜻한 손가락이 자기 가슴에 난 비단실같은 털을 쓰다듬고있었다. 그는 녀인과 한 침상에

누워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러자 곧 군대위수사령부의 방문, 피쉐르 중좌의 트집과 야비한 모욕, 그다음에 자기가 약을 먹고 발작을 꾸며내던 일이 상기되였다. (발작후에 예정한대로 잠이 드니까 마그다가 나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자기 침대에 눕힌 모양이구나. 마그다는 비겁한 녀자가 아니다. 전간발작을 일으킨 남자와 단둘이 있으려고 할 녀자가 어디 흔한가. 마그다의 소행은 칭찬을 받을만하다. 때가 되면 내가 그만한 표창을 해줄테다. 그러나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 아직은 마그다가 나의 병에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지.)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우정 몸부림을 치며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여기가 어디요?》

《흥분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 침실에 계세요.》 마그다가 속삭이였다.

《내가 어떻게 여길 오게 되였소?》 룽게가 놀라는척하면서 물었다.

녀인이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문건들은 그가 저녁에 가져왔어요. 이젠 아무도 당신을 더는 시끄럽게 굴지 않을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더러 자기를 신소하지 말아달라고 눈물을 머금고 사정하더군요. 손에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 〈나를 가엾이 여겨주시오.〉 하고 빌더군요. 〈나를 동부전선에 또 쫓아보내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녹쓴 못도 쓸모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때도 있겠지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용서해주었는가요?》

《아니요.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친척들과도 당신과도 의논해보자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렬한을 혼내주는것도 무방하겠지.) 룽게가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소동을 일으키는것은 우리에게 리로울것이 없다.)

《마그다, 그자는 아무튼 자기가 진 죄만큼 벌을 받게 될거요. 아직은 하찮은 복수를 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건드리지 말아라. 악취가 풍기리라.〉고 한 시인의 충고를 듣는게 좋을듯하오. 뭣때문에 우리가 그 고약한 놈과 상종하겠소. 그런건 피하

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는게 상책이요. 내 생각에 동의하오?》
그는 마그다를 포옹하고 입맞추기 시작했다. 마그다는 기뻐서 몸을 떨었다.
《동의해요.》 마그다가 속삭이였다. 《이제부터는 언제나 당신이 하자는대로 하겠어요. 들어요? 언제나… 언제나말이예요.…》
문밖에서 바스락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인가 양탄자를 조심조심 밟으면서 침실로 다가오고있었다. 마그다는 침상에서 소리없이 일어나 귀를 기울이다가 어깨에 잠옷을 걸치고 재빨리 문을 열었다.
《넌 여기서 뭘해?》 녀주인이 성이 나서 물었다.
《저녁식사를 하시겠는지 물으려고 했어요.》 하녀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식모가 보내서 왔어요. 잠자고싶대요.》
《자라고 해. 너도 쉬여야겠다. 잘 자거라!》
하녀는 침실을 들여다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문이 그의 코앞에서 탕 닫겼다.
《왜 그 녀자를 그렇게 대하오?》 룽게가 물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좋아안해요. 유감이지만 하녀는 상관안하는 일이 없고 입을 못놀리면 안달이 나 하는 녀자예요.》
《내가 정말 저녁이 먹고싶다면 어찌겠소?》
《그 녀자가 아니라도 먹을수 있어요. 저에겐 언제나 요기할것이 장만돼있지요.》 마그다는 웃으며 유리장에서 코코아 두고뿌와 맛있는 토르트를 꺼냈다. 《일어나지 말아요. 누워서 먹자요.》
《나는 어렸을 때조차 이렇게 누워서 요기할 생각은 못했더랬소. 당신은 지내 장난을 하는군.》
《장난을 하는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거예요. 의사는 당신을 3주야동안 절대 안정시키라고 처방했어요. 전 그가 정해준 질서를 당신이 어기지 않게 하겠노라고 다짐했어요. 저를 곤난케 하지는 않겠지요?》
《물론 난 곤난케 하지는 않겠소. 아침까지 까딱 움직이지도 않겠소. 저, 취침질서는 어떻게 하겠는지 결정합시다. 군대에선 아침 6시에 기상하는데 습관이 됐소. 여기서는 어떻게 하오?》
《때에 따라 다르지요. 때로는 10시, 어떤 때는 11시에도 일어나고 대체로 10시 30분이예요.》
《좋소, 정각 10시에 우리는 생활규칙에 대한 토의를 다시 합시다.

훌륭한 저녁을 대접해주어 고맙소. 당신의 생활이 이 코코아처럼 달콤하기를 바라오.》 룽게가 수건으로 입술을 닦으며 말했다.
《그건 당신한테 달렸어요.》 녀인이 룽게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정겹게 말했다.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면 전 일생 행복할거예요. 불을 끌가요?》
《어둠속에선 망령이 쏘다닌다고 하지 않소. 당신은 죽은 남편의 혼령이 나타날가봐 무섭지 않소?》 룽게가 웃으며 물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그가 망령이 아니라 살아서 나타난다 해도 일없어요. 그가 살아있었을 때 저의 속을 썩인것만해도 충분해요. 그가 자살했으니 이젠 우릴 건드리지 못하겠지요.》
《그래도 어쩐지 어색하군. 그야 민족의 영웅이 아니요.》
《당신은 그 사람을 군무생활을 통해서만 알고있지요. 그 사람이 거기선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에서는 진짜 폭군이였어요. 동거생활 아홉해동안에 저를 얼마나 마음고생시키고 모욕했다구요. 저는 그가 사교계녀인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것은 용서해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정부가 돈의 부족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빚을 졌을 때에도 참았어요. 그러나 방탕한 녀자를 집에 끌어들이고 자기 서재에서 밤새도록 술놀이를 할 때에는 자살할 생각이 한두번만 나지 않았댔어요. 다행히도 이제는 그 비렬한의 손아귀에서 해방됐어요.》
이렇게 말하며 녀인은 잠옷을 벗어던지고 불을 끄더니 룽게가 덮고 있는 새털이불속으로 기여들어왔다.

제 12 장

룽게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깼다. 밤엔 눈보라가 쳤는데 아침녘엔 따뜻해져서 봄날처럼 눈이 녹아내렸다. 방금 솟아오르기 시작한 태양의 빛발이 침실을 장미빛으로 물들였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아늑했다. 룽게는 눈부시게 흰 마그다의 목에서 조심스럽게 팔을 뽑고 그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조심조심 일어나 침

실에서 나왔다. 아래층에서는 그릇가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자리에도 함께 누웠더냐?》 식모의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과 안해처럼 누웠더군요.》 하녀가 대답했다.

《온밤 암개처럼 뒤치락거렸겠지요. 보기만해도 구역질이 났어요.》

《그 녀석은 좋겠다.》 가정교사의 목소리가 끼여들었다.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자기 이전 상관의 안해를 포옹하려고 달려드는가 하면 저녁에는 어디 가서 술을 처먹고 병졸들의 손에 받들리여 집에 끌려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니말이야.》

《난 그 사람이 옷을 벗는걸 거들려고 했는데 어디라구! 크라메르부인은 두주먹을 부르쥐고 나에게 달려들더니 침실에서 내쫓지 않겠어요. 장군이 불쌍해요. 안해와 부관이 그의 신성한 추억을 더럽혔어요.》 하녀가 한숨을 지었다.

《그렇고말고. 고인이 정말 불쌍해요. 얼마나 훌륭한분이였어요! 우리 죄많은 사람들도 잊지 않으셨지.》 가정교사가 덧붙였다.

《특히 죄많은 녀인을 잊지 않으셨지.》 집지기가 빈정댔다. 《마그다부인이 집을 나서기만하면 크라메르님은 너희들중에 누군가를 자기 서재에 불러들여 하녀로부터 마님으로 승격시키군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거기 있는걸 당신이 제 눈으로 보았어요?》 하녀가 집지기에게 달려들었다.

《한번만 보지 않았지. 네가 알몸으로 걸어다니는걸 창문으로 보았어. 그리고 내가 주인의 부름을 받고 달려가 문앞에 섰을 때 네가 아래내의로나마 창피한 곳을 가리지 않고 그의 무릎에 앉아있는걸 보군했지. 가정교사에 대해서는 말도 않겠네.》 집지기가 또다시 껄껄거리고 웃었다.

《난 주인의 서재에선 한번도 옷을 벗지 않았댔어요.》 가정교사가 소리를 질렀다.

《그야 정말이겠지. 그러니 자기 방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주인에게 갔던 모양이지.》

《닥쳐, 늙다리야!》 가정교사의 거치른 목소리가 히히덕거리는 집지기의 말을 밀막았다.

《하인들은 주인의 성스러운 이름을 지켜야 해! 자넨 함부로 입을 놀려. 방금 알을 낳은 암닭들처럼 꼬꼬댁거리고 제가 잘했다고 잘난체하지 말고 영웅가정의 명예를 어떻게 고수하겠는지 함께 의논해봐야 해. 늦기전에 이 변고를 해당한 곳에 알려야 하지 않을가?》

《자넨 참 유명하다니까.》 또다시 집지기가 주절댔다. 《자넨 고자질명수야. 여름에 내 손녀가 로씨야비행기에서 떨군 삐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 자넨 우리 손녀까지 고자질했지. 그 앤 옹근 한달이나 게스타포에 잡혀가있었어. 녀주인이 그 앨 도와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애가 밝은 세상을 더는 보지 못할번 했어. 그것때문에 녀주인을 증오하는건 아니겠지?》

《자네의 그 못된 혀바닥을 비끄러맸으면 좋겠네. 그 혀바닥때문에 자넨 봉변을 당할줄 알어. 난 녀주인을 해치자는건 아니야. 위험을 방지하자고 할뿐이야.》

면도할 뜨거운 물을 뜨려고 계단을 내려오는 룽게의 발자국소리를 들은 하인들은 입을 다물고 포크와 나이프를 닦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그가 부엌에 나타났을 때에는 모두가 일어섰다.

《중좌님, 밤새 안녕하십니까?》 집지기가 낮게 허리굽혀 인사했다. 그의 뒤를 이어 다른 하인들도 인사했다. 《왜 손수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종만 누르시면 필요되시는걸 우리들이 어련히 가져다드리지 않을라구요.》

《당신들이 이야기에 너무 열중해있더군요. 그래 제일 흥미있는 대목에서 당신네 대화를 중단시키면 내편에서 야비한 행동을 하는것으로 되지 않겠소.》

하인들은 자기들이 범죄현장에서 붙들렸다는것을 깨닫고 어색하게 침묵을 지켰다.

(믿음성없는 사람들이군!) 룽게는 부엌을 떠나면서 생각했다. (저 사람들을 피할 방도를 찾아야겠다.)

면도를 끝마친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마그다를 흔들어 깨웠다.

《전 더 자고싶어요.》 마그다가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쓰려 했다.

《시간이 없소. 마그다. 우린 기상해서 일을 해야 하오.》 룽게는 마그다가 일어나는걸 도우면서 말했다.

《무슨 일말인가요?》 마그다가 물었다.
《우선 내가 입을 사복을 구해야 하겠소. 상점을 다녀봅시다. 그다음 외출복을 주문합시다. 제대되였으니 더는 에쓰에쓰장교복을 입고 멋을 부릴수야 없지 않소.》
《그래요. 그 제복은 벗어버려야 해요. 전 우리 집에서 군인의 냄새를 영원히 떨어버리고싶어요. 그런데 의사가 누워있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밖에 나다니겠어요?》
《그건 꿈이였소.》 룽게가 미소를 지었다. 《아무런 의사도 없었고 아무런 위수사령관도 실지는 없었소. 그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 착수합시다.》
《허지만 전 당신의 건강이 걱정돼요.》
《공연한 걱정이요.》 룽게가 손을 내저었다. 《나를 보오. 내가 정말 환자같소?》
마그다는 깐깐한 눈매로 그를 뜯어보았다. 그러나 걱정할 근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건강으로 빛났고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였으며 우정 앞으로 쑥 내민 가슴은 고르롭고 자연스럽게 들먹이고있었다.
《좋아요.》 마그다가 동의했다. 《서재에 가서 저를 기다리세요. 아침식사후에 당신의 의복에 대해 생각해보자요.…》
그들이 아침식사를 하는데 환니가 왔다. 자매는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 포옹했다. 룽게는 손님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빨리 직장에 가야 해. 잠간 들렸어. 아버지가 신경학의사를 보내지 않아도 일없겠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어. 중좌님, 몸이 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도 불편한데가 없습니다. 아버님에게 나를 관심해주어 대단히 고맙단다고 전해주시오. 그러나 의사는 필요없을것 같군요. 당신의 언니는 나에게 의복을 해입히려고 차비하고있지요. 우린 몇개의 상점들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함께 가자요.》 환니가 제의했다. 《가는 길에 저를 게스타포청사앞에 내려주세요.》
《당신이 게스타포에서 일한다고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군요.》 룽게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어째서요?》 환니가 말뜻을 깨닫지 못했다.

《거기는 당신같은 고운 처녀들이 일할 곳이 못된다고 생각했지요.》
《친절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마와요.》 환니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제 동생을 나쁘게 생각지 마세요. 저 앤 예심원도 아니고 감찰원도 아니예요. 기껏해서 통역원이예요.》 마그다가 동생의 편역을 들었다.
《나도 겁내지 않지요. 한때 자칫하면 거기서 일하게 될번했으니까요.》
《누가 당신을 말렸나요?》
《나의 잊을수 없는 상관인 헬무트 크라메르씨였지요.》 룽게가 대답했다. 《〈전쟁마당에서 민족의 명예를 수호하지 못하는 군인은 총통에게 헌신짝만큼도 필요없소.〉라고 그이는 말씀했지요. 〈게스타포에서 출세할 생각일랑 말고 전선에 함께 나갑시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 대화가 마그다에게는 경솔한 행동으로 여겨졌다. 어딘가 마음속깊이에서는 질투의 감정이 꿈틀거렸다. (참 놀랍기두 하지!) 마그다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제꺽 경쟁자가 나타난다니까. 룽게에게 내 동생을 넘겨다보지 말라고 일러줘야지.)
《실은 동생이 이따금 형리들의 일을 구경하지 않을수도 없지만 심문에 참석하기보다는 서면자료들을 주로 번역해요. 이건 서로 같은게 아니지요.》 환니의 직업에 대해 설명하는 언니의 말에는 질투심이 없지 않았다.
《그래요. 두분의 말씀이 옳아요. 게스타포일군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지요. 에쓰에쓰소장인 크라메르까지도 게스타포를 교형리로 여겼어요. 사람들을 학살한걸로 보면 그자신이 어떤 전문교형리도 릉가했는데도 말이지요.》 처녀가 어물어물 말했다.
《안타까와말아.》 언니가 위안했다.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으니까.》
《게스타포를요? 누가 말이예요?》
《너희네 모두야 아니지만 적어도 너는 싫어하지 않는다. 첫눈에 너한테 반한 그 로씨야대좌만 해도 그렇지 않냐?》 마그다가 말했다.
대답대신 환니가 미소를 지을뿐이였다.

《아니, 그럼 로씨야사람들도 게스타포에서 일한단말인가요?》릉게가 놀라는 얼굴표정을 지었다.
《로씨야사람들이 일하는게 아니라 감옥안에 갇혀있지요.》마그다가 동생을 대신하여 대답했다. 《그들중에 한 사람이 저 애를 사랑하는것 같애요.》
《언닌 잘못 생각하고있어.》환니가 언니의 말을 시정했다.《그 사람이 나한테 반한게 아니라 내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로씨야사람을말입니까?》
《뭘 그리 놀라시나요? 그래, 로씨야인은 사람이 아닌가요 뭐? 그때 아버지가 강요하지 않았다면 전 모스크바에서 돌아오지 않았을거예요.》환니가 발끈하여 말했다.
《닥쳐!》마그다가 손가락으로 위협했다.《상부에서 알면 너를 통역이 아니라 죄수로 만들어버릴게다.》
《걱정말아요. 우리가 쏘련을 다녀온데 대해서는 게스타포가 알고있는지 오래요.…》
그들의 싱갱이질에 릉게는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지나가는 말로 상기시킨 그 로씨야대좌에 관심이 있었다. (그 사람이 뚜르하노브는 아닐가? 그도 바로 그 감옥에 있지 않는가.)
그걸 환니에게 당장 물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자그마한 실수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를수 있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그러므로 한발자국 한발자국 톺아서 거기까지 오르리라 마음먹었다.
《한때 우리도 로씨야인들을 포로했댔는데 그속에도 대좌가 있었던게 생각나오. 지금 거기 잡혀있다는게 그 대좌가 아닐가?》릉게가 물었다.
《설마? 당신과 그 사람은 체스꼬에서 싸웠다지요. 우리 대좌는 뽈스까에서 싸웠어요. 당신들이 포로한 대좌는 이름이 무엇이였나요?》환니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우린 모든 로씨야사람들을 다 이완이라고 불렀지요. 옳지, 이와노브대좌였지요.》
《그러니 그 대좌가 아니군요. 우리 대좌는 뚜르하노브라고 불러요. 우리 대좌에겐 관심이 없으시겠지요?》릉게를 쳐다보며 환니가 물었다.

룽게는 당황했으나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내지 않았다.
《예, 관심이 없습니다. 어서 당신네 녀자통역원들이나 계속 홀리라지요.》 그가 롱을 했다.
마그다는 동생을 게스타포건물앞에 내려놓고 룽게를 시내의 가장 훌륭한 백화점들로 끌고다니였다. 세시간동안에 그에게 필요한 옷과 신발이 다 장만되였다. 집에 돌아갈 차비를 하는데 룽게가 갑자기 모라비야에 있는 옛 친우네 집에 들리자고 제의했다.
《녀동무한테 가자는건 아니예요?》 마그다가 롱을 했다.
《나의 일생에 녀동무는 꼭 하나 있었소. 그런데 그 녀자는 지금 나의 곁에 앉아있소.》 그가 상냥하게 말했다.
헬무트 크라메르가 《백설공주》라고 이름붙인 승용차는 두나이강을 건너 옛 오스트리아－체스꼬국경쪽의 넓은 신작로를 질풍같이 달리였다. 룽게는 도로리정표를 주시했다. 45라는 수자가 보이자 그는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마그다는 의아쩍게 그를 쳐다보았으나 차를 세웠다. 룽게는 도로에 내려서서 도로리정표로 다가가더니 관목을 헤치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길섶에서 열발자국을 세며 가서는 커다랗고 납작한 바위곁에 멈춰섰다. 그우에는 사람 머리만한 돌이 놓여있었다. 룽게는 자기 뒤를 추적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돌을 조금 들어올리고 그밑에서 꼼꼼히 접은 종이장을 끄집어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숫병아리식당에서 접선할것. 암호는 이전과 동일함. 3일째 기다린다.》
(모든게 다 제대로 되여가누나.) 룽게는 기뻐했다. (동무들이 나를 기다리고있다. 서둘러야겠다.)
숲속에서 나와보니 마그다는 운전대에 앉아 다른 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겠소?》 룽게가 물었다. 마그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 갑시다.》
《백설공주》는 더 앞으로 달렸다. 곧 새로 지은 집들이 앞에 나타났다. 여기서는 지방행정기관 관리들과 제재소로동자들이 살고있었다. 마을한복판에 2층집이 서있었는데 그 정면에는 싸움을 걸고 드는 수닭의 모습을 그리고 도이췰란드어와 체스꼬말로 《숫병

아리》라고 쓴 간판이 걸려있었다. 특별히 한옆에 닦아놓은 주차장에는 승용차와 화물차와 짐마차가 서있었고 든든히 박아놓은 말뚝에는 승마들도 매여있었다.
《당신의 친구가 여기서 일하는가요?》마그다가 차를 세우면서 물었다.
《어느 정도 이 식당의 주인이라고 할수 있소.》 룽게가 대꾸했다.
《어째서 어느 정도인가요? 그걸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요?》
《불구가 되여 군대에서 제대된 다음에 이 식당 녀주인에게 장가들었으니까. 국방군 대좌였소. 1939년도에 와르샤와진공전투에서 한다리를 잃었지.》
《다리 하나는 잃었지만 그대신 행복을 찾았군요.》 마그다가 웃었다. 《당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의 특별료리는 뭔가요?》
《간판에 있는 그 료리로 이름을 떨치지. 수닭볏으로 만든 카쯔레쯔요. 먹어보지 못했소?》
《그걸 먹는가요?》 마그다가 놀랐다.
《먹지 않고… 이 지방의 식도락가들은 이 볏료리를 진미로 안다오.》
식당안에는 손님들로 꽉 차있었다. 빈 자리를 찾는척하면서 룽게는 앉아있는 사람들을 세세히 훑었지만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요행 상대방이 먼저 그를 알아보았다. 매대칸에서 뚱뚱한 사람 하나가 나오더니 오른발을 몹시 절면서 새로 들어온 손님을 향해 걸어왔다.
《룽게! 내 친구!》 그는 멀리서부터 소리를 질렀다. 《자네가 옳긴 옳은가. 응? 어디서 나타났어? 어떻게 여길 왔느냐말이야?》
《그래, 내가 옳네. 〈케자르〉, 지옥에서 곧장 왔다고도 할수 있지. 그리고 이 천사가 나를 여기로 데리고왔네.》룽게가 같이 온 녀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로 인사를 하게.》
《당신을 알게 되여 몹시 기쁩니다.》식당주인이 인사를 했다.《저 사람을 자주 데리고 와주십시오.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싶이 여기엔 빈 자리가 없으니 우로 올라갑시다. 아델리나!》그는 곁을 지나가는 접대원을 불렀다.
《내 서재에 중좌님과 부인님에게 식탁을 차려드리오.》

주인의 서재는 따뜻하고 포근했다. 접대원은 식탁과 나란히 특별히 마련한 점심식탁에 간판과 같은 수닭이 그려진 료리안내표를 가져다 놓았다. 룽게는 료리종류를 세세히 들여다보았으나 자기가 바라던걸 찾지 못했다.

《어째 닭볏료리가 없나?》료리안내표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룽게가 물었다.

《그놈의 전쟁때문이지.》《케자르》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하더니 의미심장하게 침묵을 지켰다.

이것은 암호였다. 암호의 뜻은 룽게가 지하조직의 임무를 받고 여기에 왔다는것과 이 조직의 대표자들은 이미 자기를 기다리고있다는 것이였다.

정말 얼마 안있어 서재안으로 4명의 남자들이 련이어 들어섰다. 이들은 쏘꼴로브와 리베르만, 목재공장 반파쑈로동자지하조직과 련계된 이 고장 산림감시원 안또닌 스몰레크, 얀 쥐슈끼, 빨찌산부대 련락원 고라크였다.

《이게 누구야!》리베르만이 룽게를 보자 반가와하는 시늉을 하면서 소리질렀다.《친구, 우리도 이 방에 식탁을 차려주도록 상냥한〈케자르〉를 설복시켜주게.》

《반대가 없으면 우리와 한식탁에 앉게나.》룽게가 제의했다. 리베르만은 반대하지 않았다. 《인사하게. 나의 이전 상관의 부인인 크라메르녀사네. 병원에서 침대를 나란히 했던 친구 쿠르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쿠르트라고 소개된 사람이 인사했다. 《에쓰에쓰대위 리베르만입니다. 난 돌아가신 당신의 남편을 잘 알고있었습니다. 닭의 볏료리의 대단한 애호가이시였지요.》

《그이도 이 식당엘 오군했는가요?》 마그다가 놀랐다.

《대단히 자주 왔지요.》 《케자르》가 수긍했다. 《그이더러 왜 우리 식당을 자주 찾으시는가고 물으면 〈닭의 볏은 남자의 정력을 증진시키지요. 암닭들은 그 냄새를 맡고 무리지어 수닭을 쫓아다닌다오.〉라고 대답하군하셨답니다.》

《그이 뒤를 암닭들이 따랐는가요?》 마그다가 웃으며 물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모두가 법적인 안해앞에 죄를 짓고 사니까요.》 《케자르》가 한숨을 지었다. 《나머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산림감시원 스몰레크, 교원 마레

크, 영웅류벌공 고라크.》
소개가 끝나자 마그다는 룽게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소곤거렸다. 그러자 그는 접대원에게 마그다의 청을 전달했으며 두 녀인은 함께 나갔다.
《난 외인들이 가까이 접근못하도록 살피겠소.》《케자르》가 말하고 역시 밖으로 나갔다.
《제꺽 일에 착수합시다.》 쏘꼴로브가 제의했다. 《마그다를 40분정도 지체시킬거요. 룽게동무, 새로 생긴 정황을 보고하시오.》
룽게는 시내에서 보고 듣고 또 자기가 할수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보고했다. 환니 와그네르에 대한 소식이 무엇보다 륙전대원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 처녀를 우리편으로 끌수는 없을가?》 쏘꼴로브가 물었다.
《나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건 아닌데 덤비지 않기로 했습니다.》 룽게가 대답했다. 《내 보기에 그 처녀의 행동거지는 괴이합니다. 내편에서 부추기지 않아도 자기스스로 대담하게 자기 생각을 토로하며 자기는 다른 나치스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때도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뚜르하노브에 대해서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처녀는 마치 우리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련계를 취하려 하고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려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파시스트와 진실로 싸울 열망에서 그럴수도 있고 그 어떤 반파쑈조직을 드러내여 총통앞에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줄 기회를 찾느라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쏘꼴로브는 룽게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했으며 다른 동무들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최대의 경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쓸데없이 의심하면서 우리의 벗으로 될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측으로 오는 길을 막으라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룽게동무, 환니 와그네르를 계속 연구하시오. 그러다가 성공하면 우리 사업에 처녀를 인입시킵시다. 사업정형에 대해 정상적으로 통보하시오. 그리고 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여기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리베르만을 거쳐 련계를 유지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륙전대책임자가 자기 말을 끝마쳤다.
이때 서재의 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크라메르부인이 돌아옵니다.》 《케자르》가 들어오면서 알려주었다.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문안에 마그다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여있었고 눈은 이글거렸다.

《당신은 우릴 아주 잊고계셨군요.》리베르만이 마그다를 나무랬다.

《용서하세요.》 마그다가 사죄했다. 《접대원처녀가 손님들이 잊고간 흥미있는 수집품들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들가운데는 글쎄 저의 분갑도 들어있지 않겠나요. 자 이걸 보세요!》

그가 손바닥을 펼치자 그 손바닥안에는 뚜껑에 마그다의 초상을 세공한 황금의 분갑이 나타났다. 그다음엔 분갑을 뒤집어 뒤판에 씌인 글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사랑하는 마그다에게, 충실한 남편으로부터》라고 씌여있었다.

《그게 어떻게 되여 이 식당 수집품속에 들어있을가요?》룽게가 놀라와했다.

《접대원처녀의 말에 의하면 한달쯤전에 엠마라고 하는 녀인이 놓고간것이래요. 그 녀인은 자동차엔징이 고장나서 남편과 함께 여기서 하루밤 묵어가지 않을수 없었대요. 접대원의 설명을 듣고 제가 안건 그 엠마라는 녀자가 실은 저의 하녀이고 거짓남편은 우리 집사라는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밀리에 결혼한 사이일수도 있지 않나요?》 룽게가 웃었다.

《집사는 장가든 사람이예요. 물론 그 엠마는 아니고요. 아이들까지 있답니다. 계집애가 둘이예요.》

《오. 시대여! 오 관습이여!》 《케자르》가 원로원앞에서 성토연설을 하는 고대로마인의 자세를 취하고 부르짖었다. 《결국 그들은 당신마저 훔치게 되리라!》

《어찌겠어요. 혼자 사는 녀인의 운명이 그런걸요.》마그다가 구슬픈 미소를 지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외롭지 않을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벗인 룽게씨가 당신을 보호해줄겁니다.》

제 13 장

조그마한 분갑 하나가 크라메르부인댁에서 그렇듯 큰 소동을 일으킬줄이야 누가 상상인들 하였겠는가.

소동은 마그다가 자기 친척, 친지들에게 룽게를 소개하려고 마을돌이를 떠날 차비를 하던 일요일에 시작되였다. 마그다가 몸치장을 할 때 《케자르》의 식당에서 찾아낸 분갑을 일부러 눈에 띄는곳에 놓아두었다.

방금 녀주인의 머리치장에 착수했던 엠마가 이 귀금속분갑을 보더니 얼굴을 확 붉히였다.

《낯이 익지?》 녀주인이 비웃었다.

《네, 이건 저의 분통이예요. 이게 어떻게 되여 마님의 손에 들어오게 되였는지 모르겠군요.》 하녀가 대답했다.

하녀의 뻔뻔스런 행동은 늘 조용하고 참을성있던 마그다를 격분케 했다.

마그다는 불에 덴 사람처럼 뛰쳐일어나 문을 활짝 열고 도적이나 든것처럼 큰소리로 구원을 청했다. 처음에 룽게가 달려오고 이어서 하인들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 생겼소?》 룽게가 물었다.

《이 철면피한년이 제 남편의 선물을 제것이라고 해요. 룽게, 이게 제것이라는걸 그에게 설명해줘요.》

흥분한 마그다가 요구했다.

《아니예요, 마님것이 아니예요. 내것이예요!》 하녀가 딱 잘라 말했다.

룽게는 분갑을 들고 뒤에 새긴 글을 보여주었다.

《이것 보시오!》 그가 타일렀다.

《아마 당신의 이름은 엠마같은데 여기에는 마그다란 이름이 새겨져 있소.》

《아무튼 이건 내것이예요. 난 그걸 합법적으로 가졌어요.》 하녀는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우겨댔다.

《그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녀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전 그를 내쫓겠어요. 당장 우리 집을 나가!》
《좋아요. 나가겠어요. 허지만 나의 분통은 돌려주세요.》
룽게는 악에 받친 하녀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고 분갑에 대한 말다툼에는 무슨 내막이 있다는것을 간파했다.
《당신이 말하듯이 이 물건을 합법적으로 가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구입증서나 다른 증서로 그것을 증명해보시오.》
《난 그걸 주패놀이에서 땄어요.》 엠마는 얼마간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람들이 그걸 증명할수 있어요.》
하녀가 가정교사를 쳐다보았다. 가정교사는 엠마더러 입을 다물라고 눈짓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룽게는 이 비행에 다른 사람들도 말려들어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진실을 밝혀내자면 다른 연고자들의 말도 들어봐야 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인물들을 이 집에서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 그는 생각했다.
《당신은 분갑을 카뮤부인에게서 땄단말인가요?》 룽게는 하녀와 가정교사를 번갈아보면서 물었다.
《그래요. 그한테서 땄어요.》 하녀가 수긍했다.
《카뮤, 그게 사실이요?》녀주인이 물었다. 《어째서 자기 물건이 아닌것을 가지고 주패놀이를 했는지 이야기해요.》
《크라메르부인, 오해하십니다.》가정교사가 독이 올라 씩씩거렸다. 《난 남의것이 아니라 내 분통을 가지고 주패놀이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마그다가 격분했다.
《난 분통을 팔지도 않았고 전당을 잡히지도 않았으며 놀이에서 떼우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임자한테 갔느냐말이야?》
《자꾸 캐여묻지 않는게 좋을거예요.》하녀가 충고했다. 《그런다고 부인의 마음이 편해지진 않을거예요. 망신하지 않겠거든 내 분갑을 돌려줘요. 그러면 난 제발로 나가겠어요.》
《아니, 끝까지 밝혀야 하겠소.》 룽게가 동의하지 않았다. 《카뮤부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녀주인의 분갑이 당신의 손에 들어가게 되였는지 밝히시오.》

《부인도 내가 대답하길 바라는가요?》가정교사가 녀주인을 비웃듯이 쳐다보며 물었다.
《물론이지.》 마그다가 대답했다.
《그럼 알려드리지요. 난 분갑을 크라메르씨에게서 일정한 봉사를 해드린 대가로 받았어요.》 가정교사가 언명했다.
《무슨 봉사란말인가?》 마그다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부인이 해드려야 하는 그런 봉사지요. 허나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부인은 그런 능력이 없다더군요.》
이제야 비로소 마그다는 자기가 이 몇해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가를 깨달았다. 남편이 자기를 배반한것은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그러나 하녀들과 부부관계를 가지고있었다는것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수치람! 이게 도대체 무슨 수치란말인가!) 마그다는 마음속으로 통곡했다. (나를 두고 비웃고 놀려댔겠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있었으니…)
《어떻게 할가요?》 룽게가 울고있는 마그다에게 귀속말로 물었다.
《하녀에게 분갑을 돌려주세요. 그러나 저의 초상은 떼고요. 오늘중으로 우리 집을 나가라고 하세요.》 마그다가 지시했다.
《당신은 반대가 없으신가요?》 룽게가 하녀에게 물었다.
《나가잖구요!》 하녀가 대답했다. 《약간의 미련도 없이 나가겠어요.》
《당신은?》 룽게가 가정교사에게 물었다.
《헬무트가 죽은 후엔 난 이 집에 끌리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교사가 쓰거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자, 친애하는분들! 우리의 모임은 끝이 나갑니다.》 룽게가 말했다.
《나에게 물을건 없는가요?》
《당신에게 직접 물을건 없어요. 그런데 크라메르부인에게 나의 분갑을 어디서 얻었는지 말하게 해주세요.》 이전 하녀는 불쌍한 마그다를 계속 놀려댔다.
《당신의 물음에 내가 대답드리지요. 당신은 얼마전에 우리가 다

아는 인물을 자기 남편으로 가장시키고 하루밤을 지낸 유흥장에 그 분갑을 떨구고왔지요. 그 인물의 이름을 대드릴가요?》룽게가 물었다.
《필요없어요. 난 어디다 분갑을 놓고왔는지 이젠 기억이 나요.》하녀가 공손히 시인했다.
《아니 그럴수 없어!》가정교사가 반박했다. 《문제가 나의 명예와 관련될 때는 네가 남의 비밀을 사정보지 않았지. 그러니 자기 비밀도 털어놔야 공정해.》
갑자기 집사가 앞으로 나섰다.
《나는 이 집에서 하인들을 가지고 우롱하는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만일 중좌님이 우리들을 계속 우롱하시면 나는 다른 하인들과 함께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크라메르부인!》
그는 극도의 흥분때문인지 아니면 공포심때문인지 떠듬거리며 말했다.
《그러니 당신은 진실을 밝히는것을 우롱이라고 하는거요?》룽게가 그에게 물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재판소에서 심의하게 합시다.
카뮤부인은 남의 이름이 찍혀진 물건을 자기가 소유할 권리에 대한 론박할수 없는 증거를 재판소에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의 그 물건이 실지로 작고한 크라메르씨가 카뮤부인에게 선물로 주었다는것을 부인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분갑의 소유권이 카뮤부인에게서 엠마에게로 넘어갈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재판소가 판결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엠마는 크라메르부인에게서 잃어졌다가 의심스러운 경로를 거쳐 소유하게 된 그 물건을 어디서 어떤 정황에서 잃었는가를 재판소에서 밝혀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인들은 철면피하고 도도하게 처신했다. 그들은 크라메르부인이 남편이 사망한 후 풀이 죽고 의지가지없이 되였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 부르죠아가정들에서 기식하는데 이골이 난 카뮤나 엠마와 같은 판에 박은 협잡군들은 자기의 행복을 마련하는데 상대방의 약점만이 필요했던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재판소의 심문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 두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우길수 없었던것이다. 이런 경우에 음모가들은 흔히 후퇴하고 수세에 빠지는것이다. 이번에도 그와 류사한 현상이 벌어졌다. 잠시 서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새로운 범죄들이 급작스레 튀여나오기 시작하자 카뮤부인은 자기가 주인의 침실에서 분갑을 훔쳐냈다는것을 인정했다. 카뮤부인은 법적인 안해만이 누릴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자기를 비웃는 술취한 크라메르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훔쳤다고 고백했다. 이것을 알게 되자 엠마도 문제의 분갑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포기했다. 집사도 자기들 세사람의 이름으로 마그다에게 용서를 빌었으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그 집에 그냥 머물러있게 해달라고 청을 했다. 그러나 마그다는 동의하지 않았다.
《일단 쏟아놓은 물을 주어담을수는 없어요.》 마그다가 말했다.
《그럼 우리를 재판에만은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카뮤가 애원했다.
《정말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집사가 곁들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를 살려주시우.》
녀주인이 그렇게 하마고 동의하려 하는 순간 룽게가 앞질러 말했다.
《한가지 조건이 있소. 당신들이 주인을 비방하고 불손하게 대했으며 비행을 저지른데 대해 서면으로 사죄하는 경우에는 크라메르부인이 재판에 걸지 않을거요.》
하인들은 동의하고 즉시 녀주인앞으로 사죄의 글을 썼다. 그다음에 마그다는 유감없이 봉급을 계산해주었다.

제 14 장

《일이 참 멋지게 됐소!》하인들이 로임을 청산받고 집을 떠나가자 룽게가 말했다. 《오랜 행군에서 몸에 끼였던 때를 욕탕에서 깨끗이 씻어낸 기분이요.》

《때를 씻어낸건 사실인데 하인들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는지 모르겠어요.》 마그다가 무겁게 한숨을 지었다.

《락심하지 마오. 마그다! 하인이란 아예 없는데도 녀인들이 자기 집에서뿐만아니라 온 나라에서도 자신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를 나는 보았소. 그러나 엠마따위 하녀와 함께 있으면 자신을 나라의 주인, 가정의 주인으로 느끼기는커녕 자기 잠자리의 주인으로도 되지 못한다는걸 당신은 확신하게 되였을거요.》룽게가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저의 눈을 틔워주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산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했을뿐이예요. 주위엔 거짓과 속임수뿐이라고 생각하며 하루, 이틀, 한해, 두해 지나왔지요. 당장 손님으로 가야겠는데 누가 제 머리를 단장해주고 옷을 입혀주며 아이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그다가 푸념하기 시작했다.

마그다의 처지가 정말 난처한듯 했다. 그러나 여러해동안 상당히 무질서했던 상관의 부관으로 복무하면서 그 어떤 어려운 정황에서도 출로를 찾는데 습관된 룽게는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미용원에 전화를 걸어 미용사를 불렀으며 아이들은 마그다의 도움으로 게스타포에서 풀려나온 집지기의 손녀가 돌보게 했다.

《당신과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걸리는것이 없겠어요. 당신은 진짜 요술쟁이예요.》마그다는 머리가 류행식으로 단장되고 막스와 에리카가 새 보모와 함께 산보를 나가자 룽게를 칭찬했다.

룽게는 와그네르교수의 집에서 있게 될 상봉의 중요성을 알고있었다. 거기서는 마그다의 아버지와 남동생뿐아니라 임메르만형제도 그를 기다리고있을것이기때문이였다. 교수의 관심은 설명없이도 리해되였다. 자기 딸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라면 결혼하기 훨

씬전부터 미래의 사위를 살살이 알고싶어하는것이다. 이러한 시험에 룽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미 준비되여있었다. 그 시험장에 게스타포장교와 실업가가 참가한것이 그를 불안케 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가?) 룽게는 생각했다. (도대체 무엇일가? 단순한 호기심일가, 아니면 나를 반대하여 뭔가 꾸미고있는것일가?)
환니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자매는 서로 포옹했고 늙은 하인은 옷을 벗도록 도왔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계셔요.》 환니가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저의 상관과 장기를 두고계셔요. 가십시다. 제가 당신을 소개해드리지요.》
《난 남자들이 말도 안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몇시간씩 일거리도 없이 앉아있는걸 참지 못하겠어. 리하르드는 어디 있냐?》 마그다가 물었다.
《사진현상실에 있어요. 뭔지 긴급한 작업을 하고있어요.》
《죄가 무섭지 않는게지. 무신론자같은니!》 마그다는 종교인을 흉내내여 할머니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가서 그 애를 깨우쳐주어야지. 너무 일에 열중해. 살이 빠지고 얼굴이 핼쑥해졌어. 그저 일밖에 모른다니까. 일요일에라도 남들처럼 쉬여야지. 좀 기다려. 인차 오겠어.》
마그다는 실험실로 갔다. 한편 환니는 손님을 2층으로 안내했다.
교수의 저택에서 실험실은 제일 신성한곳이였다. 교수나 그의 아들의 허가가 없이는 외인은 그곳 출입이 엄금되여있었다. 이전에는 교수가 실험실을 떠날 때 방에 쇠를 잠그면 그만이였다. 그러나 그들이 련합회사 《화르벤웨케》의 동업자로 된 이후로는 와그네르교수의 비밀사업보장을 위해 에쓰에쓰대원들이 직접 3교대로 보초를 서게 되였다. 마그다가 실험실문에 다가가자 보초가 그를 멈춰세웠다.
《누굴 찾습니까?》 보초가 물었다.
《동생을 만나자고 해요.》 마그다가 대답하며 실험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보초가 몸으로 문을 막아섰다.
《못들어갑니다.》 보초가 단마디로 거절했다. 《원하신다면 동생을 불러줄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가요?》 교수의 딸이 자존심이 상한

목소리로 물었다.
《압니다. 크라메르부인. 허지만 아무튼 통과시킬수 없습니다.》
《그럼 리하르드를 불러요!》 마그다가 성을 냈다.
보초가 단추를 눌렀다. 어딘가 문 저쪽에서 종소리가 울리더니 뒤이어 발자국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리하르드의 불만스러운 얼굴이 나타났다.
《리하르드, 잘 있었니!》 마그다가 그를 향해 달려갔다. 《언제부터 친정집을 마음대로 다니는걸 금지시켰느냐?》
리하르드는 어릴적부터 누이에게 부모처럼 복종하는데 습관되여 있었으므로 지금도 마그다앞에서 죄송스러워했다. 분이 치민 누이의 얼굴을 대하게 된 리하르드는 얼떨떨해져서 자기 의지와는 반대로 누이를 실험실에 들여놓았다. 그가 곧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마그다는 부리나케 복도를 통과하여 제일 안쪽문을 열고 사진현상실로 들어갔다.
리하르드는 대경실색했으나 겁쟁이들이 흔히 그렇듯이 죄과를 남에게 전파하려 했다.
《무슨 일을 저질렀어? 이 멍청이같은게! 왜 못들어가게 붙들지 못했어?》 그는 보초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이 문앞에 서있지 않았나요.》 보초가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 녀자를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면 자신이 붙들수 있었지요.》
《뭐, 자신이라구?》 리하르드는 보초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럼 넌 뭣때문에 여기 서있는거냐? 가장집물이나 지키자고? 보초교대를 하면 네 상관에게 내가 너같은 코흘리개를 더는 보초소에 세우지 않겠다더라고 보고해!》
이 말이 보초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군무생활에서 약점을 보인 에쓰에쓰대원은 전선파견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여있다는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 그런데 깊은 후방의 이처럼 안전한 일자리를 떼우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서 그는 리하르드에게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으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코방귀를 뀌면서 누이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마그다는 사진현상실과 각종 화학반응제창고의 위치를 잘 알고있었다. 이전에 그 녀자는 사진필림을 현상하거나 사진을 인화하려고

자주 여기에 오군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그다는 방금 현상한 사진들을 세척하는 욕실로 곧장 다가갔다. (내 동생이 무슨 긴급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가?) 마그다는 생각했다. (동생은 아버지를 도와 그 무슨 야생식물에서 약재를 합성해낸다고 했었는데 그 약초들과 약재관목들을 사진찍었을테지. 어디 어떤 약초들에 관심을 가지고있는지 좀 보자.)

세척용물이 담긴 목욕통에는 진짜 인화된 사진들이 잠겨있었으나 거기에는 마그다가 예상했던 식물이 아니라 알몸뚱이의 남녀들이 찍혀있었다.

《음, 바로 이래서 나를 여기로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댔구나!》 마그다가 소리질렀다. 《아버지와 너는 색정적인 사진들을 만들고있구나. 놀라운걸! 이것들을 어디다 쓰자고 그래? 수집해두자고 그러나 아니면 상스러운 라체애호가들에게 팔아먹자고 그러나?》

《어리석은 소리를 그만해요!》 리하르드가 성을 냈다. 《여기선 색정적인 사진을 만들지 않아요. 누이가 보고있는 사진화면들은 개별적인 과학실험장면들을 찍은거예요.》

《얘, 넌 내가 머저린줄 아느냐?》 누이는 믿지 않았다. 《아니 내가 비록 대학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과학과 색정사진을 결코 혼돈하지는 않아.》

《누이, 여기서 나가자요. 나를 모욕하지 말아요. 누구도 누이를 머저리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수 없는 물건들이 있지 않나요.》

마그다는 필림을 끼여놓은 영사기를 쳐다보았다.

《여기엔 무엇이 있느냐?》 마그다가 물었다. 《여기에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수 없는 물건이 있느냐?》

《그 필림에는 우리의 과학실험내용이 찍혀있어요.》

《벌거벗은 사람들에 대한 너희네 실험내용이겠지?》 마그다가 영사기로 다가가며 조소를 담고 물었다.

《제발 영사기를 돌릴 생각은 말아요!》 공포에 질린 리하르드가 스위치를 뽑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저리 비켜!》 마그다가 동생을 밀어버렸다. 《그래. 네가 이것은 해도 좋고 저것은 하면 안된다고 나를 가르칠셈이냐? 이 집에선 너

나 나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있다는걸 결코 잊지 말아.》
이렇게 말하며 마그다는 영사기의 스위치를 돌렸다. 영사막에는 화학공장건물과 관리부서의 건물, 완제품창고 그리고 공장 로동자, 사무원들이 사는 새 마을의 곧은 길, 맥주집, 영화관, 려관, 경기장이 나타났다. 사르륵거리는 소리, 뚝뚝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해설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마그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나의 총통이시여!》와그네르교수는 보이지 않는 히틀러를 대상으로 말을 시작했다. 《첫 두권의 필림에서 우리의 〈엑스－1〉요강에 따르는 연구를 위해 련합회사 〈화르벤웨케〉의 신설실험실에서 일하는 과학자, 기술일군들의 연구성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의 무기〉생산계획에서 이 연구사업은 의심할바 없이 대단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원인들로 하여 〈아나르힌〉생산이 지연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미래의 전쟁에서만 쓸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집단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엑스－2〉요강에 따르는 연구사업을 계속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의 기적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합성해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에 〈마귀의 찌아니드〉란 가명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제때에 생산하여 제국의 원쑤들을 반대하는데 적용하면 우리 무력으로 련합군의 전진을 저지시키게 될뿐아니라 전쟁을 이기고 나아가서 통치하는 민족과 노예의 민족을 창조할데 대한 우리의 계획도 실현할수 있게 할것입니다. 우리 〈기적의 무기〉의 위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필림에 옮긴 몇개의 실험결과들을 보여드리고저 합니다.》
《누님, 마그다누님!》리하르드가 누이의 손을 잡았다. 《제발 영사기를 끄세요! 이 영화는 총통에게만 보여드리게 된거예요. 제작자들의 승인없이 다음의 화면들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게 되여있어요. 제발 누이자신과 나를 죽게 하지 말아요!》
《그만해!》누이는 동생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지르고 또다시 영사기를 돌렸다.
화면에는 《제1차 실험》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더니 물바가지와 목욕통, 샤와장치 등 모든것이 갖추어져있는 보통 목욕탕 비슷한 방이

비쳐졌다. 다만 보통 목욕탕과 다른것은 방의 벽체가 그 무슨 투명한 물체로 되여있어 밖에 있는 사람들도 특별히 애쓰지 않고 욕실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들여다볼수 있게 된것이다. 흰 위생복을 입은 두 녀인이 알몸뚱이의 녀인들을 한무리 이끌고왔다.

《두려워말라!》 위생복을 입은 녀인 하나가 안심시켰다. 《이건 목욕탕이다. 마음껏 목욕을 하라. 삼십분을 너희들이 맘대로 쓸수 있다.》

알몸뚱이의 녀인들을 욕실안으로 들여보낸 위생복을 입은 녀인들은 커다란 조명창같은 둥그런 문을 닫았다. 그안의 녀인들은 만족스럽게 몸을 씻고 물을 철썩거렸다. 그러나 벌떼가 윙윙거리는듯한 괴이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모형비행기가 목욕하는 녀인들 우를 빙빙 돌았다. 물바가지나 수세미를 손에서 놓은 녀인들은 날아오는 비행기를 응시했다. 녀인 하나가 비행기를 손으로 잡으려 했으나 손이 미치지 않았다. 이때 커다란 비누거품 비슷한 투명한 공이 비행기에서 떨어져내렸다. 그 공이 한동안 녀인들의 머리우를 돌면서 오르내리더니 빵 하고 터졌다. 그러자 아주 무서운 장면이 벌어졌다. 공포심에서인지 참을길 없는 아픔때문인지 녀인들은 뛰여다니고 뭉쳐 돌아가고 물바가지와 깔이의자에 부딪치고 서로 다리를 걸채이며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을 걷어찼다. 이러한 혼잡이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고작 십초 아니면 십오초였을것이다. 그다음에는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서 개미집에 던져진 벌레처럼 무서운 고통속에서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이것 역시 겨우 몇초동안 끌었다. 그런 움직임도 곧 그치고 녀인들은 시체로 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누워있었다. 촬영기는 녀인 하나를 근경으로 크게 보여주었다. 녀인의 희고 깨끗한 몸뚱이는 보는 눈앞에서 꺼매지고 피부가 툭툭 터졌으며 피흐르는 상처투성이로 변해버렸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시는바와 같이 〈마귀의 찌아니드〉의 증기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죽입니다. 더우기 피부를 파괴하고 질식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오십명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불과 몇미리그람의 독물질이면 됩니다. 실험은 공기중에 습도가 높은 밀폐된 장소에서 진행했습니다. 야외조건에서 더우기 대기습도가 낮을 때에는 독물질의 분량을 2~3배로 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무기〉를 비나 눈이 오는 때에 씀으로써 그의 효과성을 훨씬 높여야 할것입니다.》

영사막에는 《제2차 실험》이라는 제명이 나타났다.
《〈마귀의 찌아니드〉는 옷을 입은 인간생체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제2차 실험〉결과를 보기로 합시다.》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사막에는 벽체가 투명한 그 방이 나타났는데 욕실의 시설물들은 없었다. 한무리의 에쓰에쓰대원들이 손에 고무몽둥이를 들고 남녀군중을 그곳으로 몰아왔다.
그들은 모두가 줄간 수영복을 입고있었다. 문을 잠근 다음 에쓰에쓰장교가 메가폰에 대고 소리쳤다.
《너희들은 비밀회합에서 자기 요구조건들을 토의하려 했지만 제지당했다. 인젠 마음놓고 회합을 가지라. 여기서는 누구도 너희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마음내키는대로 행동하라. 론의하고 토론하라. 자기 요구조건을 행정당국에 법적으로 제기할수도 있다. 착수하라!》
물론 군중은 파시스트들의 이러한 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고있었으므로 입을 꾹 다물고 공포에 질려 서로 몸을 의지하고있었다.
《회합을 하고싶지 않으면 다른 놀이를 해라.》에쓰에쓰장교가 계속했다. 《전쟁놀이를 하라. 폭격기가 날고 폭격을 할것이다. 몸을 숨기라!》
이미 알고있는 따벌들의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겁에 질린 사람들의 머리우에 폭격기 《윤케르쓰－88》의 모형비행기가 나타났다. 비행기는 목표를 정하려는듯 사람들의 머리우를 선회하더니 내리꼰져 2개의 투명한 공을 투하했다. 사람들은 량쪽으로 갈라졌다. 몇명의 남자들은 투명한 벽체를 까부시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공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사람들속에서 빵 하고 터졌다. 사람들이 무리로 죽는 종전의 장면이 반복되였다.
《보시는바와 같이 옷도 신발도 〈마귀의 찌아니드〉의 작용을 막지 못합니다. 더우기 우리가 연구해낸 〈기적의 무기〉는 년중 어느 계절에 상관없이 유생력량을 소멸합니다. 그것은 다음의 실례를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해설자의 목소리가 예고했다.
《제3차 실험》이라는 제명이 나타났다. 영사막에는 또다시 그 유리집이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종전처럼 방이 비지 않고 흰눈이 눈부

시게 한벌 깔려있었다. 유치원교양원 비슷한 젊은 녀인 하나가 짝을 지어 늘어선 5~6살가량의 남녀어린이들을 데려왔다. 전부 스물다섯 쌍이였다.

《귀여운 어린이들!》 젊은 녀인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로씨야의 어린이들은 추운 겨울을 사랑하며 스키와 썰매타기를 즐긴다고 했지요. 선량한 마술쟁이 할아버지가 여기에 겨울을 마련해주었어요. 저기에는 스키도 썰매도 있어요. 저 둥근 문안으로 들어가 실컷 지치며 노세요.》

이렇게 말한 녀인은 문을 열고 아이들을 방안에 들여보낸 다음 문을 잠그었다.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것을 골라잡고 흥에 겨워 지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떼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곱게 채색한 모형비행기가 나타났다. 아이들은 환희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손벽을 치며 소리지르고 콩콩 뛰였다. 모형비행기는 죽음의 올가미를 걸려고 련속 빙빙 도는가 하면 마치 아이들에게 만족을 주려는듯 오른쪽 왼쪽으로 급선회를 하군했다.

비행기에서 3개의 공이 떨어졌을 때 어린이들의 환희는 절정에 달했다.

《보시는바와 같이 겨울조건에서는 독의 분량을 3배로 늘여야 했습니다.》 해설자가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튼 총 중량은 10미리그람을 넘지 않았습니다.》

3개의 공이 차례차례 터지는것을 본 마그다는 겁에 질려 정신을 잃을 지경이였다. 털외투를 입은 사내아이 하나는 갑자기 주먹으로 눈을 비비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내 눈에 뭔가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실험에서 실험용 동물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모두 로어로 말했는데 이번의 아이는 도이췰란드어로 말했다. 마그다에게는 이미 그 아이가 자기 아들로 보였는데 그 아이한테 자기 딸과 꼭 같은 옷을 입은 계집애가 다가오자 틀림없이 자기 아이들이라고 믿게 되였다.

《울지 말어. 얘, 네 눈에 티가 날아들었어. 인제 내가 손수건으로 티를 훑어내줄게.》

계집애는 외투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러나 동생의 아픈

눈을 돌봐줄 대신에 자기 눈을 비비기 시작하더니 기침을 깇으며 울다가 눈우에 쓰러졌다. 이때 절반이상의 아이들이 기침을 깇고 숨을 헐떡거리며 눈속에서 딩굴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눈을 비비거나 온 방안을 헤매며 울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어떤 아이들은 땅에 쓰러져서 살길을 찾아 깊지도 않은 눈속에 머리를 틀어박았다.

《하느님 맙시사!》 마그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구나!》

마그다는 아까 그 사내아이와 그의 누나에게 다시 눈길을 돌렸다. 두 남매는 거의 나란히 누워있었는데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마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내 아이들아! 막스야, 에리카야!》 발작적으로 소리친 마그다는 의자에서 일어서려 했으나 갑자기 정신을 잃고말았다.

제 15 장

환니가 룽게를 아버지의 서재로 안내해갔을 때 교수는 게스타포책임자와 함께 장기판을 마주하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아버지의 사위 헬무트 크라메르의 이전 부관이며 충실한 동료인 알프레드 룽게씨를 소개합니다.》 주인의 딸은 평시의 챙챙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기를 두던 두 사람이 일어서서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서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당신을 알게 되여 반갑습니다.》 교수가 이전 일선용사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사위의 최후에 대한 목격자인 당신에게 알아보고싶었소. 인사하시오!》 그는 자기의 장기상대자를 가리키면서 덧붙였다. 《이이는 우리의 두번째 사위입니다.》

《미래의 사위지요.》 게스타포책임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해명했다. 《대좌 루돌프 임메르만입니다.》

루돌프는 반들반들하게 닦은 구두귀축을 딱 소리나게 부딪치고나

서 자기 소개를 했다. 《미래의 사위의 권한으로 이 집에서 당신을 축하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룽게는 필요한 경우에 자기 속심을 감추는것을 생활에서 익혔다. 마음속에서는 이 야수에 대한 증오로 끓어번지는 이 순간에도 그는 아주 태연히 게스타포책임자에게 다가가 점잖게 고개숙여 인사한 다음 내여민 손을 잡았다.

교수는 룽게에게 이상한 인상을 주었다. 코마루가 휘여든 커다란 코와 희슥희슥한 머리칼이 섞인 뻣뻣한 검은 머리칼은 교수를 동아시아나라사람 비슷하게 보이게 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누르스름해보이는 툭 삐여져나온 회색눈과 흰 피부색갈은 토배기 유럽인을 상대하고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더우기 룽게를 놀라게 한것은 상처와 화상자국이 있는 각별히 커다란 손이였다.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의 손이 어째서 류형수의 손처럼, 더 정확히는 교형리의 손처럼 저렇게 험한지 모를 일이다.) 그는 놀랐다. (마그다나 환니처럼 아름다운 녀인들의 아버지가 저렇게 험악하게 생겼으리라고는 천만뜻밖이다.)

와그네르교수는 애써 친절을 보이려고 손님의 손을 이끌어 폭신한 안락의자에 앉히였다.

《당신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말을 시작했다. 《딸들은 당신을 칭찬하며 경탄할만한 말들을 들려주었소. 난 당신이 어떻게 그리도 쉽게 딸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는지 놀라왔소. 당신에겐 녀인들의 심장과 이목을 끌지 않을수 없게 하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 모양이요.》

《불구자가 아니였을 때에는 저에게 남성들이 부러워 아니할수 없는 군인으로서의 기질이 엿보였었는데 인젠 아이들과 절반인류의 대표자인 녀인들이나 즐겁게 해주는 기질밖에 남지 않은 모양입니다.》 룽게가 한숨을 지었다.

《무슨 그런 말씀을!》 교수가 그를 안심시켰다.

《마그다가 위수사령부에서 있은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던들 나는 당신이 불구자라는 말을 절대 믿지 않았을것입니다. 난 화학교수일뿐아니라 의사이기도 하지요. 반대가 없으면 당신의 상처를 좀 볼가요?》

《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룽게가 동의했다. 《당신은 내가 건강한

사람들속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시겠지요.》
와그네르교수는 룽게의 머리에 생긴 총상흔적을 세밀히 쓸어보고 두개골을 눌러보며 진찰했다.
《룽게씨,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그는 진찰을 끝내고 말했다. 《원쑤가 몇미리메터만 아래로 조준했더라면 의학도 당신에게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했을겁니다.》
《예, 의학이 나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간병에서 나를 구원하진 못했습니다.》
와그네르는 생각을 더듬어나갔다. 그는 환자에게 무슨 도움이든지 줄수 있는 여러 나라의 많은 의사들을 알고있었으나 그 대부분이 도이췰란드를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에서 살고있었으니 그들과는 상담을 할 기회마저 없어졌다. 10여명의 이름을 기억속에서 더듬어나가던 그는 베를린종합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있는 에르믈레르교수의 생각이 났다.
《내가 베를린의 의학거두에게 편지를 써주겠소. 한해전에 나는 그의 초청을 받고 사람의 중추신경계통치료에 몇가지 마취제를 적용한데서 이룩한 성과에 대한 강의를 학생들에게 해준바 있었소. 그 과장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거요. 한 둬달 쉬면서 안정한 다음에 어떻게든 그 과장을 찾아가보기로 합시다.》 와그네르가 약속했다.
《교수선생, 감사합니다.》 룽게가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되돌아가고싶습니다. 채 끝내지 못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니까요. 영원히 불구의 몸으로 남게 된다면 그 일은 내던지게 될게 아닙니까.》
《당신이 옳게 말했소. 젊은 친구.》 교수가 대답했다. 《채 끝내지 못한 일이야 누구에게나 목구멍까지 차있지. 그런데 우린 지금 종결단계에 이른 이 장기 한판을 아무리 해도 끝낼수가 없구만. 나의 장기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 좀 봐주시겠소? 내 말은 흰색이요. 임메르만씨는 나의 처지는 가망이 없다고 보고있소. 정말 그렇소?》
《그렇다마다요!》 게스타포책임자가 호통을 쳤다. 《공개적인 싸움에서 게스타포의 총창을 물리칠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룽게도 웃으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좀 가만 계십시오. 과학도 모든걸 빼앗긴건 아닌것 같습니다.》
 환니는 장기를 둘줄 몰랐다. 그러나 지금 룽게가 장기수를 쓰려고 잡도리하자 환니도 장기판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지지 말아요!》 환니가 룽게를 지원했다. 《과학이 정치경찰보다 더 강하다는걸 보여주세요.》
 교수로 말하면 자기의 분석력을 시위할 기회를 마다할 사람은 아니였지만 수를 쓸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본 다음에는 더 겨루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룽게씨는 다르게 생각하시는가요?》 임메르만이 물었다.
《나라면 내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룽게가 속심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내 자리에 앉으시오.》 교수가 자리를 권했다. 《이 장기를 비기게만 해도 난 기쁘겠소.》
《만약 이긴다면요?》 룽게가 웃으면서 물었다.
《그땐 내가 당신을 입맞춰주겠소.》 와그네르도 웃었다.
《네번째 수를 쓴 다음에 통장을 치겠습니다.》 룽게가 말하고 말을 집어 첫 수를 썼다.
《통장이라 하나 나에게만은 안될걸.》 임메르만이 대꾸했다.
《물론 당신이 아니지요. 〈검은왕〉에게 치겠습니다.》 다음 수를 쓰고나서 룽게가 그의 말을 시정시켰다.
 게스타포책임자는 수에 몰려 쩔쩔 맸다. 한편 말의 움직임을 주의깊이 관찰하던 교수는 갑자기 자기 이마를 탁 쳤다.
《바로 거기에 구멍수가 있었구나!》 교수가 환성을 올렸다. 《난 그걸 보지 못했었구나. 이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루돌프는 구원될수 없소.》
 그런데 기적이란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시대에는 일어날수 없으며 임메르만은 네번째 수를 쓴 다음에 실지로 항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신하고는 정말 롱담을 못하겠습니다. 룽게씨, 당신은 어디서 그런 훌륭한 장기솜씨를 배우셨는가요?》 게스타포책임자가 물었다.
《자기 상관이 아니면 누구한테서 배웠겠습니까!》 룽게는 의미있게 웃음을 지었다. 《크라메르소장은 대단한 장기애호가였습니다. 근무

중에 얼마간의 자유시간이 생기거나 당장 그의 곁에 합당한 짝패가 없을적에는 저와 자주 장기를 두셨답니다.》
《누가 이기군했소?》 교수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린 보통 네판씩 두군했는데 내기는 십중팔구 그이의 승리로 끝나군했지요.》
(량심적인 사람이군.) 확실히 호감이 가는 젊은이를 쳐다보며 교수가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그의 립장에 있다면 죽은 상대자를 자기가 이겼다고 자랑하련만 이 사람은 맞춤한 기회도 리용하려 하지 않는군.)
《난 당신과 네판을 두어봤으면 하는데…》 임메르만이 제의했다.
교수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다음번에 하지.》 교수가 말했다. 《점심식사시간이 되였소. 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지 모르느냐?》
《언니는 오빠한테 갔어요.》
《사진현상실에?》 아버지가 대단히 못마땅해하는 어조로 물었다.
《그래요.》 딸이 사실대로 대답했다.
《어리석은 소릴 그만해라. 누가 마그다를 그리로 들여보낸다더냐?》
《보초지요.》
《그럴수 없다!》 교수가 노했다. 《내가 보초에게 나와 리하르드외엔 누구도 들여놓지 말라고 단단히 오금을 박았다.》
《그럼 저나 마그다언니가 남이란 말씀이예요?》 환니는 샐쭉했다.
《아버진 오빠만 믿고 우린 안믿으셔요.》
《그렇다고 오빠를 시기해선 안돼.》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지금 그 애는 거기서 아들노릇을 하는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애가 실험실주임이라는것을 알지 않느냐. 가서 그 애들을 불러라.》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환니가 아버지에게 집안의 그런 일은 하인들이 할 일이라고 상기시켜주려던 참이였다. 그런데 어딘가 아주 지척에서 련이어 두방의 총성이 울리고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세번째 총성이 울렸다. 웨침소리와 퉁당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교수는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에서 달려나갔다. 문닫을것을 잊은 교수가 누구에게인지 엄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일은 바로 이렇게 되였다.…
마그다가 의식을 잃었을 때 리하르드는 처음에 혼자서 누이의 의식을 회복시켜보려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자 누이를 아버지에게 보이리라 마음먹고 누이를 팔에 안고 나왔다. 입구에서 보초가 그들을 멈춰세웠다.
《리하르드, 사람답게 행동하라구!》 보초가 리하르드에게 사사로이 말을 걸었다. 《우리가 뭣때문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겠나? 너와 나는 전혀 남이라고는 할수 없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들은 두분이 다 교수이지. 그리고 너와 나는 같이 중학을 다니다가 함께 대학에 들어갔지. 둘이 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지. 제발 아까 네가 한 말을 취소하라구!》
《저리 비켜!》 리하르드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지 못해? 넌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거야.》
보초를 무례하게 밀쳐버린 리하르드가 서둘러 웃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좋아!》 뒤에서 보초가 소리쳤다. 《넌 나를 멸망시키겠다지. 그럼 너두 죽어봐라!》
이렇게 말한 보초는 권총을 뽑아들고 묘준한 다음 두방을 갈겼다. 총탄이 목표물에 명중하였음을 확인하자 보초는 자기도 자총했다.…

제 16 장

불상사를 당한 사람들중에서 마그다는 제일 운수가 좋았다. 왼팔에 경상을 당했을뿐이다. 의식을 회복하자 마그다는 자기를 당장 자기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리하르드는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 중태에 빠진 그를 교수가 병원으로 실어갔다. 자기 관자노리를 제손으로 쏜 보초는 사람들이 다가갔을 때 이미 죽어있었다.

환니도 오빠와 동행하여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아버지는 자기가 수술에 립회할동안 집을 비우지 말라고 지시했다. 환니는 혼자 남게 되자 공포심에 휩싸였다. 피할길 없는 불행이 다가온듯싶었고 오늘의 불행한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듯한 느낌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구원될 길이 정말 없단말인가? 나도 오빠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단말인가?)

환니는 중얼거렸다. 그러자 언제인가 자기가 나타나자 오빠가 타자치던 일을 그만두고 부랴부랴 종이장들을 파란색 서류철에 넣어 문건과 편지들을 넣어두는 자기 개인금고에 넣고 쇠를 잠그던 일이 상기되였다. 환니는 그때 서류철표지에 적힌 《우리 가문의 족보》란 글을 겨우 읽을수 있었다. 환니는 그 《족보》를 몹시 보고싶어했으나 오빠가 허락하지 않았다.

《넌 가계문제를 론의하기에는 아직 어려.》 그때 오빠가 말했었다.《때가 되면 어련히 내가 연구한 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리.》

(그러다가 불의에 의사들이 오빠를 구원하지 못하게 되면?) 환니가 공포에 떨며 생각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개입될것은 의심할바 없어. 그렇게 되면 살인자나 그의 희생자나 할것없이 그들의 개인문건들은 모조리 수사에 리용될테지. 그러니 리하르드의 개인문건을 압수하려고 법일군들이 언제 여기에 나타날지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나는 오빠가 수집한 우리 가계에 대한 비밀자료들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될수 있어.)

환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하르드의 방으로 들어갔다. 환니는 오빠의 작업복 바지주머니에서 책장과 개인금고의 열쇠를 찾아냈다. 낡은 책장의 아래단 두단에 보관된 서류철들가운데는 《우리 가문의 족보》가 없었다. 그가 예견했던바대로 그 서류철은 철금고속에서 찾아냈다. 환니가 족보철에 대해 처음 알게 되였던 다섯해전에는 한권이였던것이 지금은 꽤 부피가 큰 두권으로 찬찬히 묶이여있었다. 두권을 손에 쥔 환니는 자기 침실로 돌아가 이불속에 들어가서 한페지한페지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족속의 시조는 프로씨아귀족의 사생아 프리드리히 로젠캄프

였다. 17세기에 예까쩨리나 2세가 왕위에 있을 때 그는 가족과 함께 로씨야로 이주하여 로씨야군대에서 복무했다. 뛰르끼예군과의 전투에서 적들을 크림에서 구축할 때 큰 공을 세웠다. 녀왕은 칙령을 내려 로젠캄프에게 남작의 귀족칭호와 예흐빠또리야시주변의 령지를 하사했다. 그에게는 다섯 아들과 세 딸이 있었다. 딸들은 로씨야지주들에게 시집보내고 아들들은 로씨야국가 혹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도이췰란드사람의 딸들에게 장가를 보냈다. 그후에 이것은 로젠캄프가문의 전통으로 되였다.》 리하르드는 《우리 가문의 족보》허두에서 이렇게 썼다. 계속해서 그는 쏘련에서의 10월혁명과 공민전쟁까지의 시기에 남작계렬에 속한 로젠캄프후손들의 생활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저명한 가문의 후손 한사람에 한개장씩 썼다. 이 자료들은 환니에게 별로 흥미가 없었으므로 빨리빨리 책장을 넘겨갔다. 환니는 와그네르가문의 력사가 서술되여있는 페지들에 관심이 있었다. 환니는 와그네르의 가문이 1920년까지 로젠캄프의 성을 달고있었다는것을 알았다. 그해 11월에 소위 로씨야남부의 무력, 간단히 말해서 우랑겔남작의 반혁명군이 피멸된 후 여기서 련대군의로 복무하던 로젠캄프의사인 리하르드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다른 백파장교들과 함께 크림에서 도주하여 처음에는 꼰쓰딴찌노뽈에서 살다가 오스트리아로 이주했다. 거기서 첫 안해의 성을 따서 로젠캄프대신에 와그네르란 성을 가지게 되였다. 성을 바꾼 리유를 필자인 아들은 딱히 알지 못했으나 자기 아버지가 잠시나마 로씨야로 되돌아갈 욕망을 버리지 않고있었으므로 백파군에 복무한 책임이 두려워 변성명하고 나타나려고 그랬으리라고 추측하고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두번 장가를 들었다.》 리하르드는 이렇게 썼다. 《처음에는 로씨야화된 도이췰란드지주의 딸에게 장가들었다가 두번째로는 짜리군에 복무할 때 자기 상관인 의료군무대좌 야르쩨브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첫 안해는 딸 마그다를 낳았고 두번째 안해는 나와 환니를 낳았다.

아버지의 정신은 변함없이 도이췰란드민족주의자였으나 로씨야짜리에 대한 자기의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해 전쟁시기에 로씨야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나는 환니가 어머니편으로만 남매이지 아버지는 서로 다르다는것을 알아냈다. 나의 아버지는 로

베르트 와그네르이고 환니의 아버지는 1920년 여름에 우리 가정교사로 있던 로씨야대학생이다. 아버지는 자기 일기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

계속하여 리하르드는 아버지의 일기에서 발취한 대목들을 인용하고있다. 《환니는 우랑겔군대가 괴멸된 후에 우리가 크림에서 이주한 때인 1921년 겨울 뛰르끼예에서 출생했다. 그때 벌써 나는 안해의 부정한 행실을 추측할수 있는 근거를 쥐고있었다. 진실을 밝혀보자고 내가 무슨 짓인들 안했겠는가. 수사술의 원칙에 따르는 여러가지 심문들을 끝없이 들이대며 가장 야비한 욕설도 해보고 모욕했으며 심지어 매질까지 했지만 그 녀자는 자기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딸이 열살이 되자 드디여 에미는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지만 정부의 이름만은 계속 숨기였다. 나는 그때 그녀자를 무섭게 증오했으며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고 했다. 의사에겐 그런것쯤은 별로 어려울것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우선 내 적수의 이름을 알고싶었다. 이때 아마조나스강골짜기 깊은 수림속에서 산다는 인디안종족 삐루-삐루에 대한 한 려행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 학자의 증언에 의하면 인디안들은 자기들만이 알고있는 그 무슨 마약을 사용하여 포로심문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둔다는것이였다. 즉 신비한 유독물질의 작용으로 잠들어버린 포로들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답을 한다는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신비한 약을 얻어내리라 결심하고 아마조나스강지대의 산림속으로 특별탐사를 조직했다. 나는 운수가 좋았다. 우리는 리우-네그루강과 아마조나스강이 합류되는 습한 열대산림속에서 미개한 삐루-삐루종족을 찾아냈다. 인디안들은 우리를 의심스럽게 지어는 적대적으로 대했으며 자기네 신비한 약재의 비밀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가 우리를 도왔다. 어느날 밤에 우리는 도적을 당했다. 삐루-삐루종족의 인디안들을 의심하게 되였다. 우리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혹한 징벌을 가하려고 하였으나 인디안추장이 자기네 사람들과 의논하는동안 좀 기다려달라고 사정했다. 한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추장이 우리 천막에 찾아와서 우리의 길안내자를 도적이라고 지명했다. 그러나 길안내자는 자기가 범죄에 참가한 사실을 단호히 부정했다. 그러자 추장은 길안내자를 실험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 약재를 쓰도록 승

인했다. 추장은 길안내자의 팔에 깊지 않은 상처를 내고 거기에 푸르스름한 액체를 떨구었다. 문자그대로 몇분 지나자 길안내자는 혼수상태에 빠져 추장측에서 아무 강박도 하지 않았는데 도적질한것을 인정했을뿐만아니라 훔친 물건들을 어디에 감추었는가 하는것까지 다 자백했다. 그다음에는 우리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갔다. 여러가지 유리제품, 바늘류, 빈침, 몇개의 칼과 도끼 등의 〈풍성한〉선물에 감동된 추장은 우리에게 10명에게 넉넉히 쓸만한 신비한 약재를 주었을뿐만아니라 그 약을 만드는 비밀까지 알려주었다. 그때 추장은 이 약재를 같은 사람에게 반복사용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죽는다는것을 경고했다.》

브라질에서 와그네르는 독초씨앗과 비밀을 불게 하는 신비한 인디안의 약재원료인 버섯포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다음 두해동안에 와그네르는 따뜻한 기후조건에서 이 풀과 버섯을 재배하는데 성공했을뿐더러 작용력이 강한 일련의 유독성물질들을 합성해내는데까지 이르렀다. 그중에 우에 지적한 약재는 자기 안해를 대상으로 실험했다. 그에 대해서 교수가 일기에 적은것을 리하르드가 《우리가문의 족보》에 옮겨놓았다.

《비밀을 불게 하는 약재는 복잡한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 법기관에 크게 도움을 줄수 있다. 특히 범인이 자기 죄를 부정함으로써 법기관이 범죄를 밝힐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에 그러하다. 나는 나의 약재를 법률학자들에게 권고했으나 내가 발명한 약재를 거절하면서 그 약을 사용해도 위험하지 않는 방법부터 연구하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나는 이 약재를 법률학에 리용하려던 생각은 포기하고 나의 애초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그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내 안해는 불면증에 시달리고있었다. 나는 안해에게 미국학자들이 불면증에 잘 듣는 약을 찾아냈는데 그걸 써보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안해는 동의했다. 나는 해당한 량을 주사했다. 그러자 안해는 혼수상태에 빠져들었으나 환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미처 묻지 못하고말았다. 경찰관이 자동차사고현장으로 급히 나를 불렀던것이다. 그 시절에 나는 과학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법의감정인의 직무도 맡아보고있었으므로 인명피해까지 있은 사고현장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할수가 없었다. 안해를 내버리고 경찰관과 같이 가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안해가 이미 깊은 잠에 취해 버렸을 때에야 집에 돌아

왔다. 그에게 질문을 한다는것이 무익한 일이였다. 나는 약재를 두번 주사하면 나의 안해가 죽는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환니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고싶은 마음을 누를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해에게 미국제 〈수면제〉를 두번째로 주사하게 되였다. 이번에는 전화수화기도 내려놓고 문도 걸었다. 나의 안해의 고백을 듣는데 방해될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안해는 자기가 도이췰란드인들에게 호의를 가져본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나를 언제나 미워했노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환니의 진짜 아버지는 마그다의 가정교사였던 대학생 아르까지 이와노위치 고르노쓰따예브인데 안해는 그를 사랑했으며 지금도 사랑하고있으며 그의 생사는 모르고있다고 고백했다.…

삐루―삐루추장의 경고는 완전히 들어맞았다. 안해는 깨여나지 못한채 만 열시간후에 죽고말았다. 사랑의 배신자는 준엄하나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나는 마음이 진정될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의 적수를 복수할 생각에 시달렸다.

나는 쏘련에 가서 그자를 찾아내여 응당한 징벌을 가할 방도를 강구해야 했다. 나는 새 로씨야가 선진적인 과학자들과 문화인들을 언제나 한품에 안아 반갑게 맞아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나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분장할수 있었다. 나는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에 입당했다. 정황은 나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조성되였다. 나는 쏘련의 〈벗〉으로 등장했으며 출판물들에는 로씨야5개년계획과 꼴호즈에 대한 나의 론문들이 게재되였다. 윈에서는 슈쯔거리 로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다. 정부는 로동자들의 무장진출을 가혹하게 진압해버렸다. 폭동주모자들은 외국으로 망명하게 되였다. 나도 가족과 함께 모스크바에 가게 되였다.》

계속해서 아버지는 쏘련에서 체류한 3년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리하르드는 자기 《족보》에서 이렇게 지적한 다음 아버지의 일기중에서 다음의 말을 인용했다. 《나는 적수를 찾아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자가 쏘련국방인민위원부의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복수를 단행할수 없게 되였다.…》

환니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그러고보니 바로 그가 나의 불쌍한 어머니를 죽였구나!》환니는 속삭이였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와는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랭혈의 이 살인자를 옹근 스물세해동안 나는 친아버지로 알고있었다니 과연 이

게 벌을 받지 않고 지나갈 일인가. 아니 난 절대로 이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테다. 죄없이 흘린 어머니의 피는 복수를 요구한다. 맹세코 나는 그자와 계산을 하리라!)

환니가 우선 하고싶은것은 그자가 먹을 음식에 독약을 치는것이였다. 화학교수의 집이니만큼 작용력이 강한 독약이 없을리 없었다. 환니는 어머니의 귀중품함에 몇사람은 죽일수 있는 량의 《찌아니드 칼리움》을 넣어두고있었다. 한사람분의 량을 아침커피에 넣어 그에게 주는 일은 그리 힘들것이 없었다. 곧 이렇게 행동하는것이 과연 옳겠는가 하는 의혹이 생겼다. 처녀는 그 어느 시대나 모든 민족이 살인을 중죄로 간주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환니는 죄인으로 되고싶지도 않았고 될수도 없었다.

(모든 문명국에서 범죄자의 처벌은 국가권력의 특권으로 된다.) 환니는 중학교 교과서의 한 대목을 상기했다. (그러니 나의 어머니를 죽인자도 국가가 처벌해야 하고 나는 국가가 살인자를 적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론리가 처녀의 마음에 들었다. 처녀는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검사에게 진술을 하며 재판정에 출정하는 장면들과 거기서 살인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자의 더러운 이름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되는것을 머리속으로 상상해보았다.

그러나 곧 위구심이 생겼다. 유력한 근거가 없이 와그네르를 법정에 내세울수 있겠는가? 환니는 《우리 가문의 족보》외에 다른 증거는 수사기관에 제출할것이 없을것이다. 다만 교수의 친필일기를 제출하는것이 더없이 좋겠지만 리하르드는 그다음 글에서 아버지가 자기 일기장이 제자리에 없고 다른데 있는것을 발견한 뒤로 아들이 보는데서 일기장을 불살라버렸다는것을 확인했다.

(과연 어떤 재판관이 로씨야사람을 죽인 도이췰란드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모험을 하겠는가. 그래 지금 전선과 후방에서 수백수천의 로씨야인들을 죽이고있지 않단말인가. 총통이 허락하여 로씨야인들에 대한 살인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지 이미 오래며 살인자들이 영웅으로 행세하고있다. 뭔가 다른 수를 생각해내야 하겠다.) 환니는 속다짐을 했다. 환니는 자신처럼 믿을수 있는 사람과 의논해보고싶어 견딜수 없었다. (그러나 어디서 그런 믿을만한 사람을 찾겠는가?) 환니는 자문하며 친척들과 아는 사람

들을 속으로 꼽아보았다. (그 사람들속에는 내가 속을 털어놓을 대상이 하나도 없다. 그럴만한 사람은 전혀 있을수 없다. 어느 량심적인 사람이 범죄자의 가정과 친하게 지내려 하겠는가. 와그네르교수와 같은 인간들주위에는 아첨쟁이, 출세주의자, 질투쟁이, 고자질쟁이, 리기주의자, 겁쟁이, 불한당들이 욱실거릴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믿는다는것은 약이 오른 사자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것과 다름이 없다.) 어디선가 문소리가 쾅 하고 들려왔다.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환니는 재빨리 보던 《족보》를 덮어서 베개밑에 감추었다.

《넌 아직 자지 않느냐?》 와그네르가 방문을 열고 물었다.

《아니요.》 환니가 대답했다. 《리하르드가 어때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죽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왜 그렇게 되였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헛일이였다. 《마그다는 사진현상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더냐?》

《별로 이야기한게 없어요. 빨리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바라신다면 래일 언니와 이야기해보겠어요.》

《그렇게 하려무나.》 교수가 동의했다. 《문지기의 말에 의하면 보초가 무기를 사용하기전에 뭔지 물었다더라. 마그다는 그들이 다툴 때 곁에 있었다. 남자들이 뭘 가지고 싸웠는지 알아보도록 해라.》

《제 생각엔 보초가 전적으로 잘못한것 같아요. 보초는 우리를 모두 잘 알기때문에 오해로 사격했을수는 없어요. 살인하고 자총한데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었을거예요.》

《게스타포가 수사에 착수했다. 보초병의 아버지는 벌써 체포되였어.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지 않도록 하자고 루돌프 임메르만이 직접 모든 정황을 해명하는데 착수했다. 얘야, 우리의 미래가 그 사람한테 많이 달려있다는걸 명심해라. 그러니 그에게 더 싹싹하게 대하도록 해라.》

《알겠어요.》 환니가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이를 공연히 노엽히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전에 내놓은 결혼조건에서는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어요.》

환니는 언니네 집으로 가 곧장 침실로 찾아갔다. 마그다는 까딱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었다. 자기 생각에 얼마나 골똘했는지 문이 여닫

기는것도 알지 못했다.

《언니. 웬일이예요?》 환니가 놀랐다. 《왜 자지 않아요?》

《잠이 다 뭐냐?》 마그다는 소스라쳐 놀랐다. 《온밤 눈을 붙이지 못했다.》

《팔이 몹시 아파요?》

《팔이 온밤 쑤셨다만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야. 얘. 우린 무서운 시대에 살고있구나. 래일은 고사하고 오늘에 대한 신념조차 나에게는 없구나. 모든게 뒤죽박죽이고 모든게 깊은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어. 사실대로 말해서 우리들에게도 좋은 운명이 차례질것같지 않구나.》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예요?》 환니가 심각해졌다. 《아버지에 대한것이라면 나도 진실을 알고싶어요.》

《뭣을 알고있느냐?》 마그다가 놀라서 물었다.

《다 알고있지요. 죄다 말이예요.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예요. 내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예요.》

《난 그걸 알고있는지가 오래다. 리하르드가 나더러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라고 주더구나. 우린 너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려고 했으나 좀 더 기다리기로 했었다.》 언니가 고백했다. 《얘, 이젠 넌 어떻게 할 생각이냐?》

《뭘 어떻게 한단말이예요?》 환니가 의아해했다. 《이젠 될수록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 진짜 아버지를 찾으려는 한가지 생각뿐이예요.》

《넌 참 천진하구나! 네가 거기서 아버지를 찾겠는지 못찾겠는지도 알수 없거니와 설사 찾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너를 자기 딸로 인정하겠는가 하는것도 모르지 않니. 한가지만은 명백히 말할수 있다. 네가 거기에 가자마자 너를 감옥에 처넣을게다.》

《무엇때문에요?》 환니가 울음을 겨우 참으며 물었다.

《그래 네가 어디서 일한다는걸 잊었느냐?》

《난 자신이 도이칠란드녀자이고 와그네르의 친딸이라고 생각했을때까지는 게스타포에서 복무했어요. 내가 로씨야사람이라는것을 안 나는 감옥에 가두든 심지어 총살을 시키든 기어이 조국으로 돌아갈테예요.》 환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같이 가지 않을래요? 언니는 로씨야에서 출생하지 않았나요.》

《아니 너 혼자 가거라. 너야 홀몸이니 죽는대도 너뿐이 아니냐. 허지만 나에겐 아이들이 달렸으니 모험할수는 없다. 너무 서둘러 떠나갈 생각은 말어라. 로씨야사람들자신이 여기로 올게다.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때 그 사람들과 낯을 익히고 그들의 질서를 알게 되면 너의 아버지도 만나게 될지 알겠니. 그 사람은 국방인민위원부에서 일한다더라. 그러니 군인이지. 아직은 여기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라.》
《좋아요. 생각해보겠어요.》 환니가 약속했다. 《오늘은 어째서 언니 혼자뿐이예요? 하인들은 다 어디 갔어요?》
《내가 다 내쫓았다. 룽게가 아침식사할 음식을 사러 갔다.》
자매는 어제 있었던 여러가지 사실들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환니는 사진현상실에서 마그다가 당한 일을 알고싶어했으나 언니는 동생의 호기심을 단호히 물리쳤다.
《리하르드에게 난 현상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단다. 그앤 거기의 비밀을 루설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더라. 너나 내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길 난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노여워진 환니가 언니와 작별하고 밖으로 나왔다. 바로 그때 대문으로 승용차 《백설공주》가 다가왔다.
《안녕하시오. 환니양!》 운전대에 앉은 룽게가 처녀에게 인사를 했다. 《벌써 가시는가요?》
《네. 출근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먼저 아버지를 만나야겠어요. 저를 집에까지 태워다주시겠어요?》 처녀가 부탁했다.
《어서 그렇게 하시지요.》 룽게가 동의했다.
《롱담하시는게 아니예요?》 환니가 그를 의아쩍게 쳐다보며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량한분에게 봉사를 해준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단말씀인가요?》
《그거야 어떤 봉사인가 하는데 달렸지요. 얼마전까지 어엿한 장교이시던 당신과 같은분에겐 단조로운 운전사의 봉사쯤이 그다지 만족을 줄수 없을것 같은데요?》
《그건 전적으로 운명의 곡절에 달렸지요. 한때 출중했던 장교들

도 감옥에 갇혀있지 않으면 안되는 시국에 운전사의 일감쯤이야 얼마든지 참을만한거지요. 감옥에서야 정말이지 무슨 만족을 느끼겠는가요.》

《누구를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환니가 신경을 도사렸다.

《당신에게 반했다는 그 대좌를 두고하는 말이지요. 그의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룽게가 능청스럽게 웃었다.

《아, 당신은 또다시 뚜르하노브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전 그이가 저에게 반한게 아니라 제가 그이에게 반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가요?》

《유명한 장군들에 대해 난 늘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당신과 같은 〈요새〉를 점령한 인간을 비범한 인물이라 아니할수 없지요.》 룽게가 웃으며 대꾸했다.

이 대답을 통하여 처녀는 룽게가 쏘련대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있으나 직접 자기에게 그것을 말하기 꺼려한다는것을 알았다. (그래 저 사람이 옳아.) 환니가 생각했다. (조심해서 해될거야 없지. 우린 서로 깊이 알지는 못하거던. 허나 뚜르하노브를 돕는 의미에서 그에게 닥쳐오고있는 위험을 롱조로나마 예고해주어야겠다.)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은 지금 〈요새〉를 점령할 경황이 못돼요. 가까운 시일안에 우리와 헤여지게 되는데 십중팔구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될거예요. 대좌를 마우트하우젠수용소로 이감시켜요. 아시겠지만 거기는 수인들이 〈요새〉점령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곳이예요.》

《참 유감인데요.》 룽게가 가슴아프게 한숨을 쉬였다. 《외눈으로라도 그 사람을 한번 봤으면 했는데…》

《어째서 외눈으로 보겠나요? 두눈으로도 보실수 있습니다. 수인들을 태운 차량이 올 때 마우트하우젠역홈에 가있으면 됩니다. 개인번호를 보고 그를 찾을수 있을테니까요.》

《당신은 그 차량이 언제 역에 도착하겠는지 이야기해줄수 있는가요?》 룽게가 처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물었다.

《하루전에 알려드릴수 있어요.》 처녀가 누구를 두려워하는듯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하면 만족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백설공주》는 와그네르교수의 집앞에서 멈춰섰다. 룽게는 차에서 재빨리 뛰여내려 차머리를 급히 돌아가서 오른쪽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는 친절한 젊은이처럼 환니의 구럭을 대문있는데까지 날라다 주고 단추를 눌러 종을 울린 다음에야 처녀와 작별했다.
(이젠 《푸른두나이》로 빨리 달려야지.) 그는 차에 타며 생각했다. (리베르만을 만나서 뚜르하노브를 죽음의 수용소로 이감시킨다는것을 쏘꼴로브에게 알리게 해야지.)

제 17 장

수인의 인격을 모욕하는것은 루돌프 임메르만이 게스타포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굳어진 습성이였다.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나치스활동을 했을것이라는 의심 하나로 사람들을 체포하는것이 보통이였다. 그리고는 제국의 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는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했다. 특히 반히틀러동맹국의 《외국로동자》나 포로들에 한해서는 더욱 횡포하게 굴었다. 그럴 때 자신을 이 불행한 사람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짓밟는 무제한한 권력자로 느끼군했다. 실은 이 사업이 결코 수월치는 않았다. 때로는 심문할 때 수인들에게 소리를 질러야 했고 목이 쉬도록 욕설을 퍼부어야 했다. 더구나 수인들의 행동이 다 같지는 않았다. 례를 들어 자유사상가인 수인에게서는 자백을 받기가 힘들지 않았다. 두세차례 얼굴을 주먹으로 쥐여박으면 그들은 아는것은 물론 모르는것까지도 모조리 자백한다. 그러나 로동자인 경우에는 그것도 공산당지하조직성원인 경우에는 심문하기가 제일 어려웠다. 위협도 고문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 말도 불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바라던바와는 영 다른 소리를 하는것이다. 뚜르하노브는 불굴의 의지와 무쇠와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그자는 다른놈들처럼 기정사실을 부정하여 애를 먹이지는 않지만

그 호의적인체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로골적인 적대적태도보다 더 나쁘단말이야. 게다가 미국정탐까지 끼여들어 우리 수족을 묶어놓거던.) 이렇게 생각하며 임메르만은 자기 사무실을 신경질적으로 오락가락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상급의 태도 역시 불안케 했다. 한때는 그들이 도도하게 처신했고 자기 권력에 도취되여있었는데 얼마전부터는 갑자기 양순해지고 풀이 죽었으며 그늘속에 몸을 숨기려고만 했다. (망나니들이 겁을 먹었거던.) 루돌프는 생각했다. (우리가 이길수 있다는걸 믿지 않게 되였지. 파시스트 당,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현장부재를 증명하자는거겠지. 그걸 적들이 끊임없이 불어대고있거던. 혹시 그자들의 생각이 옳을지도 모르지. 물론 우리의 승리를 믿어야 하지만 래일 문제를 잊어서는 안돼. 형의 의견에 의하면 나의 권력은 형의 수입과 정비례한다는거야. 그래서 형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공장을 구원하도록 관심을 돌리라는거지. 어찌겠는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약은 사람들이니까. 그런자들의 뜻을 따르면 랑패를 보지 않아. 하는수없이 운명에 순종하는수밖에.)

문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둥무이했다.

《들어오시오!》

환니가 여느때없이 침울한 기색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인사를 나누고 처녀는 허가도 없이 자리에 앉았다.

《상복을 입었구려.》 루돌프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당하는 크나큰 슬픔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바요.》

《고마와요. 루돌프, 전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잃었어요. 언니는 다친 다음 고열로 누워있구요. 특수호위원까지 믿을수 없는것이 가슴아프군요.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자기 집 이불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겠어요.》 환니가 노여운 어조로 조용히 푸념을 했다.

《진정하오. 난 벌써 해당한 조치를 취했소. 살인자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정기적으로 런던방송을 청취했다는것을 자백했소. 보초는 당신의 오빠를 외국정탐의 임무를 받고 쏘았을수 있소. 그자의 친구였던 에쓰에쓰대원들을 모두 오늘 동부전선으로 추방했소. 당신들은 자기 신변을 더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오.》

《두고봅시다. 전 정말 언니가 불쌍해요. 어제사건을 알게 된 후 언

니네 하인들은 다 달아나버렸어요. 룽게씨는 외국로동자들을 채용하도록 승인을 받는데 당신이 협력해주길 바라고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지금 제 사람들은 채용할수 없을테니까요.》
《쾌히 그 청을 받아들이겠소. 로동자가 몇명이나 필요하답디까? 남자요, 녀자요?》
《남자 다섯명.》
루돌프는 전화송수화기를 들고 외국로동자배치부서의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를 기쁘게 해드리오.》그는 송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다섯명의 동방로동자들이 그 집 일을 보게 될거요. 언니더러 그자들과는 각별히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이르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린 그자들을 즉시에 수용소로 쫓아보내겠소. 이젠 우리도 일에 착수합시다. 난 뚜르하노브와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오.》
《어째서 최종적인가요?》 환니가 긴장해졌다.
《수표하기를 거절하면 다음번 차편에 마우트하우젠으로 보내겠소. 완고한 인간들은 참기 어렵단말이요.》
《수용소에서 탈주하진 않을가요?》
《우린 그자를 특별감방에 가두기로 했소. 수용소 소장 흐란쯔치라이쓰대좌는 죄수들이 거기서 나갈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화장터 굴뚝뿐이라고 확신하고있소.》 루돌프가 웃었다. 《기대를 걸어봅시다. 대좌는 롱담할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무실로 부관이 들어왔다.
《죄수 78901번을 호송병을 붙여 데려왔습니다.》 부관이 책임자에게 보고했다.
루돌프 임메르만은 권총집에서 총을 꺼내여 책상우에 놓은 다음 그우에 신문지를 덮고 죄수를 데려오라고 했다. 부관은 상관의 지시를 수행하기에 바빴다. 곧 건장한 에쓰에쓰대원 둘이 뚜르하노브를 데려왔다.
환니는 전번에 만나본 이후 뚜르하노브가 눈에 띄게 변모했음을 알아보았다. 그때보다 더 수척해져서 얼굴의 피부는 창백하다못해 죽은 사람같았고 볼은 푹 꺼져들어갔었다. 그의 눈만이 변함없이 부드러운 빛을 뿜고있는듯이 느껴졌다.

《내 말을 통역하시오.》 루돌프가 환니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앉소! 이게 우리의 마지막대화일거요.》
환니는 그의 말을 옮겨주었다. 이때 환니는 뚜르하노브의 얼굴표정의 약간한 변화까지 세심히 관찰했으나 그의 시선에서는 조금도 흥분하는 기색을 찾아보지 못했다.
《어째서 저 사람은 말이 없소?》 게스타포책임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환니는 그의 질문을 로어로 옮겼다.
《나한텐 매일반이요.》 뚜르하노브가 대답했다. 《통역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당신의 모습은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요. 영원히 기억해두겠소.》
처녀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고 눈에는 기쁨이 어렸으나 심문당하는 뚜르하노브의 얼굴만 주시하던 루돌프는 이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환니가 수인이 대답한 말을 첫 부분만을 옮겨주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비끼기 시작했다.
《저 사람의 대답은 세 단어만이 아니였던것 같은데?》 게스타포책임자가 투덜거렸다.
《그래요.》 환니는 동의했다. 《저 사람은 또한 자기가 앞으로 어디에 있게 되는가 하는것은 자기 의사에는 무관계하다고 대답했어요.》 처녀가 곧 대답을 꾸며댔다.
《어떻게 자기와 무관계하단말이요?》 루돌프가 노발대발했다. 《세번째로 같은 말을 반복하겠소. 게스타포의 일을 자원하여 협력하겠다는 전향문에 수표하기만하면 곧 중립국인 스위스로 넘겨주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도주한 군인포로로서 대우받게 해주겠소. 이걸 통역하시오.》
환니는 통역했고 게스타포책임자는 뚜르하노브를 살폈다. 그러나 그의 얼굴표정을 보고서는 자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대뜸 알아차릴수 있었다.
《나는 결코 조국의 반역자로는 되지 않겠소.》 환니가 루돌프의 말을 통역하자 뚜르하노브가 조용하나 단호하게 말했다.
수인의 대답은 루돌프를 격분케 했다. 뚜르하노브를 될수록 빨리 석방시켜 산채로 톰슨의 손에 넘기라는 형의 요구가 없었다면 그는 이 굴할줄 모르는 볼쉐위크의 가슴팍에 총탄을 련이어 통쾌하게 박

아넣었을것이다. 그러나 그런 쾌락의 후과로 자기들 형제의 《화르벤웨케》의 공장들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는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
(미국사람들은 롱담하기를 즐기지 않는다.) 그는 악의에 차서 생각했다. (제 기한내에 뚜르하노브를 고스란히 넘겨주지 않는 한 우린 재앙을 면치 못할것이다. 나는 그 사람들이 일단 배앝은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걸 안다. 무슨 출로든 찾아내야 할것이다.)
《여보시오, 대좌!》 갑자기 루돌프가 빌붙는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만일 이러한 제의가 미국정탐기관의 위임에 의하여 제기된것이라면 당신은 이에 어떻게 응답하겠소?》
《쏘련정탐기관도 이에 합류했는가요?》 뚜르하노브가 물었다.
《미국과 쏘련은 이 전쟁에서 동맹국이 아니요? 공동의 적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에서는 그들이 긴밀한 련계를 취한다는것쯤 타산해야지요.》 루돌프가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그걸 증명해보이면 나도 대화에서 당신에게 응할 용의가 있소.》 뚜르하노브가 대꾸했다.
다 아는 일이지만 게스타포감옥에서는 수감자들을 제놈들이 바라는대로 만들기 위해 고문하는 한편 기만수법과 여러가지 도발행위도 널리 쓰는것이다. 루돌프 임메르만도 자신을 이런 방법의 진짜 명수로 간주하고있었다. 위협하는 방법이 긍정적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것을 깨닫자 그는 이번 뚜르하노브의 심문에서는 도발의 방법을 써보리라고 미리부터 준비해두었었다. 뚜르하노브의 대답을 듣자 그는 그 방법을 써보리라 결심하고 안주머니에서 봉인한 봉투를 꺼내여 그에게 내여밀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요.》 그가 말했다. 《뜯어서 편지내용을 읽어보시오!》
뚜르하노브는 말없이 봉투를 집어들어 뜯은 다음 그속에서 고작 몇 글자밖에 적히지 않은 종이장을 끄집어냈다가 인차 루돌프에게 돌려주었다.
《로어가 아니여서 읽을수가 없소. 가능하면 번역해주시오.》 그가 말했다.
루돌프는 로어로 번역하라고 환니에게 편지를 넘겨주었다. 처음에 환니는 혼자 읽어보았다.

《이건 거짓이예요!》 처녀가 소리지르고 편지를 책상우에 던졌다. 《전 그걸 번역하지 못하겠어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어찌겠소?》 게스타포책임자가 성이 나서 눈을 찌프리고 물었다.

《그렇다면 더구나 번역하지 않겠어요.》

《어째서?》 대좌가 놀라서 환니를 쳐다보았다.

《비합법적으로 음모에 가담하는것은 언제나 배신으로 간주되였어요. 전 배신자가 아니예요.》 처녀가 견결하게 대답했다.

루돌프 임메르만은 성이 꼭두까지 치밀었다. 이 도안을 고안해내면서 그는 총 한발에 토끼 둘도 아니고 세마리를 단번에 잡으리라 기대했었다. 첫째로 그는 뚜르하노브가 도이췰란드어를 정말 모르는지 시험해보려 했다. 뚜르하노브가 게스타포책임자의 교활한 속심을 제때에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편지를 돌려줄 대신에 그 내용을 읽어봄으로써 자신을 폭로시켰을것이다. 그러나 그가 편지를 돌려줌으로써 그가 도이췰란드어를 모른다는 루돌프의 종전의 확신이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였다. 둘째로 환니의 믿음성을 다시한번 검열하고싶었던것이다. 셋째로는 속임수를 써서 게스타포에 협력하겠다는 전향문을 받아낼 심산이였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한놈도 잡지 못하게 되였다. 뚜르하노브는 게스타포책임자의 기도를 간파했을뿐아니라 편지내용을 다 읽기까지 했다. 쏘련대좌를 몰래 도우리라 마음먹은 환니는 자기 책임자의 신임을 얻는것이 특히 필요했는데 처녀는 이외에 그 앞에서 자기의 가짜 충실성을 진짜인것처럼 보일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자기 계획이 파탄되였음을 깨달은 게스타포책임자는 얼마나 약이 올랐던지 끝내 자기의 무례한 행동을 자제해내지 못했다.

《당신의 임무는 나의 명령을 집행하는것이요. 만일 번역을 하지 않겠다면 당장 일자리에서 쫓아내겠소!》 그가 소리를 질렀다.

환니는 마치 자기를 두둔해주길 바라는듯 뚜르하노브를 쳐다보았으나 그는 마치 그들이 무엇을 두고 론쟁하는지 전혀 모르는듯 눈을 내리깔고 앉아있었다.

《좋아요, 번역을 하겠어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전 책임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고난 환니는 말썽거리인 그 편지를 책상에서 집어들어

로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뚜르하노브에게 미국의 대좌 챨스 톰슨으로부터 주지의 제3제국 기관에서 우리 사람으로 복무하고있는 임메르만대좌의 제의를 받아들이라는 바르쑤끄브장군의 명령을 통고해드리는바입니다.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톰슨.》

뚜르하노브는 이것이 엉터리없는 거짓이라는것을 즉석에서 깨달았지만 도발자의 제의를 단번에 물리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어떤 수단을 쓰든 시간을 얻는것이 유리하다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게스타포책임자는 벌써부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고있었다.

《이젠 나의 선량한 의도를 의심치 않겠지요?》 그가 물었다.

《확답을 주기전에 난 좀 곰곰히 생각해봐야겠소.》뚜르하노브의 대꾸였다.

《생각하는데 사흘이면 되겠소?》 게스타포책임자가 물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3일간의 생활을 다시 흥정해낸데 흡족한 뚜르하노브는 상대방이 제의한 기한에 동의하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줄곧 두 사람의 거동을 살피던 환니가 반대라는듯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 적소.》 뚜르하노브가 말을 받았다. 《사색을 집중하고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좋소. 닷새로 합시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한시간도 더 안되겠소.》

뚜르하노브를 데려내가자 게스타포책임자는 톰슨의 거짓편지를 깐깐히 불태워 그 재는 공기창문을 열고 바람에 날려보냈다.

《봤소?》 그가 통역원에게 물었다. 《편지는 있다가 없어졌는데도 결과는 열매를 맺었단말이요. 고기가 미끼를 물었으니 곧 낚시에 걸릴게거든.》

《물었지만 빈 낚시일거예요.》 필요한 사람들과 련계를 취하는데 닷새의 시간을 얻게 된 환니는 몰래 기뻐하며 이렇게 동의하는체했다.

제 18 장

바르쏘꼬브장군이 뚜르하노브를 재난에서 구출하는데 외국정탐기관의 첩자나 동맹국 더우기 적대국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는 쏘꼴로브를 책임자로 하는 별동대원들와 체스꼬빨찌산 그리고 그 지방 반파쑈지하조직에 전적으로 의거하고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팔짱을 끼고 앉아있지는 않았다.

뚜르하노브를 마우트하우젠의 죽음의 수용소로 이감시킨다는 통보를 받은 쏘꼴로브와 그의 동료들은 이감시키는 도중에 호송병들을 기습하고 대좌를 구출한 다음 빨찌산운동사령부의 계획대로 체스꼬빨찌산과 협동작전을 하여 그를 전선너머의 쏘련관할지역으로 넘겨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인을 게스타포감옥에서 수용소로 압송하는 로정을 면밀하게 연구해야 했다. 이 책임적인 과업을 쏘꼴로브는 《푸른두나이》식당의 지하조직책임자인 헤르베르트 그로쓰에게 위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알아도 보고 직접 관찰도 한 결과 수인들을 어느 길로 수용소까지 압송하는가를 알아냈다. 게스타포비밀감옥에서 철도역까지는 감옥뻐스로 실어가고 그다음 마우트하우젠철도역까지는 감방기차에 실어갈것이다. 역에서 죽음의 수용소까지는 《토텐코프》사단의 에쓰에쓰대원들로 구성된 증강된 호송대가 호위하여 도보로 끌어갈것이다.

로정의 마지막구간이 호송대를 매복공격하기에 제일 알맞춤한 지역이였다.

《푸른두나이》의 지하공작원들은 수인들에게 공급하는 빵을 수용소구역내부와 다른 주민지역에서도 굽는다는것을 알아냈다. 구운 빵을 자동차로 수용소에 날라갔다.

지하조직원들과 련계를 맺고있는 한 빵구이군을 찾아냈다. 그는 다음번 빵을 실어갈 때 헤르베르트 그로쓰를 상하차공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륙전대원들이 철도역에서 죽음의 수용소까지 6 키로메터구간의 도로를 관찰할뿐만아니라 매복을 조직하기에 편리한

자리도 선택할수 있게 했다. 그런 장소로는 한때 도로가설에 쓸 돌을 캐내다가 건설이 끝나자 페쇄한 채석장이 선택되였다. 채석장은 가파로운 장벽이 푸실푸실 부서져내리는것이 마치 커다란 분화구를 련상시켰다.

헤르베르트 그로쓰가 수집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쏘꼴로브는 작전계획을 작성했다. 지정된 날 이른 아침에 이 작전에 참가할 별동대원들이 오스트리아반파쑈투사들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채석장으로 갔다. 대원들의 절반은 줄무늬 수인복을 입었고 다른 절반은 《백골》사단의 에쓰에쓰대원복을 입었다. 마우트하우젠근교에서는 이렇게 혼합된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었다. 죽음의 수용소의 수인들은 에쓰에쓰대원들의 감시하에 도로수리도 하고 전선도 늘였으며 창고와 가축우리, 이 고장 지주들의 주택도 지었던것이다. 그러므로 내버린 채석장부근에 변장한 별동대원들이 나타난것은 조금도 이상한것이 없었다. 불의의 공격은 틀림없이 파시스트호송대내에 혼란을 일으킬것이다. 이 혼잡을 리용하여 별동대원들은 뚜르하노브와 그와 함께 있을 다른 수인들도 해방시킬것이다.

작전을 대담하게 꾸미기 좋아하는 쏘꼴로브는 자기의 이 안을 열렬히 주장했으나 정치부대장은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파시스트놈들이 바로 저희들의 코밑에서 그리 쉽게 뚜르하노브를 빼내가게 할것 같진 않소.》 그가 말했다. 《내 생각같아서는 다른 방안들도 내놓고 곰곰히 따져봐야 할것 같소.》

《아니요!》 별동대장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격의 불의성과 대담성은 우리 계획의 약점이 아니라 우점으로 되오. 나는 성공하리라고 굳게 믿소. 그리고 다른 안들을 따져볼 시간적여유도 없소. 뚜르하노브를 임의의 시각에 죽음의 수용소로 보낼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린 작전에 될수록 빨리 진입할 준비도 많이 해놓지 않았소.》

정치부대장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래서 쏘꼴로브와 헤르베르트 그로쓰가 제출한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동무들, 작전계획은 채택되였습니다. 오늘 매 대원은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과제를 받게 될것입니다. 이젠 뚜르하노브대좌를 수용소로 이송할 시간만 통보해오면 됩니다.》 쏘꼴로브가 모임을 끝마치면서 말했다. …

시간은 빨리도 흘렀다. 루돌프 임메르만은 수인 뚜르하노브를 만난 후 닷새가 되는 날에 수인 78901번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통역원을 불렀다. 통역원 환니는 그 시각을 고대하고있던지라 말 그대로 부르자마자 책임자앞에 나타났다. 자기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나가려는 신부처럼 흰 옷으로 단장한 환니의 모습은 게스타포책임자의 기분을 잡쳐놓았다.

《옷단장이 그게 뭐요?》그가 비웃는 눈길로 처녀를 훑어보며 물었다. 《그래 혼례식을 하자고 나를 교회당으로 곧장 끌고가자는건 아니요?》

《념려마세요. 그렇게는 안될거예요.》 환니가 《결코》라는 말을 첨부하려고 하다가 참았다. 《그저 상복을 벗었을뿐이예요.》

《이보오, 당신이 상복을 벗은 다음에야 우리가 정말 교회당으로 못갈게 뭐요?》

《성급해할게 있어요? 〈덤비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하는 말은 공연한게 아니죠. 우리로서는 사람들을 웃기는게 점잖지 못해요. …》

반룡조의 이 대화는 부관이 들어와 수인 78901번이 호송원의 감시하에 도착했다고 보고를 하는바람에 끊어졌다.

게스타포책임자의 신호에 따라 수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환니는 뚜르하노브의 건강이 지난번보다 썩 좋아졌다는것을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혈색이 좋아지고 멍든 자리가 없어졌으며 상처들이 아물었다.

《앉으시오!》게스타포책임자가 심문할 때 수인들을 앉히는 보통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을 잘못 대해주지는 않았겠지요?》

뚜르하노브는 모호하게 머리를 끄덕이고 지적해준 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어서 말하시오.》 참다못해 게스타포책임자가 볼부은 소리를 했다.

환니가 통역했다.

《저 사람이 뭘 말하라는거요?》뚜르하노브가 일부러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환니는 뚜르하노브가 게스타포책임자를 조롱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대담성이 마음에 든 환니는 명랑한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한편 뚜르하노브의 물음은 게스타포책임자를 악에 받치게

했다.
《우리의 제의에 대한 당신의 동의를 기다리오.》게스타포책임자가 겨우 자제하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난 아직 그 문제를 생각해보지 못했소.》뚜르하노브가 대답했다.
《어째서 생각해보지 못했소?》 게스타포책임자가 성을 냈다. 《닷새동안 당신은 뭘 했단말이요?》
《잠을 잤지요. 당신의 지시로 난 한주일동안 잠을 자지 못했기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봉창하노라고 잠을 잤소.》
자기 《약혼녀》가 그자리에 참석했고 또 그가 있는곳에서는 쌍욕을 하지 않겠노라고 여러번 다짐한 그 약속때문에 루돌프는 겨우 자제했다.
《그럼 언제 가서 확답을 주겠소?》 그가 이사이로 내뱉었다.
《이제 당장 주겠소. 난 결코 조국을 배반하지 않겠소.》뚜르하노브가 딱 잘라말했다.
《우린 당신에게 배반하라고 요구하지 않소.》
《게스타포에 협조하겠다는 수표가 그래 배반이 아니란말이요?》뚜르하노브가 물었다.
《그건 가짜 수표요. 당신을 출옥시키는 리유를 정당화하는데 수표가 필요해서 그러오. 내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려 한다는걸 리해하기 바라오.》
《당신이 진실로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싶다면 나를 군인포로수용소로 보내주시오.》
《그러니 당신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표를 하지 않겠다는거요?》
《안하겠소.》
《그러나 그런 경우에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걸 아오?》
《알아도 잘 알지요.》
《믿지 못하겠소!》게스타포책임자가 소리를 질렀다.《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석으로 만든 병사도 아니지 않소.》
《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나도 살고싶소. 그러나 동시에 난 병사요. 병사는 마지막 숨이 질 때까지 싸울것을 다짐한 군인선서에 충실해야 하오.》
임메르만은 얼마동안 말없이 앉아 연필로 종이장에 신경질적으로

뭔가 긁적거렸다. 그러더니 홱 몸을 돌이켜 사무실을 걸어다니다가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좋소!》 그가 입을 열었다. 《아직은 당신의 목숨을 살려두겠소. 그러나 군인포로수용소가 아니라 집결수용소에 보내겠소. 거기서는 때가 올 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을거요. 고쳐 생각을 해보고 그 결과를 호동장을 통해 나에게 보고하시오.》
이 말을 남긴 게스타포책임자는 규격용지 한장을 꺼내여 거기에 무엇인가 기입해넣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할 일이 없게 된 환니는 일어서서 책임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너머로 그 종이장을 들여다보았다. 환니가 예상했던대로 게스타포책임자는 뚜르하노브를 죽음의 수용소 마우트하우젠으로 보내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있었다.
(우리가 더는 만나지 못하게 되겠구나.) 환니는 생각했다. 그러자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환니에게 느껴졌다. 처녀의 눈길이 뚜르하노브의 눈길과 마주쳤다. (전 당신의것이예요!) 처녀는 불타는 눈길로 이렇게 속삭이였다. (이것 봐요. 전 영원히 당신의것이예요. 전 당신만을 사랑해요!)
그가 처녀의 소원을 깨달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나 처녀에게는 뚜르하노브의 눈길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이 사랑은 나에게 투쟁을 계속할수 있는 힘을 주었소. 당신의 영상은 영원히 나의 심장속에 살아있을것이요.) 라고 대답하듯싶었다.
처녀의 공상은 호송병을 부르는 게스타포책임자의 멱따는 소리에 그만 끊어지고말았다. 처녀는 미소를 머금고 상관의 등너머로 뚜르하노브에게 손을 저어 작별의 인사까지 했다. 호송병에게 그를 사무실에서 데려내간 다음에야 처녀는 심문과정에 작성한 문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떻소?》 그들 두사람이 남았을 때 루돌프가 물었다. 《로씨야사람들은 다 저렇소?》
《어떤 의미에서 말인가요?》 환니는 그 뜻을 리해하지 못했다.
《청렴한 쏘련애국자의 역을 놀았다는 의미에서말이요. 그게 누구에게 필요하오? 허지만 그자가 래일 아침 마우트하우젠의 〈사상개조실〉맛을 본 다음에 뭐라고 하겠는지 듣고싶은걸.》

《그게 그렇게 무서운건가요?》 환니가 천진하게 물었다.
《그걸 거치고나면 죄수 3명중 한명이나 제발로 걸을수 있소.》
(하느님 맙시사!) 환니는 마음속으로 몸서리를 쳤다. (룽게에게 빨리 알려주어야겠다. 혹시 그 사람이 뚜르하노브를 도울 방도를 찾을수 있을는지.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사람에게 속히웠다면? 사실은 뚜르하노브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는데 나를 놀려주느라고 그랬을수 있지 않을가?)

제 19 장

별동대는 새벽에 내버려진 채석장에 당도했다. 절반인원은 줄무늬가 간 죄수복을 입었고 또 절반은 《토텐코프》사단의 에쓰에쓰대원제복을 입고있었다.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은 돌을 캐는 시늉을 했고 자동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두번째 사람들은 수인들을 감시하는체하면서 주변지역을 세밀히 감시했다. 외인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주의도 돌리지 않았다. 마우트하우젠근교에서는 에쓰에쓰대원들의 감시하에 있는 수인부대《로동자》들을 만나는데 습관되였던것이다.
곧 마우트하우젠역에 윈에서 오는 기차가 도착했다. 기차는 1분간 정차했으나 철도일군들은 그사이에 맨 끝의 화차를 떼여놓을수 있었다. 그 화차에는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수인들이 타고있었다. 홈에는 특수훈련을 받은 4마리의 군견을 앞세운 에쓰에쓰대원들이 수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윈의 기차가 굽인돌이를 돌아갔을 때 호송대장은 수인화차에 다가갔다. 화차에서 상급호송원이 나왔다. 서로 증명서를 확인한뒤 그들은 수인들을 내리우기 시작했다. 줄무늬가 간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수인들이 나타나자 에쓰에쓰대원들의 손에 붙들린 사냥개들이 맹렬히 짖어댔다.
《죄수들을 2렬횡대로 정렬시키라!》 호송책임자인 하사관이 구령을 내렸다.

에쓰에쓰대원들은 그의 지시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다음 호송책임자는 문건철에서 수인명단을 꺼내여 한명씩 호명해나갔다.
《미쉘 베르췌라크!》그는 프랑스이름을 도이췰란드식발음으로 불렀다.
줄무늬가 간 홑적삼을 입은 강마르고 등이 굽은 사람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요.》그의 연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프로권투선수비슷하게 생긴 하사관이 솥뚜껑만한 주먹을 들어 빠리종합대학 교수의 얼굴에 센 타격을 안겼다. 교수는 비칠거렸으나 겨우 넘어지지는 않았다.
《왜 때리는거요?》교수는 조용히 물었다.
《호명받은자는 세발자국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너는 말뚝처럼 그 자리에 서있지 않았느냐.》
매를 맞은 교수는 그자의 지시를 서둘러 집행했으나 덤비다가 첫발자국을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부터 떼야 한다는것을 잊어버렸다. 이러한 실수로 그는 또 한대를 맞아야 했다. 이번에는 얼굴이 아니라 뒤덜미를 맞았다.
《월디마르 뚜르하니예브!》하사관이 멱따는 소리를 질렀다.
뚜르하노브는 주먹질을 당하기가 싫어서 하사관놈의 지시를 제꺽 수행했다.
수인들에 대한 명단대조가 끝나자 호송대장은 눈을 부라리며 모두를 둘러보았다.
《주의!》그자가 소리를 질렀다.《모두 들어라! 렬을 짓고 행진해간다. 서로 말을 주고받거나 물건을 서로 주고받으며 글쪽지와 다른 물건을 땅에 버리는것은 절대 금지되여있다. 자의로 리탈할 때는 탈주시도로 인정한다. 그리고 죄를 지은자는 그 자리에서 총살한다.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말고 떠들지 말며 뒤떨어지지 말것. 차렷! 앞으로 갓!》
그리하여 열다섯명으로 구성된 수인대렬은 여섯명의 에쓰에쓰대원들과 네마리의 군견의 물샐틈없는 감시하에 자그마한 역전마을의 역근처길을 재빨리 지나가고있었다.
최근 4개월동안에 뚜르하노브는 심히 변모됐으나 지금 그로쓰의

가까운 벗인 오스트리아공산당원의 집에 몸을 숨기고 다가오는 수인대렬을 지켜보고있는 쏘꼴로브는 인차 그를 알아보았다. 열 내지 열두발자국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그들이 마주하게 되였을 때 쏘꼴로브의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였던가!

(부대장동지,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40분정도 지나면 당신은 자유로운 몸이 될것입니다.)

《그이가 여기 있는가요?》 집주인이 조용히 물었다.

《그렇습니다.》 쏘꼴로브가 대답했다. 《신호해도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안해쪽에 대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녀인은 베란다로 달려나가 두장의 백포와 한채의 빨간 이불을 널었다. 이것이 경각성높은 게스타포첩자들의 의심을 자아낼수는 없었다. 백포나 이불은 많은 집 베란다에 널기마련이 아닌가. 그러나 신호는 약속된 사람들에게는 곧 보이였다. 녀주인이 베란다에서 미처 내려오기도전에 맨 끝집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그 연기에도 주민들은 아무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뻬치까에는 어느 집에서나 불을 지피기마련이니까. 그러나 채석장의 별동대원들은 즉시에 그 신호를 발견했다.

《준비!》 헤르베르트 그로쓰가 명령을 내렸다.

《반시간후엔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올것이요.》

이 구령에 따라 에쓰에쓰대원의 복장을 한 별동대원들은 자동총을 앞으로 내들었고 나머지 대원들은 임의의 순간에 사용할수 있도록 옷속에 감추었던 권총과 수류탄들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럴 때 수인대렬은 맨 끝집을 지나가고있었다. 에쓰에쓰대원들과 군견들에 쫓기우는 줄무늬저고리를 입은 사람들은 상당히 가파로운 언덕길로 걷는것이 아니라 뛰다싶이 했다.

이런 행진속도를 수인들모두가 견디여낼수 있는것은 아니였다. 어느 한 수인은 비칠거리다가 수인의 초라한 세간살이가 들어있는 보따리를 자기 발앞에 떨어뜨리며 털썩 넘어졌다. 그의 뒤에서 오던 사람들은 에돌아가거나 그를 타고 넘어갔다. 젊은 총각수인만이 그가 일어나도록 돕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총탁으로 얻어맞고 그자신도 길에 쓰러졌다. 대렬이 그곳을 다 지나갔을 때 개들이 불행한

두 수인에게 달려들었다. 개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피가 나도록 물어뜯었으나 기운이 진한 그 사람들은 일어서지 못했다. 그러자 호송대장놈은 침착하게 두사람을 쏘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소담한 전나무가 줄지어 늘어선 길은 가파로운 등성이로 구불구불 뻗어있어 사람들은 곧 힘이 빠져 올라가기 점점 더 힘들어졌다. 게다가 뒤에서는 사냥개들이 줄곧 짖어댔다. 다음번 희생자를 재촉하는듯싶었다. 된욕설과 채찍내려치는 소리, 고통당하는 수인의 신음소리와 사격소리가 울리더니 잠잠해졌다. 또하나의 피투성이시체가 길가에 남게 된것이다.…

수인대렬이 채석장에 접근하자 헤르베르트 그로쓰와 두명의 자동총수가 거리로 나섰다.

《서라!》 조책임자가 왼손을 쳐들고 소리쳤다.

《무슨 일이요?》 호송책임자인 하사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우리 사람들이 맥이 빠졌소. 당신네 사람들이 우리 차에 돌을 싣도록 도와주길 바라오. 긴급한 과업이요.》 그로쓰가 빈 자동차옆에 무져놓은 돌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 역시 긴급과제를 수행하고있소. 우리에게도 저놈의 송장들을 될수록 빨리 수용소에 끌어오라는 령이 내렸소. 》호송책임자가 반박했다.

《무슨 말버릇이 그래?》 그로쓰가 소리쳤다. 《네놈이 상급을 존경할줄 알도록 버릇을 가르칠테다. 무릎을 꿇어! 개새끼!》

불의의 정황에 어안이 벙벙해진 에쓰에쓰대원이 미처 제 정신을 차리기도전에 한방의 권총사격으로 그자의 의혹은 끝나고말았다. 다른 별동대원들은 나머지 호송대원들을 과녁으로 오래전부터 겨냥하고있었다. 그로쓰가 하사관놈을 요정내는 순간에 다른 대원들도 호송원들과 군견들을 쏘아갈겼다.

《울라지미르 뚜르하노브, 당신은 해방되였습니다!》 그로쓰가 모두가 들리게 선포했다. 《1분이 새롭습니다.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십시오.》

수인들은 반신반의하며 그의 말을 듣고있었다.

《대좌동지!》 별동대 대장이 다시한번 불렀다.

《우리는 대좌동지를 모시러 여기로 왔습니다. 우리 말이 들립

니까?》
대답이 없었다. 그때 그로쓰는 수인들을 향하여 도이췰란드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들가운데 뚜르하노브란 이름을 가진 쏘련군대좌가 없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겐 없는것 같습니다.》 수인 한사람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서투른 도이췰란드어로 대답했다. 《여기엔 그리스인, 유고슬라비아인, 프랑스인들뿐입니다.》
《우리를 호송해오는 도중에 다섯사람을 죽이고 한사람은 승용차에 실어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로씨야대좌는 죽은 사람들속에 있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별동대원들은 성공리에 시작된 작전이 헛탕을 치고말았다고 생각하며 심란해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진맥진했으나 지휘관은 기력을 잃지 않았다.
《사냥개와 호송병들의 시체는 채석장에 재빨리 던지시오!》 그가 명령을 내렸다. 《수인동지들! 당신들이 죽음의 수용소로 가지 않겠거든 재빨리 화물차적재함에 올라타십시오.》
그로쓰조장의 두가지 명령을 그들은 비상한 열성을 내여 수행했다. 3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별동대원들과 해방된 수인들이 탄 중형화물자동차는 처음에는 철도역방향의 아스팔트신작로를 따라 달리다가 멀리서 자동차종대가 나타나자 농촌길로 꺾어들어 인차 조그마한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제 3 부

제 1 장

수인대렬이 호송대와 함께 사라진것이 파시스트들에게는 너무도 뜻밖이였다. 경보가 호송대에 망라되였던 에쓰에쓰대원들이 제때에 점심식사에 나타나지 않은지 8시간후에야 울리였다. 부대장이 수용소 소장에게 조회하자 수용소 소장은 그날 린츠게스타포감옥에서 도착한 수인은 한명뿐이라고 답변했다. 이 사건의 조사를 위임받은 참모장교는 하사관 우로바흐가 인솔하는 여섯명의 호송대가 아침 7시에 마우트하우젠수용소로 호송할 열다섯명의 수인들을 접수하여 2렬로 정렬시켜서 지정된 장소로 이끌고갔다는것을 밝혀냈다. 검열초소 당직근무자는 아침 7시 15분에 대렬 하나가 수용소쪽으로 강행군하여 지나갔다는것을 확인했다. 그는 대렬이 통과한뒤 몇차례 총성이 들렸으나 단발사격은 물론 련발사격까지도 여기서는 보통현상이기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는것도 진술했다. 호송병들은 뒤떨어지는 수인들을 즉석에서 총살하는것이다. 당직근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 아침에는 도로에서 4명의 수인시체를 얻어봤다는것이다. 조사를 계속한 결과 대렬이 수용소까지 당도하지 않았다는것이 밝혀졌고 지방주민들을 심문해봐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날 아침은 많은 사람들이 총소리를 들었으나 그런 소리에는 오래전부터 익숙되여있었으므로 거기에 아무런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는것이다.

참모장교는 수인들이 무슨 방법인지 써서 도주했다고 결론하고 부대장에게 그렇게 보고했다. 부대장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게스타포에 알리였다. 도주자들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였다.

당시 히틀러도이췰란드에서 반파쑈투사들의 탈옥은 흔히 있는 현상이여서 토벌기관관리들은 열한명의 수인이 도주한 사건을 그다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실종된 호송대의 운명을 방관시할수도 없었다. 호송대 대장인 하사관 우로바흐나 그의 다섯명의 부하병사들은 오래전에 모범군무자로 등록된자들이였다. 죄수에 대한 그들의 야수적인 증오감이 특별한 평가를 받았다. 호송근무를 하는 몇달어간에 그자들이 제 손으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든 수인들의 수가 수십명을 헤아렸다. 파시스트상부의 견해로써는 그들이 도주자들과 결탁할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렇다고 지칠대로 지치고 굶주림과 고문에 쇠약해진 열한명의 수인들이 발톱까지 무장한 6명의 에쓰에쓰대원들과 군견들을 맨 주먹으로 해제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같은 사건을 수사하던 조사단은 바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쏘련별동대원들만이 정확히 알고있었지만 뚜르하노브의 운명에 대해서는 알수 없었다. 어떤 별동대원들은 자기들이 슈마흐산림속에서 고생하면서 구원하려고 한 뚜르하노브가 파시스트교형리들의 희생물로 되여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도중에 총살당한 4명의 수인가운데 있을것이라고 추측했다. 이것은 주로 외국인별동대원들의 생각이였다. 기습작전에 참가했던 대원들에게서 꼼꼼히 알아본 정치부대장 끄미싸로브도 그런 결론을 내리고 별동대장에게 이 사실을 바르쑤끄브장령에게 보고하자고 제의했으나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수 있소.》쏘꼴로브는 삼단론법을 상기하며 말했다. 《뚜르하노브도 인간이요. 그러니 그도 죽을수 있소. 허지만 그가 죽게 되는 경우에는 영웅적으로 죽을것이요. 이름없는 4명의 수인들처럼은 죽지 않을것이요. 더구나 시체가 발견되기전에는 사람은 누구나 산 사람으로 인정되오. 그러므로 우리 작전을 포기하는 문제는 말도 되지 않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생각이요?》정치부대장이 물었다.

《뚜르하노브를 찾아서 구출하는거요. 린츠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도와나서겠지.》 별동대장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공연한 희생만 내게 되지 않을가요? 바르쑤끄브장령에게 문의하는것이 좋겠소.》 정치부대장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장령은 우리

의 과업을 변경시키거나 새 과업을 줄거요.》
별동대장은 정치부대장이 자기를 철저히 신뢰한적이 한번도 없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특별임무를 받고 아브웨르 505망책인 플랑크대좌에게 파견되여갈 때에도 로골적으로 의혹을 표시했다. 그러나 쏘꼴로브는 그런 불신임을 지나친 조심성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그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정치부대장의 지나친 조심성이 별동대앞에 제시된 기본과제를 수행하는데서 심각한 장애로 될수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바르쑤꼬브장령은 오늘 우리 사업의 실태를 보고받게 될거요. 그렇다고 해서 별동대활동이 다소라도 중지된다는걸 의미하지는 않소. 우리는 전투임무를 알고있고 배가의 노력으로 임무수행을 계속해갈것이요. 부대장으로서 명령하오.…》
쏘꼴로브는 도이췰란드호송대와 첫 충돌이 있은 후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구체적인 과제를 별동대원들에게 전투명령으로 하달했다. 이 명령에 따라 알프레드 룽게에게는 뚜르하노브의 행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임무가 지워졌다. 그러한 자료는 환니에게서 받을수 있었다. 그런데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죄수들의 탈주사건으로 인한 소요도 거의 잠잠해진 1주일후에야 처녀가 언니의 집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처녀는 룽게와 대문결에서 만나자 인사를 했다. 《다들 무사하겠지요. 언니는 어디 있어요?》
《집엔 나 혼자뿐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당에 갔소.》 룽게가 대답했다.
《당신은 성모의 성상앞에서 속죄하고싶지 않은게지요?》
《아니요.》 룽게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무런 죄도 느끼지 않습니다. 느낄 때면 꼭 가서 빌겠습니다.》
《공연히 성자인체 하시는군요.》 처녀가 나무라듯 고개를 저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누구나 죄짓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당신이 지은 죄로 하여 전 큰 화를 입을번했어요. 전 루돌프와 싸웠어요.》
룽게는 신경을 도사렸다. 그러나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계속

롱조로 말했다.
《사랑싸움이야 칼로 물베기지요.》 룽게가 웃음을 지었다. 《벌써 화해했을테지요.》
《이럭저럭 화해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저를 공식적으로 심문했어요.》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러나 엿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돼요. 정원으로 갑시다. 거긴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테니까요.》
그들은 정원으로 들어갔다. 유희장으로 가는 소로길을 따라 걷다가 그네곁에 멈춰섰다. 룽게는 의자에 내린 솜같은 흰눈을 털어내고 처녀를 앉히였다. 그리고 자신은 맞은쪽에 자리를 잡았다.
《쏘련대좌가 당신 마음에 들던가요?》 환니가 상대자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어느 대좌말인가요?》 룽게가 모르는체하고 반문했다.
《당신들이 마우트하우젠역으로 데리러 갔던 그 대좌말이예요.》
처녀가 계속 상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 그 뭐라고 하던가. 뚜르챠노브인가 하는 그 사람말이요?
유감이지만 못봤소. 그날 당신의 아버지가 나더러 고기잡이를 가자고 청해서 찌페르제이에서 동트는 아침을 맞았소.》
《뚜르챠노브가 아니라 뚜르하노브예요.》 환니가 신경질적으로 그의 말을 막았다. 《당신은 그 사람을 보았는가요?》
《무슨 그런 말씀을?》 처녀는 진심으로 놀랐다. 《교수는 고기잡이에 열중한 일이 일찌기 없었는데요. 거기에 오래 계셨는가요?》
《저녁때까지.》
《참 놀라운데요. 거기서 무엇을 하셨어요?》
《나는 낚시질을 하고 교수는 호수의 깊이를 쟀소.》
《뭘하려고요? 당신은 그걸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물어봤소. 허지만 진실을 말하는것 같지 않더군.》
《교수가 뭐라고 했길래요?》
《죽기전에 몇가지 제일 값진 물건들을 호수밑에 감추려 한다고 했소.》

《구두쇠령감! 어서 감추라지요. 우리한텐 그의 재산이 필요없어요. 그것없이도 살아요. 제가 관심하는건 다른거예요.》

《뭔가요?》

《사람들사이에 신뢰심이 없는거지요. 가까운 친척들도 서로 두려워하고있지요. 례를 들어 당신과 저는 언니로 하여 친척이 되였지만 서로 믿지 않지요.》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롱게가 두팔을 벌려보였다.

《그럼 말해보세요.》 환니가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은 뚜르하노브를 수용소로 이감시킨다는 말을 누구에게 알려주었는가요?》

《원, 이런 변이라고야!》 롱게는 놀라는척하며 소리쳤다. 《도대체 누가 내가 그랬다고 합디까?》

《론리예요.》 처녀가 대답했다. 《어길수 없는 론리지요. 수인들을 마우트하우젠수용소로 이감시킨다는 사실은 루돌프, 슈와이쩨르, 저, 이렇게 세사람밖에 몰라요. 게스타포책임자나 책임예심원은 이 비밀을 루설시킬수 없어요. 수인행렬이 수용소가까이에 나타났을 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수인들을 구출했대요.》

《그랬다고 합시다.》 롱게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렇다고 거기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인가요?》

《상관이 있지요. 호송대를 해제낀 다음 정체불명의 구원자들은 제일먼저 뚜르하노브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이건 게스타포에 잡혀온 구출되였던 수인 한사람이 심문에서 진술한 말이예요. 그러니 호송대습격은 우연적인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계획되고 면밀히 준비된것이였어요. 그 구출자란 누구이며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봉사를 해주었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지요.》

롱게는 자기를 체포하려고 몰래 스며든 게스타포대원들을 찾는듯 저도모르게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여전히 정신을 가다듬고 변함없는 롱조로 대화를 계속했다.

《정탐소설의 규칙에 의하면 이렇게 폭로한뒤에는 보통 악한이 체포되지요. 승리자의 자비심에 몸을 맡기는바입니다. 자, 나의 손

입니다. 어서 수갑을 채우십시오. 자신이 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루돌프의 도움을 청하든지.》 그는 두손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환니가 성을 냈다.
《광대놀음을 그만하세요! 전 할일없이 여기로 온게 아니예요. 진심으로 당신들을 돕고싶어요. 심중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심중하게 할수 있지요.》 룽게도 동의했다. 《어서 이야기하시지요.》
얼마동안 처녀는 말이 없었다. 처녀는 룽게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비밀가운데 어떤것을 그에게 털어놓을지 아직 몰랐던것이다. (지나치게 털어놓아서는 좋을게 없지.) 처녀는 결심을 내렸다. (뚜르하노브에 대한 나의 감정은 털어놓되 〈우리 족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자. 저 사람은 아무튼 도이췰란드인이니 내가 로씨야녀자라는것을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수 없지 않는가.)
룽게는 처녀의 참회를 주의깊게 들었다. 룽게는 처녀가 파시스트를 반대해나서게 된것은 뚜르하노브에 대한 사랑때문만이 아니라는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도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사건을 촉진시키지는 말자.) 그가 생각했다. (때가 되면 자신이 털어놓지 않으리. 아직은 그것만도 감사하다.)
《전 그이를 고문하는걸 보았어요. 그건 무서운 고문이였지요. 허지만 전 그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었어요. 그때 전 그 야수들을 복수할 맹세를 다지게 되였어요. 룽게씨, 제가 복수하도록 도와주세요.》 처녀가 이야기를 끝마쳤다.
《좋습니다. 힘이 자라는껏 다하겠습니다.》 룽게가 약속했다.

제 2 장

(또 공습경보군!) 두통으로 깨여난 루돌프 임메르만이 악에 받쳐서 생각했다. (저주할 미국놈들! 이딸리아의 립장이 확정된 이래 우리의 남부오스트리아가 깊은 후방에서 전선지역으로 변해버렸단말이야.)

창밖에서는 싸이렌소리와 대형소방차발동기의 동음이 울부짖었고 멀리서는 중폭격기들에서 떨군 폭탄들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공습경보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십분쯤 지나서 경보해제를 알리는 귀에 익은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게스타포책임자는 잠을 청하려고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썼으나 종시 잠들수 없었다. 신경은 최대로 긴장되고 심장박동은 빨라졌으며 머리는 터질듯 아팠다. 피라미돈 몇알을 입에 넣었다. 그러나 끝내 안정되지 않았다.

(언제 가면 이 노릇이 끝나겠는가?) 임메르만은 안타깝게 생각했다. (사방에서 조여드는구나. 우리는 이딸리아를 완전히 잃었다. 발칸제국에는 빨갱이들이 들어섰다. 로씨야인들은 지금 부다뻬슈뜨로 돌입하고있다. 멀지 않아 그들은 우리의 숨통을 누를것이다.)

로씨야사람들이라는 말에 그는 뚜르하노브를 상기했다. 아침이 되면 그를 다른 열네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수용소로 보낼것이다. 사형수들의 호송은 엄밀하게 진행했다. 에쓰에쓰대원들은 사형수들에게 사정을 보지 않을것이며 질서를 조금만 어겨도 즉석에서 총살할것이다. 뚜르하노브도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피코 문제가 복잡하게 야기될것이다. 롬슨과 바루흐가 지금 그를 기다리고있기때문이다. (형이 공연히 화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루돌프는 이렇게 생각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야간근무원이 전화를 받았다.

《슈와이쩨르중좌에게 대시오!》 게스타포책임자가 명령했다.

일분도 지나지 않아서 수화기에서는 책임예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루돌프는 아침인사를 하고 야간공습결과에 대해 물었다.

《공장을 폭격했습니다. 주민지대에는 반톤짜리폭탄 3발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상자가 났습니다. 비행기에 금방 신호하던 놈을 붙들어왔습니다. 그자는 범죄현장에서 체포되였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하겠습니다.》 슈와이쩨르가 통보했다.

《그 사건은 클랴인 미켈에게 인계하시오. 그리고 당신은 뚜르하노브건을 맡아보시오.》 루돌프가 지시했다.

《그자는 마우트하우젠으로 보냈습니다. 기차는 5분전에 역에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할가요?》

슈와이쩨르는 당황해했다.
《호송대를 승용차에 태우고 마우트하우젠역으로 달리시오. 거기서 수인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뚜르하노브를 옮겨싣고 수용소까지 책임적으로 이송하시오. 임무수행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소에서 직접 전화로 알리시오.》
《대좌님, 알았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성공을 바라오!》
게스타포당직승용차는 경적을 울려 이른아침에 행인들을 놀래우면서 최대속도로 달렸다. 그랬건만 슈와이쩨르는 마우트하우젠역에 늦어 도착했다. 쏘꼴로브가 창문으로 뚜르하노브를 관찰하던 그 집을 수인행렬이 이미 통과했다. 행렬을 따라잡은 슈와이쩨르는 차에서 내려 증명서를 내보인 다음 호송책임자에게 자기가 지적하는 죄수 한명을 넘겨줄것을 요구했다. 책임자는 수긍하고 필요한 죄수를 찾아가라고 했다. 슈와이쩨르는 수인의 번호를 불렀다. 그리하여 뚜르하노브는 곧 게스타포당직차의 두 호송원사이에 앉게 되였다. 호송병들의 된 욕지거리와 귀청을 찢는 군견들의 울부짖음에 쫓기여 숨을 헐떡거리는 수인행렬을 뒤에 남겨두고 차는 달렸다.
뚜르하노브는 게스타포에서 무엇인지 계획이 변동되여 자기를 린츠로 데려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동차는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알프스산줄기의 숲이 우거진 야산들사이로 넓은 띠처럼 뻗어간 간선도로에 나서자 왼편으로 돌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달렸다. 인차 심한 굽인돌이가 나타났다. 운전사는 간선도로에서 빠져나와 상당히 가파로운 산등성이로 차를 몰아갔다. 그 산등성이에 오르니 치차처럼 뾰족뾰족하게 쌓은 키높은 성곽의 한 모퉁이가 멀리 바라보였다.
처음에 뚜르하노브는 그 건축물을 중유럽에서 흔히 볼수 있는 중세기의 봉건적인 성들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으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 벼랑꼭대기에는 가시철조망이 몇줄로 늘어져있었고 성곽의 뾰족한 탑들사이에는 기관총들이 설치되여있었다. 그곁에는 에쓰에쓰제복에 팔에는 두개골밑에 뼈를 엇걸어놓은 표식을 해단 병사들이 서있었다.
(히틀러의 죽음의 수용소 마우트하우젠이구나.) 뚜르하노브는 알아차렸다.

자동차가 두개의 뾰족탑사이에 설치한 돌아치로 다가가자 운전사는 속도를 가했다. 돌아치정면에는 발톱에 ??자표식을 움켜쥐고있는 커다란 철제독수리가 걸려있었다. 막돌로 쌓아올린 키높은 석벽에는 대문 량쪽에 피가 랑자한 죄수복을 입은 반라체의 죄수 두사람이 쇠사슬에 묶이여있었다. 아마 새로 들어오게 되는 죄수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이리라. 두사람은 죽은듯 머리를 드리우고 축 늘어져있었다.

수용소경내로 자동차가 들어가자 열렸던 철대문이 아츠러운 소리를 내면서 닫기였다.

《사상개조실로!》 슈와이쩨르가 운전사에게 소리쳤다. 《해당한 개조공정을 거쳐야 해!》 그가 뚜르하노브를 쳐다보며 덧붙였다.

뚜르하노브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체하였으나 (사형수들도 사상개조를 받아야 하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은 인차 풀렸다. 여기서 사상개조란 아주 독특한것이였다. 슈와이쩨르는 뚜르하노브를 수용소 호송대원들의 손에 넘겼고 그들은 또 직일관에게 데려갔다.

《넌 누구냐?》직일관이 뚜르하노브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쥐여박으며 엉터리 로어로 물었다.

《쏘련군대포로 대좌 뚜르하노브이다.》뚜르하노브가 대답했다.

《무슨 죄로 체포되였는가?》

《자기 조국을 반역하지 않겠다는 죄로.》

《이제부터 넌 군인포로라는걸 잊어. 넌 일반범죄자로서 도이췰란드의 원쑤이다. 여기서는 너를 다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할것이다.》 에쓰에쓰직일관이 선언했다.

《난 항의한다!》뚜르하노브가 대들었으나 직일관은 들은체도 않고 호송병들에게 죄수를 끌어가라고 눈짓했다.

《특별개조를 받아봐!》 그들의 뒤에 대고 직일관이 소리쳤다.

호송병들은 대좌를 리발소로 끌어갔다. 거기서는 기계와 면도칼로 몸에 돋은 일체 털을 깎아냈다.

뚜르하노브는 빤빤히 깎은 자기 머리를 만져보고 (겉모양은 머저리로 만들어버렸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음속은 인간의 체모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속다짐했다.

에쓰에쓰호송병들은 리발소에서 뚜르하노브를 끌어내여 어떤

창문없는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사형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방을 우스개로 《공놀이실》이라고 불렀다. 《특별개조》처분을 받은 죄수를 여기서 4명의 《선수들》이 대기하고있었다. 철문이 열리자 그중의 한놈이 뚜르하노브의 등을 발로 찼다. 그 타격이 너무도 세고 불의적인것이여서 뚜르하노브대좌는 공처럼 두번째《선수》가 서있는 맞은쪽벽으로 날아갔다. 그자는 목숨가진 공을 주먹으로 쳐서 오른쪽에 선 세번째《선수》에게 련락했으며 그자는 축구선수처럼 머리받기로 뚜르하노브의 배를 쳐서 첫번째 교형리에게 보냈다. 또다시 발길질과 주먹치기, 머리받기가 이어지다가 끝내 네번째놈에게 갔을 때 오른쪽 어깨에 강타를 먹었다. 흔히 이렇게 되면 《개조》대상자는 의식을 잃고 방바닥에 쓰러지기마련이였으나 뚜르하노브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 다만 맞은쪽 벽쪽으로 날아갔을뿐이다. 여기서 다시 등에 새로운 발길질이 가해졌다. 《놀음》은 또다시 반복되였다. 기진맥진하고 실신상태에 이른 뚜르하노브는 이렇게 네바퀴를 돌았다. 마지막에 그는 최후의 힘을 짜내여 방 한복판에 버티고섰으나 오래 지탱하지 못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비칠거리다가 세멘트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오래 쓰러져있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어떤 알수 없는 힘에 의해 그는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다. 그의 몸을 갈가리 찢고 사정없이 흔들어대며 피줄을 당기는듯했다. 그는 진저리를 치며 눈을 떴다. 주위는 밝고 조용했다. 곁에서는 흰 위생복을 입은 알지 못할 사람들이 서성거리고있었다. 문곁에는 팔소매를 걷어올린 에쓰에쓰대원 두명이 서있었다. 뚜르하노브의 팔다리는 전기줄에 묶여있었는데 그 전기줄의 피복을 벗긴 끝부분은 손가락과 발가락들에 감겨있었다. 흰 위생복을 입은 수염쟁이가 손을 흔들었다. 그의 조수가 개폐기를 투입했다. 순간 뚜르하노브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전신에 경련이 일어났다. 팔다리가 까드라들었다 펴졌다 했다.

《짐승같은놈들, 이게 무슨짓이냐!》 대좌가 무섭게 소리질렀다.

《볼쉐위크전염병을 치료하는거다.》수염쟁이가 엉터리 로씨야말로 대답했다.

《의사》들은 자기 할바를 완전무결하게 터득하고있는듯싶었다. 조수는 어떤 기구의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뚜르하노브는 오른팔과 왼쪽다리에 경련이 이는것을 느꼈다. 교형리는 손잡이를 반대쪽으로 돌렸다. 오른팔과 왼쪽다리가 갑자기 잡아당기우고 왼팔과 오른쪽다리가 까드라들었다. 대좌는 몸을 일으키려했으나 그의 팔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전압을 낮추었다 올렸다 하면서 기구손잡이를 조종하는자에게 복종할수밖에 없었다. 그때 수염쟁이는 자기 《환자》의 혈압과 체온을 관찰하고있었다. 드디여 그자는 스위치를 끄라고 명령했다. 그의 조수는 개페기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뚜르하노브는 이 모든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또다시 의식을 잃었던것이다.

알몸에 쏟아진 찬 물줄기에 뚜르하노브는 정신이 들었다. 그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기가 상당히 깊은 목욕통바닥에 누워있다는것을 알았다. 찬물이 천천히 차오르고있었다. 사형수들은 우스개로 이 목욕통을 세례욕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찬물고문과 뜨거운 물고문을 죽음을 앞둔 신자의 세례식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가장 적극적인 반파쑈분자들의 반항정신을 소멸하기 위해 《세례》를 주었다.

뚜르하노브는 추위에 떨며 뛰여일어났다. 아직은 수위가 무릎까지밖에 이르지 않았으나 급속히 높아졌다. 뚜르하노브가 일어서자 물줄기가 얼굴을 향해 어찌나 세게 뿜었던지 머리를 수그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째서 머리를 움츠러뜨려?》 누구인가 로씨야말로 물었다 .《우리 욕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게 아니야?》

뚜르하노브는 자기에게 뽐프로 물을 쏘고있는자가 자기를 조롱하고있다는것을 알았지만 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욕질하지 않고 조용히 말하려고 마음먹었다. (저자에게도 량심이 한쪼각이라도 남아있는지 알게 뭔가.) 하고 그는 생각하며 말을 걸었다.

《여보게, 자네도 로씨야사람이 아닌가. 어째서 쏘련사람들을 못살게 구나?》

《첫째로, 난 로씨야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출생한 도이췰란드인이며 둘째로, 나는 너를 못살게 구는게 아니라 네 정신과 육체의 때를

깨끗이 씻어주는거야. 넌 너의 집 오물속에서 사는데 습관되여 목욕을 하고싶지 않을테지. 그렇겐 안될걸. 여긴 너희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야. 히히히!》 교형리가 비웃어댔다.

뚜르하노브는 그래도 그자의 량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목욕하라는거야 즐거운 일이지. 헌데 물이 너무 차네.》 그는 어성을 높이지 않고 조용히 대꾸했다.

《뜨거운 물을 달라나? 하는수 없지. 자, 받으라구!》 파시스트는 이죽거리더니 어떤 발브를 돌렸다. 그러자 뽐프에서는 뜨거운 물이 쏟아져나왔다.

끓는 물에 데지 않기 위해 대좌는 이미 욕실의 절반이상을 채운 찬물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숨을 쉬려고 머리를 물밖으로 내보냈으나 끓는 물줄기때문에 다시금 머리를 물속으로 처박지 않으면 안되였다. 뚜르하노브는 이렇게 십분가량 고통을 당했다. 힘이 점차 진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발이 욕실바닥에서 뜨게 되니 공기를 갈아마신 다음 잠시 서서 휴식할수도 없게 되였다. 한때는 뚜르하노브도 힘들이지 않고 볼가강을 헤염쳐건넜건만 이젠 물을 들여마시기 시작했다.

(정말 이 악취나는 물에 빠져죽어야 하는가?) 그는 악에 받쳐 생각했다. (아니, 굴복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싸워야 한다.)

행동계획이 순간에 무르익었다. 밖으로 머리를 내민 그는 공기를 들이마셨다. 욕실의 물은 거의 가장자리까지 차고있었다. 교형리는 물줄기를 더 세게 쏘려고 그의 가까이에 와있어서 그자의 발은 물에 거의 닿을듯했다. 그자가 서있는 위치를 기억해둔 뚜르하노브는 바닥에 내려가서 웅크리고앉았다가 두발로 힘껏 차며 마치 맹어들에게 쫓기우는 물고기처럼 순간에 물우로 솟구쳐올라 원쑤놈의 한다리를 붙들고 들어올려 물속에 메쳤다.

횡포해진 교형리는 목욕통에서 기여나가려고 발악했으나 뽐프로 쏘아대는 끓는 물줄기로 하여 다시금 물속에 빠져들었다. 외국태생의 그 도이췰란드놈이 꽥꽥 지르는 고함소리에 에쓰에쓰대원들이 달려오지 않았던들 이 일이 어떻게 끝났을는지 모를 일이였다. 그

들은 뚜르하노브를 쓰러뜨리고 팔다리를 붙들어 《목욕탕》에서 끌어낸 다음 곧장 눈판우에 내던졌다. 그때 줄무늬수인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와서 꼭같은 옷을 입혀주었다.

《용기를 내십시오, 동지!》그들중 한사람이 말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어려운 대목은 앞에 있습니다. 가서 대렬에 섭시다. 우릴 20호동에 보낼것입니다. 거기서는 살아나온 사람이 아직 하나도 없답니다.》

제 3 장

20호동은 각이하게 불리웠다. 한때 그 호동에는 격리실이 있었고 다음에는 그것이 의무실로 되였다가 1944년초에는 놈들이 3메터 높이의 돌담을 쌓아 다른 호동들과 격리시켰다. 그 주위에는 3개소의 감시탑을 세우고 수류탄으로 무장한 에쓰에쓰기관총수들이 밤낮없이 보초를 섰다. 그런뒤로부터 도이췰란드놈들은 이 호동을 《격리호동》이라 불렀고 마우트하우젠의 수인들은 《죽음의 호동》이라고 불렀다.

사람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기마련이지만 죽음에는 여러가지가 있는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것을 다 누리고 제 집에서 혈육과 친지들의 고별을 받으며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쑤들의 침입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다가 전쟁마당에서 죽기도 하며 공적임무를 수행하다가 각종 사고의 희생자로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할것없이 제나름으로 좋은 추억을 남긴다. 그러나 인간을 육체적으로뿐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파멸시키는 죽음, 생명의 론리적인 종결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층의 무자비한 잔혹성과 비렬성, 파렴치의 증견자로 되는 그런 죽음도 있는것이다.

바로 20호동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지옥의 창시자들과 그 희생자들만이 알고있는 그런 죽음이 수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벌써 반년이상이나 파시스트놈들은 여기에 무리로 또는 한사람씩 매일이

다싶이 죄수들을 끌어들였다. 무리라고 할 때 대체로 그 수는 수십명이 아니면 수백명을 헤아렸지만 단 한명도 도로 내보내지는 않았다. 그대신 이 호동에서는 정기적으로 형체를 가려볼수 없이 된 끔찍한 시체들을 손수레나 달구지로 실어냈다.

뚜르하노브는 1945년 1월의 추운 아침에 이 죽음의 제조소에 갇히게 되였다. 에쓰에쓰대원들이 그를 2중철문안에 밀어넣었을 때 그의 앞에는 거의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지고있었다. 줄무늬옷을 입은 수백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꼬부리고 발끝걸음으로 호동의 침침한 재빛건물을 말없이 천천히 돌고있었다. 그뒤에서는 에쓰에쓰대원들이 눈에 쌍심지를 달고 주시하고있었다. 수인들중에 한사람이라도 발바닥을 딛고 일어서거나 지친 다리를 약간이라도 펴기만 하면 즉시에 그 사람에게 고무곤봉벼락이 들씌워졌다. 불우한 그 사람은 땅에 쓰러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묵묵히 그 옆을 지나갔다.

수용소 소장의 보좌관 한놈이 새로 받은 수인들을 인솔해왔다. 그런 일은 아주 드물었다. 그래서 젊은 에쓰에쓰하사관인 호동장은 훈련을 서둘러 중지하고 《쉬엿》구령을 내린 다음 자기 구령이 어떻게 집행되였는가를 확인하려고 수인들을 한바퀴 둘러보았다. 그러고서야 정보로 걸어 수용소 소장보좌관에게 다가가 제 힘으로 움직일수 있는 수인은 전부 체조를 하고 환자들은 호동에서 끌어내여 맨땅에 눕혀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는중이라고 보고했다.

소장보좌관은 근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하사관을 치하한 다음 봉투를 넘겨주면서 즉시 그 내용을 읽으라고 지시했다. 하사관은 봉투에서 종이장을 꺼내여 그것을 몇번 곱씹어 읽었으나 그 뜻을 해득할수 없는 모양이였다. 그는 지시집행에 착수할대신 상급장교를 멍청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자를 대렬앞으로 호출하여 자네 부하들이 보게 하란말이야.》소장보좌관이 호동장을 한옆으로 불러내여 속삭이였다. 《저자를 다른 죄수들과 동일하게 다루되 두주일이상은 살려두어야 한다. 이 지시의 정확한 집행에 대해서는 목숨으로 책임져야 한다. 착수하라!》

호동장인 하사관이 딱 소리가 나게 구두뒤축을 붙인 다음 새로 받은 수인들에게로 돌아섰다. 경멸에 찬 시선으로 그들을 둘러보고나서 소리쳤다.

《68290번 3보 앞으로!》

통역이 이 명령을 처음에는 로어로, 다음에는 뽈스까어로 옮겼으나 누구도 대렬에서 나서지 않았다. 하사관은 다시한번 명령을 곱씹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감자들은 서로 마주 쳐다보았다.

《당신을 부르오.》곁에 선 수인이 뚜르하노브에게 귀띔했다.

게스타포감옥에서는 그의 번호가 78901번이였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서는 다른 번호로 불리운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그제서야 자기 저고리에 달린 번호를 보고 실수를 깨달았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하사관은 그에게 다가와서 《정신을 차리고있어야 해!》하면서 승마용채찍으로 얼굴을 세번 후려갈겼다. 대좌는 손을 들어 터진 눈두덩을 쓸어만졌다. 피가 흐르고있었다.

《이게 상관앞에 서있는 본때냐? 두손을 바지혼솔에 붙엿, 너절한 바보자식!》하사관놈은 소리치며 뚜르하노브의 손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부당한 처사는 해당한 반항심을 일으키기마련이다. 자기의 잘못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 뚜르하노브는 무섭게 성이 나서 불손한 하사관에게 대들려 했으나 곁의 수인이 그를 붙들고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어리석게 굴지 마오!》곁의 수인이 속삭이였다. 《주먹으로는 일을 치지 못하오. 자신이나 우리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줄뿐이지.》

그 조언으로 대좌는 분별없는 행동을 그만두었다. (저 사람 말이 옳다.) 뚜르하노브는 생각했다. (파시스트놈들은 주먹으로 칠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은 개인의 무모한 행동에 있는게 아니라 대중의 조직적인 반항에 있는것이다.)

제 4 장

체조란 대체로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격리병동에서의 체조는 정반대의 목적을 추구하고있었다. 파시스트《체조》의 필수적인 복합물에 포함된 전체 육체운동은 사람의 힘을 최대로 소모시킬것을 타산한것이였다. 《체조》는 온종일 계속되였다. 뚜르

하노브와 다른 수감자들은 호동주위를 게사니걸음으로 스무번, 배를 붙이고 기여서 다섯번, 참새처럼 뛰여서 네번, 외발로 뛰여서 여섯번 돌아야 했다. 그외에도 강행군으로 오십번이상 돌아야 했다. 이것을 다 합하면 열두키로가 넘는 거리였다.
이러한 육체적부담은 허기지고 추위에 떨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늘 구타를 당하는 수감자들뿐아니라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이겨내기 힘든것이였다.
해질녘이 되면 수감자들은 완전히 마비상태에 이르러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저녁 6시에 에쓰에쓰대원들은 수인들을 역시 수인출신의 호동반장과 그의 보조자들에게 넘겨주고 휴식하러 갔다. 반장과 그 보조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야합할 용의가 있는 직업적인 범죄자들이였다. 이자들은 그 호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명된자들인데 도이췰란드말로 《슈투벤지스트》즉 《실내관리원》이라고 불리웠다. 수감자들은 로씨야말식으로 호동장의 보조원들을 《슈투벤지스트》라고 불렀다.
반장은 외모가 원숭이와 놀랄만큼 비슷하다고 하여 고릴라 혹은 반장이라고 불렀다. 수감자들중에 그 악당의 이름이나 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자는 여러번 살인을 해서 도이췰란드놈들이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죽음의 호동 수감자들을 가혹하게 다루어 상전에게 봉사를 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놈들이 약속했다는것이다. 그자 역시 전력을 다하였다.
《슈투벤지스트》들가운데서 미하일 이하노브라는자가 제일 악착스러웠다. 고릴라가 자기 희생자들을 몽둥이로 머리를 까거나 호동밖에 있는 오수관에 집어넣어 불행한 수인들이 배설물을 먹고 죽게 한다면 이하노브는 미리 정신적, 육체적고통을 주어 자기 희생자들이 최대의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고서야 죽였다.
수인들을 몰아넣은 호동은 세부분으로 나뉘여있었다. 뚜르하노브가 들어가게 된 방은 A실이라고 했다. B실은 격리실이였다. 여기에는 제힘으로 움직일수 없는 수감자들을 《슈투벤지스트》들이 질질 끌어서 들여왔다. 눈우에 하루종일 누워있던 일부 수감자들은 얼어죽었다. 그 수는 스무명에 이르렀다. 그 사람들을 일반수용소로 가

는 출입구앞의 벽둘레에 쌓아놓았다.

B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뚜르하노브는 알지 못했다. A실에는 수감자들이 빼곡이 차있었다. 그들은 누구나 빨리 바닥에 누워서 자고싶었으나 반장은 한시간반동안 더 세워두었다가 취침하라고 명령했다. 호동에는 침대도 당반도 없었다. 사람들은 축축한 세멘트바닥에서 잤다. 빈 자리가 별로 없어서 후에 온 수인들은 이미 누운 사람들우에 눕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인들은 그것을 가리켜 《정어리식 잠자기》라고 불렀다. 《정어리》들이 잠든것을 확인한 반장은 징박은 구두로 그들을 밟고 지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또 어떤 사람은 팔다리를, 그다음 사람은 가슴을 밟혔다. 그자가 구두뒤축으로 짓밟은곳에서는 흔히 갈비대가 부러지거나 턱이 부서지는 특유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식으로 몇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놓고서야 고릴라는 자기 침실이 있는 가운데방문으로 사라졌다. 그 방은 호동에서 유일하게 불을 때는 방이였다. 그리고 거기에 세면장과 《슈루벤지스트》들이 사는 헛간이 있었다.

온종일 별의별 고통을 다 겪은 수인들은 드디여 잠에 곯아떨어졌다. 인간에게 의식이 작용안하고 배고픔과 추위, 아픔과 고통스러운 감정이 간직되는 이러한 상태를 잠이라고 일컬을수 있다면말이다. 불행하게도 이번에 뚜르하노브는 자연의 그 혜택조차 받지 못했다. 자기 처지에서 잠이 힘을 회복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아는 그는 될수록 빨리 잠들려고 애쓰며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생각지 않으려고 귀까지 틀어막았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시간, 또 한시간이 흘러갔다. …

그러는 사이에 방안은 탁한 공기로 가득찼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울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욕지거리를 하는가 하면 소리를 질렀다. 폐결핵환자들(격리실의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있었다.)은 걸쭉한 피를 토했고 천식환자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은 숨이 넘어갈듯이 발작적으로 기침을 했다. 개별적인 고함소리와 신음소리는 차차 련속적인 하나의 소음으로 변했다.

《떠들지 말어!》직일을 선 《슈루벤지스트》가 소리쳤다.

《환기창을 열면 좋겠소. 어디 숨쉴수가 있어야지.》뚜르하노브가

큰소리로 말했다.
《좀 참아. 에쓰에쓰대원들이 인차 올테니. 그 사람들이 오면 방안 공기갈이를 할거야.》
정말 십분쯤 지나자 에쓰에쓰대원들이 나타났다. 하사관자신이 앞서 걸어왔다. 그는 퇴적되다싶이 한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더니 사람사는 방이 아니라 오물통에 들어선듯 얼굴을 찡그렸다. 도이췰란드놈들도 따라서 코를 찡그렸다. 상관의 지시를 받은 도이췰란드병사들은 창문들을 활짝 열어제꼈다. 찬 맞바람이 쓸어들었다. 불을 피우지 않은 랭방은 이전에도 추웠는데 지금은 아예 한지에 나앉은거나 다름없었다. 잠이 깬 사람들은 몸을 얼구지 않자고 일어섰다. 제자리에서 뜀뛰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밀치닥거리며 갈갬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체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방 한복판에 수인들이 서로 몸을 의지하면서 굉장히 큰 무리를 형성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사형수들의 이러한 행동은 왜 그런지 하사관의 마음에 들지 않아 그는 그곳으로 걸어가려고 했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한 페결핵환자가 토해놓은 걸쭉한 피에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다. 수감자들은 그 일이 자기들에게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으리라는것을 알아차리고 될수록 그 위험한 장소에서 멀리 물러서려 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일어선 하사관은 성이 꼭두까지 치밀어 늘 가지고다니는 그 회초리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마구 후려치기 시작했다. 맥이 진할 때까지 후려치고나서 당장 방바닥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명령했다. 시중들기 좋아하는 《슈투벤지스트》들은 즉시에 일에 착수했다. 세면장에서 바께쯔로 물을 연거퍼 퍼다가는 바닥에 쏟아부었다. 그 작업이 한시간은 실히 계속되였다. 더러운 물이 특별히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수도관으로 흘러내리기는 했으나 바닥이 고르롭지 않은탓으로 군데군데 상당히 큰 물웅뎅이들이 남아있었다. 그런것쯤은 상관없이 하사관이 《취침!》하고 구령을 내렸다. 이 구령에 따라 수인들은 언제나와 같이 자기 이웃사이의 한쪼각의 빈 공간에 몸을 끼우려고 서둘렀다. 뚜르하노브가 채 숙련되지 못한탓으로 어물어물하

는사이에 그에게는 겨우 앉을 자리만이 차례졌다. 모두가 취침하려고 누웠음을 확인한 에쓰에쓰대원들은 임무를 수행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자리를 떴다.

(다문 뒤시간이라도 눈을 붙여야겠다.) 뚜르하노브는 중얼거리며 쪼그리고앉아 무릎을 세우고 그우에 팔과 머리를 얹으려 했으나 그렇게도 되지 않았다.

어떤 총각이 민첩하게 자기 무릎에 기대고 눕더니 몸을 가락지모양으로 꼬부렸다.

총각은 뚜르하노브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무릎에 잠자리를 잡기 즐겨하는 고양이로 알 정도로 여위고 갑삭했다.

(불쌍두 해라. 아주 어린애구나. 어쩌다 이런 지옥에 떨어지게 되였을가?)

애처로운 생각이 든 그는 빡빡 깎은 그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었다. 그러한 애무에 감동된 총각은 마음씨고운 그 사람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자 대번에 그를 알아보고 소리쳤다.

《대좌님, 대좌님도 여기 계시나요?》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총각이 물었다.

《나를 안단말이지?》

뚜르하노브는 놀랐다.

《그러찮으면요, 뚜르하노브대좌님이시지요. 이름난 빨찌산부대장이시지요. 전 스떼판이예요. 빠스꼽스끼변호사의 저택을 기억하세요? 거기서 당신네들은 두 도이췰란드사람을 죽였지요.》

뚜르하노브는 생각이 났다.

《그때 넌 권총을 한자루 얻었댔지.》 뚜르하노브가 총각의 잔등을 다정히 두들겨주었다.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니?》

《전 그 권총으로 도이췰란드장교놈을 죽였어요. 저를 체포하여 재판을 하더니 오스벤찜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더군요. 그러나 전 거기서 달아났어요. 헌데 놈들은 또다시 저를 체포하여 마우트하우젠에 가두었지요. 전 여기서도 탈주했댔어요.》

《20호동에서말이냐?》
뚜르하노브는 놀랐다.
《아니요. 그땐 일반수용소에 있었댔어요.》
《넌 어떻게 탈주에 성공했느냐?》
《우리 호동결의 돌담에는 틈사리가 있었지요. 저는 그 틈사리를 리용하여 돌담을 넘으리라 결심했댔어요. 그러나 경각성있는 감시탑보초때문에 아무도 돌담에 접근할수 없었어요. 게다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돌담꼭대기의 전기줄이 무섭더군요. 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날 밤 누군가 발전소를 폭파시켜 수용소에 불이 꺼졌어요. 어둠속이여서 보초들은 제가 돌담을 넘어 가까운 숲속에 숨는것을 보지 못했지요. 숲속에서 전 세주야를 숨어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더는 견디여내지 못했어요. 어느 한 마을로 내려가 맨 끝집에 가서 먹을것을 청했지요. 녀주인은 상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다주겠다고 하면서 저더러 헛간에 숨어있으라더군요. 전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녀인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경찰들을 데리고왔더군요. 저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이 격리호동에 오게 되였지요.》 스떼판이 이야기를 끝마쳤다.
《그런데 여긴 어떠냐?》
《아주 나빠요. 끝없이 때리지요.》
《도이췰란드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이라니?》 그는 알아듣지 못했다.
《여기엔 뽈스까인이 두사람 있어요. 아담파 월로지까라고 부르지요. 〈슈투벤지스트〉통역들이예요. 뽈스까사람들을 무섭게 증오해요. 제가 아직은 슬로벤스꼬사람으로 가장하고있으니말이지 뽈스까사람이라는것을 알기만 하면 죽도록 때릴거예요.》
스떼판은 입을 다물었다. 뚜르하노브는 총각이 잠들었으리라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잠시후에 총각은 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결국 당신도 여기 계시는군요. 전 당신을 기다렸댔어요.

당신이 부대를 여기로 이끌고와서 저를 해방시켜줄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예와아가씨도 해방되였을텐데. 이젠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됐군요. 오늘 아니면 래일 화장터에 불을 지필 거예요.》

소년은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더니 열병을 앓는 몸을 떨며 슬피 울었다.

뚜르하노브는 소년이 그지없이 가엾었다.

(파시즘의 희생자로 된 이런 스떼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쏘련군대와 쏘련빨찌산이 자기들을 해방시켜줄것을 고대하고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 살아서 다시 손에 무장을 잡고 파시즘이 격멸될 때까지 족쳐야 한다.)

《울지 말아, 스떼판. 상심하지 말아라.》 그는 총각의 귀에 대고 속삭이였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은 일이 다 글렀다는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고요?》 총각이 반문했다. 《그건 무슨 뜻이예요. 승산이 전혀 없는데두요?》

뚜르하노브는 소년의 등을 두들겨주었다.

《얘야, 너는 잘못 생각하고있다.》 그가 말했다. 《싸우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승산이 있는 법이란다. 싸우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걸 위해서도 빨리 잠을 청하고 조금이라도 휴식해야 한다.》

스떼판은 울음을 그치고 눈을 감더니 뚜르하노브에게 더 바투 몸을 다가붙였다. 고르로운 숨소리가 들리더니 인차 잠이 들었다. 소년을 위로하던 사람도 드디여 잠에 곯아떨어졌다.

제 5 장

《기상!》 탑우의 시계가 다섯점을 치자 《슈투벤지스트》들이 입을 모아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침 변소! 모두 세면장으로! 빨리!》

이 구령은 죽음의 호동수감자들에게 고문과 모욕의 새날이 시작된다는것을 의미했다.

《슈투벤지스트》들의 고함소리를 들은 수감자들은 부리나케 세면장으로 달려갔다. 어물거리는 수감자들은 이하노브가 가죽채찍을 사정없이 휘둘러대며 몰아댔다.

세면장안의 질서는 반장자신이 주관했다. 그의 감시하에서 사람들은 콩크리트세면장으로 달려가 두손바닥으로 찬물을 퍼서 얼굴에 끼얹고 팔소매나 저고리 앞자락으로(수건은 주지 않았다.) 문댄 다음 즉시 돌아나와야 했다. 이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은 즉시에 처벌을 받았다. 뚜르하노브앞에 줄을 서서 들어가던 수인 하나가 덤비면서 한손바닥으로 물을 퍼냈다. 이것을 본 고릴라가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그것을 목격한 다른 수인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손을 미처 적시지 못한채 황황히 출입구로 달려갔다. 반장은 몽둥이의 뾰족한 끝에 특별히 설치한 올가미를 그의 목에 던져 힘껏 잡아당겼다. 반장은 불행한 수인을 물이 목욕통가장자리까지 찰찰 넘치는 외딴 욕실로 끌고가 그속에 처넣었다. 그리고는 목욕통뚜껑을 덮고 그우에 올라앉았다. 《규률위반자》는 물을 먹고 가라앉았다.

아침변소보는데는 30분이 할당되였으나 수감자들은 25분동안이면 다 보군했다. 그다음에는 그들을 마당으로 끌고나가 백명씩 채 차지 않는 일곱조의 대렬을 구성하였다. 그외에 격리칸에서 백오십여명의 환자들이 제발로 기여나왔고 배밀이로라도 기여나올수 없는 칠십여명의 환자들은 《슈투벤지스트》들이 끌어내왔다. 반장의 지시로 그들은 호동벽둘레에 렬을 지어 눕혀서《신선한 공기를 마시라.》고 한데에 내버려두었다. 그런 다음 당직《슈투벤지스트》는

반장에게 밤사이에 스물일곱명이 죽고 여덟명은 아직 숨은 붙어있으나 손가락조차 움직일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했다. 고릴라는 그들을 모두 시체무지우에 가려놓으라고 명령하여 《슈투벤지스트》들이 집행했다.

온밤 센 서남풍이 불어왔다. 이렇게 되면 알프스지대에는 강수량이 불어난다. 아침녘에 바람이 좀 잣더니 푸실푸실한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제발 진눈까비만은 내리지 말았으면.》뚜르하노브대좌의 곁에 선 수인이 갈라터진 입술로 내리는 눈송이를 받으며 중얼거렸다.《그렇게 되면 우린 속속들이 젖어들어 감기에 걸리거던.》

《그래요.》앞의 수인의 말에 다른 수인이 응수했다.《그렇게 되면 저 시체더미가 5～6배로 늘어날거요.》

그 사람은 일반수용소로 나가는 출입구결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시체더미를 가리켰다. 이젠 에쓰에쓰특수부대를 인솔한 하사관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명색상 격리호동의 규률상태를 검열하러 온다고 했지만 실상은 수인들을 고문하고 모욕하기 위해 오는것이였다. 대체로 이 교형리들은 7시경에 나타나군했는데 이번에는 지체되였다. 즉 수인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하도록 할당된 즐거운 시간을 그만큼 떼우게 되였다.

그러나 수인들은 이것으로 하여 조금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체되는것은 의례히 수감자들에게 보다 완성된 고문과 모욕방법을 적용할데 대한 교형리들의 새 지령과 관련되였기때문이다. 이 무서운 날에도 바로 그렇게 되였다. 정각 아침 8시에 철대문이 열리더니 자기네 하사관을 앞세운 에쓰에쓰대원들이 도도하게 행진하여 격리호동마당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례복을 입고있었다. 반장은 수감자들이 아침점검을 받기 위해 정렬했다고 보고했다.

수감자들에 대한 인원확인이 시작되였다. 확인은 백명조별로, 개인번호별로 진행했다.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다 계산에 넣었지만 왜 그런지 합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계산을 다시 했다. 명단상의 인원보다 3명이 더 불어났다. 에쓰에쓰대원들은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호동장은 제외대상이 없이 모조리 정렬시키라고 명

령했다. 굽신거리는 《슈투벤지스트》들은 환자들까지 강제로 끌어내다가 줄을 세우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환자수인들을 아무리 욕을 하고 두들겨패도 또 에쓰에쓰대원들의 검열이 끝날 때까지 몇분동안만이라도 서있으라고 아무리 설복해도 지치고 지친 사람들은 땅에서 일으켜세우자마자 도로 쓰러지군했다. 그러자 호동장인 하사관은 한줄에 열명씩 줄지어 눕히라고 명령했다. 너비가 5메터, 길이가 40메터 되는 산 사람의 깔개가 만들어졌다. 사형수들은 그것을 우스개로 《화장터의 산 사람줄》이라고 불렀다. 이 불행한 수인들에게 가해진 고통의 대가로 에쓰에쓰대원들은 인원점검을 무사히 끝냈다. 인원수가 맞아떨어진데 만족한 호동장은 환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날라가고 나머지 인원으로 아침체조를 하라고 지시했다.…

수용소동지들의 말에 의하여 뚜르하노브는 20호동의 수인들은 도이췰란드땅과 강점지역도처에 있는 다른 죽음의 수용소 수인들과는 달리 아무런 로동에도 참가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그 수인들은 파쑈제국에 아무런 리익도 주는것이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런데 무장보초인원을 유지하고 수인들을 먹여살리는데 국가는 자기 예산에서 일정한 액수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막대기같이 타산밝은 도이췰란드인인 경우에 이와 같은 《랑비》는 첫눈에도 납득되지 않는것이였다. 다른 호동의 수인들이 로동능력을 상실했을 때에는 부랴부랴 죽여서 그 시체를 비누나 목수용 풀, 자기 땅을 걸구는 비료를 생산하는데 쓰는판에 어째서 피할길 없는 죽음의 운명을 지닌 그 사람들을 곧 죽이지 않고 몇주일이나 몇달씩 형편없는것이기는 하나 먹여살리고 입혀주는것일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뚜르하노브는 도이췰란드놈들자신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였다.

탑우의 시계가 아홉점을 쳤을 때 호동장은 갑자기 《체조》를 중지시키더니 자기 보조자들에게 수감자들을 다시 백명씩 조를 짜서 정렬시키라고 명령했다. 에쓰에쓰대원들은 부산스레 이리저리 뛰여다녔다. 일부 대원들은 조별 인원을 세고 또 고쳐 세는가 하면 다른 대원들은 수인들의 주머니를 깐깐히 뒤지였다. 수감자들도 흥분했다. 호동장은 노래를 부르거나 연설을 하려는듯 가래를 돋으며 연방 기침을 깇어댔다.

드디여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철문이 열리였다. 그러자 20호동경내로 에쓰에쓰와 에쓰디의 상급장교들이 무리지어 들어왔다. 그들가운

데는 두명의 대좌들 이외에 소장 두명, 에쓰에쓰중장 한명이 있었다. 수용소 소장인 프란쯔 찌라이쓰대좌가 그들을 안내했다. 이 높은 장관들을 보자 호동장은 얼떨떨해져서 제때에 《쉬엿》구령은 내렸지만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할지 몰라서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는 겁에 질려 수용소 소장과 에쓰에쓰중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여느때 이런 잘못을 저지른데 대하여 자존심이 강한 상관은 의례히 과오를 범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겠지만 이번에는 그의 부하들이 보는데서 애써 봉사하는 충복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에 질려 까딱않고 서있는 호동장 하사관의 곁을 말없이 지나갔다.

수용소 소장 찌라이쓰만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평시에 엄격하고 자존심이 강한 그는 소탈한 웃음을 지어보이더니 눈을 번뜩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의 지령대로 행동하시오. 저분들에게 총통에게 충실한 전사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가를 보여주시오!》

이 말은 기가 꺾인 하사관에게 신비한 향유처럼 작용했다. 활기를 띤 하사관은 도도한 자세로 가슴을 내밀고 군화뒤축을 딱 맞추었다. 그는 아첨기어린 눈으로 상관을 쳐다보며 웨쳐댔다.

《대좌님, 충성을 보이겠습니다. 저의 용사들은 당신이 준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할것입니다. 하일 히틀러!》

죽음의 호동구역에 고위급관리들이 불의에 나타난것은 대다수의 수감자들을 몹시 불안케했다. (뭔가 무서운 일이 꾸며지고있는게 분명해.) 일부 수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번대수리는 죽은 짐승의 피냄새를 맡았을 때 날아드는 법이지.) 그러나 수인들가운데는 락천가들도 없지 않았다.

《권위있는 조사단이 우릴 찾은게 틀림없군.》 뚜르하노브곁에 선 사람이 속삭이였다. 《이놈들이 불법행위를 한다는 말이 베를린까지 간 모양이지. 나한테 묻기만하면 난 죄다 진상을 털어놓겠네, 자넨 어떻거겠나?》

《두고보세나.》 뚜르하노브가 두리뭉실하게 대꾸했다.

오래 두고 보지 않아도 되였다. 장령들과 대좌들이 자기들을 위해 특별히 설치한 연단우에 서자마자 수용소 소장 찌라이쓰는 호동장쪽에 대고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호동장은 자기 졸개인 《슈투벤지스트》들에게 체조를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기계가 분주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뚜르하노브가 속한 백명조는 중간휴식참에 에쓰에쓰장령들과 대좌들이 내려다보고있는 단앞에 서게 되였다. 만행의 진상을 이야기하겠다던 뚜르하노브곁의 수인은 아직도 교형리들을 처분해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있는듯싶었다. 그래서 연단곁에 멈추어서게 되였을 때 그는 머리를 치켜들고 중장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수감자의 그러한 행동이 눈에 띄지 않을수 없었다. 에쓰에쓰중장이 수용소 소장에게 수군거리자 소장은 호동장을 불렀다.

《저자가 어째서 우리에게 눈을 흘기는가?》소장이 그 수인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그래, 돼지새끼가 태양을 향해 눈을 올려뜰수 있단말인가?》

그 수인은 도이췰란드어를 잘 알고있었다. 그는 수용소 소장의 말을 듣자 불끈했다.

《난 돼지가 아니요. 쏘련공군대위요.》이전에 비행사였던 그가 긍지높이 대꾸했다.

수용소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에쓰에쓰하사관보고 손을 흔들었을뿐이다. 하사관은 연단에서 뛰여내리더니 권총집에서 빠라벨중권총을 꺼내들고 비행사에게 다가갔다.

《로씨야돼지야! 돼지, 돼지…》

《돼지》라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권총으로 수인의 얼굴을 내려치군했다. 매를 맞는 수인의 눈과 볼, 입, 코가 피투성이로 변하자 하사관놈은 권총을 수인의 관자노리에 대고 씨벌였다.

《이 잡종의 짐승놈아, 무릎을 꿇어! 장교나리에게 용서를 빌어!》

비행사는 불이 펄펄 이는 눈길로 그자를 쏘아보았다.

《난 무릎을 꿇지 않고 죽는 길을 택하겠다!》비행사는 굽어들지 않았다. 《어서 쏴라, 개자식아!》

총성이 울리고 쌓아놓은 시체무지에는 또 하나의 시체가 불어났다.

이젠 비행사의 사건은 자기들의 처지가 개선되리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게 했다. 한편 연단의 구경군들에게는 이 사건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떤자들은 자기 수첩에 무엇인지 써넣었고 또 다른자들은 수용소 소장을 둘러싸고 질문을 들이댔다. 소장은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려고 애를 썼다.
《내가 이 호동에는 사형선고를 받은자들만 감금되여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더구나 그 판결이 법적효력을 낸지 오래되였으므로 우리는 저자들을 임의의 시간에 제거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바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로력과 수단을 다해서 저자들의 생명을 다문 며칠간이라도 연장시키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어째서요?》 중장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래, 당신들은 저자들을 교양개조하자는건가요?》 한 소장이 물었다.
《저자들이 참회할 때를 기다리는건 아니요?》 다른 소장이 물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닙니다.》수용소 소장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저자들은 개조되지도 않으며 참회할 생각도 않습니다. 저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리여 빨리 쏘아죽이라고 하는판이지요. 저자들을 빨리 죽이는것은 악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것으로 됩니다. 우리앞에 저지른 저자들의 죄악을 생각하면 아무리 고통스럽게 서서히 처형해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수 없으리만큼 큰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자들을 죽이기전에 우선 저자들이 자기들은 인간이 아니라 보통짐승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확신하게 하자는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우리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있습니다.》
《어떻게?》참가자들중의 한사람이 물었다. 《전쟁은 우리의 훌륭한 간부들을 앗아가고있소. 사람이 모자라오. 이런 처지에서의 출로를 어떻게 찾고있소?》
《수감자들중에서 에쓰에쓰대원들을 도울만한자들을 선발하고있습니다. 경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전선에 필요한 도이췰란드인들을 대신해주고있으며 둘째로는 자기 행동으로써 다른 수인들에게 육체적고통뿐아니라 도덕적고통까지 안겨주지요. 제 몽둥이로 맞는것이 더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몽둥이가 어떻게 때리는가를 여러분, 휴식이 끝난 후에 보게 될것입니다.》
수용소 소장의 허락을 받고 하사관은 자기 대원들을 점심식사시키러 데리고갔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리를 반장을 위시한 《슈투벤

지스트》들이 차지하게 되였다. 또다시 모욕을 주기 위한 체조가 시작되였다.

반장 고릴라의 구령에 따라 수인들은 달리기를 했고 엎디여 팔꿈치로 기여가기, 게사니걸음걷기, 네발로 달리기, 외발로 뛰기, 머리와 몸통흔들기, 어리뻥뻥해질 때까지 제자리뛰기를 했다.

고릴라는 묵직한 곤봉으로 아무 죄도 없는 수인들의 머리를 더 자주 내려치군했다. 그러나 잔인무도한 이자에게는 그것도 부족하여 새로운 《놀음》을 또 생각해냈다. 두사람씩 목덜미를 쥐고 하수도 맹홀로 끌어다가 그속에 밀어넣었다. 수인들의 발이 이 썩은 물 밑창에 닿지 않았으므로 구정물속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그들은 헤염을 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그들의 힘은 빠져서 가라앉기 시작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짚오래기라도 잡는다지만 짚오래기도 잡을수 없으니 그들은 서로 붙들게 되였다. 공포심이 그들의 의지와 의식을 흐리게 했다. 검질기게 달라붙는 본의아닌 《적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그들은 가혹한 싸움을 벌리였다. 고릴라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통쾌했다. 서로 익사시키는 자기의 희생자들을 바라보며 고릴라는 미친놈처럼 껄껄거렸다.

고릴라의 제1보조자인 미하일 이하노브는 자기 상관에 뒤지지 않았다. 한때 그자는 기병으로 복무했으며 자기를 용감한 기마수로 자처했었다. 그의 성격은 방종했다. 경주할 때나 훈련할 때나 그가 격하기만 하면 그 어떤 말이든 따라앞섰다. 그래서 그자는 그것을 상기하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광신자—기마수의 수법을 다시 써먹기로 한것 같았다. 그는 수인들가운데서 힘이 세고 건강해보이는 사람을 골라내여 그의 목에 올라탄 다음 채찍질을 하여 그 불행한 수인이 땅에 쓰러질 때까지 호동주위를 달리게 했다. 그는 수인이 쓰러진 다음에도 그냥 두지 않았다. 그의 가슴우에 두발을 딛고 올라서서 뼈가 부서질 때까지 뛰였다. 이 백치의 행동은 도이췰란드인들의 우뢰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가 자기의 말우에 올라타고 주석단곁을 지나갈 때 상관나리들은 만족하여 두손을 마주 비벼대고 웃으며 손벽을 쳤고 기마수와 함께 소리치기까지 했다. 상전들의 고무에 사기가 난 이하노브는 이런 방법으로 다섯명에게 고통을 주어 죽게 했다.

통역원인 아담과 월로지까는 주로 자기 고향사람들을 못살게 굴

었다. 20호동의 거의 모든 뽈스까인들은 얼마전에 있은 와르샤와 폭동참가자들이였다. 그들은 모두 자기 나라 인민을 도이췰란드파시스트의 기반에서 해방하기 위해 투쟁했다. 아담과 월로지까도 뽈스까사람들이기는 했지만 반파쑈투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었다. 부유한 농가의 주인들인 그들은 부농들이 일으킨 어느 한 폭동의 적극적인 참가자였으며 도이췰란드토벌대들을 도와 뽈스까빨찌산들을 공격했고 포로수용소에서 탈주한 쏘련군대들을 게스타포에 끌어다주었으며 적극적인 지하운동참가자들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들이 죽음의 수용소에 오게 된것은 우연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어느날 밤 빨찌산토벌작전에서 돌아온 아담은 자기 안해가 낯모를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것을 목격했다. 질투심이 강한 남편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따져볼 겨를도 없이 권총을 뽑아들고 자기 적수의 흉분한 가슴에 련이어 세방을 쏘았다. 보잘것없는 《오쎌로》가 죽인 바람쟁이는 보통사람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도이췰란드위수사령관이였다. 지하공작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한 아담이였지만 책임이 두려워 자신이 지하로 들어갔으며 자기 친구 월로지까의 집에 얼마간 숨어있었다. 배신자들의 소굴에 숨는다는것은 아무튼 눈가리고 아웅하기였다. 자기편의 어느놈인가가 게스타포에 신고하여 두 악한이 동시에 체포되였으며 사형을 선고받고 마우트하우젠수용소로 끌려왔다.

반장은 천성적인 우둔한자였지만 악한과 정상적인 인간을 구분해내는 솜씨는 놀랄만했다. 뽈스까어를 도이췰란드어로 번질 통역이 요구되였을 때 그자는 새로 구금된 뽈스까인들가운데 도이췰란드어, 뽈스까어뿐아니라 다른 유럽어들도 소유한 지식인들이 있었지만 아담과 월로지까를 비편제의 통역으로 등용했다. 이전의 부농폭동참가자들은 이러한 특혜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고릴라의 으뜸가는 충복으로 되였다. 최근 3개월동안에만 해도 그들은 반장과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백명이상의 자기 동족들을 살해했다. 우에서 언급한 사건들이 벌어지고있을 때에 와서는 제20호동에는 뽈스까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국어외에 다른 언어를 알고있어서 자신을 체스꼬사람이나 슬로벤스꼬사람으로, 혹은 우크라이나사람이나 벨라루씨사람으로 가장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아담과 월로지까의 손에 걸려들기만 하면 그 불행한 사람들은 즉시에 가혹

한 고문과 모욕을 당하고 하루, 이틀후에는 이미 시체가 되여 화장터의 아궁이속에서 타군했다.

이 교형리들이 제아무리 파시스트들에게 충성과 진심으로 복무해도 상전들은 그들에게 화력무기를 내주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수인들과 충돌하는 경우에 자기 보신을 위해 우에서 말한 끝에 연추를 단 묵직한 몽둥이를 언제나 지니고 다니였다. 이하노브는 가죽채찍을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담은 어디선지 오래 묵은 철판쪼각을 얻어서 한쪽면을 벼려가지고 칼대신 지니고 다니였다. 월로지까는 크기가 오리알만한 둥그런 돌을 얻어서 손수건에 싸가지고 투척추대신 사용했다.

그 전날밤에 아담은 우연히 4명의 수인들이 주고받는 말을 엿들었다. 그들은 슬로벤스끄사람으로 행세했으나 뽈스까말로 주고받았다. 《우린 구원될 가망이 없네.》 그중 한사람이 말했다. 《우린 죽음을 면치 못해. 그런데 우리의 교형리인 아담과 월로지까는 실지로 집에 돌아갈수 있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물었다. 《배신한 대가로 그자들은 도이췰란드놈들에게서 용서를 받을수 있을거야.》

《그래, 자네들은 어떻게 하자는건가?》 세번째 사람이 물었다.

《이 살인귀들의 악행을 조국에 통보하자구. 그렇게 되면 그자들은 물론 그 후대까지도 뽈스까의 하늘아래서는 살곳이 없을거네.》 네번째 사람이 정열적으로 속삭이였다. 《우린 외부세계와 련계가 없으니 아직은 조국에 통보할수 없네. 그러나 우리들가운데 누구든 살아남게 되면 저 교형리들을 잊지 말아야 해.》 첫번째 사람이 말했다.

아담의 기억력은 나쁘지 않았다. 그는 이 수인들의 개인번호를 기억하고있었다. 지금 그는 여섯번째 조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안녕하오, 체르마크씨!》 그는 그들중 한사람에게 인사를 했다.

《당신은 조국 뽈스까로 돌아가려고 해도 힘이 모자라 걱정이라면서요? 당신의 몸이 추서게 먹여줄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필요없습니다.》 수인이 대답했다.

《아니, 당신은 배를 곯고있지 않소?》

《오해하고있군요.》 수인이 이사이로 내뱉았다. 《난 당신의 얼굴을 보기만해도 배가 부르오.》

《그렇다!》 아담이 놀란듯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니 어쨌든 당신을 대접하겠소. 월로지까, 저자의 아가리에 닭알을 쑤셔넣어주라구!》
이렇게 말하면서 아담은 한손으로는 자기 희생자의 목을 붙들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뒤로 잡아젖혔다. 그리고 월로지까는 둥그런 돌을 그의 입에 힘껏 쑤셔넣으려고 했다.
《어서 먹구 힘을 내라구!》 교형리의 방조자가 놀려댔다. 《떼를 쓰지 말구 어서 입을 벌리라니까.》
그러나 수인은 돌은커녕 칼조차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입을 꽉 다물었다.
《이발이 방해되누만.》 월로지까가 푸념을 했다.
《그럼 이발을 쳐야지.》 아담이 충고했다. 월로지까는 자기의 돌로 몇번 쳐서 수인의 앞이발을 다 부러뜨렸지만 둥그런 돌이 불행한 수인의 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자 교형리들은 수인을 땅에 쓰러뜨리고 구두발뒤축으로 돌을 입안에 틀어박았다. 잔인한 짓을 즐기는자들의 횡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질식상태에 이른 수인이 숨을 거두고 조용해지자 월로지까는 돌을 입안에서 빼내려 했다.
《이젠 배가 부를테니 닭알을 달라구.》 그자는 돌을 싼 손수건을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달라구 하지 않아. 닭알을 다른 사람에게도 먹여야 하니까.》
돌은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아담은 제손으로 만든 칼로 불행한 수인의 볼을 베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피투성이가 된 돌이 입안에서 빠져나왔다.
이 무시무시한 장면은 연단우의 관람자들에게 커다란 만족을 주었다. 이에 흡족한 수용소 소장은 호동장을 불러 이하노브와 월로지까와 아담의 식료품공급량을 정량보다 4분의 1을 더 높여주라고 했다.
련이어 벌어진 류혈적인 장면들은 《점잖은 관중들》의 호기심을 완전히 충족시킨것 같았다. 점심시간도 다 되였다. 그러나 에쓰에쓰대좌들과 장령들은 연단의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고 뭔지 특이한것을 더 기다리고있었다.
《피의 목욕》이란 명칭으로 20호동력사에 기록된 사건도 실지

로 이날에 벌어졌다. 두주일전에 이 지옥에 들어온 수인들가운데에는 그루지야사람들의 한 집단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군대포로수용소에서 반파쑈지하활동을 벌린탓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쏘련군대군관들이였다. 이 자존심이 강한 까브까즈의 아들들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행동했으며 억압과 박해가 가해졌을 때에는 조직적인 반격을 안기군했다. 그래서 《슈투벤지스트》들뿐아니라 에쓰에쓰대원들조차 그들을 두려워했다. 고릴라조차 될수록 그들과는 충돌을 피하려 했다. 그런데 그날은 그자가 상부에 자기의 대담성을 시위하고싶었던 모양이다. 그루지야인들이 속한 조가 게사니걸음을 하면서 연단옆을 행진해가는 순간을 택하여 고릴라가 그들중 한사람에게 싸움을 걸었다.

《야, 이 아시아멍텅구리야, 어째서 발통을 높이 쳐들지 못해?》그가 몽둥이를 휘둘러대며 꽥꽥거렸다.

그 그루지야사람은 몸을 쭉 펴더니 주먹을 부르쥐고 고릴라에게 다가왔다.

《뭐라고 말했어? 다시한번 말해봐!》 그가 소리쳤다.

다른 그루지야수인들도 게사니걸음걷기를 그만두고 부어오른 다리를 쭉 펴더니 고릴라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백명조전체가 멈춰섰다. 반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알은 놀라서 데룩거렸다. 그는 독이 오른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을수 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멀리 피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다. 연단의 관람자들은 그러한 양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안절부절했고 불만을 표시했다.

수용소 소장은 수용소 행정당국의 권위를 즉시에 회복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머리를 쳐들고 기관총결의 에쓰에쓰대원들에게 손을 흔들어보였다. 그 순간 기관총수들은 량쪽감시탑에서 동시에 불을 토하기 시작했다. 기관총들이 몇차례의 련발사격으로 수인들의 대렬을 쓰러눕혔다. 혼잡이 벌어졌다. 《슈투벤지스트》들과 보통수인들은 허둥지둥 호동맞은편으로 달려가고 연단앞 공지에는 피살자와 중상자들만이 남아있었다. 맨주먹뿐인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제압한데 만족한 수용소 소장은 그들을 곧 시체무지로 날라가라고 지시했고 지시는 즉시에 집행되였다. 그후 몇시간동안 시체무지쪽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드디여 일반수용소 주방에서 점심을 가져왔다. 그날도 음식은 여느때와 다름없었다. 수인들에게는 백그람의 대용품 빵과 썩은 무우를 씻지도 않고 끓인 멀건 국 한주걱씩 급식하게 되여있었다. 이름모를 료리사는 국에 기름과 양념은커녕 소금을 두는것조차 흔히 《잊군》했다. 이 음식들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의 위에 장애를 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듯싶었다. 그날 음식의 질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식사질서에서는 《합리화》가 취해졌다. 즉 이전에는 국을 수인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녹쓴 헌 통졸임통에 부어주었다면 이번에는 국을 몇개의 커다란 함지에 담아 놓아주었으므로 수인들은 돼지처럼 엎드려서 입을 대고 마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신들은 식기가 모자라서 그러오?》중장이 수용소 소장에게 물었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소장이 머리를 가로 내저었다. 《우리의 적들은 자기를 높은 지성을 지닌 인간으로 자처하고있습니다. 우리의 과업은 그러한 확신을 깨뜨려버리는것입니다. 음식을 보통 짐승처럼 먹게 하면 그들은 점차 진짜짐승으로 화할것입니다.》

《과연 그렇군!》중장이 경탄했다. 《난 알아차리지 못했소. 우린 정말 여기서 흥미있는것을 많이 보았소! 베를린에 가면 반드시 부총통에게 말씀드리겠소. 당신들의 유익한 경험을 모든 수용소들에 보급해야겠소. 대표단들을 맞을 준비를 하오. 당신들의 〈대학〉에 될수록 많은 〈청강생〉들을 보내겠소. 사람들의 의식에서 우리의 적대사상을 뿌리뽑는 일을 전업으로 하는 청강생들을말이요. 그 사람들에게 제국의 원쑤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시오. 우리 대표단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와 앞으로의 성과를 바라는바요.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수용소 소장은 오른손을 앞으로 쳐들면서 대답했다.

뜨르하노브가 속한 조의 대렬이 점심을 기다리며 바로 연단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에쓰에쓰중장과 수용소 소장의 마지막 대화를 엿들을수 있었다.

(그런즉 도이췰란드의 죽음의 수용소체계에서 우리 격리호동은 파시스트놈들이 자기의 사상적적수들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

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특수한 대학》이란 말이군. 그리고 우리 수인들은 이 광신적인 방법의 효력을 검열하는 자료로 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다른 수용소의 교형리들이 경험을 교환하러 여기로 온다. 따라서 20호동은 교형리들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강습소라고도 할수 있다. 바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로동을 시키지 않는단말이지.)

뚜르하노브가 알아차렸다.

제 6 장

격리호동에서는 매일 십여명의 시체를 끌어냈는데 이번에는 그 기준이 십배이상으로 초과됐었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한 에쓰에쓰대원들은 점심식사후에 20호동을 떠나갔으나 수인들은 여전히 바깥에 내버려두었다. 이러한 경우에 수인들은 누구인가 추운 겨울날에 생각해낸 《삐치까》놀이를 시작했다. 수감자의 한 사람이 《나에게로!》하고 소리치며 두손을 불의에 쳐들었다. 이 구령에 따라 다른 수감자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서로 몸을 비비면서 《삐치까》라고 부르는 밀집한 무리로 뭉쳤다. 그리고 매 사람은 《삐치까》복판에 들어가서 자기 주위사람들의 체온으로 몸을 덥히려고 애썼다. 가장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동무들의 몸에 등을 댔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서 쇠약한 자기들의 몸의 나머지체온으로 서로 몸을 덥혔다. 그러다가 가장자리에 선 한사람이 한옆으로 달려가서《나에게로!》하고 구령을 쳤다. 종전의 《삐치까》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새로운 삐치까가 《건설》되였다. 이전 《삐치까》의 안쪽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온기를 맛보게 되였다.

이런 《삐치까》는 동시에 여러곳에 생겼다. 《슈투벤지스트》들도 처음에는 다른 수인들과 함께 놀았으나 그후 그들에게서 떨어져나와 자기네들끼리 《삐치까》를 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악한들에게서 벗어난 수인들은 자기 《삐치까》속에서 의견들을 교환하고 서

로 안면을 익혔으며 신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뭇군했다.

《한 동지가 대좌동지와 안면을 익히고싶어해요.》뚜르하노브곁에선 스떼판이 속삭이였다.

《네가 아는 사람이냐?》뚜르하노브가 물었다. 《어떤 사람이냐?》

《제가 잘 알아요.》 스떼판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 사람과 예멜리야노브란 성을 가진 다른 한분은 언제나 저를 비호해주었어요. 그분들이 아니였다면 전 화장터의 재가 된지 오랬을 거예요.》

《좋다. 그렇다면 소개해다오.》뚜르하노브가 동의했다.

새로운 《뻬치까》가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장수처럼 키가 큰 사람과 나란히 서있게 되였다. 그 사람도 다른 수인들처럼 몹시 수척했지만 그 당당한 모습이 다른 동무들과는 판이했다.

《쎄르게이 크쎄노폰또브입니다.》그가 자기 소개를 했다. 《당신에 대해서는 스떼판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좋은 벗이고 수용소의 믿음직한 동지입니다.》그는 자기 옆에 딱 붙어서있는 허약하고 체소한 젊은 수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쁘로호르 예멜리야노브입니다.》그가 자기 소개를 했다. 《우리의 어린 벗인 스떼판이 당신에 대한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당신과 알게 되여 참 기쁩니다.》

이렇게 《뻬치까》놀이를 할 때 며칠동안에 이 세사람은 자기들의 경력을 충분히 교환했다.

예멜리야노브는 뚜르하노브와 한고향사람이였다. 그는 츄와슈공화국의 알리꼬브구역에서 출생했고 해군고급군사학교를 졸업했다. 랑만으로 그의 심장이 뛰였으므로 어릴적부터 그는 바다에서의 군사복무를 꿈꾸었다.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의 꿈은 실현되였다. 그는 적기훈장을 받은 발뜨해함대에 들어가 처음에는 어뢰정을 타다가 그후 잠수함을 탔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과가 있기마련이다.

예멜리야노브의 군사복무 역시 성과적이였다고 할수 있다. 그는 어뢰정의 지휘관을 하다가 전쟁초기에는 잠수함의 상급조수로 승급했으며 전쟁 두해째에는 함장으로 되였다. 그의 잠수함은 《꼬마》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일류급 배는 못되였으나 화목하고 용감한 승조원들은 그런 배를 타고도 훌륭한 전과를 거두군했다. 전쟁 세번

째 해 초에는 갑판실에 별과 함께 12라는 수자가 그려지게 되였다. 이것은 침몰시킨 적군함수를 표시한것이였다.

예멜리야노브는 그가 치른 마지막 전투를 특히 기억하고있었다. 《끄마》잠수함은 그때 노르웨이의 북쪽해안에서 적함을 사냥하고 있었다. 파쑈도이췰란드의 륙군은 무르만스크철도를 끊어놓을 목적으로 북쪽에서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있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병력, 전투기재 그리고 공군과 모터찌클부대에서 쓸 연유를 항로를 통해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었다. 쏘련공군과 잠수함의 활동은 병력수송을 해상으로 하던 도이췰란드함대에 적지 않은 난관을 조성했다. 《끄마》잠수함도 이 성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잊지 못할 그날 예멜리야노브는 높은 해안을 따라 조심스레 전진하는 적의 두척의 대형수송선을 잠망경으로 똑똑히 보았다. 수송선들은 반잠수함방위력인 구축함 여섯척을 동반하고있었다. 잠수함은 적함선에 접근했다. 결정적순간이 다가왔다. 《쏘앗!》구령이 울리고 뒤이어 《끄마》에 탄 모든 승조원들은 강한 충격을 느꼈다. 어뢰가 목표물에 명중한것이다.

예멜리야노브는 순간 잠망경을 들어올렸다. 대형운반선은 왼쪽배전쪽으로 기울더니 천천히 물속에 가라앉았다. 신속히 잠망경을 걷어들이고 될수록 빨리 멀리 달아남으로써 구축함들의 공격을 피해야 했다. 그런데 두번째 적수송선이 가까운 협만에 숨으려는듯 기수를 돌리기 시작하며 배전을 어뢰공격위치에 옮겨놓았다.

두번째 어뢰공격이 뒤따랐다. 이 공격의 결과를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불가능했다. 파시스트구축함들이 공격에 진입했던것이다. 《끄마》는 잠망경을 걷어들이고 기동했다. 적을 속여넘겨 수중폭탄 타격에서 벗어나자는것이였다. 두번째 어뢰도 목표물에 명중했다는 것을 수중음향기구를 통해 알아냈다.

《끄마》의 해병들은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적구축함들은 2시간에 걸쳐 잠수함의 뒤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마침내 수중폭탄 한발이 아주 지척에서 터지고 또 한발은 잠수함에 맞았다. 거대한 폭발이 잠수함을 들었다놓았다. 불이 꺼지고 기계들이 작용을 멈추었다. 그리하여 잠수함은 이끼덮인 바닥에 내려앉았다. 파시스트놈들은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수중폭탄을 15분동

안 계속 발사했다. 그들이 공격한 잠수함이 쥐죽은듯 아무 기척도 보이지 않게 되자 파시스트들은 잠수함이 가라앉은줄 알고 제편으로 떠나갔다.

그러는사이에 자동전기장치가 사고신호불빛을 보내왔다. 예멜리야노브는 수심계를 보았다. 바늘은 28메터를 가리키고있었다. 구획실들에는 물이 들어왔다.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물표면으로 떠올라야 했다. 요행 저녁어스름이 이미 짙어졌고 하늘에는 첫 별들이 반짝이였으며 바다에는 인적이 없었다. 텅빈 해안은 해병들을 손저어 불렀고 깎아지른듯 높은 절벽으로 둘러막힌 자그마한 만은 믿음직한 피신처를 약속해주고있었다. 부상을 당한 《끄마》는 이 자연엄폐물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닻을 내렸다. 승조원들은 1분도 허실함이 없이 고장퇴치에 달라붙었다. 화목한 집단의 질서있는 작업은 성과리에 끝났다. 아침녘에 구획실들에 고였던 물을 말끔히 퍼내고 동체에 난 구멍들을 다 메꾸었다. 동력공급장치도 보수되고 손상당한 기계장치들도 수리하거나 새것으로 교체됐다. 배의 외부상처들만 검열하면 끝날판이였다.

아침해가 빛을 뿌리기 시작하자 예멜리야노브는 웃갑판으로 올라갔다. 함장의 눈앞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다. 갑판은 장갑철판이 아니라 그 무슨 토막토막난 주름철판으로 만들어진듯 했다. 안에서 뗌질한 구멍들이 여기저기에 보이였다. 안테나와 선미의 돛대도 파괴되였다.

(다문 뒤시간이라도 여기 있다가 떠나야겠군.) 예멜리야노브는 생각했다.

(우선 기지와의 무선련결부터 하고 다음에…)

그의 생각은 발동기소리에 불현듯 중단되였다. 만의 입구를 가리우고있는 거무틱틱한 바위틈으로 석대의 적구축함들이 련이어 나타났다. 구축함들은 무서운 속도로 공격해왔다. 지체없이 물속으로 침하함으로써만이 《끄마》는 피할길 없는 파멸에서 구원될수 있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선미에 서있던 예멜리야노브는 해당한 명령을 내렸다. 잠수함은 물밑으로 사라지고 함장만이 물우에 남았다. 곧 잠수함사냥군들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고 잠시후에 귀청을 찢는 폭발소리와 함께 수많은 물기둥이 하늘로 치달아올랐다. 예멜리야노브가 마지막으로 느낀것은 폭발로

일어난 센 파도의 타격이였다.
그는 도이췰란드구축함 갑판우에서 의식이 회복되였다. (포로됐구나!) 하고 속으로 부르짖은 예멜리야노브는 가슴이 터지는듯 아팠다. 그는 파시스트들의 무시무시한 포로신세를 모르지 않았고 군사비밀을 루설하는 장본인으로는 되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전쟁초기부터 살아서는 적에게 항복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결심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 막상 포로가 되고보니 자살할 생각을 걷어치우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파쑈놈들과 투쟁하기로 마음다졌다. 잠수함수리작업을 할 때 군관들은 군복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예멜리야노브도 갑판에 나올 때 작업복을 입고있었다. 게다가 몸에는 아무런 증명서도 지니고있지 않았다. 이런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그는 심문받을 때 자신을 갑판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평범한 해병으로 가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도이췰란드인들에게서 아무런 의혹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몇차례 심문한 후에 그를 노르위크리시지구에 있는 군대포로수용소로 보냈다.
그 수용소에서 그는 약 석달동안 지냈다. 그 기간에 예멜리야노브는 탈주를 시도하는 이전 쏘련군관들로 구성된 강력한 소조를 자기주위에 규합할수 있었다. 이 소조는 히틀러수용소 수인들을 동정하는 지방주민들과 련계를 맺었다. 가장 적극적인 반파쑈투사들의 도움으로 소조는 북부노르웨이의 상당히 상세한 지도와 따뜻한 옷, 필요한 식료품을 장만할수 있었다. 이미 탈주날자까지도 지정되였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을 몇시간 앞두고 예멜리야노브를 체포하여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노르위크리에서 알지 못할 곳으로 실어갔다.
도이췰란드자국내에서도 강점된 나라들의 령토에서도 적극적인 반파쑈투사들은 누구나 피신처를 담보받을수 없었다. 예멜리야노브는 그것을 알고있었으므로 게스타포의 발톱에 걸렸을 때에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각이한 경우에 대처할 자신의 행동방향들을 곰곰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놈들은 나를 변절시키지 못할것이다.) 그는 굳게 결심했다.
비행기는 도중에 두차례 연유를 갈아넣으면서 밤에 베를린교외의 어느 한 군용비행장에 내렸다. 거기서 감옥전용뻐스에 옮겨태운 다

음 다른 수인들과 함께 감옥으로 데리고갔다. 수인의 리력문건작성, 사상개조사업, 수인옷착용과 같은 보통수속이 끝난 후 약 1시간후에 그를 독감방에 감금했다.
다음날 아침에 예심원과의 첫 대면이 있었다. 로어를 아주 잘 아는 도이췰란드해군복을 입은 좌급장교가 그를 심문했다. 조서에 리력을 기입한 다음 예심원은 사건심리는 대상자의 과거생활과 활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허두를 뗀만큼 당신의 경력을 이야기해보시오. 해군대좌님!》 예심원은 권고했다.
《당신은 오해하고있습니다. 난 장교가 아니라 해병입니다.》 예멜리야노브가 진술을 시작했으나 예심원은 그의 말허리를 끊었다.
《아니요, 친애하는 해군대좌님! 당신은 해군병사였던적이 없소. 우리는 당신이 1932년에 공청의 추천으로 레닌그라드의 푸룬제고등해군군사학교에 입학했으며 졸업후에는 중위군사칭호를 받았다는 론박할수 없는 자료를 얻었소. 그러니 포로생활에서도 고급군관으로 있을 영광을 저버리지 말것을 충고하는바요. 군사포로국제협약에 의하여 고급장교들에게 베풀게 되는 권리와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오.》 하고 말하는 예심원의 말투에는 적의감도 없지 않았다.
예멜리야노브는 당황했다. 그는 도이췰란드포로로 된 쏘련군관들의 《권리와 특전》이 어떤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자기 조국을 배반하기를 거절하면 아무때든 죽음의 수용소에 가게 되는 것이다.
(누가 나를 팔았는가? 함께 탈주하기로 한 수용소동지들을 포함하여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군관이라는 말은 입밖에 내지 않았다. 놈들은 어디서 그렇게 구체적인 나에 대한 자료를 얻어냈을가?) 예멜리야노브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당신들은 나를 다른 사람의 이름과 혼돈했습니다. 나는 군관으로 될 영광을 지니지 못했댔습니다.》 그는 들릴락말락하게 중얼거렸다.
예심원은 문건철에서 신문같은것을 꺼내더니 쏘련해병의 사진만이 보이게 종이장으로 가리우고 내보였다.
《알아보겠소?》 그가 물었다.
《예, 그건 내 사진이군요.》 예멜리야노브는 수긍하지 않을수 없

었다.
《물론 이 신문도 본적이 있겠지요?》 예심원이 신문이름을 보이면서 물었다. 예멜리야노브가 머리를 끄덕이자 《그럼 이 기사를 읽어보시오.》 하고 말했다.
예멜리야노브는 호기심에 끌려 읽어내려갔다. 기사에는 잠수함 《끄마》의 마지막 전투행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었다. 기사에는 몇가지 삽화도 실렸는데 그중 하나가 함장의 사진이였다. 그외에 기사에는 함장 예멜리야노브에게 사후 쏘련영웅의 높은 칭호를 수여했다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적들이 알고있는 사실을 부정하는것은 무모한짓이여서 예멜리야노브는 자기가 해군대좌이며 쏘련잠수함 함장이라는것을 인정했다.
예심원은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응당 그래야지요!》 예심원은 큰소리로 찬동을 표시했다. 《우리길을 가로막았던 이 장애물이 이젠 제거되였으니 나머지 문제는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도 합의를 보게 될것같군.》
《당신은 나에게서 뭘 요구하는가요?》 예멜리야노브가 물었다.
《나는 당신에게 많은것을 요구하지 않겠소.》 예심원은 거만하게 예멜리야노브를 쳐다보며 허두를 뗐다.
《우선 자기 잠수함과 그 승조원에 대해 그리고 해병들의 기분상태에 대해 말하시오. 그다음 지도에서 그 잠수함기지를 짚으시오. 다른것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말할수 없는걸 묻는군요. 매 쏘베트군인은 군인선서를 할때 국가 및 군사비밀을 성스럽게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선서를 어길걸 요구하는군요.》
《서두르지 말고 내 말을 마저 들으시오!》 예심원이 말을 가로챘다. 《당신은 볼쉐위크들에게 성실히 복무함으로써 도이췰란드에 헤아릴수 없이 큰 손해를 입혔소.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틀림없이 가장 준엄한 형벌을 받아야 하오.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자기 죄를 경감할 기회를 주자는거요. 당신이 우리와 협력하는데 동의하면 우리는 당신의 과거활동을 추궁하지 않을뿐더러 포로로서 아주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겠소.》
《좋은 생활조건은 군인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정에 따라 보장해야 하

는것이고 군인포로에게 적측에 협력할걸 강박하는것은 그자체가 이 협정을 위반하는것으로 되오.》 예멜리야노브가 선언했다.

《해군대좌, 당신의 그런 완고한 태도가 비싼값을 치르게 되리라는 걸 잊지 마오.》

《당신도 갈소. 포로들을 잘못대하는것은 군사범죄요. 군사범죄에 대해 당신들이 엄한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고 한 동맹국들의 경고를 잊지 말기를 바라오. 그 나라들은 당신들이 전쟁법과 관례를 준수하지 않을수 없게 할 힘과 수단들을 충분히 가지고있소.》

《그건 아직 두고봅시다.》 예심원이 위협조로 씨벌였다. 《동맹국들이 당신들을 비호해나서겠는가 하는건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당신의 입을 열게 할수 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소.》

파시스트들은 예멜리야노브를 거의 한달동안 감옥에 감금했다. 그들은 비인간적인 고문과 유혹적인 꼬임수를 엇갈아가면서 예멜리야노브가 조국을 배반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쏘련영웅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박해자들의 질문에 그는 침묵으로 대답했고 달콤한 꼬임수에는 경멸적인 거절로 대답했다. 드디여 그를 자기 망에 흡수할수 없음을 확인하자 그의 개인료해카드에 《훼르닉크텐》 즉 《소멸할것》이라는 기호를 달아 죽음의 수용소로 보냈다. 마우트하우젠에서는 이런 기호를 단 수인들을 20호동에 집어넣었다.

크쎄노폰또브의 감옥료해카드는 예멜리야노브의것과는 달리 《K》 즉 도이췰란드말로 《쿠겔》(총알)이라고 표식되여있었다. 그러나 이런 표식이 적힌 수인 역시 소멸된다는것을 의미했다.

이렇듯 두사람은 다 파시스트들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은것이다. 이 두사람의 운명의 류사성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크쎄노폰또브 역시 공청의 추천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으로부터 쇄빙선 선장이 되기까지 영광에 찬 길을 걸어왔다.

전쟁이 일어나자 크쎄노폰또브의 쇄빙선은 해군에 소속되였다. 그러나 쇄빙선의 직능은 예전과 변함이 없었다. 까라해의 《대문》에서 아르한겔스크까지 넓은 얼음판으로 선단이 지나갈수 있도록 배길을 내는것이였다. 쇄빙선의 승조원들은 모두 군사칭호를 받았다. 크쎄노폰또브는 해군대좌로 되였다. 쇄빙선은 낡고 속도가 늦어서 전쟁만 아니였다면 정기항행이나 끝난 다음에 폐기시킬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넉대의 대포를 걸어놓고 승조원인 해병들에게는 보

총을, 군관들에게는 권총을 주었다. 그리고 쇄빙선은 얼음을 뚫고 선단의 배길을 내는 일과 있을수 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선단을 호위하는 역할도 해야 했다.

낡은 쇄빙선은 군함으로서의 자기의 첫 항해를 성과리에 끝냈다. 특별히 공을 세운 해병들은 국가표창을 받았다. 자기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데 고무된 전체 승조원들은 역시 성공을 약속하는 다음번 항해를 면밀히 준비했다. 유감이지만 때로 성공은 인간을 기쁘게만 하는것이 아니라 현훈증도 일으키게 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북해운수사업소》의 한 일군에게서도 나타났다. 그는 지방출판물에 글을 쓰면서 쏘련의 상업선단이 북해의 항로로 씨비리에서 백해의 항구로 방위물자들을 지장없이 수송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승리를 앞당기게 한다고 언명했다.

이 신문이 도이췰란드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 그들은 《북해항로로 방위물자들을 지장없이 수송》하는 일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자기네 전투함들중에서 제일 위력한것을 북빙양에 파견했다. 그때 크쎄노폰또브의 쇄빙선은 열일곱대로 무어진 아르한겔스크행 선단이 까라해의 만을 지나갈수 있도록 배길을 마련하고있었다. 저녁에 얼음상태를 정찰하러 나갔던 쇄빙선은 갑자기 도이췰란드군함과 조우하게 되였다. 두배사이의 거리는 겨우 여섯키로메터밖에 안되였다. 바다가 얼음에 덮였다고는 하나 군함이 기동하는데 장애로 될 정도는 아니였다. 도이췰란드군은 몇대의 중포로 일제사격을 들이대여 위협한 다음 쏘련측에 투항하라고 요구했다. 크쎄노폰또브는 정황판단을 정확히 했다. 한 선단은 쇄빙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까라해의 배길에 머물러있고 또 다른 선단은 첫번째 선단을 향하여 떠났으니 임의의 순간에 지평선에 나타날수 있었다. 만일 이것을 도이췰란드군이 안다면 도이췰란드군함은 두개의 선단을 쉽게 해치울수 있을것이다. 도이췰란드군함의 출현을 쏘련사령부에 알릴 시간을 쟁취해야 했다.

크쎄노폰또브는 그것을 해냈다. 도이췰란드함장과 항복조건에 대한 대화를 하자고 절충하면서 짬을 얻어 무선통신으로 아르한겔스크와 딕쏜섬에 적군함이 출현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바렌쯔해협과 까라해에 있는 모든 쏘련선박들에 위험신호를 보냈다.

날이 저물녘이여서 쏘련해병들은 밤이 오면 어둠을 타서 숨어버리려 시도했으나 쇄빙선이 와이가츄섬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적군함은 사격을 개시했다. 쇄빙선도 대포로 대응사격을 했다. 해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력량은 대비도 되지 않았다. 쇄빙선의 76미리포들이 명중사격을 들이댔지만 군함에 별로 손상을 입히지는 못했다. 그럴 때 적군함의 중포는 일제사격으로 쇄빙선을 단번에 명중시켰다. 쇄빙선은 불이 붙고 가라앉기 시작했다. 쏘련해병들은 서둘러 얼음판에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크쎄노폰또브는 중기관총 한문과 대원 열명을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은 부선장이 인솔하여 와이가츄섬으로 후퇴하라고 명령하고 적들이 추격해오는 경우에 자신은 화력으로 그들을 엄호하리라 결심했다.

정황은 선장의 결심을 실행하는데 리롭게 조성되였다. 적군함이 가라앉는 쇄빙선에 다가왔지만 쏘련해병들은 이미 어둠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눈보라는 그들의 발자취를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쇄빙선이 물속으로 아주 가라앉았을 때 도이췰란드군함은 이미 삼백보쯤 앞에 와있었다. 도이췰란드군은 살아남은 쏘련해병들이 전원 얼음우에 내려서 싸우지 않고 포로로 투항하리라 믿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군함에서 내리려 할 때 크쎄노폰또브의 조원들은 보총과 기관총사격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싸움은 십분내지 십오분간 계속되였다. 크쎄노폰또브는 머리에 탄환을 맞고 의식을 잃었다.

도이췰란드함장은 쏘련쇄빙선이 그곳에 무슨 의도없이 나타난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행의 목적과 과업에 대해 캐여물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쏘련해병을 누구든 생포하라고 명령했다. 전투가 끝났을 때 군함의 갑판으로 중상당한 세명의 쏘련해병들을 날라왔다. 그중 두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사망하고 크쎄노폰또브만이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이런 군인포로들의 운명은 명백했다. 그들은 조만간에 파시스트의 수많은 죽음의 수용소의 하나로 끌려가기 마련이였다. 결국 크쎄노폰또브는 마우트하우젠수용소에 감금되였다.…

이와 같이 《뻬치까》놀이는 수인들이 자기들의 체온으로 서로 몸을 덥히게 했을뿐아니라 서로 안면을 익히기 위한 조건도 마련해주었다.

제 7 장

누구라없이 모든 수인들이 마음속깊이 간직하고있는 숙원은 탈주하여 자유의 몸이 되는것이다. 이런 점에서 뚜르하노브도 다른 수인들과 다를바 없었다. 그는 옹근 한주일동안 탈주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빈 공상으로 되지 않게 하자면 자유를 쟁취할 현실적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원칙적문제부터 타산해야 했다.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자면 주위환경부터 면밀히 연구해야 했다. 그는 이 사업부터 착수했다. 높은 돌담과 고압전류가 흐르는 가시철조망, 경각성높은 경비, 면밀히 타산한 호동안의 내부질서, 모든 체계를 더 조이게 짜놓은 기타 행정조치들은 탈주를 불가능한것으로 볼수 있게 했다.

모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고려해본 뚜르하노브는 이런 일에는 혼자가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단합된 힘으로 착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호동에 그러한 집단이 있어서 그에 합세하면 물론 제일 헐하겠지만 그런것이 없을 때에는 조직해야 했다.

뚜르하노브의 개략적인 추산에 의하면 그때 죽음의 수용소에는 주로 이전 군관을 포함한 쏘련공민이 륙백여명 있었다. 미하일 이하노브와 그와 류사한 일부 형사범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인들은 군인포로수용소에서 적극적인 반파쑈지하활동을 전개한 죄과로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온것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공동의 적에 대한 증오심, 자유의 몸이 되려는 지향이 그들을 조직된 집단으로 단합시킬수 있었다.

예멜리야노브와 크쎄노폰또브는 앞으로의 비밀조직에 인입할 적합한 인물로 생각되였다. 가까운 시일내에 뚜르하노브는 그들을 타진하여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리라 마음먹었다. 그러한 목적으로 뚜르하노브는 1월 25일과 26일밤에 그들가까이에서 쉬려고 했으며 감방이 조용해진 취침시간에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다. 그러나 수인들이 채 잠들기도전에 호동장이 인솔한 에쓰에쓰대원들이 호동

으로 달려들었다.

《기상!》 하사관이 역스러운 목소리로 구령을 내렸다. 《빨리!》

에쓰에쓰대원들이 밤늦게 찾아오면 언제나 류혈참극이 벌어졌으므로 수인들은 비록 자기들에게 잘못이 없어도 극도로 긴장했다.

《떠들지 말아!》 호동장이 계속 호통을 쳤다.

《내가 호명하는자들은 호동에서 나가! 56521번, 58913번, 64247번…》

그는 전부 스물다섯명의 번호를 불렀다. 번호를 불리운 수인들은 자기들이 어째서 파시스트놈들에게 요구되는지 깨달은듯 남몰래 동지들과 석별의 눈인사를 나누고 묵묵히 호동에서 나갔다. 에쓰에쓰대원들도 성급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고릴라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쉰목소리로 소리쳤다.

《취침!》

그러나 수인들은 잠들수가 없었다. 잠자려고 눕기는 했으나 귀를 강구고 바깥동정을 살폈다. 2렬종대를 지으라는 구령소리, 많은 사람들의 발구르는 소리, 보총 총탁판으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 피해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인가 로씨야말로 웨쳤다.

《동지들! 우리의 위업을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사형장으로 끌려갈것입니다. 벗들이여, 안녕히!》

《블라쏘브중좌의 목소리예요.》 스떼판이 뚜르하노브에게 바싹 다가붙으며 속삭이였다.

《쏘베트련맹 만세!》 두번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이쑤뽀브대좌의 목소리예요.》 스떼판이 말했다. 《저분은 대좌동지와 통성하고싶어했댔어요. 전 그분께 래일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댔어요.》

《공산주의 만세!》 세번째 사람이 소리쳤다.

《끼릴 츄브첸꼬브예요.》 스떼판이 찍어말했다.

그날밤 당직을 서던 《슈투벤지스트》가 에쓰에쓰대원들이 두려워서였던지 서둘러 창문을 닫았으므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잠간 더 계속되기는 했지만 말은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대렬이 문가로 전진해갔다. 곧 삐걱소리를 내면서 철문이 열렸다가 닫기고 사위가 조용해졌다.

이날밤의 무서운 사건은 20호동력사에 《수감자들의 체포》로 기록되였다. 죽음의 호동안의 수인들이 예견한대로 그날밤 체포된 동지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틀동안 그들의 운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3일째 되는 날에 일반수용소지역에서 담장너머로 누구인가 쪽지를 던져주었다. 쪽지에는 스물다섯명이 모두 《사상개조실》에서 무서운 고문을 받은 후에 산채로 불붙는 화장터아궁이에 던져졌다고 씌여있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뚜르하노브는 직접 수인들의 입을 통해 들었다. 파시스트놈들이 자기들의 범죄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 가까운 시일안에 격리호동을 소멸하고 산 증인들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 이 호동의 수인 전부를 총살하여 화장터에서 태워버리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죽음의 호동에서 비밀리에 입수했다는것이다. 수인들은 이 통보가 진실임을 의심치 않았다.

파시스트놈들은 전선이 서쪽과 동쪽에서 오스트리아로 점점 가까이 접근해온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전선이 가까와오자 그들은 자기네 죽음의 수용소를 후방깊이 이동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반히틀러동맹국 군대들이 사면으로 밀려드는 오늘 그러한 가능성은 있을수 없었다. 그러니 놈들은 필경 마우트하우젠의 수인들을 육체적으로 소멸시키려고 꾀할수 있다. 그들이 우선 죽음의 호동 수인들부터 처리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었다.

니꼴라이 블라쏘브, 알렉싼드르 이쑤뽀브, 끼릴 츄브첸꼬브와 같이 가장 용감하고 정력적인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킬 결심을 하고 참모부를 조직했으며 앞으로 있을 전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전반적인 폭동은 1월 28일～29일밤으로 지정했다. 유감스럽게도 폭동참모부에 변절자가 기여들었다. 결과 폭동이 시작되기 이틀전에 폭동조직자들이 체포되여 희생되였다.

(우리는 여기서 실질적인 교훈을 얻었다.) 뚜르하노브가 생각했다. (반파쑈투쟁을 전개하려면 최대의 경각성을 지녀야 한다. 파시스트놈들에게 폭동계획의 비밀을 밀고하여 스물다섯명의 생명을 소멸케 한 배신자가 틀림없이 우리들속에 남아있을것이다. 그러므로 동지들을 선발하는데서 조심해야 한다.)

뚜르하노브는 《체조》시간에 게사니걸음으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

졌다. 그의 조인원들은 일반수용소로 들어가는 철문에 천천히 접근하고있었다. 소위 장례부대 대원이라고 불리우는 두명의 수인이 에쓰에쓰대원들의 감시하에 방금 시체들을 수레에 싣고 그 끔찍한 짐을 화장터로 날라가야 했다. 그런데 수레에 짐을 지내 실어서인지 아니면 인부들이 약골이여서인지 수레가 아무리 해도 굴러가지 않았다. 아까부터 《체조》하는 수인들을 주의깊게 감시하던 호동장―하사관이 그때 갑자기 뚜르하노브의 번호를 부르고 수레끄는 일을 도우라고 명령했다. 에쓰에쓰대원들이 문을 열자 시체를 실은 수레는 인차 일반수용소지역으로 굴러갔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매번 본의아니게 도와나선 20호동 수인의 비극으로 끝나군했다. 그들이 시체를 화장터로 실어가면 파시스트들은 《인부들》을 죽이거나 산채로 아궁이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예멜리야노브와 크쎄노폰또브는 마음속으로 이런 위험한 일에 동원된 동지에게 영결의 인사를 보냈고 스떼판은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격리호동의 뚜르하노브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있는지 알수 없었으므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조용히 20호동지역을 떠나갔다. 다행히도 화장터까지 가지 않게 되였다. 누군가 그를 소리쳐 불렀다. 머리를 쳐드니 수레에서 세발자국앞에 팔에 직일완장을 낀 낯모를 장교가 서있었다.

《나를 따라오시오!》 장교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뚜르하노브를 쳐다보며 명령했다.

뚜르하노브는 결코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서슴지 않고 장교의 뒤를 따라갔다.

(그 어디로 끌려가든 죽음의 호동보다는 나쁘지 않을테지.) 하고 생각했다.

넓은 공지 여기저기에는 줄무늬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론지 바삐 걸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산보를 나온듯 천천히 걸어다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새 소식을 교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에쓰에쓰대원들이 나타나자 모두 가까이에 있는 호동안으로 숨으려 했다.

(일반수용소가 훨씬 조건이 좋군.) 뚜르하노브는 서글프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생각했다. 그는 여기도 별로 달라진것이 없다는것을

확인했다. 그가 《사상개조실》에서 《가공처리》를 받고 20호동으로 끌려가던 그날처럼 이 광장 한복판의 교수대에는 시체 셋이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있었다. 여전히 타는 냄새가 풍겨왔다. 그것은 화장터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타래쳐오르면서 주변에 살타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였기때문이다. 《사상개조실》건물이 나타났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건물에서는 《물치료공정》을 통과한, 쉽게 말하면 찬물과 끓는물의 고문을 받은 벌거벗은 사람들을 눈판우에 내다던졌다.

에쓰에쓰장교는 뚜르하노브를 《사상개조실》지하실로 끌고들어가더니 한 철문을 열쇠로 열고 그를 빈 감방에 밀어넣었다.

《여기서 기다려! 앉아도 된다.》 그는 세멘트바닥에 든든히 고정시킨 철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뚜르하노브는 앉았다. 그는 이런 정황에서 이전같으면 자기 처지를 걱정하여 적들의 속심을 가늠해보고 놈들의 기도를 간파했을때에는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몸이 너무도 쇠약해져서 앉자마자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가 그런 상태로 얼마나 있었는지 자신도 알지 못했다. 까치울음소리 비슷한 괴상한 소리에 소스라쳐 깨여난 그는 어디서 그런 기분나쁜 소리가 들려오는지 인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반복되자 그는 수용소의 철문들이 여닫길 때 그런 소리가 난다는것을 상기했다. 그것을 상기하고 돌아본 뚜르하노브는 방금 들어서는 게스타포책임자와 녀통역을 알아보았다. 잠에 취한 뚜르하노브를 보자 두사람은 웃었으나 웃음이 각이했다. 임메르만대좌는 비웃었고 처녀는 진심으로 기쁘게 웃었다.

《당신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았겠지만 우린 당신을 기다렸소. 기다리다가 우리들이 당신을 찾기로 결심했소. 별수 없지. 산이 마호메트를 찾지 않으면 마호메트가 산을 찾아간다고들 하지 않소. 안녕하오, 대좌!》임메르만이 여전히 히물히물 웃으며 야유조로 인사했다.

환니는 책임자의 말을 로씨야말로 통역해준 다음 수인에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뚜르하노브도 고개를 끄덕여 답례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과의 허심탄회한 담화에 익숙되여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갑갑증이 나서 못견디겠단말이요.》게스타포책임자는 다시한번 익살을 부리려 했다.《당신 역시 우리의 상봉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라오.》
물론 루돌프 임메르만은 거짓말을 했다. 갑갑증이 아니라 공포심이 그를 여기로 오게 한것이다. 그날밤 남부도이췰란드의 군사대상물들을 파괴하라고 보낸 미국의 《공중요새》 한대가 《실수》하여 《화르벤웨케》련합회사에 속하는 탄공장구내에 중폭탄을 던졌다. 이 폭탄이 큰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공장주인은 대단히 놀랐다.
《이건 틀림없이 톰슨이 한짓이야.》아돌프 임메르만이 동생을 만났을 때 말했다.《쏘련군대좌를 미국정탐의 손에 넘기는걸 더는 꾸물거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거다. 루돌프, 그 사람들을 공연히 노협히지 말아다오. 우리는 그들의 리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안될 인간들이야. 오늘은 그 사람들이 한 직장의 완제품창고 하나를 파괴했지만 다음번에는 뚜르하노브를 제때에 돌려주지 않는 한 그 직장 전부, 아니 공장 전부를 파괴할거다. 제발 우리가 재난을 받지 않게 해다오.》
루돌프자신도 이 문제를 더는 끌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좋아요.》그는 형의 의견에 동의했다.《오늘 그 망할놈의 뚜르하노브와 다시한번 이야기해보겠어요. 격리호동에서 열흘쯤 묵었으니 단단히 정신을 차렸을거요. 이젠 고집을 부리지 않을수 있어요.》
그는 곧 마우트하우젠수용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뚜르하노브를 20호동에서 《사상개조실》 지하실에 데려다 놓도록 지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 그는 예심원실의 하나밖에 없는 책상앞에 편안히 자리를 잡고 그의 곁에는 통역을 앉힌 다음 가방에서 필기도구를 꺼내며 심각한 담화에 림할 태세를 취했다.
《롱담은 그만합시다!》 그가 허두를 뗐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상봉을 잊지 않기를 바라오. 내가 그때 당신에게 나와의 련계를 끊을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호동장을 통해서 곧 게스타포에 알려달라고 제의한걸 기억할거요. 당신은 아직도 우리와 협력할데 대해 협약하기를 거절하오?》
환니는 이 말을 아주 열심히 옮겨주었다. 그때 처녀는 뚜르하노브

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던지며 제 말을 덧붙였다. 《제발 저 사람을 공연히 노엽히지 마세요.》

처녀의 부탁이 뚜르하노브를 당황케 했으나 그의 종전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난 나의 견해를 재검토해볼 근거를 찾지 못하고있소.》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믿어지지 않는군.》 게스타포책임자가 소리쳤다.

《그래 나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길만이 당신을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겠소?》

《어째 깨닫지야 못하겠소. 그러나 배신의 대가로 목숨을 건질 생각은 없소.》

《내가 언제 당신더러 배신자가 되라고 했소!》 게스타포책임자가 분개하는체하면서 물었다. 《당신의 수표는 우리 상부가 당신의 석방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변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합시다.》 뚜르하노브가 말했다. 《그럼 무엇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그런 호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되였는가를 설명해주시오. 톰손씨의 편지쪽지에는 빙자하지 말고. 그건 가짜요.》

게스타포책임자는 상대방의 견해에 타격을 주고싶었으나 승산도 없는 일에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했다.

《좋소. 최근 전선소식과 관련하여 나도 불안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숨기지 않겠소. 온갖 사태에 대처해야 하오. 지금의 적들속에서 자신의 비호자를 찾아야 할것 같소. 그래서 오늘 내가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해주면 후에 당신이 나를 비호하기를 거절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소.》

(불쌍하구만). 뚜르하노브는 비웃으며 생각했다. (사전에 비호자를 구해두겠단말이지. 그러니 내가 양가죽을 쓴 승냥이를 검토한셈이군.)

그러나 그는 때가 될 때까지 자기의 진짜 감정을 감추기로 결심했다. (내가 저자의 손안에 쥐여있는 한 저자는 나를 용서할수도 처형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면 와그네르교수의 비밀실험실에서 준비하고있는 화학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누가 사람들에게 알려줄것인가? 교형리들의 단두대에 목을 내대기보다는 놈들

을 속여넘기고 살아서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전쟁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을수 있지요.》 그는 두리뭉실하게 대꾸했다. 《적의 선행이 물론 상대방에게 서로 구출하자는 감정을 포함하여 대등한 감정을 불러일으킬수도 있지요. 허지만 그 놀음은 량심적인것으로 되여야지요. 그런데 당신은 나의 육체는 구원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신은 죽일거요.》

《그건 무슨 뜻이요?》 게스타포책임자가 활기를 띠고 호응했다.

《당신은 나를 석방하기전에 게스타포에 협조하는데 자원동의한다는 수표를 받아내려 하지요.》 뚜르하노브가 시작했다.

《그렇소.》 임메르만이 그의 말을 중둥무이했다.

《허지만 난 그것이 순전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소. 다시 한번 다짐하지만 그 수표는 증빙문건으로서만 필요한거요. 나를 믿으시오.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소.》

《가령 당신들이 나의 수표를 받은 후에 나를 정말로 죽이지 않는다고 합시다. 물론 그렇게 되리라는 완전한 담보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든죽든 상관없이 당신네 문서고가 쏘베트기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때 나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는지 상상해보셨는가요? 나는 그렇게 되리란걸 추호도 의심치 않소. 만일 내가 그때 살아있다면 나는 반역자로 체포될것이고 또 죽었다면 나의 명예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것이요. 그땐 나의 친어머니도 나를 저주하며 추억할것이요.》

《당신의 수표가 게스타포의 문서고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장담하오. 당신을 스위스국경으로 넘기자마자 그걸 소각하겠소.》 게스타포책임자가 약속했다.

《그렇게 한다고 내가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요?》 뚜르하노브가 물었다. 《쏘련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만큼 유치하지 않지요. 〈파시스트들이 다른 사람들은 수천명이나 죽였는데 어째서 당신만은 석방시켰겠는가. 네가 파시스트들을 비밀리에 협조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때 그들의 의혹을 어떻게 풀어주어야 할가요?》

《근심마오. 만일 모든게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기만하면 그 누구도 쏘베트에 대한 당신의 충실성을 의심치 않을거요.》 게스타포책임자

가 장담했다.

뚜르하노브는 반박하려 했으나 불현듯 새로운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물론 적이 나의 복리를 생각할리는 만무하지만 저자의 계획을 우리의 탈주에 써먹을수는 없을가.)

《좋소. 그럼 당신네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오.》뚜르하노브가 청했다.

《우리는 당신을 그저 석방하려는게 아니요. 탈주사건을 꾸며내려는거요. 당신은 탈주를 혼자서가 아니라 조직적집단을 무어 감행하게 되오. 여기서 5키로메터지점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부유한 지주 호프바우에르가 살고있소. 처음에 당신을 송전선이 건설되는 그의 농장에 데려다주게 되오. 거기서 당신은 무기를 받게 되고 자기 동지들에게 경비를 뚫고 달아나자고 추동하게 되오. 화물차운전사 하나를 선동하여 그의 차를 타고 스위스로 가게 되오. 탈주경로가 당신의 동료들의 의심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 쌍방이 맞불질을 하여 인적희생을 내게 하자는거요. 물론 이러한 희생은 미리 지목된 대상이 당하게 되오. 살아남은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간 후 당신을 견결한 자유투사로 높이 칭송하게 될거요. 쏘련에서는 자유리념에 대한 자기 충성을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써 증명해보인 사람들은 혐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소.》

《매혹적인 계획인데요.》 뚜르하노브는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 《〈음모가담자들〉을 누가 선발하는가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그 과업을 맡기겠는가요?》

《당신이 선발하되 조국으로 귀환한 후에 당신이 상부에 신임을 받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넣으시오. 당신은 맞불질할때 희생될 사람들을 미리 점찍어두어야 하오.》

《점찍을수야 있지요. 허나 탄알이란 눈이 먼것이여서 우리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맞을수 있지요.》

《근심마오. 호위대는 누구는 쏘고 누구는 쏘면 안된다는걸 알게 될거요. 이 모든것에 대해 우리는 시간을 내여 합의를 봅시다. 당신과 내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다면 당신은 격리호동으로 돌아가서 〈공모자들〉선발에 착수할수 있소. 이 일에 얼마만한 시간이 필요할것 같소?》 게스타포책임자가 물었다.

《나는 아직 사람들과 친숙해지지 못했지만 노력만하면 3～4일내

에 끝낼것 같소.》
《그렇게 합시다.》 게스타포책임자가 동의했다. 《극단한 경우에는 우리가 당신을 돕겠소. 우리한텐 모든 수감자들의 구체적인 료해문건이 있으니만큼 각 방면으로 선발할수 있소.》
이렇게 말하고 게스타포책임자는 직일장교에게 수인을 인계하기 위해 그를 찾으러 나갔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기자 환니는 자기의 불안을 감추지 않았다.
《이것보세요. 뚜르하노브, 당신은 게스타포책임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가요?》 처녀가 소곤소곤 물었다.
《어느 점에서말이요?》 뚜르하노브가 속삭이였다.
《당신은 정말 저 사람에게 수표를 해주시려는가요?》
《난 탈주에 동의했을뿐이요.》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처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전 당신이 무기를 놓고 투항하는줄 알았어요.》
이때 게스타포책임자와 직일장교가 문안에 들어섰다.
《나를 따라오시오!》 직일장교가 거만한 눈길로 뚜르하노브의 아래우를 훑어보며 말했다.
마우트하우젠에서 돌아오는 길에 게스타포책임자는 《메르쎄데스》의 운전대에 앉아 파시스트국가의 곡조를 휘파람불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기분이 아주 좋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유쾌하신가요?》 환니가 초조해서 물었다.
《아무렴!》 대좌는 도도하게 머리를 뒤로 제꼈다. 《어려운 전투에서 이긴 장군은 즐거워할 권리가 있소. 이 뚜르하노브와 같은 적수를 설복한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지.》
《미안하지만 친애하는 루돌프, 승리를 경축하기에는 아직 이른것 같아요. 저 방에 우리 둘이 남았을 때 저 사람은 수표를 하지 않겠노라고 나에게 말했어요.》
처녀의 이야기는 게스타포책임자를 격분케 했다.
《그렇다면 자기 귀를 못보듯이 밝은 세상을 못볼테지.》 그는 성이 나서 중얼거렸다.

제 8 장

점심시간이였다. 환니의 부탁으로 루돌프 임메르만은 처녀를 크라메르저택앞에 내려놓고 자신은 계속 차를 몰았다. 언니는 집에 없고 룽게가 그를 맞이했다. 룽게는 처녀가 외투를 벗는것을 거들어주려했으나 손님은 마다했다.

《전 당신에게 중요한걸 알려드릴게 있어요. 정원으로 나가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거예요.》 환니가 청을 했다.

룽게는 재빨리 덧옷을 걸치고 처녀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눈을 쓸어낸 오솔길을 따라 정자에까지 갔다. 그리고 사람이 다가오면 빤히 알아볼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았다.

《제가 오늘 어디 갔었는지 맞춰보세요?》 환니가 물었다.

《알수 없군요.》 룽게가 두팔을 벌렸다. 《차라리 자신이 말하시오.》

《전 게스타포책임자와 마우트하우젠수용소에 갔댔어요.》

룽게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프렸다.

《당신들이 거기서 어떤 만족을 느꼈겠는지 짐작이 됩니다.》룽게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저를 시비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바라기만하면 이런 려행에서도 리득을 얻어낼수 있답니다. 전 거기서 뚜르하노브를 만났어요.》

《그러니 그분이 살아있단말인가요?》 룽게가 기뻐했다.《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호송대가 수용소로 압송하던 도중에 총살한 수감자들속에 있었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는 어떻게 지냅니까?》

《그인 외모가 몹시 변했더군요. 몸은 더 축가고 얼굴색은 흙빛을 띠고있더군요. 그러나 두눈만은 변함없이 적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타번지고있었어요. 저에게 그렇게 생각되였을뿐인지도 모르긴 하지만…》

《아니요. 환니, 당신은 잘못보지 않았습니다. 전쟁 몇해동안 나는

로씨야사람들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우정에서 사심이 없는만큼 적에 대해서도 무자비했습니다. 임메르만은 뚜르하노브의 투지를 결코 꺾을수 없을겁니다.》

《전 그걸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처녀가 말했다. 《유감이지만 그 비타협적인 투지가 그이를 막다른 처지에 몰아넣고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룽게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환니는 게스타포책임자와 뚜르하노브의 대화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

《그것 참 멋있군!》 룽게는 기뻐했다. 《뚜르하노브를 도주시켜서 임메르만이 자기 목적을 추구하게 하십시오. 여기에 위험할게 없을것 같군요. 그자가 정말 뚜르하노브를 놓아주기만 하면 그분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수 있을것입니다.》

《그이가 탈주할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자유로운 몸으로는 될수 없어요.》 처녀가 무겁게 한숨을 쉬였다.

《어째서?》 룽게는 알아듣지 못했다. 《임메르만이 그이를 속이려는건가요?》

《임메르만이 그이를 속이려는지 어쩐지 그건 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뚜르하노브를 놓아주는 경우 게스타포에 협조하겠다는 수표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뚜르하노브는 절대로 그런 수표를 하지 않을거예요. 그이는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처녀가 한숨을 지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뚜르하노브의 벗들이 생각할바가 있군요. 그렇다고 당신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과 의논해보겠습니다. 사실말이지 그 사람들은 보통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도 쳐물리칠수 있습니다.》

제 9 장

볼가강류역과 깝까즈산지대에서 승리적인 전진을 개시한 쏘련군대는 두나이강안과 화폭처럼 아름다운 오스트리아의 알프스지대로 물밀듯이 접근해갔다. 도이췰란드군의 《불패성》에 대한 신화는 산

산이 깨여졌다. 강점된 나라 인민들은 물론 제3제국 괴뢰국의 파쑈앞잡이들도 히틀러의 승리를 믿지 않았다. 침략자들에게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던 촌장들과 시장들, 헌병들과 경찰들 그리고 게스타포의 비밀요원들과 기타 토벌기관협조자들은 안해나 정부들을 데리고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 서쪽으로 정신없이 도망쳤다. 인민들의 정당한 복수를 피해 도이췰란드본토에 숨으려는것이였다. 이자들의 길을 막기 위해 자기 국경가까이에 보충적인 검열초소들을 설치했는데 그중 하나가 룽게가 환니와 만난 후 달려간 《숫병아리》식당곁에 자리잡고있었다. 《무슨 용무로 보호통치구역엘 왔는가요?》 룽게의 증명서를 검열한 헌병이 물었다.

《나같은 전쟁불구자에게 무슨 용무가 있겠습니까?》 룽게가 코웃음을 쳤다. 《난 군대시절의 친구가 청하여 여기로 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요? 도이췰란드인이요, 체스꼬인이요?》 헌병이 물었다.

《나나 당신과 같이 순아리아족이지요. 군대에서 불구가 되여 제대된 후에 여기서 부유한 미망인을 만나 첫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무진장한 돈을 그 녀인이 랑비하도록 도와주고있지요. 나의 충고로 그들부부는 돈을 도이췰란드은행에 저금했지요. 나는 그 녀인이 금붙이와 보석제품들도 은행금고로 옮겨가게 하려고 해요. 귀중품을 보호통치구역에 남겨두기보다는 우리 은행에 보관하는것이 훨씬 믿음성있다고 생각하지요.》

《그거야 물론이지요.》 헌병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대담하게 행동하시오. 성공을 바라오!》

식당안으로 들어간 룽게는 우선 《케자르》부터 찾았다.

《이 고장에 헌병초소가 생겼네.》 그가 속삭이였다. 《비밀아지트를 산림경영소로 옮겼어. 거기로 가는 길이 좋지 않으니 자동차는 여기 남겨두게. 발구로 태워다줄결세.》

《고마우이. 우선 저 〈개〉의 경계심을 없애버려야겠네.》 룽게가 헌병을 가리켰다. 《혐오스러운 인간이야. 내뒤를 추적할 생각을 하지 않겠는지 모르겠소.》

《그자를 식탁에 초청하여 맥주대접이나 하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되네.》

《그자가 초청을 받아들일가?》 룽게가 못미더워했다.

《받아들이지 않구! 맥주 한조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지 않고 내댈 작자야.》

《그럼 접대원에게 맥주 여섯조끼를 가져다놓으라고 하게.》

접대원이 식탁에 맥주를 가져다놓기도전에 헌병은 벌써 두차례나 그옆을 지나갔다. 그러나 룽게는 그를 《보지 못했다.》 1분쯤 지나자 헌병이 또다시 룽게에게 다가왔다. 찰찰 넘어나게 부은 맥주조끼들을 멀리서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응시하던 그는 끝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삐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었다.

《보아하니 당신의 벗은 좀 늦는 모양이군요.》 헌병이 웃으며 씨벌였다.

《그 사람의 안해는 엄격하다나니 집에서는 손님을 반갑게 맞지만 식당에는 자기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데다가 남편도 잘 내보내지 않지요. 나혼자 얼마동안 무료하게 있어야겠군요. 나를 동무해주지 않으시려오?》

《반대없지요. 하긴 이것도 일종의 봉사이니까요.》 헌병이 두손을 비비였다.

《좋은 일을 돕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소.》 룽게가 웃음을 지었다. 《하느님은 타향 멀리에서 고향친구와 만났을 땐 거품이는 맥주를 찰찰 넘게 부어 축하하라고 하셨지요.》

《정말 그런가요?》 헌병이 놀랐다. 룽게는 유쾌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럼 목이나 추깁시다. 허지만 당신은 내가 한고향사람임을 어떻게 알아보았는가요?》

《상부오스트리아사람을 나는 달빛아래에서도 알아보지요. 그들의 외모는 당신처럼 름름하지요. 그리고 얼굴은 동화에 나오는 왕자처럼 잘 생기고 또 그들은 현명하고 말솜씨는 달콤한 꿀같지요. 당신은 총통을 뵈온적이 있는가요?》

《암 그러잖구요!》 그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그이도 우리와 한고향이지요. 우린 정말이지 자기 출신을 자랑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총통을 위하여!》

헌병은 자기 조끼를 단숨에 비웠다.

룽게는 그에게 두번째 조끼를 쥐여주고 다음에는 세번째것을 쥐여주었다. 그때 그에게 접대원이 다가왔다.

《중좌님!》 접대원처녀가 룽게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온 편지입니다. 급사가 방금 가져왔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대답할가요?》

룽게는 편지를 펼쳐들고 급히 읽어내려갔다.
《보다싶이 나의 친구는 직접 여기로 올수 없어 나를 데리러 심부름군을 보냈군요. 당신과 함께 있기가 아무리 유쾌해도 가봐야겠군요. 량해하십시오.》 룽게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원 별 말씀을, 저…》
《에쓰에쓰 중좌입니다.》 룽게가 귀띔했다.
《난 당신이 에쓰에쓰장교라는걸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한때는 장교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불구자이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헌병님!》
이렇게 말한 다음 룽게는 접대원에게 맥주값을 내고는 홀에서 나갔다.
《당신은 저 사람을 아는지 오래오?》 헌병이 접대원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요?》
《임메르만일가에 대해 이야기 들으셨는가요?》 접대원이 반문했다.
《린츠의? 듣다뿐이겠소. 형은 대실업가이고 동생은 게스타포책임자이지, 그들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소.》
《중좌님과 동생 임메르만은 처측으로 친척이 되는것 같아요. 듣지 못하셨어요?》
《음, 그랬댔구만!》 헌병이 말했다. 《난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걸 대번에 알아맞혔소. 아주 점잖고 똑똑하고 출세하겠는데. 협잡군이…》
《식탁을 거둘가요?》 접대원이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빈 조끼들은 치우고 맥주가 있는건 놔두오. 게스타포책임자의 동서될 사람을 위해 마시겠소.》

제 10 장

무거운 회색구름이 숲우에 낮게 드리워있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자 숲은 활기를 띠고 설레였다. 그러자 키높은 나무들에서는 눈사태가 쏟아져내려 아직 든든치 못한 어린 소나무의 우듬지들을 사정없이 꺾어 땅우에 드리우게 했다.

발구의 미끄럼대밑에서 눈이 빠그극거리는 단조로운 소리를 들으며 룽게는 자기도 모르게 회상에 잠기였다. 멀지 않아 그는 만 서른살이 될것이다. 자기 동년배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유년시절에는 조국을 위한 훌륭한 일을 하여 자기 이름을 빛내이리라 꿈꾸었다. 걸음마다 그들을 위훈에로 불렀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오스트리아는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재능있고 근면한 인민에 의해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적문화가 개화한 아름다운 나라이다. 여러 세기가 흘러가는 동안에 오스트리아는 중유럽인민들의 행복과 번영의 원천지로 되였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십년동안에 우리는 운명의 굴곡을 겪게 되였다. 한때는 위력했던 제국이 형식상으로만 독립국가인 하찮은 나라로 전락되고말았다. 오스트리아는 량쪽에서 밀려오는 불길에 휩싸여 몸부림치고있다. 북쪽에서는 나치스도이췰란드가, 남쪽에서는 파시스트이딸리아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있다. 우리가 구원될 길은 청년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있다. …》

그때 룽게는 이러한 장광설을 믿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했다. 수천의 오스트리아청년들이 그렇게 입대했으나 돌프스와 슈스니그(오스트리아수상들의 이름—역주)들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렸다. 결과 도이췰란드파시스트들은 총 한방 쏘지 않고 이 나라를 점령했다. 오스트리아청년들의 수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뽈스까와 프랑스,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의 청년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파시스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일떠섰을 때 오스트리아의 젊은이들은 히틀러의 기치밑에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때는 조국의 명예를 위한 성업에 나서서 이름을 빛내여보자던 룽게와 수천의 오스트리아청년들의 희망은 이렇게 깨여졌다. 진실한 벗과 원쑤를 제때에 가려보지 못한 그들은 라만슈에서 볼가까지 그리고 리비아의 사막으로부터 노르웨이산줄기까지의 낯선 이국땅에 자기들의 시체를 묻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린 그래도 운수가 좋은셈이지.) 룽게는 중얼거렸다. (로씨야사람들이 나의 원쑤를 갚아주었거든. 우리 오스트리아인민들의 원쑤를 갚아줄 때도 오겠지. …)

《싯!》 불의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르차크가 아니요?》

《그렇소.》 발구를 끌고온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에게 새 손님을 데려왔소. 〈케자르〉씨가 보냈다오.》

숲속에서 털외투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룽게동지!》 그가 손님에게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무사히 오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스몰레크동지, 저녁이 되는것도 몰랐거든요. 우리 동무들이 여기 있는가요?》 룽게가 내여민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이제 곧 올겁니다. 집으로 들어갑시다. 몸이 얼었겠는데요.》
훈훈하게 불을 땐 산림지기의 집안에서 또 두명의 빨찌산이 그들을 맞이했다. 룽게는 기억력이 좋았으므로 넓다란 방안의 희미한 등잔불밑에서도 그 사람들속에서 배신자 쁠라호뜨까를 적발하는 작전에 참가했던 빨찌산들을 대번에 알아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동지들!》 룽게가 유쾌하게 웃으며 소리질렀다. 《당신들이 오늘은 나를 심문하려 들지 않을테지요.》
《룽게동지,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린 그때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체포하고 총살하는 연극은 쁠라호뜨까에 대한 론박할수 없는 증거를 쥐기 위해 쏘꼴로브의 부탁으로 우리가 꾸민것이였습니다. 사실 그때 연극이 멋지게 됐지요?》 그때 룽게를 총살할 임무를 받고 도이췰란드헌병의 역을 논 빨찌산이 자랑스럽게 회상했다.
《그래요. 우린 역을 멋지게 놀았습니다. 하여간 쁠라호뜨까는 너무도 어리둥절해서 아무런 강박도 받지 않았는데 그렇듯 상세하게 자기 배신의 래력을 피력했지요. 사형장으로 끌고가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산림지기 스몰레크가 말했다.
《사실 유쾌할거야 못되지요.》 룽게가 한숨을 쉬였다. 《나의 경험으로 보아 남이 아니라 자기 사람이 맞대고 쏠 때가 제일 노엽지요. 나의 머리에 처음으로 구멍을 낸것은 그때 내가 부관으로 복무하던 에쓰에쓰중장 헬무트 크라메르였습니다.》
《흥미있군요. 어떻게 그렇게 되였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빨찌산대원들이 졸라댔다.
《우선 쏘꼴로브를 데리러 사람을 보내줄수 없을가요?》 룽게가 부탁했다.
《당신이 도착한데 대해서는 이미 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십분쯤 지나면 여기 올것입니다.》 대장이 장담했다.
《그럼 이야기합시다.》 룽게는 빨찌산들에게 자기의 이전 상관의 비

렬한 행동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이야기했다.
《히틀러의 〈고위급인물〉이란게 그따위들이야!》스몰레크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쳤다. 《그러고도 입으로는 도이칠란드인민의 문명과 높은 문화를 구원한다고 떠들어?》
이때 마당에서 개가 큰소리로 짖어댔다. 어깨에 털외투를 걸친 스몰레크가 바삐 방을 나갔다가 인차 쏘꼴로브와 끄미싸로브와 함께 돌아왔다.
《보기만해도 중대한 소식을 가지고 온게 알리는군.》 룽게의 손을 정답게 잡으며 별동대 대장이 말했다. 《그가 어떻게 됐소?》
《살아있습니다.》 룽게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마우트하우젠에 있습니다. 그를 소위 격리호동, 간단히 말하면 죽음의 호동에 감금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오.》 별동대장 쏘꼴로브가 얼굴을 찡그렸다. 《거기서는 아직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던데…》
침묵이 흘렀다. 모두 종말이 다가왔다는것과 한때는 그들이 그렇듯 기세좋게 착수했던 일이 비극적으로 끝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망하지 마시오.》 정치부대장이 말했다. 《우리가 참을성과 지혜를 발동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한다면 능히 우리 앞길을 가로막은 모든 난관을 극복할수 있을거요.》
《나의 생각도 그렇소.》 별동대장도 그의 의견을 지지했다. 《룽게동무의 이야기를 들읍시다. 최근 사건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을 들읍시다.》
룽게는 체스꼬동무들이 있는데서 구체적인 보고를 시작할것인지 아니면 별동대장더러 단 둘이서 이야기하자고 부탁할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룽게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갑자기 개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당에 무장한 빨찌산이 나타났다.
《스몰레크씨!》 그는 주인에게 말했다. 《우리 잠복초에서 수상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부대장이 당신을 제재소합숙으로 와달랍니다.》
산림지기 스몰레크가 죄송스러운듯 쏘꼴로브를 쳐다보았다.
《미안합니다만 손님들만 남겨놓고 가야겠군요.》그는 팔을 벌리며

말했다. 《동지들, 밖에 보초를 세우십시오!》 빨찌산대원들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념려마십시오. 심심하진 않을테니까요.》 쏘꼴로브가 대꾸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우리도 합숙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뚜르하노브의 거처에 대한 마지막 통보를 어디서 입수했소?》 빨찌산들이 다 나가고 별동대원들만이 남았을 때 꼬미싸로브가 물었다.

룽게는 환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행동은 별동대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지 않을수 없었다.

《동무는 이 처녀가 무엇때문에 게스타포를 반대하여 나서게 되였다고 생각하시오?》 쏘꼴로브가 물었다.

《처녀의 말에 의하면 게스타포책임자가 뚜르하노브를 지내 가혹하게 대한것이 원인이랍니다. 그리고 반롱담, 반진담으로 대좌에 대한 자기 사랑을 몇차례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랑만적인 기분을 가진 처녀에게서 게스타포교형리들에 대한 혐오감과 반파쑈투사들에 대한 공감이 일어난것은 충분히 타당할것 같습니다.》 룽게가 대답했다.

《리론적으로는 충분히 그럴수 있소.》 꼬미싸로브가 생각에 잠겨 입을 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처녀에 대해 최대의 경각성을 높여야 하오.》

《난 처녀의 진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룽게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처녀가 게스타포책임자의 임무를 받고 우리에게 온것이 아니고 자기 심장의 호소대로 행동한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지하공작의 초보적인 숙련도 없는 처녀로서는 임의의 시각에 자기스스로 실수를 할수 있소. 게스타포에서 자기들의 일반적인 심문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처녀에게 우리를 불지 않을만한 강의성과 의지력이 있을가요?》 정치부대장이 물었다.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룽게가 인정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제에 특별히 위험할것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 아는것만을 불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니는 당신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무에 대해서도?》 정치부대장이 픽 웃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처녀는 내가 뚜르하노

브를 석방하도록 도울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인지, 실지로 존재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한 조성된 정세하에서 처녀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뚜르하노브를 석방시킬수 없습니다.》

룽게는 환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글자 하나 빼여놓지 않고 거의 그대로 전달했다.

《동무는 날 설복했소.》 꼬미싸로브가 말했다.

《인정하기는 가슴아프나 어쩌는 도리가 없으니 그 부르죠아가정출신의 처녀의 도움을 리용하는수밖에 없소.》

쏘꼴로브는 전투가방에서 지형도를 꺼내여 책상우에 펼쳐놓았다.

《이게 마우트하우젠철도역이고 여기가 지주 호프바우에르의 저택이요. 수용소는 여기에 표기되여있지 않으나 여기 어딘가 이 신작로 맞은편에 있을거요.》 푸른 연필로 지적한 장소들에 줄을 그으며 별동대장이 말했다.

《죽음의 수용소는 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룽게가 짚었다.

지적한 곳에 쏘꼴로브는 굴뚝이 달린 제형을 그려놓고 그안에는 검은 색갈로 사람의 두개골과 그 아래에 뼈 두개를 엇걸어 그려넣었다.

《이게 죽음의 수용소 표식이라고 합시다.》 그가 말했다.

《지주의 장원에서 2키로메터 가면 숲이 있고 그 숲을 지나 시내물이 흐릅니다. 만일 임메르만이 자기의 약속을 지킨다면 뚜르하노브와 그의 〈공모자들〉은 호프바우에르의 령지에 오게 될것이고 우리는 이 숲속에서 탈주자들을 만나게 될것입니다. 허지만 우리들중의 누구든 이 지형을 직접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전쟁전에 크라메르의 위임을 받고 두번 호프바우에르에게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잘 압니다. 나에게 그 지형관찰을 맡겨주십시오.》 룽게가 청원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일을 〈푸른두나이〉의 동지들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뚜르하노브일행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데려오게 합시다. 동무에게는 보다 복잡한 과업이 부과될것입니다. 동무는 환니의 행동을 지도하고 게스타포책임자의 행동을 감시하십시오. 반대없습니까?》 별동대 대장이 물었다.

《반대가 어떻게 있을수 있겠습니까.》 룽게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대장동지는 한가지 일을 놓쳤습니다.》

《무엇인가요?》 쏘꼴로브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뚜르하노브는 틀림없이 수표하기를 거절할것입니다. 헌데 임메르만은 그 수표가 없이는 그를 격리호동에서 내놓지 않을겁니다.》 룽게가 상기시켰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부대장은 어떻게 생각하오?》 쏘꼴로브가 호기심을 숨기지 않고 끄미싸로브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는 룽게가 환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전달하기 이전에 이미 혼자서 결심을 내렸었다.

《쏘련군대 군인들은 사령부의 허가를 받고서야 그런 수표를 할수 있소. 바르쑤끄브장령에게 문의합시다. 승인할수도 있을테니까.》 정치부대장이 의견을 내놓았다.

《빨찌산운동사령부에서 무전을 받자면 빠른 경우에 옹근 하루가 걸리오. 룽게동무가 래일저녁까지 여기에 묵고있을수 있겠소?》 쏘꼴로브가 물었다.

《아니요, 안됩니다. 내가 없어지면 집에서 걱정할수 있고 〈숫병아리〉의 헌병이 관심을 돌릴수 있습니다.》 룽게가 반대했다.

《동무생각이 옳소.》 별동대장이 그 말에 동의했다.

《공연히 남의 주목을 끌게 하지는 맙시다. 사업의 리익을 위해 우리자신이 뚜르하노브에게 수표하라고 명령합시다.》

《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을가요?》 정치부대장이 의혹을 표시했다. 《게스타포와 련계를 가지는것은 언제나 조국앞에 중죄를 짓는것으로 간주되여왔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범죄적인 련계인것만은 사실이요. 그러나 그 수표가 적을 기만할 목적으로 하며 우리 나라 리익에 극히 부합되는것이라면 그건 현 조건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대적투쟁수단으로 또 군사책략으로 볼수 있소.》

끄미싸로브는 마음속으로 그런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쏘꼴로브는 빨찌산부대에서 서신거래할 때 쓰던, 뚜르하노브도 아는 수자암호로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는 별동대지휘부의 명의로 임메르만이 요구하는 조건에 수표할것을 승인했으며 또한 수용소부근 지형략도를 그렸다. 그 략도에는 호

프바우에르의 장원이 기입되였고 뚜르하노브가 탈출한 후에 별동대원들과 만나야 할 시내물이 흐르는 숲의 접근로가 표식되였다.

《환니가 임메르만의 눈을 속여 이 쪽지를 뚜르하노브에게 몰래 넘겨주면 정말 좋겠소.》 쏘꼴로브가 말하며 편지를 룽게에게 넘겨주었다.

《환니는 해낼겁니다. 난 성공을 확신합니다.》 룽게가 확답했다.

《〈푸른두나이〉동지들에게 나의 계획을 알려주시오. 헤르베르트 그로쓰에게 탈출한 뚜르하노브일행을 숨기는 작전을 면밀히 구상하여 실현하라고 이르시오. 쪽지련락은 이전 장소로 합시다. 우리 련락원이 하루 세번 갈것입니다.》 쏘꼴로브가 헤여지면서 말했다.

제 11 장

루돌프 임메르만은 최근 며칠동안 확실히 마음의 안정을 잃고있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는 더 자주 뚜르하노브에 대해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고 초조해했다.

(그자가 도대체 뭐길래 사회의 정수분자인 에쓰에쓰대좌가 끊임없이 그자를 생각하게 한단말인가?) 그는 분개했다. (그자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그자의 보호자인 톰슨이나 바루흐도 무시해버리는것이 더 좋지 않을가? 물론 난 수표를 안받아도 그자를 스위스로 넘겨줄수 있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로씨야사람을 간첩으로 전락시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될것이다. 톰슨씨가 게스타포에 협력하겠다는 서면담보가 없이 그를 받아들이겠는지?…)

탈주계획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마우트하우젠으로 마지막 려행을 떠나기전에 루돌프는 몹시 흥분했다. 이전에 그는 성공을 확신했었다.

(오늘은 동의하지 않지만 래일은 흰기를 들고 나올테지.) 그때 그는 생각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강압을 적용하자.)

그러나 위협도 고문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만일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뚜르하노브와의 담판을 아예 단념하고 볼쉐위크와의 싸

움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거나 혹은 바루흐와도 톰슨과도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두 길중의 한 길을 택해야 한다. 후자를 택하면 틀림없이 도덕물질적으로 보다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보다 적은 손실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형과 협의를 해야 했다. 형은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에는 자기를 놀려대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귀띔해줄것이다.

동생 임메르만은 무슨 암호문인지 푸느라고 열중해있는 형을 서재에서 만났다. 형의 모습은 명랑해보이지 않았다. 눈은 부자연스럽게 쪼프려져있었고 오른쪽 볼은 련속 경련을 일으켰으며 두손은 가늘게 떨고있었다.

(형이 맥이 빠졌어.) 루돌프는 깨고소해했다. (자신을 하느님도 악마도 무서워하지 않는 실업계의 에르클레쓰(고대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영웅, 힘장사)나 되는듯이 으시대며 나를 걸음마다 비웃었지. 아니, 이보시오, 에르클레쓰의 시절은 자취를 감추었구려.)

자기의 자주성을 강조하려고 그는 실무적인 담화를 롱담으로부터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

《형, 왜 그리 처량하오? 붉은 고양이가 또다시 발톱을 드러내고있는가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아니다, 동생, 고양이보다 더 무서운 짐승들도 있다. 그놈들은 발톱이 아니라 날카로운 송곳이를 드러내지, 자, 봐라. 얼마나 추악하냐!》

이렇게 말하며 형은 동생에게 암호문을 보여주었다. 동생은 두차례 반복하여 읽었으나 도무지 그 뜻을 해득할수 없었다.

《종잡을수 없는 암호들뿐이군요.》 동생은 얼굴을 찡그렸다. 《베르꾸트(독수리의 일종)란 뭔가요? 베르꾸트가 이번주에도 오지 않으면 사냥을 파탄시키겠다?》

《알아차리지 못하겠느냐? 베르꾸트란 너의 그 뚜르하노브의 별호이고 사냥이란 련합회사 〈화르벤웨케〉와 〈케미를 코포레이슌〉이 합동할데 대한 우리의 합의사항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최후통첩을 하는거다. 네가 뚜르하노브를 스위스로 즉시에 넘겨주지 않으면 톰슨씨가 놀음에서 탈퇴하겠단다.》 형이 설명해주었다.

《협박, 협박, 또 협박이군요. 때때로 나에게는 뚜르하노브가 그들에게 필요한것은 간첩으로 채용키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굴레

를 씌우기 위한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쏘련대좌를 우리 손에서 넘겨받음으로써 그것이 폭로될가 두려워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하자는거지요.》

《축하한다! 넌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것만 하구나.》 형이 비웃었다. 《이봐, 네자신이 그걸 생각해냈느냐, 아니면 누가 귀띔하더냐?》

《비웃지 말아요!》 동생이 성을 냈다. 《문제는 심각해요. 베를린에서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쳐요.》

《넌 목을 매달고 난 파산시키겠지.》 형이 대답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자면 우리는 혀바닥을 잘 간수해야 해. 그밖에 없어.》

《그밖에 없다구요? 바루흐와 톰슨은 어떻거구요. 그들도 혀바닥을 잘 간수해두려고 하겠나요?》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할 때까지는 간수해두려고 할게다.》

《그래, 그들이 오래 우리를 필요로 할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도이췰란드가 전쟁에서 지면 우리를 쓰레기통에 내던지려들지 않을것 같아요?》

《내던지려들지 않을게다. 그들에겐 도이췰란드의 군사 및 공업잠재력이 필요할터인데 우리없이 그들끼리는 결코 그 잠재력을 다루어내지 못할터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도이췰란드실업계인사들을 자기편으로 끌지 못하면 도이췰란드국민이 볼쉐위크를 따라가게 될게다. 그렇게 되면 바루흐들이나 톰슨들이 우리한테서뿐아니라 자기네한테서도 자신을 잃게 될게다. 보는바와 같이 바루흐, 톰슨, 임메르만들은 한 동아줄에 묶이운셈이다. 그중 하나가 망하면 불피코 나머지 다른것들도 망하게 된다. 그래서 너는 우리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오늘중으로 톰슨씨의 모든 요구를 수행해라. 래일은 그자신이 우리의 요구를 리행하게말이다.》

한동안 루돌프는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었다. 자기의 자주성을 유린당하고싶지 않은 생각인들 오죽했으랴. 그러나 형의 말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혜쯤은 가지고있었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내가 형을 돕겠어요. 래일 톰슨씨는 뚜르하노브를 넘겨받게 될거요.》

그렇게 약속할 때 루돌프는 그 수행을 확신하고있었다. 그러나 형의 서재를 나서자마자 또다시 의혹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그래

서 그가 와그네르의 집에 나타났을 때에는 도도하고 교만하기까지 하던 그 기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근심이 어린 모습으로 하여 하인까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

《프로일렌 환니가 집에 있소?》 게스타포책임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있습니다.》 하인이 머리를 숙이고 대답했다. 《방금 자동차를 대기시키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소. 환니는 나와 함께 가게 되오. 그렇게 여쭈시오.》

루돌프는 객실로 들어갔다. 소탁자우에 새 아침신문들이 놓여있었다. 그는 그중의 하나를 펼쳐들었다. 흔히 전선형편에 대한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발표하는 첫면은 그에게 흥미가 없었다. 그것을 라지오로 들었던것이다. 제2면에는 《상등병 월프의 공훈》이란 표제하에 동부전선의 보도기사가 눈에 띄였다. (흥미있는데!) 에쓰에쓰대좌가 생각했다. (이 두발가진 승냥이가 무슨 공훈을 세울수 있단말인가.)

종군기자는 《이름을 떨친》 상등병의 공훈을 통보하고있었다. 그 상등병은 정찰에서 돌아오다가 갑자기 산속에서 한개 소대의 빨갱이들과 맞다들었다. 《자기보신의 본능이 그에게 숲속에 몸을 숨기라고 귀띔했다. 그는 로씨야인들을 자기옆으로 통과시켰다.》 기자는 이렇게 썼다. 《그러나 월프는 도이췰란드무기의 위력을 시위할 기회를 놓치는 그런 병사는 아니였다. 입으로는 총통의 이름을 부르며 손에는 자동총을 틀어쥔채 단독으로 적 소대를 공격하여 몽땅 소멸했다. 전투결과는 사망자 열다섯, 중상자 일곱, 포로 열명이였다. …》

루돌프는 혐오감을 느끼고 신문을 탁자에 내던졌다. (너절한 매문가들!) 그는 마음속으로 욕을 했다. (자꾸 쓰기는 하는데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거든. 그자들때문에 우리 출판물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독자들의 신임을 잃고있지. 에익, 나한테 권한만 있다면 난 기자놈들에게 펜을 맡기기전에 총을 들려주어 편집부에서 곧장 로씨야인들을 반대하는 공격전에 내몰겠다. 그렇게 되면 속여도 인간답게 속이는 법이나마 배우게 될테지.)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루돌프!》 환니의 경쾌한 목소리가 은방울을 굴리듯 울렸다. 《아무리 덤벼도 몸치장을 제 시간에 해낼수가 없군요. 이 옷단장이 나에게 어울려요?》

이렇게 말하며 처녀는 그 자리에서 한바퀴 빙글 돌았다. 하르르한 장미빛명주천으로 지은 새옷의 아래단이 바람을 안고 부풀어올랐다.

《참 보기 좋소. 그러나 당신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잊은것 같소.》 루돌프는 볼부은 소리를 했다.

《아니요, 전 잊지 않았어요. 우린 마우트하우젠으로 가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소. 허지만 당신의 아름다운 옷단장으로 누굴 황홀케 하려는건지 난 모르겠소. 굶주리고 매를 맞아 거의 숨져가는 그 뚜르하노브때문은 아니겠지?》

《당신이 알아맞혔어요. 그건 다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이예요.》 환니가 교태를 부리며 입맞춰달라고 볼을 내대고 깔깔거렸다. 《잊지 마세요. 성공은 의심할바 없어요.》

《롱담을 그만두오!》 루돌프가 성을 냈다. 《그 악당을 생각만해도 고통스러운데 당신까지 공연히 변덕을 부리는군. 장교제복으로 갈아입고 빨리 떠납시다.》

《마음대로 해요.》 처녀가 뾰로통했다. 《전 진실로 당신을 도와 그에게서 필요한 수표를 받아내려고 했댔어요. 에쓰에쓰대좌님, 제가 없이 당신은 결코 그 수표를 받아내지 못하리란걸 알아두세요.》 처녀가 공식적인 어조로 덧붙였다.

《어리석은 소릴 그만하오.》 게스타포책임자가 처녀를 엄하게 노려보았다. 《그래, 게스타포책임자가 못하는걸 그의 통역이 해낸다는게 있을법한 일이요?》

《그럼요, 통역이 처녀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지요. 력사에는 남자들이 해낼수 없는 중대한 일을 녀자들이 빠른 시간내에 해낸 경우가 한두번만이 아니지요. 실례를 들가요?》

《어디 말해보오.》 루돌프가 관대히 승낙했다.

《좋아요.》 환니의 눈동자가 빛을 뿌렸다. 《누가 흉노족의 로마침습을 미연에 방지시켰는지 아세요? 흉노족의 백전백승의 두령 앗틸라를 죽인게 힐데군다라는 녀자가 아니였어요? 또 샤를로따 코르데

도 있지요. 마라트로부터 프랑스반혁명을 구원한게 그 녀자가 아니였어요? 영국인들을 오를레안에서 수치스럽게 쫓아낸 쟌다크에 대해서도 말할수 있어요.》

그 이름들을 들은 루돌프는 갑자기 심각해졌다.

(녀자라는 물건을 누가 안담?) 그가 생각했다. (때때로 녀자들은 남자들이 두손 들고 나앉는 그런 일을 정말 해내거든. 저 연약한 창조물이 정말 나의 불쾌한 수고를 덜어줄수도 있지 않을가.)

《앗틸라가 정말 힐데군다에게 죽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소. (력사에 기록되진 않았으니까) 허지만 샤를로따와 쟌다크는 정말 명성을 떨쳤지. 사랑하는 환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력사의 한페지에 오르려고 하는지 말해보오. 그걸 위해 난 무엇을 해야 하오?》

《첫째로, 당신은 저와 뚜르하노브를 단둘이 남아있게 해야 해요. 제가 그와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루돌프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무슨 이야긴 무슨 이야기겠어요? 남녀가 단둘이 남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 모르세요? 사랑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은 뚜르하노브가 저를 반한 눈길로 쳐다본다고 몇차례 이야기한것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전 그 사람을 검토해보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지요. 처음에 전 사랑에 빠진 머저리처녀역을 놀겠어요. 그가 자유로운 몸이 되자마자 전 그의 안해가 되겠다고 맹세하지요. 사랑을 위해, 우리들 두사람을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수표를 해주라고 애걸하겠어요. 감방에서도 사랑에 빠진 남자들은 자기 사랑의 대상을 결코 거절하지 않을거예요. 두고보세요, 뚜르하노브는 오늘 꼭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거예요.》 환니가 장담했다.

《제발 그래주었으면!》 루돌프는 그렇게 되기를 바랐으나 곧 의문이 생겼다. 《당신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게 아니요? 당신은 아직 볼쉐위크들을 잘 모르는군. 그들을 속여넘기자면 적어도 이마가 일곱뼘은 돼야 하오. 그런데 당신의 이마는 한뼘도 안되겠소. 당신이 그자를 손아귀에 쥐고 놀수 있겠는지 잘 생각해보오.》

《걱정말아요. 믿으세요. 우리 현대녀성들은 인간세상의 려명기에

아담을 속여넘긴 선조 이브보다 못지 않아요.》
이러한 비교는 루돌프를 흥겹게 했다.
《좋소!》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당신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주오.》

제 12 장

시체를 나르는 장례작업조를 도와주라는 구실로 뚜르하노브를 20호동의 비좁은 마당에서 또다시 불러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동문밖에서 호동장이 직접 기다리고있었다. 거만하고 잔인한 그는 언제나 수인들에게 공포감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뚜르하노브를 보자 오래전에 아는 사람에게처럼 미소를 보내고 손짓으로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청했다. 행로는 이전과 같았다. 그들은 앞광장을 지나서 수용소 정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정문까지 채 가지 않고 왼쪽으로 돌아서더니 록색칠을 한 《사상개조실》이 자리잡은 건물로 들어갔다. 전번에는 이 건물의 특별실에서 그가 루돌프 임메르만을 한시간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이번에는 게스타포책임자자신이 죄수인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수고했소.》 호동장이 뚜르하노브를 넘겨주었을 때 게스타포책임자가 말했다. 《직일실에서 기다리시오. 한시간이상 지체시키지 않겠소.》
하사관은 딱 소리나게 발꿈치를 붙이며 경례를 붙이더니 문뒤로 사라지고 임메르만이 뚜르하노브에게 돌아섰다.
《앉으시오!》 그가 의자를 가리키며 권했다. 《곧 사업에 착수합시다. 환니, 통역하시오!》
불의에 문두드리는 소리에 시작한 말을 채 끝맺지 못했다.
《제길할, 이건 또 뭐야!》 그는 격분한체하며 욕했다. 《좋소. 들어오시오!》
부직일관이 방으로 들어왔다.
《대좌님!》 그가 게스타포책임자에게 말했다.

《수용소 소장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가겠소. 당신들은 여기 앉아있소. 인차 돌아오겠소.》임메르만은 이렇게 말했으나 잠간 생각하다가 통역원을 보면서 덧붙였다. 《보초를 부를가요?》
《보초가 없어도 돼요.》 환니가 대답했다. 《필요하면 부르겠어요.》
게스타포책임자는 무엇인가 더 말하려다가 고쳐 생각하고 가방을 들더니 서둘러 부직일관을 따라나갔다. 잠간 기다렸다가 환니는 누가 엿듣지 않을가 해서 복도를 내다보았다. 거기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
(아직은 약속을 지키는구나.) 처녀는 생각하며 문을 꽉 닫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뚜르하노브는 호기심을 가지고 처녀를 지켜보았다.
《저와 당신의 벗들의 진심으로 되는 인사를 보냅니다.》처녀가 대좌에게 다가가면서 속삭이였다.
《어느 벗들말인가요?》 뚜르하노브는 신경을 도사렸다.
대답대신 환니는 돌아서더니 속내의속에서 네겹으로 접은 글쪽지를 꺼내여 그걸 펼쳐서 뚜르하노브에게 내밀었다.
《읽어보면 아실거예요.…》
글쪽지는 뚜르하노브의 모국어로, 그가 잘 아는 필체로 씌여있었다. 약속된 수자암호만 아니였던들 그는 편지의 진실성여부를 의심했을것이다.
《이 사람이 어디 있소?》 대좌가 입속말로 물었다.
《누구말이예요?》 환니는 미처 알아듣지 못했다.
《편지를 쓴 사람말이요.》
《전 몰라요. 당신에게 그걸 보이고 편지에 씌여진대로 하는데 당신이 동의하는지 알아보라고 부탁받았을뿐이예요.》
《당신네 책임자도 알고있는가요?》
《아니요. 그는 전번에 요구한 계획대로 당신이 하리라고 생각하고있어요. 그리고 전 당신이 그 계획을 접수하도록 설복하게 되여있어요.》
《내가 수표를 하도록 설복한단말이지요?》
《네, 그래요. 당신이 편지내용에 동의하시면 저는 당신에게 당신

의 벗들의 계획의 일부 보충적인 세부들을 알려줄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당신은 저자가 약속한 조건들을 준수하리라고 확신하는가요?》
《다는 지키지 않을거예요. 그렇다고 꼭 다 지킬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호프바우에르의 령지까지만 가닿으면 돼요. 거기서부터 당신은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뚜르하노브는 생각에 잠겼다. 몇초어간에 그는 머지 않아 자기가 실지로 겪어야 할 사실들을 곱씹어 속셈해보았다.
《난 편지에 밝힌 동지들의 제의를 받아들이겠소.》 그는 들릴락말락하게 말했다.
《그럼 지형도를 보세요. 이게 당신이 있는 수용소이고 이게 호프바우에르의 령지입니다. 맞불질을 하고 호송대를 죽인 후에 당신들은 화물차에 실려 스위스국경까지 갈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몇키로 달리다가 운전사와 통역을 묶어서 차에서 내던진 다음 이 산림으로 되돌아오십시오.》 처녀는 지형도를 짚었다. 《거기엔 당신의 동지들이 와있을것입니다. 산기슭에는 건초말리우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편지에 적힌 그 믿음성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것입니다. 지대를 잘 기억해두십시오.》
지형도에 의해서 지형에 대한 일정한 표상을 지니는 일은 군인에게 습관된것이였다. 뚜르하노브는 지형도에 표식된 모든 목표를 쉽게 기억했으며 마음속으로 벌써 야음을 타서 건초말리우는 창고로 뚫고 들어가는 자기들을 상상해보았다.
(거기 가면 벗들이 있고 오래동안 갈망하던 자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시금 자신의 주인이 될수 있겠구나.)
그는 생각에 잠기였다.
《모든걸 기억했소. 예상치 못한 정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초창고도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게 될 동지들도 눈감고라도 찾겠소.》 대좌가 장담했다.
《그럼 저에게 편지를 돌려주세요. 그게 당신에게 더는 필요없을테지요. 만일 남의 손에 편지가 들어가게 되면 불쾌한 결과가 빚어질테니까요.》

뜨르하노브는 편지를 주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는 그것을 보관할 곳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지도에서 복사해낸 지형도를 다시한번 훑어본 다음 편지를 찬찬히 접어서 처녀에게 돌려주었다.

처녀는 얼른 편지를 감추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나에게 인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커다란 가치를 가집니다. 생각같아서는 나도 당신에게 뭔가 즐거운 일을 해드리고싶은데 천당은 즐겁지만 죄인은 들어갈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처녀가 귀엽게 웃었다. 《당신에겐 아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기회가 많으실터인데요.》

처녀는 《사람들》이란 말대신에 《나》라고 하고싶었으나 수집어서 그럴수 없었다. 그러나 뜨르하노브는 어쨌든 처녀가 소원하는 근본뜻을 깨달았으며 기회가 생기면 즉시에 처녀에게 응당한 보답을 하리라 마음다졌다.

임메르만이 뜨르하노브를 《감화》시키는데 할당한 시간은 어느새 흘러갔다.

복도에서 발자국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우리한테 오는것 같아요.》 환니가 속삭이였다.

《다음번엔 다른 환경에서 만납시다. 인차 다시 만나길 바래요, 나의 벗!》

뜨르하노브는 미처 대답을 하지 못했다. 게스타포책임자가 철문을 홱 열어제끼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태연한체하려 했으나 눈은 그의 생각과는 딴판이였다. 그의 눈은 처녀의 낯익은 얼굴모습뿐아니라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려는듯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보아하니 당신은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것 같군.》 그는 통역에게 능청스럽게 눈을 꿈벅해보였다. 《기대를 걸어도 되겠소?》

《전 저이를 설복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직접 물어보세요. 교양있는 사람들은 외국사람이 있는데서 그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처녀가 일깨워주었다.

《좋소.》 게스타포책임자가 수긍했다. 《그럼 나의 명의로 수표문제를 그에게 물어보시오.》

통역이 물었다.

《게스타포를 협력할데 대한 의무조항에는 호프바우에르령지에 가서 수표하겠소.》

뚜르하노브가 대답했다.

《왜 여기서는 안되오?》 게스타포책임자가 신경을 도사렸다.

《격리호동수감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에게 말안해도 알겠지만 거기서는 사람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극단한 상태에 있소.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훌륭한 이름을 더럽힐 문건에 서명할만큼 어리석지는 않소.》 대좌가 조용히 말했다.

게스타포책임자의 얼굴은 격분으로 하여 벌겋게 상기되였다. 이 완강한 적수를 갈기갈기 찢어죽이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시작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다.

(에이, 제길할!) 마음속으로 그는 욕했다. (저자의 정황을 판단하는 솜씨를 부정하지는 못하겠는걸. 하는수 없지.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는수밖에.)

《당신 좋을대로 하시오.》 그는 동의했다. 《당신과 함께 탈주할 사람들은 선발했소?》

《세 사람이 동의했소. 네번째 인물은 아직 선정못했소.》

《통역은? 맞불질할 때 누굴 죽이겠소?》

《호동반장에겐 통역이 두명 있지요. 한명은 아담이라 부르고 또 한명은 월로지까라고 부릅니다.

둘이 다 뽈스까태생이지요.》

《아무거나 선택하시오. 뽈스까사람이라면 아까울게 없소. 해당한 지시는 호동장인 하사관을 통해 내려갈거요. 래일 아침점검시간에 하사관은 당신네 조성원들앞에서 외부작업에 세명의 전공과 로어와 도이췰란드어를 아는 통역 한명이 요구된다고 발표할거요. 당신이 그들을 등록하고 통역을 지명하시오. 당신들에게 작업복을 내주고 호프바우에르씨네 령지까지 데려다줄거요. 나머지문제는 거기 가서 합의합시다. 다 알만하오?》

《한가지 문제를 제기할게 있소.》 대좌가 입을 열었다.
《열가지 문제라도 제기하시오.》게스타포책임자가 말허리를 꺾었다.
《당신이 말하기를 호송대와 맞불질을 할 때 량측이 다 사상자를 내게 된다고 했지요. 당신은 자기 사람을 죽이기가 아깝지 않소?》
뚜르하노브가 적의를 품고 물었다.
게스타포책임자는 픽 웃었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은 타산적인 인간들이여서 언제나 자기 사람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우지 않소.
당신들을 슬로벤스꼬사람들이 호송할것이요. 그러니 죽일대상선택에서 주저할것 없소.》

제 13 장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1945년 2월 2일에도 파시스트교형리들은 자기들이 거둔 성과에 만족했다. 그날 하루동안에 격리호동에서는 35명이 죽고 40여명이 불구로 되였다. 에쓰에쓰대원들은 시체들을 무지에 날라다쌓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음침한 호동안의 비좁은 방안으로 쫓아보낸 후 임무를 수행했다는 자부심을 안고 자기 병영으로 돌아갔다. 이 순간부터 죽음의 수용소의 모든 권력은 반장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자는 대체로 위험천만한 그 발뒤축으로 몇사람의 수인을 밟아놓지 않고서는 잠자러 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슈투벤지스트》들이 수인들을 잠자리에 눕히기를 기다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업신여기는 눈길을 수인들에게 던지며 도이췰란드어로 뭔지 독살스러운 욕지거리를 하고나서 두명의 네데를란드인의 호위를 받으며 도도하게 근무실로 들어갔다. 잠시후에 미하일 이하노브가 죄지은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거기로 몰래 들어갔다.
날씨는 고약했다. 아침부터 강한 북풍이 불다가 저녁녘에는 맵짠 눈보라로 변했다. 게다가 20호동의 수인들에게는 우수가 되는 날에는 식사를 공급하지 않았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칠대로 지친 수인들

이 집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땅에 쓰러져 만사를 잊고 잠드는것이 상례였지만 어째서인지 누구도 잠들려하지 않았다.

죽음의 호동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뚜르하노브는 이런 기분을 낮에 하사관이 그를 임메르만과 면회시키고 다시 데려온 때부터 느끼고있었다. 수인들은 흥분하고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눈이 이글이글 불타고있었다. 기회만 생기면 사람들은 조용히 소곤거렸고 뭔지 서로 의논하다가 수긍도 하고 때로는 론쟁도 했다. 그러나 당면한 탈주에 골몰하고있던 뚜르하노브는 수인들의 괴이한 행동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다. 실은 그도 새로 사귄 동지들과 그것을 두고 이야기해보려고 마음먹었으나 체조시간에도 《뻬치까》놀이할 때도 도무지 그들에게 접근할수 없었다. 방안에 수인들끼리만 남았을 때에야 스뗴판이 그에게 다가왔다.

《레오노브씨가 당신과 만나고싶어합니다.》소년이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왜? 넌 그 사람을 아느냐?》뚜르하노브가 따져물었다.

《그분은 소좌이고 비행사이며 쏘련영웅이라는걸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장이예요.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겠대요. 빨리 가시자요.》 소년이 채근했다.

뚜르하노브는 세멘트바닥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사람들을 밟지 않으려고 애쓰며 스뗴판을 따라가다가 인차 근무실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춰섰다. 잠들었거나 잠을 청하는 대다수의 수인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아무도 잠들지 않고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바투 기대고 서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앉아서 뭔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예멜리야노브와 크쎄노폰또브도 여기에 있었다. 초라한 수인복을 입었지만 인상적이고 체격이 단단한 젊은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뭔지 묻고있었다. 스뗴판이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제가 뚜르하노브를 데려왔습니다.》그가 젊은 사람에게 조용히 보고했다.

《레오노브입니다.》그는 대좌의 손을 잡으며 자기의 소개를 했다. 《당신에 대해서는 이 동무들이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멜리야노브와 크세노폰또브를 가리켰다. 《그래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급박합니다. 나

에 대해서 말한다면 무장폭동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 조직된 지하위원회 위원으로 수인조직이 나를 선거했습니다.》
뚜르하노브는 이런 조직이 존재할수 있다는것을 오래전부터 느꼈다기보다는 확신하고있었다. 그러므로 레오노브의 통보는 추호의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이 위원회가 어디서 활동하는가, 즉 전체 수용소에서인가 아니면 20호동내에서만인가 하는 한가지만은 알수 없었다. 이에 대해 뚜르하노브가 물었다.
《위원회는 우리 호동의 수인들만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다른 호동들에도 있다는것을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정기적인 련계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업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오노브가 물었다.
《찬성입니다.》대좌가 단마디로 대답했다.
《그러니 수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당신은 우리와 함께 행동하겠지요?》
《물론입니다.》 뚜르하노브는 확답했다. 《폭동이 면밀히 준비되고 성공을 담보하는 시기가 정해졌으리라는것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주일전에 폭동을 일으키기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가운데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자는 자기가 알고있는 폭동지도자들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폭동개시 바로 전날밤에 체포되였습니다. 요행 참모부 전부가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배신자를 적발하여 처단했을뿐아니라 참모부사업을 복구했습니다.
예상외의 정황이 조성되지 않는 한 밤 한시에 우리는 거사를 하겠습니다.》 레오노브가 소곤소곤 말했다.
《오늘이라구요?》뚜르하노브가 놀랐다.
《그렇습니다.》 레오노브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 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겁니다. 앞으로 있을 결사전에서 폭동참모부는 당신에게도 적지 않은 역할을 위임할겁니다.》
《나에게요?》 대좌는 한층 더 놀랐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시오.》
《이하노브를 우리 편에 끌어들이도록 설복하는것입니다. 〈슈투벤

지스트〉들은 폭동준비를 알고있으며 우리를 지지하고있습니다. 미슈까 이하노브만이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것이 그자에게 달려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자의 마음이 동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울수 있겠지만 보나마나 폭동을 파탄시키려고 할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반대하려는 그자의 시도가 무의미하다는것을 본인에게 확신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것인지 궁리가 떠오르지 않는군요.》뚜르하노브가 두팔을 벌려보였다. 《설복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것이 아니라 그 잔인무도한자를 그저 없애치우는것이 좋지 않을가요?》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자는 곱게 죽을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자없이 우리끼리는 일을 해낼수가 없군요.》레오노브가 실토하고 그 원인을 간단히 설명했다. 《이하노브는 교활합니다. 쏘련공민의 명예와 자부심에 대해 그자와 이야기하면 그자는 곧 로어를 모르는체 할겁니다. 따따르어를 아는 당신은 그자가 심각한 이 대화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알겠소.》뚜르하노브가 동의했다. 《언제 착수할가요?》

《약 한시간후에》레오노브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의 벗들인 예멜리야노브와 크쎄노폰또브 그리고 지하위원회 위원 한명과 〈슈투벤지스트〉 두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들과 이 작전에서 담당하게 될 개별분담을 합의한 다음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정해준 시간에 뚜르하노브의 전투소조는 근무실문가로 다가갔다. 당직 《슈투벤지스트》는 묵직한 문을 소리안나게 열고 전투소조원들을 방안에 들여놓았다. 여기서 그들은 《슈투벤지스트》들이 봉기한 수인들의 있을수 있는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장만해둔 바둑돌로 무장했다.

전투조장에게는 자작 만든 자그마한 단검까지 차례졌다.

뚜르하노브나 그의 벗들은 와본적이 없었으므로 근무실의 위치를 알수 없었으나 두명의 《슈투벤지스트》조원들은 그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들은 전체 조원들을 고릴라의 제1보조자인 미슈까 이하노브의 개인침실로 곧바로 안내했다.

그자는 융담요를 뒤집어쓰고 책상우에서 자고있었다. 방안에 외인이 나타나자 그자는 갑자기 잠을 깨여 뛰여일어나더니 숙련된 솜씨로 가죽채찍을 집어들었다.

《우둔한짓을 그만둬, 이하노브! 우린 롱담을 하러오지 않았다.》

뚜르하노브가 따따르말로 엄하게 경고했다.

악한은 《슈투벤지스트》들에게 구원을 청하려다가 뚜르하노브의 손에 들린 단검을 보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눈을 슴벅거리며 머리를 수그리고 항복했다.

《나한테서 무엇을 요구하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우린 네가 인민들앞에 지은 죄를 일부라도 씻을 기회를 주려한다. 20호동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슈투벤지스트〉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 너도 죽지 않으려거든 반장을 그의 침실에서 불러내야 한다. 그자에게 우린 사형을 선고했다. 형집행은 폭동참모부가 너에게 위임했다. 대답하라. 참모부결정에 동의하는가, 안하는가?》 뚜르하노브가 물었다.

《난 동의하고싶지만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아무튼 우리를 몽땅 죽여버릴겝니다. 당신들에게는 칼 한자루와 돌 몇개밖에 아무런 무기도 없지 않습니까. 맨주먹으로 기관총과 자동총을 맞받아나간다는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지요. 난 살고싶습니다.》 이하노브가 우는 소리를 했다.

《우리에겐 무기가 생긴다. 그건 네가 걱정할바가 아니야. 똑똑히 말해, 우리와 함께 가겠느냐 안가겠느냐?》 뚜르하노브가 직방 들이댔다.

《좋소, 당신들과 가겠소.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된 후에 당신들은 나를 죽이지 않겠소?》 이하노브는 흥정을 계속했다.

《아니, 죽이지 않겠다.》

뚜르하노브가 약속했다.

《가서 맡은 일만 해내면 우리의 관대성에 기대를 걸어도 된다. 돌을 집어! 그것으로 반장의 골통을 빠개란말이다. 꾀를 부릴 생각일랑 말어. 넌 물샐틈없는 나의 감시밑에 있게 될게다. 한발을 약간 잘못 디디여도 이 단검이 너의 가슴을 찌를거다.》

이하노브는 한 《슈투벤지스트》가 내민 돌을 받아 헝겊에 깐깐히 싸더니 전투조원들과 함께 자기 침실을 나섰다. 그는 복도에서 또다시 발길을

멈추었지만 자기 목에 바투 와있는 칼날을 느끼고는 더 지체않고 호동반장이 늘 휴식하는 창고로 다가가 대담하게 문을 두드렸다.

《뭐야?》 고릴라의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장님!》 이하노브가 불렀다.《에쓰에쓰대원들이 와서 당신을 깨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나가겠다. 제 사람들을 깨우라!》 반장이 명령했다.

그자는 자기 제1보조자의 개와 같은 충실성을 믿고있었기때문에 그가 부르자 언제나와 같이 침착하고 자신만만하게 침실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해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격자의 한사람이 고릴라를 붙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후 그자의 목을 눌렀다. 이하노브는 횡포해져서 돌로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파시스트잡종은 찍소리도 못하고 몸을 옹송그리더니 목구멍에서 갈그랑소리를 내며 경련을 일으키다가 조용해졌다. 그의 머리는 피덩어리로 변하고 심장도 이미 뛰지 않았지만 이하노브는 잔인무도한짓을 즐기는 옛습관에 따라 시체를 우롱하는 쾌감을 마다할수 없었다.

그는 돌을 던지더니 안전면도칼을 집어들고 이전 자기의 친구이며 보호자였던자의 목을 홍에 겨워 베고 또 벴다.

레오노브가 몇명의 지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다가왔다.

《저 사람을 이 짐승에게서 떼여내시오.》레오노브가 이하노브를 손짓하며 지시했다.《저 사람은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아직은 필요하오. 내부의 적은 소멸되였소. 외부의 적도 소멸될것이요. 갑시다. 결정적인 싸움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제 14 장

격리호동의 모든 권력은 수인들의 반파쑈지하위원회와 그 전투기관인 폭동참모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모든 전투단위들은 그들앞에 제시된 과업을 신속정확하게 집행했다. 수용소당국의 대표자들인 호동반장과 그에게 충실했던 노복인 《슈투벤지스트》들은 제때에 아무 소동도 없이 소멸되였다.

가장 어려운 장애는 앞에 놓여있었다. 감시탑들에는 여전히 기관총들이 버티고있었다. 이것들은 임의의 순간에 불을 토하여 호동을 수인들의 피로 잠글수 있었다. 그러나 첫 성과에 고무된 수인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수인들은 서로 작별하고 주소를 교환했다.

크쎄노폰또브와 예멜리야노브는 주소를 서로 잘 알고있었다. 이젠 뚜르하노브에게 자기 주소들을 알려주어야 했다. 그들은 수용소 수비대와의 결전을 앞두고 마지막 대화를 이렇게 시작했다.

《살아남기만 하면 난 주소없이도 당신이나 당신의 친척들을 찾아내겠소. 우리에게는 보다 중요한 사업이 있소. 늦기전에 그 일에 착수할가요?》 대좌가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크쎄노폰또브가 의아해했다.

《지금 우리는 이전의 탈주계획이 시작되기도전에 파탄되였다는것을 알고있소.》 뚜르하노브가 시작했다. 《우리들중에 이것을 보고 섭섭해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오. 게스타포요원의 협조하에 얻은 자유는 협조동기에는 관계없이 량심있는 사람에게는 불쾌하지 않을수 없소.》

《옳소!》 예멜리야노브가 찬동했다.

《섭섭하게 생각할게 없소.》 크쎄노폰또브가 대꾸했다. 《더구나 우리에겐 자유를 쟁취할 다른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소.》

《그러나 마음을 놓기는 아직 이르오. 새로운 가능성은 커다란 난관을 동반하고있소. 현실주의자들인 우리들은 있을수 있는 불의의 정

황을 타산하여 그것이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오.》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요?》 예멜리야노브가 긴장해졌다.

《나에게는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소. 난 그 비밀을 쏘련군대사령부에만 털어놓으려 했댔소. 만일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하면 나와 함께 나의 비밀도 묻혀버리고말거요. 이건 수백만사람들에게 비극적결과를 가져다줄수 있소. 만일 내가 죽으면 나의 비밀을 오직, 다시 강조하지만 오직 쏘련사령부에만 통보하겠다는걸 약속하시오. 그러면 그 비밀을 이야기하겠소.》 뚜르하노브가 속삭이였다.

벗들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맹세했다.

뚜르하노브는 그들에게 와그네르교수에 대해서 그리고 나치스들이 비밀신형무기를 만들고있는 교수의 실험실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그들은 파시스트들이 그 어떤 비렬한 행위도 다할수 있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학자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실험용동물로 리용했다는것은 도무지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그 소문은 꼭 확인해야 되겠소.》 크쎄노폰또브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게 사실이라는게 확인되면 그 범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추궁해야겠소.》 예멜리야노브가 자기 생각을 말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 뚜르하노브가 그들의 의견을 지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소. 와그네르의 실험실을 알아내여 될수록 빨리 그것을 소멸해야 하오. 그러지 않았다간 파시스트들이 그 짐승같은 학자놈의 발명을 몇몇 사람의 집단이 아니라 전체 인류를 소멸하는데 써먹을수 있소.》

동지들은 파시스트들의 범죄적인 시도를 파탄시키기 위해 자기들이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젠 우리의 영원한 우정을 더 두터이합시다.》 크쎄노폰또브가 제의했다.

《동의하오.》 예멜리야노브도 그의 의견을 따랐다. 《츄와슈의 옛 풍습대로 헤여지기에 앞서 옷을 서로 바꾸어 입읍시다. 내 저고리는 고향친구인 당신에게 주고 모자는 로씨야의 의형제에게 주겠소.》

제의가 접수되여 동지들은 저고리와 모자를 바꾸었다. 의형제를 맺는 의식은 굳은 포옹으로 끝났다.

그때 스떼판이 그들에게 레오노브소좌를 데리고왔다.

《시작할 때가 되였습니다. 다들 준비되였습니까?》 폭동지도자가 물었다.

뚜르하노브는 확신성있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전투에서는 제2습격조에 망라되십시오. 아직은 이하노브를 감시하십시오. 그자는 적의 신임을 얻자고 맨 마감단계에 이르러 폭동을 파탄시키려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두나요.》 크쎄노폰또브가 장담했다. 《우릴 믿으십시오.》

지휘자들은 폭동의 성과적인 결과가 전적으로 불의성에 달려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감시탑의 경각성있는 보초들의 의심을 사지 않게 공격을 위한 출발계선 즉 감시탑에 직접 접근하는데 력량을 집중시켜야 했다. 그러자면 파시스트들이 수감자들의 야간휴식권리마저 빼앗으려고 꾸며낸 교활한 수법을 역리용해야 했다. 반장과 《슈투벤지스트》들은 대청소를 한다는 구실로 한주일에 두세번 열두시경에 경보를 울려 수인들을 일으키고 책상, 의자, 나무침대, 마다라스, 이불을 마당에 끌어내게 했다. 이것들은 수감자들이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한것들이였으나 그들은 이 재산들을 통풍시키기 위해 몇시간씩 밖에 서서 꽁꽁 얼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밤에는 호동안이 대단히 소란했다. 감시탑의 보초들은 그러한 혼잡에 오래전부터 익숙되여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계가 자정을 알렸을 때 이하노브는 레오노브소좌의 지시에 따라 문을 열고 큰소리로 웨쳤다.

《대청소! 모두 나왔! 빨리 !빨리!》

확신성을 더 주기 위해 그가 자기의 가죽채찍을 공중에 휘둘러 위협하게 했다. 감시탑우의 에쓰에쓰대원들은 이 악한을 잘 알고있었다. 그자의 야만적인 비행은 언제나 그들을 기쁘게 했다. 그러므로 그자들은 아무도 사건의 참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감자들은 가구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책상과 침대들을, 거기에 올라서면 3메터높이의 돌담을 넘어뛰거나 감시탑으로 뛰여오를수 있게 쌓았다. 다른 수인들은 이때 욕실에서 세멘트

세면대와 목욕통을 까부시고 근무실의 하나밖에 없는 뻬치까를 허물어 벽돌을 추려냈다. 습격조전투원들은 세멘트콩크리트쪼각과 벽돌장으로 무장했다. 대용품 비누가 든 상자들과 돌탄이 든 자루들도 찾아냈다. 비누와 석탄덩이도 무장하는데 쓰이였다. 담요의 절반은 찢어서 발싸개대신 수인들이 발에 감았고 절반은 담장꼭대기에 늘인 가시철조망에 덮으려고 마당으로 끌어냈다.

감시탑습격에 필요한 모든것을 준비하는데 꼭 한시간이 걸렸다. 밤한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습격신호로 되였다. 세개의 습격조가 동시에 감시탑들을 공격하고 네번째 습격조는 일반수용소의 에쓰에쓰대원들에게서 있을수 있는 공격을 격퇴할 준비를 갖추었다.

《우라!》라는 로씨야의 함성과 《앞으로! 조국을 위하여!》,《파시스트들을 격멸하라!》,《삶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라는 웨침소리가 기관총소리를 삼켜버렸다. 에쓰에쓰수비대원들의 머리우에 돌과 석탄, 비누사태가 쏟아져내렸다. 그러나 기관총은 입을 다물지 않았다.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계속 정면으로 쏘아 그들의 대렬에는 참경이 벌어졌다. 기관총수들의 눈을 멀게 해야 했다. 예멜리야노브는 소화기를 들고 센 물줄기를 기관총수의 상통에 대고 쏘았다. 기관총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래서 크쎄노폰또브는 감시탑에 오를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보초놈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기관총수를 교대하여 련발사격을 또 한차례 해댔다. 작열된 연덩이들의 무서운 흐름이 예멜리야노브에게 쏟아지자 순간에 그의 머리는 끔찍한 피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소화기는 그의 손에서 떨어지고 그자신은 떼를 지어 감시탑으로 달려온 동지들의 발밑에 쓰러졌다.

기관총은 공격하는 대렬을 계속 쓸어눕혔다. 공격은 임의의 순간에 좌절될수 있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뚜르하노브는 몸을 납작 땅에 붙이고 소화기있는곳으로 달려갔다. 다음순간 센 물줄기는 또다시 기관총수의 눈을 멀게 했다. 무서운 죽음의 무기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공격하는 수인들은 이 기회를 리용했다.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시탑우에 올라가있었다. 그들은 보초놈들을 제꺽 무장해제시키고 로획한 무기로 이웃감시탑들에서 완강히 버티고있는 보초들을 쏘아눕히기 시작했다.

뚜르하노브자신은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기관총을 틀어잡고 첫번째 감시탑에서 방어하는 파시스트들에게 연덩이의 비를 쏟아붓기 시작

했다. 탄환이 단번에 목표물에 가맞은듯 기관총은 한차례의 련발사격을 끝낸 후 입을 다물어버렸다. 이젠 폭동자들이 탈취한 두대의 기관총이 세번째 감시탑에 대고 불을 토했다. 두대의 기관총의 명중사격은 저항하는 적의 마지막아성을 곧 짓뭉개버렸다.

20호동의 수비대는 한놈도 남김없이 전멸당했는데도 자유를 탈취하는 길에는 아직도 커다란 장애가 가로막고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것은 높이 3메터의 돌담우를 지나간 다섯줄의 가시철조망과 거기를 통과하는 고압전류였다. 이 담을 넘으려던 가장 성급한 폭동자들은 목숨을 바치고말았다. 시급히 이 장애물을 없애야 했다. 곧 창발적인 사람들이 나타났다. 폭동자 한사람이 쇠불갈구리를 가져다가 철조망에 모로 던지였다. 합선이 되였다. 번개불처럼 불길이 일고 불꽃이 튀였다. 순간 전체 수용소가 어둠속에 잠기였다. 폭동자들은 지체없이 이것을 리용했다. 그들은 가시철조망에 담요를 덮고 담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변전소사고로 도이췰란드놈들속에 일어났던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20호동과 린접하고있는 감시탑보초들이 제일먼저 정신을 차렸다. 놈들은 곧 기관총 두문으로 탈주자들을 향하여 마구 갈겨댔다. 때를 같이하여 격리호동 뒤쪽에서는 싸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도이췰란드말로 웨치는 구령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폭동을 일으킨 호동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모양이였다.

레오노브소좌의 지시에 의해 기관총 한문은 호동의 철문 맞은쪽에 설치하고 다른 기관총 두문은 이웃감시탑의 사격을 제압해야 했다.

뚜르하노브는 기관총을 백팔십도로 돌리고 19호동 감시탑에 련발사격을 안기였다. 적 기관총은 단번에 숨을 죽이였다. 18호동쪽에서 사격해오는 파시스트의 두번째 기관총과는 더 오래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뚜르하노브는 어둠속에서 눈부신 섬광을 묘준하고 긴 련발사격을 가했다. 크쎄노폰또브는 적에게서 탈취한 자동총으로 그를 도왔다. 그러나 적은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저놈은 장갑철판속에 은페한 모양이군. 배후로 돌아가서 저 비렬한을 소멸해보겠소.》 크쎄노폰또브가 말했다.

그와 다른 두명의 습격조원들이 서로 도우면서 감시탑을 내려가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적 기관총은 20호동을 향하여 계속 사격하면서

돌담을 넘으려고 서두르는 폭동자들을 죽이거나 부상시켰다. 다행히도 이전 쇄빙선 선장인 크쎄노폰또브는 륙지의 적을 타승했다. 수용소 돌담에 의지하여 감시탑까지 숨어든 그는 자동총을 쏘고 그의 동무들은 수류탄을 한개씩 던졌다. 적 기관총은 입을 다물었다. 이제는 아무도 감옥을 탈출하는 수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짧은 시간에 수백명의 수인들이 돌담을 넘어갔다. 맨 마지막으로 네번째 습격조 전투원과 지휘관들이 죽음의 호동을 빠져나갔다. 호동안과 마당에는 죽은 사람과 중상자와 환자들만이 남았다.

뚜르하노브는 아직도 기관총옆에 서있었다. 적이 가까이에 나타나면 또다시 전투에 진입하려는것이였다. 한창 백열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될수록 빨리 마우트하우젠을 벗어나야 한다는것을 잊고있었다. 언제나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스떼판이 그것을 일깨워주었다.

《대좌님!》 그가 뚜르하노브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다들 갔어요. 우리도 가자요. 그러지 않다간 늦어요.》

소년의 말이 옳았다. 온 수용소에서 끊임없이 싸이렌이 울렸고 자동차발동소리가 부르릉거렸다. 련락병들과 직일관들이 손전지로 길을 비치면서 뛰여다녔고 정문에서는 모터찌클들이 달려나가고 개를 거느린 수비대원들이 뛰여나갔다. 병사들을 실은 화물차도 나타났다. 화물차들은 전조등으로 벌을 밝게 비치며 탈주자들을 수색했다. (무서운 사람잡이가 시작되는군.) 뚜르하노브가 생각했다. (서둘러야겠다.)

《좋다. 스떼판, 우리도 빨리 가자. 나한테서 떨어지지 말아. 여기서 몇키로메터 떨어진곳에서 믿음직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다.》 그가 말했다.

《어두워서 그들을 찾아낼수 있을가요?》 소년이 의아해했다.

《찾아내야지.》 뚜르하노브는 자신있게 말했다.

제 15 장

밤이 퍼그나 깊었고 몹시 피곤했지만 루돌프 임메르만은 잠들수 없었다. 불안한 생각이 한순간도 그에게 안정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불속에서 몸을 뒤채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새털이불을 머리까지 푹 뒤집어썼지만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오가면서 담배도 피우고 독서도 하려고 하다가 두차례나 수면제를 먹었으나 잠은 전혀 오지 않았다. 기진맥진해진 게스타포책임자는 정신없이 세번째 수면제를 씹어먹고 물을 들이킨 다음 십자를 긋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귀에서 나던 소음은 갑자기 멎어버리고 눈시울이 무거워졌으며 신경은 안정되였다. 그는 고르롭게 숨을 쉬다가 잠에 들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제길할!》 대좌가 욕지거리를 했다. 《무슨 변고가 또 생긴 모양이군. 말씀하시오!》 그는 송수화기를 들고 소리쳤다.

게스타포직일관이 보고했다.

《마우트하우젠수용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20호동의 수감자들이 수비대를 들부시고 뛰쳐나갔습니다.》 직일관이 헐떡거리며 말했다.

《어떻게 뛰쳐나갔는가?》 임메르만이 웨쳐댔다. 《전부인가 아니면 수감자 몇명인가?》

《호동에는 피살자와 제발로 움직일수 없는 부상자와 환자들만 남았습니다. 수용소당국은 무질서가 더 확대될가봐 두려워하고있으며 즉시에 마우트하우젠에서 나가는 모든 도로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고있습니다. 어떤 지시를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수비대를 붙여서 장갑차를 보내주게. 내가 직접 가보겠네. 1호경보를 울리라고 이르게. 지방자위대 참모부와 경찰국과도 련계를 취하게. 〈토텐코프〉사단의 사단장에게도 알리게. 그리고 수용소소장과 부단히 련계를 취하게!》 게스타포책임자가 지시했다.

《집행하겠습니다!》 직일관이 대답했다. 습관상 발뒤꿈치를 딱 붙이

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차를 오래전에 거기로 보냈습니다. 도착했을겁니다.》

게스타포책임자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말 집앞에 장갑차가 서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무기상태를 검열했다. 그리고 졸음이 채 깨지 않았지만 뛰다싶이 출입문으로 달려가서 도시의 텅빈 거리를 차를 타고 달리였다.

수인들의 소요나 감옥과 포로수용소의 무질서에 도이췰란드인들은 오래전부터 익숙되여있었다. 마우트하우젠에서도 이와 같은 폭동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격리호동의 수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임메르만도 알고있었지만 격리호동의 수인들은 굶주림과 추위, 상시적인 매질과 모욕으로 하여 자기 몸도 겨우 가누는 형편이였다.

(그들이 어떻게 맨주먹으로 수비대를 격멸하고 뛰쳐나갈수 있었을가?) 게스타포책임자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다.

불현듯 그는 뚜르하노브생각이 났다. (우린 그 사람도 격리호동에 감금하지 않았는가? 지금 그자가 어디 있는가? 죽었다면 좋지만 만일 탈주했다면? 야전헌병대의 무지막지한 놈에게 걸려들면 질접해서 우리가 모의한걸 실토할수 있다. 소문이 돌것이다. 소문은 부총통의 끄나불의 귀에까지 들어갈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자기 행동을 어떻게 변명한단말인가? 나는 그자를 스위스로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을뿐아니라 몸값이 상당한 그자와 플랑크대좌와의 의심스러운 련계를 숨기였고 나아가서 대좌를 통해 까나리스해군대장과의 있을수 있는 련계도 숨기지 않았는가, 이만하면 영낙없는 단두대감이다.)

게스타포건물안에서 그는 이십분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방금 들어온 마우트하우젠의 소식을 통해 그는 수인들의 소요가 수용소전체에는 퍼져나가지 않았지만 격리호동에서만 해도 500명이상의 인원이 달아났다는것을 알았다. 뚜르하노브에 대해 확정적인 말을 아직은 할수 없었다. (내가 직접 가보겠다.) 게스타포책임자는 결심했다. (현장에 직접 가봐야지, 어떻게든 사태가 수습되겠지.)

게스타포책임자는 부하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지시를 준 다음 다시 장갑차를 타고 마우트하우젠으로 떠나갔다. 벌써 병사들을 실은 화물차종대가 길을 달리고있었다. 기관총과 자동총으로 무장한 모터찌

클병들이 이따금 화물차종대를 따라잡군했다. 게스타포의 장갑차는 끊임없이 싸이렌을 울리고 불빛신호를 하여 길을 비치게 하면서 열대씩 조를 무은 땅크종대를 두번이나 따라앞섰다. 시민들도 기동을 시작했다. 많은 집들에 불빛이 비치고 농촌길을 따라 자위대병사들이 보초를 서고있었다.

(이게 무슨 소동이람!) 이 모든것을 돌아보며 게스타포책임자가 분개했다. (우리 관구에 나타난것들이 죽음의 호동에서 도주한 적수공권의 초라한 수인무리가 아니라 적의 정규군이기나 한것 같군. 우리가 이 사건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는건 아닐가?)

포로수용소까지 채 가지 못하고 장갑차는 몇분간 정거했다. 눈에 띄는 온 벌판에서 산병선이 전진하고있었다. 탐조등과 자동차전조등으로 공간을 비치며 병사들은 달리는 사람들의 검은 형체를 향해 보총, 기관총사격을 가했다.

(심문하느라 지체하지 않고 현장에서 쏘아버리는건 아주 다행이군.) 임메르만은 안도의 숨을 쉬였다.

산병선이 일정하게 물러가자 길이 틔여 게스타포책임자의 장갑차가 지장없이 포로수용소 정문으로 들어갔다. 수용소 소장방에서 그는 안면있는 장교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물었다.

《저희들은 신속히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지금은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20호동을 제외한 모든 수인들이 자기 호동안에 있으며 무장한 에쓰에쓰대원들의 감시하에 방바닥에 누워있습니다. 일어나려는 사소한 기미만 보여도 보초병들은 예고없이 무기를 사용합니다. 변전소사고는 퇴치되였습니다. 수용소구역에는 다 불이 왔습니다.》 장교가 보고했다.

《무질서한 현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싶소.》 게스타포책임자가 말했다.

《거긴 지금 특수부대가 포위하고 지키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좌님을 거기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사상자들을 세고 그들의 개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가고싶으시면 함께 가십시다.》

20호동의 전체 구역은 줄무늬수인복을 입은 사람들의 시체로 한벌쭉 깔려있었다. 그들은 거의 모두 총상을 입었는데 많은 부상자들이 그후에 또 총창에 찔리웠다. 지금도 에쓰에쓰대원들이 마당을 걸어

다니다가 시체가운데의 산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에 머리에 총을 쏘거나 총창으로 찔러서 끝장을 냈다.

게스타포책임자는 호동구역을 오래동안 걸어다니며 죽은 수인들의 개인번호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필요한 번호를 찾아내기가 헐치 않았다. 많은 경우에 번호는 피에 젖어있었다. 그런 시체는 뒤집어엎어 다른 쪽의 번호를 확인해야 했다. (번호는 저고리 가슴팍과 잔등에 꿰매여있었다.) 찾던 번호를 그는 드디여 찾아냈다. 어느 한 감시탑부근에 개인번호가 68290번인 시체 하나가 넘어져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러발의 탄환을 맞아서 형체도 알아볼수 없었다. 그러나 게스타포책임자는 의심치 않았다. (뚜르하노브구나.) 그는 번호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의 검은 머리칼을 번갈아보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머저리같으니, 제때에 내게 수표를 해주었더라면 벌써 스위스에 가있을걸. 이젠 저쪽 벌판에 쓰러진 시체들과 다름없이 화장터의 재로 되겠지.)

《이게 누굽니까?》 소장실에서 나온 그 장교가 물었다.

《우리 첩자였소.》 게스타포책임자가 거짓말을 했다. 《오늘밤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자를 며칠전에 격리호동에 특별히 배치했더랬소. 유감스럽게도 과업을 수행하진 못했지만 사람은 나무랄데 없었소. 저 사람의 저고리를 벗겨 나에게 주도록 지시해주오. 보고하기 위해 저고리는 내가 가져가겠소.》

《알았습니다, 대좌님.》 수용소의 대표가 공식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저고리는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들은 정확히 계산할수 있도록 따로 모아 화장터곁에 쌓아놓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게스타포책임자가 포로수용소를 떠났을 때는 겨울해가 하늘의 절반을 빨간 피빛으로 물들이며 서서히 떠오르고있었다. 그는 차를 천천히 몰아갔다. 도로는 주변수비대의 병사들을 만재한 중량화물자동차들로 꽉 차있었다. 시체를 가득 실은 수송용차들도 가끔 눈에 띄였다. 이것은 20호동에서 탈주했지만 추격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수감자들이였다. (괜찮아, 화장터의 아궁이에서 모두 타버리겠지.) 시체들을 내다보며 게스타포책임자는 깨고소해했다. (용서를 바라지 말아. 원쑤를 살려둔다는건 자기가 죽을 묘지를 파는것과 한가지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은 그런 머

저리노릇을 하지 않는다.)
시내로 다가가자 그는 환니가 생각났다. (환니가 뚜르하노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흥미있는걸.) 그는 생각했다. (환니는 분명히 그자에게 호감을 가지고있었다. 처녀를 찾아가서 모든걸 말해줘야지. 멋진 새 소식을 처음으로 알라지.)
이른아침이였지만 환니는 이미 깨여나있었다.
《안녕하오. 환니!》 그가 인사를 했다. 《어딜 그렇게 일찌기 갈 생각이요?》
《직장에 가지요.》 환니가 언짢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진 모르겠는데 직일관이 벌써 세차례나 전화로 불렀어요.》
《당신은 라지오를 듣지 못했소?》
《아침부터 정치를 하는덴 아직 습관되지 못했는걸요.》
《공연히 그러누만.》 책임자가 못마땅한듯 처녀를 쳐다보았다.
《최근 사건들을 알고있어서 손해될건 없소. 라지오를 트오. 지금이 바로 지방소식을 방송할 시간이요.》
처녀가 라지오를 틀었다. 시방송국에서는 위험한 범죄자의 대집단이 도주한 사실을 보도했다. 일체 수상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즉시에 경찰에 통고하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체포한 매 폭도에 대하여 상이 수여될것입니다.》 방송원이 보도했다. 《숨겨주는 자들과 기타 공모자들은 전시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보오! 환니,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소. 그런데 당신은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있소. 우린 이미 필요한 예방책을 다 세워놨소. 많은 도주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고 나머지 놈들에게도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있소.》 그는 확실히 쾌감을 느끼며 이사이로 내뱉었다.
환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공연히 꺼낸건 아니야. 그럴리 없어.) 겁에 질려 처녀는 생각했다. (뭔지 불쾌한 소식을 들려주려는것 같군.)
처녀는 자기의 불안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써 태연한체했다.
《당신네 탈주자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놓이는군. 환니.》 임메르만의 웃음에는 악의가 없지 않았다. 《이보우, 난 몇몇 탈주자의 비참한 운명이 당신의 아픈데를 다치지 않겠는가 우려했댔소. 다행히도 이젠 당신걱정을 영

영 안하게 되였소.》

《일없어요. 이야기를 시작한 이상 마저 하세요.》 처녀가 성난 눈길로 쏘아보며 요구했다. 《누구의 운명이 나의 아픈데를 다친다는 거예요?》

루돌프 임메르만은 자기 가방을 열고 거기서 수인의 막베저고리를 천천히 꺼내여 등과 앞가슴의 번호가 잘 보이도록 펼쳐놓고 물었다.

《알아보겠소?》

앞가슴쪽의 번호는 온통 피에 젖어있어서 수자들을 가려볼수 없었다. 그대신 등쪽의 번호는 피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68290—이것은 뚜르하노브의 번호였다. 환니는 공포에 질려 상기했다.

《당신이 그를 죽였나요?》 처녀가 여느때의 허물없는 태도를 버리고 딱딱하게 물었다.

《그자신이 기관총사격에 자기 머리를 들이댔소. 난 그를 어제밤에 수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격리호동 감시탑곁에서 찾았소. 분명히 그는 적수공권으로 기관총화점을 공격한 그 강도들속에 있었소. 난 당신이 그를 동정한다는걸 아오. 허나 나를 믿소. 난 그러한 종말을 바라지 않았댔소.》

환니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처녀는 자기 눈으로 뚜르하노브를 보고 마지막 《용서》를 빌고싶었다.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처녀가 물었다.

《당신은 그이를 나에게 보여줄수 없어요?》

《그럴수 없소.》 임메르만이 어깨를 추슬렀다. 《내가 보는데서 그를 다른 시체들과 함께 수용소 화장터로 날라갔소. 그를 구출하는 실패한 작전의 기념으로 난 장례부대원들에게 저고리를 요구했을뿐이요. 저고리를 당신에게 두고 갈가요?》

《감사합니다만 필요없어요.》 환니가 거절했다. 《저는 아직 죽은 사람의 옷을 수집하는 광신자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살인자들이나 어서 그렇게 하라지요.》

제 16 장

환니는 뚜르하노브와의 마지막 상봉결과에 대해 룽게에게 전달했으며 룽게는 2월 2일에 이미 《푸른두나이》의 지하조직원들을 통해 쏘끌로브에게 통보했다. 지하조직원들의 기대에 의하면 파시스트들이 뚜르하노브와 3명의 그의 동지들을 2월 3일에 호프바우에르의 령지에 데려다주면 그들은 2월 4일이나 5일밤에 호송대에게서 달아나 가까운 산림가의 건초창고에서 그들을 기다리고있는 별동대원들과 합류하게 되여있었다. 이번에 별동대원들은 성공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아침에 린츠시방송에서 포로대집단이 탈주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룽게는 심각히 생각했다.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수는 결코 없다.) 그는 단정했다. (마우트하우젠린근의 도로는 봉쇄되고 포위수색이 시작될것이고 숲과 정원을 샅샅이 훑을것이다. 건초창고에 있는 동지들은 막다른 처지에 놓일수 있다. 그들에게 곧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 스키산보를 하는척하고 그들에게 찾아가면 어떨가?)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 그는 도착하는 첫 기차로 마우트하우젠역으로 갔다. 바로 그때부터 시끄러운 일들이 시작되였다. 기차안에서 증명서검열을 두차례 당했고 세번째는 역에 내렸을 때 당했다.

《무슨 일로 여기에 왔소?》 헌병장교가 증명서를 검열하고나서 그에게 물었다.

《자기의 습관인 스키산보를 하려고 했소.》 룽게가 대답했다. 《의사가 처방했소. 나같은 전쟁불구자들에겐 그것이 원기회복을 돕는다고 합디다.》

헌병은 놀라서 룽게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오늘 라지오를 듣지 못했소?》 헌병이 물었다.

《아니요.》 룽게가 어깨를 으쓱했다. 《전선형편에 대한 무슨 중요보도라도 있었는가요?》

《그런게 아니요.》 헌병이 손을 내저었다. 《밤에 수용소에서 많은 죄수들이 도망쳤소. 린근일대에 계엄상태가 선포되였소. 지방주민들

도 특별통과증에 의해서만 외출이 허가되오. 늦기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게 좋을거요.》
그와 언쟁을 한다는건 유익하지 않을뿐더러 위험할수도 있었다. 되돌아가는 그 교외렬차로 시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스키복을 얼른 갈아입은 그는 《푸른두나이》로 달려갔다. 지하조직원들과 련락을 맺어주던 접대원처녀는 그를 정중히 맞아준 다음 메뉴표를 내놓았다.
《우리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지 못하겠소?》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접대원이 대답했다. 《일이 제대로 된다면 우린 그분들을 래일저녁이나 모레아침에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겠소?》
《자기 이름은 대지 말고 전화를 거십시오. 제가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릴테니까요. 그분들이 돌아오셨으면 〈당신이 주문한건 준비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두마디하고 수화기를 놓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전화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접대원이 말했다.
《알겠소. 그럼 내가 보통 먹는 분량의 닭알지짐과 검은 커피를 사탕없이 한고뿌 주시오.…》
토요일은 룽게가 아무 소식도 받지 못한채 지나갔다. 일요일에 마그다는 그더러 교회당에 가자고 했으나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몸이 좀 불편하오.》 그가 말했다. 《난 좀 누워있겠소. 머리가 좀 나으면 신선한 공기나 마시러 나가겠소.》
크라메르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낮례배를 보러가고 룽게는 집에서 소식을 기다렸다. 마우트하우젠에서 수인들이 달아난지 한주야이상이 지났지만 라지오에서는 아직도 위험경고를 계속 방송하고있었다. 탈주자들과 추격하는 정규군과 수비대간의 길지는 않으나 치렬한 전투가 있었다는것을 몇차례나 보도했다.
(어딘지 아주 가까운 곳에서 피어린 싸움이 벌어지고있겠구나.) 룽게가 생각했다. (《푸른두나이》의 전투소조원들이 뚜르하노브를 꼭 만나야겠는데 예상치 않은 정황으로 우리 동무들이 이 전투에 끌려들고 지금 지원을 기다리고있는지도 모르지. 쏘꼴로브와 련계를 취

해봐야 하지 않을가?)

행여나 하여 그는 식당에 전화를 걸었다. 아는 접대원처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오후교대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는 환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으나 와그네르의 집에서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집에 앉아있기가 참을수 없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속에 섞이면 누구든 아는 사람을 만날게고 그렇게 되면 새 소식을 알게 되겠지.) 그는 이렇게 결심하고 옷을 입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환니가 나타났다. 환니의 모습은 룽게를 아연케 했다. 슬픔에 젖은 눈은 울어서 부어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파리했으며 입술은 방금 울음을 터뜨릴듯 파르르 떨고있었다.

《무슨 일이요, 환니?》 룽게가 놀라서 소리쳤다. 《얼굴이 말이 아니구만. 무슨 일이 있였소, 혹은 앓았소?》

《그인 돌아갔어요. 그인 이 세상에 더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며 처녀는 안락의자에 쓰러지더니 은실로 수놓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온몸을 떨면서 목놓아울었다.

뚜르하노브라는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으나 룽게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아차렸다. 겨우 처녀를 진정시킨 룽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차근차근 묻기 시작했다. 처녀는 임메르만이 뚜르하노브의 시체를 찾은 이야기, 시체를 화장터로 보냈다는 이야기, 기념으로 저고리를 간수했다는 이야기를 그에게서 들은대로 전달했다.

《그러나 임메르만이 잘못 보았을지도 모르지요.》 룽게는 그럴수 있다는걸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처녀에게 어떤 희망이라도 안겨주기 위해 반박했다.

《설혹 임메르만이 잘못보았고 뚜르하노브가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탈주하는데 성공했다 해도 어차피 그이를 구원할 희망은 없어요. 임메르만은 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게스타포에 들어오는 일체 보고를 볼 기회를 주었어요. 지금 마우트하우젠의 전구역이 군인들에 의해 포위되여있어요. 의심스러운 곳마다 자동총사격을 해대면서 전야와 숲, 골짜기들을 샅샅이 뒤지고 집들을 일일이 수색하며 다락과 지하실, 우물을 다 들여다보고 낟가리와 건초더미들을 특별하게 만든 쇠꼬챙이로 모조리 찔러봐요. 살아있는 탈주병들만을 사냥하는게 아니라 특별히 훈련시킨 군견들을 동원하여 눈에 덮인 시체까지 찾아내고있어요. 탈주병들은 대체로 살아서 항복하지는 않지만 추격자

들의 손에 잡힌 도주자들은 개인번호를 확인받은 다음 즉석에서 총살돼요. 하루동안에 사백명가량 죽였다고 해요. 농촌의 탈주병체포에는 군대, 경찰, 지방자위대뿐아니라 가까운 도시와 농촌의 모든 성인들은 물론 상급학년 학생들, 〈도이췰란드청년단〉단원들도 동원되였어요. 린츠시 최고책임자는 마지막 탈주자를 찾아내여 죽일 때까지 산채로든 죽은채로든 계속 수색하라고 했어요. 탈주자전원을 찾아냈다는걸 확인하기 위해 그가 손수 세여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매장하거나 화장터에서 태우지도 않고 엄밀히 세여서 그들의 번호를 적고 일정한 장소에 낟가리로 쌓아놓았어요. 보시다싶이 수용소 탈주자들에게는 구원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룽게는 마음속으로는 처녀의 말에 동감하면서도 환니를 생각하여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출로를 찾을수 있다는것을 실례들을 들어가며 계속 반박했다.

《절 위로하지 마세요. 전 위로를 받자고 여기 오지 않았어요.》환니가 그의 말을 꺾었다. 《전 살아있는 뚜르하노브를 구원하려고 했댔어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젠 그이의 훌륭한 명예라도 건져야겠어요.》

《어떻게 건진단말이요?》 룽게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의 명예에 무슨 위험이라도 닥쳐왔는가요?》

《게스타포는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그속에는 질투쟁이들과 고용특무들의 밀고와 각종 의심스러운자들의 심문철이 들어있어요. 그런것들은 모두 이러저러하게 뚜르하노브의 신성한 표상에 치욕의 오점을 찍을거예요. 한때 전 이런 문건들을 도이췰란드어로 번역했댔어요. 제가 그때 임메르만에게 그런 속임수를 믿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나야 믿지 않지.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우리 문헌고를 들추게 될 사람들은 믿을거요. 우리는 원쑤들이 살았을 때 항복하지 않고 우리와의 협조를 거절한 그 앙갚음을 그들이 죽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오.〉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때는 뚜르하노브를 구출할 가능성이 확정적인 때였으므로 게스타포책임자의 말에 그다지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댔어요. 지금은 그이가 돌아가셨으니 그의 명예에 대해 관심할 때가 됐지요.》 환니가 자기 결심을 토로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요?》

《쏘련에 가서 그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최근에 룽게는 환니의 대담한 이야기를 듣는데 습관되였지만 쏘련에 찾아가겠다는 처녀의 결심은 어찌나 그의 상상을 초월했던지 그는 두팔을 벌려보였을뿐이다.

《환니!》 드디여 그는 웃으며 큰소리로 웨쳤다.《당신은 전쟁이 어떤것인지 잊은게 아니요? 첫째로, 누가 당신을 도이췰란드에서 내보내겠소? 둘째로, 설혹 쏘련에 갈수 있다해도 도이췰란드출신이고 게스타포에서 복무한 당신을 누가 믿겠소? 당신은 이걸 생각해봤소?》

《걱정마세요. 다 생각해봤어요. 뚜르하노브를 구출하러온분들을 제게 소개해주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모든걸 이야기하면 저를 쏘련으로 보내줄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룽게가 물었다.

《뚜르하노브를 넘겨주게 될 그 방법이지요.》

룽게는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의 생각과 사업은 뚜르하노브를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별동대의 전투과업수행에만 집중되여있었다.

(뚜르하노브가 살아있지 않는 지금 우리의 전투임무도 변경되여야 한다. 늦기전에 쏘꼴로브를 찾아가서 그에게 환니를 소개하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밝혀야겠다.)

《좋소, 내가 당신을 우리 동지들에게 데려다주겠소.》 그가 동의했다. 《증명서들은 가지고있소?》

《네.》 환니가 고개를 끄덕이였다. 《증명서외에 옷가지와 신발을 가지고왔어요. 당신의 동료들이 저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기를 바라요.》

제 17 장

《숫병아리》식당까지는 《메르쎄데스》를 타고가고 거기서부터는 《케자르》의 말대로 발구수송수단을 리용해야 했다. 별동대원들의 기지에 열한시에 도착했다. 안내자는 그들을 참모부 토굴로 안내했다. 거기서는 쏘꼴로브가 자작만든 책상에 앉아 지형도에 뭔지 표

식하고있었다.

《용서해주시오.》 서로 인사가 끝난 후에 룽게가 시작했다. 《규정을 위반하고 호출도 없는데 찾아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의 사건들이…》

《예, 예. 알고있습니다.》 지휘관이 그의 말을 중둥무이했다. 《그러나 사업에 착수하기전에 우릴 소개해주어야지요.》

《지휘관동지, 죄송합니다. 환니 와그네르입니다. 이분은 쏘꼴로브대위이고.》 룽게가 소개를 했다.

《당신을 알게 되여 기쁩니다.》 쏘꼴로브가 처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나 당신의 출현이 우리에게는 아주 뜻밖의 일이라는걸 고백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당신들을 찾아오려고 서두른것 같지만 뚜르하노브가 사망한 뒤에 전 더는 집에 남아있을수 없었어요.》

쏘꼴로브는 의아하여 처음에는 환니를 쳐다보다가 룽게를 쳐다보고는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고 갑자기 얼굴표정을 달리했다. 그 변화의 참뜻을 알아보지 못한 룽게는 갑자기 몸둘바를 몰라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위동지는 승인없이 여기로 외인을 데려왔다고 책망하시겠지요. 그러나 환니는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니는 될수록 빨리 자기를 전선너머로 넘겨줄걸 요청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요청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환니동무가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친애하는 룽게동무, 잘 알았습니다.》 지휘관이 그를 안심시켰다. 《동무는 가서 동지들과 이야기나 나누시오. 환니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하게 합시다. 그러니 당신은 쏘련에 가고 싶단말이지요? 》 룽게가 나간 다음 쏘꼴로브가 처녀에게 물었다. 《그런 소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설명해주시겠소?》

환니가 설명했다.

《첫째로》 처녀가 허두를 뗐다. 《전 로씨야사람이기때문에 로씨야사람들속에서, 자기 조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둘째로, 남의 집에 얹혀살기가 싫증난지 오래며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뚜르하노브가 사망한 뒤로는 린츠에 남아있을 까닭이 없어졌어요. 셋째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것인데 저의 가장 귀중한분의 명예를 더럽힐 위험에 대해

로씨야사람들에게 꼭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당신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가요?》
《있지 않구요. 그러나 나보다 다른 동무가 더 잘 협조할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그가 있는 곳을 내가 대드리겠습니다.》 쏘꼴로브가 말했다.
처녀는 게스타포에 체포된 군인포로들의 심문철을 번역하면서 그리고 자기 책임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쏘련군대내의 부대조직구성에 대한 일정한 개념을 가지고있었다.
(정치일군의 동의를 받으려나보다.) 하고 처녀는 생각했다.
《당신은 저를 정치위원에게 데리고가시는가요?》
《아니요.》 쏘꼴로브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정치위원은 동지들에게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그럼 나를 반탐전권대표에게 데려가는 모양이구나.) 처녀는 생각하고 부지중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일없어. 난 모든것을 각오하고 있어.)
그들은 참모부 토굴에서 나와 아름드리 소나무들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을 백발자국쯤 걸어가서 크지 않은 토굴앞에 멈춰섰다. 처녀의 긴장한 얼굴을 쳐다보며 쏘꼴로브는 묘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망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가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였다.
(놀라운 사람들이야. 난 마음이 콩알만해졌는데 저 사람은 줄곧 롱담을 하다니.) 처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 락천가를 노엽히고싶지 않아 자기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기로 마음먹었다.
《전 망령을 무서워하지 않을뿐더러 전혀 인정치도 않습니다.》 처녀가 대답했다.
《두고봅시다.》 대위가 속삭이더니 눈을 끔뻑하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니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토굴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의 귀에 익은것이였다. (정말 그일가?) 겁을 먹은 처녀는 생각했다.
(아니야. 그럴수 없어! 죽은 사람이 말을 할수는 없어.)
그래도 혹시나 하여 처녀는 뒤걸음치기 시작했는데 쏘꼴로브는 갑

자기 처녀를 붙들더니 문안으로 들여밀고 군대식으로 류창하게 보고를 했다.
《대좌동지, 귀한 손님을 소개하도록 허락해주십시오. 이 손님은 영원히 린츠를 떠나왔습니다. 우리 나라로 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있습니다.》
밝은데서 어두운 토굴안으로 들어선 환니는 처음에 아무것도 가려볼수 없었으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불현듯 이틀동안이나 저 세상으로 영원히 떠나간줄 알았던 사람을 눈앞에 보게 되였다. 뜻밖의 일에 처녀는 아연실색했다. 처녀는 악 소리를 지르며 비칠거렸다. 뚜르하노브가 제때에 처녀를 붙들어 가슴에 안지 않았다면 처녀는 쓰러졌을것이다.
이런 정황에서 제삼자는 불필요한것이다. 그래서 쏘꼴로브는 소리없이 문가로 뒤걸음질쳐서 슬그머니 토굴을 빠져나왔다.

제 18 장

토굴문밖에서 조심스런 발자국소리가 들려왔을 때는 정오가 훨씬 지나서였다.
《사람들이 이리로 오고있소. 동무는 차비가 됐소?》 뚜르하노브가 물었다.
환니는 본능적으로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재빨리 머리를 쓰다듬은 다음 토굴주인이 앉아서 무엇인가 쓰고있는 책상께로 바투 다가앉아 그에게 능청스런 눈길을 보내더니 갑자기 웃음보를 터뜨렸다.
《보시다싶이 전 언제나 차비가 돼있어요.》
문을 두드리더니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좌님, 들어갈수 있어요? 점심식사를 가져왔어요.》
《물론 들어올수 있지, 스떼판.》 뚜르하노브가 승인했다. 《누가 너를 여기로 보내더냐?》
쏘련군 병사복차림의 연약한 소년이 들어왔다.

《특무장이 여기로 점심식사를 가져다드리라고 명령했어요. 그인 저를 대좌님의 련락병으로 임명했어요. 이젠 제가 언제나 대좌님휘하에 있게 돼요.》

《그렇구나 !》 대좌가 웃었다. 《련락병이 되는게 마음에 드느냐?》

《대단히 마음에 들어요. 저에게 기관단총이나 보총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답니다. 그땐 제가 진짜병사로 될테지요. 안그래요?》

《그래 ! 그래 !》 대좌도 응수했다. 《련락병도 다른 모든 군인들과 다름없는 병사란다. 그렇지만 몇가지 행동규칙에 대해서는 미리 합의를 보자꾸나. 쏘련에는 지주도 자본가도 없다. 그러니 사업상에서도 학업에서도 군사복무에서도 동지만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선 〈…님〉,〈…씨〉,〈…나리〉란 호칭이 없다. 그대신 〈동무〉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어. 이제부터 나에겐 네가 련락병동무이고 너에겐 내가 대좌동무이다.》

《알았습니다. 대좌동지 !》 스떼판이 대답했다. 《돌아갈만합니까?》

뚜르하노브가 승인했다. 그러자 소년은 진짜병사인양 거수경례를 붙이더니 제 자리에서 픽 돌아 발꿈치를 딱 붙이고 정보로 걸어 토굴을 나갔다.

《기특한 애로군요 !》 환니가 웃었다. 《어디서 저런 애를 구하셨어요?》

《처음에 우린 뽈스까에서 만났고 이번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만났고 탈주도 함께 했소.》

《탈주이야기가 나왔으니말이지만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였는지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임메르만은 당신의 끔찍한 시체를 제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하느님께 맹세까지 했고 당신의 번호가 붙어있는 피에 젖은 저고리까지 저에게 가져왔댔어요. 누가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해주었나요?》

《쏘꼴로브부대동지들과 이 지방 반파쑈투사들 그리고 동무가 나를 구원해주었소.》

《제가요?》 환니가 놀랐다.

《그렇소. 동무도 스떼판도 나를 구원해주었소. 동무가 아니였다면 별동대원들이 나를 찾아내지 못했을거요. 그리고 동무가 나에게 지형도를 가져와서 쏘꼴로브의 파견원들을 만날 지점을 짚어주지 않았다면 스떼판이 그들을 찾아 제때에 추격에서 벗어날수 없

었을거요. 임메르만이 동무에게 가져왔다는 그 저고리를 두고 말하면 사실과 거의 어긋나지 않소. 그 저고리는 진짜 내것이였소.》그리고 대좌는 그 잊지 못할 밤에 있었던 모든것을 이야기했다.

《당신의 생명은 정말이지 위기일발에 처했댔군요.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번한걸 생각하면 막 무서워요. 허지만 이젠 그 누구도 우릴 갈라놓지 못할거예요.》

《전쟁을 제외하고는》대좌가 처녀의 말을 정정했다. 《대포소리가 울리고 피가 흐르는 한 우리는 자신을 마음대로 할수 없소.》

《무슨 말씀이세요!》환니가 몸서리를 쳤다.《당신이야 방금 진짜 지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지 않았나요. 그래, 그만하면 우리가 바라는대로 살아갈 권리를 못가질가요?》

《글쎄, 그런건 생각해보지 못했소. 그러나 파시즘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수 없다는것은 명백하오.》

《옳아요. 저도 히틀러군대를 소멸해야 한다는덴 동의해요. 그러나 당신은 이 사업에 많이, 아주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요. 이젠 히틀러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지옥의 고통도 겪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나 그 성업에 이바지하라고 하세요. 당신은 겪은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히틀러도이췰란드의 국방군, 공군, 해군, 수비군은 어차피 우리가 없어도 피멸될거예요.》

《허나 파시즘은 무장한 악당들만이 아니요.》뚜르하노브가 조용히 반박했다. 《파시즘은 또한 전체 민족들의 육체적소멸을 기도하는 기사와 전문가, 학자와 국가활동가이기도 하오. 오늘 동무는 어머니가 어떻게 파멸되였는지 나에게 이야기했소. 그런데 동무가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새로운 대량살륙무기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있소. 우리가 오늘 그의 사업을 방임해두면 래일은 수백만 사람들을 죽일수 있소.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린 무기를 놓을수 없단말이요. 동무도 우리와 함께 갈테지?》

《물론 함께 가겠어요! 허지만 우선은 당신의 건강부터 회복시키고 싶어요. 당신은 얼마나 여위였는지 모르겠어요. 항간에서 말하듯이 뼈와 가죽뿐이예요.》처녀가 그의 어깨를 정겹게 쓸어주며 말했다.

《괜찮소.》대좌는 미소를 지었다.《뼈만 성하면 살은 나중에도 질

거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린츠시로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체 하시오. 그리고 동무의 책임자와 와그네르교수의 신임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하시오. 구체적인 과업은 룽게동무를 거쳐 받게 될거요. 약속하겠소?》
《전 정말 당신곁을 떠나고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르게 할수 없다면 동의하는수밖에 별 도리가 없군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게 되나요?》 환니가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곧 만나리라 생각하오. 우린 지금 린츠교외에 기지를 꾸리자고 계획하고있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일이라도 만나는데 방해가 될게 없을거요.》
스떼판이 돌아왔다. 그는 참모부에 지휘관들이 모여 대좌동지를 기다리고있다고 알려주고 책상에서 식사한 그릇들을 거두기 시작했다.

제 19 장

잊을수 없는 그 2월의 밤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벌어진 영웅적사건들은 항쟁자들의 장래활동에 흔적을 남기였다. 정황은 그들이 종전 계획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투쟁전략에도 일부 수정을 가하지 않을수 없게 했다. 별동대활동에서 특히 그러했다. 쏘꼴로브의 부대는 뚜르하노브를 구출한 후에는 해산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대좌는 부대에 도착해서 앞으로 부대활동을 변경시킨다는것을 알자 맨 먼저 그것을 반대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모험할수 있소?》 그가 물었다.
《별동대를 락하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사령부는 무엇보다 먼저 조국앞에 쌓은 당신의 특출한 공로를 고려했습니다.》 꼬미싸로브정치부대장이 흔히 그렇듯이 요란한 말로 허두를 뗐다.
《에스빠냐공민전쟁의 영웅이며 영광떨친 뾜스까－쏘련빨찌산부대장은 불행에 빠졌을 때 동지들의 구원을 받을 응당한 권리를 가

지지요.》
《량심이 깨끗한 군인은 누구든지 그럴 권리를 가지오. 》뚜르하노브가 반박했다. 《물론 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무들에게 감사를 드리오. 그러나 이전 공로로만 살아간다는건 쏘련사람으로서는 지나친 사치요. 물론 집에 돌아가 가까운 사람들속에서 근심없이 살아간다는것이 나쁠거야 없소. 허지만 그렇게 되면 누가 파쑈의 짐승들을 쳐물리치겠소? 나는 지금의 자기 처지를 이렇게 리해하고있소. 조국이 나를 파시스트노예의 처지에서 해방시켜주었으니 나도 응당 덕은 덕으로 보답해야 한다고말이요.》
《옳습니다 !》 그의 말을 쏘꼴로브가 지지했다. 《대좌동지가 부대앞에 뭔지 중요한걸 제시하려는것 같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동무들은 소위 〈기적의 무기〉즉 도이췰란드인들의 말로 〈분데르와패〉란 말을 들었을것이요.》
《겝벨쓰의 잠꼬대이겠지요.》 꼬미싸로브가 얼굴을 찡그렸다.
《도이췰란드속물들의 기분을 들뜨게 하는 머저리창안품이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소. 그러나 실지로 뭔지 만들고있는것도 사실이요.》대좌가 반박했다. 《〈V－2〉에 대해 들은 일이 있소?》
《듣다뿐이겠습니까. 런던방송은 싫증나리만큼 오래 떠들어댔습니다.》 꼬미싸로브는 수그러들려 하지 않았다.
《물론 영국인들이 새로운 무기의 위험성을 과장할수도 있소. 허지만 아무튼 그 무기는 존재하고있소. 》뚜르하노브가 심각하게 말했다. 《얼마전에 한사람은 도이췰란드인들이 〈V－2〉보다 훨씬 위험한 무기를 유명한 학자의 지도밑에 연구하고있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소. 들어보십시오.》그리고 그는 엘피모브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그런 협잡군의 말을 믿습니까?》 꼬미싸로브가 물었다. 《제 생각엔 엘피모브가 자기의 배신행위의 죄과를 덜기 위해 괴이한 실험실과 그 박사이야기를 지어낸것 같습니다.》
《실험실은 어떤지 모르겠소. 허지만 그걸 지도한 사람은 실재하오. 더구나 나는 그가 연구한 약재의 효능을 직접 체험했소. 그 약재를 주사한 이후 나는 얼마동안 자신을 통제할 기능을 완

전히 상실했댔소. 그리하여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질문한 모든것에 대해 진실을 죄다 말했댔소. 요행 나는 츄와 슈어로만 말했고 파시스트놈들에게는 그때 통역이 없었소. 그런 놀라운 약재를 만들어낸 학자는 보다 큰것도 만들어낼수 있을거요.》

엘피모브에 대한 이야기가 쏘꼴로브에게는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다. 환상소설의 열렬한 애독자인 그는 가린기사와 그의 진짜쌍곡면이 실지로 존재할수 있다는것을 믿고있었다.

《전 엘피모브사건의 진실성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우리는 즉시에 파쑈학자의 비밀실험실을 찾는데 착수하여 그것이 실지로 존재한다면 소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쑈꼬브장령이 우리의 그런 자의적인 행동을 승인하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정치부대장이 의혹을 표시했다.

《짐작할게 있소? 차라리 장령에게 물어봅시다.》 쏘꼴로브가 제의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부대앞에 제시된 전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했다는 보고와 함께 바르쑈꼬브장령앞으로 보내는 뚜르하노브의 암호편지도 전송했다. 회답은 일주야가 지나서 왔다. 빨찌산운동사령부는 별동대작전이 성과적으로 수행된것과 관련하여 부대 전체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특별히 공로를 세운 동무들에 대한 정부표창을 내신할것을 제의한다고 지휘부에 통지했다. 계속해서 파쑈비밀실험실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만일 실험실이 실지로 존재한다면 범죄자들의 책임추궁을 위해 그 범죄활동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마감으로 장령은 뚜르하노브를 지내 지치지 않게 하며 체스꼬동무들을 통해 권위있는 전문의사를 초청하여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의사를 초청하고 필요한 약을 구하는데 일체 비용은 부대공금으로 지불하라고 통고했다.

《그러니 상부에서는 우리의 제의를 지지하는군요.》 쏘꼴로브가 기뻐했다. 《시급히 우리의 활동계획을 작성하고 다음에 대좌동지의 건강회복에 착수합시다.》

격리호동의 폭동은 다른 원인으로 임메르만형제의 리해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집중수용소는 지방게스타포기관의 산하가 아니였으므로

마우트하우젠수인들의 집단탈주에 대해 루돌프 임메르만이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월 2일 이후에 기분이 나빴으며 물에 빠졌던 놈처럼 후줄근해서 다니였다. 한주일후에 수용소소장 찌라이쓰가 개인번호와 대조한 시체의 수가 격리호동 수인명단과 완전히 일치했으며 시체전부를 화장터에서 태웠다는것을 정식으로 통보했을 때에야 게스타포책임자는 운수가 조금 트이는듯싶었다.

(수용소소장은 거짓말을 했었다. 20호동에서 달아난 수인들이 다 잡혀서 죽지는 않았다. 레닌상계관인인 작가 에쓰에쓰 스미르노브는 《죽음의 수용소 영웅들》이란 저서에서 지금까지 살아서 쏘련에서 활동하고있는 그 폭동참가자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들고있다. 이. 바클라노브, 웨. 쉐뻬쨔, 이. 비쮸끄브, 아. 미헤옌끄, 웨. 쏘쎄드끄, 웨. 우크라인쩨브—저자주)

루돌프 임메르만은 (이젠 뚜르하노브에게 영원히 십자가를 세워도 되겠지!) 하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환상에 불과했다. 형이 그에게 그것을 경고했다.

《그래, 톰슨씨가 〈화르벤웨케〉련합회사의 주권을 대고 시작한 놀음에서 뚜르하노브와 같은 주패를 잃고도 타협하리라고 생각하냐?》 형이 물었다.

《타협하겠는지 안하겠는지 난 모르오. 허지만 뚜르하노브가 살아있지 않는만큼 그들에게 우리를 협박할 권리가 없다는것만은 명백하지요.》 동생이 투덜거렸다.

《너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회사는 그렇지 못해. 거미는 어디까지나 거미니라.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파리의 진을 다 빨아먹기전에는 거미가 가만히 있지 않는 법이야.》

《자기를 지내 낮추지 말아요. 우리는 겉보기처럼 그렇게 고립무원하지 않아요.》 동생은 형을 위안하려 했다.

《허튼 소리를 말아. 허튼 소리를 … 그들은 은행을, 전세계의 무진장한 재부를 가지고있다. 〈공중요새〉까지도말이다. 그런데 우리에겐 무엇이 있느냐?》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뚜르하노브에 대해 통보하세요. 아무튼 그 일을 락착지어야 하니까요. 그자들에게 최후의 결사전을 걸어봅시다.》

큰 임메르만이 예상했던바대로 뚜르하노브에 대한 최후통보는 쮸

리히의 동료들의 로골적인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은행가는 즉시에 그를 자기한테 오라고 불렀다. 그는 곧 스위스로 떠나 이틀 묵었는데 아주 기분이 나빠서 집으로 돌아왔다.

《우린 이번에 그들의 신용을 톡톡히 잃었다.》 서재에 그들 두사람만이 남았을 때 그가 말했다. 《사태는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그러니 그들을 설복해냈다는 말이군요.》 동생이 형의 말허리를 꺾었다.

《그래. 설복해냈지. 그런데 그 대가가 얼마인지 아니? 〈아나르힌〉과 〈마귀의 찌아니드〉생산을 위한 기술문건전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약속한걸 3년동안 기다리라지요.》 작은 임메르만이 코웃음을 쳤다. 《3년이면 별일이 다 일어날수 있지요.》

《기뻐할건 없다. 그 사람들도 숙맥이 아니야. 서면계약서를 받아냈다. 난 나의 의무를 수행할테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만 네게 심중히 경고한다. 두번다시 속임수를 쓰면 그 사람들이 참지 않을게다.》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한단말이요? 난 아무런 의무조항에도 수표한게 없어요. 나한테선 얻어먹을게 없단말이예요.》

《으시대지 말아! 그 사람들은 서면계약서가 없이도 누구든 닥치는대로 해치울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 이상 두번다시 그러지 말아. 너와 같은 인간들을 그 사람들은 요시찰명단에 넣고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전후에 자기의 보호하에 살 자리를 주지 않는다더라. 이걸 명심해라. 미리 생각하란말이다.》 형이 충고했다.

제 20 장

1945년 2월말에 쏘련군대는 히틀러군의 기반에서 마쟈르의 수도 부다베슈뜨를 완전히 해방했다.

(원의 차례구나!) 와그네르교수는 가슴아프게 생각했다. (적은 도이칠란드국경에 접근해오고있다. 총통의 군대는 퇴각하고있다. 만년대

계의 제3제국에 대한 공상은 허물어지고있다. 그래 히틀러가 민족의 신뢰에 정말 보답을 못하게 되는가?)

학자인 와그네르는 그 어느 민족력사에나 올리막과 함께 내리막도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것은 옛적부터 서로 교체되여왔다. 그러나 내리막이 있은 후 민족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영원히 력사무대에서 사라진 시기가 조만간에 닥쳐온것이다. (고대에짚트도 그랬고 아씨리야, 바빌로니아도 그랬다.) 교수는 중학교 교과서를 상기하며 중얼거렸다. (이 민족들은 력사가 그 이름은 보존하고있지만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말았다. 도이췰란드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지?) 그는 자문자답했다. (늦기전에 필요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한 충분히 그럴수 있다. 민족의 운명은 전쟁에서 결정된다. 이 전쟁에서 우린 패할수 있다. 그러나 쏘련을 일방으로 하고 영국과 미국을 타방으로 하는 불상용적모순은 아직 도이췰란드민족을 보존할수 있게 하고있다. 붕괴되고 쇠약해진 도이췰란드민족은 앞으로 다시한번 자기 위력을 회복해야 할것이다. 그러자면 또하나의 전쟁이 발발할것이다. 전쟁은 우뢰가 지나가듯이 전세계를 휩쓸것이다. 《아나르힌》이나 《마귀의 찌아니드》같은 특수무기를 지니고있는측이 승리자로 될것이다. 도이췰란드민족은 그 무기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적을 타승할것이며 다음에는 세계제패를 위한 싸움에서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타승해야 할것이다. 그때에 이르면 지배민족과 노예민족을 만들데 대한 총통의 지시가 수행될것이다. 전세계의 지배자는 도이췰란드인이 될것이고 노예로는 나머지 민족이 될것이다. 이렇게 되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먼저 비밀무기를 감추어두는것이다.

내 노력의 결과가 우리 적들의 소유물로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 무기를 미래의 총통의 손에 넘겨주어야 한다. 도이췰란드인의 다음세대가 무기를 잡게 될 이삼십년후에 기필코 히틀러를 교대하여 대두할 그 미래의 총통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유감이지만 나자신은 그 행복한 날까지 살지 못할것이다. 그러니 《아나르힌》이나 《마귀의 찌아니드》의 비밀을 젊은 세대에게 넘겨야 할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넘길것인가?)

와그네르는 자기가 알고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꼽아보기

시작했다. 자식들가운데서는 아들 리하르드가 가장 믿음성이 있었으나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맏딸 마그다는 새 총통이 출현할 때까지 살수는 있으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 환니는 마그다보다도 기대할수 없다.(그 애는 도이칠란드인이 아니라 로씨야인인데다가 언제든 그 애가 자기 출신의 비밀을 알아차리게 되는 날에는 나의 연구결과를 미래의 총통이 아니라 로씨야인들에게 넘겨줄테지.) 하고 그는 생각하며 흥분했다.

(룽게가 또 한사람 있다. 그가 아직은 와그네르일가와 인척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의례히 그렇게 될것이다. 그것들이 뭘 그리 꾸물거리는지?) 교수는 리해가 안되였다. (마그다는 내앞에서 제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룽게는 그 애 마음에 든다. 그 사람은 내 마음에도 든다. 아주 겸손하고 선량하고. 그렇다고 결코 어리숙하지도 않지. 그 사람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 하겠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헬무트 크라메르뿐아니라 리하르드도 대신하게 될는지 누가 알겠는가.)

와그네르교수는 무엇이든 결심하면 언제나 그걸 실현시키는데 특별한 완강성을 발휘했다. 룽게에 대한 료해는 딸에게 빈틈없이 캐여묻는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마그다는 남편의 이전 부관과 자기와의 관계를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그의 좋은 측면만을 강조했다.

《때가 오면 우린 꼭 결혼하겠어요.》 딸이 확언했다. 《그이보다 더 훌륭한 남편은 생각조차 할수 없어요. 아버지, 우린 행복할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는 두 아이를 거느린 미망인이 날마다 젊은 남자들이 줄어드는 전쟁판에 룽게와 같은 남편을 맞는다는것은 정말 꿈도 꿀수 없는 일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만일 교수가 딸의 행복만 관심한다면 두 사람을 축복만 해주면 그만이였다. 그러나 교수는 이 경우에 다른 목적을 추구했다. 그는 미래의 사위의 정치적견해를 더 듣고싶어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아버지와 딸은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정치가 가정의 행복에는 믿음성있는 기둥이 못된다는것을 저는 생활을 통해 터득했어요. 일생에 정치미치광이 하나면 충분해요. 그 사람에게서 쓴맛을 실컷 맛보았어요. 또다시 그런 고통을 맛보긴 질색

이예요.》

《딸아, 넌 정치와 책들을 혼돈하는구나. 이건 서로 다른 개념이다. 우리 시대에 정치는 남자들의 가장 신성한 일이란다.》 교수가 딸을 설득시키려 했다.

《다른 남자들이나 그러라지요. 저의 남편은 그럴수 없어요. 그이는 공리공담이 아니라 가정일에 종사해야 해요. 다행히도 룽게는 출세나 명예는 적게 생각해요. 그인 겉치레를 좋아 안해요.》

《그렇다고 하자.》 아버지는 불쾌한듯 손을 저었다. 《허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 할게 아니냐. 다른 민족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만이라도 이야기하려무나. 도이췰란드주민에 대해선 어떻게 보더냐?》

《그이가 저나 저의 애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거이상 더 있어요?》 마그다가 미소했다. 《그 점에서 우린 그에게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그이는 다른 오스트리아사람들 못지 않게 도이췰란드인들을 사랑해요.》

딸의 대답이 아버지를 흡족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룽게를 더 잘 리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직접 이야기해보아야 했다. 교수는 처음에 룽게를 자기에게 부르려 하다가 고쳐생각하고 자신이 그한테 가기로 했다.

(자연스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더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겠지.) 그는 생각했다. (외인들이 볼수 없는 집에서 만나기로 하자.)

다음날 교수는 딸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룽게는 교수가 만나러 오겠다는 기별을 받지 못하고있었으므로 이 불의의 방문목적을 인차 알아차릴수 없었다. 마그다의 행동도 그를 저도 모르게 긴장시켰다. 그 녀자는 줄곧 그들 두 사람만 남게 하려 애썼다.

(뭔가 신호하고있구나.) 룽게가 알아맞췄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겠다. 될수록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겠다.)

식탁에 앉아서도 대화가 순조로이 진행되지 않았다. 에리카가 여느때처럼 자기 공부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눈짓을 하자 에리카는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런데 막스가 침묵을 깨뜨렸다.

《점심먹고 룽게아저씨가 우리를 스케트타러 데리고가겠대요.》

《룽게아저씨는 오늘 너희들을 아무데도 데리고가지 못한다.》 어머

니가 말을 막았다.
《아저씨가 약속했어요.》 어린 막스가 고집을 부렸다. 《아저씬 우리에게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아저씨, 정말 그랬지요?》 막스가 그의 두둔을 바라며 쳐다봤다.
《그만해!》 마그다가 소리쳤다. 《어른들에게 성가시게 굴지 말어.》
소년은 말을 그쳤으나 식탁에서 일어서자 룽게에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무튼 스케트타러 가요. 정말 가지요?》
《어머니가 승낙하시면 가자.》 룽게가 속삭였다.
《승낙할거예요. 어머닌 마음이 어지시니까. 어머닌 날 사랑해요.》
어머니는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엿들었다. 아이와 어른의 우정은 감동적이였다. 어머니의 심장은 기쁨으로 들먹이였고 감정이 북받쳐서 막 눈물이 쏟아질지경이였다.
《또다시 남자들의 비밀이군요. 꼭 남자들을 복수할 때가 올거예요!》 마그다는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짓고 손가락으로 위협했다. 그러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반짝이였다. 《아버지, 룽게와 두분이 말씀하세요. 전 아이들을 좀 돌봐주겠어요.》
막스는 헤여질 때 아저씨볼에 입을 맞추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두 어른은 말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이 집에서 지금과 같은 장면이 자주 벌어지오?》 교수가 물었다.
《거의 매일이지요.》 룽게가 웃었다. 《전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남의 아이들인데두요?》 한참 생각하고나서 와그네르가 물었다.
《어째서 남의 아이란말입니까?》 룽게가 노여워하는체 했다. 《그애의 어머니와 저는 …》
룽게는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창문쪽으로 돌아서서 입을 다물어버렸다.
《당신은 〈결혼하려 한다.〉고 말하려 했지요?》 교수가 마저 말

했으나 상대편은 계속 침묵을 지켰다. 《뭘 숨기겠소. 안착되지 못한 딸의 생활때문에 난 오래전부터 걱정하고있소. 아시겠지만 남자도 혼자 살긴 쉽지 않지만 녀자는 몇배나 더 고달프지요. 〈과부의 신세는 벌판의 풀대와 같아서 바람에도 꺾이우고 해별에도 마른다.〉고 하지 않았소. 법적결혼을 하는데 무엇이 방해되는지 말해보시오.》

《갖출것이 채 갖추어지지 못한거지요.》 룽게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와그네르는 알아듣지 못했다. 《내 딸에게는 갖출게 충분히 갖추어진것 같은데… 집도 린츠시의 귀족주택구역에 있고 은행에 구좌를 가지고있으며 집안에 은, 금식기들과 철에 따르는 옷과 신발, 장식품들, 유가증권까지 있소. 그래 그것도 부족하오?》

《나 개인에게는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나는 다만 내자신이 부양을 받고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점잖은 남자라면 응당 자기 재산으로 가족을 먹여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겐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룽게가 한숨을 쉬였다.

《앞으로는 있을것 같소?》

《꼭 자기것을 장만하겠습니다.》 룽게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렇다고 마그다는 나를 결코 섭섭하게 생각지 않을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애들은 일생 아버지의 재산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의 많은 부분은 법적으로 마그다에게 속하는거요. 만일 당신이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 원인이 필요한 재산이 없기때문이라면 내가 딸에게 말하여 이 재산을 당신의 관할하에 넘길수도 있소.》

《어떤 형식으로말입니까?》 룽게가 교수의 가시눈을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았다.

《그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게 아니요. 마그다는 그 돈을 당신의 재산으로 완전히 넘길수도 있고 혹은 대여형식으로 당신이 부유해진후에 반환받는 조건으로 넘길수도 있소. 동의하오?》

《아닙니다!》 룽게가 딱 잘라말했다.

《어째서?》 교수는 진심으로 놀랐다.
《두가지 원인때문입니다. 첫째로 마그다는 돈을 주고 남편을 사는것과 같은 천한 일을 결코 하지 않을것이고 둘째로 저자신도 가정의 빚쟁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안해가 필요하기때문입니다.》
《그럼, 나에게서 지참금형식으로 돈을 가져가면 어떻겠소?》
《감사합니다만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전 우리 부부의 행복이 금전관계로 흐려지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진심으로 딸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내가 량심적으로 필요한 돈을 벌도록 도와주십시오.》 룽게가 부탁했다.
지참금의 거절은 와그네르의 아픈데를 찔렀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여 누구든 닥치는대로 상욕을 퍼붓고 모욕할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감정을 로출시키지 않고 한참 생각에 잠겨있다가 마음을 가라앉혔다.
(흔히 남자들의 사랑은 안해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을 얻는 이런 방법을 단호히 배격한다. 진실한 사랑만이 이런 미련한짓을 하게 할수 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와그네르는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사위의 고상한 도덕품성을 확신하고나서 미리 짜놓았던 마지막실험에 착수했다.
《내가 당신에게 취직하도록 도와주겠소. 얼마전에 마우트하우젠에서 도주한 폭도들이 화학공장에 조직된 자위대를 되게 족쳐놓았소. 전투에서 부대장이 전사했소. 바란다면 당신을 그 자리에 소개해줄수 있소.》
《봉급을 얼마나 줍니까?》 한시바삐 자위대에 침투하라는 쏘꼴로브의 과업을 상기하고 룽게가 물었다.
《정규군보다 적지 않소. 당신은 이전에 에쓰에쓰장교였기때문에 지방기관의 결심으로 개인봉급을 제정할수 있소. 시장은 나의 오랜 친구요. 그 사람은 당신을 섭섭하게 해주진 않을거요.》
《그럼 나만 동의하면 되는군요.》
《잘 생각했소!》 와그네르가 기뻐했다. 《오늘이 아니라 래일부터는 당신이 제국수호자대렬에 다시 서게 될거요. 그럼 당신은 전쟁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오.》

룽게는 로골적으로 행동하리라 결심했다.
《특별한 환상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적은 우리보다 몇배나 우세합니다. 우리의 예비는 밑창이 나가는데 적들은 새로운 예비를 끊임없이 도입하고있습니다. 게다가 동맹국들은 우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설사 우리가 항복한다고 해도 비겁하다거나 락심했다고 우릴 비난할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교수는 떠보듯 룽게를 훔쳐보았다.
《비밀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소?》 그가 물었다. 《〈기적의 무기〉를 쓰면 력사가 바뀌여질거요.》
《무기자체로써는 아무것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무기의 효과성은 그것을 능숙하고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만일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그걸 써야 합니다. 시간을 늦추는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말하자고 하는거요?》
《전후에 모든 무기는 전승자들에게 전리품으로 로획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좋을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소?》 교수는 목소리를 낮추어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늦기전에 그걸 사용하든가 제때에 소각해버려야 합니다. 도이췰란드무기는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만 리익을 주게 되여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세번째 가능성이 수행되여야 할것 같소.》 교수가 생각에 잠겨 씨벌거렸다.
《어떤 가능성말입니까?》 룽게가 호기심을 보였다.
《비밀무기는 새 세대의 도이췰란드인들에게 필요될수 있소. 놈들이 언제까지나 전승자들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다니게 되지는 않을테니까. 20년이나 30년 지나면 우리가 시작하여 끝을 보지 못한 일을 그들이 받아안게 될거란말이요.》
《바로 그걸 우리의 적들은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적들은 우리 무기를 자기 손에 넣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감출수 있소.》
《권총, 수류탄, 자동총, 극상해서 기관총이라면 감출수 있지요. 비행기, 로케트, 잠수함같은걸 어디 숨겨보시지요.》 룽게가 미소를 지

었다.
《비행기나 잠수함같은건 물론 숨길수 없지. 그러나 제작되였거나 제작중인 무기의 설계도면이나 각종 기술적타산안들은 적에게서 숨길수 있을뿐아니라 반드시 숨겨야 하오. 바로 우리는 이것을 관심해야 되는거요.》
룽게는 안도의 숨을 쉬는 시늉을 했다.
《그건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런 비밀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적의 재산으로 되지 못하도록 오래전부터 관심해왔을터이니까요.》
《그러길 기대해야지.》 교수는 마치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을 알고있은듯이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언제건 이 대화를 계속해봅시다. 반대가 없으면 지금 시장에게 찾아갑시다.》

제 21 장

1945년 겨울에 들어서면서 동맹국들은 하나둘 전쟁에서 떨어져나가고 도이췰란드의 동맹국중에서 일본만이 남았다. 일본은 아직 이럭저럭 지탱은 하고있었으나 히틀러는 일본의 실제적인 방조를 바랄수가 없었다.
일본자체가 해안봉쇄로 헐떡이고있었다.
도이췰란드는 언제나 두개 전선에서 싸우게 될가봐 두려워했다. 이 위험성이 전쟁초기에는 가상적이였으나 지금은 이미 실현되였다. 자기 동맹자들과 주구들의 도움을 받을수 없게 된 파시스트도이췰란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가빠하기 시작했다. 전선에서는 무기가 모자랐고 후방에서는 공업용 전략자재가 부족했다. 운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인적예비는 다 소모되였었다. 그런데 가혹한 전쟁은 점점 더 큰 희생을 요구했다. 총통의 명령으로 예비군을 모집했으며 다음에는 군대에 초모될 나이가 채 되지 않은 미성년과 어린애가 달리지 않은 젊은 녀성들까지 입대시켰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모자랐다.

후방을 보위하기 위해 자위대가 조직되였다. 이런 부대는 《화르벤웨케》회사의 화학공장 로동자마을에도 생겨났다. 이 부대의 절반인원은 미성년 아니면 화약냄새를 맡아보지 못한 로인들이였다. 이 부대를 퇴역기병소좌가 지휘했다. 소좌는 짧은 기간에 자기 대원들에게 보총사격과 육박전, 경비, 순찰근무 기타 지식을 주입하며 주민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야 했다.

부대대원들이 집결된 로동자구는 후방에 있었으므로 자위대원들은 적들과 실전을 할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운명은 민병들을 무자비하게 희롱했다. 훈련시간표에 따라 부대장은 2월 3일 아침에 적 락하산병 및 빨찌산과의 실전방식들을 대원들에게 훈련시켜야 했다. 민병들에게 공탄과 작탄을 공급한 다음 가상적인 빨찌산토벌전을 훈련시키려고 그들을 가까운 숲속으로 이끌어 갔다.

규정의 요구대로 숲속을 빗질하기 시작했다. 상당히 넓은 숲지역을 에워싼 민병들의 산병선이 무질서한 공탄으로 아침정적을 깨뜨리며 포위를 좁혀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불행이 생겼다. 포위환안에는 가상적인 빨찌산대신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탈주한 후 이 산속에 숨어있던 상당히 많은 수인들과 맞다들었다.

예상치 못했던 싸움이 벌어졌다. 민병들은 보총으로 쏘아대며 공격에로 진입했다. 이전 마우트하우젠수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반공격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만세!》를 웨치며 폭풍처럼 민병들에게 달려들어 무기는 없었지만 신속하게 적대렬을 와해시키고 보총을 빼앗아 그것으로 육박전규칙에 따르는 전투를 개시했다. 전투결과는 도이칠란드인들에게 처참한것이였다. 무기를 내던지고 맹렬한 추격에서 벗어난 민병들만이 살아남았다. 이제는 이전 에쓰에쓰중좌인 룽게가 이전 민병부대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을 걷어모으고 《히틀러청년단》의 미성년들로 부대를 보충하여 전투력있는 단위로 양성해야 했다. 와그네르교수가 예견한바대로 시장은 기쁨을 숨기지 못해하며 그를 민병대 대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고 봉급을 정했으며 이 모든것을 문건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부대의 전투력을 하루속히 회복하도록 노력하시오. 만일 당신이 이 일을 해내기만 하면 우린 당신의 부대에 중대한 임무를 맡기려 하

오.》 헤여질 때 시장이 충고했다.
《내가 자랑하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부대의 전투력을 가장 빠른 기간에 회복해놓겠다는것을 책임적으로 확언합니다.》 룽게가 약속했다.
《교수님이 당신을 중좌 카를 케이네르트에게 소개해줄겁니다.
그 사람은 특별대상물을 호위하는 수비대 대장입니다. 당신의 부대는 그 수비대와 협동하게 될것입니다.》
다음날 룽게는 에쓰에쓰중좌 카를 케이네르트와 만났다. 그는 얼굴이 돌미륵처럼 무표정하고 머리칼은 갈색이며 귀가 뻘쭉하고 이발이 성기게 난 서른두살의 젊은이였다. 에쓰에쓰부대에는 그러한 미개인들이 적지 않았기에 그의 용모가 한 군인을 련상시키지 않았다면 룽게는 그렇듯 유심히 그를 쳐다보지 않았을것이다. 그의 집요한 눈길을 포착한 케이네르트는 불쾌한듯 씨근거리더니 모가 나게 생긴 턱을 들어올리고 두툼한 입술을 열어 옥문 이발을 드러내며 풍자만화의 거인비슷한 자세로 얼마간 굳어져있었다.
《아니, 내 얼굴을 조각이라도 하려는게 아니요?》 중좌가 퉁말로 물었다.
《용서하십시오. 난 당신을 모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룽게가 당황해했다.
《그럼, 어째서 날 그리 뚫어지게 보는거요?》
《당신의 얼굴이 몹시 낯이 익어서 그럽니다. 당신 친척중에 누군가 동부전선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얼굴에 상처자국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룽게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칼자국말이요?》 케이네르트가 물었다. 《그는 나의 사촌형인 요제프 후베르련대장입니다. 당신은 그를 념두에 둔게 아닌가요?》
《네, 생각납니다!》 룽게가 소리질렀다. 《그때 그분은 련대를 지휘했습니다. 련대장은 로스또브부근에서 부상을 입었지요. 내가 직접 그분을 소개민병원에 넘겨주었습니다.》
《참 흥미있는데요. 어쩌다 그렇게 되였는지 이야기하시오.》 케이네르트중좌가 활기를 띠였다.

룽게는 이야기를 했다. 도이췰란드군은 로스또브를 내놓았다. 후베르련대장이 지휘하던 련대는 사단의 퇴로를 견지하면서 돈의 좌측강안을 방어하고있었다. 에쓰에쓰살인귀들의 처지는 어렵게 되였다. 쏘련포병과 공군의 명중탄이 그들을 답새기고 땅크와 보병이 완강하게 전진해와서 열시간여에 걸치는 전투끝에 히틀러군은 보총과 기관총의 집중사격을 받는 좁다란 강안지대만을 겨우 지탱하고있었다.

(저녁까지만이라도 지탱했으면 어둠을 타서 이 저주로운 강을 도하할수 있으련만.) 도이췰란드인들이 생각했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아직 멀었으며 로씨야인들의 공격은 시시각각으로 더 강렬해졌다. 극도에 달한 그 시각에 련대의 무전이 사단참모부에 련대장이 중상을 입었다고 보고하고는 잠잠해졌다.

《제일 유능한 나의 련대장이 위험에 처했소.》 크라메르사단장이 머리를 싸쥐였다. 《부관! 장갑정과 자동총소대를 거느리고 신속히 저쪽 강안으로 가시오! 후베르련대장을 버리고는 돌아오지 마시오!》 사단장이 오금을 박았다.

부하들을 표창하는 일에서는 건망증이 심하지만 처벌하겠다는 자기 약속만은 잊지 않고 실행하는 자기 상관을 룽게는 잘 알고있었다. 부관의 운수가 좋아서 이번에는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났다. 로씨야인들의 사격을 받으며 돈강을 도하하여 부상당한 련대장을 찾아냈으며 그를 무사히 사단참모부로 이송하여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우연히 자기가 구원해준 사람의 친척과 만나게 되였다.

《그런 공로를 세운 당신을 표창하던가요?》 케이네르트중좌가 물었다.

《훈장이야 공격할 때의 영웅들이나 타지요. 우린 그때 퇴각하댔습니다.》

《락심할건 없소. 이제라도 제꺽 타게 될거요. 나의 사촌형은 총통의 개인호위대에서 군무하고있소. 오래지 않아 형은 사사용무로 여기로 오게 되여있소. 내가 꼭 당신을 상기시키겠소.》 케이네르트중좌가 약속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관할하는 수비대와 민병부대의 앞으로의 협동작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산림이 보이지요?》 그가 지형도를 가리켰다. 《산림은 크지 않소. 면적이 200헥타르정도니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시설들의 중요성으로 보아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중

요대상물과 맞먹소. 이 고압전류를 통과시킨 가시철조망을 둘러친 남쪽지대는 더우기 그렇소. 이 지대는 우리 수비대가 지키고있소. 당신의 부대에는 그 나머지 지대를 지킬 임무가 부과됐소. 당신들은 특별통행증이 없이 산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억류하거나 게스타포로 끌어가야 하오. 통행증견본은 이런거요.》

이어서 케이네르트는 보초조직절차와 민병과 수비대 순찰대원들의 협동작전문제, 호위대상물에 접근하는 통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당신의 민병부대는 행정적으로는 지방보위대 참모부에 소속되여 있지만 작전적측면에서는 오직 게스타포책임자 임메르만대좌의 지시만을 집행하게 되오. 민병들의 병영은 호위대상물에서 두키로메터 상거한 로동자부락에 위치하게 되오. 마침 나의 사촌형의 별장도 그 구역에 있소. 형은 그 별장을 팔려고 여기 오게 되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겠소?》 중좌가 불쑥 말을 그쳤다.

《짐작됩니다.》 룽게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나더러 그 별장의 주인이 되라는거겠지요. 안그런가요?》

《왜 안그렇겠소?》 케이네르트가 환성을 질렀다. 《와그네르교수가 당신을 못본체하지 않을거라고들 합디다. 당신은 이 산림을 믿음직하게 지킴으로써 교수에게 크나큰 봉사를 하게 될터이니까요. 그러니 당신은 그 별장을 구입하는데서 교수의 재정적방조를 기대할수 있지요. 그리고 그 별장은 당신의 근무수행을 반드시 헐하게 해줄거요. 당신이 별장으로 이사하면 매일 시내로 드나들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될터이니까요.》

《옳은 말씀이요. 그런데 존경하는 교수님이 우리의 산림경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모르겠군요.》 룽게가 말했다.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요. 나와 당신이 힘을 합쳐 교수의 작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게 되니까요.》

《아, 그렇구만요!》 룽게가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 교수가 나에게 그런 도움을 줄만하군요. 그런데 별장의 값은 얼마나 되는가요?》

《전쟁전에 내 형님은 15만마르크를 주고 샀는데 이제는 그 절반값으로 넘겨줄거요. 별장은 참 쓸모가 있지요. 바로 두나이강가에 있고 사방은 정원과 푸른 야산으로 둘러싸여있소. 2층석조건물인

데다가 지붕은 원추형이고 가운데는 높은 탑모양으로 장식했지요. 게다가 높은 쇠울타리로 바깥세상과 격리되여있다오.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별장이 아니라 진짜요새겠군요.》 룽게가 빙그레 웃었다.

《비웃지 마시오.》 케이네르트가 책망하듯 고개를 저었다. 《지금 세월엔 유리궁전보다 요새에서 사는게 더 좋지요. 적어도 죄수들과 포로들의 탈주가 잦은 탓에 적지 않게 널려있는 온갖 의심스러운자들의 위협을 받지 않을수 있소. 별장에 있는 세마리의 개에 몇명의 민병만 합치면 천당에서처럼 살게 될거요.》

《아주 유혹적인 생각인데요.》 룽게가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 《가까운 사람과 의논해보고 당신의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해보겠소.》

《교수는 인심이 그리 후한 편이 못된다고 하더군. 만일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설복하라고 딸을 추기시오. 이런 일에 들어서는 녀자를 당해낼자가 없는 법이요.》

물론 룽게는 그의 충고를 따를 생각은 없었지만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는 가까운 사람과 의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교수도 그의 딸도 념두에 두지 않고 우선 별동대동무들을 생각했다. 와그네르교수의 연구사업에 대한 소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라는 바르쑤끄브장령의 임무를 받은 별동대지휘부는 앞으로 취할 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했다. 특히 오스트리아지구 별동대는 린츠북쪽에 활동거점을 창설해야 했다. 룽게의 의견에 의하면 후베르의 별장은 이 거점의 기지로 리용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이 별장의 주인으로 된 다음에는 일부 별동대원들을 외국인로동자로 가장시켜 거기로 옮겨놓을수 있을것이다. 와그네르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비밀무기에 대한 소문이 확정되는 경우 (룽게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이 별장은 실험실을 기습하기 위한 기지로 리용할수 있을것이다.

룽게는 자기의 의도를 그날로 별동대참모부에 통보했다. 쏘꼴로브와 뚜르하노브는 그의 제의에 동의하고 곧 그 계획실행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케이네르트도 팔짱을 끼고 앉아있지는 않았다. 그날로 그는 베를린에 전화를 걸어 후베르에게 자기가 별장을 살 사람을 찾아냈다고 알

리였다. 후베르는 휴일을 리용하여 빠른 시일안에 가겠노라고 약속했으나 케이네르트는 동의하지 않았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가 형을 꼬드겼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고 팔자는자들만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후베르도 그것을 알고있었다. 병합이후에 오스트리아로 이주하여 거기서 일하던 도이췰란드인들은 제 나라가 아니면 스위스로 떠나가기 위해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서둘렀다. 마쟈르와 유고슬라비아에로의 쏘련군대의 승리적인 전진은 전쟁물자공급으로 치부한 일부 오스트리아부르죠아지들도 겁먹게 했다. 그런 부류의 자들도 도시와 시외의 공장과 살림집을 처리하고 될수록 빨리 그 자리를 떠나 동란의 시기를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무사히 지내보내려 했다.

(정말 서둘러야겠다.) 그가 생각했다. (그러지 않다간 마지막 구매자마저 잃고 별장을 거저 버리게 될수 있다. 전쟁이 끝나면 내가 무상으로 빼앗은 별장의 본래 주인인 유태인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한 《미남자》 후베르(그의 벗들은 그의 얼굴에 난 칼자국때문에 그를 이렇게 불렀다.)는 일요일이 아니라 그보다 이틀 앞서 린츠에 날아들었다. 케이네르트가 그를 비행장에서 맞이했다.

《그래 내 별장을 사겠다는 사람이 잘 있니?》 후베르는 이것부터 알아보았다. 《그 사람이 생각을 고쳐먹지는 않았겠지?》

《아직은 일없는것 같아요. 오늘 전화로 이야기하였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유쾌하지 않았어요. 돈을 망탕 쓰려고 하지 않는 약혼녀와 장인될 사람을 원망하더군요.》

《그 사람은 누군가? 여기서 무슨 일을 보나?》

《사람이야 나쁘지 않지만 가난하지요. 그가 로씨야놈들과 싸우고 있는동안에 미국공군이 그의 모든 재산을 가족과 함께 불태워버렸어요. 전선에서 불구가 되여 돌아왔고 지금은 민병부대를 지휘하고 있지요.》

케이네르트는 한때 결사적으로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을 사촌형이 어떻게 맞는가 보고싶었다. 그래서 그는 별장을 사겠다는 그 사람이 한때 크라메르사단에서 같이 복무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베르의 승인을 받아 그가 보는데서 전화로

룽게를 만나자고 청했다.

약속한 시간에 룽게가 별장에 나타났다. 물론 후베르는 대번에 자기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았다.

《룽게, 이 사람! 당신이 옳긴 옳소?》 후베르는 손님을 부둥켜안고 소리쳤다. 《안녕하오. 용감한 내 친구, 명성높은 크라메르영웅의 부관! 이봐 케이네르트,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구라는걸 미리 알려주지 않구. 이봐라, 옛 병사인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구나.》

이런 경우에 흔히 그러듯이 서로 안부를 묻고 회포를 나누었다. 룽게는 이 상봉을 면밀히 준비했고 말해야 할것과 침묵을 지켜야 할것을 미리 생각해두었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전 상관의 의지가지가 없게 된 가족의 충직한 벗으로서의 역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은 크라메르부인에게 장가들겠구만?》 후베르가 이전 사단장의 최후에 대한 룽게의 이야기를 듣고 물었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룽게가 한숨을 쉬였다. 《잊지 못할 나의 벗이고 상관인 그의 유언은 나에게 법과 같은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에 들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다르게 행동할수가 없습니다.》

《그따위 속물들의 의견은 들은체도 말고 상관의 미망인에게 장가드시오. 옛날부터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전쟁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반드시 장가들어야 하는 좋은 풍습이 있었소. 우린 조상들의 좋은 풍습을 따라배워야 하오. 사실 부하에게 있어서 좋은 상관은 형과 못지 않지.》

《더하면 더하지요.》 룽게는 눈 한번 끔쩍이지 않고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나서 후베르는 룽게의 가슴에서 번쩍이는 훈장과 메달들을 보았다.

《어느게 나를 구출한 공로로 받은거요?》 후베르는 장한듯 웃으며 물었다.

《이건 다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북깝까즈로 공격하던 시기에 다시말해서 1943년까지 받은겁니다. 그후에 우리 사단은 대부분 방어전투를 진행했지요. 아시다싶이 방어에서는 공을 세우기가 힘들지요.》 룽게가 한숨을 쉬였다.

《그런 말마시오!》 후베르가 반박했다. 《내 생명이 그렇게도 값이 없겠소. 당신은 내 생명을 구원했으니 표창을 받을만하단 말이요. 섭섭해마시오. 아무튼 표창을 받게 될거요. 내가 총통에게 권해보겠소.》

(너의 그 표창이 나에겐 달구지의 다섯번째 바퀴만큼이나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새 임무수행에 도움은 될수 있을게다.) 룽게가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참 어진분이시군요.》 룽게는 자기의 진짜 감정을 숨기려고 눈을 내리깔고 중얼거렸다.

만나서 토의하기로 한 실무적문제들도 원만히 해결되였다. 별장의 매매계약은 후베르가 제기한 조건대로 체결되였다. 공증소에서 문건을 작성한 다음 이전 별장주인이 열쇠와 기타 필요한 문건들을 새 주인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녀주인에게 넘겨주었다. 별장값을 지불하기로 한 와그네르교수의 요청으로 문건들은 마그다의 명의로 작성되였던것이다.

제 22 장

《미남자》 후베르는 거래가 잘된데 흡족했으므로 베를린으로 돌아가자 곧 룽게의 표창문제로 뛰기 시작했다. 하긴 달리 될수도 없었다. 그 사람 개인에게는 훈장이 한푼짜리도 안되였지만 별장값을 순현금으로 7만 5천마르크를 받았기때문이다. 이 거래가 이루어진지 꼭 한주일이 지나서 성대한 표창을 하겠다고 룽게를 베를린으로 불렀다. 린츠시행정기관의 요직을 차지한 도이췰란드인들은 높은 표창을 받은 룽게를 정식 축하했고 나치스체제하의 오스트리아매국노들도 그들에 뒤지지 않았다. 지방신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편집국론설을 게재했다. 《우리 시의 주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총통의 훌륭한 군인의 한사람인 이전 련대장 후베르를 죽음에서 구출한 우리의 동향인 에쓰에쓰중좌 알프레드 룽게의 영웅적위훈을 자랑으로 삼고있다. 우리는 높은 수훈을 받은 룽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론설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와그네르의 가정에서는 이 사건을 각이하게 받아들였다. 환니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누굴 표창했는지 안다면!》 처녀가 룽게의 귀에 대고 속삭이였다.

《또다시 훈장과 메달, 행군과 북소리…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마음놓고 살수 없게 하는군요.》 마그다는 머리를 싸쥐였다.

교수는 미래의 사위감을 표창한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그 사람이 더욱더 내 마음에 드는데.) 교수가 생각했다.(운명이 나를 동정하나보다. 아들을 앗아가더니 의지할 새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는군. 앞으로 일이 더 잘되려는지 누가 알랴. 물론 아들 리하르드야 과학적실험을 하는데서는 괜찮은 방조자였지만 벗어나면 완전히 보잘것없는 존재였지. 하기에 나의 연구나 발명을 실현하는데서 리하르드한테 큰걸 기대할수는 없었을것이다. 룽게는 비범한 조직자적수완을 가지고있는것 같다. 그 사람은 전선에 있을 때는 후베르의 구원작전을 조직했고 제대된 지금은 일찌기 흩어졌던 민병부대를 참된 전투부대로 묶어세웠다. 내가 일생을 바친 사업을 실현하는데서 그 사람이 쓸모있지 않을가.)

교수는 정황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았던들 자기가 의지할 새 인물에 대해 그렇듯 자주 생각하지는 않았을것이다. 전날밤에 아돌프 임메르만은 교수를 자기 집에 초청하여 《엑스－2》요강에 따르는 연구정형에 대해 물었다.

《다 끝냈습니다.》 교수가 보고했다. 《〈마귀의 찌아니드〉생산을 위한 자재와 설비는 다 장만되였습니다. 무력성의 지시만 내리면 〈기적의 무기〉는 한달안에 실천에 옮길수 있습니다.》

교수의 생각에는 이러한 소식이 응당 련합회사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줄것이였으나 임메르만의 얼굴표정에서는 그런 기미를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이것은 교수를 당황케 했을뿐아니라 불안하게까지 했다.

《〈마귀의 찌아니드〉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말도 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임메르만이 말허리를 잘랐다.

《어째서요?》 교수가 놀랐다.

《당신은 쓰딸린과 루즈벨트와 처칠이 공동으로 경고한걸 듣지 못했

습니까?》 임메르만이 물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먼저 가스를 사용한다면 도이췰란드를 유독성물질에 잠기게 하겠다고 언명했습니다. 당신은 전문가로서 련합국들의 실제적위력에 대해 잘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무력성이 도이췰란드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모험할수 없다는걸 고려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찌아니드〉를 사용하면 우리의 적들은 대응타격을 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일수 없게 될것입니다. 계산결과는 몇시간내에 우리 적들의 령토들을 무인지경으로 만들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건 아예 생각지도 마시오. 그 누구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게는 하지 않을겁니다. 정부도 우리의 량심도 그리고 종교도 말이지요.》 임메르만이 수치스러운듯 눈을 내리깔고 언명했다.
《총통이 허용하지요.》 교수는 임메르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도이췰란드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총통은 무슨짓이나 가리지 않을겁니다. 그 어떤 전쟁방법이든 그것이 전쟁을 승리에로 이끈다면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한걸 기억하시겠지요. 무력성이 〈마귀의 찌아니드〉를 사용하기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직접 이 사실을 총통에게 알려야 할것 같군요.》
《어떻게말입니까?》 임메르만이 비웃으며 물었다.
《〈엑스－1〉과 〈엑스－2〉요강에 따르는 실험공정필림을 보여줍시다.》 교수가 제의했다. 《그러면 장군들이 우리의 〈기적의 무기〉사용을 거절하지 못하게 될겁니다.》
《〈화르벤웨케〉련합회사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토의할테니 아직은 그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필림은 몇편이나 복사했습니까?》
《전부 두편이지요. 한편은 당신에게 있고 또 한편은 원판과 함께 나의 실험실 철함에 보관되여있습니다.》 교수가 대답했다.
그러나 교수는 거짓말을 했다. 필림은 3편을 제작했는데 세번째 필림은 교수의 집에 보관되여있었다.
《그런데 교수님!》회사주인은 까딱하지 않는 눈길을 대화자에게 박았다. 《련합회사가 당신의 연구사업에 대금을 지불하고있는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연구결과를 언제 어떻게 실현하겠는가 하는것은 련합회사의 지도부가 결정할겁니다. 그 조항은 쌍방합의서에 지적

되여있으며 나는 당신이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것을 요구합니다.》
이 대화가 있은 후에 늙은 나치스 와그네르에게는 많은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화르벤웨케》와 대양건너의 《케미클 코포레이슌》 그리고 쮸리히의 은행가 바루흐남작과의 련계를 알고있었다. 현재까지 교수는 그와 같은 련계가 도이췰란드실업가들에게는 외국의 차관과 전략적물자를 얻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짐작하고있었다. 지금 그의 마음에는 커다란 의혹이 갈마들었다.
(만일 문제가 새로운 환경에서 옛 차관과 상업거래를 유지하는것보다 더 깊이 빠져들었다면?) 그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했다.(틀림없이 문제는 우리의 비밀과 관계되여있을것이다. 저 임메르만이 매번 스위스출장을 가기전에 나의 연구성과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걷어모으는것은 우연치 않다. 금융계의 거물이나 대실업가들은 천성이 돈밖에 모르는지라 돈이라면 자신도 국민의 리익도 다 팔것이다. 저 임메르만도 《마귀의 찌아니드》를 톰슨에게 팔아버리려 하지 않을가? 그런 위험을 예방하자면 즉시에 행동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든 교수는 룽게의 높은 수훈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그를 찾아갔다. 딸들과 외인이 보는데서 장래의 사위를 축하한 다음 그와 함께 서재로 들어갔다. 교수는 말을 에둘러서 꺼냈다. 처음에는 후베르에 대해서, 그의 과거 전투공로와 지금 베를린에서 차지한 직무에 대해서 물었다. 룽게의 대답은 그를 완전히 충족시켰다. 그러자 교수는 사업이야기에 착수했다.
《그러니 당신이 베를린으로 간단말이지?》 교수가 물었다.
《래일 떠납니다. 비행기좌석도 다 마련되였습니다.》 룽게가 대답했다.
《나도 거길 가야겠는데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군. 총통에게 보낼 특별선물까지 마련했는데…》 교수가 능청맞게 웃으며 털어놓았다.
《교수님은 그걸 저를 통해 전하자고 하시는가요?》
《아 아니요!》 교수는 성급히 두손을 내저었다.《나를 베를린으로 불러주도록 당신이 후베르를 설복해줬으면 하오.》
《전 노력하겠지만 후베르가 동의할는지?》 룽게가 의아해했다.
《총통은 공연한 일로 자신을 괴롭히는걸 좋아하지 않는다던데… 아시겠지만 선물을 증정하는 일쯤이야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렇겠지.》 교수가 수긍했다. 《허지만 나의 선물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거요. 만일 총통이 나의 제의를 받아들여 들어주기만 한다면 그건 틀림없소.》
《교수님은 총통에게 그 무슨 새로운 일이라도 제기하시려는가봅니다?》
《음, 그쯤한거지.》 교수가 모호하게 대답했는데 그때 그의 눈은 악의에 차서 번뜩이였다.
《후베르가 말하기를 〈기적의 무기〉에 대한 새로운 안이나 적을 소탕할 다른 환상적인 계획들을 제의하려고 제국관방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총통의 친위대가 정신병원으로 보낸다던데요.》
《알고있소!》 교수가 성이 나서 룽게의 말을 가로챘다. 《당신은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란걸 알지 않소. 당신의 그 〈미남자〉에게 이걸 확신시키오.》
《노력해보겠습니다.》 룽게가 약속했다. 《그분이 당신과 총통의 면담을 성사시키겠다고 동의하면 즉시에 전화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선 절대로 안되오!》 교수는 겁을 먹었다. 《전화는 도청되오. 더구나 나의 베를린출장을 파탄시키려는 시비군들이 적지 않소. 딸앞으로 전보를 치는것이 차라리 낫소.》
룽게가 동의하자 교수는 전보암호문작성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 23 장

이틀동안에 마그다는 룽게에게서 3통의 전보를 받았다. (참 어진 분이시네!)
전신활자테프들을 풀로 붙인 전보용지에 입을 맞추며 마그다는 생각했다. (수도에 가서까지 한시도 나를 잊지 않으신다니까.)
첫번째 전보에서 룽게는 자기가 베를린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리였다.
두번째 전보는 마그다를 얼마간 놀라게 했다. 룽게는 총통의 저작

인 《나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구입했다고 썼던것이다.
(참 별일 다 보겠네!) 크라메르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이런걸 다 전보치느라고 돈을 랑비하다니…) 세번째 전보는 전혀 리해할수 없어 아버지에게 보였다.
《별꼴 다 보겠어요.》 마그다는 투덜거렸다. 《그이가 영문모를 전보가 올수 있다는걸 제게 예고하지 않았다면 전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우편국에 갈번했어요.》
《저작 〈나의 투쟁〉을 제책직장에 넘겼음.》 교수가 소리내여 읽었다. 《받은 주문은 래일모레 리행하겠음. 봉사료 22마르크 35페닝 금박을 쓰지 않으면 그보다 적음. 키스를 보낸다. 당신의 룽게로부터.》
와그네르교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나의 숙망은 언제 성취되려나!) 교수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총통은 반드시 나를 지지해줄것이다. 그러면 도이칠란드는 구원될것이다!)
《아버지는 전보내용을 아시겠어요?》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알고말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전보 셋을 다 너에게 보냈지만 마지막 두통은 나에게 온것이다. 그중 하나는 나에 대해서 총통에게 보고되였다는것이고 또 하나는 모레 22시 35분에 총통이 나를 접견할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모든건 절대비밀에 붙여야 한다. 내가 베를린에 당도하기전엔 누구도 이것을 알아서는 안된다. 연석기차표도 너의 이름으로 신청해라.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들랑 룽게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해라.》
마그다는 아버지가 하라는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마음속은 대번에 께름직했다. 사진현상실에서 우연히 영화필림화면들을 보게 된 후 마그다는 자기 아버지와 동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였고 모든것이 두려워졌다.
(우리는 보복을 면치 못할거야.) 《메르쎄데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그다는 중얼거렸다. (리하르드는 이미 자기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었고 아버지는 조만간에 그 책임을 지게 될거야. 허지만 어째서 나와 룽게까지 이 무서운 일에 말려들어야 한단말인가? 아버지가 총통에게 그 영화필림이나 자기 발명품을 가지고갈것은 뻔한 일인데 값을 치를 때가 닥쳐오면 나와 룽게에게 어째서 우리가 아버지의 범죄적인 계획의 수행을 도왔는가를 반드시 따질것이다. 아아 나

는 이 무서운 처지에서 어떻게 벗어날수 있단말인가?)

마그다는 자기의 불안을 동생 환니에게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환니는 룽게가 집을 떠나있는동안 언니가 심심치 않도록 그 집에 옮겨와있었다. 환니가 언니의 집에 거처한것은 물론 룽게의 충고로 교수의 거동을 일일이 살펴 제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마그다의 푸념을 다 들은 환니는 언니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슬퍼말아요. 언니, 다 잘될거예요. 룽게는 자기가 할바를 알고있으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랑패가 없을거예요.》

《아버지의 거동이 나를 불안케 한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되니까 아버지가 끼여들어 삽시에 모든걸 뒤집어놓지 않았니. 처음에 아버지는 룽게더러 취직을 하라고 꼬드기더니 인젠 위험한 일에까지 몰아넣는구나. 얘, 아버지는 네 약혼자를 두려워하는것 같더라. 그래서 아버진 베를린출장문제를 비밀에 붙이는거야. 제발 좀 말해주렴. 아버지가 부탁하는걸 거절해야 하지 않을가?》마그다가 물었다.

《무슨 부탁인데요?》 환니가 물었다.

《내 이름으로 베를린까지 가는 기차표를 주문하라고 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버진 총통에게 다녀올 준비를 하고계신다.》

《거기에 아무것도 특별한게 없는것 같군요. 아버지가 부탁하시면 도와드려야지요.》

마그다가 려행안내실에 전화를 걸었고 세시간후에 거기서 기차표를 가져왔는데 그때 마그다는 아이들을 돌보고있어서 환니가 주문한 기차표를 받게 되였다. 렬차와 좌석번호를 환니는 그날저녁으로 룽게의 동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으로 앞으로의 사건진전은 결정된셈이였다. 베를린행 기차가 린츠교외인 알프스지맥의 넓은 평원을 채 벗어나기도전에 교수가 타고있는 연석침대칸의 문을 한사람이 두드리였다.

《들어오시오!》 교수가 시답지 않게 대답했다.

문이 열리더니 침대칸에 낯모를 에쓰에쓰장교와 병사가 들어왔다.

《순찰검열대입니다!》 장교가 언명했다. 《증명서와 소지품을 보여주시오!》

《미안합니다!》교수는 될수록 공손히 대하려고 애쓰며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알기에는 검열대가 우선 자기 신분부터 밝혀야 할것 같은데요.》
장교는 말없이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증명서를 꺼내여 교수에게 보여주었다. 교수는 천천히 코안경을 끼고 제시된 증명서를 주의깊게 읽었다. 그 증명서에는 에쓰에쓰중좌 류드위그 블라슈케는 시게스타포직원으로서 적의 간첩망을 적발제지할 목적으로 려객들과 철도일군들의 증명서와 개인소지품을 검열할 권한이 부여되였다고 씌여있었다.
증명서에는 명판과 게스타포책임자 루돌프 임메르만의 낯익은 수표가 제대로 찍혀있었다.
(그러니 내가 떠나는걸 냄새맡았군. 이젠 어떻게 될가?) 교수는 겁을 먹고 생각했다. (운명에 복종하는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교수는 자기 증명서들을 내놓았다.
《감사합니다!》장교는 증명서들을 돌려주면서 정중히 경례를 붙였다.
《인젠 소지품을 보여주십시오!》
교수는 조그마한 열쇠로 가죽트렁크의 자물쇠를 열고 여러가지 옷가지들과 세면도구, 제3제국지도자들의 초상화들이 실린 멋진 사진첩을 내놓았다. 그것들은 검열원들의 관심을 별로 자아내지 않았다.
《당신의 가방안엔 뭣이 있습니까?》 장교가 물었다.
《특별한건 없습니다.》 교수는 어깨를 추스리며 대답했다. 《개인문건들과 몇부의 신문, 잡지들 그리고 총통의 저서 〈나의 투쟁〉이 있습니다.》
《좀 봅시다!》
《나는 가방열쇠를 집에 두고온것 같군요.》교수는 주머니들을 뒤지고나서 당황해하며 말했다.
《내 가방속에는 이제 말한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걸 다짐합니다.》
장교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수행하는 에쓰에쓰대원을 돌아보며 단

마디로 명령했다.
《여시오!》
사병은 아무말도 없이 칼집에서 단도형의 총창을 꺼내더니 날이 선 그 끝을 솜씨있게 써가며 묵직한 가방의 량쪽자물쇠를 제꺽 열었다.
그런 다음 그안에 든것을 소탁자우에 쏟아놓았다.
《이건 뭡니까?》 장교가 둥그런 금속제곽을 집어들고 물었다.
《가정잡사에 대한 촬영애호가의 영화필림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난 그 필림이 있다는걸 영 잊고있었습니다.》 교수가 얼버무렸다.
《검사하기 위해 몰수해야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필림에 군사비밀과 국가비밀이 포함된 자료들이 없다면 시게스타포에 와서 찾아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장교는 필림을 림시 압수한다는 령수증을 써주고 점잖게 작별인사를 나눈 다음 에쓰에쓰대원과 함께 침대칸을 나가더니 다음역에서 내렸다.
교수는 절망에 빠졌다. 첫 순간에 그는 자기가 발명한 《기적의 무기》를 시급히 전선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임메르만형제와 더 싸우지 않기로 했다.
(필림이 없이는 나를 아무튼 총통에게 들여놓지 않을것이다.
설사 들여놓는다 하더라도 히틀러는 《아나르힌》이나 《마귀의 찌아니드》에 대한 나의 설명을 믿지 않을것이며 고맙다고 할 대신에 정신병원으로 쫓아보낼것이다. 그런 위험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야심적인 계획을 포기하고 임메르만형제에게 돌아가 사죄하는것이 좋지 않을가?) 그는 오래동안 골을 썩였다. 그러나 점차 리성이 발동되였다. 그는 기차에서 내려 린츠로 돌아오지 않고 베를린으로 갔다. 그가 위구했던대로 필림이 없이는 총통에게 들여놓지 않았으나 룽게의 주장으로 후베르는 제국안전총국의 동료들에게 교수를 소개해주기로 했다. 거기서는 교수의 말을 주의깊이 듣고 필요한 예방대책을 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적측의 온갖 대응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직은 린츠로 돌아가서 앞으로의 지시를 기다리며 련합회사실험실에서 자기 사업을 계

속하라고 권고했다.

약속한 지시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였다. 그 지시는 특별지령서형태로 떨어져 임메르만형제뿐아니라 지방장관들도 얼떨떨하게 만들었다. 지령서에 따라 화학실험실은 련합회사 《화르벤웨케》의 관할에서 즉시에 떨어져나와 무력성이 운영하게 되였다. 실험실책임자에게는 비상전권위원의 권한이 부여되였다. 임의의 행정일군과 과학일군을 축출하거나 새로운 더 유능한 간부로 교체할 권한도 부여되였다. 수비대도 모두 그에게 소속되였다.

임메르만형제에게는 다행하게도 지령서에는 실험실을 꾸리는데 소비한 실지 액수를 무력성이 이전 주인인 련합회사 《화르벤웨케》에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씌여있었다.

《어느놈이 우릴 이렇게 박해하오.》 작은 임메르만이 성을 냈다.

《형님네 그 쮸리히의 벗들이 뚜르하노브사건은 이럭저럭 용서했지만 이번에는 〈공중요새〉가 실험실을 파괴할거요.》

《그럴 위험이 크지.》 형도 동의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애써 자래운 열매를 익지도 않았는데 뜯어낼 정도로 미련하진 않다. 그 사람들은 실험실과 거기서 일하는 학자들의 완전한 주인이 되려고 할거다.》

《어떻게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린 도이췰란드제국의 령토에 있지 않는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는지는 알수 없으나 령토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긴 우리 군대뿐아니라 미국군대들도 차지할수 있다.

현 사태에 대해 쮸리히에 알리고 우리 동업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기다려보자구.…》

제 24 장

평시에는 조심성있고 의심많은 와그네르교수였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실수를 했다. 련합회사주인들이 그의 발명품을 도이췰란드무력성에 이관하는것을 거부한것이 교수를 얼마나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벌어진 사태를 정확히 판단할 능력마저 잠시 잊어버리고 필림을 몰수당한 죄를 전적으로 루돌프 임메르만에게 전가했다. 그러나 사실은 게스타포요원의 모습을 하고 기차의 침대칸에 나타난것은 변장한 별동대원인 이전 에쓰에쓰대위 꾸르트 리베르만과 반파쑈지하조직성원인 대학생 프라에르만이였다. 교수가 기차에서 벌어진 사건을 즉시에 게스타포에 통보했더라면 일이 어떻게 뒤집혀졌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틀림없이 임메르만은 가증스러운 안정질서의 교란자들을 억류하고 그들에게서 불우한 그 영화필림을 제때에 압수할 모든 대책을 취했을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꾸르트 리베르만은 자기의 소득물을 그날로 장애없이 별동대참모부에 바쳤다. 쏘꼴로브의 부탁을 받고 얀 쥐슈끼빨찌산부대 부대장 쓰똘리체크는 목재공장 로동자마을에서 영사기를 가져왔다. 영사기사는 빨찌산대원들속에 있었기때문에 전리품영화시사는 그날밤으로 조직되였다.

별동대원들이나 빨찌산대원들은 도이췰란드파시스트의 야만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그들중 많은 사람이 각이한 시기에 포로수용소와 게스타포감옥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에 감금된 일이 있었으므로 각종 고문과 모욕의 대상으로 한두번만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고통을 겪은 이 사람들도 도이췰란드학자들이 전문교형리들과 더불어 인류를 반대하는 무서운 범죄에 가담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와그네르교수의 비밀실험실에서 《엑스－1》, 《엑스－2》요강에 따르는 실험결과를 화면에 올린 영화장면들은 그들에게 이것을 확신

하게 했다.
《히틀러의 학자, 군사전략가들이 세계인민에게 바로 저런걸 마련하고있소.》 영화를 보고 격분된 빨찌산부대장 쓰똘리체크가 소리쳤다. 《우리는 다가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하겠소. 빨찌산대원동무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우리도 부대장동지와 같은 생각입니다.》 체스꼬빨찌산대원들이 일제히 호응했다.
《별동대동무들은 어떻습니까?》 쓰똘리체크가 물었다.
《우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쏘끌로브가 대답했다. 《대좌동지, 어떻게 할가요?》 그가 뚜르하노브에게 물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동지들!》 뚜르하노브가 말했다. 《무턱대고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처음에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매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스크바와 협의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명백해질겁니다. 아직은 때가 올 때까지 굴속에 있는 짐승을 놀래우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서 듣고 본것을 극비에 붙입시다.》
빨찌산과 별동대원들은 말없이 뚜르하노브의 의견에 동의하고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것은 물론 별동대와 빨찌산의 부대지휘부가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작성할 때까지 《아나르힌》이나 《마귀의 찌아니드》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상기조차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뚜르하노브의 머리속에 무르익은지 오래였다. 알고있는 일이지만 바르쑤꼬브장령은 엘피모브의 이야기를 전달받고 별동대원들에게 와그네르교수의 비밀실험실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증거물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런 증거물을 이미 손에 쥐였다. 필림을 쏘련으로 보내는 일만이 남았다. 그 일은 특별히 선발된 몇사람이 수행했다. 그들은 와그네르의 필림을 포장해서 봉인한 다음 《극비》라는 도장을 찍어서 중앙으로 발송했다. 체스꼬의 빨찌산들은 중앙을 거쳐서 쏘련군대사령부와 련계를 취했다.
뿐만아니라 이 필림을 탈취했다는 쏘끌로브가 수표한 특별보고가 무전으로 전달되였다.
바르쑤꼬브의 회답은 별동대원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불러일으켰다. 장령은 뚜르하노브대좌를 해방시키는 작전에 참가한 별동대원들에게 쏘련정부가 훈장과 메달을 수여했다고 알려주

었다. 별동대장 쏘꼴로브는 조국전쟁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고 정치부대장과 룽게, 그로쓰와 리베르만은 적기훈장을 받았다. 환니는 《용감성》메달을 수여받았다. 체스꼬빨찌산대원들과 지하조직원들도 표창을 받았다.

계속하여 별동대는 기본작전이 끝난것과 관련하여 개편된다는것과 별동대에 기초하여 이전에 뽈스까령토에서 활동했던 전 국제빨찌산부대가 복구된다는것을 통고해왔다. 새로 편성된 부대의 부대장은 뚜르하노브이고 그의 보조자들은 꼬미싸로브와 쏘꼴로브이다.

새 부대의 기본과업은 와그네르의 비밀실험실을 소멸하는것이고 보충과업은 체스꼬빨찌산들과 오스트리아반파쑈인사들과의 긴밀한 련계하에 가는 곳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히틀러도이췰란드가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 나치즘과 투쟁하는것이다.

《과업이 명백하오?》 자기 보조자들에게 암호문을 읽어주고난 뚜르하노브가 물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쏘련정규군의 조그만 전투소조로부터 빨찌산부대로 다시 전환되오. 이것은 우리 지휘관들에게 적지 않은 아니 큰 책임감을 안겨주고있소.》

《어째서요?》 쏘꼴로브가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 쏘련정규군지휘관들은 빨찌산부대 지휘관들보다 책임을 적게 진단말입니까. 제가 별동대 대장으로서 자기 행동에 대하여 최고법기관앞에 책임을 지지 않았단말입니까.》

《물론 책임을 졌소.》 대좌가 동의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소. 정규군의 생활은 나라의 법과 자기 군대의 규정에 의해 엄격히 법규화되여있소. 그러나 빨찌산부대들의 활동은 그렇지 않소. 우리에게는 국가기관이 비준한 규정이나 교범도 없소. 자기 대렬내의 제도와 규률을 빨찌산들은 교범에 제시된 규정적인 조항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혁명의식에 의하여 준수하고있소. 공격작전도 적에게 해를 줄 가능성이 제일 큰 때와 장소에서 벌리게 되는거요. 그렇기때문에 우리 작전의 성공과 실패도 국가기관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책임지게 되는거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파시즘에 대한 승리의 날을 앞당기는것이라면 모두 우리에게 좋은

것이요. 이것은 말하자면 빨찌산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요. 크지 않은 우리 부대의 활동만 들어보더라도 파시즘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제인민의 공동투쟁위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수 있소.》

《와그네르교수의 실험실을 소멸하는것으로써말입니까?》 끄미싸로브가 물었다.

《그러나 폭격기 몇대면 우리보다 더 신속히 더 잘 파괴할수 있을겁니다.》

《능히 그럴수 있소.》 뚜르하노브가 동의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우리가 목표물에 가장 빠르고 쉬운 길로 접근할수 없게 하오.》

《설명해주십시오.》 끄미싸로브가 부탁했다.

《동맹국들이 자기 무력을 행사할 작전지역을 합의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요. 어느 한 편이 이 협약을 어겼을 때에는 다른 편의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끼치게 되며 그것은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소. 아무튼 쏘련사령부는 그런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것이요. 련합회사 〈화르벤웨케〉의 공장들이 우리 동맹국의 공군활동지역에 있을수 있소. 만일 그렇다면 그곳에 쏘련폭격기들이 나타나면 동맹국들이 좋아하지 않을수 있소. 그런데 빨찌산부대들의 활동에서는 지역이 제한되여있지 않소. 그래서 국제빨찌산부대가 와그네르의 실험실을 파괴하는것은 빨찌산전쟁의 평범한 하나의 전투로 인정될수 있소.》

《인제야 깨달았습니다.》쏘꼴로브가 기뻐했다.《그럼 빨찌산전쟁의 우월성을 리용하여 인류를 무서운 재난에서 구출합시다.》

《자기의 미래의 공로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되오.》끄미싸로브가 말을 시작했으나 쏘꼴로브가 중단시켰다.

《과대평가하지는 않겠지만 과업은 수행합시다!》 그가 말했다.

《힘껏 해봅시다.》 끄미싸로브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뚜르하노브동지, 무슨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한가지 있기는 하오.》대좌가 속심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대좌동지의 안을 함께 토론해봅시다.》정치부대장이 제기했다.

《그렇게 합시다. 안은 토론해야 하오. 그보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앞으로의 작전목적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견해를 가져야 할것 같소.》

《목적은 명백합니다.》 쏘꼴로브가 반박했다. 《목적은 바르쑤꼬브 장령의 암호전문에 밝혀져있습니다. 우리는 파시스트의 화학실험실을 소멸해야 합니다.》

《소멸할뿐아니라 와그네르교수의 발명을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파시스트들이 사용할수 없도록 해야 하오. 그러자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것 같소.》

뚜르하노브는 엘피모브에게서 처음으로 와그네르교수의 범죄적실험에 대하여 들었을 때 희미한 륜곽으로 떠올랐던 빨찌산부대의 미래의 작전계획을 발표했다.

제 25 장

한폭의 그림같은 오스트리아 알프스산기슭에 봄이 오면 별장과 시외저택의 주인들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수리복구에 착수하군했다. 저택의 정면을 원상대로 손질하고 울타리와 정자, 매대에 칠을 했으며 깨진 창문유리를 갈아넣고 꽃을 심었으며 관목을 전정했다.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방에서 망치소리와 톱질소리가 들려왔고 방금 뾰족이 내민 나무순의 기막힌 향기에 터밭들에서 풍기는 썩은 두엄냄새와 같은 아스팔트포장하는 끓는 몰탈냄새, 해묵은 나무잎사귀와 갖가지 오물을 태울 때 타래쳐오르는 매캐한 연기의 지독한 냄새들이 뒤섞여졌다. 그런데 상부오스트리아의 1945년 봄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다. 린츠교외의 대다수 별장과 시외저택들은 마치 그 주인들이 여름이 오면 답답한 도시들의 저택들을 버리고 무더운 여름한철을 자연의 품속에서 지내던 종래의 관습을 영영 버린듯 조용했다. 원인은 전쟁때문이였다. 한달후, 일주일후 지어는 하루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몰랐다. 파쑈신문과 라지오는 날마다 쏘련군대에 대한 갖은 허위보도를 했건만 이들은 오스트리아로 신속히 접근해왔다. 토착민들은 제편사람들이 많은 도회지에서 쏘련군대를 맞는것이 지방에서 맞기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별장에 나올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락천가들도 없지는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쏘련병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도리여 그들이 도착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미남자》후베르의 이전 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로 미루어보아 지금의 별장주인인 크라메르부인을 그런 락천가로 치부할수 있었다. 녀주인의 친지들이 《마그다성새》라고 별명붙인 이 별장에서는 아침부터 저녁늦도록 톱질소리, 도끼질소리, 대패질소리, 나무에 구멍을 뚫는 소리가 들렸으며 나무패고 땅을 팠으며 벽돌, 기와, 스레트, 통나무, 널판자 등 건설자재들을 실어들였다. 정원지기는 일군들을 데리고 과수나무밑둥에 흰 회가루칠을 했고 마른 가지들을 꺾어주었다. 요컨대 평화스럽던 옛날이나 다름없이 들끓고있었다. 여기서는 주로《외국로동자들》즉 눅은 로동력 또는 무보수로동력으로 쓰기 위해 강점된 나라들에서 도이췰란드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작업을 했다. 룽게가 시장에게 작성해준 문건에 의하면 이 목공, 원예사, 토공, 지붕잇는 사람들은 그런 인부들이였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국제빨찌산부대의 지휘관, 병사들이였다. 헤르베르트 그로쓰가 작업을 지휘했다. 룽게의 소개로 크라메르부인은 그를 별장관리인으로 임명했으며 롱으로 《마그다성새의 성주》라고 불렀다.

부유한 별장마을을 가끔 한바퀴씩 순회하는 경찰이나 에쓰에쓰순찰대와 빨찌산이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룽게는 시내의 마그다의 저택에서보다 《마그다성새》에서 더 많이 살았다. 크라메르부인자신도 처음에는 별장을 사는 문제에서 상당히 랭담했는데 직접 별장의 들끓는 로동현장을 목격한 이후로는 자기의 연약한 어깨에 들씌워지는 공연한 일거리에 순종했을뿐아니라 부지런한 녀주인의 새로운 역에 매혹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래서 가끔 수리공들의 일에 간섭해나서서 끝없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게까지 되였다.《로동자》들은 녀인을 존중했을뿐더러 그의 일깨움을 심각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설사 그 요구나 지시가 언제나 정당하고 실행할수 있는것이 못되고 지어는 때로 황당무계한것이였지만 녀인의 기호나 희망대로 하기 위해 애를 썼다. 더구나 녀인은 로동자들이 자기의 변덕을 말없이 받아주는것이 주인앞에 아부굴종하는 습관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착한 마음씨에 기

인한다는것을 인차 깨달았다. 그들의 호상관계에서 이런 특성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마그다는 자기 주위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더 두터이했다. 그리하여 녀인은 더 자주 별장에 남았으며 어떤 때는 밤도 거기서 지냈다.

별장에는 마그다의 친척들과 친지들도 찾아왔다. 환니가 특히 자주 왔다. 여기서만 처녀는 제 사람들속에 있는것처럼 느끼였고 여기서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수 있었다. 마그다가 없을 때, 또는 두어번 그가 있을 때도 환니는 뚜르하노브를 깊은 정원으로 혹은 가까운 숲속으로 이끌고갔다. 숲은 두나이강의 높은 기슭을 따라 푸른 병풍처럼 펼쳐져있었다. 두사람은 거기서 몇시간씩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면에서 깨여난 자연을 즐기였다.

와그네르교수는 딸과 동행하여 처음으로 별장에 왔다. 중세기 기사의 성곽을 방불케 하는 외딴 집은 교수의 마음에 흠뻑 들었다. (믿음직한 수비대나 두면 전선이 가까이 다가와서 질서가 파괴되더라도 여기서는 두려울것이 없겠는데.) 별장의 안팎을 다 돌아보고난 교수가 생각했다.

(린츠에 빨갱이들이 들어오면 나를 여기에 숨겨주지 않겠는지 마그다와 룽게에게 물어봐야겠군.)

룽게는 교수의 제의에 두말없이 응했으나 마그다는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빨갱이들이 우리 도시로 가까이 오면 아버지는 자기 실험실에서 수비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계시는것이 더 좋으실것 같아요. 거기는 쥐새끼 한마리도 새여들지 못할터인데 우리 별장엔 별 략탈병들이 다 뛰여들수 있어요.》 마그다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건 그래.》 아버지가 동의했다. 《그러나 내가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 찾아다니는 경우에는 내 실험실보다 여기서 그들을 쉽게 떼여버릴수 있을것 같구나. 략탈병의 공격이나 피하자면 수비대에서 몇사람을 떼내여 별장호위에 돌리면 된다.》

《그건 공연한 걱정이십니다. 아직은 저의 부대의 민병 두사람이 별장을 호위하고있습니다.》 룽게가 말했다.

《무슨 민병말이예요?》 마그다가 놀랐다.

《헤르베르트 그로쓰는 우리의 관리인이면서 동시에 박격포분대장이요. 아직 부대에 박격포가 입수되지 않아 내가 림시로 관리인의 임

무를 맡아보라고 했소. 그 사람은 쾌히 승낙하고 지금 자기 련락병과 함께 여기에 와있소.》 룽게가 설명했다.

《그거 참 잘됐소!》 와그네르가 소리쳤다. 《필요할 때에 나는 당신의 관할하에 자동총수 두명을 넘겨주겠소. 그들에게 주의는 주어야겠소. 우리의 허가없이 별장에 외인들을 들여놓아서는 안된다고 말이요.》

《물론이지요.》 룽게가 동의했다. 《략탈이나 살인은 보통 무정부상태인 때에 벌어집니다. 그때 방어하는 군대는 자기 초소를 버리고 공격하는 적은 아직 점령지역에서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지 못했기때문에 바로 그때 략탈병들이 란폭한짓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민병들은 자기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자는 지도서의 요구대로 그 즉석에서 총살할것입니다. 상부에서는 제가 친척들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대의 일부 성원을 리용하더라도 별로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도 없소. 민병은 현역군인을 돕고 전선지대에서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거요. 내가 시장과 의논하겠소. 시장의 별장도 어딘지 이 근처에 있을거요. 그럴라면 시장은 보나마나 부대의 일부를 자기 별장호위에 청할거요. 보다싶이 당신들의 리해관계는 공통되기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가 힘들지 않을거요.》

앞질러서 이야기하지만 와그네르교수의 예측은 완전히 들어맞았다. 시장은 룽게에게 별장호위를 위해 20～30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하는것을 허락했다. 룽게는 이 일을 헤르베르트 그로쓰에게 위임했고 그 사람은 지하조직과 합의를 보고 거기에 공산당원들과 다른 반파쑈조직성원들을 망라시켰다. 이런 식으로 민병이라는 명색으로 국제빨찌산부대의 옹근 한개소대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드디여 별장에 루돌프 임메르만도 나타났다. 그는 일요일에 아직 자기 약혼녀로 생각하는 환니와 함께 왔다. 빨찌산부대 지휘부의 충고에 따라 환니는 루돌프의 경각성을 무디게 하는데 모든 힘을 경주하고있었다. 《그자를 놀래우지 말고 그자와 다투지 말며 계속 충실한 나치스애국자의 역을 견지하시오. 교수와 련합회사 지도자들간의 싸움이 자기들의 관계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듯이 생각하게 하

시오. 그자가 동무를 자기의 안해로 삼으려는 기대를 버리지 않도록 하시오. 때가 오면 우리는 그자가 갈곳은 력사의 오물통이라는것을 가르쳐주겠소.》 뚜르하노브는 환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환니는 있는 힘을 다했으며 성과도 없지 않았다.

별장에서는 루돌프를 《친절》하게 맞아들였다. 두 자매는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가 바라기도전에 모든걸 해주려고 애썼다. 그가 갑갑해하지 않도록 점심에는 시장의 가족과 다른 손님들도 청했다. 그래서 보통 점심식사가 어느새 주연이나 유쾌한 소연회 비슷한것으로 변해버렸다. 술잔들이 쫓고 마시고 먹었으며 춤을 추었다. 특히 시장의 딸들이 이채를 띠였다. 처녀들은 노래를 잘 불렀으며 피아노를 치고 춤을 추었다. 제때에 루돌프가 두 처녀중에 하나에게 춤을 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처녀들자신이 그를 춤상대자로 청했을것이다. 그래서 결국 환니는 루돌프의 마음에 아주 들었던 시장의 작은 딸에게 《시샘》까지 하게 되였다.

비록 게스타포책임자는 다른 사람들 못지 않게 오찬을 즐기였으나 자기 직업상 임무에 대해서도 결코 잊지는 않았다. 별장안의 모든 방들을 두어차례 돌아보고 심지어는 지하실과 창고까지 들여다보았으며 관리인과 하인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고 살펴보고 귀기울였으며 무엇인지 생각하고 무엇인지 상기했다.

《당신은 이 일에 많은 돈을 투자한것 같군. 굉장한 건설을 벌려놓았는걸.》 게스타포책임자가 룽게에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갈 우려는 없소?》

《내가 마그다에게 예고했지만 그 녀자는 내 말보다 아버지의 말을 더 듣지요.》 룽게가 겸손하게 눈을 내려깔고 대답했다. 《별장은 교수의 돈으로 샀지만 주택이양증서는 딸의 명의로 작성했지요. 마그다는 큰 도시를 멀리 벗어나서 전쟁을 겪는것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지요.》

《전선이 린츠에 가까와져도 소개할 생각이 없단말이요?》

《나 개인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군요. 민병부대들은 도시와 운수교차점, 군수창고, 공업기업소들을 소개할 때 안전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이 지역을 뜬다 해도 난 맨 마감으로 떠야 하지요.》 룽게가 한숨을 쉬였다.

(그렇구만.) 루돌프는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여기에 눌러있

으려고 마음먹은 모양이군. 물론 도시보다 여기 지방주민들속에 숨어들기가 더 쉬울테지. 그래서 교수가 돈을 아끼지 않았구나.)

《이보시오. 룽게씨, 나에게 흥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소. 래일아침 10～11시경에 나에게 들리지 않겠소. 앉아서 이야기나 나눕시다. 전선형편에서 심각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뭔가 대책적인것을 의논해봅시다.》

《쾌히 찾아뵙겠소.》 룽게가 동의했다. 《나도 오래전부터 근심하던중이요. 지금까지 우린 함께 이겨냈는데 이 좋은 관계를 우리 리해관계에 저촉 안되게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참 옳게 말씀하셨소. 나도 그런 생각이요.》 루돌프가 교활한 웃음을 짓고 말했다.

제 26 장

와그네르는 비상전권위원의 권한을 리용하여 무엇보다먼저 련합회사지도자들이 주장하여 받아들인 성원들중에서 믿음성없는 사람들부터 모조리 제거했다. 이렇게 되여 그의 산하에는 다년간의 생활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된 신념화된 나치스분자들만이 남았다. 그다음에 교수는 전체 성원에게 병영생활을 시켰고 각자에게 개인무기를 휴대시키고 매일 3시간씩 군사훈련을 하게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이 지역수비대성원들과 함께 손에 무기를 잡고 도이췰란드제국원쑤의 손에서 실험실을 고수해내자는것이였다.

와그네르는 화학실험실사업을 재조직한데 뒤이어 《마귀의 찌아니드》 제1차 생산에 착수하려 했다. 그것은 너비 100키로메터, 종심 40키로메터의 전선에서 충분히 사용할만한 분량이였다. 무력성에 생산을 승낙해줄것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해답을 받지 못했다. 그때 전선형편은 나날이 복잡해졌다. 4월 13일에 쏘련군대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을 파시스트의 기반에서 해방하고 며칠후에는 제3제국의 수도상공에서 끊임없이 공중전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보도했다. (무력성에서

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 와그네르교수는 분개했다. (어째서 우리의 《기적의 무기》를 생산하라는 허락이 없을가?)

교수는 베를린으로 련이어 두통의 편지를 띄웠으나 해답이 없었다. 교수는 자기의 서신거래가 오래전부터 게스타포의 엄격한 검열을 받고있는다는것과 무력성으로 보낸 그의 요청서가 루돌프 임메르만의 서재에서 묵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4월하순도 좀 지나서는 무서운 소문이 떠돌았다. 베를린이 쏘련군에 의해 포위되였으며 오늘래일 공격해들어올것이라고들 했다.

병합이후에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도이췰란드사람들속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재산을 절반값으로 팔아치우거나 믿을만한 사람의 손에 넘기고는 아무것이나 잡아타고 중립국인 스위스로 이주하려고 서쪽을 향해 분주히 떠나갔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대체로 중간급 또는 최하급의 인물들이고 대은행가나 기업가들은 패망의 날을 미리 간파하고 자기 재산을 스위스은행에 오래전에 저금시켰고 자신은 바바리아로 가거나 외국에 몸을 피했다. 임메르만형제도 자기 개인의 신변에 대해 걱정할 때가 왔다. 조성된 정세를 토의한 형제는 행동계획을 작성했다. 그리하여 실업가 임메르만은 자기의 자본을 외국에 보관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취하기 위해 즉시에 스위스로 떠나가야 했으며 게스타포책임자 임메르만은 미영군이나 로씨야군이 올 때까지 린츠에 남아서 본래의 직권을 리용하여 자기 가정의 재산을 지켜내야 했다. 쮸리히로 날아가기에 앞서 큰 임메르만은 와그네르와 무릎을 마주하고 다시한번 이야기해보리라 마음먹고 그를 공장 사무실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그런데 교수는 자기의 이전 상관을 믿지 않아서인지 수비대의 무장인원 두명을 데리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음…》 서재문곁에서 교수를 맞으며 큰 임메르만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 신변호위인원을 거느리고 왔단말이지요?》

《그렇게 안할수 없습니다.》 교수가 중얼거렸다. 《전선을 이웃한 고장에서 살자니 위험이 걸음마다 따라다니는걸요.》

《저 사람들이 우리들의 대화에는 참석하지 않겠지요.》

《네, 문밖에서 나를 기다릴겁니다.》 와그네르가 말했다.

학자와 실업가는 곧 실무회담에 들어갔다.

《물론 당신은 최근사건을 꿰뚫고계시겠지요.》 실업가 임메르만이

시작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수도는 로씨야인들에게 포위되였습니다. 우리의 방위자들은 피를 흘리고있습니다. 권위있는 인물들은 베를린의 운명, 그와 함께 제3제국의 운명도 가까운 며칠내에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당신생각에 이것은 주권국가로서의 도이췰란드의 멸망을 의미하지 않을가요?》

《무엇때문에 우리 학자들이 그 문제를 두고 머리를 앓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국가, 군사활동가들이 존재하는거지요. 국가가 멸망한 책임은 학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추궁해야 합니다.》

《도이췰란드인들이 겪게 될 비극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합시다. 허지만 사람들을 죽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특히 과학적실험을 할 때 학자들이 실험용동물로 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남녀로소의 로씨야병사, 공민들을 자기 실험실에서 죽였는지 생각해보셨는지요? 당신은 로씨야사람들이 여기로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돌프 임메르만이 깨고소해하며 물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지 않소.》 교수는 태연한체하고 대답했다. 《책임을 지게 될거요. 그러나 피고석에는 실험한 학자들과 함께 실험실주인과 〈실험용동물들〉의 공급자도 나란히 앉게 되리라는것 한가지가 나에게 위안을 주지요.》

큰 임메르만은 가슴이 덜컥했으나 외견상으로는 평온한체했다.

《잘못생각했습니다. 교수님, 실험실주인은 볼쉐위크들이 여기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앉아있지 않을겁니다. 그들은 이 고장을 미리 뜰겁니다. 비행기는 이미 주문해서 비행장에 대기중인걸요. 그러지 않아도 난 비행기에 당신네 가족을 위해 빈좌석 몇을 남겨두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조건을 수락만 하면 몇시간후에는 어느 한 중립국지역에 가있게 될것입니다.》

《당신의 조건이란 뭐요?》

《당신은 〈아나르힌〉과 〈마귀의 찌아니드〉와 관계되는 모든 문건들을 가지고가야 합니다.》

《그걸 미군에게 넘겨주자는거요?》 와그네르가 물었다.

《무엇때문에 자기의 군사비밀을 적군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큰 임메르만이 빙그레 웃었다. 《우린 그 무슨 변절자도 아니고 간첩도 아

닙니다. 총통의 충복으로서 그 문건들이 원쑤의 손에 넘어가는걸 막자고 그걸 가져가려는겁니다.》
《그래요?》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중립국에 가닿은 다음에는 문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그 나라 대통령의 봉급과 맞먹는 종신보조금을 받는대신에 그걸 어느 한 화학회사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볼쉐위크들이 당신을 전범자로서 책임추궁을 하려 하는 경우에 회사는 당신에게 충분한 안전을 담보하고있습니다.》
교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비웃는 눈길로 큰 임메르만을 쳐다보며 머리를 낮추 숙이였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 베푼 당신의 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메르만씨.》 교수는 자기가 그에게 종속되여있다는것을 강조하려고 《씨》라는 존칭을 붙이며 말했다. 《허지만 당신의 제의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아나르힌〉과 〈마귀의 찌아니드〉는 오직 도이췰란드인민의 소유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일부 무책임한 인간들의 모략으로 그것을 도이췰란드를 위하여 리용할수 없었지만 때가 오면 도이췰란드에 유익한 봉사를 하게 될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확신하는가요?》
《네. 확신하지요. 금고속에 기술문건들을 보관하고있는 실험실은 믿음직한 사람들에 의해 호위되고있습니다. 그들은 문건을 믿지 못할 사람에게 내주지 않을겁니다.》
《원 참!》 큰 임메르만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비밀무기생산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일부 원료를 생산하던 노르웨이 한 공장의 경우를 상기해보시지요. 그 구역도 대단히 엄밀하게 경비했답니다. 그러나 적잠수함들은 거기에 분견대들을 상륙시켰지요. 그래서 공장과 거기서 생산된 전략물자는 다 타버리고 페허만 남았지요. 로씨야사람들이 락하산부대를 착륙시키려고 마음먹는한 당신의 실험실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수 있다는걸 고려하십시오.》
(로씨야사람들은 우리의 비밀을 알수 없기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것은 없어.) 와그네르가 생각했다. (하지만 서방동맹국들은 《아나르힌》과 《마귀의 찌아니드》를 알고있지 않는가. 오직 그자들만이 우리의 비밀을 강제로 빼앗으려 할수 있다. 지체없이 필요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일깨워주어서 감사합니다.》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교수가 말했다. 《우린 그럴 가능성도 타산했습니다. 적군에 의해 문건이 탈취될 위험이 실지로 생기면 실험실이 공중으로 날아나게 장치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게 된 큰 임메르만은 문자그대로 성이 꼭뒤까지 치밀었다. (이 노새새끼가 우리를 업어넘기려드는군!) 그는 로인을 쏘아보면서 마음속으로 욕지거리를 했다. (명예를 걸고 맹세하네만 령감은 이렇게 한걸 후회하게 될거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는걸 거절하신단말이지요?》 겨우 자신을 다잡으며 큰 임메르만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교수가 단호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나의 노력은 도이췰란드인민의것입니다. 만일 그 인민이 내 노력을 자신을 구원하는데 쓰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 인민과 함께 죽겠습니다. 민족의 리익은 모든것을 초월합니다! 떠나가십시오. 안녕히!》

교수는 《안녕히》라고 할대신 《말리지 않겠으니 어서 가시오.》라고 말해주고싶었으나 이전 주인에게 거칠게 말하는것을 삼가했다. 다만 그는 홱 돌아서서 도도하게 방을 나섰을뿐이다.

혼자 남게 된 큰 임메르만은 얼마동안 생각에 잠겨 책상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그리하여 자신을 얼마간 진정시킨 다음 전화로 동생을 불렀다.

《그래, 그가 어때요?》동생이 물었다.

《저주할놈의 광신자야. 설복도 하고 위협도 했건만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 사람을 네게 맡긴다. 우리가 그의 문건들을 손에 넣지 못할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라도 잡아오도록 노력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심은 하되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돈이나 귀중품을 아끼지 말아라. 필요하면 사람의 생명도 서슴지 말아.》

《내겐 현금이 필요해요.》 동생이 말했다.

《알고있다. 회사 출납에서 받아라. 이것만은 잊지 말아. 교수 혹은 〈아나르힌〉과 〈마귀의 찌아니드〉를 손에 넣지 않고서는 차라리 외국에 나타나지 말아. 일이 잘되기를 바란다!…》

제 27 장

쏘련군대의 위력있는 타격은 파시스트제국을 송두리채 뒤흔들어놓았다. 파쑈도이췰란드는 림종의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4월 30일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문이 온 도시에 퍼졌다. 아침에는 경계하며 소곤소곤 말하던것이 저녁녘에는 소문이 사실이라는것이 완전히 확증되였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다는것을 깨달았으며 에쓰에쓰군의 몇몇 거두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그 누구도 승산없는 싸움을 계속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모험하려 하지 않았다. 국가기구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다음날 일터에 나오지 않았다. 공장들도 련이어 기계를 멈추었다. 거대한 전선의 몇개 구역에서는 도이췰란드국방군의 후퇴가 무질서한 탈주로 번져갔다. 가장 규률있는 병사들도 기회만 있으면 전쟁터를 버리고 서쪽으로 달아나서 하루속히 미군이나 영국군의 포로로 투항하려 했다. 일부 격파된 군부대의 가련한 패잔병들은 사령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후방으로 밀려감으로써 전선지역통솔에서 난관을 조성했다. 지휘관이 없이 남게 된 소부대의 군인들은 략탈을 시작했다. 그러한 략탈자들은 두나이강의 좌측 강안에 특히 많았다. 그 부대들은 마쟈르와 체스꼬와 슬로벤스꼬령토에서 쏘련군대에 의해 격파되였다. 그들은 미군의 포소리가 들려오는 우측 강안으로 건너가려고 서둘렀다. 질서위반자단속에는 지방보위대들이 동원되였다. 롱게도 자기 민병대를 이끌고 비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군인집단을 제지시킬 목적으로 도하하는 나루배를 단속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민병대원들을 와그네르실험실이 위치한 산림보초근무에서 떼여내야 했다. 초소에는 수비대의 에쓰에쓰대원들만이 남게 되였다. 이렇듯 경비가 약화된것이 와그네르교수의 적수들에게 리용되였다. 아침 일찌기 3대의 수송비행대가 미국추격기 《무스탕그》의 비행중대를 동반하고 날아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락하산부대를 착륙시켰다. 그러나 성공리에 시작된 작전은 갑자기 락하산수들의 잘못으로 저지되였다. 락하산부대장은 실험실수비대를 단호하게 공격할대신 케이네르트와 만나 수비대가

투항하라고 설복하려 했다. 부대장은 파쑈군대의 붕괴상태를 잘 알고있었으므로 자기네의 성공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게다가 수비대의 항복조건이 상당한것으로 생각되였다. 포로된 병사는 매인당 5천마르크를 받을것이고 그의 지휘관은 그것의 십배를 받을것이다. 그런 조건이 병사들은 현혹시킬수 있었지만 지휘관은 그렇지 않았다. 자신을 고등인종의 대표자로 자처하는 나치스 케이네르트는 앵글로색손족(그는 모든 영국인과 미국인을 그렇게 불렀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리고 군사사절로서 그에게 갔던 세명의 락하산수를 그의 명령으로 미국륙전대들이 보는데서 총살했다. 군사사절에 대한 불법적인 태도는 언제나 큰 범죄로 간주된다. 배신적인 살인은 이번에도 량심있는 병사들에게서 응당한 분격을 불러일으켰다. 자기 동료들을 무참하게 처형하는것을 직접 목격한 락하산병들은 공격에로 진입했다. 도이췰란드수비대는 이러한 공격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있었고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므로 적의 첫번째 공격은 그리 힘들지 않게 격퇴했다. 그러자 미국락하산병들은 무전으로 자기 지휘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였다. 곧 서쪽에서 습격기들이 날아왔다. 비행사들은 파시스트의 방어체계를 잘 알고있는 모양이였다. 습격기들은 실험실자체에는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 않고 수비대 화점들만 솜씨있게 처리함으로써 락하산병들이 재공격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인차 공격이 뒤따랐다. 가렬한 전투는 삼십분도 채 끌지 않았는데 락하산병들의 완전격멸로써 끝났다. 그러나 도이췰란드수비대 역시 겨우 30명밖에 남지 않았다. 게다가 케이네르트를 비롯한 절반인원이 중상을 당했다.

《교수님!》 와그네르가 의사로서 케이네르트의 상처를 진찰할 때 케이네르트가 교수에게 말했다. 《우리의 처지는 대단히 엄중합니다. 적들이 상륙작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파멸이 불가피합니다.》

《당신의 생각엔 어떻게 하면 좋겠소?》 교수가 물었다.

《수비대를 전투력있는 구분대로 즉시에 교체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어디서 그런 구분대를 찾아내겠소?》

《우리의 벗인 룽게중좌에게 말씀해보십시오. 그가 도하하는 배를

단속하는 일에서 자기의 민병대를 떼여내여 우리 관할하에 넘기게 해주십시오.》케이네르트가 귀띔했다.
《그렇소. 그게 우리에겐 유일한 타개책이요. 허지만 전화선이 끊어졌소.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야겠군.》
《가십시오. 우린 저녁까지 견디여내겠습니다.》케이네르트가 약속했다.
(아니, 일은 다 글렀어.) 와그네르가 생각했다. (실험실의 운명은 결정됐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비밀문건이나 건져내야겠다.)
교수는 그럴 필요성을 미리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아나르힌》과 《마귀의 찌아니드》생산과 관련되는 일체 기술문건들과 그 독성물질의 견본들을 불수강으로 만들고 비밀자물쇠를 잠그게 된 특별한 밀페함에 차곡차곡 넣었다. 함과 내용물의 총무게가 30키로그람정도 되였다. 교수의 지시에 따라 두명의 개인호위병이 그의 사무실에서 함을 내다가 장갑차에 실었다.
《이걸 내 딸의 별장으로 실어갑시다. 떠납시다!》교수가 명령했다.
운전사가 가속기를 누르자 장갑차는 출발했다.

제 28 장

《아나르힌》과 《마귀의 찌아니드》의 비밀을 빼앗을 목적으로 벌렸던 미국항공륙전대의 작전은 파탄되였지만 국제빨찌산부대의 처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날 빨찌산부대 지휘부는 와그네르를 체포하여 슈맙스크산의 기본기지로 떠나보낼 계획이였다. 그러기 위하여 와그네르일가의 경사를 리용하기로 했다. 마그다는 자기의 생일날에 아버지를 오찬에 초대했다. 아버지는 초대를 받아들였으니 정오에는 별장에 나타나야만 했다. 그러나 불의에 벌어진 적 락하산병들과의 전투로 하여 교수는 오찬에 참가할수가 없었다. 뚜르하노브는 빨찌산의 비밀실험실파괴작전이 파탄될 위험성이 실지로 조성되

였음을 깨달았다.

《미국락하산병들이 우세를 차지하는 경우에 우리는 우리 기지를 내놓고 밤을 타서 슈맙스크산의 기본기지로 돌아가는수밖에 없소.》빨찌산대장 뚜르하노브는 정찰병들이 도이췰란드수비대와 미국락하산병들의 전투정황을 보고했을 때 말했다.

《어째서요?》 룽게가 물었다.

《쏘련빨찌산이 자기 동맹국을 반대하여 싸울수는 없소. 그러나 도이췰란드수비대가 승리하는 경우에는 빨찌산이 뻐젓이 파시스트군사대상물을 습격해도 그건 그 누구의 의혹도 자아내지 않을거요.》

《옳습니다.》 룽게가 동의했다. 《제1호전투태세를 선포합시다.》

빨찌산은 임의의 순간에 전투행동을 개시할 준비를 갖추었다. 민병의 표식을 단 한개 소대는 화물차를 타고 화학실험실이 위치하고있는 산림의 북쪽으로 기지를 옮기고 다른 소대는 별장구역에 그냥 남았다. 산림 북쪽에서 벌어진 가렬처절한 싸움은 미국락하산병들의 패배로 끝났다. 산림속으로 달아났던 일곱명의 락하산병 패잔병들은 민병으로 가장한 빨찌산대원들에게 전투도 하지 않고 항복했다. 포로들의 말에 의하면 화학실험실방위자들은 심대한 손실을 받기는 했으나 수비대 대장의 지휘하에 이삼십명으로 구성된 전투소조가 남아있다는것이였다. 비록 이 정보가 과장된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밀실험실을 파괴하려는 빨찌산의 결심을 흔들리게 하지는 못했다.

미국락하산병들은 자기들의 작전목적에 대해 마지 못해 좀 이야기했다. 《우리는 전투를 하건 하지 않건간에 이 산림 남쪽에 위치한 도이췰란드의 중요군사대상물을 점령하고 우리 지상군이 도착할 때까지 장악하고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대상물의 책임자인 나이지긋한 도이췰란드인을 생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여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매 사람은 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 락하산병이 실토했다. 다른 락하산병들도 그의 진술을 확증했다. 동맹국의 지상군이 언제 도착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래일은 넘기지 않을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니 우리 부대는 다음날 아침까지 두나이강 우측 강안에서 진

행할 모든 작전을 끝내야 한다.) 락하산병들의 진술을 듣고나서 뚜르하노브는 결심했다. (밤이 오면 우리는 실험실을 점령하고 폭파시켜야 한다. 바르쑤꼬브장령의 지령대로 이 작전을 끝내고 우리는 공격해오는 쏘련군대에 합세할수 있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전투과제를 수행못했다고 나무라지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아나르힌》이나 《마귀의 찌아니드》의 비밀을 장악하기전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앞으로 이 유독성물질생산을 할수 없다는 담보는 없는것이다. 아니, 실험실과 함께 이 무서운 무기의 생산을 부활시킬수 있는 모든것을 소멸해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낼것인가?) 그의 생각은 병사들을 태운 장갑차가 별장으로 다가온다는 감시병의 목소리에 의하여 중단되였다. 모두 창문가로 달려갔다. 장갑차는 천천히 그것도 술취한 운전사가 운전하는듯 갈지자형으로 다가왔다.

《오래동안 기다리던 우리 손님이 오는것 같소.》 룽게가 야전용망원경을 눈에 가져다대며 말했다.

장갑차안에는 정말 운전사곁에 와그네르교수가 앉아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반쯤 감겨있었다. 교수는 졸고있는듯싶었다. 그런데 룽게를 보자 대번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룽게가 철문을 열어주며 정중히 맞아들였다. 《차에서 내리시도록 제가 돕지요.》

《음, 좀 도와주오. 그 저주할놈의 양키들이 두 차례나 공중에서 우릴 쐈소. 난 다리를 부상당하고 운전사는 왼손에 관통상을 입었소. 허지만 이 함을 림시 어디에 숨기겠는지 믿음직한 장소부터 가르쳐주오.》 교수는 불수강으로 만든 함을 가리켰다.

《거기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룽게가 아주 순진한 얼굴을 하고 물었다. 《인차 상하는 식료품이면 움으로 날라다가 얼음에 재웁시다.》

《식료품이 아니요.》 와그네르가 초조해서 머리를 가로저었다.

《거기에 다년간의 고통스러운 내 노력의 산물이 전부 들어있소.》

《그럼 함을 교수님의 방에 옮겨갑시다. 마그다는 두나이강쪽으로 창문이 난 구석방을 교수님의 방으로 차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구와 식기, 책과 필기도구들을 가져다놓았습니다.》

교수는 동의했다. 룽게의 사람들은 교수를 그 방으로 안내해가고

교수의 호위병들은 함을 날라갔다.
《이젠 마그다를 불러주시오.》 교수가 부탁했다.
《마그다는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한시간전에 린츠부근에 미국땅크들이 나타났다는 전화통지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전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업상 의무를 수행하려고 남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환니를 부릅시다. 환니는 전화직일을 서고있습니다.》 룽게가 제의했다.
《직일을 서다니?》 와그네르가 놀랐다. 《그래 그 애가 이젠 게스타포에 근무하지 않는단말이요?》
《책임자와 다툰것 같습니다. 어제 환니는 게스타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환수로 민병에 받았습니다.》
《그건 참 잘되였군.》 교수도 찬성했다. 《임메르만형제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요. 민족의 리익보다 자기 주머니를 더 생각한단말이요. 당신의 부대가 호위하던 그 숲속에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오?》
《지방자위대 참모부의 지시로 저의 부대는 강을 건너오는 배들을 단속하고있었기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알지 못합니다.》
룽게가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일인즉은 이렇게 됐소.》 교수가 이렇게 허두를 떼고 미국락하산병들과의 전투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적들은 우리의 비밀을 탈취하려고 꾀하였소. 그러나 수비대의 영웅들은 미연에 방지했소. 최근에 벌어지는 사태를 분석해보면 적 락하산병들의 공격이 우연한게 아니요. 이 공격은 우리의 비밀에 대해서도 그것을 감추고있는 지대의 호위와 방위체계에 대해서도 잘 아는 권위있는 인물들이 면밀히 준비한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임메르만형제만이 알고있소. 모든 점으로 미루어보아 미리 외국으로 달아난 형은 이 륙전대작전을 준비하고 동생은 자위대무력이나 도이칠란드제국의 정규군이 케이네르트의 수비대에 방조를 주지 못하도록 한것 같소.》
《그렇게 짐작할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이야 그 사람들을 책망할수 없지요.》 룽게가 대꾸했다.
《증거가 있소. 죽은 락하산병부대장의 전투가방속에서 바로 이 문

건이 나타났소.》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자기 사진을 꺼냈다. 사진 뒤면에는 한사람의 필체로 도이췰란드어와 영어로 《실험실책임자 와그네르교수. 반드시 산채로 잡아야 한다.》라고 씌여있었다.
《이 필체는 내가 잘 아는거요. 아돌프 임메르만이 쓴거요. 그런데도 임메르만형제가 저주로운 적들의 륙전대작전에 직접 참가한 사실을 의심할수 있소?》와그네르가 악의에 차서 눈을 번쩍이며 물었다.
《네, 그건 정말 배신에 가까운 행동이군요.》 룽게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가깝다〉는건 당치 않은 말이요. 배신은 어디까지나 배신이라고 해야 하고 적은 적이라고 해야 하오. 임메르만형제는 도이췰란드민족의 적이요. 오늘 사건이 있은 후 나는 그자들을 내 손으로 처단할 작정이요.》
《전 지금 루돌프 임메르만이 감히 여기로 온다면 여기서 벌어질 장면들을 상상해봅니다.》 룽게가 웃기 시작했다. 《그 사람도 오찬에 초대되였거던요.》
《난 내 개인호위병중의 에쓰에쓰대원들에게 명령하기를…》
 교수는 시작한 말을 채 끝맺지 못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룽게씨, 당신에게 전화가 왔어요.》환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한테서 왔소?》
《루돌프 임메르만한테서요.》 환니가 대답했다.
《가겠소.》 룽게가 말하고 방에서 나갔다.
《그 악한에게 말하오. 오찬회 초대는 취소한다고.》와그네르가 나가는 사람의 등뒤에 대고 소리쳤다.
 전화대화는 5분가량 계속되였다. 임메르만게스타포책임자는 처음에 와그네르교수의 소식을 모르는가고 물었다.
《교수는 우리한테 와계십니다.》 룽게가 대답했다.
《될수록 빨리 그자를 체포하여 나에게 끌어오시오.》게스타포책임자가 지시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그래 린츠시를 미국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는걸 모르는가요?》 룽게가 물었다.

《알고있소. 난 지금 시내가 아니라 비행장에 와있소. 당신네한테서 차로 십분이면 족하오. 민족의 원쑤로서 체포하시오. 우리의 약속을 상기하시오.》
《아무튼 그렇게는 못하겠소.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지 못하게 할겁니다.》
《별장에는 외인들이 많소?》
《로동자들외에 교수의 운전사와 또 민병 두명이 있습니다.》
《15분후에 당신들에게 가겠소.》 수화기에서는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게스타포책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룽게, 듣소?》
《듣기야 듣지요. 헌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미룰수는 없을가요? 공중에는 적비행기들이 많이 떠있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행인들까지 뒤쫓고있습니다. 교수의 차도 사격을 받았는걸요.》
《어떻게?》
《본인은 다리를 부상당하고 호위병들은 죽었습니다.》
《거 참 잘됐군!》 게스타포책임자가 통쾌하게 소리쳤다. 《그자를 붙들어두시오. 만일 그자를 비행장까지 무사히 끌고가게 된다면 난 당신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겠소.》
《그건 다른 문제지요.》 룽게가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 《오십시오. 교수는 제 자리에 있을것입니다.》
이 대화는 뚜르하노브와 빨찌산부대의 다른 지도자들이 있는데서 진행되였다.
《동무는 교수를 진정시키시오. 우린 게스타포책임자를 성대히 맞을 준비를 하겠소.》 뚜르하노브가 룽게를 보고 말했다. 《와그네르의 호위병들은 묶어서 지하실에 처넣으시오. 대포는 대문을 묘준할것, 기관총수들은 자기 위치를 차지할것, 민병복장을 한 빨찌산 두명만 남을것. 구령이 없이는 발사하지 말것. 동무들, 자기 위치롯!》
《무엇때문에 그런다오?》 룽게가 방에 돌아왔을 때 교수가 물었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싶어합니다. 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승인했소?》
《그 사람은 승인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호위병들을 부르오. 난 그자와 만나고싶지 않소.》 와그네르가 성이 나서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임메르만도 그의 심복들도 당신의 의사를 거역하고 이 방에 들어오진 못할것입니다. 전 이미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룽게가 단언했다.
《참 다행이군!》 교수가 안도의 숨을 쉬였다. 《그자가 어디서 전화를 걸었소?》
《비행장에서요. 비행장에 대기시켜놓은 비행기가 리륙준비를 하고있답니다. 교수님도 붙들어가지고 가려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어디루? 미국놈한테루?》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교수님은 그 사람이 당신을 적들에게 끌어가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와그네르는 떠보려는듯 룽게를 쳐다보았다.
《아니? 난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겠소.》 그는 이것을 자신에게 확신시키려는듯 조용히 말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침이면 미국사람들이 여기로 오겠는데 무엇때문에 모험적인 비행기려행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와그네르는 확실히 룽게에게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으나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
교수는 두차례나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상한 다리를 아프게 할가 두려워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
《망할놈의 상처라구야. 날 아예 침대에 묶어놓으려는 모양이지.》
아파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교수가 말했다. 《난 아직 한곳에 더 가야 하겠소.》
《어디말입니까?》 룽게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호수에. 우리가 겨울에 삼치를 낚던 일이 생각나오?》
룽게는 일부러 웃어보였다.

《교수님은 대단한 익살군이십니다.》 그가 말했다.
《롱담이 아니요.》 와그네르가 투덜거렸다.
《어째서 롱담이 아니란말입니까? 그래, 이런 시국에 고기잡이에 대해 생각이나 할수 있습니까?》
《난 고기잡이하러 가려는게 아니요. 호수밑에 저 함을 감추어야 하오.》
《무엇때문에 교수님이 손수 그런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민병들 아니면 교수님의 호위병들을 보냅시다. 그들은 밤에 함을 날라다가 호수속에 집어넣을겁니다. 당신의 귀중품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호수밑바닥에 고스란히 놓여있으리란건 확신합니다.》
《이런 일을 파악없는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되오. 이보오, 룽게, 내 혼자 함을 호수로 가져가게 도와주오. 내가 가리키는곳에 함을 던져주오. 비밀에 대해서는 후날 이야기해주겠소. 그 비밀에 도이췰란드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소.》
《좋습니다. 날이 어둡기 시작하면 호수로 나갑시다. 지금은 푹 휴식하십시오. 환니를 부를가요?》
《그래, 불러주오. 처맬것과 진정제를 아무것이나 가져오라고 하오.》
환니는 지휘부의 지시를 멋들어지게 수행했다.
환니는 교수의 상처를 세심히 닦아주고 새 붕대를 감아준 다음 수면제를 주었다.
환자가 잠들었을 때 그의 몸에서 작용력이 강한 독약암풀과 개인용무기를 압수했다.
그러는사이에 빨찌산대원들은 와그네르의 방에서 그의 《보물》이 든 함을 날라내갔다.

제 29 장

루돌프 임메르만은 배신의 대가로 룽게에게 《문자그대로 아낌없이 돈을 주겠다.》고 한 자기의 약속이 마술같은 힘을 내리라는것을 철석같이 믿고있었으며 마그다의 별장에서 그를 위해 덫을 놓고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으므로 클랴인 미켈 책임예심원 한사람만 대동하고 거기에 나타났다. 룽게는 미소를 짓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 미소를 상대방은 기쁨과 굴종의 표시로 받아들일수 있었다.

《늙다리가 어떻소?》 게스타포책임자가 물었다.

《장에 갇힌 새신세지요.》 룽게가 대답했다.

《나를 그자에게 데려다주오. 친구, 자넨.》루돌프는 클랴인 미켈을 보고 말했다. 《여기 좀 있소.》

클랴인 미켈은 차옆에 있겠다고 말없이 동의했다.

친절한 주인이 루돌프를 별장안으로 안내했다. 가는 도중에 에쓰에쓰장교복에다 이전 자기 군사칭호를 단 두 사람, 헤르베르트 그로쓰와 꾸르트 리베르만이 그들에게 합류했다.

《민병소대장들입니다.》 룽게가 그들을 소개했다.

《필요하면 이 사람들이 당신을 비행장까지 안내해줄겁니다.》

《기꺼이 함께 가겠소.》 루돌프가 동의했다.

《그럼 난 떨어지겠습니다.》 룽게가 말했다. 《꾸르트, 대좌님에게 우리 수인을 보여주시오.》

그로쓰가 열쇠로 문 하나를 열고 루돌프를 방안에 들여보냈다.

침대에는 수갑을 찬 사람이 누워있었다. 그 사람이 와그네르임을 알아본 루돌프는 악의에 찬 웃음을 지었다.

《어르신네. 걸려들었구만!》 루돌프가 이새로 내뱉았다. 《자는구만. 자, 이젠 일어나!》 그는 자는 사람의 어깨를 체면없이 틀어쥐면서 덧붙였다.

자던 사람은 깨여나서 눈을 뜨더니 죽을 지경으로 놀랐다. (이젠 불들렸구나.) 가슴속이 저렸다. (누가 나를 배신했는가? 정말 룽게가 그랬을가?)

《이젠 문제가 빠개졌소. 교수님, 당신은 로씨야사람들에게 달아나려 했는데 함정에 걸려들었군. 우리 임메르만형제는 당신이 〈아나르힌〉과 〈마귀의 찌아니드〉의 자료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대주면 당신을 아직은 구원해줄수 있소.》

교수는 불수강으로 만든 함이 놓여있던곳을 쳐다보다가 함이 그 자리에 없는것을 보고 급기야 사태의 진상을 알아차렸다.

《하하하!》 교수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다. 《하하하! 이 머저리를 보라구. 멋들어진 장면인걸!》

《닥쳐!》 꼭뒤까지 성이 치민 루돌프가 아직 영문을 모르고 소리질렀다. 《비밀문건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

교수는 계속 웃어대면서 자기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손짓했고 게스타포책임자는 그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이때 문이 열리고 쏘련대좌의 제복을 입은 뚜르하노브가 도이췰란드어로 말했다. 《희극을 걷어치우시오!》

루돌프 임메르만은 곧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일이 글렀음을 깨달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가 권총집에서 빠라벨룸권총을 미처 꺼내기도전에 빨찌산대원들이 그의 두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때 다른 빨찌산대원들도 방으로 들어왔다.

《자동차결에 남아있던 파시스트추물은 탈주를 시도했기때문에 살해되였습니다.》 쏘꼴로브가 보고했다.

《대좌동지, 어떤 지시를 주시겠습니까?》

《승리를 축하해요!》 환니가 뚜르하노브를 포옹하며 소리쳤다.

《방금 수비대의 패잔병들이 전투에서 소멸되고 실험실의 폭파준비가 되였다는 통보가 왔어요.》

《시달된 계획대로 행동하라고 그들에게 전하시오.》 뚜르하노브가 명령했다. 《짐싣는 일에 착수합시다. 해가 진 다음에 본거지로 떠납시다.》

《이 량반들은 어떻게 할가요?》 그로쓰가 와그네르와 루돌프를 손가락질하면서 물었다.

물론 교수는 이전에도 죽음에 대하여 한두번만 생각하지 않았으나 언제인가 장래에 있을 불가피한 종말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다.

지금은 죽음의 할미가 바로 자기 곁에 있는듯싶었고 임의의 순간에 뼈가 앙상한 손으로 자기의 목을 틀어잡을것 같이 생각되였다.

그는 자기가 끝내지 못한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며 자기는

아직도 더 오래 살아야 하며 자기 생명이 이 대좌의 손에 달려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대좌님!》 그가 뚜르하노브를 보고 말했다. 《나는 로씨야에서 나서자랐습니다. 그래서 로씨야인민을 잘 알지요. 이 선량하고 용감하고 재능있는 인민은 언제나 패전자들에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로씨야인들의 이 경탄할만한 특질은 볼쉐위크들에게도 례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이 바라는게 뭐요?》 뚜르하노브가 물었다.

《내놓고 말하오.》

《내 목숨을 살려주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여기에 가져온 그 비밀무기를 받게 될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함에 있는걸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가 수긍했다.

《함이 벌써 우리 손에 들어와있소.》 대좌가 웃어보였다.

《그것만으로는 의의가 없습니다.》 와그네르가 반박했다. 《함은 비밀열쇠로 잠그었습니다. 열쇠번호는 내가 알고있는데 그것을 모르고는 함을 열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함을 톱으로 켜거나 다른 방법으로 열려 할 때에는 그속의것이 폭파되여 순식간에 재로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울것이 없소. 쏘련은 화학무기나 세균무기를 금지할것을 주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주장할것이요. 우리는 〈아나르힌〉도 당신의 그 〈마귀의 찌아니드〉도 필요없소.》 뚜르하노브가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러면 당신들이 어째서 그렇듯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쫓아다녔는지 모르겠군요.》

《그것이 미래의 복수주의자들이나 다른 전쟁방화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거요.》

교수는 자기의 기도가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죽고싶지는 않았다. 그는 전승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자비를 빌리라 마음먹었다.

《과학자들이 쏘련과 같은 선진적인 국가의 적으로 될수는 없습니다. 나는 학자이며 전세계가 나를 알고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재능을 바치겠습니다. 제발 나

를 죽이지 마십시오!》와그네르가 공포에 떨며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쏘련빨찌산은 무장한 적들만을 소멸하오. 당신은 무장해제되였기때문에 우린 당신을 포로하겠소.》
뚜르하노브가 말했다.《그러나 반항하려는 시도가 보일 때는 즉시에 가장 준엄한 처벌을 받게 되리란걸 잊지 마시오.》

제 30 장

국제빨찌산부대가 두나이강 좌측강안으로 건너갔을 때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다. 길을 떠날 때가 되였다. 그러나 아직 지시가 내리지 않았다.
산림기슭에 서있는 뚜르하노브와 다른 지휘관들은 서쪽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있었다.
《제길할, 폭발물이 동작하지 않았단말인가?》쏘꼴로브가 흥분하기 시작했다.
《십분만 더 기다려봅시다.》룽게가 그를 위안했다. 《화학폭발물은 가끔 이러군하지요.》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거기 가서 고장을 퇴치하겠습니다.》그로쓰가 말했다.
다행히도 일은 순조롭게 풀리였다. 3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쪽하늘이 노을처럼 빨갛게 피여오르더니 어마어마한 폭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와그네르의 실험실이 저세상으로 갔소.》쏘꼴로브가 즐겁게 미소를 지었다.
《승리를 축하하오!》뚜르하노브가 자기 동지들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사령부의 과업을 완전히 수행했소. 이 야간행군이 우리의 승리적행군의 마감으로 되게 합시다. 앞으로, 동지들!…》
붕괴된 파시스트패잔병들은 체스꼬와 슬로벤스꼬국경으로 물러나

《중앙군》의 무리에 합세하려 했다. 그래서 철도와 자동차길 할것없이 린츠와 체슈께—부데이위쩨시어간에는 거의 중단없이 군인들의 대렬이 흘러갔다. 빨찌산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위험계선을 밤을 타서 넘어가야 했다. 낮에는 수색견같은 파시스트놈들이 쉽게 자기들을 알아차릴수 있었다. 동시에 도이췰란드국방군 부대들과의 공개적인 충돌이 야간에도 빨찌산에게는 아무 리로운것이 없었다.

속임수가 그들을 구출해주었다. 뚜르하노브의 명령에 의해 빨찌산들이 탄 화물차들은 줄을 짓고 늘어선 어느 한 도이췰란드자동차대렬의 꼬리를 슬쩍 물고 얼마동안 그 종대와 함께 나아갔다. 그후 남모르게 종대에서 빠져나와 자동차길에서 농촌길로 차머리를 돌리고 아침녘에는 무사히 지정된 장소인 싼크트 뻴찌옌시서쪽에 림한 산림쪽으로 다가갔다. 여기서 그들은 제6근위땅크부대와 만나게 되여있었다.

숲이 상당히 우거진 야산에 자동차들을 위장시킨 빨찌산들은 원형방어태세를 취하고 야전보초를 세운 다음 달콤한 새벽잠에 빠져들었다. 오월의 아침은 피로한 병사들을 잠에 곯아떨어지게 했다. 날씨는 기막히게 좋을것 같았다. 온 산림에서 새들이 지저귀였다.사람들이 즐겨 《뢰성》이라고 부르는 붉은가슴방울새들의 지저귐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거기에 우아한 티티새의 노래소리가 합류했다. 메닭들이 푸드득거리고 접쟁이 뻐꾹새는 뻐꾹뻐꾹 울어댔으며 관모를 쓴 멋쟁이 여새는 휘파람을 불어댔다. 그러나 조류들의 가락맞는 합창은 급작스레 뚝 그치고 숲속에는 또다시 정적이 깃들었다.

(정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가?) 뚜르하노브가 천천히 일어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생각했다.

마치 그의 의아해하는 물음에 대답이라도 주려는듯 멀리서 요란한 포사격소리가 들려왔다. 포탄은 어딘가 아주 가까운곳에 떨어졌다. 인차 맑은 하늘에는 고속도폭격기들이 나타났다.

《이건 우리의 비행기 〈뚜뽈레브〉이다!》 빨찌산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숲가에 이른 폭격기들은 오른쪽으로 기수를 돌리더니 아주 가까운곳에 폭탄을 떨구었다. 하늘에서는 고사포탄들이 터졌다. 그러나 비행기들은 상하지 않은채 온 길을 도로 날아갔다.

그러는 사이에 전투의 소음은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가까와왔다. 이미 보총,기관총사격소리가 또렷이 들려오고 이어서 발동기소리도 들려왔다. 야전망원경으로는 전투가 진행되는 넓은 전쟁마당도 잘 보였다. 처음에 그곳에는 퇴각하는 도이췰란드군의 운수종대가 나타났다. 그뒤를 쏘련습격기들이 따라가며 자동차들에 무서운 타격을 안겼다. 여기저기서 유조차들이 불타고 화물차들이 폭파되였다. 인차 보병산병선이 나타났다. 산병선은 각종 무기로 방어하면서 운수종대가 간 그 방향으로 퇴각했다.

(적방어선이 무너진 모양이구나.) 뚜르하노브가 짐작했다. (왼쪽으로는 미국군대가 오고 오른쪽으로는 우리 보병이 오는군. 도이췰란드군에게는 무기를 놓고 투항하는 한가지 출로가 있을뿐이다.)

정말 일은 그렇게 되였다. 여기저기서 도이췰란드보병들은 무기를 던지고 두손을 들고서 진격하는 쏘련군대를 향하여 엄페물에서 나왔다.

그러나 도이췰란드의 전투대오가 빨찌산들이 음페해있는 숲가로 접근해왔을 때 한개 보병집단이 퇴각하는 기본대렬에서 떨어져나와 전진하는 적군의 무서운 화력으로부터 피하려는듯 재빨리 숲쪽으로 향했다. 빨찌산들은 숲가에 대고 기관총을 휘둘렀다. 거기에는 적에게 무리죽음을 줄 준비가 되여있는 자동보총수들이 줄을 짓고 늘어서있었다. 그러나 사격은 못하고말았다. 몇대의 땅크가 도이췰란드병사들을 바투 추격하던 쏘련보병들을 앞질러 나타났다. 땅크들은 도이췰란드군 구분대를 숲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기관총과 다른 무기로 개활지대에 있는 적들을 쏘아갈기기 시작했다. 그때 석대의 땅크만은 포위된 도이췰란드보병을 소멸하는데 참가하지 않고 앞으로 뚫고나와 곧장 숲쪽으로 향했다.

《신호!》 뚜르하노브가 감시병들쪽에 대고 소리쳤다.

맑은 하늘로 단번에 세발의 붉은 신호탄이 올랐다. 전번 무전련락을 통해 아군땅크가 나타났을 때에는 빨찌산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위치를 알리게 되여있었다. 그 신호에 대답하여 세발의 푸른 신호탄이 올랐다. 그리고는 땅크들이 빨찌산들의 곁에서 멈춰서고 뚜껑문이 열렸다. 그리고 잠시후에는 모든 땅크병들이 벌써 별동대원들을 얼싸안았다. 땅크모와 쪽모자, 둥글

모자들이 공중으로 날라올랐다.
《붉은군대 만세!》빨찌산들이 소리쳤다.
《쏘련빨찌산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땅크병들이 답례했다.
그러는 동안에 나머지 땅크들은 포위된 도이췰란드군을 완전히 소멸하고 숲가로 다가왔다. 승리의 환희를 함께 나누었다. 기쁜 상봉을 기념하여 빨찌산과 땅크병들은 기념품을 나누고 서로 얼싸안았으며 기쁨에 겨워 구호를 웨치고 노래를 불렀다.
뚜르하노브에게 땅크병작업복을 입은 앙바틈한 사람이 다가갔다. 《대대장 웨르쉬닌소좌입니다.》그는 자기 소개를 했다. 《나는 당신의 부대를 만나서 믿음직하게 호위하여 싼크트- 뻴찌옌시주변의 안전한 지대로 안내해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빨찌산운동사령부 대표가 당신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뚜르하노브가 대답했다. 《당신을 지체시키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안내자를 붙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지정해준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당신은 퇴각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십시오.》
《자동차가 몇대나 됩니까?》소좌가 물었다.
《화물차 여섯대, 승용차 두대, 장갑차 한대입니다.》
《당신들을 호위하는데 땅크 두대를 드리겠습니다. 한대는 종대앞에서 가고 다른 한대는 뒤에서 가게 하십시오. 두시간후에는 제 자리에 갈것입니다.》
도로는 군인들, 운수종대, 위생차, 지방주민들의 수레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소용돌이속에 말려들었는지 알수 없는 소떼들로 차고넘쳤다. 군대포로종대와 군의소까지 제발로 걸어갈수 있는 쏘련부상병의 대렬이 이 란장판을 어기여갔다. 나루터에는 갖가지 운수수단들로 꽉 찼다. 그래서 국제빨찌산부대는 지정된 장소까지 웨르쉬닌소좌가 예언한대로 두시간후가 아니라 저녁녘에야 도착했다. 땅크병들은 자기의 피보호자들을 학교건물로 안내하여 지방간부들에게 인계했다. 그런 다음 뜨겁게 작별하고 전쟁터의 자기 동지들을 찾아떠나갔다.
자동차의 짐을 부리우고 대원들을 학교교사에 자리잡게 하는 일은 쏘꼴로브에게 위임하고 뚜르하노브는 빨찌산운동사령부 대표를 찾아갔다. 대표가 학교 교장실에 자리잡고있다고 알려주었다. 거기서 두사람이 처음으로 만났다. 흔히 그렇듯이 그들은 처음에 서로 자기

소개를 하고 포옹한 다음 곧 사업토의에 들어갔다. 뚜르하노브는 과업을 수행했으며 부대는 사령부의 앞으로의 지시를 기다린다고 보고했다.
《새 지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령부대표가 그에게 봉랍을 한 봉투를 주면서 말했다. 《지시문을 료해하는동안 당신과 상봉한 내용을 참모부에 알리겠습니다.》
지시문에서는 뚜르하노브에게 부대지휘를 꼬미싸로브에게 넘기고 꼬미싸로브는 사령부대표와 함께 부대를 해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자신은 쏘꼴로브와 환니와 함께 체포된 와그네르교수와 루돌프 임메르만, 도이췰란드파쑈실험실의 비밀문건이 든 함을 가지고 즉시에 특별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날아오라는것이였다.
사령부대표가 무전을 끝내고 돌아왔다.
《모스크바에서는 당신을 비행장에서 마중할것입니다. 거기서 전범자들과 그의 짐과 헤여지게 됩니다. 중앙군대문화회관 려관에서 류숙하게 됩니다. 이건 숙박등록을 위한 개인증명서들입니다.》 그는 세개의 빨간 수첩을 대좌에게 내주며 말했다.
뚜르하노브는 첫번째 증명서를 펼쳤다. 그것은 쏘꼴로브소좌의 이름으로 된 증명서였다.
《쏘꼴로브가 소좌란말입니까?》 대좌가 놀랐다.
《예, 당신들의 군사칭호는 모두 승급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소장동지!》
그리고 대표는 가명대신 소장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난 〈뚜르하노브〉라는 이름에 정이 들었습니다.》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 이름과 헤여지기가 아쉽습니다.》
《어쩌는수 없지요. 전쟁이 끝나면 그 이름과 관련한 일부 사건들이 우리의 사사로운 일에만 남게 되겠지요. 당신과 동행하는 녀동무도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 녀자는 이젠 환니 와그네르가 아니라 상위 고르노쓰따예와 파이나 아르까지예브나입니다. 바르쑤꼬브장령은 그 녀동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를 찾았는가요?》
《예, 그 사람이 당신들을 비행장에서 마중할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두사람만 알고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대와 작

별하기에 앞서 외국인 빨찌산대원들이 어떻게 되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우리는 해방전쟁의 영웅들이 영원히 우리의 벗으로 남아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스크바－쎌리쒸시
1969～1972년